

제 4 부 사회 생활

제4부 사회생활

I. 가정생활 및 친족생활

1. 가정생활

가정생활 분야는 편의상 크게 가족관계와 가족행사로 나누어 기사를 분류했으나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분석은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본다. 먼저 일기의 가족 범위에는 신권식씨 및 부인의 직계, 그리고 형제자매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 형제자매들은 결혼 이후 분가하여 따로 가족을 구성한 다음에는 친족관계로 넣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내용이 이어지는 까닭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대로 가족 관계 속에 포함시키게 되었음을 밝힌다.

일기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터뷰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신권식씨는 1943년, 14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1945년 지금의 계모를 맞게 된다. 신씨 형제는 동복(同腹)만 3남 2녀로 신씨가 맏이다. 계모에게서 난 이복형제는 7남매나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신씨 형제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게 된 점이 있다. 1956년, 신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집에서 분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아버지가 새로 집을 지어 나간 것이다. 신씨의 증조부에게는 후취의 아내가 있었고, 조부와 결끄러운 관계였음을 고려해 장남인 조부를 분가시켰다. 그리고 증조부모의 부양은 둘째 손자였던 신씨의 아버지가 맡게 되었다. 다시 신씨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는 마을 내 판 곳에 새로 집을 지어 나가고 자연스럽게 증조부모가 살던 옛집에 신씨가 신흥살림을 차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신씨의 조부

는 시집온 큰며느리인 신씨의 큰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해 고잔리에 사는 셋째 아들이 모시다가 임종에 가까워 큰집으로 모셔오게 된다. 이러한 윗대의 가족관계는 신씨의 마을 생활에 여러 모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친가와외의 관계에서 신씨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다. 장남으로서 신씨는 청년기에 아버지와 계모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설 자식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친형제들이 사랑과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이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복형제들에 대한 유감은 보이지 않고 같은 형제로서 여기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동복형제에서 2명의 여동생 중 한 명("무려니에")은 1958년에 이미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로 출가하였고, 막내 여동생은 부모 집이 아니라 신씨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생산 및 가사 노동에서 여동생의 일손은 중요했고 이에 따라 그녀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모든 준비과정과 비용도 당연히 신씨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동생들과의 관계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쉽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비쳐지고 있어 형제간의 애정이 각별함을 알 수 있다. 시기마다 형제들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비쳐질 때도 있으나 서울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중요한 문제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결국은 형제로 나타난다. 혼인과 같은 가정 내의 중요한 행사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동생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부모 및 형제 상호간의 가족간 갈등은 많이 해소되고 개선되었다.

혼인과 함께 신씨는 아버지로부터 150평짜리 닷 마지기의 천수답을 상속받았다. 신씨는 한동안 농사와 대치 취직이라는 두 길에서 망설였으나 곧 농사에 전념하며 장리밭을 농으면서 돈을

모아 조금씩 땅을 사고 대곡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집을 짓고, 고향의 살림집도 새로 짓게 된다. 결혼 첫 10년 기간에 신씨는 아내와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고 있다. 일기에 나온 신씨는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 돌보는 아버지로 비쳐진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로서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이 시작되고 끝내 손찌검을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이런 폭력적 행위에 대해 신씨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민망한 상황으로 인식하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

남편의 생일에는 언제나 부인이 떡, 두부, 고기 반찬 등 특별한 생일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이 술잔을 올리는 등 챙김을 받고 있다. 나중에는 동갑인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씨

는 아내의 생일을 기억조차 못하고 “아내의 생일에는 늘 싸움이 벌어진다”는 신씨의 표현처럼 그 밑바탕에는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의 불만이 깔려있다. 이는 가정생활의 중심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신씨에게 놓여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 부인은 꾸준히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특별한 음식을 통해 이 날을 기념함으로써 아내가 기대하는 결혼생활과 신씨의 그것이 서로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처의 형제 및 부모와의 관계 역시 친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긴밀하다. 장인은 이미 돌아간 상태이며 처남이 두 명, 출가한 처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가의 중요 사안에서 신씨가 담당하는 역할은 형제로서, 자식으로서 친가와 마찬가지로 다. 나이 어린 처남의 유학 문제, 결혼, 분가 과정에서 신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왕래도 빈번하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

사진 27. 신권식씨 혼례(1956년 4월 30일, 음 3월 20일)



사진 28. 신권식씨 혼례 때 처남과 함께



는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왕래하고 있어서 처가 역시 중요한 가족관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가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거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버지의 대응에 따른 것인데, 후처를 들이면서 어린 아이들의 외가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외할머니 상(喪)에도 신씨의 아버지는 사위로서 참여하지 않았으나 신씨에게 조문을 다녀오게 하고 부조금도 줌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년 만에 이모, 외삼촌 등 외가의 친척들을 만나게 된 신씨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위세 있는 가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리적인 격려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삼촌 환갑에 신씨가 부조한 금액은 2,000원으로 당시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보여준 금액에 비교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으나, 신씨는 약소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아 외삼촌의 사회적 위세에 대한 신씨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외가와 외가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됨

으로써 신씨는 어머니의 상실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씨의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는 가부장적 가장으로서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남성중심의 일반적 경향 속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부모 사랑에 대한 갈망, 같은 처지의 형제들에 대한 애뜻함이라는 심리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새로 꾸린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안정되고 풍족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성실한 노력과 의지가 잘 나타나 있어서 성취동기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2. 친족생활

친족생활에서는 신씨네 친가와 처가, 외가와 외가의 관계를 모두 포함해서 살펴보고 한다. 먼저 외가와 관계는 1943년, 신씨가 14살 때 어머니가



지도 3. 1900년대 고잔리(오만본의일지형도)

돌아가신 이후로 끊어졌다가 외조모의 초상을 계기로 이어져 외삼촌 환갑 및 동생들의 혼인 등 집안 행사를 계기로 왕래가 계속된다. 안정적이고 부유한 외가의 살림살이는 신씨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친가가 있는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는 고령 신씨 삼괴당파의 종택이 자리하고 있다. 삼괴당은 신숙주의 장남 주(澍)의 셋째인 종호(從濩)로 이곳의 신씨들은 ‘도마지 신씨’로 불리기도 한다. 1900년대에 제작된 <오만분의일지형도>를 보면 현재 고잔리의 전평과 중평 지역에 도마지(桃麻池)라는 지명이 있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신씨네의 생활권이 펼쳐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대곡일기의 배경인 대곡(大谷)마을은 주민들 거의 전부가 8촌 이내의 신씨 일가들로 구성된 동족마을로 신씨의 증조부 때 고잔리에서 분가한 지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있던 두세 가구의 윤씨들은 처향(妻鄉)에 정착한 신씨네의 외척 집안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신권식씨의 마을생활은 혈연공동체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중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 구성원끼리의 협력과 갈등이 있는 한편으로, 정치적·대외적 문제에서는 집안의 사회적 위세를 확보하기 위해 일가의 협력을 도모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속에서 신씨는 논물대기나 일날을 잡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낮은 향렬로 인해 친족관계에서 사회적 서열이 낮고 또 연령상으로도 30대 초중반의 젊은이였기 때문이다.

신씨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3,4촌은 가까운 집안이며, 그 외에는 ‘일가’로 인식되고 있다. 아마도 마을 주민 전체가 동족원이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더 좁은 범위의 혈연자들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친족관계에서는 마을 내 여러 일상적 활동에서 갈등과 협력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이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제사나 사초, 시제 같은 숭조(崇祖) 활동을 통해 끈끈한 친족관계와 소속감이 유지되고 있다. 신씨와의 인터뷰에서 재확인된 사실이지만 이 마을에서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 즉 동족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마을 내 일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조상 숭배와 관련된 활동들은 평생의례를 통한 왕래와 함께 친족활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봄에는 사초를 하고 가을에는 시제(시향, 시사로도 표현됨)를 올림에 있어서 종족집단 내 성인 남성은 모두 참가하지만, 실제로는 한 집에서 대표 한 사람씩만 참가하고 있다. 사초는 대개 마을 인근에 있는 가까운 조상들의 묘에서 행해지는데, 소종이 모두 참여하지만 무덤 주인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시제는 고령신씨 중시조라 할 수 있는 보한재 신숙주의 의정부 묘소에 대한 참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활동 범위가 넓다. 대곡마을의 신씨들은 증조부 이하 여러 묘소의 사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이장이자 신씨네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다.

명절제사에는 제사가 분기(分岐)된 증조부의 자손들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관들은 그대로 여러 집안의 제사에도 돌아가며 참여하고 있다. 기제사에는 촌수에 따라 형편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명절제사의 순서를 보면 신씨의 큰 집에서 증조부모, 조부모 제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향렬에 따라 다음 차례가 정해지거나 지역적 이동의 편의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상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신씨의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으로 제사가 올려지는 대상이었다. 신씨의 아버지가 먼저 간 아내의 제사를 주관하지 않고, 이를 담당할 신권식씨가 향렬에서나 나이에서나 집안에서 그 위치가 가장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씨의 처가와와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신씨의 처가는 포승면 내기리 함평 이씨로 포승면에서는 유력 성씨 집안이다. 비록 신씨가 장가들었을 때 장인은 사망한 후였지만, 인근 지역에서 학자로 이름난 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모는 안중에 있는 성공회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손위 처남과는 장날에 종종 만나 대접을 받기도 하며, 어린 처남에 대해서는 진로문제나 신상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함께 의논하며, 때로 신씨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적극적이다. 드물긴 하지만 동서와도 상호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유대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매해마다 설이 되면 며칠 이내에 처가를 방문하여 세배를 올리는데, 이때는 처족의 일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대접도 받으면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단지 누구의 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관계망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처가와와의 긴밀한 관계는 신씨가 친가에서 심정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으로만 볼 수는 없다. 196,70년 당시가 비록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시대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 대 집안의 결합으로서 혼인을 통해 얻게 된 처가라는 새로운 친족집단은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었으며, 여성에게 있어서 시집이 새로운 친족집단으로 당연히 되었듯이, 남성에게도 처가는 당연한 친족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 개인의 친족생활은 친가, 처가, 외가의 세 집단의 구성원으로 평생의례와 관련된 각종의 행사에의 참여, 제사 및 조상숭배와 관련된 여러 집단 활동들을 통해 왕래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맺게 된 친족집단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개인적 삶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됨을 알 수 있다.

II. 마을생활

1. 마을의 구성

고잔리는 후평, 전평, 고잔(원고잔), 원목, 대곡, 혁명촌, 청룡, 서대울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예전부터 있던 마을은 후평, 전평, 고잔, 원목, 대곡으로, 모두 고령 신씨가 대성으로 살고 있다. 신권식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고령 신씨 마을 중에서도 대곡이다. 혁명촌은 월남민 정착촌으로 1950년대 조성되었다. 혁명촌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농골이라고 불렸는데, 월남민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가는 거의 없고 대곡 주민들이 경작하는 전답만이 있었을 뿐이다. 혁명촌 주민들은 이북민정착사업으로 실시된 간척 사업을 통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대곡일기에는 농골에 정착한 월남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신권식씨는 혁명촌이라는 이름보다는 예전부터 써왔던 농골이라는 지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월남민들에 대해서도 '난민'이라 칭하는 일이 많다. 청룡은 1970년대 남양간척지 조성과 함께 충청도 대청댐수몰지구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만들어

진 마을이다. 청룡이라는 이름은 이주민들의 고향인 충청도의 '청'에 마을이 번성하라는 의미에서 '용'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나, 예전부터 청룡뿌리⁷⁾라고 불렸던 곳에 마을이 들어선 것도 이러한 마을명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서대울은 후평과 함께 고잔1리에 속했던 곳이나,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고잔8리로 분리되었다. 처음에 서대울로 들어온 사람들은 안양 쪽 사람들로 양돈을 하러 들어왔다고 한다. 그 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청룡과 서대울은 197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긴 마을이기 때문에 1950~73년도 일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현재 8개의 자연마을은 고잔1리~8리로 편제되어 있으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고잔리는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었다.⁸⁾ 일기상으로는 고잔1리와 2리가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청년회나 농협이 조직될 때의 일기 내용으로 보아 60년대에는 후평과 전평이 1리, 고잔, 원목, 대곡이 2리로 묶였던 것 같다.

청년회나 리(里)농협은 고잔2리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고잔, 원목, 대곡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온다. 공간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도 전평과 고잔 사이에 있는 들을 경계로 동북쪽으로 후평과 전평이 모여 있으며, 서남쪽으로 고잔, 원목, 대곡이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꿀의 경우 이 시기에 이미 월남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며 위치상 2리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때까지만 해도 농꿀 주민들은 원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안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회나 농협 모임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농꿀에 거주하는 월남민들은 원주민들, 특히 대곡 주민들과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간 다.

대곡은 고잔2리에 속해있었으나 동회(洞會)는 대곡 차원에서 꾸려졌으며, 이 단위에서 각종 행정적인 업무 및 자치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보다 큰 단위에서 꾸려진 조직은 청년회나 리농협 정도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았을

사진 29. 고잔마을 전경



사진 30. 농꿀마을 전경



7) 대곡의 지형은 ㄱ자 모양으로, 동쪽, 서쪽, 북쪽은 낮은 구릉으로 막혀 있으며 서남쪽 방향은 바다를 향해 트여 있다. 대곡 사람들은 동쪽 끝을 청룡뿌리, 서쪽 끝을 백호뿌리라 부른다.

8) 평택군, 1971. 『평택군통계연보』

때 사람들이 하나의 마을로 인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대곡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변의 마을 들은 때에 따라서 하나의 마을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이웃 마을로서 대곡마을과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마을 조직〉, 〈마을 공동작업〉, 〈마을 문화〉로 나누어서 일기를 모으고, 이를 통해 마을이 담당했던 역할과 마을 내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주변 마을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행해진 대부분의 농촌 정책들이 마을을 단위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따라서 마을에 부과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행해진 농촌 정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농촌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별도로 모은 일기를 마지막에 덧붙였다.

2. 마을 조직

이 일기에 등장하는 마을 조직으로는 동회, 리(里)농협, 청년회, 부녀회, 자경대, 연반계, 탈곡기 합자모임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조직은 동회이다. 이는 동회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권식씨가 동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며 1973년에는 동회의 대표인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리농협 역시 1960~64년도까지 신권식씨가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리농협에서 한 동안 정미소를 운영하였던 까닭에 농협과 관련된 일 역시 일기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청년회에 대한 내용은 1959~63년도 일기에만 나오고 있다. 이는 그 이후에 청년회 활동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신권식씨가 청년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녀회는 신권식씨가 참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1962년에 2회, 1973년에 1회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일기에서 마을 부녀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경대에 대한 내용도 일기에 간혹 등장하기 때문에 일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조직과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연반계나 탈곡기 합자 모임은 1971년 일기부터 등장하는데, 일기에 나온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나 변화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먼저 동회의 구성과 동회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동회는 일기에서 ‘회’, ‘부락회’ 등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나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동회’이다. 1973년에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마을회’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일기에서는 대곡의 동회를 ‘동계’라고 부르는 일은 없으나, 고잔의 경우는 ‘洞里契’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다. 일기에 나온 내용을 통해 동회의 조직을 재구성해보면 동회에는 이장, 반장, 총무 등의 직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이 실시되면서 새마을지도자 역시 동회의 직책으로 등장하게 된다.

마을의 주요 안건들은 동회를 열어 처리하는데, 보통 중을 쳐서 모임을 알리며 저녁식사 후에 회의를 갖는다. 동회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를 열었다. 회의 안건은 주로 관용비료, 대외양곡, 석유 등의 배급, 수득세 및 각종 잡종금의 고지·납부, 신작로 작업 시 출력(出力) 문제, 그리고 이 시기에 행해진 각종 농촌 정책의 하달과 노동력 동원 문제 등 주로 행정적인 사무의 처리나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1961년과 그 이듬해인 62년에는 퇴비 증산이나 아궁이 개량, 조기 청소, 저축미 거출, 혁명정부 협조 등과 같은 사안들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당시 군사정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농어촌 고리채 정리(1961년), 화폐 개혁(1962년) 등과 같은 정책들도 동회를 거쳐서 처리되고 있다. 동회 안건 중에는 해안초소 순경

숙박과 관련된 문제(1961년 8월 4일, 1962년 1월 21일)도 있다.

동회에서는 이장 선출, 이사무소 신축, 공동우물 수리 등 마을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나, 행정 사무나 정책과 관련된 것에 비해 그 비중은 작은 편이다. 이는 이 시기 동회의 주된 기능이 행정 말단 기구로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의 공동 작업이나 놀이와 같은 자치적인 일들은 대부분 관행에 따라 행해지거나 일상적으로 가는 마실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회의 대표인 이장의 주된 역할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정책을 전달하는 일이다. 일기에 나오는 배급물품으로는 관용비료, 대외양곡, 석유, 소금 등이 있는데,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배급물품의 신청을 받고, 면에 가서 전표를 떼어오고, 물품을 할당하고, 수금을 받는 일을 맡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이장의 책임 하에 있었기 때문에 배급 물품의 분배와 관련해서 잡음이 일기도 한다. 이장은 각종 세금을 걷는 일이나 생산고를 조사하는 일을 직접 하거나 면에서 나온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협조하기도 한다. 돈을 걷는 일은 반장이 할 때도 있다. 이밖에도 이장은 마을 주민의 출생 신고나 토지 등기 신청을 대신해주기도 한다. 이장에서 반장으로 이어진 전달 체계는 선거에 동원되기도 한다. 대외적으로 이장은 면에서 주관하는 이장회에 참여한다. 이장회에 대한 내용은 신권식씨가 대곡 이장 일을 맡게 되는 1973년도 일기에서 볼 수 있다. 이장회에서는 면의 예산 심의 등을 하며, 함께 야유회를 가기도 한다. 농협의 면조합장을 상부에서 경질한 것과 관련하여 이장단에서 회의를 거쳐 진정서를 내는 일도 있었는데, 이는 이장회가 행정을 보조하는 형식적인 모임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장의 업무에 대한 수고비로 마을사람들은 이장에게 이세를 지불한다. 대곡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보리 수확과 벼 수확을 마친 후에 곡식으로 이세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때로는 품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1962년 5월 28일) 각종 납부금의 지불 방식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벼 공판장에서 수득세나 이세, 배급 비료 대금 등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대곡마을에는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동 소유의 공동담과 공동 기금이 있었으며, 차일이나 풍물 등 유물들도 보유하고 있었다. 공동담과 공동 기금은 언제,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그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운영 방식은 일기에 단편적이거나 나오고 있다. 공동담의 경우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권식씨는 1968년에 집에서 경작해오던 공동담을 매입하기도 한다. 1972년 3월 30일 일기에는 마을 사람에게 동리미(洞里米)를 장리로 주는 내용이 나온다. 이로 보아 마을 기금 중 일부는 장리를 놓아서 기금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 일기에는 마을회관을 신축하고(1964년 8월 20일) 동네 유물을 장만하는(1960년 11월 23일, 1962년 2월 1일) 등 마을재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대곡일기에는 1959~72년까지 이장직을 맡았던 큰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종종 나오는데, 불만의 내용은 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큰아버지가 보이는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것이다. 동회 운영과 관련한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별로 보이지 않으나, 큰우물 수리(1962년 8월 29일)나 새마을사업(1973년 1월 7일) 등 공동이용 시설의 신축이나 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갈등의 양상은 <마을 공동작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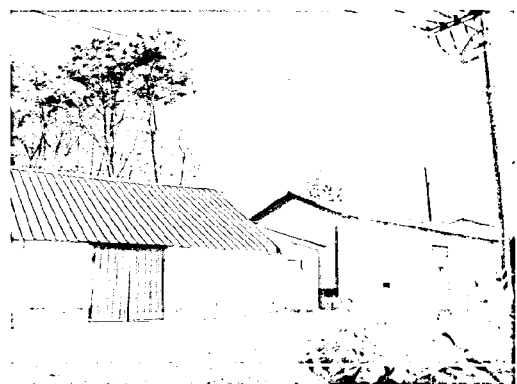
1958년에 발족된 농협은 60년대까지 중앙회-도지부-시군조합-이동(里洞조합)으로 이어지는 계통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69년부터 적정 경영규모 확보를 위하여 이동조합은 읍면단위조합으로 합병되고 73년에는 명칭 역시 단위조합(單位組合)으로 바뀌게 된다. 대곡일기는 리별로 존재했던 이동조합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발족 당시 고잔리 농협은 1리와 2리로 나뉘어서 조직되었다. 발족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1959년에 협동조합출자금 납부와 관련된 동회가 열리는 것(1959년 1월 20일)으로 보아 이때까지만 해도 고잔2리 농협은 없었던 것 같다. 고잔2리 농협에 대한 기록은 1961년 1월 10일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 날은 고잔2리 농협 정기총회가 열린 날로서, 이 회의에서 신권식씨는 상무이사를 맡게 된다. 고잔2리 농협은 1964년 4월 2일에 정부주도로 1리와 병합하게 되며, 신권식씨는 그 해 말에 상무이사직을 사임하게 된다.

일기에는 신권식씨가 고잔2리 농협 회의에 참석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나 회의 안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잔2리 농협의 실제적인 운영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고잔2리 농협의 활동 중 인상적인 것은 개인(신권식씨 다섯째조부 가)이 운영하던 고잔정미소를 1964년에 농협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리조합정미소는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里組合精米所로 해 놓으니 搗精의 能率도 오르지 않으려니와 人夫들도 아주 태만해서 穀主들의 不滿이 많다.(1964년 11월 7일),” “午後엔 高棧精米所에 가 보았다. 고장이 나 있어 오늘도 搗精을 하지 못했다.(1965년 11월 18일),” “搗精을 해야했는데 와 같고 가지를 안아 걱정이다. 組合精米所엔 自己가 실어다 찌어야 한다고 하니 우리 같은 집이 걱정이다.(1965년 11월 20일)” 등의 일기 내

용에서 드러나듯 주민들도 정미소를 이용하는 데 불만이 많아서, 결국 68년도에 원목에 거주하는 개인(정건식)이 임대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리조합에서 운영하기 전에도 고잔정미소는 고장이 자주 나고 도정할 곡식도 직접 가지고 가야 하는 등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아서 신권식씨는 “집안 精米所라고 이렇게 힘들고야 搗精할 수 있을까? 다른 곳에 附託하면 穀主는 가만이 앉아 찌을 수 있을 것 아닌가.(1962년 12월 13일)”라며 일기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리조합에서 정미소를 인수받은 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부터 신권식씨 집에서 삼계나 발안 등에 있는 정미소를 이용하는 일도 부쩍 많아지게 된다.

청년회 역시 고잔2리를 단위로 해서 1959년에 결성이 된다. 처음 창립된 59년에는 고잔2리 청년회 주체로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이니, 이후의 일기에는 뚜렷한 활동이 나오지 않는다. 1964년도부터는 청년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잔2리 청년회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대곡 내에서는 대개 연초에 열리는 척사대회를 동네 청년들이

사진 31. 고잔 정미소와 창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청년들의 집단 활동은 조직을 갖춘 형태이든 아니든 간에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1년에 조직된 연반계는 마을 조직 중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권식씨는 연반계가 조직된 계기에 대해 “朝飯後에 농꼐 喪家에 같다. 洞里 젊은 분들이 모두가 協助했다. 일이 끝나고 농꼐분들과 연방契[연반계]에 對한 議論을 했다. 滿場一致로 좋은 것이라고 찬양을 했다.(1971년 10월 26일)”라고 간략히 적고 있다. 연반계가 조직된 그 이듬해인 1972년에는 농꼐 주민의 장례를 농꼐와 공동으로 치르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기의 내용만으로는 연반계가 조직된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곡과 농꼐가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반계는 상이 났을 때 운구와 산역 등 장례와 관련된 일들을 도와주는 계조직으로서, 기존의 민속학 조사에 따르면 주로 충청도 일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 일기에 등장하는 연반계가 흥미로운 것은 청북면 일대의 유력 사족 집안인 고령신씨 마을과 이주민 마을인 농꼐가 상례를 치르는 계를 함께 조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농꼐 주민들이 대곡 주민들과 대등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71년 일기부터는 신권식씨가 마을의 몇몇 사람들과 합자해서 탈곡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탈곡기를 공동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탈곡기를 사용하고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문제로 회를 열기도 한다.

3. 마을 공동작업

일기에 나온 마을 주민들의 공동 작업을 열거해보면 치도(治道) 작업, 공동우물 수리, 마을 다

리 수리, 다리방아 운반 및 수리, 이사무소 및 방앗간 수리, 해안초소 수리, 사방공사, 마을 주민 집에 일어난 화재의 진화, 독 막기 등이 있다. 이 일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의 부역으로 행해졌다. 이 중 1962년에 있었던 사방공사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한 일로서, 며칠은 부역으로 주민들을 동원하며, 며칠은 유급으로 주민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반면 1961년에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묘목 심기는 유급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마을 공동작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공동작업 중에는 마을 기반시설의 조성과 공동 이용물의 장만 및 수리와 관련된 일들도 있으며, 화재나 홍수 등 마을에서 발생한 긴급한 재난을 진압하기 위한 일들도 있다. 후자의 일들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의례히 해야 할 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먼저 전자의 작업으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공동작업으로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치도 작업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곡 주민들이 동원되는 치도 작업으로는 신작로 출역과 동리 길 치도가 있다. 신작로이든 동리길이든 해마다 치도 작업이 행해졌던 것은 도로 상태가 자갈만 깔아놓고 아직 포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갈만 깔려 있는 비포장도로는 사람들이나 버스, 우마차 등의 왕래가 잦아지면 길이 파일 뿐 아니라 큰 비가 온 뒤에도 자갈들이 유실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갈을 다시 깔아주고 길을 편편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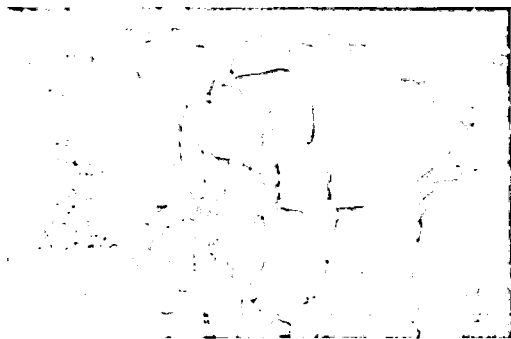
대곡 주민들은 보통 한 해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인 초봄(주로 3월)과 추수가 시작되기 전인 8월이나 9월에 행해지는 삼계 신작로와 안중-수원간 도로 치도 작업에 동원되었다. 안중-수원간 도로 치도 작업에서 대곡 주민들이 작업을 하

는 구간은 현 안중읍 용성리 일대인데, 일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청룡태, 강기리 등은 모두 용성리에 있는 지명이다. 삼계 신작로 치도 작업에 대곡 주민들이 동원된 것은 이 길이 먼소재지인 신포에서 고잔리로 들어오는 큰 도로로 대곡 주민들도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975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새로 길을 닦은 까닭에 그 당시 출역을 나갔던 신작로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안중-수원간 도로 역시 주요 교통로로 여러 마을 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사는 대곡 주민들도 치도 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곡 주민들이 안중장을 이용할 때 도보로 걸어 다녔던 장길은 따로 있었으며, 수원으로 갈 때는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느린까지 가서 버스를 탔다. 용성리 구간은 사실상 대곡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군에서 할당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신작로 출역은 리별로 구간이 할당되며, 주민들을 동원할 때 면에서 담당 서기가 나오기도 하였다. (1960년 2월 19일) 신작로 출역은 봄과 가을에 모두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동리 길 치도는 가을에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작로 출역과 동리 길 치도가 겹치는 경우에는 주민들을 나누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1959년 9월 13일) 치도 작업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부리는 소를 대신 내보기도 한다. (1968년 4월 15일, 9월 13일) 치도 작업과 관련해서 일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은 196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신작로 출역에 주민들이 동원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1973년에 새마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실시된 치도 작업은 모두가 동리 길이었다. 신작로 출역과 동리 길 치도 이외에도 대곡 주민들은 삼덕초등학교 길을 돌리는 데 동원되기도 한다. (1964년 4월 1일)

치도 작업과 관련해서 신권식씨는 참여하는 사람이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종종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출역을 할 때는 그 날 아침에 종을 쳐서 치도 작업이 있음을 알린다. 마을에서 작업 횟수를 어떻게 할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일기에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으나, 소를 대신 내보낸 일이나 “次後에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못가겠다고 했다(1964년 3월 28일)” 등과 같은 언급을 보면 마을 주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횟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도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집에 대한 불만이 일기에 종종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출역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 8월 5일 신작로 출역과 관련하여 “洞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많은 動員이 되었다. 별다른 대책도 없다. 軍政이라 엄한 것을 各自 自覺한 관계다.”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치도 작업과 새로 들어선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치도 작업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동리 길, 특히 몇몇 집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는 길을 치도할 때이다. 그러나 농로와 같이 명백하게 그 일대에 경작지를 가진 특정 사람들만 이용하는 길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길을 닦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32 새마을운동으로 실시된 마을 하수구 공사(1973년)



치도 사업과 달리 집에 불이 난 경우나 홍수나 해일 등으로 왜둑, 원둑 등이 터지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누구의 동원 없이도 모두들 달려 나가서 불을 끄고 독막이를 한다. 화재나 침수 피해 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둑이 터진 경우에는 둑 가까이 경작지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경작지까지 침수가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독막이는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공동의 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독막이는 둑이 터졌을 때만이 아니라 저수답을 만들기 위해서도 해마다 추수가 끝난 후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도 동리 청년들이 동원이 되어서 작업을 하였다.

1973년에 새마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는 공동작업의 종류도 다양하게 된다. 73년 일기에 나온 사업으로는 동리 치도 이외에도 축대 쌓기, 하수구 공사, 공동식수 수리, 소방차고 신축, 빨래우물터 공사, 암거 놓기, 묘목 심기, 동리 퇴비장 만들기 등이 있다. 새마을사업으로 실시된 동리 치도 작업은 새로 길을 넓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기반 시설을 놓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반면 “洞里的 堆肥場을 도라 보았다. 거이 가 袖手傍觀이다.(1973년 8월 31일)”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리 퇴비장 사업은 큰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마을 문화

대곡일기에서 볼 수 있는 대곡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로 대표적인 것은 정월 보름 경에 열리는 척사대회를 들 수 있다. 대곡마을의 척사대회는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해 열렸다. 척사대

회는 주로 동네 청년들이 준비를 하였다. 동네 청년들은 정월과 추석에 농악 놀이를 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거의 매년 봄마다 공동으로 놀이를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마을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걷어주고 송별회를 열어주는 모습도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 할 수 있다. 혼례나 생일이 아닌데도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일도 일기에 종종 나오고 있다. 신권식씨의 경우에는 정초나 자기 집 일날에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농한기나 연말에 동리 청년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1971년에는 연초에 신권식씨 집에 일꾼으로 자주 오는 농꾼 사람들까지 초대하는 일도 있었으며, 1972년 일기에는 동네 부인들을 불러서 대접하기도 한다.

신권식씨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는 보통 마실을 갔다. 일기에는 마실을 갔다고만 나오기 때문에 마실을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권식씨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대개는 동네의 ‘공방(空房)’으로 갔다고 한다. 대곡에서는 잘 사는 집의 사랑방이 비어있는 경우 이 방을 공방으로 활용하였다. 공방은 마을 주민들이 가마니를 짜는 방으로도 이용되었다. 남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실을 가서 한담도 나누고 놀이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논의도 서로 나누었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대성으로 사는 고령 신씨와 다른 성씨들 간의 갈등도 일기에서 볼 수 있다. 대개 개인들 간의 싸움이 고령 신씨와 다른 성씨와의 관계로 확대되어 해석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령 신씨와 다른 성씨 사이에 깔려있는 관계가 잠재해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기에 가끔 등장하는 마을의 도난 사건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신권식씨는 마

을에 도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마을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을 한탄함과 동시에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때로는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농골 사람들을 의심하기도 한다.

5. 마을 간의 관계

대곡 주민들의 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마을로는 고잔과 농골(혁명촌)을 들 수 있다. 원목은 고잔2리를 단위로 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만 언급될 뿐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 원목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야기는 일기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후평에는 ‘후평 조부’라 하여 신권식씨 조부의 6촌 형제지간이 되는 일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과 관련해서 가끔씩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고잔은 조부를 비롯하여 숙부 등 가까운 일가가 살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대곡과 가깝기 때문에 일기에 자주 나오고 있다. 신권식씨는 마실을 갔다가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고잔까지 건너가기도 하고 고잔에서 열리는 동리계에 놀러가기도 한다. 신권식씨 개인뿐만 아니라 대곡 주민과 고잔 주민은 서로 가까운 사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곡의 척사대회에 고잔 사람들이 참여하고 반대로 고잔 척사대회에 대곡에서 몇몇 사람이 참여하는 모습은 두 마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권식씨가 고잔 척사대회 이외에 참여했던 척사대회는 면소재지인 신포에서 열리는 행사뿐이다. 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권식씨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대곡 마을은 호수가 작아서 동네 소유의 상여가 없었다가 나중에 농약상에게 협찬을 받아서 상여를 장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상여가 없던 시절에는 임대료를 얼마 내고 고잔에서 상여를 빌려 썼다고 한다.

대곡과 고잔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농골과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북민들이 정착하기 전에 농골은 대곡 주민들의 전답이 있었던 곳이었으며,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일기에서 신권식씨는 새로 이주해 들어온 농골 주민들에 대한 경계심을 종종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농골 주민들을 일꾼으로 고용하는 일이 점차로 많아지면서 이들과 신용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경계심 또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 신권식씨는 연초에 일꾼으로 자주 오는 농골 사람들 몇 명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며, 새로 집을 지어서 낙성식을 할 때 고잔 사람들과 함께 농골 사람들도 초대한다. 대곡과 농골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마을 조직에서 살펴보았던 연반계의 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에서 고잔이나 농골 이외의 다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신작로 치도 작업이 있다. 신작로 치도 작업은 여러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에 대한 평 역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971년 일기에는 삼계리 성곡에서 고잔 사이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고잔, 원목, 대곡, 성곡 사람들이 공동으로 걸림을 다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신권식씨 개인적으로 대곡 그리고 고잔리를 벗어나서 다른 마을 사람들과 폭넓은 교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기는 삼덕초등학교 이사회와 이장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 신권식씨는 대곡마을의 해안초소에서 근무했던 순경들과도 자주 어울렸으며, 일부의 순경들과는 전근을 간 이후에도 친분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도 하였다.

III. 정치사회 활동과 인식

1. 국내 정치 및 사회 인식

신권식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권식씨는 해방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독학으로 선린상업학교, 동양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수학을 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학업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당시 농촌사회에서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음에 틀림없다. 특히 신권식씨는 결혼 초기에 고향에 정착하여 농민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직업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만큼 국내의 사회 및 정치경제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3.15부정선거, 4.19혁명, 5.16 쿠데타, 유신헌법 국민투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 한국 근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들이 신권식씨의 비판적 시각과 어울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나아가 신권식씨가 농촌사회에 점차 정착을 하면서 단순히 국내외 사건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의 상황과 국내 정치를 상호연관지어 바라봄으로써 당시 농촌의 구체적 현실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신권식씨의 일기는 국내 정치변동이 농촌 사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권식씨는 고등교육의 영향인지 생활풍습, 일상생활 등에 대하여 소위 ‘근대적(近代的)’으로 사고(思考)하려는 노력이 일기의 곳곳에 보인다. 이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신정(新正)에 대한 인식이다. 신권식씨는 매년 신정소감 또는 구정소감에서 구정보다는 신정을 우선시하여 근대적이고 세계적 조류를 따라야 하는데, 신정보다 구정을 우선시하는 사회풍조를 비판한다. 그중 하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정을 아직 버리지 않고 세는 우리나라 大韓民國 全國民이 오늘이 새해 새날이라고 祖上에 祭祀드리는 습관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일직 일어나 제사지낼 準備를 하고 늦게 큰집에 가니 아직 멀었다. (...) 나는 오늘도 陽曆을 세야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어제나 우리나라도 陽曆을 세여 全世界와 같이 날을 세여가는 때가 올까. ... (1961년 2월 15일)”

신권식씨는 신정을 지내야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권식씨도 “전국민이 버릴 수 없는 이 구정”(1963.1.24)을 지낸다. 또한 구정을 중요시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도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도 약해지고 거의 언급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권식씨의 비판적 사고가 무디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촌 지식인으로서의 신권식씨의 비판적 사고는 정치와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더욱더 빛을 발한다. 196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농정과 농촌현실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일기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예로 1967년 신년 소감을 보면 다음과 같다.

年頭所感

“...丁未 新年에도 萬事가 如意亨通하길 빌면 丁未年을 마지했다. 今年 또 總選舉의 해다. 어떤 人物이 나올 것인가. 新聞 레디오 等 現政府가 重農政策을 써왔고 現農村의 수지 지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말도 아니다. 現 이대로라면 날로 더 어려워진다. 몇 年을 두고 격은 일이지만 다른 것을 볼 것 없이 우리네 땅 값이 올라가야 농촌의 살림이 는다는 것인데 今年엔 도처에 移 舍 땅 賣渡人이 늘어간다. 이 동리가 面의 畝洞이라는 곳도 땅이 많이 나고 잇으나 원매자가 없다. 政府에서도 하느라고 하겠지만 農村 실정은 말이 아니다. 5都會 사람 마냥 쓰고 하고 나면

단 2,3個月 유지도 안 된다. 우리가 洞里에서 -1
참다 하지만 우리 농사지며 여유라고 안 쓰고 못
먹은 것 남는 것이다. ... (1967년)"

신권식씨가 마을에 터를 잡고 농사일에 매진할
수록 농촌인구의 노령화, 농촌경제의 파쇄 등 농
촌현실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아가 신권
식씨는 농촌문제를 위정자들의 이기적 정치늬움
과 정부 농업정책의 부재 등과 연결하여 비판한
다. (1967년 5월 3일) 이처럼 신권식씨는 농업정
책의 변화 나아가 국가 정치 변동 등에 대하여
일기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신권식씨
의 비판적 시각은 정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드
러난다.

신권식씨가 1960년 3월 2일부터 '자유'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국에 대한 기록이
 많아진다. 특히 1960년 일기에서는 3.15선거와
4.19혁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기
록되어 있어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신권
식씨는 자유당 정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
서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한다. 이에 반해 4.19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큰 관심을 나타낸다. 따라서 4.19혁명의 모든
과정을 거의 매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기
사의 내용은 상당부분 신문기사를 정리하여 옮
겨놓은 것 같다. 이후 몇 년 동안(1961년, 1962
년, 1963년, 1968년) 신권식씨는 매년 4월 19일
이 되면,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1961년 4월 19일 기록을 통해 신권식씨의 4.19
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第二共和國 一週年 紀念.

自由黨 李承晩 獨裁天下의 아성 밑에 신음하
던 우리는 昨年 오늘 온 國民의 분노 밑에 폭발
되어 총궐기 한 우리 國民은 銃彈을 두려움 없이
學生들의 선봉에서 쓰러져 시체를 넘고 넘어 당

시의 경무대(靑와臺)로 향하여 自由와 싸워 독재
아성을 무너트리고 第二共和國을 마치하게 된
첫돌이다. 오늘 서울運動場에서 政府 社會 等
各 要人이 오늘 추모식을 거행했다. 독재와 不義
앞에 희생된 영영 앞에 自由를 이룩한 學生들에
듯 깊은 감사를 올린다. 오호라 영영들이여. 지하
에서 고히 잠들어 이 나라의 平和와 南北의 統一
을 이룰 날을 기원하소서. (1961년 4월 19일)"

“今年 四月도 오늘로 마지막 날이다. 형명의
달. 다-피도 못한 젊은 꽃들이 무수히 떠러져 이
땅의 自由를 갈다준 영영들 앞에 머리를 수그린
다. ... (1961년 4월 30일)"

신권식씨는 4.19혁명 이후 집권한 장면정권이
안정되기 전에 5.16쿠데타가 발발한 것을 라디
오를 통해 전해 듣고는 놀라워한다. 1961년 5.16
일 당시의 일기 일부이다.

“軍事革命 새벽 3時. 논가리라고 일어나 라디
오를 드르니 이상스러운 말이 들려와 깜작 놀랐
다. 듯도 못하던 軍事혁명委員會니 하는 말이 나
오며 새벽 3時에 革命을 이루어 서울 各部處 立
法 司法 等은 완전히 장악 각 중요 도시는 완전
히 軍事革命委員會에서 잡고 있다고 보도. 웬일
일까. 의위의 일이다. 이래다가 엇이 될 것인가
無 張政權은 무너지고 張勉은 집애다 감금시켜
놓았다 한다. 저녁 7時 뉴스를 드르니 政府는 물
론 立法部인 國會의 上下院 모두 오늘 날자로
해산하고 各國務員은 체포령을 내리고 겨엄령
下에서 오늘 해가 저무렸다. 쿠데타가 아닐까無
자리의 탐념이 아닐까. 張政權이 큰 잘못은 없
다. 불과 8,9個月에 크나큰 잘못을 저지를 기간
도 안 되었다. 다만 잘해 불라고인지 이랬다저랬
다 주대 없는 정치는 하였다. 그래서 경제의
탄압은 이어갈 바 없었다. ... (1961년 5월 16일)"

위의 일기처럼 4.19혁명과 장면정권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신권식씨는 5.16, 군사혁명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5.16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4.19에 비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산물 산출량 및 고추장, 된장 등에 대한 조사 등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농촌사회에 행한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군사정권의 농업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신권식씨는 6월 들어 간간히 군사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드러내기도 한다.(1961년 6월 18일) 그렇지만 산출량 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군사정권의 군대식 정치에 대해서 우려하며, 여전히 신뢰를 갖지 못한다.(1961년 7월 13일, 1961년 7월 14일) 이런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국민투표를 통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되었다.(1971년 5월 25일, 1972년 11월 21일) 예로 1963년과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상적으로 불순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정부 박정희 후보보다는 4.19혁명이후 들어선 제 2공화국에 좀 더 호감을 가져 윤보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또한 이후 행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당 공화당보다는 야당을 지지한다. 또한 신권식씨는 1971년 5월 25일에 행해진 제 7대 국회의원선거에도 공화당 출신 후보에게 투표를 하나, 공화당 박정희의 독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을 나타내며 야당의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나아가 신권식씨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인 공화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매우 못마땅해 하며, 공화당은 과거 자유당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1963년 11월 12일) 특히 1972년에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벌어진 부정투표 실패와 부정행위를 행한 자신에 대한 자괴심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신권식씨는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 호감

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그래서인지 1962년 이후부터는 국내정치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 1962년에는 군사정부의 내각개편, 정책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록을 할 뿐이다. 아마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신권식씨가 언제 자유신문 구독을 그만두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데, 1965년 12월 23일에 경향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에 9월에 들어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서 국내정치에 대한 기록이 많아지고, 정치소식을 듣기 위해 마을에 신문을 보러갔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렇지만 1964년에는 국내 정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1965년에는 한일외교, 베트남 전쟁 등에 대한 기록이 증가한다. 1967년 5월 3일에 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일기에서는 선거를 전후로 한 며칠 동안에만 선거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1971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당일(4월 27일)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고 선거유세 과정 및 여론경향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1971년에는 집을 신축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정치사회활동이 다른 해에 비해 매우 적고, 기록도 간략하다. 이런 경향은 국회의원 선거(1971년 5월 25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72년에는 7.4공동성명,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성철 외상의 남북한 상호방문, 유신헌법 국민투표 등에 대한 몇몇 기록만이 있다.

2. 개인의 정치활동

중앙정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만큼이나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꺼렸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 활동보다는 농사와 가정에 중심을 두고 생활을 하고자 했던 신권식씨의 삶

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다음의 일기에서 잘 드러난다.

“... 下午에 몇몇 親友들이 찾아 와 일만 하느냐고 하며 왜 今般實施되는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에 立候補하지 했느냐고 아쉬운 말들을 했으나 오직 家庭에 忠實한 마음 뿐이다. 참으로 명에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만 부지도 못하게 되거나 앓을까 되어서이다. (1972년 12월 2일)”

마을의 지식인이었던 신권식씨는 정치권으로 많은 유혹이 있었다. 신권식씨가 젊었을 때에는 지역 정치인 후보자들로부터 운동원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거절하였다. (1960년 7월 22일) 게다가 자연인으로서 정당하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유세장에서 음식물 등을 먹는 것도 자제할 정도이다. (1960년 7월 13일, 1960년 7월 23일) 제 3공화국에 들어서면서도 신권식씨는 여러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해줄 것을 부탁받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꺼렸다. (1963년 11월 11일) 그러나 1960년 11월에 있었던 도의원 선거에서는 정리(情理)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신평출신 장봉학씨 운동원으로 등록이 되었다. (1960년 11월 23일) 마음도 없는 운동원으로 등록이 된 신권식씨는 마을의 다른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선거과정에 상당한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신권식씨는 적극적으로 이지는 않지만 공화당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1963년 11월 20일, 1963년 11월 26일) 특히 신권식씨는 1973년에 들어서 제 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운용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기에서는 이운용 후보의 선거운동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으나, 1963년부터 관계를 맺어 온

이운용씨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이전의 어떤 정치활동보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다. 신권식씨는 자신이 활동하였던 1963년, 1973년 선거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당시 선거운동 풍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흥미롭다.

또한 신권식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종종 동네 친척 및 주민들로부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등 정치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972년 12월 2일) 이후에도 신권식씨가 개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은 여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종종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였다고 한다.

3. 마을 및 사회활동

신권식씨는 지역의 지식인으로 마을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 夕飯을 마치고 있으니 농골서 사람 청년 二名이 큰집으로 가서 웬일인가 하고 건너가보니 記者란 사람이 와서 농골 柳氏 婦人 家(술장사)에 가서 不幸한 일이 있었다고 왔는데 잘못된 일도 없을뿐더러 問題거리도 아니겠만 돈 생각이 와서 온 것이다. 내가 건너가 냉정이 말하니 그냥 도라간다. (1959년 5월 11일)”

또한 신권식씨는 마을의 청년회인 <고잔청년구락부회>(1959년 1월), 동회, 출역 등에 거의 빠짐 없이 참여하며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다.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권식씨의 자세는 해가 거듭되어도 거의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신권식씨는 정치활동만큼이나 마을에서 마을이장과 같은 주요 직책을 직접 맡는 것을 꺼렸다. (1959년 2월 5일) 거의 10년 이상 이장이 되

는 것을 극구 거절을 하던 신권식씨는 1972년 전임 이장이셨던 큰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장이 된 것에 대하여 상당히 난감해하고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 날의 일기이다.

“... 午前엔 큰아범님이 오시여 里長을 내늘테니 洞里에서 너을 들 生覺하고 있으니 어이하겠느냐고 하고 모두들 말하여 나는 못하겠노라고 했다. 만약 네가 里長을 안 보겠다면 里長을 안 내노시겠다고 하시니 큰일이다. 저녁에 洞里가 있었다. 里長 선거가 있어 급기야 里長으로 선임이 되었다. 방갑지 않은 일이다. 새마을지도자를 德雨가 당선되었다. 반장에 轍雨와 致雨을 선출하고 총무에 연우가 되었다. 잘 될 것인지 만약 동리에서 協助가 없으면 내 놀 참이다. (1972년 2월 21일)”

신권식씨는 이장이 되고 나서 새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주도하였다. 따라서 신권식씨는 당시의 새마을운동의 매일 진행상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치 새마을운동 일지처럼 새마을운동의 마을단위 전개과정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그려져 있어,

새마을운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이장을 역임하면서 마을일 때문에 자신의 농사일 등이 밀려 힘들다는 속내도 드러내기도 한다. (1973년 10월 27일)

신권식씨는 마을활동에 비해 사회활동은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참여하였다. 먼저 신권식씨는 1960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농협이사회에 참여하여 조합의 주요 일을 의결하는 것인데, 신권식씨는 이사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 그러다가 1964년 12월 27일에 이사회에서 사임하였다. 일기에서는 사임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앞의 일기에서 이사회 이사들의 아전인수격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임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권식씨는 마을 밖의 활동 중 가장 큰 부분이었던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를 그만두면서 별다른 마을 밖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1965년 3월 19일 삼덕초등학교 대의원의회의 이사가 되었다. 그 후 대의원의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사진 33 삼덕국민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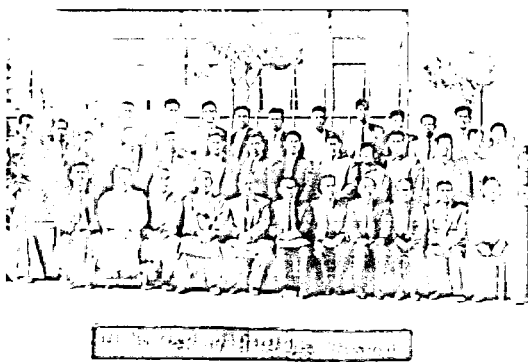


사진 34 2007년 삼덕초등학교 전경



IV.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

농사 이외 대곡일기에 등장하는 직업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일기에서는 약 50여 직업이 파악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권식씨 개인의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에 의해 등장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대곡마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접하게 되는 직업의 경우다. 일기에 빈번히 등장하는 직업으로는 순경(巡警), 학교 선생님 및 교장 그리고 면서기(面書記)를 위시한 청북면사무소 사람들이다.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의사(醫師), 쌀 상인 그리고 각종 물건을 팔고 다니는 상인(商人)들도 자주 보인다.

순경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이 마을에 해안 경비를 위해 초소(哨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기에서 순경은 1959년부터 1973년 일기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직업이었고 신권식씨는 이들과 사이가 원만하여 잘 지내는 편이다. 순경들과 자주 어울려 '마실'에서 술도 마시고 사냥도 가고 영화를 같이 보거나 농한기 때는 새끼를 같이 꼬기도 했다. 막역하게 지내는 순경이 전근을 갈 때는 이사(移舍)를 도와주기도 한다.李순경, 羅순경, 朴순경, 鄭순경, 徐순경 등과는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순경들이 병역 소집에 관여하고 정치선거에서 부정을 일삼고 소를 불법으로 처리한 일을 따져 묻기도 하고 산의 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하는 일을 감시하기도 할 때는 서운해 했다. "靑北 巡警 2名이와 찾아 나가보니 석가래 해 온 것을 취재하여 술을 한 잔 대접하고 一金 2,000원을 주었으나 來日 新浦에 와 주라고 같다. 매우 氣分 나쁘다.(1972년 4월 17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덕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신권

식씨가 이 학교의 이사직을 맡는 1965년부터 거론되었다. 그 이후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선생님들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권식씨는 삼덕초등학교 선생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기도 한다.(1965년 5월 15일, 7월 24일, 1973년 2월 9일)

면서기는 1960년 9월에 처음 보이는 직업이다. 그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당해 연도의 생산(生産)고를 조사하거나 각종 산출조사, 가옥세 징수 혹은 매상(賣上)을 독려하는 일 등을 하고 다녔다. 면서기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기는 "面書記가 와 각 雜種 產出 調査와 심지여는 꼬초장, 된장 등을 다 調査해 같다. 우리 國民이 믿고 살 수 있는 政府가 될 것인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쉬쉬하고 있으니 군대식이다. 온 公務員은 명찰을 달고 있다.(1961년 7월 13일)"라고 하는 대목이다. 신권식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면에서 판단하여 조사를 다녔는데, 고추장이나 된장독을 보면 그 집이 얼마만큼 사는 집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면서기나 면장들과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일기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일기에 처음 등장하는 농사 이외의 직업은 선생 겸 의사(醫師)이다. 정확히 말하면 "의사 노릇을 하는 의사"다. 의사와 관련한 이 당시의 의료 관행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설명이 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대곡일기에서 의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약(藥)을 의사가 '약종상(藥種商)'에게서 구입하여 직접 동네 사람들에게 주사(注射)를 놓아 주거나 기타 치료를 위해 약을 활용하는 그 개인의 역할 때문이다. 이외에 신권식씨가 치아를 치료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치과 의사가 일기에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기에 쌀 상인이나 집짓는 일과 연관된 직업 그리고 '도야지(돼지)' 장수 얘기가 곧잘 등장하

는 것도 신권식씨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농사를 많이 짓고, 1971년에는 집을 새로 짓게 되고, 또 집에서 돼지를 직접 키워서 팔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접하게 되는 상인들 중 일기에 등장하는 직업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재봉틀 상인, 술장사, 안경사, ‘도야지(돼지)’ 장사, 동태장사, ‘통미는 사람(동쟁이)’, 미용사, 사주(四柱)보는 사람, 장화(長靴) 때우는 사람, 약 행상인, 상(床)수리 행상인, 고추 상인, 정미소 운영하는 사람, 이발사, 목수, 방 뜯는 기술자, 기와쟁이, 함석공, 미장이, 측량기사, 페인트 칠하는 사람, 문(門)짜는 사람 등등이다. 신권식씨는 인터뷰에서 이밖에도 다양한 상인들이 주기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병풍 장수, 피복 장수, 삼 장수, 강화도나 금산에서 나는 화문석을 팔러 다니는 상인, 체 장수 그리고 뽕튀기 장수 등등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위에 열거된 직업들은 계절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뽕튀기 장수는 정월 보름 즈음하여 왔고, 천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피복 장수나 상(床)수리 행상인은 가을에, 그리고 사진사, 미용사는 겨울에 마을로 들어왔다.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어물전 장수는 특성상 계절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철에 맞는 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한다. 마을을 방문하는 상인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나흘씩 동네에 묵으면서 장사를 하고 갔다. 이 일대에서는 ‘통쟁이’와 ‘체장수’에 대한 우스갯소리도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 ‘통쟁이’는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 하고, ‘체장수’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겉으로는 상놈인지 양반인지 모르지만 ‘상놈’이 주로 하는 ‘통쟁이’의 경우는 항상 ‘체장수’와 같이 움직이면서 신

분을 가리고자 했다고 한다. 그래서 둘이 같이 다니면 먼저 통쟁이가 마을에 들어와 “통미시오!”하고 외치면 옆에 가던 체장수는 “체두!”라고 하면서 상놈이 떠드는 데 짧게 한마디만 던졌다. 신권식씨도 어려서 이런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일기를 통해 드러나는 직업들 중에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는 것도 보이고, 남아는 있지만 일의 업무나 성격이 달라진 채 존재하는 직업도 보인다. 또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하는 광경은 볼 수 없고 상점이나 점포를 차려서 일기 당시와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직업도 있다. 그러하기에 신권식씨의 일기 속에서 직업군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 짧은 시간에 우리네 삶의 주변이 얼마나 많이 변모해 왔는가를 또 한 번 여실히 확인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일기 : 사회생활

I. 가정생활 및 친족생활

1. 가정생활

○ 가족관계

1959년

◎ 1월 11일 (음 12월 3일) 일요일 晴

자고 이러나면 英浩와 노는 것이 食前의 일이다. 밖으로 나갈라는 英浩를 잡고 옷 입히고 잠자리 거두고 妻가 朝飯짓기 前 나의 일이다. ...

◎ 1월 12일 (음 12월 4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を 하고 마을 가니 永植의 집을 炳賢家에서 35畝에 契約을 했고 논은 흥정 중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논을 다른 데로 농치지 않을라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附託을 해왔던 것이라 다른 데로 갈 것 같지는 않아 아버지에게 알아보니 아버지 家가 마땅다고 한다. 아직 나는 아버지가 계시고 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위임시킨다. ...

◎ 1월 13일 (음 12월 5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가니 契約書에 印을 치고 있다가 헤어져 아버지에게 가서 앞의 땅은 내가 사고 그 나머지는 팔아 달라고 하니 매우 氣分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잘 흥정을 해달라고 朝夕으로 附託한 것 이것만 좀 싸게 흥정이 된 것 같으니까 채드릴[채뜨릴; 날씨가 채어 빼앗을] 모양이다. 어찌면 그럴 수가 있을까. (...) 生覺하면 生覺할수록 분하고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다. ...

◎ 1월 14일 (음 12월 6일) 수요일 雲

... 나중에父를 만나니 良心이 안 되었는지 날더러 사라고 하나 앞논만 사고 나머지는 마음대

로 한다고 하다. 아버지는 나에게 땅장사를 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라니 어른을 어른답게 대하느라고 하니 아버지는 나에게도 이익을 生覺하고 있다. 또 공동답 받을 말 하니 아버지가 한다고 딱 잡아챈다. 내가 다 사는 것이니 그것을 나에 주면 어떠련만. 그것도 채드린다[채뜨린다]. 이것이 남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父로서 차마... 앞 왜뚝배미 여덟 데지기[되지기]도 父가 채드리었다. 앞 왜뚝배미는 그냥 넘어온 것이다. 나는 쌀도 모자라니 그것은 나를 달라하니 생각 말라고 딱 잡아챈다. 생각할수록 父子지간에 이리 하나 아버지는 넉넉하고 나는 못살 것만 이리 씨러뵈고[쓰러뜨리고] 마는가. 父를 생각했건만 골탕을 내가 먹고 있다.

◎ 1월 15일 (음 12월 7일) 목요일 雲

... 永植 家로 오니 炳賢 父가 건너방을 치장하여 永植 妻에게 뒤엎[뒤엎]과 재는 내가 내겠다고 말하자 막 밖에서 듣고 들어오는 父는 뒤엎과 재는 내가 흥정한 것이니 한데 끼여 넘어온 것인데 요것뿐이냐고 또 채드린다. 갈수록 나의 앞을 막는다. 고것쯤은 나에게 주어도 좋을 것이 것만 욕심도 유만부득[類萬不同]이지 子息의 턱을 차서 얼마나 잘 사나 보아야지? ...

◎ 1월 16일 (음 12월 8일) 금요일 晴

妻는 場으로 해서 妻家에 갈 준비를 하고 나는 마실을 갈다. 妻가 말하기를 親庭에 가서 모자라는 것을 보태달라고 해본다고 하기에 거절하다가 응하여 朝飯 後에 出發했다. 마실 건너가서 서산아주머니에게 돈 2천백원을 借用해서 아버지에게 갈다 드리었다. 아버지에게서 借用해 쓴 돈이다. ...

◎ 1월 17일 (음 12월 9일) 토요일 晴

... 아버지는 내가 없는 사이를 타서 내가 재를 먼저 어찌할까봐 재를 쳐 내고 있기에 본숭만숭 할라다가 차마 볼 수 없어 조역을 하여 같이 파냈다. 날씨가 前과 달라 매우 냉랭하여 쉴은 안 왔다.

◎ 1월 19일 (음 12월 11일) 월요일 晴

… 오늘 날씨는 겨울 날씨로는 溫化한 날씨인데 英浩가 안 와서 걱정이 된다. 安仲場 다음날 온다는 사람이 오늘도 안 오니 英浩 感氣나 안 앓나 걱정이 된다. 하도 궁금하여 동옥썰로 나갈다가 농썰 가서 理髮을 하고 왔다. …

◎ 1월 20일 (음 12월 12일) 화요일 雲

前日 종일토록 기다리고 오늘도 궁금히 기다리던 英浩가 왔다. 妻가 親家에 간 目的은 白米 五畝를 今般 땅 사는데 대달라고 갈았는데 나는 신통히 생각치도 않고 내 심[힘]으로 살라고 하던 중 妻가 고집 쓰고 가더니 그냥 왔다. 고약한 [괘한] 말을 해서 氣分만 나쁠 뿐더러 야속하기도 하다. 심이 없어 안 주는 것도 아니고만은 (….) 안 대주니 야속하고 껄심하기[괄심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그리 할까. 父母의 살림사리도 아니고 오빠의 살림사리라 父母와는 다르지만 좀 야속한 生覺이 든다. 妻 보구는 왜 같느니 무어니 말마디나 했던만 세상은 나를 爲한 세상이 아닌가 한다. …

◎ 2월 21일 (음 1월 14일) 토요일 晴

오늘이 정월 열나흘 朝飯이 끝나고 나는 아버지 家에 가서 소 연장을 드리였다[들이었다]. (….) 우리는 떡을 前日했다. 夕飯 後에는 마실 같다 그냥 왔다. 春子是 13日(음) 올라가서 안 왔다.

◎ 2월 26일 (음 1월 19일) 목요일 晴

… 날씨 따스하니 우리 英浩가 살게 되었다. 하로 종일 마당 밟고랑 심지여는 둘째祖父 家 논에 드리가 풍덩풍덩 종일토록 세상 만난 듯 놀더니 夕飯 前에 자리에 누었다. 몸이 고단한 모양이지. …

◎ 3월 7일 (음 1월 28일) 토요일 雨

… 英浩 몸이 불이 되어 울고 보채고 야단이라 약 한 봉 없는 집에서 큰일 났다. 얼은 내리지 않고 如前히 끓고 애는 보채고 밖에 비는 나리고 참으로 사람의 간장을 녹인다. 닭이 울고야 좀 덜 보채여 잠이 든다. 妻와 나는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 4월 1일 (음 2월 24일) 수요일 晴

… 무려니[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문언리] 妹夫가 왔다 해서 집에 와 좀 있으니 安서방이 왔다. 조금 있으니 妻가 와 술 한 잔 대접해서 웃집에 올라가니 떡과 술을 해와 洞里에 도르는데 妻와 春子は 구경도 안 시키고 집에도 떡이라고는 이름도 모른다. 春子は 올라갈서도 떡을 안 주더라고 꾸얼댄다.

◎ 4월 28일 (음 3월 21일) 화요일 晴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朝飯 食事を 하고 마을 건너가니 아버지가 春植이 영장을 들고 와 놀래 받아 傳해줄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 炳賢이 서울에 간다 하기에 집에 도라와 片紙 한 장을 써 令狀과 함께 전해달라 주었다. …

◎ 5월 16일 (음 4월 9일) 토요일 晴

… 종일토록 놀다가 夕飯을 마치고 나니 종소리가 심히 나 급히 뛰어 나가 누구 家의 불인가 보니 소시탕[쇠스랑]을 들고 뛰어 마실로 건너가니 아버지 家의 불이 지붕마루에 붙어 활활 타고 있어 다리가 부들부들 걸음이 잘 안 걸린다. 올라가 지붕에서 불을 洞里 一代가 몸을 사리지 않고 물 補給이 잘되고 해서 약 1時間 程度로서 鎮火시키였다. 아버지는 火傷을 손과 발에 입었으나 별 것이 아니였다. 오이루[오일; 기름]를 말고 발랐다. 火因은 어린 것들이 불 태다[세죽숯 [쇠죽술]] 장난한 것이다. 나는 늦게까지 있다가 지붕에 두서너 번 올라가 보다 내려왔다.

◎ 6월 2일 (음 4월 26일) 화요일 晴

… 아버지는 食前에 우리 논을 쓰리여 주시였다. 朝飯을 마치고 敎雨 家 일을 갈다. 아버지는 첫두리[결두리; 일꾼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끼니 밖에 때때로 먹는 밥] 점심때까지 우리 논을 쓰리시였다.

◎ 6월 10일 (음 5월 5일) 수요일 雲

… 아버지 家 모심기 사람 몇 명 얻어 일 하는데 일을 갈다. 또 닷 마지기나 남았다. 밭 달뻥이 [한 마지기 면적이 되지 않는 작은 토지]까지 짝심으니 氣分이 상귀하다[상괄하다]. 다섯재祖母

家 일을 가며는 내게는 이가 되는 것은 알지만 차
마 남의 일을 갈 수는 없어 아버지 家 일을 같다.

◎ 9월 11일 (음 8월 9일) 금요일 雲

食前에 가마 몇 작을 꾸미고 朝飯을 마치고 나
니 아버지 家에서 방 드리는데 봉죽[봉죽; 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곁에 모시고 도와 줌]을 해 달
라 해서 올라가 봉죽을 했다. 아버지 庶母는 場
에 같다. 春植이도 場에를 같다. 春植이 이번 오
는데 動植이 옷 庶母의 가 아이들 옷 등을 사오
고 春植이 입던 옷 등을 내노으며 입으라고 내놓
느라고 自己 血族인 春子は 돌보지 않고 異腹同
生인 아이들을 生覺하는 게 점[좁] 섭섭하다. 今
般뿐이 아니라 올 적마다 섭섭했다. 兄弟之間에
情이 덜해지는 것이 아닌가. 妻는 꼬추 4斤을 같
고 場에 가서 1,100원을 받았다. 祭祀 흥정 등을
해왔다. 夕飯 食事を 하고 일찍 내려왔다.

◎ 9월 13일 (음 8월 11일) 일요일 雲

… 夕飯 食事は 春植과 같이 하고 兄弟之間에
싸인 이야기 밤이 깊게 이야기 하다 헤어졌다.

◎ 9월 19일 (음 8월 17일) 토요일 雲

… 春植이 三德國民學校 運動大會에서 싸움을
했다고 人使[人事]를 하는데 창피한 인사 받기
재미없다.

◎ 9월 21일 (음 8월 19일) 월요일 雲

前日 興植兄과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후골이
아프고 머리가 무거워 늦게 朝飯을 마치고 종일
토록 누어있었다. 春子は 몇日前에 저의 언니와
싸우고 밤에만 드러와 자고 언니가 한 마디 하면
천 마디 만 마디 하고 저의 언니를 까리 뉘일라
고[갈아 놓히려]고 드니 차마 볼 수도 없는 노릇
이것만 여편네 편드는 것이 되어 꼭 참노라니 속
만 상한다. 가만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타이트면 고깝게 드를 뿐더러 나한테도 덤빈다.
될 대로 되라 밖에 없다. 동생 하나 혼계 못하는
것이 責任이 있지만 어이할 도리 없다. 兄弟之間
에 의 상하게 할 것이 문제이다.

◎ 10월 21일 (음 9월 20일) 수요일 晴

… 아버지 家로 脫穀機를 얻으러 가며는 庶母

가 짜증을 내고 얼굴빛이 변하는 꼴이 보기 싫어
그냥 훌기[훌기]로 했다. 우리 집에 빨리 훌고는
널러 가 훌러줄라는 生覺이나 그냥 같다 훌라하
고 또 늦게 훌게 고생을 좀 하게 하기 爲해 하는
庶母의 꼴이 눈이 시여 서서히 훌기로 하고 종일
훌터더니 그네 돌이 3매 가량 훌터다. …

◎ 11월 30일 (음 11월 1일) 월요일 晴

妻가 親家에 간다고 食前부터 야단이다. 朝飯
食事は 아버지와 떡을 대접하고 같이 했다. 庶
母도 親家에 가는데 아버지가 어린 것을 安仲까
지 데려다 준다고 나간다. 나는 바다에 가서 뼈
죽[대합처럼 생긴 조개의 일종] 3사발 가량 잡아
왔다. 농군은 요사이 편안 時節이다. 안에[아내]
는 일 다 치우고 親家에 가고 나들이 다닐 時節
이다.

◎ 12월 2일 (음 11월 3일) 수요일 雨

… 夕飯 後에 孟植 婚事 問題가 있다고 아버
지께서 말하며 편지 써 孟植에게 알리라 해서 편
지 한 장 썼다.

◎ 12월 16일 (음 11월 17일) 수요일 晴冷

… 午後에 妻가 歸嫁했다. 아버지 家 도야지를
洞里서 잡아 목정 두 근 2斤 4兩을 사왔다. 夕飯
後에는 強植이 이모가 오양서 도라와 가보고 순
대 했는데 얻어먹었다.

◎ 12월 27일 (음 11월 28일) 일요일 晴

朝飯 食事を 高棧 작근집에서 하고 現場으로
나간다. (….) 春子が 속을 썩기여 내 속만 탄다.
집안 말만 다니며 하여 가진[갖은] 속을 태운다.

◎ 12월 31일 (음 12월 2일) 목요일 雲

… 孟植은 昨年 正月에 떠나서 한 번도 안 왔
다. 春植은 八月에 잠깐 다녀 같다. 지난해를 無
事하게 보낸 것을 영광으로 生覺한다. 肥料 난
을 좀 당하였으나 雨順風調하여 농작물에는 역
잘된 셈이다. 또 土地도 장만하고 재봉도 샀다.
洞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살아보자 하는
굳은 결심 언제나 변치 않고 아버지에게 받은 서
러움도 내가 잘 삶으로서 복수다. 이를 악물고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다. …

1960년

◎ 新年所感

己亥年은 저물고 光輝의 찬 庚子 新年을 마지했다. (...) 세간 난지 三年 오늘날까지 실패 없는 發展을 보았다. 나의 六個年 計劃도 실패는 없을 것 같다. ...

◎ 1월 8일 (음 12월 10일) 금요일 雲

... 夕飯 後에 아버지가 孟植에게서 편진 안고 部隊長이 家庭通信만 오니 궁금하니 한 번 가 볼 수 없느냐고 하여 일 중지하는 대로 가볼까 하고 편지나 또 한 번 하기로 하고 편지 한 장을 썼다. 참으로 無情하다. 作別 後 一年이 되었던 편지 한 장 없으니.

◎ 1월 16일 (음 12월 18일) 토요일 晴

... 오늘 洞里 場꾼도 많을 뿐 아니라 妻도 場에 나온다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그냥 新浦로와 (...) 聘母가 편찮다 해서 걱정을 했더니 낫다는 消息을 드렸다.

◎ 1월 27일 (음 12월 29일) 수요일 晴

... 동생들이 올까 하고 종일토록 기다리었으나 아무도 안 온다. 누구나 客地에 있는 사람이 오늘 모이건만 을 생각도 안는 것 같다. 저녁 늦도록 기다리었으나 안 온다. 섭섭하다. 어쩌면 이러할까? 孟植에게는 數次 片紙도 送했으나 回答도 없다. 웬일일까?

◎ 2월 6일 (음 1월 10일) 토요일 晴

... 午後에 아버지 家에 가서 孟植이 消息 없으니 가보야지 안느냐고 말하니 도리어 역정만 내고 일 년 동안 편지 한 장 없는 놈을 무엇을 生覺하느냐고 호통. ...

◎ 2월 8일 (음 1월 12일) 월요일 晴

... 할아버님이 오시여 약주와 떡국을 대접했다. ...

◎ 2월 9일 (음 1월 13일) 화요일 晴

... 우리는 오늘 떡을 해서 아버지와 같이 나누었다.

◎ 2월 16일 (음 1월 20일) 화요일 晴

... 妻는 場으로 해서 妻家에 좀 갈다온다고 장모가 편찮은 것을 알고도 한 번도 다니여 오지 안아 다니여 오라고 했다. 계란 세 줄과 돈 五百圓을 갖고 갔다. (...) 英浩가 낮에는 잘 놀더니 저녁에는 엄마를 찾고 자다가도 보채며 한참 시가릴[실랑이를] 하였다. ...

◎ 2월 17일 (음 1월 21일) 수요일 晴

英浩는 보채고 妻는 없어 쓸쓸한 하루 저녁을 [보내고] 일어나 일직 朝飯을 마치고 옆발 거름(인분)을 주고 있으니 11時頃에 妻가 歸嫁하였다. 장모는 별 차도가 없더라고 하며 처남이 病 관[병구완]을 지성 것 하더라고 하며 기특한 마음 측량치[측량치] 못하겠다. ...

◎ 2월 19일 (음 1월 23일) 금요일 晴

... 오늘도 바람 여전한데 무려니 內外가 왔다. 우리 집에서 술과 夕飯을 같이 하고 아버지 家로 올라갔다.

◎ 2월 21일 (음 1월 25일) 일요일 晴

자고 일어나 바깥으로 왔다갔다 그날고 있으니 鍾식이 와서 올라오란다 해서 세수를 하고 올라가 安서방과 같이 朝飯을 하고 前夜 急錢을 借用해간 것을 白米 1畝를 속히 해달라고 하고 네 재祖父가 책을 읽어 달라 해서 五百年野史라는 冊을 오전 중 읽는 순간 李朝 五百年의 政務를 다시 더듬게 되었다. ...

◎ 3월 4일 (음 2월 7일) 금요일 晴

... 朝飯 食事 前에 炳均이 와서 쌀갑 떠러진 돈 달라 해서 春子에게 있는 돈 六百圓을 달래 갈다 주고 (...) 장모가 편찮아 잠간 왔다 가라는 기별이 왔다. 妻와 사소한 일로 처음으로 다투었다.

◎ 3월 6일 (음 2월 9일) 일요일 晴

몇日前에 仁成君 편에 妻男이 잠간 왔다 가라는 消息을 듣고 오늘 場으로 해서 들릴려고 일직 떠날 準備를 하였다. 一金 1,500환을 넣고 떠났다. (맛 4사발 程度 入) 新浦에 가서 溫胃丹이라는 藥을 사갔고(500환) 安仲에 가서 사과 300환한 가고를 사들고 妻家에를 妻男을 만나서 같이

點心 요기를 하고 같이 떠나 드리갈다. 장모는 그만해 계시고 잘 몸조리만 하면 낳을 것 같다. 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드리였다고 한다. ...

◎ 3월 7일 (음 2월 10일) 월요일 晴

妻家에서 朝飯 食事を 일직하고 떠나왔다. 路資는 500환을 주어서 안 바더도 권하여 아주 미안한 生똥이 禁할 수 없다. 오늘 妻家에는 井물 바닥 공크리[콘크리트]한다고 사람을 얻어 와 일을 始作하는 것을 보고 왔다. ...

◎ 3월 12일 (음 2월 15일) 토요일 晴

... 말 드르니 燕植이 中學校에 드리간다고 前日 場에 아버지가 데리고 寫眞을 찍으러 같다. 나. 前宅 子息은 國民學校도 안 가리키고 지금 애덜은 女子까지 中學校에 보내여 우리는 國民學校도 못 나왔는데 살기도 마찬가진데 이렇게 칭아하는[충하하는; 다른 것보다 낮잡아 홀하게 대접하는] 父는 세상에 없을 것이며 반드시 죄를 받고야 말 것이다. 호통이 대단할 아버지와 이래도 나중에 자식이 어떻게 어떠타고 말할까?

◎ 3월 17일 (음 2월 20일) 목요일 晴

... 午後 늦게 妻家에서 기별이 왔는데 장모가 대단하시니 급히 오라는 기별이 왔다.

◎ 3월 21일 (음 2월 24일) 월요일 雲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했다. (...) 妻가 못 올 줄 알았더니 11時 頃에 도라왔다. 장모 病患은 별 次度가 없다 함. 이제 운명에 매기는 수밖에 없다. (...) 妻家에서 개고기를 가져와서 夕飯 食事は 맛있게 먹었다.

◎ 3월 26일 (음 2월 29일) 토요일 晴雲

오늘 날씨도 좋치 않은데 영호를 데리고 妻가 親家에 떠났다. 聘母가 病患이 어떠한지 궁금하여서 떠났다. ...

◎ 3월 27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아버지에게 就職 말을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말해오는 것이다. 永登浦 아저씨도 다만 한번만 차저 갈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진만 서울을 가서도 그냥 도라왔으면 드른 둥 만 둥 하다. 여기 우리 部務課長이 우리 일가 사람이라 말해보라 했

건만 수수방관이다. 또 우리 지방에 큰 공사가 생기여 주 관리를 다섯재祖父가 맡고 계시여 좀 말씀 좀 해 달라했더니 내가 취직을 해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언참은지 무엇이 심 들어서 말을 못하는지 모를 일. 生똥전대 보다 못 사는 것이 아주 좋게 生똥되는 것 같다. 하기가 내가 사려는 논도 새치기 하는 양반이니까. 그야 평범한 일이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a믿고 한 말이다. 前夜에 다섯재祖父가 就職 말이 나서 왜 그냥 잇느냐고 농사에 취미 부치었느냐고 하며 내가 部內課長을 만나면 말 한다고 하여 아주 고맙게 여기었다.

◎ 4월 1일 (음 3월 6일) 금요일 晴

妻 六日만에 歸嫁. 몇일 일기가 좋치 않더니 오늘은 바람은 있으나 맑근 날씨다. (...) 장모는 病患이 하로라도 위중해 간다는 소식을 드르니 아무리 해도 소생치 못할 것만 같다. 몇일 동안 쓸쓸히 있다가 오늘은 英浩가 오니 집안이 든든하다. ...

◎ 4월 2일 (음 3월 7일) 토요일 晴

... 아버지 家 가래질하는데 날 보곤 말도 않고 일꾼을 엮어 가래질을 했다. 요즈음 집안 모자리[못자리] 가래질을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않고 他人을 데리고 하는데 남이 보기에 안 되었다.

◎ 4월 11일 (음 3월 16일) 월요일 晴

... 妻가 場에서 妻家 消息을 드렸는데 장모 병환이 덜 하다는 말을 드니 한갈 마음에 든다.

◎ 4월 14일 (음 3월 19일) 목요일 晴

... 妻는 약을 해가지고 親家에 갔다왔다. 일직 같다가 羹일치기[당일치기]를 하였다.

◎ 4월 19일 (음 3월 24일) 화요일 晴雲

食前に 씨나락을 칠까 했으나 날씨가 차거워 朝飯 後에 치기로 하고 朝飯을 마치고 가 씨나락을 치고 있으니 아버지가 와서 쳐주었다. ...

◎ 4월 29일 (음 4월 4일) 금요일 晴

오늘 春植이 入隊한다고 집을 다녀갈다. 五月三日에 入營한다고 서울로 떠났다. 입던 옷 벅타이 세네 가지와 책 몇 券 내려온 것이 성끼[성기]

가 난 庶母는 妻보고 시비를 하려 뎡비더라나. 그것을 좀 내려오면 어찌자고 하는 말인가. 一金 四萬圓을 아버지 주고 같다고 말하는데 잘 따져 줄 것인지? 路資 1,000원을 주었다. ...

◎ 5월 1일 (음 4월 6일) 일요일 晴

孟植 除隊. (...) 點心을 마치고 들로 해서 마실 가 있으니 孟植이 왔다. 집에 와 夕飯 食事を 같이 하고 오래간만에 정을 풀었다. ...

◎ 5월 2일 (음 4월 7일) 월요일 晴

... 夕飯食事を 마치고 일직 자리에 누우니 孟植弟가 내려왔다. 온지 하루도 못 되어 庶母와 싸운 모양이다. 아무 것도 가져온 것 없으니 눈에서 거시는 모양인지 벌서 싸우고 왔다. 春植이는 무엇 좀 덕이나 볼까 하고 알랑그리지만 孟植이는 그것이 아니다.

◎ 5월 7일 (음 4월 12일) 토요일 晴

... 來日 동리 處女들이 노리를 간다고 야단떨이다. 나는 말리었다. 날도 이렇게 가물고 時局도 難局이고 한데 무엇이 좋아서 노리냐고 말리었으나 나의 힘으로 부족하여 다 가는데 春子도 빼울 수 없어 보내기로 하고 떡을 좀 시키었더니 개피떡을 했다. 눈에 같다 오니 敦一君이 孟植이 婚姻 편지를 갖고 왔다. 來日 당장 와서 보라는 것이다. 날은 점점 가물고 물은 줄고 큰일 났다.

◎ 5월 15일 (음 4월 20일) 일요일 雲

... 孟植이는 집에서 잇기로 했다. 그리하여 일꾼도 내보냈다.

◎ 5월 19일 (음 4월 24일) 목요일 晴

... 來日 큰집에서 面會를 간다는데 春植에게도 가야 될 것인데 갈 사람이 없다. 사람이 있어도 돈이 문제다. 맨손으로 갈라머는 안 가니만 못하다.

◎ 6월 23일 (음 5월 30일) 목요일 晴

아버지 家 일날이다. 孟植이 平澤을 갈다 왔다. 告訴를 해서 罰 檢察로 넘어가게 된 것을 三萬圓 주기로 하였다 한다. 매 한 대 맞고 돈 3萬 환식 타먹는 人間이 동리 이웃시간에 있으니 어디 두고 볼 일. 하기야 우리를 우습게 본 것만은 사실이다. 우습게 보인다. 庶母는 더 좋아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보니 입이 광우리만큼 벌어졌다. 오늘 일날 尹서방네 아래 옷집사람을 올라와 밥을 먹어라 더 친절끼를 보이니 눈이 도라간다. 보기만 하여도 치가 떨린다. 이것은 炳殷보다도 더 치가 떨린다. 집안에 원수의 가정을 불러드리니 이것이 庶母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庶母하고도 우리 庶母만 할 수 있는 일.

◎ 7월 19일 (음 6월 26일) 화요일 晴

... 午鍾 頃에 庶母가 와 妻보고 바느질 빨리안 했다고 야단이라 妻가 말대꾸를 하여 妻를 나물하고[나무라고] 몇 대 노았다. 처음으로 손질을 하였다. ...

◎ 7월 27일 (음 윤 6월 4일) 수요일 雲

... 妻男이 와서 그냥 도라왔다. 二年만에 왔다. 자주 場에서 만났지만 여러 달만에 왔다. 소주 두 병과 안주로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았다.

◎ 8월 1일 (음 윤 6월 9일) 월요일 雲

... 마실 가서 종일 있다가 돌아오니 敦一君이 집에 와 있다. 聘母任과 함께 왔나 했더니 혼자 왔다. ...

◎ 8월 21일 (음 윤 6월 29일) 일요일 晴

자고 일어나 있으니 아번님이 내려 오시었다. 孟植이 婚事 말이 있는데 오늘 新郎을 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독정리(상회) 아저씨가 말하는 것인데 寫眞까지 가져왔다. 朝飯을 마치고 孟植이 왔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여 못 가겠다고 아버지만 갈다 오시라 해서 아버지만 건너가시었다. 옷도 없고 모든 준비가 마음에 안 드러서이다. 妻도 親家에 英浩를 데리고 出發했다. ...

◎ 8월 22일 (음 7월 1일) 월요일 晴雨

... 夕飯을 마치고 아버지가 前日 孟植이 婚事問題로 같다가 오셨는가 가보니 오시었는데 우리와는 차이가 너무 질 정도로 家庭 환경에 좋더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잇으면 와 분다고 하더라고 하고 오시었다. 炳殷이와 孟植이 싸운 것이 取下가 안 되었는지 來日 오라고 召換狀이 왔다.

◎ 8월 23일 (음 7월 2일) 화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 孟植이 平澤 나가는데 옷을

주고 종일 놀다가 孟植이 平澤에서 늦게 도라왔는데 炳殷이 取下申請을 드리지 않아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氣分이 나빠 炳殷이 보고 말하니 사실이 取下申請을 드리지 않은 것이 확실하여 取下하기로 돈 받고 取下를 았은 법이 어데 있느냐고 하고 오니 孟植을 어이하든지 구해놓고 보자는 文義[文意; 글의 뜻,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에서 敎雨叔이 가서 사화[私和; 법에 의해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중재 풀어 버림]시키여 來日 平澤에 가기로 되었는데 저녁사이에 어이 마음이 돌지나 았을는지?

◎ 8월 28일 (음 7월 7일) 일요일 雲雨

… 朝飯을 마치고 孟植과 家庭事 아버지의 지나친 행동 우리 三兄弟의 장차 살 문제 等 議論하고 있으니 妻가 歸嫁했다. …

◎ 8월 31일 (음 7월 10일) 수요일 晴

孟植이 간선 오는 날이다. 배를 대달라 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내가 건너가 농꼐 배를 이용하여 간선 오는 손님을 건너놓고 와서 孟植을 보았다. 상회 아저씨도 건너와 新婦아버지도 와서 좋아하고 와서 보라 해서 發安場으로 만나기로 하고 헤지였다. 孟植은 옷이 없어 한참이나 있다가 내 옷이나마 입고 보았으나 에미 없는 서러움이란 어딜 가나 다가오고 곡절난관은 곳곳이 미쳐온다. …

◎ 9월 5일 (음 7월 15일) 월요일 晴

… 孟植이 간선하러 가는데 여장을 차리러 드러와 朝飯을 마치고 孟植은 아번님과 같이 떠났다. 옷이 없어 高棧 작근집에 가 양복을 얻고 해서 입고 갔다. 孟植을 보내고 뒤란을 뜻다가 손을 찔렀다. 종일토록 궁금하여 夕飯을 마치고 올라가 보니 저녁이 늦것는데도 오지 않아 매우 궁금하다. 늦게서야 도라온 孟植과 아버지는 新婦될 사람이 안 나오고 아버지 자리가 와서 孟植과 아버지를 데리고 新婦 집으로 드러갈다 함. 하고 사는 것이라던지 과히 눈에 벗어나지 았을 뿐더러 우리 집보다는 낫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아주 기분이 좋다.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孟植이

지라 종일 걱정을 했는데 잘될뿐더러 아버지 孟植이 모두 氣分이 좋아 나두 더 바랄 것이 없다.

◎ 9월 9일 (음 7월 19일) 금요일 晴

… 點心을 마치고 나니 孟植이 와서 婚事의 말을 하며 아버지는 그냥 내쫓칠 의사를 갖고 있으니 어굴하다[억울하다]고 하며 父子情理를 끝게 [끝게] 된 것이 庶母의 짓인데 아버지가 전실 子息은 모르고 후실 자식과 庶母에 눈이 어두었으니 어디다 하소연 하느냐는 말. 장가들어 시간 [세간]날 것을 전부 모른 채 하고 있으니 어이 하면 좋을까? 나도 아주 았는 지차 세간나는 것만 치도 못해주고 날더러 부족하게 여긴다니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말하자면 부족한 말이야 내가 어이다 말할 수 았을 程度인 것이다. 눈이 어두어도 분수가 있고 전실 子息을 몰라주어도 유만부득[類萬不同]이지 낱아서 버린 우리 五男妹 다 불쌍한 人間들이다.

◎ 9월 10일 (음 7월 20일) 토요일 晴

… 나무 한 짐을 해다 놓고 마당을 옆흙을 파서 고르어놓니 孟植이 氣分이 좋치 았게 내려왔는데 아버지와 싸운 모양. 나가라는 것. 젊은 늙이 애비 등을 내먹으려는 것. 庶母와 共同으로 못 살게 구니 어이 하면 좋으냐는 것. 孟植이 사랑에 나오니 庶母와 잘했다는 말로 히히낙낙[희희낙락]하며 소곤소곤 의종게 지나고 있으니 에미 았는 서러움도 서러운데 아버지까지 구박이 어이 하며 하소연 하나. 하나님이나 말해주소.

◎ 9월 11일 (음 7월 21일) 일요일 晴

… 連 三日재 孟植이 아버지에게 구박을 맡고 내려와 땅에 꺼지는 한숨 뺨가 저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이 다 신통치 았고 氣分이 나쁘다. 孟植 春植 等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저리 정치없이 다니니 아버지도 庶母 자식들에 눈이 어두었어도 분수가 있지 어찌 전실 子息에 학대가 이리 심한가. 언제나 우리 三兄弟가 떠뻗한 家庭을 이룰까? 애라 아버지 았는(父母) 의지가 았는 不幸兒와 마찮가지긴, 孟植 春植 等 큰소리 칠 때 오겠지. 하도 보기에 언짢아 종일토록 기분이 나

지 않는다. 심하다. 아버지여. 어이 전실 자식을 이리 학대하고 庶母 子息을 옹호할까? 庶母와 父 히히樂樂한 家庭 속에 不幸한 孟植!

◎ 10월 1일 (음 8월 11일) 토요일 晴

第二共和國 樹立 慶祝日이다. 安仲中學校에서 運動大會를 開催한다고 해서 西部 四個面 農樂이 大會를 安仲서 한다고 한다. 아버지와 庶母는 動植이 보려 종일토록 밤 늦게 집에 왔는데 같은 子息인 春子는 집에서 일만 시키니 너무 심한 子息 대우인 아버지. ...

◎ 10월 2일 (음 8월 12일) 일요일 晴

... 집에 와 보니 春植이 위출[외출] 왔다가 들리었다고 집에 들리어 뜻밖이었다. 저녁에 우리 三兄弟가 밤 늦게까지 長談說話를 나누다 헤어졌다. ...

◎ 10월 24일 (음 9월 5일) 월요일 晴

... 妻가 美容 次 三溪에 가 點心 늦게서야 도라와 늦게 點心을 하고 영 몇 마를 엮었다. (...) 春子는 3日前에 [고잔] 갈는데 오늘 저녁에 와서 하로 집의 일 치고 가라했더니 안 온다.

◎ 11월 8일 (음 9월 20일) 화요일 晴

朝飯을 하고 있으니 春子가 음물[우물]에 갈다 오더니 아버지 家 裁縫을 잊어버리었다 한다. 우리 洞里에 前例없는 盜難事件이다. 이것은 그 집 실정을 아는 洞里 사람이 아닌가 生覺이 된다. 朝飯을 마치고 아버지 家에 가보니 울타리가 아주 허수룩하다. 집단속을 단단히 해야지 마음 놓고 살 수 없이 되었다. ...

◎ 12월 5일 (음 10월 17일) 월요일 晴雲

朝飯 食事 後에 벼 가마를 옮겨 쌀을랴고 孟植을 데리러 가니 집안 食口가 골이 나 잇고 孟植은 방에 앉아 있다. 氣分이 싸운 氣分 같아 그냥 내려왔다. (...) 夕飯을 마치고 몸이 피곤하여 일직 자리에 누어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찾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보니 春植이 왔다. 특별휴가 왔다고 한다. 孟植도 같이 왔는데 食前에 아버지와 싸웠다고 한다. 장가도 못 드리고 땅도 넓드리[높드리; 높고 메말라서 물기가 적은 논밭] 서 마지기

만 주고 밭도 모른다 等 말이 아닌 말을 할 뿐더러 孟植을 머심꾼[머슴꾼]만도 안 여기고 의붓자식만도 안 여기니 살 수 있느냐고 하니 아버지가 너무 심하다. 망녕도 아니요 정신이상도 아니다.

◎ 12월 17일 (음 10월 29일) 토요일 晴

... 孟植이 水原에 婚事 흥정하러 간다고 朝飯 食事 後에 내려왔다가 곳 떠났다. 一金 五萬參仟圓을 갖고 떠났다. ...

1961년

◎ 1월 6일 (음 11월 20일) 금요일

場에 가기로 하고 일직 일어나 理髮을 갈랴고 옷을 입고 잇으니 孟植이 와 妻男에게 편지 한장을 써달라 해서 食前에 편지를 쓰고 朝飯을 같이 하고 理발을 갈다 와 늦게 창개[창개] 一斗를 갖고 場에를 떠났다. ...

◎ 1월 9일 (음 11월 23일) 월요일

... 저녁은 만두를 했는데 아변님과 동생들을 같이 하자니 얼마 안 되고 한데 집안 식구나 먹자고 해서 집안에 일대 不安이 일어났다. 적은 음식은 적게라도 별다른 음식이니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妻가 매우 껄심하다. 속이 상해 저녁도 안 먹고 자리에 누었다. ...

◎ 1월 14일 (음 11월 28일) 토요일

... 朝飯을 마치고 나니 孟植이 건너왔다. 10時頃에는 아버지도 어린 것 생면하러 건너왔다. ...

◎ 1월 18일 (음 12월 2일) 수요일

朝飯을 마치고 마실 건너가니 아버지 家의 땅 갑 치르느라고 쌀을 저 내리여 나도 같이 가 저 내리었다. 큰집 농꿀 닷 마지기를 孟植의 앞으로 산 것이다. 앞 남정배미와 바꾸고 19畝을 더 주는 것이다. 9畝를 저 내려왔다. ...

◎ 2월 1일 (음 12월 16일) 수요일

창개 二斗를 갖고 春子를 安仲場에 보냈다. 창개 二斗에 一金 六仟百圓을 받아 제사흥정 천환 어치를 해 갖고 왔다. ...

◎ 2월 14일 (음 12월 29일) 화요일

食前에 나무를 準備해주고 朝飯 後에는 오양 치렀다. 妻와 春子는 제사 차리기에 분주하다. 날씨 갑자기 차거워 매우 고생이 되었다. 下午에는 氣分이 좋지 않았다. 둘째기수[제수]도 동생도 머리를 드러다 보지 않아 남이 보기에 부끄러웠다. 自己 시모 제사 차리지 않고 큰집이 가서 있다는 것은 生角이 될 간 되서이 아닌가. 기수의 어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子息들을 가리키는 데는 어이할 수 없다. 어째서 다른 집으로 보내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저녁에 잠깐 다녀간 메누리[며느리]를 꾸짖는 庶母 집안 꼴 잘 된다. 일을 모치여서[못 치러서]가 아니다. 인사가 안 되었다. 오는 정 가는 정 윗물이 말గా야 아래물도 맑다.

◎ 2월 24일 (음 1월 10일) 금요일

春植 왔다 곳 도라갈다. 오늘도 종일 마실 가서 옷 놀다가 저녁나절 春植이 와서 집에 왔다가 春植이 곳 가보겠다고 해서 농뿔 차 온 데 타고 왔다가 곳 도라갈다. 孟植은 또 아버지와 싸운 모양이다. 머심꾼만도 취급치 않아주고 나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가. 참아 눈 뜨고는 볼 수 없다는 것.

◎ 2월 25일 (음 1월 11일) 토요일

朝飯食事 後에 敎雨氏 家 마당 꺼[가]에서 敏子에게 쌀갑 떠러진 돈 200환을 주었다. (...) 下午에 孟植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데는 신장이 미여진다. 나가라는 것이다. 孟植과 우리 三兄弟로 인해 못 살게 된다고 집도 없이 어디로 나가라는 것인가? 아버지와 子息之間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너이놈들은 필요 없는 놈이니 하로 속히 나가라니 이것이 왈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가? 종일토록 氣分이 안 난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요즈음 나도 아버지와 냉전 중이다.

◎ 2월 28일 (음 1월 14일) 화요일

정월 열나흘날 말근 날씨로 마지했다. 朝飯 後에는 여기저기서 쇠[소] 연장 드리느라고 왔다갈

다 한다. 나도 둘째祖父 家 쇠 주태 드리는데 協助하다가 食水 음물 푸는데 같이 푸고 아버지 쇠 연장 드리는데 협조했다. (...) 孟植과 點心을 같이 하며 말을 드르니 한숨지사. 협호라도 얻어 달라니까 나는 모른다. 네가 얻어 나가라는 것. 하로 속히 나가라고 매일같이 틈바구니 속에서 한시가 새롭다고. 庶母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인진 몰라도 듣는 데는 집간이래도 못 어더 줄 바엔 겁방[결방; 남의 집 한 부분을 빌려 사는 방]이라도 얻어줌이 어떠냐고 하면 소동소동하며 나는 자식도 모르고 아부것도 모른다. 제 놈이 얻어 나가라는 것.

◎ 3월 5일 (음 1월 19일) 일요일

... 어린 것이 보채고 저녁에는 잠이 깊이 들지 않아 妻의 고생이 많다. 오늘은 똥도 푸르고 보채며 氣分이 나지 않는다. 어린 것 기르기가 이리 심들까. 다른 사람 어린 것 기르는 것은 심들여 보이지 않는다.

◎ 3월 11일 (음 1월 25일) 토요일

... 春子を 孟植이 데리고 場에 갔다. 나중에 알아보니 솟[솔]을 사라 갔다고 한다. ...

◎ 3월 17일 (음 2월 1일) 금요일

... 바다에 갔다오니 아버지가 高棧 앞논 가래질을 해달라 해서 올라가니 계수씨[계수씨]가 前日 와 떡을 줌 먹고 가래질을 했다. ...

◎ 3월 21일 (음 2월 5일) 화요일 春分

... 어린 것은 벌써 고개를 가누어 곤두안기 시작한지 벌써 일주일이나 된다. 요사이는 옷을 갈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저녁에 잠을 늦게 자는 것이다.

◎ 4월 5일 (음 2월 20일) 수요일

... 9時 頃에 끝나치고 孟植이 피난민 집을 수리해 든다고 敎雨아저씨 헛간을 달래 시른 소리를 해서 房을 놓는다고 協助해 달라 해서 가서 房을 놓아주었다. 아버지는 아주 시원하게 여기며 와서 하는 말이 살만하구나 하며 한참이나 섰더니 잔치집으로 갔다가 저녁나절 도라왔다. 孟植이 세간 집 걱정보다는 행낭 질 것을 걱정을 하고 있

으니 이것이 아버지로서 오른 마음인가? ...

◎ 4월 6일 (음 2월 21일) 목요일

... 朝飯을 마치고 孟植이 날 집의 앞 울타리를 둘러고 點心을 하고 모자리를 갈았다. ...

◎ 4월 12일 (음 2월 27일) 수요일

... 點心을 마치고 아버지 家에 가니 孟植과 아버지 庶母가 싸우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가 심하다. ...

◎ 4월 24일 (음 3월 10일) 월요일 雲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朝飯을 하고 모자리를 그늘까 하다가 孟植이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 보니 아버지도 없고 孟植이 혼자 짐을 끄리고 있다. (...) 下午에 올라가 짐을 내려왔다. 아버지는 본숭만숭 남 보듯 한다. 아니 남만도 못하게 심하게 말하면 아주 적대시 한다. 세간이라야 건너방 세간을 제위[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어머니 이르면[있으면] 아버지는 보잘 것 없는 남이 된다. 우리는 완전 孤兒다. 세간을 다 내려와도 아버지는 근처에도 안 온다. 한숨스러운 일이다. 저녁에는 큰소리로 치가 떨어린다고 이 근처에 밭그림자도 말라고 하더라니 庶母보다 심한 아버지 참으로 불숭모양[불성모양; 모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이다. 우리 집에서 항아리 하나를 주었다. 後室 자식들에 얼마나 德을 볼 것인지 불 일. 이러한 일을 훗말 삼아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어머니 일차[일차] 庶母 잘못 만나니 아버지는 더 가관. 그냥 알몸둥이로 子息을 내쫓다니 어이 될 것인가. 저녁 늦게는 히히낙낙하게 웃고 있더라니 원수 같은 자식이 나가니 더욱 좋을 일.

◎ 4월 26일 (음 3월 12일) 수요일

키, 화로 一金 2,000환에 사다 孟植 주었다. (...) 朝飯을 하고 孟植 家 便所 만드는데 같이 하고 (...) 妻는 어린 것을 두고 場에 갈았다. 孟植이 세간 난 곳에 키와 火爐를 사다 주었다. ...

◎ 4월 30일 (음 3월 16일) 일요일

今年 四月도 오늘로 마지막 날이다. (...) 온양 온천으로 노리를 간 부인이 몇몇 있다. 약장에

감초 안 빠지는 庶母도 젓먹이 어린 것도 아랑곳 없다는 듯이 떠났다. 두 어린 것을 빨린 妻는 저녁에는 어지럽다고 한다. 먹는 것 푸시한[부실한] 것에 젖은 두 것이나 빨리니까. ...

◎ 5월 1일 (음 3월 17일) 월요일

... 일을 갈다오니 聘母任이 왔다. 강아지를 갖고 오시었다.

◎ 5월 5일 (음 3월 21일) 금요일

어린이날. 빙모님 떠났다. ...

◎ 6월 6일 (음 4월 28일) 화요일

오늘 앞 닷 되지기와 한 마지기의 논을 땀라 하다가 孟植의 内外가 싸와 親家로 보내느니 가느냐 하여 孟植과 内外를 오라 해서 잘 이해시켜주어 화해되었다. (...) 저녁나절 妻는 둘째祖父에게 春子の 혼인 말을 하드라고 하며 아라 보라 했다.

◎ 6월 24일 (음 5월 12일) 토요일

... 웬일로 밤에 가져갔을까 하고 누어있으니 庶母의 큰소리가 나 妻 보고 나가보라고 하니 한참만에 와 하는 말이 庶母와 孟植이 싸왔다 한다. 기수씨[제수씨]가 올라가 잘못 되었노라고 하라가니 아버지가 우리 집이 오지 말라고 역정 역정 하며 펄펄 뛰드라고 별일도 아닌데 庶母와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죽일 듯이 야단이며 가마니 잇는 나도 추실르며 필요 없다고 우리 집에 밭그림자도 못하게 한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라니 기막힌 일.

◎ 6월 25일 (음 5월 13일) 일요일

... 음물에서 庶母 소리가 나 드러보니 사람이 많은 곳에 孟植의 말 우리의 말을 하고 있다. 제수씨가 올라가니 아버지가 떡을 먹으며 소리소리 왜 올라왔느냐고 당장 물러가라며 우리 집에 밭그림자도 말라드라고. 孟植과 庶母가 싸웠으면 싸웠지 제수씨가 무슨 죄라고 일만 치워주는 사람보고 야단이 웬말인가? 이런 실성도 아닌 망령도 아닌 무엇일가? 잘해 볼라든 사람도 심사가 난다. ...

◎ 6월 26일 (음 5월 14일) 월요일

... 둘째祖母께서 水原을 갈다 와 春子를 水原

에서 혼인의 말을 해서 잘 말해 달라고 하였다. 오늘 낮 계수씨가 아버지 家 올라가니 당장 내려가지 못 하느냐 역정 역정해서 쫓겨내려 왔다 한다. 오늘 食前에 그루 갈라 간 것은 일꾼이 말한 것인데 아버지는 날 보고도 골이 나 있는 것이다. 春子 보고도 말도 않더라고. 고리[골이] 나 있더라고.

◎ 6월 27일 (음 5월 17일) 화요일

食前에 논푸랑을 거실르고 아버지 家 일을 갑다. 孟植은 따로 하라고 관계치 말라 해서 일을 못 갑다. 夕飯을 하고 春子 婚姻 말을 하는 것에 아라 보라 같더니 아버지가 孟植의 말을 하며 눈을 가마도 자식으로 생각지 안느니 어쩌느니 말을 하여 孟植이 잘못이지요 전제해놓고 오해는 푸는 것이 잘 화해가 되는 것이고 나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庶母가 우리에 대해 좋지 안는 말이 들리나 이것을 이해하고 사무로서 우애가 된다 했더니 庶母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것이냐 역정 역정하며 이놈아 듯기 싫다 네놈도 孟植과 똑같은 놈이니 당장 물러가라고 호통 호통하여 그냥 내려왔다. 곳 잡아먹을 것 같이 대드려 그냥 도라왔다.

◎ 8월 10일 (음 6월 29일) 목요일

妻가 親家에 간다고 일직부터 서둘르고 갔다. 食前에 명석을 몇 돌 량 만들고 朝飯 後에 어린 것들을 데리고 妻가 일직 떠났다. 아버지 家에 人使[人事] 次 같다운 後 조금 있다가 莊植이 路資하라고 一金 五百圓을 갑고 왔다. 이것은 前에 없는 일이었다. 孟植이 妻家에 갑다 왔다 담배 한 갑(白羊)을 갑다 내 앞에 놓는다. 妻는 路二仟餘圓과 닭 1조를 갑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떠났다. ...

◎ 8월 13일 (음 7월 3일) 일요일

... 우리 집은 處女들이 레디오 드르러 3日째 저녁에 온다. 春子 水原서 기별왔다 한다가 늦게야 就寢. ...

◎ 8월 16일 (음 7월 6일) 수요일

날씨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어린 것들

을 데리고 妻가 도라왔다. 비가 오고 해서 來日이나 오나 했더니 오늘 왔다. (...) 조용했던 집안이 어린 것들이 도라오니 떠들석하고 사람 사는 것 같다.

◎ 8월 21일 (음 7월 11일) 월요일

... 저녁나절 무려니 妹弟가 왔다 해서 올라가 보았다.

◎ 8월 22일 (음 7월 12일) 화요일

... 朝飯 後에 妹弟가 와 같이 논 구경을 다녀오고 點心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했다. ...

◎ 8월 27일 (음 7월 17일) 일요일

妻가 몇일째 시름시름 괴로운 기색을 먼치 않고 있다. 요도가 不便한 모양이다. (...) 계수씨 왔다. 親家에서 歸嫁.

◎ 9월 8일 (음 7월 29일) 금요일

... 저녁 먹을 頃에 孟植이 와 속이 상한다고 하며 신경질의인 妻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이건 큰어머니 보다 더하니 장차가 염려된다고 걱정. 하기가 매일 싸우는 빛이니 新婚生活에 오손도손 재미날 것인데 매일 다투니 무슨 까닭을 모를 일. ...

◎ 9월 9일 (음 7월 30일) 토요일

... 孟植 家 前日까지도 싸우고 야단이더니 오늘은 그런 흔적도 없이 사이가 좋으나 일은 큰일이다. 모든 것이 이대로 가라앉아야 될 것을 바라지만 洞里가 그 비밀은 벌써 알고 있다. 孟植이 妻에 대한 싸움은 妻를 의心하는데 잇는 것에 妻는 모든 것을 洞里 다니며 말하여 가정의 비밀을 누설시켰으나 모르고 잇는 孟植! 첫째로 계수씨가 절대 나쁘다. 敎雨 아저씨와의 눈 거신 일이 없느냐는 것이 사실 근거 없는 일을 孟植이 妻보고 다짐한 것을 自己 송[홍]도 모르고 계수씨는 洞里에 공개 하다 심히 한 것을 孟植은 모르고 있다. 이것이 확대되면 일이 벌어지고 말 큰일이다. 글로 다하기 십지 못할 일을.... 나는 잠이 안 올 지경을 孟植은 태평. 어새 가라앉길.

◎ 9월 11일 (음 8월 2일) 월요일

食前에 (...) 孟植 家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나

드러가 보니 사정없이 신경질을 피워 孟植을 데리고 올라니 말을 안 드러 한참 만에 보내고 계수씨에게 알아보니 孟植이 모든 것이 지나친 것이라 집에 와 타이르니 듣는 듯하여 한나절이나 혼계를 했다. 잘 아랏노라 하더니 點心 먹고 나서 또 버석 심하여 또 막무가넌[막무가넌]지라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또 지나친 관습과 정신이상인 것 같이 보인다. 확실히 孟植이 잘못으로 보게 된다. 말로 못 당하겠기에 나는 그만 두고 있으니 어대론지 같더니 급기야 술이 만취되어 도라와 술주정을 하여 피했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敎雨아저씨가 와 의논하고 있을째 곤두레가 되어 자는 줄 알았던 孟植은 벌떡 이러나 敎雨아저씨와 나를 마구 갈겨대는 것이다. 目下 다 닥치는 대로 때리어 洞里靑年들이 오고 아버지가 와 진압시키었다. 큰일이다.

◎ 9월 12일 (음 8월 3일) 화요일

늦게 일어나 朝飯 後에 孟植이 서울 간다고 떠났다고 한다. 종일 손에 일이 안 부잡히고[붙잡히고] 하며 그럭저럭 하니 저녁을 먹고 나니 孟植이 드리와선 오늘 저녁에 확실한 단서를 찾는다고 하며 방환복과 거문 옷을 달라니 주는 모양이다. 나는 아버지 家로 가서 洞會에 갔다왔다. 아버지 家에 가보니 男편을 그 지경으로 만든 계수씨는 표정 다름 데 없고 희희낙낙하다. 그럴수가 있을까? 妻에 대한 지나친 신경과민이다. 웃재서[어째서] 妻를 그리 못 미들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孟植이 불상하다. 사람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나. 타이르는 나도 못먹것다고[못쓰겠다]고 한다. 중간에 끼있는 나도 어이할 바를 모른다. 계수씨 행동에 대한 孟植의 말을 아무리 生覺해도 납득이 안 간다. ...

◎ 9월 13일 (음 8월 4일) 수요일

새벽녘에 孟植이 도라왔다. (...) 서울 간 줄 안 孟植이 나만 나물 말고 오늘내일로 단서를 잡을테니 보라고 하여 하여간 단서를 잡으라고만 했다. 단서 잡지 못하고 발각되면 안 살피만 못하다고 했다. 종일 잇다가 저녁 먹고 서울서 오는

것 같이 도라갔다. 미친 것이나 아닐까. (...) 맹식의 꼴이 아주 말이 아니다. 孟植이 처를 의식하는 것은 무리 아닌 것이 아니라니 남이 모르는 秘密을 内外之間은 아는 것이다라고 하며 전여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오직 뚜렷한 단서가 나오길 축원. 믿을 수 없는 일은 孟植이 실성이 아닌가도 의심걱정.

◎ 9월 14일 (음 8월 5일) 목요일

전일 저녁에 또 불란[분란]이 나서 우리 집으로 오고가고 큰 소동이 났다. 孟植이 저 꼴이 되고 불란이 이러나는 것도 계집 잘못 얻은 탓이다. 말은 청산유수 능수능난한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못할 말이 없고 内外지간에 한 말도 숨기는 일이 없이 마치 방송국과 같다. 내가 부끄러울 일이다. 食前에 가보니 싸우고 야단이다. 참으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마찬가지다. 洞里사람이 다 풀려나왔다. 갠신이 만유[만류]하여 진정이 뒀으나 계집 근심 걱정 없이 말이 아니다. (...) 點心도 안 먹고 新浦에 가 孟植 分家 申請을 하라 갈다가 못하고 왔다. (...) 패가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앓인 사람 선 사람 모두 못 살게 된다. 계집의 꼴은 가광[가관]이다. 孟植이 뒤집히었다. 큰일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 9월 15일 (음 8월 6일) 금요일

오늘도 난. 소동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 집으로 몰려왔다 아버지 家로 몰려갔다. (...) 입 가진 사람은 모두 孟植이 죽을라고 한 것이냐 살라고 말한거냐고 孟植이 말이다. (...) 급기야 孟植이 항복하고야 마랐다. 이렇게 될 말을 뻔히 알며 왜 벌리었냐 말이다. 한숨지사다. 못 살게 되었다. 孟植은 이 동리에서 못 살게 되고 나도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게 만드렸다. 모든 것이 그 계집 때문인데 집에 가서 또 계집과 같이 자며 소곤소곤 했더니 그게 미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계집은 孟植을 모독하는 것은 如前하고 이 일을 벌릴랴 한다.

◎ 9월 16일 (음 8월 7일) 토요일

氣分이 조치 안아 마루 끝에 앉아 있으니 春子

가 와서 작근업빠 떠났다고 한다. 깜작 놀라 언제집[언제쯤] 떠났느냐니까 벌써 新浦는 더 갈 것이라 하여 곳 쪼차가 만나보고 십여 쪼차가다가 돌팍재까지 벌써 車 時間이 지난지라 그냥 속이 쓰리고 하여 못 배길 지경이다. 그 봉변을 당하고 하늘이나 땅밖에 몰라줄 그 원한을 품고 허청그리고 떠난 孟植을 生甞하니 앞을 가리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다. 妻 한 번 잘못 만나 생전을 버림 받는 사람을 만드렷으니 그 계집이야말로 원수 원수다. (...) 우리는 왜 이리 福없이 사라야 되나. 어디를 가던지 잘 지냈으면 좋으련만 축원하며.

◎ 9월 21일 (음 8월 12일) 목요일

... 저녁에 일직 자리에 들라니 春子가 와 작근업빠 소식 왔다고 한다. 서울 春植 집에 있다 한다. 自己 妻에게 왔다고. 그 처로 困해 그 모양 그 꼴이 되어 패가망신하고 집을 나간 孟植이 그래도 누구보다 妻가 第一인 모양이다. 如何間 孟植이 보통 정신은 아니다. 오늘도 야단이다. 가만이 앉아 있는 나까지도 흔들고 도라다니고 있다. 洞里 몇몇 배가 맞는 사람과 같이 흠을 말하며 저녁에는 나를 보고 떠드렷다 하니 말같이 않아 참관치 않았다.

◎ 9월 25일 (음 8월 16일) 월요일

... 일하고 집에 오니 孟植이 왔다. 돈을 장만하려 왔는데 벼란간 어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하니 매우 좋지 않게 하고 같다.

◎ 9월 22일 (음 8월 13일) 금요일

朝飯 前에 매끼 몇 다발 틀고 朝飯 後에는 孟植의 세간짐을 도루 아버지 家로 運반했다. 그리고는 종일 그럭저럭했다. 孟植의 行方을 몰려 걱정을 했더니 아버지에게도 소식을 前했다 한다. 그 중 성가신 것은 나 것이건만 그래도 끌리기는 아버지가 더 낫은 모양! 가마니 하는 일을 보면 나보다 아버지 家에 대해서 더 여기건만 나는 저 이들을 더 여기고 行動했다. ...

◎ 10월 3일 (음 8월 24일) 화요일

... 말 드르니 孟植이 妻가 떠났는데 孟植과 같

이 같다고 한다. ...

◎ 10월 8일 (음 8월 29일) 일요일

... 저녁을 먹고 나니 孟植이 서울서 왔다. 內外가 함께 왔다는 것이다. 웬일인지 아버지와 庶母는 우리를 버듬이[버름히;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사이가 뜨게] 여기고 행동이 아주 다르다. 庶母가 무슨 말을 한 모양.

◎ 10월 11일 (음 9월 2일) 수요일

... 春植이 서울에서 다니라 왔다. 밤이 익숙도록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家로 올라갔다. ...

◎ 10월 15일 (음 9월 6일) 일요일

... 水原 손님과 같이 자고 떠난다 하여 朝飯 後에 떠날 차비를 차리고 8時 30分頃에 떠나는데 아변님을 보고 가겠다고 하여 데리고 아버지 家에 갈더니 손님이 잇는 곳에서 왜 데리고 왔느냐는 것이고 庶母는 이유 없이 골이 난 것으로 음물로 나가 버린다. 손님 보기에 아주 안 되었고 또 선보라 온 것이니 오죽이나 잘못이나. 무슨 이유인지 모를 일이다. 新郎감이 시르면 시른 것이지 그것이 아버지 된 사람으로 할 태도나. 이것은 人間性을 떠난 행동이다. 아버지 된 사람도 우리 子息덜이 子息 같이 生甞치 안치만 庶母 비위를 마치기 위한 행동이다. 나는 아주 기분 나쁘게 종일 버뭇을 끄디리였다. (...) 혼인이니 잘 되었으면.

◎ 10월 17일 (음 9월 8일) 화요일

... 春子 婚姻問題를 아버지가 끄리는[꺼리는] 듯하여 水原으로 기별할라니 春子가 하겠다고 하니 곤난한 일이다. 당자가 좋다는 데야 어이 할 수 없으나 아변님이 이해할까. 저녁에 春子가 아변님에게 말씀했다고 기별 말라는 것이다. 아변님도 네가 좋으면 그리하라 하며 끄린 일 없다고 하더라고 春子가 와 말한다. 이것이 庶母의 공작이다. ...

◎ 10월 21일 (음 9월 12일) 토요일

... 대충 春子한테 갈 것을 計算해보니 10만원도 보잘 것 없을 것 같다. 아주 불성모양인데도 이다. 妻를 場에 보내는 것도 한 푼이라도 절략

하는 妻인지라 妻를 보내는 것이다. 하기가 흥청 그리면 우리 신집살림이 아주 말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最下의 生活로 겨우 밥 먹게 된 우리 살림을 生覺해 볼 때 지나온 것이 아주 험악했다. 父母의 德을 못 바든 우리는 결심도 대단했던 것이다.

◎ 10월 23일 (음 9월 14일) 월요일

新郎될 吉서방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오늘 일을 마치[맞춰] 安雨家 일을 食前에 같다. 吉서방은 朝飯 後에 떠났다. 庶母는 종일 골이 났다니 별을 받어도 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전실 子息 四柱 받은 것이 못마땅할[못마땅할] 게 무어냐. 하늘이 무심치 안으랴. 아버지 일이 더 우승광스럽다[우스꽝스럽다]. 子息을 버려도 분수가 있지? 庶母 보고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칠 것인데 왜 이리 미리 서둘까. (...) 종일 氣分 좋지 않게 일을 하고 왔다.

◎ 10월 26일 (음 9월 17일) 목요일

... 春子 婚日을 불라갈 날이 없어 아버지에게 말하니 같다 오신다더니 저녁을 먹고 아버지 家에 올라가보니 生覺도 안 했다고 한다. 저녁에 이말저말 하니 아주 남의 말 하듯 한다. 가서 말하니 아주 氣分이 안 난다. 아주 모른 채 한다.

◎ 10월 28일 (음 9월 19일) 토요일

... 春植과 孟植이 서울서 왔다. 아버지는 갑 비싼 털옷을 해왔다 한다. ...

◎ 11월 6일 (음 9월 28일) 월요일

... 春子 문제도 나 혼자 걱정이지 동생들이나 아버지도 모른 채하고 있다. 인복(人福)을 못 탄 제(罪)다. ...

◎ 11월 9일 (음 10월 2일) 목요일

... 來日 水原을 갈라고 아버지 家에 의논차 올라갔다. ...

◎ 11월 10일 (음 10월 3일) 금요일

食前 첫차로 水原 갈라고 하다가 비가 오락가락해서 午車로 떠났다. (...) 날은 26일(陰)로 定하고 나는 水原 작근아버지 家로 가 늦게 자리에 드렸다.

◎ 12월 8일 (음 11월 1일) 금요일

손님이 전부 떠나시고 나니 집안이 쓸쓸하다. 무리니 애와 妻는 빨래를 했다. 나는 어린 것을 보아주다가 둘째祖父 家 음물 파는데 午後에 협조를 해주었다. 午後 늦게 安書房이 와서 같이 夕飯食事を 했다. 저녁에 자리에 드니 일전에 큰 어머니가 한 말이 生覺이 나니 마음을 어이 할 곳 없다. 마음이 不安하고 누가 나를 중상모략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을까? 큰어머니라는 사람이 세재祖父와 부동이 되어 조작하여 퍼트린 말이거나 庶母와 몇이 나를 중상모략한 것이 아니면 그럴 사할 사람이 없다. 에라 죄는 진대로 공은 닦은 대로 가겠지?

◎ 12월 11일 (음 11월 4일) 월요일

... 英浩는 어느 정도 생기를 얻은 듯하다. 진물이 빠져야 화기가 빠지는 것이라 하니 진물이 안 나와 더디 안글[아물] 것인가 걱정이다. 安仲場에 가서 약을 사왔으면 좋으련만 妻 혼자만 두고 갈 수 없어 仁川 아주머니에게 附託을 했더니 데디마이싱 1500환짜리를 사왔는데 차도가 있으면 또 한 병 사다노라고 하더라고 감은 如何間하로 速히 안글길 바랄 뿐. 洞里 사람이 다 왔다 같으나 庶母는 머리로 안 디미렸다. 앓는 놈도 앓으려니와 성한 父母도 볼 수 없이 되었다.

◎ 12월 12일 (음 11월 5일) 화요일

우리는 英浩 간호에 전심을 하고 있으나 오늘은 前口보다도 더 보챈다. 洞里 사람들이 問病次 여러 사람 왔다갔다. 午後에는 英浩가 點心도 안 먹고 해서 外上 藥값 600圓을 지불하고 사과 200환어치를 사다 메겼다. 몸이 성치 않으니 별로 종와치도 않고 한 알 먹고는 안 먹었다고 한다. 저녁나절 큰아버지가 옹포의 金龍浩 醫師가 디운데 바르는 좋은 藥이 있다 해서 단거름에 뛰어갔다. 가루약인데 집에 바르든 藥이 남아 바르고 來日이나 바를까 한다. 저녁에도 보챈다. 신음하는 것을 보면 속이 탈 지경이고 볼 수 없이 안타깝다. 말을 좀 하고 생기가 나면 어른도 생기가 난다.

◎ 12월 13일 (음 11월 6일) 수요일

자고 일어나 火傷處를 보니 속껍질이 벗어졌다. 곳 약을 발라 주었다. 잠도 자는 등 마는 등 하고 일어나니 골이 황하다. 밥맛을 일어 통 밥을 먹으려 들지 않는다. 간호하는 우리도 입맛을 일었다. 낮에는 그럭저럭 노랐다. 英浩가 덜 보채면 어른들의 얼굴살이 퍼지고 英浩가 신음하면 어른들도 같다. 저녁엔 일직 자리에 드렸다. 통 약을 안 바르려는데 성화다. 방을 하시오[한시도] 떠나지 않고 시늉한다. 이렇게 100분지 1만 해도 큰 효자다. ...

◎ 12월 19일 (음 11월 12일) 화요일

... 저녁을 먹고 다섯째祖家로 새끼를 꼬라 가 몇 발 꼬니 鍾소리가 요란히 나며 위마디 소리에 튀어나 급히 나와 보니 아버지 家에 불이 났었다. 8時 頃은 되었을 것. 사랑채가 불이 뿔뿔고 안채 거느방[건넌방] 쪽에 불이 당기여 안채 건지기에 사랑채는 포기했다. 지붕을 찢러 냉기여 [잘라 넘겨] 안채는 구급 되었으나 사랑채는 완전 全燒시켰다. 11時 頃에 불을 다 잡고 나는 1時까지 순행을 도라 불이 더 날 곳을 보살피고 2時 頃에나 골이 아프고 해서 집에 왔다.

◎ 12월 20일 (음 11월 13일) 수요일

前日 아버지 家 大火災로 因하여 종일 火災 뒤치다꺼리를 했다. 안채도 다 해이고 김불 재 등을 글겨내고 울타리도 하고 오양간[외양간]도 임시로 지었다. 洞里 사람이 모두 협조했다.

◎ 12월 31일 (음 11월 24일) 일요일

올해도 저물어 마지막 카렌다를 뒀다. 多事多難한 해는 거듭된다. 비교적 농사는 잘 되었으나 아주 복잡하고 속타는 해다. ...

1962년

◎ 1월 2일 (음 11월 26일) 화요일 晴

前夜 늦게까지 놀다온 나는 늦잠이 드렸다. 일어나기 싫은 몸을 어린 것들의 성화에 起上치 않

을 수 없어 일어나 寢具를 개 안고[없고] 나가니 날씨는 차거운 날씨다. 春子를 出家시킨 後 나는 晝寢 보대끼는 형편이다. 食前에 房 치우는 거며 어린 것들의 관계치 않는 내게 전부 내 차지다. 朝飯 後에도 어린 것 기저귀 빨아 올 동안 집에 있고 보면 해 짧은 요사이 點心때다. 朝飯 床만 물리고 나면 마실 가는 나는 晝寢 고디다 [고되다]. ...

◎ 1월 7일 (음 12월 2일) 일요일 晴

... 밤에는 寬植 家에 둘째兄弟가 와 밤 늦게까지 놀다 왔다. ...

◎ 1월 8일 (음 12월 3일) 월요일 晴

春子를 出家시킨 後 妻는 어린 것들에 보대끼여 헤어날 길이 없어 오늘은 짜증을 내며 어린 것들을 좀 보아주라는 것이다. 허나 오늘 왕겨를 깔고 올라고 高棧에 떠나 왕겨 19畝와 공겨 3畝를 찢다 마차로 실고 왔다. ...

◎ 1월 9일 (음 12월 4일) 화요일 晴

자고 일어나면 新鮮한 새벽 空氣를 마셔야 몸에도 좋을 뿐 朝飯食事 달게 드는 것인데 어린 것들과 씨름하고 세수하러 가는 것도 틈을 내야 밖에[밖에] 나가게 된다. 食前에 어린 것들에 시달린 나는 朝飯 수팔 놓차 곳 나가버리면 妻는 좀 보아주어야 한다고 야단이다. 그래도 보면 볼수록 정이 들고 재롱에 빠지면 모든 게로움이 없어진다. 밖에 나갈다가도 곳 도라와 어린 것들과 노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生活이고 藥인 모양이다. ...

◎ 1월 23일 (음 12월 18일) 화요일 晴

妻가 집에서 어린 것이라도 좀 보아달라는 것을 朝飯 後에 나가 高棧에서 놀다가 夕飯食事할 무렵에야 왔다. ...

◎ 1월 24일 (음 12월 19일) 수요일 晴

오늘도 朝飯食事 後 나가 午後 늦게 집에 도라왔다. (...) 저녁 나절 도라오니 妻는 골이 나 한참이나 꾸벅하는 모양이나 못 드른 척 했다. ...

◎ 2월 12일 (음 1월 8일) 월요일 晴

몇일 동안 피곤했던 몸을 쉬기로 하고 朝飯 後

에도 누어 잇을라니 庶母가 편치 않다 하여 올라가 보고 와 妻의 빨래하는 고로 어린 것을 보아 주었다. 할면님도 큰집으로 가시었다. (….) 夕飯 食事は 아번님을 모셔다 했다.

◎ 2월 20일 (음 1월 16일) 화요일 晴

雄浩가 오늘은 차도가 있는 것이다. 몇일 동안 설사로 고생하더니 아이가 아주 훌죽했다. 온 집안 食口가 生氣가 난다. 夕飯 後엔 마실을 갈다 늦게 도라왔다.

◎ 3월 22일 (음 2월 17일) 목요일 晴

… 午前에 高棧 갈다오니 孟植 内外는 떠났다. 어린 것이 성창아 藥을 사갈고 오니 水原에 内外가 온다고 해서 마중나갈다 왔다.

◎ 3월 24일 (음 2월 19일) 토요일 晴

水原애가 오늘 떠난다고 해서 참쌀 1斗를 사다가 떡을 했다. 10時頃에 水原에 内外는 떠났다. 路資 200환. …

◎ 4월 4일 (음 2월 30일) 수요일

… 敎雨 당숙가에 갈섰다. 來日이 세재祖母의 生辰日이다. 孟植의 관계로 매우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나 나는 하느라고 했다. 잠깐 들리어 一金 仟圓의 부조를 했다. 春子 치울 켜 누기[누구] 한 사람 드러다 본 사람 없고 세재祖母는 아주 등진 사람 같다. 나는 좋은 것이 좋은지라 그러한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늘도 심부름을 한참 했다. …

◎ 4월 12일 (음 3월 8일) 목요일

모자리를 쓰릴라고 소를 가질라 갈더니 아번님은 갈다 쓰리라고 하는데 庶母가 일군을 데리고 소를 끌고 골이 잔득 난 얼굴로 농꼐로 가는 것이다. 소를 가져오면 그냥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꼭 따져 일을 해주었다. 氣分이 아주 좋지 않은 나는 庶母가 말할 수 없이 꺾심하다. 소는 午前 中 농꼐 갈다 매놓았다. 종일 氣分이 나빴다. 다른 집 소를 얻어 부렸으면 生覺 되나 속 모르는 他人은 나를 잘못이라 할 것이 아닌가. 庶母는 잊이 되던지 우리 농사를 피롱하도록[避農하도록; 농사가 정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라는 심사다. …

◎ 4월 26일 (음 3월 22일) 목요일 雲

食前に 논을 일주하고서 朝飯을 마치고 서울로 떠났다. 今般의 産業博覽會에도 가볼 겸 떠났다. (….) 곳 春植 잇는 곳을 찾아 도착한지 下午 1時頃이 되어 좀 잇다가 昌景苑에 가 夜外 벗곳을 보았다. …

◎ 4월 27일 (음 3월 23일) 금요일 細雨

朝飯을 春植 家에서 하고 孟植과 目的한 産業博覽會에 갈다. (….) 孟植 家에 鍾植 外祖父 3兄弟가 와서 아주 不便을 느꼈다.

◎ 4월 28일 (음 3월 24일) 토요일

朝飯 後에 昌德宮과 비원을 갈섰다. 카메라 필름을 사 갈고 孟植과 함께 갈섰다. (….) 孟植 家집에 오니 鍾植 莊植 등이 와 있다. …

◎ 4월 29일 (음 3월 25일) 일요일

서울 가서 3日 저녁을 잤는데 한 달이나 되는 듯하다. 오늘 일직 집에 올라고 朝飯 後에 바로 떠났다. 水原의 妹家에 들려올라고 한 것이 집의 모짜리며 家事가 걱정이 되어 못 다녀왔다. …

◎ 5월 1일 (음 3월 27일) 화요일 晴

밤새도록 雄浩가 보채고 기침이 심하였다. 날만 새면 病院에 갈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좀 차도가 잇는 듯하여 마음을 놓았다. 오늘도 들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午後에 집에 잇으니 水原애가 왔다. …

◎ 5월 5일 (음 4월 2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を 일직 하고 水原 애 떠난다고 한다. 혼자 보내기 뒤흔 妻를 같이 가 發安場을 보고 올라 했다. 路資로 一金 五百圓을 주고 妻는 내가 서울까지 갈다온 先物이 없어 섭섭해서 스이스 갑사 적삼(春秋用)을 사 이부라고 2,000환을 주었다. 오늘 發安場에 가서 쓰고온 金額은 3,500환 가량 된다. 나는 종일 雄浩를 보아주었다. …

◎ 5월 27일 (음 4월 24일) 일요일 雲

… 사소한 일로 妻와 다투었다. 일이 거칠어 내가 질색인데 또 말을 하면 큰소리를 내고 덤비니 言사는 讞하가는[높아가는] 것이다. 일이 꼼꼼한 女人은 못된다.

◎ 7월 31일 (음 7월 1일) 화요일 晴

… 나는 종일토록 속이 不便하여 누어 있었다. 좁은 마루에 반을 차지하고 누어 있으니 妻는 짜증을 낸다. 가마니 妻의 일을 살펴보니 매우 피곤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린 것들이 하로면 몇 차례식 옷을 버려다 놓고 마루 방등은 흠발로 올라내려 그것 치우라 집안일 치우라 그뿐이면 괜참에 밭으로 나가고 안일 치우며 누어 있는 나도 보기에 민망스럽다. 그리하여 聘母任 生辰도 겸하고 해서 親家에를 來日 보내기로 하고 準備를 하라했다. …

◎ 8월 2일 (음 7월 3일) 목요일 雨

… 7時가 넘었다. 朝飯床을 무리치야 할 時間이 되었지만 나는 태연한 듯 서서히 일어나서 朝飯 취사를 始作했다. 쌀을 씻고 보리쌀을 씻고 이르고 해서 솥에 넣고 물을 정당히 부고[붓고] 불을 때고 설거지를 하고 상을 놓고 찬장의 반찬을 골고루 내어 朝飯食事を 했다. 妻를 親家에 보내기 前엔 도저히 못 해먹을 줄 알았더니 막상해보니 할 만하다. 속이 不便한 나는 한 공기 가랑 먹었다. 또 도야지 죽도 해주었다. 點心도 夕飯도 해놓았다 먹었다. 혼자 끄려먹는 것 몇일 하것는데 妻를 집을 마끼고 마실을 종와하는 나는 집이 비여 마실을 가도 조바심이 된다. 저녁을 먹고는 곳 자리에 드렸다. 종일토록 비는 부슬부슬 나린다. 雄浩가 눈에 선하고 하루 사인테 보고 쉽다.

◎ 8월 5일 (음 7월 6일) 일요일 雨雲

밤새도록 화장실에 드나든 나는 기진맥진 하여 朝飯 취사도 않고 누어 있었다. 7時 半 頃부터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9時 頃까지는 왔을가 한다. 나는 또 잠이 들어 누어 있으니 英浩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10時나 되어서다. 어린 것들을 데리고 無事히 歸嫁해 多幸이다. 妻家도 별고 없다고 한다. …

◎ 8월 24일 (음 7월 25일) 금요일 雨

… 午後 늦게 아버지 家에 들렀더니 春植이 왔다. 孟植과 사이가 좋지 안은 모양이다. 위롭게 [외롭게] 자라난 우리 三兄弟인 것이건만 왜 이

다지도 충돌이 잇는지? 庶母는 아주 잘 되어 간다고 좋아할 것이 틀림없다. 庶母의 계획은 공작은 첫째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둘째 우리 三兄弟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쯤 되고 보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누구를 책할 것도 없이 각자 自己主張인데서다. 동생들에 나 누어진 땅도 아버지 손에 넣고 있으니 요지부동이 되었다. 春植의 結婚 問題 等 누구 한 사람 생뿔하는 사람 없다. 두고 볼 일이다. 존재 없는 나는 어이 할 길 없다.

◎ 8월 26일 (음 7월 27일) 일요일 雲雨

… 집에 오니 무리니[문언리;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 내에 있는 마을 이름 애 内外가 왔다. 春植 僊植 命植 安書房 等 夕飯食事を 같이 했다. …

◎ 8월 28일 (음 7월 29일) 화요일 晴

春植과 같이 朝飯食事を 하고 安書房이 와서 좀 앉았다가 春植이 오늘 떠난다고 하여 전송차 아버지 家에 가 春植을 떠내 보내고 와 좀 있다가 點心을 먹고 모짜리 한 논 피사리를 했다. …

◎ 8월 30일 (음 8월 1일) 목요일 晴

… 무리니애의 말에 依하면 계수씨가 행동이 出嫁하기 前에도 좋지 안아 소문이 났다고 한다. 장가 한 번 잘못 드러 집안을 뒤집어놓았다.

◎ 9월 17일 (음 8월 19일) 월요일 雨雲

… 어린 것이 그릇(접시 大)을 깨튼 것이 變化가 되어 妻와 큰소리를 냈다. 간수성이 不足하고 모든 일에 차근차근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이 거칠고 하여 말을 좀 했다. 한 마디 말을 하면 뎀버드는 데는 질색이다.

◎ 10월 5일 (음 9월 7일) 금요일 晴

… 食前엔 前日 妻가 걸어는 콩을 저 드리였다. 일을 하고 오니 향아리를 샀다고 하여 야단쳤다.

◎ 10월 16일 (음 9월 18일) 화요일

… 點心을 먹으랴 오니 3時다. 雄浩가 몸이 성찮아 熱이 오르고 있다. 妻가 데리고 젖을 주니 벼란간 눈을 쏸두 뜨고 정신을 일으키니 큰일이 났다. 기가 질린 父母는 곳 진통제를 주고 消化製

를 맥이고 했더니 한참만에 돌리었다. 어린 것 길이기란 이렇게 힘 드리고야. 우리 애들은 속을 이리 썩이고야 자라나. 貴하다고 하니 父母의 간장을 태운다. 마당을 치우는 등 마는 등 하고 어린 것 雄浩 옆에 붓어있다가 저녁도 먹는 등 마는 등 잇다가 밤도 새우고 어린 것을 보살폈다.

◎ 11월 7일 (음 10월 11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이 편치 않다고 해서 올라가니 그만 하시여 내려와 時祭에 갈까 하고 있으니 소를 부릴려면 부리라고 해서 소를 갈고와 농꿀 닷 마지기를 갈라고 갈더니 물이 깊어 못갈고 서 말 가웃지기와 아는 일곱 [마]지기를 갈았다. ...

◎ 11월 18일 (음 10월 22일) 일요일 晴

... 저녁 먹을 경에 孟植이 왔다. 孟植의 논을 팔라고 하는데 날더러 말으라고 하고 그리치 않으면 서울의 집을 보아놓은 것을 170만원짜린데 사라고 한다. 孟植의 말도 믿을 수 없다. 精神이 아직 믿을 수 없는 精神이다.

◎ 11월 22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 아버지가 2日前에 낳은 송아지가 젖을 안먹는다고 해서 올라가보고 도라올라니 언제 왔는지 孟植의 妻 계수씨와 왔다. 지금도 같이 있기만 하면 内外之間에 싸운다는데 왜 이곳에다 갈다 두고 갈는지? 다 성가신 일이다. ...

◎ 11월 26일 (음 10월 30일) 월요일 雲

오늘 妻가 김장하는데 協助해주었다. (...) 저녁 먹을 頃에 春植이 왔다. 잘 잇다고 하니 다행이다.

◎ 11월 30일 (음 11월 4일) 금요일 晴

... 安雨 家에서 할머니 病을 보고 注射를 놓아달라고 해서 보고 왔다. (...) 저녁을 마치고 아번님이 보자고 해서 올라가니 興植 家 논을 사도록 했는데 한 가지 걱정은 興植 家 논은 등기가 안 나 있어 不動産 취득權에 있어 장차 어이 될 것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여 논은 마음에 들었으나 등기 문제로 주저하는 것이었다. 더 좀 두고 보자고 했다. ...

◎ 12월 12일 (음 11월 16일) 수요일 晴

... 저녁을 먹고 나니 孟植이 왔다. 땅을 팔아달라는 것이다.

◎ 12월 30일 (음 12월 6일) 일요일 晴

... 朝飯食事を 마치고 나니 孟植이 와서 농꿀 논과 받원 孟植의 논을 사라고 졸라 興植의 논도 흥정 중에 잇고 또 마음에 들고 잇으나 兄弟之間에 하도 조르는 고로 마지못해 반송락을 했다. 농꿀 닷 마지기와 받원 1마지기다. 여유가 38畝뿐인데 40畝를 달라고 해서 반송락을 하니 좋아라고 떠났다. 땅 흥정을 하고 나도 개운치는 않다. ...

1963년

◎ 1월 1일 (음 12월 6일) 화요일 雪雲

또 한 해를 마지했다. 초하루의 氣分이 안난다. 아직도 우리 韓國엔 陽曆과세 하는 집이 거의 없을 程度다. 우리 村엔 陽曆을 세는 집이 한 집도 없다. 官公所은 3日間 休日임에도 제사 차리는 집이 없다. (...) 우리는 오늘 安仲場에 갈 겸 妻家에 消息이 없어 궁금하다가 5時에 밥을 먹고 妻家로 해서 場에 다녀왔다. 妻家엔 昨年에 처남이 米穀장사 하다가 실패하여 今年에 定理하느라고 좋은 논 3마지기를 賣度해서도 不足이라고 한다.

◎ 1월 2일 (음 12월 7일) 수요일 晴雪

妻家에 行. 朝飯食事を 하고 마을 가서 잇으니 孟植이 보자고 해서 건너오니 孟植의 논을 산 쌀을 내야겠다고 하며 우선 10畝 감만 내겠다고 하여 妻家에서 쌀 買하기 어렵다고 하기에 쌀돈을 뉘라고 自轉車로 떠났다. 午後에 도착했다. 午後부터는 눈이 날리었다. 일년만에 간 妻家이다. 쌀에 對한 議論을 하니 運반하기 어려워 할 수 없다고 한다.

◎ 1월 3일 (음 12월 8일) 목요일 晴

妻家집에서 하루 夜을 宿하고 今日은 떠나야겠다고 食前에 일어나보니 눈이 많이 나리었다. 도

저히 自轉車로는 올 수 없어 못 오고 오늘 午後엔 妻男에게 밤나무 토막을 얻어 도야지 밥 구움[구유]을 妻男이 파서 노았다. 집에 못 온 나는 조바심이 되어 못 견딜 지경이다. 하는 수 없어 오늘도 妻家에서 묵었다.

◎ 1월 4일 (음 12월 9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도야지 밥 구움을 싣고[싣고] 떠났다. 눈에 빙판이 저서 自轉車 일이 매우 좋지 않다. 오느라고 매우 고생을 했다. …

◎ 1월 17일 (음 12월 22일) 목요일 晴

… 마실 가서 있으니 妻男이 왔다고 해서 건너가 보니 큰 妻男이 왔다. 點心을 마치고 高棧 甲秀家에 가 술과 夕飯食事を 하고 왔다.

◎ 1월 19일 (음 12월 24일) 토요일 晴

어린 것들이 起寢(百日咳)이 심하여 妻는 發安으로 藥을 買라 가고 나는 어린 것들 보아주며 농꼴로 뒤엄을 저 냈다. (….) 저녁을 먹고 나서 마실 가 새끼를 꼬고 있으니 孟植이 와서 오라 해서 오니 車를 갈고 왔는데 당장 쌀도 萬門을 낼 수 없느냐고 하기에 당장은 어렵고 來日이면 될상 십다고 하니 來日 오기로 하고 먼집변에 갈고 가다 남은 쌀을 갈고 갔다.

◎ 1월 21일 (음 12월 26일) 월요일 晴

… 孟植이 前日 온다던 것이 안온 줄 알고 쌀 살 사람을 오라 해서 왔는데 좀 기달리라고 하고 보냈더니 孟植은 前日 와서 아버지 家에서 자고 가면서도 안 왔다. 孟植으로 해서 내가 실 없는 사람이 되었다. …

◎ 1월 29일 (음 1월 5일) 월요일 晴

오늘 날씨도 맑고 (….) 氣分전換도 할 겸 妻家에 가기로 하여 朝飯食事後에 新浦로 떠났더니 車가 떠나버리어 午後 三時車로 妻家에 갔다. 妻家에 夕飯 알맞게 到着했다.

◎ 1월 30일 (음 1월 6일) 화요일 晴

오늘은 妻家에서 權管里 同婿집에 가볼라고 한 것이 妻堂叔 家에 갔더니 六寸同婿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어 못 떠나고 같이 놀았다. 夕飯食事後에도 늦도록 노았다.

◎ 1월 31일 (음 1월 7일) 수요일 晴

오늘은 집에 오기로 한 날인데 妻男과 함께 權管里에 떠났다. 午鍾이 지나서 倒着했다. 술과 국수를 나누고 羅刑査를 오라고 했다. …

◎ 2월 1일 (음 1월 8일) 목요일 晴

그렇게 춥던 겨울 날씨도 많이 풀리었다. 오늘은 집에 올라고 朝飯食事後에 서둘르다가 點心을 먹고 떠났다. 오다가 妻男이 妻家로 같이 드리갈다가 來日 떠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安仲으로 나왔다. 초행길이라 그러한지 아주 멀다. (….) 집에 오니 마음이 풀리고 해서 몇일 동안의 여정을 풀었다. 3日 나갔다는 것이 10餘日 이상 되는 氣分이 난다. 어린 것들도 아주 방가워한다.

◎ 2월 10일 (음 1월 17일) 일요일 晴

… 午後에 술을 하자고 해서 寬植과 있으니 溫陽 四寸妹弟가 와 같이 술을 나누고 있으니 孟植이 쌀을 가질러 왔다고 하여 건너와 보니 車를 갈고 왔다. 쌀은 妻家집 집안에 長利를 논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머지 31畝를 오늘 실리었다. 땅값은 오늘 다 치른 것이다. …

◎ 2월 24일 (음 2월 1일) 일요일 晴

… 논뚜랑을 돌고 있으니 동육꼴 미루나무를 아번님이 와 비여 속이 상해 올라가 나도 집지 할라고 애끼는 것을 아번님 집짓는데(사랑채) 비느냐고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사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집 질 때 준다니 두고 볼 일이다. 子息의 것을 그리 당길라고 하니 속이 상해 저녁밥도 안 먹었다.

◎ 3월 5일 (음 2월 10일) 화요일 晴

發安場에 朝飯食事を 일직 물리고 떠났다. (….) 悠雨, 德雨 등이 場에 간다고 해서 一行이 되어 갔다. 上新村에 가서 무리니 安書房(妹弟)를 만나 같이 갈는데 發安 가서 安書房이 點心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一行이 같이 드러가 많은 노자를 축내니 미안하고 안 되었다. 오다가 술이라도 대접할까 한 것이 못 만났다.

◎ 4월 3일 (음 3월 10일) 수요일 雲

… 저녁나절 聘母任이 몇 년 만에 오시었다. …

◎ 4월 4일 (음 3월 11일) 목요일 雲

... 어려운 길을 오신 聘母任을 아무 대접할 것이 없어 답이라도 잡으라고 했다.

◎ 4월 6일 (음 3월 13일) 토요일 雨

... 聘母任은 오시여 떡꾸리[떡서리; 짬으로 날을 촘촘히 결어서 만든 그릇의 하나. 주로 곡식을 담는 데 쓴다]를 놓아 중일 만들었다. ...

◎ 4월 7일 (음 3월 14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を 일직 먹고 聘母任이 떠나신다고 해서 妻보고 新浦에 가 車를 태워 보내라고 했더니 오늘 龍城里 新作路 出役이라고 해서 내가 모시고 新浦에 가 車票을 사고 路資로 一金 200円을 드리었다. ...

◎ 4월 29일 (음 4월 6일) 월요일

참으로 氣分 나쁜 일이다. 몸이 떨리고 안절부절할 수 없다. 큰아번님이 도야지를 보아달라고 해서 가 보니 큰어머니가 반미치팡이질을 하며 우리를 뚫고[헐뜯고] 큰아번님과 싸우고 하는 말이 우리와 관계되는 말을 하고 있다. 참을 수 없어 쪼차가 알아보니 孟植이 前에 不順한 일이 있었다고 庶母가 우리 3兄弟를 얼굴에 뚫치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한다고 하며 洞里에 편론을 했다고. 일이 분해 庶母에게 알아보니 孟植이 행실이 나쁘다고 증거까지 제시하며 셋째祖家와 不難 있을 때 말을 했다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家庭에서 숨겨두어야 할 일을 편론을 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庶母는 음해를 잡아 우리들이 세상에서 못살게 했더니 이게 웬말이나. 붓을 드니 무엇이 무엇인지 붓이 떨려 못 배기겠다.

◎ 4월 30일 (음 4월 7일) 화요일

잠을 한심 못자고 食飮을 일었다. 前日 드린 말을 生覺하면 온 몸이 떨리고 안절부절 할 수 없다. 孟植과 셋째祖와 不難이 났을 때 같이 엉덩겨[들엉기어]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은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친다. 이러니 庶母는 원수가 아닐 수 없다. 중일 누어있었다. 참아 生覺할 수 없는 일이다. 보고 드린 말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다가 나까지 끌고 드러갈다니 이게 말이

냐. 내가 무슨 잘못이나. 孟植이 잘못이면 잘못이지 나는 무슨 상관이나. 결국 우리 집안에 모욕이다. 아번님이 무슨 꼴이나.

◎ 5월 1일 (음 4월 8일) 수요일 晴

... 生覺하면 할수록 분하다. 장화홍련傳이 生覺난다. 庶母란 아니 우리 庶母란 이런 것인가. 福도 못타고 났다. 전장에 무슨 죄가 많아 우리는 이렇게 쓰라린 心境 속에 살아야 하나. 논두랑을 일주하고 와 朝飯床을 받으니 입맛이 떨어지고 분하여 庶母에게 쪼차 같다. 내가 무슨 못된 일을 했느냐고 하니 庶母는 펄쩍 뛰며 孟植이 말했지 누가 權植이는 그런 말을 안했다고 한다. 또한 큰어머니란 사람도 그렇지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 떠들고 다니느냐는 말이다. 큰어머니나 庶母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 恨이다. 洞里사람이 모두 못마땅이 여기지만 우리는 아주 말할 수 없이 분하다. 둘째祖父도 庶母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제 나짜[낱짜]에 침을 뱉은 셈이다. ...

◎ 5월 3일 (음 4월 10일) 금요일 晴

... 氣分이 가라앉지 않고 生覺하면 庶母나 큰어머니가 치가 떨린다. 떠드는 소리가 나 귀를 기우리니 妻와 庶母가 큰소리를 하고 있다. 前 같으면 妻를 꾸짖고 나물했을[나무랐을] 것이지만 오늘은 내버려두었다. ...

◎ 6월 24일 (음 5월 4일) 월요일 雲

... 일을 끝맛고 집에 오니 孟植이 왔다. 孟植이로 인해 洞里에서 사람노릇을 못하고 내가 살고 있으며 계수씨는 내 승을 洞里에 하고 庶母와 함께 중상모략 했든 것을 生覺하면 孟植을 보고도 방갑지 않으나 兄弟之間的 무슨 원한이 있을까. 어머니 없는 서러움에 방가이 마지했다.

◎ 7월 12일 (음 5월 22일) 금요일 雲

... 오늘은 일을 안 가는 고로 朝飯을 늦게 하고 둘째祖家에 쟁기를 가질라 가니 水原 妙順 아주머니가 와 春子 消息을 傳하여 주었다. ...

◎ 8월 16일 (음 6월 27일) 금요일 雲

... 저녁나절 사소한 일로 妻와 큰소리를 냈다. 비위를 거실르게[거스르게] 하여 울컥 하는 심정

을 누르질 못해서이다. 妻란 떼놓고 보면 남과 마찬가지로다. 일심동체란 夫婦生活 속에서다. 내 성미도 좋지 모르려니와[않으려니와] 妻도 좋지 아는 성미다. 妻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일이면 무당 푸념은 이사[예사]다. 고분고분하는 덴 없다. 妻의 성미도 죽이지 않으면 차츰 情의 김은 나간다. 氣分이 아주 덜 좋았다. 氣分이 가라앉지 않는다.

◎ 10월 3일 (음 8월 16일) 목요일 晴

우리 일 (...) 저녁에 집에 와 보니 水原에 内外가 왔다.

◎ 10월 20일 (음 9월 4일) 일요일 雲

... 妻는 發安場에 白米 2斗를 갖고 갔다. 場흥정藥을 330원어치 해오고 水原 생질녀 옷 250원.

◎ 10월 30일 (음 9월 14일) 수요일 晴

水原애가 1個月만에 오늘 떠나는데 妻가 전송을 가게 되어 脫穀을 못하고 게골 나문[남은] 것을 치웠다. 저녁엔 일직 자리에 들었다.

◎ 12월 14일 (음 10월 29일) 토요일 晴

... 저녁에 쥐가 하도 심하여 단속을 태만히 하는 妻를 나물했더니 氣分이 글어 큰 소리를 냈다. 사소한 일로 妻와 다투는 적이 많다. ...

◎ 12월 20일 (음 11월 5일) 금요일 晴

... 저녁을 먹고 나서 강아지 관게로 妻와 또 다투었다. 사소한 일로 相互 지지 않을라는 고로 인쟁은 커지고 싸움의 도화선이 된다. 차츰 남편을 누르라는[누르려는] 심사가 보인다. 당장 고라 죽어도 妻에 눌러 살진 않는다. 이려고 보면 싸움은 잦을 것이요 相互 情은 멀어진다. 自己가 하기 싫은 것은 如何한 일이 있어도 안한다. 나는 기어코 시켜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려고 보면 어린 것들이 불상하다.

1964년

◎ 2월 9일 (음 12월 26일) 일요일 雨雲

解産관[해산구원]을 求하지 못하는 고로 내가

해산관을 하는 고로 조석 때면 세죽[쇠죽] 하라 밥하라 분주하다. 英浩가 協助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產母는 국밥을 잘 먹어 좋다. ...

◎ 2월 10일 (음 12월 27일) 월요일 雲雨

흔떡[흔떡]을 할 生똥으로 食前에 떡쌀을 1斗5升을 담그고 朝飯 취사를 했다. (...) 朝飯食事後에 쌀을 일[어] 떠놓고 點心을 하고서 三溪로 떡을 하라 갈더니 많이 밀리어 늦을 것 같아 動植을 내려와 밥을 하라고 시키고 늦게까지 기다려 집에 오니 11時(밤)이 되었다. 動植은 집에 올려보내고 夜食은 내가 했다.

◎ 2월 18일 (음 1월 6일) 화요일 晴

... 點心은 아번님 家에서 무려니 妹弟와 같이 했다. ...

◎ 2월 22일 (음 1월 10일) 토요일 晴

11時頃에 後坪에 갔다 왔다. 水原 妹弟가 와 같이 놀다가 後坪에 갔다 와 致雨가 軍人 나가는 날이 來日이라고 저녁에 술을 나누어 먹었다. ...

◎ 2월 23일 (음 1월 11일) 일요일 晴

11時頃에 致雨 軍人가는데 전송하고 後坪엘 갈라다가 來日 갈라고 하고 水原妹弟가는 데 보내고 와 한심[한숨]을 잤다.

◎ 3월 3일 (음 1월 20일) 화요일 晴

妻家엘 갔다 올 生똥으로 朝飯食事後에 아번님家에 가 自轉車를 가질라 갈더니 아번님이 안게시여 못가져오고 그냥 車로 가기로 하고 10時半 車를 타다가 12時頃에 到着했다. 妻家에[서] 닭을 잡아 대접을 잘 받았다.

◎ 3월 14일 (음 2월 1일) 토요일 晴

어린 것 出生申告를 했다. 名은 大浩라 하고 今年 28日 出生한 것으로 申告했다. ...

◎ 3월 16일 (음 2월 3일) 월요일 雲

... 학교에 갔다 온 英浩를 데리고 공부를 시켜 보았더니 아주 속이 상해 죽겠다. 明姬 等 다른 아이들은 몇 마디 안 일러주어도 곳잘 하것만 우리 英浩는 아주 모른다. 매옥하다[매옥하다; 하는 짓이나 됴됨이가 어리석고 둔하다]. 공부 잘 하기는 다 틀렸다.

◎ 8월 11일 (음 7월 4일) 화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에 洞里會館 짓는데 가 있다가 妻가 親家에 간다고 해서 맛이나 잡아 보낼까 生覺하고 바다에 갈섰다. 바다에 가서 맛 3, 4사발 잡아 오니 5사발 사고 내가 잠은 것과 함께 갔고 午後 4時半 頃에 雄浩와 大浩를 데리고 떠났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라 고생이나 안을까 걱정이다. 路資로 一金 250원을 주었다. 어제 外上으로 초마조고리 700원에 갈고 왔다. 집에는 英浩와 둘이 남아 저녁 밥을 지어 먹는데 아주 심부름을 잘한다.

◎ 8월 13일 (음 7월 6일) 목요일 晴

… 孟植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檢察에 검거되어 있다고 좀 올라오라는 편지가 왔다. 참으로 불행한 아이다. 속도 참으로 썩인다. 오라고 했으니 가보아야겠는데 돈을 장만해야 될 것이 아닌가. 今年엔 웬일로 이리도 짜이는 해인가? 아주 氣분이 좋지 않다. …

◎ 8월 17일 (음 7월 10일) 월요일 晴

孟植이가 어이 된 사실인가 궁금해서 오늘 서울에 일직 떠났다. 알아보니 별 것이 아닌 것이다. 곳 도라서서 3時 頃에 出發해서 水原 오니 막차가 안 온다고 해서 西井里로 도라 新浦에 밤 8時 頃에 到 집에 오니 9時 歸家했다.

◎ 11월 3일 (음 9월 29일) 화요일 晴

… 계곡을 다 드리고 가리는데[곡식이나 장작 따위의 단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더미를 짓는데] 아주 잘못 드리어 나물[나무람]을 妻에게 했더니 잘한 편으로 대들어 言쟁 끝에 妻가 격결라는[꺾으려는] 心事로 대하여 급기야는 손찌검까지 되었다. 家庭을 建設으로 이끄는 外 男便을 弒이라고[이기려고] 할 때는 용서 없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결코 妻의 손에는 안 드러간다. …

◎ 11월 4일 (음 10월 1일) 수요일 雲雨

… 하루 종일 별일 없이 하루해를 보냈다. 저녁 나절은 비가 나리기 始作했다. 계곡 하다 妻와 싸우고 오늘은 그냥 있다.

◎ 12월 8일 (음 11월 5일) 화요일 晴

… 高棧 같다 오니 庶母가 片紙 한 장을 洞里 사람에게 거이 다 보이고서 나에게 傳해졌다. 春植部隊에서 온 것인데 대리 軍人을 시키고 나와 있어 언제나 끄리는[끼리는] 것이고 他人이 알아 두려운데 洞里사람에게 선전 次로 들고 다니었으니 속이 상해 말마디나 했다. 아무리 제 자식이 아니라 해도 그럴 수가 있을까?

1965년

◎ 1월 8·9일 (음 12월 6·7일) 금·토요일 晴

… 孟植이 저녁에 와 오늘 食前에 와 白米 1畝만 달라고 졸라대며 마지못해 1畝는 주었으나 우리가 살 일이 큰일이다. 아무리 生覺해도 모자랄 것 같다. 인제 집에 있는 거라고 食糧 6畝 半가량 나갔는데 糧渡도 모자란다. 안 줄 수도 없고 큰일이다. 아무리 生覺해도 얻어야겠다. 종일토록 氣분이 덜 좋다. 저녁엔 잠을 못 이루었다. 2畝는 모자란다. 春植의 婚事도 정하게 되면 못해도 1畝 以上 들어야겠는데 걱정에 뜬눈으로 잠을 새웠다. …

◎ 1월 21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晴

妻가 場에 白米 1斗을 갖고 갔다. 어린 것을 보며 집을 보았다. (….) 妻가 場에 갈라면 의례[으레] 돈 때매 걱정 끝에 不和가 온다. 우리는 糧食은 걱정 없는데도 돈에 몰려 이러니 없는 집은 오죽할까.

◎ 2월 7일 (음 1월 6일) 일요일 晴

路資가 없어 妻家엘 갈까 말까 하다가 妻가 一金 3,000원을 주어 떠났다. 妻家에 2時 頃에 着 權管里 同婿도 왔다가 오늘 떠났다고 한다.

◎ 10월 2일 (음 9월 8일) 토요일 晴

… 어제 場에 가 牛足を 갖고 와 닭을 잡고 음주를 해서 잘 먹었다. 雄浩가 여간 좋아한다. 아번님이 걸리여[눈이나 마음 따위에 만족스럽지 않고 연짱아] 오시라 해서 대접했다.

◎ 10월 9일 (음 9월 15일) 토요일 晴

(...) 저녁에 벼 매기[대끼; 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새끼나 끈]을 틀고 있으니 春植이 왔다. 항상 걱정이든 春植의 除隊를 했다고 한다. 軍門엔 별로 가지 않고 돈으로만 보내더니 인제 除隊를 했더니 아주 방가운 일이다.

◎ 12월 14일 (음 11월 22일) 화요일 黃風

... 妻가 親家에 가 오늘까지 안 오니 朝夕食事が 문제다. 바깥일도 妻가 있어야 할 일이 많다. 內外란 한시라도 떠날 것이 못된다.

◎ 12월 15일 (음 11월 23일) 수요일 雲風

... 날씨가 풍산하고 冷하여 방안에 있다가 마실 가 있다 오니 妻가 도라왔다. 집안이 비운 것 같더니 어린 것들이 오니 사람 사는 집 같다. 날씨가 冷하여 어린 것들이 오기 혼났다. 날씨가 來日 부터는 더욱 冷해진다니 오늘 온 것이 多幸이다.

◎ 12월 28일 (음 12월 6일) 화요일

食前に 들에서 들어오니 孟植이 왔다. 朝飯食事を 같이 하고 春植이 事業하는데 아번님 보고 돈을 좀 要求次 온 모양이다. 春植의 앞으로 일 비라고 준 2斗落을 팔아달라고 온 모양이다. 朝飯食事に 아번님이 오시었다. 孟植이 前夜에 말한 말씀을 하시며 줄 것 없다고 잡아 떼는 것이다. 벼 몇 가마 준 것으로 다 주었는데 줄 것 없다는 것이다. 뻔한 일이다. 당치도 않은 일이다. 春植과 庶母와 싸운 이야기까지 하며 나물하고 있어 매우 듯기 곤란하다. 庶母 말이라면 껌박하는 아번님인지라 귀전 박이다[박이다]. 격고 나문[꺾고 남은] 일이라 아번님 속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點心을 먹고 孟植은 허탕치고 올라간다. 그리 벌여 누구을 모아줄라는지! 庶族을 많이 모아주어 얼마나 덕을 볼 것인가?

◎ 12월 29일 (음 12월 7일) 수요일 晴雲

乙巳년도 저물어 가는 29일을 마지했다. (...) 孟植이 오늘 서울로 떠났다.

◎ 1월 3일 (음 11월 23일) 화요일

... 午前에 孟植이 왔다. 兄弟. 종일 집에 있었다. 藥도 먹을 겸 外투도 살 겸 來日 서울 가기로 했다.

◎ 1월 4일 (음 11월 24일) 수요일

서울행. 오늘 孟植 와 朝飯食事を 일직 하고 일직 떠나 三溪 가 理髮하고 돈이 적을 듯하여 돈을 취해볼까 했으나 그냥 떠났다. 孟植과 같이 南大門市場에 가 오바를 골라 3,000원 주고 사 입고 敦一집에 오[니] 큰妻男도 와 있다. 孟植과 같이 敦一 家에서 夕飯食事を 같이 하[고] 劇場 求景을 갈다가 孟植과 헤어졌다. 이튿날 春植과 만나기로 電話연락을 하고

◎ 1월 5일 (음 11월 25일) 목요일

春植과 9시에 德壽宮 앞에서 만나기로 하여 孟植과 妻男 2명과 春植을 만났다. 春植을 만나 朝飯食事を 하고 漢藥房에 들리었다. 돈이 뚝 떨어졌다. 일폰도 없이 되었다.

◎ 1월 6일 (음 11월 26일) 금요일

敦一이 房門題을 거어 해결해주고 9時 頃に 떠나 큰妻男과 같이 出發했다. 돈이 떨어지니 아주 기운이 없다. 妻男이 路資를 끈어[끊어]주어 왔다.

◎ 1월 8일 (음 11월 28일) 일요일

... 正[심] 食事を 하고 있으니 春植이 왔다고 오라해서 가 보았다. 車을 갖고 왔다. 서울 갈을 때 安仲에 果樹園이 팔리는 것이 있다고 했더니 보러왔다. 저녁나절 집을 떠나 安仲에 5時半 頃に 到着 果樹원에 가 보았다. 7時가 되어 나는 安仲에서 자고 서울서 온 사람들은 떠났다. 3,4時 後에 서울로 오라하고 떠났다.

◎ 1월 11일 (음 12월 1일) 수요일

朝飯食事 後에 일직 新浦로 해서 安仲 가서 등기부 등본 한 것을 찾아 갖고 서울에 가다가 李○兄을 만났다. 집으로 들리 가라고 하는 것을 서울 길 때때 그냥 떠나 永登浦에 가 敦一을 만나보고 電話을 걸으니 오라고 해서 같다. 安仲에 있는 果樹園 소개다. 主人과 만나 대충 말하고

1967년

敦一과 같이 永登浦에 와 극장求景을 했다.(거문장갑의女人)

◎ 1월 15일 (음 12월 5일) 일요일

소개해 오던 安仲果樹園 賣買契約 締結. (...) 소개를 해 끝나니 개운하다. 소개비를 얼마나 줄 것일까. 2萬원 이상 받아야 할 것인데.

◎ 2월 5일 (음 12월 26일) 일요일

어린것들 옷을 해줄라고 妻가 場에 갔었다. 永登浦 孟植 보고 해오라 했는데 오늘까지 기별이 없어 場에 같다. 돈에 쫓겨 사는 人生 오늘도 妻가 場에 가며 한바탕 푸념이 있었다. ...

◎ 2월 21일 (음 1월 13일) 화요일

朝飯食事라야 11時 頃에 하고 崔氏은 못 만나고 主人만 만나 25日날은 꼭 殘金을 치루도록하고 春植이 孟植 家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같다. 孟植은 오늘부터 職場에 나간다고 한다. 잠깐 들리어 下午 2時頃에 와 永登浦에 와 水原行 車로 떠났다. ...

◎ 3월 16일 (음 2월 6일) 목요일

安仲場 갈 準備을 하고 妻와 같이 場에 같다. 場에 가 牛市場에 들리었다가 布木전에 가 처의 春秋服을 마치였다[맞추었다]. (...) 모처럼만에 妻와 같이 장에 같다. ...

◎ 3월 21일 (음 2월 11일) 화요일

妻가 親家에 간다고 일직부터 서둘렀으나 12時가 지나서야 떠났다. 홀아시[홀앗이; 살림살이를 혼자서 맡아 꾸려 나가는 처지 또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란 어디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 命植이 오늘 서울 같다 올 날인데 저녁 늦도록 기달리었으나 안 왔다. ...

◎ 4월 8일 (음 2월 29일) 토요일

... 朝飯 後에도 비가 나리어 學校가는 데 雄浩가 속을 썩이며 업어서 데려다주는데 大浩가 비를 말고 쪼차 갔다왔다. 妻도 시원치 않은 몸으로 어린것들을 爲해 갔다 왔다. ...

◎ 7월 9일 (음 6월 2일) 일요일 晴

... 妻는 오늘 妻家에 간다고 떡을 한다. 妻男 敦一君이 軍人갈 날이 닥아온다. (...) 下午에 雄

浩를 데리고 親家에 같다.

◎ 8월 12일 (음 7월 7일) 토요일 晴

妻가 英浩와 雄浩를 데리고 水原에 떠났다. 修學 次 데리고 간 것이다. 나와 大浩만 집에 있다. 집에 있으니 아주 마음이 바쁘다. ...

◎ 8월 23일 (음 7월 18일) 수요일 晴

... 鍾植 莊植이 來日 開學이 닥아와 서울에 간다고 해서 夕飯食事을 같이 했다.

◎ 9월 17일 (음 8월 14일) 일요일 晴

來日 秋夕準備로 妻는 분주하고 일날 관계로 농꿀 가서 일꾼을 주선하고 理髮하고 왔다. 저녁 먹고 일직 자리에 누어있으니 孟植이 왔다. 오래 간만에 兄弟之間에 한자리에서 밤이 깊도록 대화하다 자리에 들었다.

◎ 12월 6일 (음 11월 5일) 수요일 雲晴

朝飯食事 後 (...) 三溪 가 理髮을 하고 新浦에 가니 車가 늦게 되어 西井里로 가 서울로 같다. 4時半 頃에 到着! 春植을 만났다. 春植이 있는 집이 移舍간다고 부산하다. ...

◎ 12월 7일 (음 11월 6일) 목요일 雲

春植과 헤어져 下午에 만나기로 하고 鍾植을 만나보고 孟植을 찾기로 했다. 노량진 와서 鍾植을 찾았다가 못 찾아 그냥 永登浦에 와 극장구경을 하고 下午에 孟植 집을 찾았다. 春植에겐 電話로 孟植 家로 오라고 하고 孟植 家에 들리었다. 今般 서울 간 것이 서울에 가 변주리[변두리]에 집으로 約 2,30평 가량 사 장차 어린것들의 進學問題를 準備하자는 取지에서이다. 땅값은 淸중淸중 [淸중淸중] 2만원 以下는 없고 孟植이 있는 데도 땅값이 날로 올라 파는 사람이 주저하며 500坪 以上이라야 라니 生覺도 어렵다고 한다.

◎ 12월 8일 (음 11월 7일) 금요일

... 朝飯을 孟植과 같이 하고 春植이 前日 오라고 했는데 안와 春植을 만나 三兄弟가 의논하자니 孟植이 직장에 出勤하게 되어 孟植과 春植이 議論해서 결과를 알려주면 淸 準備하겠노라고 對話하고 집으로 왔다. 적어도 100만원은 있어야 몇 평 장만하겠는데 1/10의 돈으로 장만하자

니 어렵다. 냉한 날씨의 바람을 타고 5時頃에 着했다.

◎ 12월 16일 (음 11월 15일) 토요일

… 저녁 먹고 나니 春植이 왔다. 親友도 데리고 왔다. 날보구 서울[에]다 세탁소를 사자고 한다. …

◎ 12월 18일 (음 11월 17일) 월요일 晴

… 朝飯 後에 春植이 떠나는데 참쌀 1斗와 멧쌀[멧쌀] 2斗를 주었다.

◎ 12월 29일 (음 11월 28일) 금요일

서울서 떠나 孟植이 車票을 사주어 올라니 兄으로서 머리가 수구러진다. 그래도 잘산다는 兄이 同生들한테 너무했다. 路資 한번 제대로 못 주었으니 말이다. 4時 頃에 집에 오니 洞里분들이 모여 있다. 잔치날을 물리지 않으면 事業上 지장이 많다고 하니 아번님이 큰소리를 내면서 너이 三兄弟놈들 다 그만두라고 소리소리. 참아들을 수가 없다. 우리 5男妹다. 아주 편을 갈르는 한 아번님으로서 볼 수가 없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싹타고 야단야단. 우리 아번님이 저렇게 변했을까. 한 아번님으로서 어머니가 다른 것에 편을 갈라 우리를 버리니 말이다.

1968년

◎ 1월 12일 (음 12월 13일) 금요일

오늘도 골이 어찢어찢하다. 누어있으니 妻男이 왔다. 下午에 妻男이 간다고 하는 것을 부잡고 버 걸채[소의 길마 위에 덧엮어 곡식 단 파위를 싣는 농기구]와 뒤엄질채[뒤엄걸채]를 만들었다.

◎ 1월 13일 (음 12월 14일) 토요일

나의 生日이다. 妻가 장만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妻男이 歸家. 英浩가 外三寸 쪼차 같다.

◎ 2월 3일 (음 1월 5일) 토요일

春植이 떠났다. 모처럼만에 正月名節을 春植과 같이 지냈다. 5,6年만인 모양이다. 오늘서야 떠났다. 장거리와 路資로 一金 300원을 주었다. …

◎ 2월 26일 (음 1월 28일) 월요일

… 저녁을 먹고 있으니 春植이 왔다. 安仲 果樹園 主人과 같이 왔다. 春植이 위커힐 납품 관계는 손을 떼고 세탁을 하겠으니 兄任이 一金十萬원만 보태달라고 利子是 6分으로 드리겠다고 해서 승낙을 하고 모래 서울을 가서 보겠다고 하고서 哨所巡警들 送別會를 한다고 해서 갈다 왔다. 손님은 우리 집에서 쉬게 했다.

◎ 3월 1일 (음 2월 3일) 금요일

朝飯食事を 6시에 하고 서울行 첫차로 新浦에 가서 왔다. 서울에 11時半 頃에 到着했다. 春植家에 가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점심을 먹고 春植과 세탁소를 몇 군대 찾아보고 永登浦 孟植의 會社에 찾았으나 저녁에 出動한다고 해 memo를 써놓고 來日 春植 家로 오라했다. 春植이 劇場求景을 시켜주어 收O란 영화를 관람하고 春植이 家에서 저녁을 먹고 果樹園 主人 집이 술대접을 받고 갔다.

◎ 3월 2일 (음 2월 4일) 토요일

朝飯食事を 金貞雲 家에서 10時半頃에 하고 人便[人事]하고 春植 家에 가니 孟植이 왔다. 우리 三兄弟가 한 자리에서 議論을 했다. 30만원 짜리 세탁소를 얻어 돈이 모자라 날보구 10만원만 대주면 6分 利子로 쳐 주겠노라고 한다. 그리 해 승락하고 數日 來로 보내기로 하고 12時半 車로 떠나왔다. 내가 무엇을 해 볼라든 것이 孟植과 春植이 말이 春植의 밑천을 대주는 것이 더 낫고 튼튼하다고 결론이 내리어 春植에게 10만원 주기로 한 것이다.

◎ 3월 5일 (음 2월 7일) 화요일

… 白米 25噸 代로 拾萬參千七百五拾원을 받았다. 곳 집에 와 朝飯食事を 하고 서울로 떠났다. (….) 저녁 밥을 먹고 기달려도 안 와 밤 12時半에 나와 旅館에 와 갔다. …

◎ 3월 6일 (음 2월 8일) 수요일

자고 일어나 春植 家에 갔다. 와서 자고 있다. 밤늦게 들어왔다고. 春植과 下午 3시에 나와 春植 만날 사람을 茶房에서 만났는데 돈 말을 하

는 모양인데 8日 午前 中에 된다고 한다. (…)
一金 拾萬원을 春植에게 주며 모든 일은 알아
잘해달라고 付託했다. 春植이 말이 6分 利子は
무슨 일이 있어도 달달이[다달이] 보내주겠다고.

◎ 3월 7일 (음 2월 9일) 목요일 雨雪

金貞雲 家에서 자고 春植 家에 가 朝飯食事하
고 (…) 떠나오는데 비가 나리어 한걱정을 했다.
下午에 新浦에 着해 진눈개비를 맞고 왔다. 서울
에다 一金 拾萬원을 놓고 온 것이 잘한 것인지?
白米가 25㏔과 春植의 事業이 잘 되어야 할 것
인데. …

◎ 4월 1일 (음 3월 3일) 월요일

… 妻는 前日 妻家로 씨례를 가질라 가서 왔
다. 妻男이 밀어주었다.

◎ 4월 3일 (음 3월 5일) 수요일 晴

… 妻가 서울의 소식을 들으니 세탁소를 사지
않고 春植은 다른 곳에 다닌다고 하니 매우 氣分
이 나쁘다. 하루가 급하게 돈을 올려 오라고 졸
라대며 쌀값을 얻어가며 쌀을 사서 돈을 올려 가
놓았더니 오늘날까지 소식 없이 있으니 참으로
믿지 못할 사람이다. 사람이란 신용을 生命같이
여겨야 할 일이건만 이렇게 신용 없는 사람이니
兄弟之間에 참으로 못할 일이다. 兄弟之間에 누
구를 믿어야 할 일이나. 아직까지 나는 신용 없
다 소리 안 듣고 살아왔건만 同生으로 하여금 나
까지 실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들으니 저
녁 밥맛이 없어 속이 不便한 가운데 자리에 들었
으나 잠도 안 온다. 날이 새면 서울 가서 알아보
아야겠다.

◎ 4월 4일 (음 3월 6일) 목요일 晴

어제 春植이 서울에서 나와 약속대로 안 되었
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서울 갈 차비를 하고
10時半 車로 떠났다. 春植 家에 가니 계수씨만
있고 春植은 밤이 늦게야 오겠노라고 한다. 金貞
雲 家에 가 있다가 春植이 찾아왔다. 春植의 말
에 依하면 세탁소를 살라고 막상 돈을 갖고 다니
니 제대로 없어 次日 피일 미루어나가니 兄任
돈 10萬원이 어려워 利子로 놓는데 내가 들어가

일할 곳에 잘 놓았으니 安心하라고 한다. 나는
利子が 目的이 아니라 進取成 있는 일을 하라고
하루속히 돈을 빼어 우리 계획대로 하라고 付託
했다. 매우 不安하다.

◎ 4월 5일 (음 3월 7일) 금요일 晴

春植 같이 나와 극장구경 하고 春植 일 보는데
같이 다니다가 2時 車로 서울 出發 歸家했다.
서울일이 잘 되어야겠는데 걱정이다. 春植 말은
절대 安伸[안전]하다고 하나 싱거워 아주 믿기는
어렵다.

◎ 4월 13일 (음 3월 16일) 토요일 晴

妻가 서울 간다고 朝飯食事を 일직 했다. 妻는
일직 떠났다. 新浦에서 妻男을 만나기로 約束을
했다는데 만났는지 서울 地理를 잘 모르는 촌사
람이 잘 찾아간는지 궁금하다. 苗板의 물을 대고
집에 와 점심을 먹고 나니 李貞鉉氏가 찾아왔다.
妻가 없고 보니 未安하다. 水原의 李社長 家에
가면 대접을 받는데 대접치 못하니 未安하다. 저
녁이 되니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 妻가 잘 찾아
갈는지? …

◎ 4월 14일 (음 3월 17일) 일요일 晴

英浩가 엄마가 없는 일을 맡아 하기에 바쁘다.
취사도 제대로 하여 내가 돌보지 않아도 제대로
한다. 妻가 염는 집안이란 매우 쓸쓸하다. 妻가
할 집안일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

◎ 4월 16일 (음 3월 19일) 화요일 晴

… 下午 5時 頃에 妻가 歸家했다. 돈도 6,000
원 갖고 왔다. 春植에게 매우 친절한 대접을 바
뻐했다고 한다.

◎ 5월 10일 (음 4월 13일) 금요일 晴

前日 夜 조카 詳浩가 왔다. 利子 돈 一金 六千
원을 갖고 왔다. 春植을 通해 一金 壹拾萬원 利
子が 두 번 채 찾아왔다. 白米 25㏔ 利子が 拾
萬원이다. 쌀값이 폭등하면 별 利子が 없는데 春
植의 권고로 한 짓인데 잘 될 것인가 不安全하
다. 兄弟之間에 좋은 情 그릇칠까 걱정이다.
(…) 아번님家 朴三福이 농꿀 골장물을 퍼가 우
리 아는 5斗落 물이 아주 많이 줄었다. 사람 사

퍼논 물인데 딸아[따러]가 말도 못하고 氣分만 나쁘다. 좀처럼 비가 나릴 것 같지 않다.

◎ 5월 12일 (음 4월 15일) 일요일 雲

... 서울의 祥浩가 떠난다고 해 집에서 떡을 좀 해 白米 1되를 먹으라 소에 실려 보냈다. 路資 一金 貳百원을 주었다.

◎ 5월 16일 (음 4월 19일) 목요일 晴

... 큰아번님 生辰日이다. (...) 아번님 家에서 큰아번님 저녁 식사를 했는 모양인데 집안이 같이 먹고도 子息인 우리는 오라고 안 해 매우 不便하다. 昨年에도 그러했다. 어머니 없는 아버지란 남만 더 나을 것 없다. 庶母는 아주 남만도 못하다. 홀듯고[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기 바쁘다.

◎ 5월 26일 (음 4월 29일) 일요일 雲

... 軍人 간 妻男 敦一이 休暇차 다니라 왔다.

◎ 7월 30일 (음 7월 6일) 화요일 晴

췌는 그루밭을 땀다. 그루밭 혼자 매게 했다고 짜증을 내며 다투었다. 妻란 남이다.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같이 지내던 情은 고사하고 없는 말까지 그지비[끄집어] 낼 거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妻는 특히 그런 소유자다.

◎ 8월 7일 (음 7월 14일) 수요일 雲雨

朝飯食事を 일직 하고 英浩를 데리고 감자 밀가루 等 짐을 妻가 新浦까지 갈다 주었다. 나는 三溪에 가서 理髮을 하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떠나지 말까 하다가 떠났다. 서울에 着하니 또 비가 와 그래 같고 祥浩 家에 들어가니 祥浩가 설사를 해 病院에 데리고 갈다. 英浩를 데리고 점심을 사 메기고 있다 라니 祥浩가 도라왔다. 설사를 여러 날 해 애가 아주 볼 수 없이 되었다. 下午 늦게 春植을 만나라 갈다. 春植을 만나 돈 말을 하니 自身없는 말을 한다. 不安하다. 一金 壹拾萬원이 공중에 뜰 生覺을 하니 精神이 아찔하다. 아주 잘못했다. 여기다가 그대로 늘리거나 그냥 둘 일음.

◎ 8월 8일 (음 7월 15일) 목요일 雲晴

... 돈 점[좁] 가질라 간 것이 못 가져오고 3,000원 주어 같고 왔다. 利子만 18,000원인데 利子는

고사하고 本金이나 하루 속히 찾았으면 한다. 春植이 싱겁기 짝이 없다. 신용이 없다. 兄弟之間에 이 兄이야 속일까 했으나 믿을 수가 없다. 말하는 것과 行動과는 항상 빗나간다. (...) 白米 25되가 제대로 늘지도 못할 것은 勿論이지만 本錢도 심들겠으니 同生에게 속은 셈이 된다.

◎ 8월 21일 (음 7월 28일) 수요일 晴

妻가 안중장에 간다고 準備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기로 하고 떠났다. 一金 千參白원을 갖고 모처럼만에 장에 가니 雄浩가 쪼차 왔다. 날씨는 매우 무더운 날씨였다. 場 흥정을 거이 끝내고 점심을 먹고 나니 氣分이 매우 좋지 않다. 雄浩는 좋아라고 한다. 妻男과 妻男의 덕도 만났다. 雄浩를 데리고 매우 감상을 한다. ...

◎ 8월 24일 (음 윤 7월 1일) 토요일 雲晴

... 서울 간 英浩가 來日이 올 날인데 잘 있다가 來日 도라올 것인지? 英浩를 서울[에]다 떼여놓고 올 재 돈 한 푼 못 주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 매우 안되었다. 다만 돈 白원이라도 주고 올 것 음.

◎ 8월 25일 (음 윤 7월 2일) 일요일 晴

英浩가 歸家 한다는 날이다. 新浦에 마중을 나가야겠는데 食前に 도야지 우리를 修理하다가 발목을 닳어[다쳐] 거름[걸음]을 거를 수 없어 妻를 보냈다. 집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였으나 妻는 그냥 도라왔다. 마음이 초조해진다. 오늘 꼭 보내겠다고 했는데 안 오니 궁금하다. 무고히 歸家하기를 바램뿐이다. (...) 來日이나 도라와 주었으면.

◎ 8월 26일 (음 윤 7월 3일) 월요일 晴

오늘이나 도라올가 하는 英浩는 下午에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였으나 歸家치 않으니 조바심이 되고 초조해진다. 25日 돌려보내던 것이 오늘도 안 오니 無事한 것이지 궁금하다. 가까운 곳 같으면 당장 쪼차 가겠구만 서울이니 2,3日 더 기다려 보아 가보아야겠다. ...

◎ 8월 27일 (음 윤 7월 4일) 화요일 晴雲

... 꼬추를 따면서도 英浩가 오늘도 안 오면 어

이 하나 궁금하고 걱정이 되여 서울로 올라가 볼까 生覺하고 있는데 꼬추을 따 갖고 오니 英浩가 도라왔다. 참으로 방갑다. 英浩便에 一金 四千원을 보내왔다. 하루속히 本錢이나 보냈으면 한다. 詳浩가 설사를 하더니 바로 나왔다고 하니 다행이다.

◎ 9월 1일 (음 윤 7월 9일) 일요일 晴

… 來日 妻보고 水原갈다 오라 했다. 水原에 돈 白米 貳畝을 늘릴 수 없어 議論 次의 것이다.

◎ 9월 3일 (음 윤 7월 11일) 화요일 晴

… 妻와 水原애가 같이 왔다. 쌀을 갈다 먹겠다고. 水原애가 下宿을 처 살기가 나아졌다니 매우 기쁜 소식이다. 來年까지만 고생 하면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하니 수인이 괜찮은 모양이다.

◎ 9월 4일 (음 윤 7월 12일) 수요일 晴

水原애가 떠난다고 해서 白米 貳畝을 新浦에 실어다 주었다. (….) 去年에 一金 四千元와 봄에 千원을 주고 간 것을 白米 2畝을 늘릴라고 한 것이 제대로 늘어날 것 같이 않아 가져 가라 했더니 왔던 것이다. 水原애 가서 집 한 채 사 갖고 제대로만 하면 집에서 한 섬지기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고 해 농사짓기도 힘들고 마음이 들떴다. 一金 50만원만 있으면 農事진흥청 근방에 집 한 채 마련한다고.

◎ 9월 7일 (음 윤 7월 15일) 토요일 雲

… 春植과 水原 同生에게 片紙 送. 서울에 있는 돈을 내려오게 하여야겠는데 今年의 일이 제대로 안 되는 해라 제대로 잘 될 것인지?

◎ 9월 18일 (음 윤 7월 26일) 수요일 晴

… 서울에 집토[집터]를 마련하면 住宅資金을 융자 받을 수 있다고 高棧 敬浩가와 같이 서울에다 집토를 마련해 보자고 朝飯 後에 왔다 갈다. 春植에게 있는 돈이 빠져 나와야겠는데 그 돈만 生覺하면 속이 상하다. 今年엔 모든 일이 순조롭이 되지 않는다.

◎ 9월 21일 (음 윤 7월 29일) 토요일 晴

… 來年에 魚網을 할라고 生覺 中에 있는데 妻는 극구 反對한다. 約 40만원을 들여 차릴라고

準備을 할라니 妻가 反對하는지라 매우 곤란하다. 나는 어망을 하고 심은 生覺이다. 또 하기로 李貞國과 議論까지 했다. 妻가 反對하는지라 生覺을 해보아야겠다.

◎ 9월 26일 (음 8월 5일) 목요일 晴

… 權管里 同婿에게서 魚網은 좋지 않다고 편지가 왔다.

◎ 10월 5일 (음 8월 14일) 토요일 晴

… 서울에서 春植 내려오라 했으나 안 왔다. 참으로 氣分 나쁘다. 一金 拾餘萬원 날린 것만 같다. 春植에게 속았다고 生覺된다. 속일 사람이 없어 믿을 속였나 생각하니 不快하기 짝이 없다. 白米 25畝 날라 갈 것만 같다.

◎ 10월 6일 (음 8월 15일) 일요일 晴

秋夕. 큰집으로 차례을 지내라 갈다. 아이들은 明節이라고 좋아라만 하겠만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다. 차례 中 春植이 서울에서 왔다. 좋아라 했으나 돈은 안 갖고 왔다. 돈은 못 갖고 왔서도 몸이라도 와 이야기 할라고 왔다고 한다. 계수씨가 내려 보냈다고 한다. 春植이 살살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것이 믿었지[미덥지] 않다. 종일토록 庶母 家에서 있었다. 議論을 할라야 만날 수 없고 피해 다니고 있다.

◎ 10월 23일 (음 9월 2일) 수요일 晴

英浩가 修學旅行 간다고 4時부터 서둘러 나도 일직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 5時半頃에 出發하는데 세재제수씨도 같이 떠나겠다고 해서 콩고구마 창깨 등 짐이 무거워 妻가 저다 주고 왔다. 旅行 가는데 一金 250원을 주었다. 父母된 사람은 아이들 이렇게 하여 주는 것이 재미다. 우리는 修學旅行도 한번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 우리 아버지도 인제는 아주 다른 분이 되었다. …

◎ 10월 25일 (음 9월 4일) 금요일 雨雲

새벽밥을 해 먹고 서울을 떠났다. 12時에 孟植을 만났다. 孟植과 같이 고척동을 찾아가 땅(집토) 감을 알아보니 生覺과는 다르다. (….) 孟植집에 들리었다가 또 가보았다. 대충 미루어 보았다. 앞으로 發展이 있을 듯 하고 交通도 비교적

좋다. 春植에게 電話을 걸어보니 내 돈 때때 때우 걱정중이라고 당장 어렵지나 않을까. 春植에게서 돈이 빠져 나오지 않으면 매사는 허사다. 孟植 家에서 宿했다.

◎ 10월 26일 (음 9월 5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を 孟植 家에서 하고 孟植과 같이 春植을 만나라 永登浦에 왔다. 孟植이 결근을 하게 되어 마음에 안 되었다. 永登浦에서 11時頃에 春植을 만났다. 春植이 2,3日 來로 一金 6,7만원 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나는 집으로 모든 일을 同生들에게 마끼고 집으로 왔다. 同生들은 前日 본 지역을 보라 같다. 同生들 보고 곳 契約을 하라고 했다. 인제 돈을 마련할 일이 급선무다. 집을 짓재면 30만원은 필요하다.

◎ 11월 5일 (음 9월 15일) 화요일 雨

… 今年엔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어 가고만 있다. 서울의 일도 今일까지 無消息이니 궁금하기만 하다. 孟植과 같이 보아온 집토을 사기로 하고 보고 오며 급히 契約하라고 하고 왔으나 소식이 없다. 春植에게서 돈이 여의치 않은 모양. 春植과 같이 세탁소를 사기로 하고 一金 拾萬원 가져간 것이 못 사 누구을 주었다는데 오늘날까지 利子도 제대로 못 받고 元金을 빼달라 해도 빼주지 않으니 속만 상해 먹는 것도 消化가 안 되고 있다. 白米 25畝가 여기에서 늘었으면 34,5畝는 되는 것인데 그 돈이 와 쌀을 팔아도 20畝 못 파게 되니 拾畝는 손해를 보고 있다. 生甞하면 참으로 속이 상해 죽겠다. 참으로 今年은 不吉한 해다. 게다가 농사도 제대로 못 되었으니 모든 일이 如意치 못하다.

◎ 11월 6일 (음 9월 16일) 수요일 晴

… 妻가 新浦로 기름을 짜라 가는데 서울 消息이 궁금하여 電話을 걸라고 했다. 下午 늦게 妻가 와 서울 同生이 시골에 내려 왔다고 해 기다렸더니 밤에 祥浩와 祥浩母가 내려왔다. 먼집 [먼젓번]에 유의하고 보고 온 것은 못하고 그 뒤에 짓을 했다고 한다. 앞으로 집을 짓는데 뒤돈덜 것이 걱정이다. 六日내로 같다와야겠는데 脫

穀도 못하고 해 날이 없다. 하루 速히 脫穀하고 搗精해야 돈을 마련할 텐데. 공상 속에 장기였다가 [잠기었다가] 늦게야 자리에 들었다. 또 電話 걸고 孟植에게 편지했다.

◎ 11월 9일 (음 9월 19일) 토요일 雪

… 서울 가 孟植을 만났다. 孟植도 집질 準備에 여렵[여념]이 없다. 代地는 샀는데 생각에 덜 맛는 곳이다. 75,000원에 샀다고 한다. 과히 비싼 것은 아닌 상 십다.

◎ 11월 10일 (음 9월 20일) 일요일 雲

… 날만 풀리면 곳 집을 지어야겠는데 큰일이다. 孟植과 같이 침보를 마끼기로 하고 資料는 대여주고 일만 木手 미장이 등은 下請을 매끼었다. 대충 계산해 보니 建坪 12坪 정도에 約 20 萬원 이상 들겠다. 큰일이다 돈장만 할 일이. 春植이와 같이 서울에 갈다가 麻浦 가서 쉬게 되었다. 麻浦 庶매재가 후한 대접을 했다.

◎ 11월 16일 (음 9월 26일) 토요일

白米 30畝 代金 中 先金으로 一金 5萬원을 내갈고 쌀은 3日後에 주기로 하고 一金 5萬을 갈고 서울에 떠났다. 孟植을 만나니 집을 짓기 始作했다고 한다. 같이 우리 집 짓는 데 가 보았다. 축대를 쌓아 갈고 부엌을 쌓기 始作했다.

◎ 11월 17일 (음 9월 27일) 일요일

오늘부터 집짓는 데 가보기로 했다. 오늘 부엌만은 쌓았다. 人夫 4名이 일을 하니 빠르다.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물자 대여 주는 것이다. 孟植이 수고를 많이 한다.

◎ 11월 21일 (음 10월 2일) 목요일

기다리다 못해 서대문 春植 家로 해 歸家 했다. 쌀은 서울로 가지 않고 집에 있다. 큰일이다. 큰 낭패다. (...) 孟植이 고역을 겪을 것을 生甞하니 심신의 괴로움을 안정할 수 없다. ...

◎ 11월 22일 (음 10월 3일) 금요일

… 아번님家에 가 一金 萬원과 大休氏 家에서 一金 萬五仟원을 借用해 갈고 10時半 車로 서울에 갈섰다. 서울이 가보니 집짓는 일은 前日 中止간 했다고 孟植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

이 많아 中止했다고 한다. 속이 상해 죽겠다.

◎ 11월 24일 (음 10월 5일) 일요일

… 돈은 몰리고 참으로 속이 상해 同生과 말다툼까지 했다. 그리해 마지못해 따라 돈을 20,000원을 썼다.

◎ 11월 25일 (음 10월 6일) 월요일

집 짓는데 갈 기분이 안 난다. 돈이 돌아야지 돈은 풀리고 春植에게서 돈은 나와야겠는데 한 푼도 안주고 양회로 보내준다더니 소식이 없고 양회는 떨어져가고 이렇게 풀리고 서야 해여[헤쳐] 나갈 수 없다. 집의 진척은 3,4日이면 거이 끝나간다.

◎ 11월 27일 (음 10월 8일) 수요일

일토[일터]에서 집에 가 보니 妻가 왔다. 오늘 서야 방을 놓았다. 모래[모래] 집을 들 것인데 오늘서야 房을 놓았으니 들 수 없겠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집 걱정이 난다. 집에 일이 물린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럽다. 지붕 올타리 거름 등 외 일이 물리었다.

◎ 11월 28일 (음 10월 9일) 목요일

오늘은 종일토록 방을 말리었다. 妻는 종일 불을 태[때] 방이 아랫목은 말라 妻와 같이 새집에서 자면서 방을 말리었다.

◎ 11월 29일 (음 10월 10일) 금요일

… 집이 아직 멀어 못 들고야 말았다. 孟植 집에 있으니 넉넉지 못한 대다 있을라니 孟植이 눈치가 보이고 계수(제수)씨가 어려워 아주 不便하다.

◎ 11월 30일 (음 10월 11일) 토요일

… 마루 놓고 저녁에는 妻와 같이 반 자를 했다. 來日 들라는[들려는] 것이라 우선 孟植을 移송시켜야겠다.

◎ 12월 1일 (음 10월 12일) 일요일

집 들다. 집은 아직 꾸미지 못했으나 孟植을 이 사시켰다. 우리 집에서 쌀 갈고 간 것으로 떡을 하고 술을 받아 洞里 이웃 몇 분과 孟植의 會社 친구 몇이 와 밤이 깊도록 놀다 같다. 아직도 방이 마르지 않아 초배만 했다. 인제 돈이 떨어지가 아직 집을 꾸밀라하면 멀었다. 아직도 45만원

은 있어야 꾸미겠다. 집에서는 돈을 더 해갈 편이 못된다.

◎ 12월 3일 (음 10월 14일) 화요일

조반 식사를 모처럼 집에서 하고 洞里에 나가니 洞里분들이 모두 人事을 한다. 아직까지 이 근방에서 서울에 가 집 장만한 집은 없다고 人事가 자자. 高棧 가도 모두 방가운 人事! (….) 서울에 집 짓는데 예상 外로 들어 앞으로 집 세간사리[세간살이]가 걱정이다.

◎ 12월 13일 (음 10월 24일) 금요일 雲

… 妻 서울행. 一金 万五千五百원. 朝飯食事を 일직하고 妻가 서울 갈 준비를 했다. 9時頃에出發했다. …

◎ 12월 16일 (음 10월 27일) 월요일 晴

한냉한 날씨에 朝夕을 英浩가 해먹으니 딱하기 한량없다. 오늘 食前엔 매우 추운 날씨에 어린 손을 붙여 朝飯食事を 했다. 오늘이나 올까 했던 妻는 안 왔다. 꿈에 어리고 서울 일이 궁금하다. 朝飯食事 後엔 高棧 갈다 와 안꼴 祖家에 들리었다. 안꼴 祖母의 환갑날이 모래이다. 洞里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여 일을 보아 주는데 妻가 없으니 未安하다.

◎ 12월 22일 (음 11월 3일) 일요일 雪

… 高棧 작은집에서 와 오라해서 高棧 가 朝飯食事を 했다. 작은아번님 生辰日이다. 저녁 나절 서울서 孟植이 왔다. 車을 타고 오다가 눈이 많아 돌려보내고 그냥 드러왔다고. 孟植의 세간사리를 실어 갈라다가 들리었다. 孟植과 夕飯食事を 같이 하고 아번님家에 가 있다가 왔다.

◎ 12월 23일 (음 11월 4일) 월요일 雲雪

朝飯食事 後부터 눈이 나리더니 잠깐 동안에 많은 눈이 나리었다. 오후에는 개이었다. 孟植 못 가고 내일 간다고 한다. 종일토록 兄弟있다가 下午늦게 아버지家 올라 같다. …

◎ 12월 24일 (음 11월 5일) 화요일 晴

… 朝飯 後에 孟植이 떠났다. 서울 집을 房 1개를 전세 놓아 밀린 빚 청산하고 여기에 万圓만 보내 달라고 했다. …

1971년

◎ 1월 6일 (음 12월 10일) 수요일 雲

… 妻가 서울 간다고 서둘러 房案에서 下午에 야 妻의 보파리를 三溪까지 갈다주고 (….) 妻는 서울일이 궁금하여 떠났다. 갈 길에 집 지을 모든 時勢을 잘 [알]아보라 付託했다.

◎ 1월 28일 (음 1월 2일) 목요일

朝飯食事を 水原 三寸 同生들과 같이 하고 나니 庶母가 와 薰植이 신랑감이 왔으니 가보라 해서 가보고 어른들과 같이 윗삼계 선묘로 해서 後坪, 高棧 大모 한 집 어른들을 찾아뵙고 왔다.

◎ 1월 30일 (음 1월 4일) 토요일 晴

… 英浩가 放學이 끝나 오늘 서울로 떠났다. 月餘을 데리고 있다 보내니 서운하고 집이 쓸쓸하다. 아무조록 잘 있다 오기를 빌며.

◎ 2월 12일 (음 1월 17일) 금요일 晴

오늘부터 일을 始作한다고 했으나 木手아저씨가 3日後에 始作하자고 해서 그리 하기로 했다. 일을 始作한다고 하니 妻男이 왔다. …

◎ 3월 3일 (음 2월 7일) 수요일 雲

… 木手도 늦게 와 오늘은 일은 못하고 대패 집이나 파졌다고 하고 敦植은 서울서 電報가 와 서울 같다. 집토는 오늘도 닦았다. 일은 많이 했다. 妻男과 같이 산자거리와 덧집거리 미루나무를 비었다.

◎ 3월 9일 (음 2월 13일) 화요일

첫 중방은 거의 다 드리였다. 推進해오던 道路工事 기공식을 하는 날이다. 나는 가 보지도 못했다. (….) 妻男과 妻생질이 오늘 떠났다. 정수가 와 혼났다. 정수 一金 천원 妻男 500원을 주었다.

◎ 4월 3일 (음 3월 8일) 토요일

薰植의 約婚日이라고 일을 못하고 왔다 같다. (….) 아번님의 좋아하시는 일이란 보기에다 가소롭다. 우리 몇 남매의 결혼 일에도 불성모양에 결혼을 했다. 後妻소생에 對해선 아주 적극적이다. 서울서 작근 두 개수가 왔으나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안고 그냥 도라갔다.

◎ 4월 19일 (음 3월 24일) 월요일 晴

… 來日 서울 간다던 아번님 가는 모두 말 한마디 없이 큰 어머니만 모시고 서울로 갔다. 하는 일이 껴심하나[괘씸하나] 우리 인사로 나의 할 일을 하기 爲해 妻를 下午에 서울에 보냈다. 來日이 薰植이 婚口이다. 今般 薰植이 결혼에 있어 일언의 말도 없다.

◎ 7월 14일 (음 윤 5월 22일) 수요일

… 저녁에 洞里에 앞는 등기가 잘못 난 것에 시정을 할라고 했으나 더 난 분들이 協助할 것인지. 아버지 명의로 잇는 논을 모두 종식의 명의로 내어 내가 400여 평이나 덜 나 아버지와 큰소리를 했다. 모든 것은 큰아번님의 잘못이다.

◎ 7월 26일 (음 6월 5일) 월요일

雄浩가 눈이 왜 이러냐고 하여 자세히 보니 눈빛이 아주 노랑빛이다. 급히 서둘러 新浦 病院에 데리고 갔다. 간장염(黃疸)이라고 한다. (….) 英浩가 오늘까지 안 와 매우 궁금하다. 來日是 妻를 보내볼까 한다.

◎ 8월 17일 (음 6월 27일) 화요일

… 下午 4時半 頃에 雄浩 大浩 서울 구경하고 無事히 歸家했다. 房費를 못 받아 집 칠할 것을 못 사 갖고 문만 칠할 것이라고 니스 두통을 사 갖고 왔다.

◎ 8월 18일 (음 6월 28일) 수요일

집을 칠할라고 기다리던 물건이 오지 않아 氣分이 아주 나쁘다. 妻를 不足히 말하니 대들어 氣分이 나빠 安仲으로 사라 갈라다가 高棧으로 올라갔다 그냥 와 下午에 토분[찰흙을 물이나 묽은 청각채 용액으로 개어 건조시킨 덩이. 물에 풀어서 페인트나 바니시의 애벌칠로 쓰는데, 불투명한 피막을 만들어 나무 구멍을 메움을 받았다.

◎ 8월 26일 (음 7월 6일) 목요일

敦一君 約婚日이 닦아온다고 (….) 約婚에 있어 우리 보고 목거리[목결이]을 하라고 하여 妻는 조바심이 된다. 돈을 장만타가 一金 1,000원을 주고 같다고 했으나 모자란다고 一金 萬원

을 準備하라고 한다. 白米 1畝 賣했으나 돈을 못 받았다. 今年엔 큰돈으로만 몰린다. 몇일 後엔 英浩가 開學에 돈이 필요한데 걱정이다. (...) 저녁에 人便에 妻는 釜山까지 가겠다고 기별이 왔다. 옷도 마쳐[맞춰] 입고 돈도 더 준비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물리는 돈. 쪽기는[쫓기는] 돈.

◎ 9월 12일 (음 7월 23일) 일요일

... 午鐘 頃에 妻가 歸家했다. 來日 올 줄 알았는데 今日 왔다. 집에서 같고 간 돈과 방세를 받아 英浩의 등록금을 주고 내 양복 기성복 6,000원에 사 같고 왔다. 모처럼 만에 얻어 입었다. ...

◎ 12월 13일 (음 10월 26일) 월요일

... 敦一君이 오다. 婚姻하여 새간을 나야겠는데 兄이 協助가 적어 걱정이다. 서울 집을 한 간 달라고 졸라대어 응답했다.

◎ 12월 14일 (음 10월 27일) 화요일

敦一 歸家 次 떠나다. ...

1972년

◎ 2월 3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妻 歸家. 現在까지 雄浩 전학은 순조로와진다고. 서울 안방도 나가게 되어 保證金 쓴 것이 걱정이고 孟植家에서 쓴 돈이 안 나와 걱정이라고. ...

◎ 2월 7일 (음 12월 23일) 월요일

朝飯食事を 일직하고 妻는 雄浩를 데리고 떠났다. 轉學에 잘 되길 빌고 어린 것을 客地에 보내고 나니 父母로서 걱정이 가실 날이 없다. 大浩를 데리고 집에 있게 되니 아주 쓸쓸하다.

◎ 2월 8일 (음 12월 24일) 화요일

일에 쪼기는 몸이건만 오늘도 새끼 한 통으로 해를 보냈다. 雄浩를 서울로 보내고 나니 마음 한 구석이 비운 것 같고 일손이 재피지[잡히지] 않아 마실 가 午前 놀다 왔다. ...

◎ 2월 9일 (음 12월 25일) 수요일

大浩 生日. 이것만 妻가 있어야 반찬을 가추어[갖추어] 해 주는 것인데 妻가 서울 가 없으니 반찬도 제대로 가추지 못하고 朝飯을 해주었다. ...

◎ 2월 10일 (음 12월 26일) 목요일

6時半에 起上하여 朝飯食事라고 세죽[쇠죽] 쑤어 大浩 學校 보내기 분주하다. 아이들 工夫 시키기 爲해 부엌일은 실컷 한다. (...) 저녁 준비을 하고 있으니 妻가 왔다. 雄浩의 轉學은 잘 되었다고. 敦一이도 예정대로 移舍 잘 하였다. 허나 안방이 안 나가 걱정이라고.

◎ 4월 20일 (음 3월 7일) 목요일

... 妻가 가슴이 아프다고 新浦에 나가니 위험한 병인지 모르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매우 기분 나쁘다.

◎ 4월 22일 (음 3월 9일) 토요일

... 妻는 下午에 英浩 보내고 싸고개에 가 진찰하고 X[레이]까지 찍고 왔다. 별 병이 아니라니 千萬多幸이다.

◎ 5월 5일 (음 3월 22일) 금요일

어린이날이 되니 서울 있는 아이들이 生覺난다. ...

◎ 6월 10일 (음 4월 29일) 토요일

... 雄浩와 英浩가 왔다. 서울 간 지 雄浩는 처음 왔다. 매우 오고 심혔든 모양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進促賞을 타왔다.

◎ 6월 11일 (음 5월 1일) 일요일 雨

雄浩 英浩 歸京 (...) 쏘나귀가 나리기 始作하더니 많은 비가 나리었다. 妻는 아이들 데리고 新浦는 갈쓸까 할 때이다. 아이들이 서울 가 비나 안 맞았는지 궁금하다. ...

◎ 7월 26일 (음 6월 16일) 수요일 颱風

... 아이들 放學次 歸家했다. 永登浦 조카아이들도 왔다. ...

◎ 8월 30일 (음 7월 22일) 수요일

11時 頃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 집이 빈 듯 서운하다. 몸 건강히 학교에 잘 다니길 빌 뿐이다. 아이들 장래를 爲해서라면 달갑게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

◎ 10월 16일 (음 9월 10일) 월요일 晴

... 來口은 妻가 아이들 食糧 같다 주라 서울 가야겠는데 당장 돈이 없어 걱정이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제대로 주지도 못하여 항상 돈에 몰리고 쪼긴다. 한번 해주고 나면 한숨 쉬었나 하면 10일이 멀다고 또 돈이 몰린다.

◎ 11월 5일 (음 9월 30일) 일요일 雲

... 집에 와 보니 英浩가 왔다. 一金 4,000원을 借用해 午後에 白米 2斗와 같이 妻가 차에 올려주고 왔다. 날씨는 흐리고 午後 늦게 비가 始作했다. ...

◎ 12월 14일 (음 11월 9일) 목요일

妻가 아이들의 김장을 하라 가는데 新浦까지 짐을 같다 주었다. 房費 쓴 돈과 아이들 용돈으로 一金 13,000원을 주었다. ...

1973년

◎ 2월 20일 (음 1월 18일) 화요일 晴

... 서울에서 電報가 雄浩 來日 登校하라고 한다고. (...) 집에 와 보니 어린 大浩와 祥浩는 사랑에서 잠이 들었다.

◎ 3월 1일 (음 1월 27일) 목요일 晴

來日 開學으로 妻은 雄浩를 데리고 서울에 떠났다. 祥浩도 데리고 같다. (...) 英浩 雄浩 入學金 及 雜費金으로 오늘까지 約 一金 拾萬원 白米 10斗가 든 셈이다.

◎ 4월 5일 (음 3월 3일) 목요일

... 雄浩가 왔다. 돈 가질라 와 몇일 전에 一金 4,000원을 주었는데 또 왔다. 마지못해 일금 5,000원을 또 주었다. 午後 4時 車로 雄浩는 서울행 車에 올랐다. ...

◎ 4월 14일 (음 3월 12일) 토요일

... 下午에 雄浩가 왔다. 자주 오지 말라고 나물했다.

◎ 4월 15일 (음 3월 13일) 일요일

... 午鐘 때에 雄浩가 떠나갔다. 一金 4,500원을 주었다. 이렇게 돈을 가져가다간 당해 날 수 없다.

◎ 6월 16일 (음 5월 16일) 토요일 晴

妻가 서울에 갈라고 朝飯食事を 일직 했다. 소에다 아이들 糧米을 싣고 新浦에 나가 8時 40分 車를 태워주고 왔다. (...) 저녁 취사는 大浩가 했다. 一金 1,200원을 갖고 서울에 떠났다.

◎ 6월 18일 (음 5월 18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は 大浩가 하고 나는 세죽을 쑜었다. 어린 것이 아주 신통하다. (...) 午後에 大浩가 저녁 취사를 하고 있으니 妻가 왔다. 夏服 기성복을 사왔다. 一金 7,500원을 주었다고 하여 너무 많이 준 듯하다. 돈을 많이 준 듯하여 마음이 不安하다. 어린 것들도 無苦하다니 多幸이다.

◎ 6월 25일 (음 5월 25일) 월요일 晴

... 面會가 끝나고 몇몇 親友와 술을 기울리다 下午 늦게야 집에 오니 妻가 허둥지둥 치우는 것을 보니 未安하다. 우리는 현재 취대의[최대의] 노력으로 생활의욕을 돋고[돋우고] 있다.

◎ 9월 1일 (음 8월 5일) 토요일

大浩가 炊事を 곳잡 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 어린 것이 부엌일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통하다. 朝飯床을 치우고 學校에 같다. (...) 大浩는 저녁 炊事도 말없이 하여 놓았다. 妻가 몇일만 없어도 일을 무엇을 해야 좋을지 허둥그린다.

◎ 11월 10일 (음 10월 16일) 토요일

... 鍾植의 5級 公務[원] 試驗에 합격은 했으나 병역 귀정[규정]에 잘못 기재하여 무마조로 面長에게 前하라고 一金 30,000원을 같다 주었다. (...) 面長과 各 機關장과 술을 먹다가 2次로 옮겨 또 술을 먹게 되어 밤 12時頃에야 집에 왔다. 우박이 쏘다지고 진눈개비가 나리고 험악한 날 씨다.

◎ 12월 3일 (음 11월 9일) 월요일 晴

조기 初中校 今日 放學. 妻 雄浩 歸家. 妻가 집 떠난 지 6일 만에 歸家했다. 몇일 동안에 안 살림하기 고역이었다. ...

○ 가족행사

1959년

◎ 1월 6일 (음 11월 27일) 화요일 晴

... 오늘 하라번님[할아버님] 생신이라 朝飯도 안코 있으니 아무 말이 없어 어이되는 일인가 하고 아버지家에 올라다보니 문이 닫혀[닫혀] 있어 날씨도 냉랭하고 해서 高樓서 차리는 줄 알았더니 큰집이서 차리는 것을 몰랐다. ...

◎ 1월 22일 (음 12월 14일) 목요일 晴

자리에서 일어나 英浩를 보아주고 妻는 고기를 굽고 春子是 밥을 지었다. 오늘이 나의 生日이라 아침밥상에 찬이 좋았다. ...

◎ 2월 7일 (음 12월 30일) 토요일 晴

... 그럭저럭 해를 보내고 夕飯 後에는 마실 가서 모처럼 客地에 있는 親友들을 만나 놀다 집에 오니 春植이 왔다. 방갑게 마지하고 있으니 孟植도 아버지家에서 내려 와서 저녁 늦게 닭이 운데 서야[울고서야] 건너방에서 자리에 누었다. 陰曆과세는 버릴 수 없고 또 구정을 참된 명절로 알고 관습 되어서 어이할 수 없는 노릇이다. ...

◎ 2월 22일 (음 1월 15일) 일요일 晴

正月 보름 食前에 자리에 누어있으니 妻가 드러와 깨워 일어나니 보름[부럼]을 깨라 해서 눈을 뜨니 밤을 들고 드러왔다. 보름을 깨고 술을 한 잔 주며 귀밭기술[귀밭이술]이니 자시라고 해서 사양하다가 반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

◎ 5월 11일 (음 4월 4일) 월요일 雲

논을 一週하고 도라온 나는 아버지 家에서 할머니 생신 朝飯을 해서 오라고 하여 올라가 朝飯 食事を 했다. ...

◎ 8월 5일 (음 7월 2일) 수요일 晴

今年 드려 처음으로 바다에 같다. 洞里 사람이 다 풀리에[풀리어; 사람이 동원되어] 가도 안 가던 나는 來日 妻가 親庭에 간다고 해서 갈것는데 (써개질[맛 등의 조개를 잡는 도구]을 할 줄

몰라 第一 못 잡았는데 약 사발 가웃 잡아 같고 와 있으니 德雨氏가 참외 장사 왔다고 해서 妻를 보내어 보리쌀 3升어치를 사다 먹었다. ...

◎ 8월 6일 (음 7월 3일) 목요일 晴

妻는 親庭에 간다고 食前 일직부터 분주히 도라 다니고 나는 뒤발독을 뜻했다. 妻는 조반을 일직 먹고 떠나는데 路資가 없어 닭 한 마리(숫닭)를 주고 맛 대[댓] 사발쯤 같고 떠났다. ...

◎ 10월 1일 (음 8월 29일) 목요일 雲

食前에 매기[매끼]를 틀고 妻는 일. 아버지 家에 올라갔다. 오늘이 아버지 生日이다. 나도 朝飯 食事は 아버지 家에서 하고 둘째祖父 家 일을 같다. (...) 아버지 저녁밥은 우리 집에서 해드리었다. ...

◎ 10월 17일 (음 9월 16일) 토요일 晴

... 요즈음 저녁 수깅[수깅] 노면 잠자리에 들다가 오늘은 마실 같다고 떡을 찌서 먹고 잤다. 來日 英浩 生日 날이고로 했다.

1960년

◎ 1월 12일 (음 12월 14일) 화요일 晴

날씨 溫化하고 靑明하다. 오늘이 나의 生日, 30誕生일이다. 朝飯床이 번지름[번지르르]하고 소고기국도 꼬리여 맛있게 먹었다. 떡도 했다. 妻가 분주히 차린 음식이라 맛있게 먹었다. ...

◎ 1월 30일 (음 1월 3일) 토요일 晴

... 妻家에는 下午 3時 30分 頃에 到着했다. 一年만에 가는 길이다.

◎ 3월 11일 (음 2월 14일) 금요일 雲

... 妻는 場에 갔다왔다. 제사홍정을 해왔다.

◎ 3월 13일 (음 2월 16일) 일요일 晴

... 妻와 春子は 祭祀 차리느라고 고생을 했다. 同生들이 오지 못할 것을 알고 기다리지도 않고 있으니 뜻위[뜻밖]에도 저녁에 春植이 왔다. 車를 몰고 왔다가 祭祀가 끝나고 곳 도라 같다.

◎ 4월 15일 (음 3월 20일) 금요일 晴

오늘이 婚日 3돌이다. 나는 몰랐는데 朝飯床이 미역국과 흰밥[흰밥]을 하고 반찬이 예상 위인 [외인] 고로 물어보니 말하여 알게 되었다. (...) 來日 소의 카드를 安仲場으로 갈다주라고 알리고 집에 왔더니 떡을 하였다. ...

◎ 4월 28일 (음 4월 3일) 목요일 晴

... 下午에 작근아변님이 왔다. 水原서 오늘 할머니 生辰日이라 오신 것이다. 朝飯은 高棧 작근집에서 했는데 아삭하게도 나는 빼노왔다. ...

◎ 10월 5일 (음 8월 15일) 수요일 晴

五穀이 풍족한 만 가을 유난히 빛나는 듯한 아침 해빛 아래 秋夕節을 마지하여 先親任의 차례를 모시게 되었다. 재작년 작년 양 이태를 秋夕日에 비가 나리여 秋夕節도 변변히 지내지 못할 뿐더러 곡식도 만발치 못하여 보리쌀 秋夕을 지냈다. 新穀을 잡고 新果일로 제사를 모시여야 참다운 秋夕일이다. 今年엔 모든 것이 만발한 秋夕節이라 집집마다 술과 떡이 풍부하여 下午부터는 洞里 靑年들이 農樂을 울리고 잘 노랐다.

◎ 10월 18일 (음 8월 28일) 화요일 晴

... 來日이 아버지 生辰日이라 어이 되나 하고 妻를 올려보냈다가 내려왔다. ...

◎ 10월 19일 (음 8월 29일) 수요일 晴

食前に 孟植이 와서 稻를 떨어 주었다. 朝飯食事は 아버지 집에서 했다. 오늘이 아변님 生辰日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시라 해서 대접했다. (...) 夕飯食事は 우리 집에서 닭을 잡고 해서 아버지 식구 祖父母를 같이 했다. 술도 잊어 대접하고 祖父母를 모시여다 드리었다.

◎ 11월 4일 (음 9월 16일) 금요일 晴

... 來日이 英浩 生日이라 妻는 떡을 하였다.

1961년

◎ 1월 10일 (음 11월 24일) 화요일

前日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고 妻가 그리해서 產月도 이달이고 해서 집을 비울 수 없어 마실

갈다가도 급히 도라왔다. (...) 저녁을 해먹고도 妻는 배가 아파서 못 견딜 지경으로 있다. 저녁에도 일직 자리에 누었다.

◎ 1월 11일 (음 11월 25일) 수요일

어린이 産.(男兒) 새벽 五時.

前夜부터 몹시 괴로워하고 밤새도록 잠 한심 이루지 못하고 신음을 하여 옆에 있는 나도 어이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점점 더욱 심한 妻는 새벽녘에는 더욱 못 견디어 옷을 입고 밖에 나가 불을 때고, 밥 송응을 끄려주었다. 몹시 신음하더니 새벽 五時 頃 해서 어린 것을 낳았다. 처음 겪는 것이라 어이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다. 妻가 생기를 내며 만져보더니 옥동자라 하여 나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잊이[어찌] 좋은지 몰랐다. 妻가 삼을 가르고 나더니 쓰러지며 어지럽다고 누어버리어 삼 자리를 치우고 곳 아버지 家에 있는 春子를 부르러 가 단숨에 뛰어왔다. 곳 春子が 도라와 첫국밥을 해서 먹고 나니 발갔다. 나는 삼불 놓았다. 妻는 국밥도 잘 먹어 좋았다. (...) 날씨는 갑자기 추워지었다. 기다리던 집이라서인지? 동리 사람이 다 방가운 人使를 하였다. 저녁에는 英浩를 데리고 건너방에서 잤다.

◎ 1월 30일 (음 12월 14일) 월요일

三一年 誕生日. 오늘이 나의 生日이다. 妻가 昨日 떡 좀 해먹자는 것도 반대를 했다. 生日이면 고기를 사다 먹었는데 올갈이 썰는 해는 없을 것 같다. 심[힘]에 넘는 일을 해서 심히 쪼달릴 것 같다. (...) 구진하던 판에 팔단지를 한 것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저녁에는 마실 같다 늦게 왔다. 날씨는 前日보다 추운 날이었다.

◎ 2월 15일 (舊正) 수요일

구정을 아직 버리지 않고 세는[쇠는] 우리나라 大韓民國 全國民이 오늘이 새해 새날이라고 祖上에 祭祀 드리는 습관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일직 일어나 제사 지낼 準備를 하고 늦게 큰집에 가니 아직 멀었다. 10時 頃이 넘어서야 제사 지냈다. 어머니 제사는 11시 30분 頃에서야 잡수시었다. 어머니 산소에 갈다가 동리 세배 드리고

저녁 늦게서야 먹었다. 나는 오늘도 陽曆을 세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언제나 우리나라도 陽曆을 세여 全世界와 같이 날을 세여 가는 때가 올까. 庶母는 기수씨[제수씨]가 우리 집 오는 것을 끄리고 아버지도 우리 집은 안 왔다. 언제나 아버지 우리 집은 안 오신다.

◎ 2월 16일 (음 1월 2일) 목요일

… 좀 있다가 上溪 先墓에 갔다. 초이튿날인지라 세배 혹은 先墓를 찾아다니는 行人이 많다. 우리는 先墓로 해서 봄비아저씨를 찾아뵙고 後[평]으로 갈다가 元高棧으로 해서 어른을 찾아뵈고 下午 늦게 도라왔다. 저녁에는 마실 갈다가 곳 도라와 일직 자리에 드렸다.

◎ 3월 29일 (음 2월 13일) 수요일

… 宋雨가 오늘 海兵隊로 入營한다고 一金 貳百圓식을 갖게 되어 一金 貳百圓을 주고나 後坪으로 가 東雨 移畝집을 新浦로 저다 주었다. 新浦에 가는 겸 제사홍정도 해왔다. 흥정 仟餘圓어치를 해왔다.

◎ 3월 30일 (음 2월 14일) 목요일

… 오늘 일기도 매우 좋고 해서 감자갈기에 매우 좋았다. 妻는 두부를 했다. …

◎ 4월 1일 (음 2월 16일) 토요일

어머니 제사. (….) 저녁엔 정숙한 마음으로 어머니 제사를 올렸다. 春植이 안 와 서운하다. 두당숙과 작근숙부가 왔다.

◎ 9월 23일 (음 8월 14일) 토요일

妻와 春子는 어린 것 보아가며 食前부터 奔走하게 來日 秋夕마지에 이바지한다. …

◎ 9월 24일 (음 8월 15일) 일요일

秋夕날까지 同生들은 안 왔다. 아주 섭섭했다. 큰집 祭祀를 參배하고 세재祖父 제를 끝내고 우리 집 제사 차례하고 錦雨 悠雨 教雨 등과 함께 우리 집에서 술을 나누고 나는 午鍾 頃에 高棧 넘어가 저녁나절까지 여러 집 젊은 사람과 율리여[어울러] 술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 夕飯을 마치고 나니 孟植이 妻男이 왔다고 기별이 와 올라갈더니 서울에서 孟植이 보았다고 집에서 싸우

고 나왔다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좋게 말하였다. 같이 한참 있다가 집에 왔다.

◎ 10월 9일 (음 8월 30일) 월요일

오늘이 아번님 生辰日인데 아번님 家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 朝飯을 안 해 먹는 줄 알고 일을 가야겠고 해서 집에서 朝飯을 하고나니 오라 해서 들리어 일을 같다. 저녁밥은 우리 집에서 닭 한 마리를 잡아 우리 집에서 해드리었다.

◎ 12월 23일 (음 11월 16일) 토요일

朝飯 後에 高棧을 넘어 갈다가 梓植 孝植 庚植 等 年甲 우리 四人이 모여 高棧 酒家에 가 술을 같이 하고 年甲 生日잔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종일 술로 해를 보냈다. 오늘이 順植의 생일(돌)인지라 朝飯食事は 아버지 家에 가서 하고 妻도 올라가 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속 內服을 사갈고 같다.

1962년

◎ 1월 3일 (음 11월 27일) 수요일 晴

祖父任 生辰日인지라 妻는 자고 일어나며 큰 집으로 朝飯하러 떠나고 나는 어린 것들을 보아 주다가 妻가 朝飯을 하고 와서 함께 가 朝飯食事を 하라 같다. 洞里 어른들 거이 다 모이시었다. (….) 夕飯은 아버지家에서 했다.

◎ 1월 18일 (음 12월 13일) 목요일 晴

… 來日이 나의 생일인지라 우리 동갑네 몇 명이 그 날은 한데 모여 놀자고 하여 妻는 오늘 종일 분주히 차리었다. 어린 것들과 싸우며 手苦 많이 했다.

◎ 1월 19일 (음 12월 14일) 금요일 晴

오늘이 나의 생口이다. 32週.(33歲) 食前부터 妻는 나가 도라다니여 나도 일직 일어나 건너방에 불을 때고 같이 협조했다. 朝飯을 하고 좀 있다가 高棧 가서 앉아 놀다가 午鍾 때야 같이 왔다. 우리 同甲네 五名 詳植 孝植 悠雨 나 重植과 重雨 裕浩 등이 와 저녁까지 하고 잘 놀다 늦

게서야 도라들 같다. 昨年까지도 生日날도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올해에는 재미나게 노랴다.

◎ 2월 4일 (음 12월 30일) 일요일 晴

妻의 舊正 차리기에 분주한 관계로 나는 어린 것을 보여주는 일을 했다. 理髮을 하고 點心을 먹고 어린 것들 자는 틈을 타서 앞 왜뚝을 끌어 드리었다. 설마지 하러 각처에서 모여들은 손님들이 별로 눈에 띄이질 않는다. 음력설은 次次 없어지는 모양.

◎ 2월 18일 (음 1월 14일) 일요일 晴風

... 어린 것의 설사는 더욱 심하다. 朝飯 취사를 돌이서 어린 것을 雄浩 보여주며 하며 除雪作業을 했다. 눈은 많이 나리었다. (...) 떡도 하는 동마는 동 했다. 걱정지사다. 父母의 속 안 췌기고 자라는 어린아이 가진 집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오늘 저녁 지날 일이 걱정之事.

◎ 3월 20일 (음 2월 15일) 화요일 細雨

來日 母親 제사일을 앞두고 毒感으로 朝飯도 못하고 앓아 누어있다. 밤새도록 열이 高度로 오르고 잠도 못 잤다. 걱정이다. 제사도 차려야겠는데 누어있으니 食前に 내가 나가 두부콩을 갈고 있으니 나와 朝飯 취사를 하였다. 朝飯食事後에 다 같고 어린 것을 보여주었다. 午後에는 떡살을 내가 빠았다. 날씨는 종일토록 흐렸다 개였다 가랑비가 오락가락 했다. ...

◎ 4월 24일 (음 3월 20일) 화요일 雲 細雨

결혼한 지도 6年. 陰 20 오늘이 婚日이었다. 우리에겐 男妹를 두었다. 英浩가 6살 雄浩가 3歲이다. ...

◎ 8월 18일 (음 7월 19일) 토요일 雲雨

종일토록 비가 오락하는 날씨다. 비가 많이 올라는지 날씨가 매우 무덥다. 朝飯食事を 마친 나는 낮을 갈아가지고 어머니 산소에 伐草를 가 午前에 왔다. ...

◎ 9월 13일 (음 8월 15일) 목요일 雲

秋夕 名節로 우리 고장에선 2대 명절로서 하로다 조상님께 제사 모시고 하로를 즐겁게 지내는 날이다. 제사를 늦게 始作해서 曾祖父母任 제사

를 9時는 始作해서 10時 頃に 어머니 제사 모시었다. 同生들은 안 왔다. ...

◎ 9월 26일 (음 8월 28일) 수요일 晴

食前に 아번님이 벼를 뽑아[뽑아] 달라고 하시여 같섰다. 아번님 生辰日이 모래인데 해마다 닭을 잡아 진지를 해드리었는데 닭이 없고 보니 고기라도 한 칼 살라고 했으나 돈이 없어 보리쌀을 1斗 냈다. 그리하여 場人 便에 보냈더니 사갈고 왔다. ...

◎ 9월 28일 (음 8월 30일) 금요일 雨雲

자고 일어나니 비가 나린다. 妻는 벌써 올라갈는지 자리에 없다. 피곤한 몸이 늦게 일어나 어린 것들을 씻기고 옷을 입혀 아버지 家에 朝飯食事を 하라 같다. ...

1963년

◎ 1월 8일 (음 12월 13일) 화요일 晴

... 來日이 내 生日이라고 妻는 두부와 떡을 조금 했다. 오늘 저녁은 새끼를 안 꼬았다.

◎ 1월 9일 (음 12월 14일) 수요일 晴

자리에서 늦게 일어나 어린 것들의 옷을 입히고 방을 쓸고 나면 朝飯食事が 거의 다 된다. 오늘은 生日인고로 미역국을 끄리고 흰밥을 했다. 차린 것은 없으나 妻가 정성 것 한 것이라 맛있게 먹었다. ...

◎ 1월 22일 (음 12월 27일) 화요일 晴

오늘 洞里에서 도야지를 잡는다는 날인데 날씨가 아주 冷한 零下 19度란 무서운 날이다. 해끼 [햇귀; 햇발]가 퍼진 後에야 일을 始作해서 잡았다. 우리는 고기 목정으로 45斤을 갈고 왔다. 妻는 이같이 추운 날씨였건만 어린 것들과 싸워가며 두부하고 午後엔 흰떡 쌀을 빠고 있어 내가 協助했다. 저녁 순대국을 끓여서 먹고 있으니 종식이 오라 해 가보니 孟植이 車를 갈고 쌀을 가질라 왔다. 9時 頃に 실어 白米 5斗을 싣고 갔다. ...

◎ 1월 24일 (음 12월 29일) 목요일 晴

來日로 다가온 舊正으로 아주 분주하다. 全國民이 버릴 수 없는 이 구정 二重과歲의 철폐 運動이 전개되고 日政 때는 압력을 가해왔것만 숨어감에도 이 음력을 과세한 우리 民族은 陽曆을 가려켜 日本놈의 설이라고 강력히 反對해왔다. 大韓民國이 獨立된 今日에도 직접 간접으로 陽曆을 따지게 했으나 도저히 안 되는 말이다. 우리도 오늘 來日의 준비로 종일 나는 어린 것들을 보아주었다.

◎ 1월 25일 (음 1월 1일) 금요일 晴

오늘이 陰曆 설날이다. 일직 일어나 방을 치우고 어린 것들이 세수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니 아주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흐뭇한 氣分이 든다. 큰집에 가서 曾祖父母의 제사를 올리고 세재祖父 차례를 모시고 어머니 제사를 올려드리었다. 同生들은 모두 안 와 섭섭하였다. 異腹同生들은 아주 밧그림자도 안는다. 제사를 올리고 어머니 산소에 갔다 와 洞里 어른들께 歲배하고 저녁엔 일직 자리에 들었다.

◎ 2월 6일 (음 1월 13일) 수요일 晴

날씨가 푸근하여 방안에 갇어있든[간혀있던] 英浩, 雄浩가 오늘은 밖에 나오니 활기를 띠우고 아주 좋아하고 잘 놀았다. 기침이 아직 하고 있어 조심이 된다. 妻는 떡방아를 하고 나는 前日 오양 처낸 것을 농꿀 안논으로 처냈다. ...

◎ 2월 7일 (음 1월 14일) 목요일 晴

... 妻는 혼자서 떡을 하기에 수고했다.

◎ 8월 21일 (음 7월 3일) 수요일 雲晴

... 朝飯食事 後에 妻는 安仲場에 도야지 새끼 사라 가고 나는 (...) 어머니 산소에 伐草를 갈다와 보니 英浩 보고 雄浩 잘 봐주고 집에서 놀라 했더니 찾아보니 英浩 혼자 마실 있고 雄浩는 없다. ...

◎ 8월 25일 (음 7월 7일) 일요일 晴

七夕 明日로 옛날은 이 날을 즐겨 지냈을 것이며 오늘날까지 내려와 우리 집도 오늘은 朝飯床에 쌀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먹고 밀떡을 부쳐 맛있게 먹었다. ...

◎ 10월 2일 (음 8월 15일) 수요일 晴

秋夕. 오늘 일직 일어나 약간의 淸소를 하고 세수하고 어린 아이들의 옷을 입히고 큰집으로 제사 지내러 갔다. 아직 제관들도 덜 오시여 9時 頃에 始作해서 今年에 永登浦아저씨가 移畬을 와 댕이祖父母 제사를 지내고 세재祖 家로 해서 우리 어머니 제사를 올렸다. 同生들이 안 와 섭섭한 감이 든다.

◎ 10월 16일 (음 8월 29일) 수요일 雲 쓰나귀

... 오늘이 아번님 生辰日이다. 朝飯食事를 아번님 家에서 하고 집에 와 11時 頃부터 脫穀하기 始作해서 脫穀하다가 쓰나귀에 한참이나 비를 맞추고 午後 3時 頃에 밭원 1마지기를 펴고 드러 담고서 집안 으른들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 12월 15일 (음 10월 30일) 일요일 晴

... 妻는 가을떡을 한다고 쌀을 빠았다.

◎ 12월 24일 (음 11월 9일) 화요일 晴

오늘 저녁이 X마스다. 거리마다 가두마다 흥겨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걸려있는가 하면 상점엔 카드와 선물 팔기에 賣上고가 높아진다. 그러나 이 곳 농촌엔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저녁에 만듯국을 먹었다. 어린것들도 아무 선물도 못했다. ...

1964년

◎ 3월 2일 (음 1월 19일) 월요일 晴

오늘이 國民學校에 우리 英浩가 就學하는 날이다. 첫 學父兄이 된 날. 안개 자욱한 아침 길을 헤치고 三溪에 英浩를 데리고 나갔다. 戶籍에 年령이 未達되어 就學이 될 것인지? 했더니 入學을 시켰다. 學校에서 놀다 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집에 왔다.

◎ 3월 29일 (음 2월 16일) 일요일 晴

... 妻는 혼자 어머니 제사 차리기에 혼났다. 몇몇 제관과 함께 정숙히 제수를 올렸다(다). 同生들은 안 왔다.

◎ 5월 1일 (음 3월 20일) 금요일 雨

... 비도 나리고 해서 늦잠을 자고 朝飯食事하라 일어나니 미역국에 좀 다른 白飯이라 웬일인가 했더니 오늘이 우리가 結婚한지 八個 星霜이란 歲月이 흘렀다. 파란 많은 세월이었다. 나는 깜박 잊었건만 妻는 이날을 잊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 떡도 했다. 비가 종일 나린 고로 가마니을 찼다. 보리는 아주 흥년을 만났다. 쓸데없는 비로 봄일도 많이 밀리고 五穀에도 막대한 손해다.

◎ 8월 19일 (음 7월 12일) 수요일 晴 쏘나귀

... 午前에 어머니 산소에 伐草을 하고 午後엔 풀 한 짐을 비었다. ...

◎ 9월 21일 (음 8월 15일) 일요일 雲

秋夕차례를 11時 頃에 끝났다. 날씨는 흐렸다 개였다 하는 날씨로 비가 안 와 多幸이다. 별로 공겨롭지[공교롭지; 떠나 기회가 우연히 좋거나 나쁘지] 않게 해를 보냈다. 술을 먹고 해야하는 날인데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다. 속이 不便한 고로이다.

◎ 9월 22일 (음 8월 16일) 월요일 晴

... 오늘도 三德國民學校大運動 大(회)라 우리로서 英浩가 처음 겪는 運動[회]라 妻는 일직 서둘러 떠났다. 나도 집에 있다가 運動會에 가 一金 百원을 기부하고 點心먹고 雄浩를 잊어 한참 소동을 해 찾[고] 혼자 집에을 왔다. ...

◎ 11월 20일 (음 10월 17일) 금요일

... 妻가 김장준비 하는 고로 어린 것을 보여주었다.

1965년

◎ 1월 14일 (음 12월 12일) 목요일 晴

날씨 풀리어 푸근하다. 妻는 新蒲場에 갔다왔다. 來日 내 生日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갔다왔다. 나는 어린 것을 돌보며 새끼 두 둘래[둘레; 물건의 가로 돌린 테두리]를 찼다. ...

◎ 1월 16일 (음 12월 14일) 토요일 晴

오늘이 내 生日이다. 陰曆으로 오늘로서 36回 生日이다. 妻가 차린 食찬은 별다른 것으로 朝飯食事を 했다. ...

◎ 1월 28일 (음 12월 26일) 목요일 晴

妻가 高棧 가 있다가 午後에 와 흔떡을 한다고 와 靚과 떡살을 갖고 가 저녁에 해 갖고 왔다.

◎ 1월 29일 (음 12월 27일) 금요일 晴

來日이 億植의 婚日이기에 종일 高棧 가 있다가 왔다. 집이 비어 있어 종일 궁금했다.

◎ 2월 2일 (음 1월 1일) 화 冷晴

날씨가 갑자기冷해서 舊正의 名節을 겨울답게 마지했다. 우리 韓國 全國民의 8,9割이 모두 舊正을 세고 있다. 차례를 12時 頃에 마치고 어머님 산소에 갔다 와 洞里歲拜을 다니었다.

◎ 9월 9일 (음 8월 14일) 목요일

朝飯食事 後에 들을 一週하고 앞논에다 모짜리를 來年에 할까 하고 피사리를 좀 하다가 못다 했다. 下午엔 떡을 妻가 만드는 데 協助을 했다.

◎ 9월 10일 (음 8월 15일) 금요일 晴

할머니 삭망제가 있어 일직 차례를 올리였다. 어머님 祭祀는 普通 12時나 올리던 것을今年엔 10時 頃에 차례를 올렸다. 제사를 끝내고 老人 할아버님들을 술을 대접하고 婦人들도 오시였고 下午 늦게는 젊은 사람들이 와 술독을 기울리었다.

◎ 9월 24일 (음 8월 29일) 금요일

아번님 生辰日인 고로 소고기 1근을 사다가 드리고 朝飯食事を 아번님 家에 가 했다. ...

◎ 11월 21일 (음 10월 29일) 일요일 晴

妻는 일직부터 서둘러 김장을 하고 있다. 女子의 일로는 김장이 큰일이다. 울타리 칠 새끼가 없어 새끼를 두 둘래 찼다. 妻는 종일 김장을 해서 거이 다 늦도록 했다. ...

◎ 12월 11일 (음 11월 19일) 토요일 晴

... 朝飯食事を 하고 다섯재祖 問病을 갈다와 울타리를 쳤다. 妻는 親家에 간다고 準備하고 12時에 떠났다. (...) 妻도 오늘 親家에 가는데 나들

이웃이 변변치 않아 보기에 안되었고 나도 옷이 없어 어디를 갈라면 걱정이다. 당장 해 이불라면 없어서가 아니다. 쌀가마 굴려내기 아까워서다. 이렇게 무섭게 살림살이를 해야만 하겠으니 옷 철철히 맞춰입기란 어려울듯하다. 妻가 어린 것 雄浩와 大浩을 데리고 親家에 가니 집이 비운 것 같다.

1967년

◎ 1월 7일 (음 11월 27일) 일요일

… 오늘이 할아변님 生辰日이라 저녁식사를 아변님 家에 가 했다.

◎ 1월 24일 (음 12월 14일) 화요일

… 오늘이 내 生日이라고 별다른 飲食으로 朝飯床을 받았다. 妻의 정성들여 차려 준 음식은 모두 구미를 도꾸어 준다.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속이 야속스럽다. 위장병만 완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 얼마나 不安한지 모른다. 농꾼 떼장아들이 와 妻는 술을 대접했다. …

◎ 2월 8일 (음 12월 29일) 수요일

… 저녁 늦도록 同生들이 올 것을 바랬으나 안왔다. 春植이 온다고 해서 무척 바랬으나 鍾植이 春植兄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 한다.

◎ 2월 9일 (음 1월 1일) 목요일

舊正. 아직까지 우리 韓國에 舊正을 과세함은 젖어있다. 오늘 초하루 祖上任께 제사 지내고 선묘하고 하는 것은 관례에 젖어있다. 동생들이 안와 혼자서 제사올림은 제관들 보기에다 부끄럽다. 아주 쓸쓸하다. 차례가 끝나고 선묘하고 세배 다니었다. 今年엔 무엇보다 如意亨通은 물론 속병이나 가시길 所願하는바이다.

◎ 2월 12일 (음 1월 4일) 일요일

洞里 男子 一同을 술과 떡국 잔치하다. 朝飯食事後에 마실을 갔다와 10時 頃に 洞里 어른들을 모셔다가 술과 떡국을 對接하고 下午엔 젊은

사람들을 對接했다. 妻가 受苦을 했다. …

◎ 3월 1일 (음 1월 21일) 수요일

… 三德國民學校 入學式에 雄浩을 데리고 갔다. 어제 저녁에 토사가 나서 오늘도 아주 피로하여 學校에 갔다와 누어있었다.

◎ 3월 23일 (음 2월 13일) 목요일

聘母任의 제사日이다. 朝飯食事を 일직하고 妻家에 떠날 準備하고 집을 薰植에게 마끼고 떠났다. 三溪 가서 理髮을 하고나니 10時 [차]을 못탔다. (….) 妻家에 2時 頃に 到着 香奠[부의]으로 一金 천300원을 내고 저녁제사 참사했다.

◎ 3월 26일 (음 2월 16일) 일요일

… 妻는 저녁제사 차리느라고 분주하다. 오늘이 어면님 제삿날이다. 苦生만 하시고 호강 한번 못하시고 도라가신 어면님이시다. 今年이 59歲로 한참 사실 연령이시다. 春植이 제사에 오겠다고 하더니 비가 종일토록 많이 나리었다. 논두렁이 질질 넘쳐흐른다. 저녁제사에 제관이라야 教雨氏. 비가 나리어 못 오시었다.

◎ 3월 27일 (음 2월 17일) 월요일

… 春植이 오늘이라도 올까 했더니 오늘도 안왔다. …

◎ 4월 29일 (음 3월 20일) 토요일

朝飯床이 별락한 것 같다[별다르다]. 妻보구 웬일이냐고 알아보니 무심타고 하며 오늘이 結婚日이라고 한다. …

◎ 8월 17일 (음 7월 12일) 목요일 雲

어머니 산소 벌초. 나무 한 짐. …

◎ 9월 18일 (음 8월 15일) 월요일 晴

秋夕 明節로 孟植이 일직 서울에 올라간다고 어머니 제사(차례)을 지내고 孟植과 作別하고 큰집으로 차례를 올리라 같다. 洞里靑年들 술을 대접하고 하루 해를 보냈다.

◎ 10월 1일 (음 8월 28일) 일요일 雨

… 妻가 場에 가 아변님 生辰 準備 次 갔다왔다.

◎ 10월 3일 (음 8월 30일) 화요일

아변님 生辰日 朝飯食事を 아변님 家에서 洞里분들을 대접하고 농꾼 발원 벼을 늘어놓고 下

午엔 벼을 묵었다.

◎ 10월 4일 (음 9월 1일) 수요일

朝飯食事を 우리 집에서 아번님 生辰을 차려드리고 洞里분들을 대접했다. 妻는 어제부터 분주했다. ...

◎ 12월 13일 (음 11월 12일) 수요일 晴

(가을시루) (...) 妻은 가을떡을 한다고 종일로 록 떡방아을 해 저녁에 먹게 되니 어린것들이 좋아 날뛰다. 아번님과 같이 저녁食事を 떡을 먹었다. 나는 속이 不便해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 마실꾼이 저녁에 와 떡을 대접했다.

1968년

◎ 1월 13일 (음 12월 14일) 토요일

나의 生日이다. 妻가 장만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

◎ 1월 29일 (음 12월 30일) 월요일 雲晴

... 윗三溪 등植父親任의 小상일에 젊은 사람들과 갔다왔다. 집에 와 보니 春植의 内外가 왔다. 모처럼만에 正月 제사에 참석했다.

◎ 1월 30일 (음 1월 1일) 화요일 晴

舊正, 다른 날 보다 일찍 일어나 대문을 제끼었다. 어린것들의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가라입히니 좋아라는 어린것들이 명절 기분을 도꾸운다. 春植이 모처럼만에 명절에 왔다. 어린것들의 양말을 골고루 사왔다. 春植과 같이 어머니 산소에 다녀와 큰집제사에 참여하고 세재祖 제사 어머니 제사를 지내었다. 차래을 끝내고 洞里靑年들께 술과 국을 대접했다. 洞里어른들 세배을 끝내고 (...) 음력 正月이라야 한 살을 더 먹는 것 같고 떡국 먹게 된다.

◎ 2월 13일 (음 1월 15일) 화요일

오늘이 보름! 귀발기 술이라고 妻가 주는 술에 醉해 그 자리에 누었다가 11時 頃に 일어나 젊은 사람들을 충동기여[충동이어] 農樂을 치며 동리술을 기울리고 徐斗鎬 李昶鎔君이 가자는 바람

에 농꾼 가서 술을 먹고 왔다.

◎ 3월 11일 (음 2월 13일) 월요일 雲

朝飯食事後에 妻는 親家에 저녁에 聘母任 제사일이라 떠났다. (...) 一金 500원과 참쌀 一斗을 갖고 妻는 親家에 갔다.

◎ 3월 14일 (음 2월 16일) 목요일 晴

... 妻는 어면님 제사 차리기에 분주하다. 春植이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와 매우 궁급하다. 營業始作 즉시 편지를 한다더니 편지도 없고 오지도 않으니 더욱 궁급하다. 어면님 제사는 작근아 번님과 德雨 등이 지냈다. 큰어머니와 오산 작은어머니도 오시였으나 庶母는 안 왔다.

◎ 4월 17일 (음 3월 20일) 수요일 晴

우리가 結婚한지도 어연 13年이란 세월이 흘렀다. 妻가 生覺하고서 정성껏 朝飯食事を 차려 13年 前 오늘을 連想하여 朝飯食事を 했다. ...

◎ 5월 5일 (음 4월 8일) 일요일 晴

... 妻는 어린이날 아이들을 즐겁게 할 랑으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놀라 갔다왔다.

◎ 10월 4일 (음 8월 13일) 금요일 晴

... 秋夕明節을 2日 앞둔 妻는 두부를 하고 明節 準備을 했다. ...

◎ 10월 20일 (음 8월 29일) 일요일 晴

... 妻는 來日 아번님 生辰 準備에 분주하다. 孟植과 영천계수씨도 오시었다. 孟植과 밤이 김도록 兄弟의 情으로 이야기 했다. 서울에 땅이 싸게 나는 놈이 있으니 수일간 가 보자고 해서 2,3日 안으로 가볼까 한다.

◎ 10월 21일 (음 8월 30일) 월요일 晴

아번님의 육순 生辰日이다. 朝飯食事を 아번님 가에서 차리었다. 洞里분들과 高棧서 몇 분이 오시었다. 午前 中에 손님 접대를 했다. 어면님이 생존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마음 한구석이 언짢다. 庶母의 꼴이 눈에 거실 정도다.

◎ 10월 22일 (음 9월 1일) 화요일 晴

아번님 生辰으로 朝飯食事を 우리 집에서 洞里분들을 대접했다. 종일토록 분주히 일을 보았다. 來日 英浩가 修學여행을 간다고 해서 一金 500

원을 주어 學校에 갇다 냈다. ...

◎ 12월 27일 (음 11월 8일) 금요일 晴

... 妻家에을 갈까 하다가 돈이 주선이 안 되면 못 갈다. 오늘 저녁이 빙장인 제사일이라 모처럼 만에 가 볼라든 것이 못 갈다.

1971년

◎ 1월 1일 (음 12월 5일) 금요일 溫晴

... 아직도 舊風에 저즌 우리 韓國農村은 陽曆 過歲을 하는 집이 없다. 第一의 하루, 석까래[서까래]를 베기였다(10개)[베었다]. (···) 집 한 채를 지올라면 三年을 일에 싸인다는데 인제 始作도 아니다. 우선 物件이나 다 들어왔으면 한다. 木材, 계와[기와], 양회, 모새[모래] 等 昨年에 산 논을 賣渡해 契約金으로 白米 拾呎 中 一金으로 5만원 받아 흥정갑으로 5斗 代 一金 3,400원을 주었다. ...

◎ 1월 10일 (음 12월 14일) 일요일 晴溫

나의 生日날이다. 妻가 차린 음식은 골고루 입에 맞게 차리였다. 소고기국에 도야지 불고기며 잡채서부터 김구이, 생선 등 그나한[거나한] 상을 받았다. 英浩, 雄浩, 大浩, 妻가 딸아준 술에 취했다. ...

◎ 1월 25일 (음 12월 29일) 월요일

三溪에 가 理髮을 하고 新浦에 가 담배 금잔디 5보루, 아리랑 20갑 2,950원 어치을 사 갖고 왔다. 저녁에 孟植이 왔다.

◎ 1월 27일 (음 1월 1일) 수요일

날씨가 차거운 날 舊正 차래를 지내고 先墓에 갈다 와 洞里세배를 다니였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구정은 가실 줄 모르고 名節 기분을 도곤다. 나가 있던 사람들도 모두 歸家했다. 春植도 오늘 일직 왔다. 저녁엔 水原 三寸과 우리 집에서 밤이 익숙도록 한담을 했다.

◎ 3월 7일 (음 2월 11일) 일요일

上樑日. 일직부터 서둘러 집을 세웠다. (···) 2

時 頃에 기둥을 다 새우고 上梁式을 끝 했다. 上樑을 쓰고(自身) 上梁式에 白米 1斗5升과 一金 500원을 냈다. 洞里분들이 다 모이였다. 날씨는 풀리지 않는다.

◎ 3월 12일 (음 2월 16일) 금요일

마자를 종일 부치였다. 날씨는 차거운데 다섯 재祖父님이 오시여 수고하시였다. 下午 늦게 부연을 갈기 始作했다. 高棧작은아번님이 수고하시였다. 原木 炳椽君의 父親別世라 告. 어머니 제사를 사랑방에서 올리였다. 同生들은 今年에도 안 왔다.

◎ 5월 9일 (음 4월 15일) 일요일

落成을 오늘 하기로 하고 洞[리]분들과 高棧 革命村분들을 청했다. 저녁을 먹고 나니 革命村은 거이 다들 와 술과 떡을 대접했다. 洞里분들도 男女 모두 오시고 高棧서도 몇 분이 오시였다. ...

◎ 8월 8일 (음 6월 18일) 일요일

... 妻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갈다 왔다. 下午엔 동육꼴 밭을 前日하다 냉긴 것을 오늘도 家族과 함께 하였다.

◎ 8월 14일 (음 6월 24일) 토요일

午後 1時半 車를 利用, 妻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午前에는 김장을 부치였다. 食前부터 서둘러 김장을 11시에 끝났다. 아이들은 서울에 간다고 좋아라고 떠났다. ...

◎ 9월 3일 (음 7월 14일) 금요일

朝飯食事 後에 어머니 산소에 伐草을 했다. ...

◎ 10월 3일 (음 8월 15일) 일요일

秋夕日이다. 今年엔 집도 새로 짓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중하게 제사를 지냈다.

◎ 10월 18일 (음 8월 30일) 월요일

아번님 生辰日에 아번님家에서 朝飯을 했다. 朝飯을 하고 와 앞 1斗을 비였다.

◎ 10월 20일 (음 9월 2일) 수요일

아번님을 모시고 洞里분들을 朝飯을 대접했다. 모두 와 대접했다. 庶母는 입이 실룩이며 왔다. 鍾植과 豪植 等 아이들은 한아도 안 왔다. 朝飯

을 待接하고 앞 5升지기를 비었다. ...

◎ 12월 31일 (음 11월 14일) 금요일

歲暮의 12월도 오늘로 辛亥年의 除夜의 鍾소리가 울린다. (...) 우리 家庭의으로 나의 一生 가장 큰 집지[집지시; 고여, 집짓기]를 했다. 白米 約 100餘 呔을 들여 지은 우리 집은 高棧里 아니 靑北面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한 大役을 끝마친 해이다. 도라온 明年에도 無事한 한 해가 되었으면. ...

1972년

◎ 1월 29일 (음 12월 15일) 토요일

生日이라고 朝飯床이 성찬이었다. 敦一 内外가 한 자리에 있게 되니 술 몇 잔과 妻가 정성드려 차려 준 [음식] 맛있게 먹었다. ...

◎ 2월 15일 (음 1월 1일) 화요일

舊正, 韓國固有의 陰 正月名節은 아직도 가시여 지지 않고 있다. 名節마지를 爲해 일직 일어나 세죽을 쑤어주고 큰집으로 차례를 지내라 같다. 敦植 둘째, 세재祖 家의 순으로 차례를 지내고 우리 어머니 제사를 올리였다. 同生들은 한 놈도 안 왔다. 어머니 차례가 끝나고 洞里어른들 세배를 드리고 어머니 산소에 갔다 왔다.

◎ 3월 30일 (음 2월 16일) 목요일

어머니 제사. ...

◎ 8월 27일 (음 7월 19일) 일요일

... 기다리지 않은 비는 왜 이다지도 짓궂게 나리는지 雄浩 大浩을 데리고 어머니 산소에 伐草을 했다.

◎ 9월 21일 (음 8월 14일) 목요일

별일 없고 妻의 제사 準備에 協助해 주고 뒤 발뚧을 뜻고 午後에 농골 가 도야지 고기 정육 2斤 6양을 8,400원 어치를 사 갖고 왔다. 英浩 옹호가 왔다.

◎ 9월 22일 (음 8월 15일) 금요일 晴

아이들과 같이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일어나니 쓸쓸하던 집안이 따뜻하다. 세죽을 쑤어 놓고 큰

집으로 차례를 지내라 같다. 8時 頃에야 曾祖차례를 모시고 할머니 네재祖 둘째祖 3재祖 등을 차례로 끝나니 우리 어머님 제사는 11時半 頃に야 모시게 된다. 일직 始作해서 일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 10월 5일 (음 8월 28일) 목요일 晴

來日 아번님 生辰을 차려 드릴라고 準備을 했다. ...

◎ 10월 6일 (음 8월 29일) 금요일

朝飯食事は 아번님 家에서 했다. 저녁食事は 우리 집에서 차리어 洞里분들을 대접했다. 前日 永登浦계수씨가 왔건만 몇 차례 부르라 가셔야 우리 집에 왔다. 아버지 家 일을 하여 주기 爲해 서라고. 안팎채[안팍채] 지었건만 한 번도 안 오고 와서도 아버지 家에서 있다. 귀심하나[괘심하나] 말을 안했다. ...

◎ 12월 28일 (음 11월 23일) 목요일

朝飯 食卓에 미역국과 흰밥상이었다. 나는 예사로 여기였다. 午後에 달력을 보았더니 오늘이 妻의 생일날이다. 무관심하게 妻의 생일날을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것에 妻는 不足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어리고 날이라도 잊지 않아 주었으면 妻는 얼마나 따뜻하게 여기였을까 생각하니 未安하다. 몇 년을 두고 妻의 생일날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

1973년

◎ 1월 1일 (음 11월 27일) 월요일 晴

1973年의 새아침이 밝아 왔다. 希望에 찬 新年을 맞이하여 모든 일이 如意亨通하길 빌며 붓을 들었다. (...) 今年에 우리 집에 雄浩가 中學校에 進學하는가 하면 英浩의 高等學校에 무난히 합격했으면. 할아번님 生辰日이라 아번님 家에서 朝飯食事を 하였다. ...

◎ 1월 18일 (음 12월 14일) 목요일 晴

生日이라고 朝飯床을 별탁하게[특별하게] 받았

다. 닭을 잡아 국을 끓이고 불고기, 찌개, 잡채 등妻의 정성이 들었다. 아이들도 좋아라고 옹호 대호 영호 순으로 술을 팔아 권해 3잔을 마시었다. 이것이 人生의 보람이라 生覺된다. ...

◎ 1월 22일 (음 12월 18일) 월요일

맑게 개인 날. 英浩의 3년간 숙직한 卒業의 날이다. 朝飯食事を 同生家에서 하고 素砂에 같다. 素砂驛前부터 졸업의 꽃다발 졸업동 상인이 장사잔을 이루고 있다. 급히 卒業式場에 가니 始作되었다. 내빈 數拾人和 學父兄多數가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卒業을 끝냈다. 英浩를 데리고 나와 사진을 찍어주고 꽃 한 송이와 졸업통을 사서 주고 祝賀를 하여 주었다. 나와 英浩와 함께 点心을 사 메기고 서울집으로 도라왔다. 집에 와 연탄을 30장 사주고 저녁은 同生家에서 했다.

◎ 1월 29일 (음 12월 25일) 월요일 晴

영상 기운의 맑게 개인 겨울날씨다. 大浩의生日이라고 食前부터 좋아라고 일직 일어났다. 아무것도 차려주지 못한 父母로서 안 되었다. 새끼를 꼬고 있으니 雄浩가 서울 가겠노라고 하여 路資와 용돈으로 一金 1,000원을 주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며 차량 급 연탄 조심하라고 당부하여 보내었다. 에미는 新浦에 가 車를 태워 보내고 왔다. 혼자서는 처음 가는 것이라 걱정이 된다.

◎ 2월 3일 (음 1월 1일) 토요일 雨

陰曆 名節. 다른 날보다 다소 일직 일어났다. 大浩는 좋아라고 새벽부터 일어나 수선이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明節을 즐기었으면.... 쇠죽을 쑤어 주고 제사 準備을 도라보고 大浩와 족하인 祥浩를 데리고 어머니 산소에 갔다 한참이나 있다가 큰집으로 갔다. 10시가 지나서야 차래를 잡숫고 세재租를 지내고 어머니 차래를 모시었다. 12시 안에는 언제나 어렵다. ...

◎ 2월 10일 (음 1월 8일) 토요일 晴

... 저녁에 妻와 雄浩가 卒業하고 歸家했다.

◎ 2월 15일 (음 1월 13일) 목요일 晴

농골 洞里분들을 對接. 맑고 푸근한 봄 날씨이

다. 10時 頃に 농골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 왔다. 15, 6명이 와 술과 국을 대접했다. 計劃에 依하면 洞里사람은 午中에 농골분은 下午에 對接할라고 한 것이 뒤바뀌었다. 洞里사람들이 먼저 對接해야겠는데 안 되었다. 농골분들은 모두 우리 일을 돕는 분들이다.

◎ 3월 20일 (음 2월 16일) 화요일

어떤님 제사일. (...) 집에 와 있으니 教雨 德雨 鍾植 등이 와 어머니 제사를 1時 頃に 모시었다.

◎ 9월 11일 (음 8월 15일) 화요일

보름날 12시에야 어머니 차래를 올리었다. 前日 속을 들드린[들드린; 안을 향해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것으로 밤새껏 변소 出入을 하고 나니 기운이 없어 종일 누어있었다.

◎ 9월 25일 (음 8월 29일) 화요일

아번님 生辰日. 朝飯食事は 아번님 家에서 했다. (...) 저녁食事の 손님 대접 準備을 했다. 洞里분들의 食事を 대접했다.

2. 친족생활

○ 친족 관계

1959년

◎ 1월 3일 (음 11월 24일) 토요일 雲雪

... 工夫할라고 苦心하든 晴植이 서울 가서 高校3學生으로 入學하여 放學에 내려왔다. 至誠感天이라더니 그이에 高校卒業을 하고 만다. ...

◎ 1월 5일 (음 11월 26일) 월요일 晴

... 오후에는 高棧 작은집에 대골 趙書房이 왔다 해서 놀러 갔더니 前일 떠났다 한다. 高棧 작은집에 송아지가 3日前에 죽었다 함. ...

◎ 1월 24일 (음 12월 16일) 토요일 晴

... 妻男이 왔다고 해서 건너와 보니 利川 동서와 妻男이 왔다. 그리하여 집에 술이 없어 高棧 넘어가서 정종 한 병을 받고 닭을 한 마리 잡아

대접했건만 번번치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다. 저녁 익숙토록 長談說話를 나누었다. 동서지간 처음 만나 즐겁게 지냈다.

◎ 1월 25일 (음 12월 17일) 일요일 晴

동서가 간다고 해서 朝飯을 일찍 짓느라고 쫓는 덜거덕거리고 건너방에서 잔 우리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서가 몸이 不便하다 해서 來日 가라고 붙잡았다. ...

◎ 1월 26일 (음 12월 18일) 월요일 雲

동서가 떠난다고 朝飯을 일찍 하여 동서만 朝飯을 하고 出發하는데 느린까지 길을 인도 次妻男과 같이 갈다 왔다. 함바탐은[하마티면] 차를 못 탈 번했다. 차가 왔는데 뛰어가서 타고 우리는 집으로 와서 朝飯을 하고 妻男도 떠났다. ...

◎ 1월 31일 (음 12월 23일) 토요일 晴

... 오늘은 날씨 풀리어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가니 둘째祖父께서 장승백이 아주머니 家에 심부름을 시키어 갈다 點心을 하고 왔다. (...) 둘째祖父 심부름은 鹽田 賣買에 관한 것이다.

◎ 2월 2일 (음 12월 25일) 월요일 晴

오늘 땅갑 찾으라 드려온다 해서 姉夫를 보러 갈라 하다가 농글 가서 前日 注射 나문 것을 갈다주고 와서 朝飯을 하고 姉夫에게 가니 學校에 가서 못 보았다. 조금 있으니 車가 와서 둘째祖父 家에서 五斗를 우리 집에 舍해 1畝를 갈고 가고 東雨 家 前 일곱지기 164坪을 6畝 7斗에 팔아 오늘 車에 실리고 큰집 姉夫에게서 1畝를 실리고 高棧 가서 來雨가 쌀을 주어 4畝 琿植 家에서 실리었다. 來雨가 얻어주어 나를 주어 日前에 가져간 것을 갚는 것이다. ...

◎ 2월 3일 (음 12월 26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뒤동산에서 나무를 좀 하다가 집에 오니 孟植이 와 뜻위[외]의 일이었다. 兄弟之間에 즐겁게 마지하여 앉아 있다가 孟植은 先墓에 갈다 왔다. 孟植이 今般 오게 된 것은 冬期 運動(스켓) 選手들 데리고 江原道 大會에 出戰했다가 온 것이라 한다. ...

◎ 2월 8일 (음 1월 1일) 일요일 雲 細雨

... 다섯재祖父 家에 어린 것을 前야에 일었다고 집안이 우울한 기분 속에서 있는데 잠깐 다녀왔다.

◎ 2월 10·11·12일 (음 1월 4·5일) 화·수·목요일 晴

일찍 일어나 어린 것을 보아주고 朝飯을 마치고 아버지家에 갈다가 春植과 寬植 炳賢 등이 新浦로 出發해서 春植은 서울로 가고 우리는 安仲 가 寬植과 다방에 갈다가 車가 와서 나는 內基行 빠-스를 타고 妻家에 갈더니 乾高李[乾高里] 동서가 와 하루를 宿하고 동서는 出發하고 나도 올라니 붓잡아 하로를 더 묵고 12일 陰 5日 날 떠났다. (...) 집에 午後 2時 頃에 到着해서 마을 가 孟植을 만나 간선(선을 봄) 갈다 왔느냐니 갈다 왔다고. ...

◎ 2월 17일 (음 1월 10일) 화요일 雨

... 高棧 넘어 갈더니 (...) 좀 앞았다가 泰權 家에 가서 高棧 靑年들과 함께 생일잔치에 술과 국수를 잘 얻어먹었다. 祥植 家에 가서 담배 豊年草 2봉을 사서 한 봉을 할아버지 드리고 한 봉은 집에 가져왔다. 작근집에 가서 앞았다가 午後 늦게 도라왔다. ...

◎ 2월 23일 (음 1월 16일) 월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마실 건너가서 웃을 놀다가 高棧 靑年들이 와서 술과 떡을 대접하고 다섯재祖父 家에 갈섰다. 우리 靑年俱樂部 役員이 顧問을 訪問하기로 結晶이 되어서 顧問을 訪 次 다섯재祖父 家에 가서 대환영을 받고 끝가지 잘덜 해달라는 유시를 받고 술과 국수를 대접하여 잘 먹었다. 시종여일 해 달라는 본부가 계시었다. ...

◎ 3월 1일 (음 1월 22일) 일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잡을 사람을 구하니 수촌아 저씨와 수원祖母 家 아저씨가 잡는다고 해서 잡기를 始作하니 大休씨도 거들었다. 도야지 고기 68斤 12양이 나가 斤當 230원씩 15,800원을 받아 달라 했다. 그리하여 순대를 水村 아저씨 家에서 해서 나도 먹었다. ...

◎ 3월 5일 (음 1월 26일) 목요일 雲

水原祖母 家에 가서 모말[곡식 마위를 되는 말의 하나. 네 모가 반듯하다]을 얻어다 1斗를 데여 주었다[되어주었다]. 日前에 둘째祖父에게 쌀돈 1斗 代 낸 것이다. 妻는 高棧 가서 작근집에 一金 仟圓을 받아 정중 外上을 400원 잡고 비누 1,100원에 사고 500원을 남기여 왔다.

◎ 3월 6일 (음 1월 27일) 금요일 雨

... 둘째祖父 사랑으로 마실 가니 肥料代金 問題로 會를 여렸다. 구채로 큰아번님이 四萬餘圓이 남아 組合에선 야단이라 동리 사람이 둘만 모이여도 큰아버지 승[흥]. 아주 시늬[신용]이 없다. 동리뿐 아니라 面組合 等에서도 신남[신임]을 안는다. 종일토록 둘째祖父 家에서 놀다 왔다. ...

◎ 3월 26일 (음 2월 18일) 목요일 晴

前日 作業으로 因해서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어나 앞논을 一週하고 朝飯 食事を 하고 소를 갈다 앞논 감뚝[논둑 정리; 논둑의 반을 갈라 그 사이에 물을 붓고 밟아서 나머지 반쪽과 합쳐 삼으로 반들반들하게 발라놓음]을 하였다. 午前 中 심디려[힘들여] 일을 하고 點心을 하고 나니 심이 탁 풀리어 갱신 못 하겠는 것을 앞 감자밭 농꿀 감자밭을 갈고 집에 와 있으니 妻가 場으로부터 돌아오며 聘母와 작근妻男이 온다 하여 나가 보니 聘母行이 오시였다. 妻는 꼬추 20斤을 가지고 場에를 갈는데 斤當 230圓을 준다고 싸다고 그냥 왔다. 몸이 피곤할 대로 피곤한 나는 몸을 억제치 못하여 그럭저럭했다.

◎ 3월 28일 (음 2월 20일) 토요일 雲

聘母가 온 고로 건너방에서 잔 나는 늦게 일어나 논을 一週하고 朝飯食事を 하고 종소리가 나서 건너가 보니 新作路 出力으로 鍾을 친 것이다 (..) 妻男 聘母가 떠난다고 해서 (..) 뼈죽 210원어치를 사서 우리 집에서 七사발을 보태어 약 1斗는 델 것 같은데 무게도 제법 무겁다. 聘母가 작꾸 오늘 復活週에 보내라고 권고를 하여 마지못해 보냈다. 마음의 修養의 도장. 나쁜 것은 아니 것이지만 敎의 眞理를 모르고 나가는

그 자가 어리석다. ...

◎ 4월 24일 (음 3월 17일) 금요일 雲風

... 맛바람에 물이 海澄해서 모이는 것이 틀림없이 산마루로 가보니 원뚝[바닷가에 쌓은 제방]으로 모이며 야단덜이다. 바깥원뚝을 안 마것으면 [막았으면] 안원뚝 때문에 우리도 야단을 할 것이지만 안심하고들 있다. 좀 잊으니 뒤편로 뛰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가보니 네재祖父 家 원뚝 다섯재祖父 家 원뚝 등이 터졌다. 다섯재祖父 家에서 도랑 원뚝 대느라고 잘르고 마근 것이 잘못 데여 터졌다는 것. 朝飯을 마춘[마친] 나는 원뚝 막는 데 갈까했는데 사람이 안들 가는 것 같아 그냥 와서 앞 왜뚝을 쳇더니 거이 다 가서 원뚝을 막아주어 나는 제[죄]진 놈 같고 양심이 걸리어 못 견딜 지경이고 사람 볼 면목이 없다. ...

◎ 4월 25일 (음 3월 18일) 토요일 晴

... 點心을 마치고 나니 둘째祖父가 와 뒤편 논가래질을 해 달라 해서 해 드리고 와서 논푸랑 손질을 하였다. ...

◎ 5월 26일 (음 4월 19일) 화요일 晴

... 식전 일을 한참 하고 급피여[급히] 드러와 큰집에서 큰아버지 生辰日이라 朝飯 食事を 해라 오라는 것인데도 일이 늦어 그냥 집에서 먹고 다섯재祖父 家에 갔다. 첫날 푸마시[품앗이]이다. 9명이 飛野木 옛 마지기 앞 두 마지기 저분 굴 등을 심었다. 아버지가 우리 앞 말가웃지기를 갈았다.

◎ 9월 4일 (음 8월 2일) 금요일 晴

食前に 가마 한 짝 치고 朝飯 後 치 午前부터 가마 4립을 치고 午後에는 부엌 앞벽 맛벽을 쳤다. 큰어머니 家에서 春子 여름 내 데려다가 일 시키였다고 치마조고리 한 벌 해왔다. 약 2,000원 어치는 될 성 십다고 한다. ...

◎ 9월 24일 (음 8월 22일) 목요일 雨

食前に 나무 좀 뜨더달라고 와서 박절이 할 수 없는 큰아버지라 대담을 했으나 나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죽하[조카]라고 보아주기 커녕 오히려 해롭게만 한다. ...

◎ 9월 25일 (음 8월 23일) 금요일 雨

食前에 또 와서 오늘 일 오라 해서 朝飯을 마치고 일을 가 왼쪽을 5명이 뜨웠다. 근 한 달 동안 해 구경 제대로 못 했는데 오늘은 구름은 왔다갔다 하나 빗 구경을 했다.

◎ 12월 9일 (음 11월 10일) 수요일 晴

자고 일어나니 비가 나리였다. 午後에 큰어머니가 와서 받침 서 말가웃지기를 팔게 될 것이니 날더러 사라고 와서 敎雨아저씨와 흥정 중에 있고 또 생각 중에 있는데 내가 잊지[어찌] 대들겠으며 살 심[힘]도 없다고 했더니 저녁에 잊지 말했는지 敎雨아저씨가 야숙하게[야숙하게] 나를 차져왔고 큰집이선 큰아버지와 싸움이 벌어졌다. 모두가 큰어머니의 농간이다. 중간에 나를 말 듯게[들게] 만들어 매우 심통치 않다. 氣分도 좋지 않고 또 내가 중간에서 공작한 것으로 된 것으로 조작해서 매우 불안하다.

◎ 12월 12일 (음 11월 13일) 토요일 雲

... 鍾植이 外祖母가 왔다 해서 올라가 보고 왔다.

1960년

◎ 1월 10일 (음 12월 12일) 일요일 晴

... 오날이 高二里農協定期總會라 해서 高棧에 늦게 넘어가니 벌써 高棧선 前日부터 組合長을 重植이로 內定이 되어 있었다. (...) 거부하다가 부득히 責任을 맡게 되어 午後에 또 事務定理次 넘어가 事務를 定理하고 늦게서야 넘어왔다. (...) 組合長 申重植 常務理事 申權植 理事 申悅雨 申淵雨 申大休 신壯雨 申來雨 申姜浩 李泰乾 監事 申益秀 신珍植 等이다.

◎ 1월 15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晴

朝飯을 일직 마치고 里長인 큰아번님 印과 大休氏 印 協同組合 理事의 인인지라 같고 高棧가서 돈을 정리하고 重植과 함께 平澤農協에 갔다...

◎ 1월 31일 (음 1월 4일) 일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총기[축음기] 소리와 레디오를 듣다가 妻當叔에 가 세배하고 敏壽氏를 배우고 點心 後에는 아래집 당숙집으로 해서 선蒸를 하고 집에 夕飯하고 놀다가 자리에 드렸다. 聘母는 아직 完치 못하고 얼굴이 그저 부스부스한 기운이 있다. 웬일인지 약을 실어하여 妻男의 成意가 아주 없어진다.

◎ 2월 1일 (음 1월 5일) 월요일

妻男이 學校에 가느라고 朝飯을 일즉한다. 仁成君과 朝飯을 같이 하고 좀 있다가 떠나오니 仁成 妻家에서 섭섭하니 술 한 잔 하고 가지고 해서 들리어 술 좀 하고 떠나왔다. 安仲에 와 妻男이 路資을 주니 車표를 끈고 新浦로 해서 도라왔다. ...

◎ 2월 11일 (1월 15일) 목요일 晴

청명한 날씨에 정월 보름을 마지했다. (...) 고 잔척사대회 (...) 오정 경에 4촌 매제 趙서방이 와서 작근집에서 술과 떡을 먹고 저녁도 하고 놀다가 저녁에 넘어와서 저녁에도 동리에서 놀았다. ...

◎ 2월 23일 (음 1월 27일) 화요일 晴

오늘도 날씨 온화하다. 午前 中 그럭저럭 하다 사촌매제 鄭서방이 왔다고 해서 건너가 놀다가 왔다. ...

◎ 3월 18일 (음 2월 21일) 금요일 晴

妻 親家에 母親病患急報受見 家 出發. 재나 농꿀밭에 날까 하고 지계를 만지고 있으니 내제 祖父께서 소 같다 감자 갈라고 해서 급히 갈았다. 고마운 일. 좀 일은[이른] 편이나 소를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소 난 김에 감자를 심었다. (...) 다섯재祖父 家에 마실 갔더니 금번 선거에 홍식이 지목을 당했다나. 부정도 없는데 우리 신씨를 못 먹겠다는 기회에 디리 씨웠다[들이 씨웠다]. 우리 申氏가 전에 행세를 했다고 사방에서 노리고 있는 중 이번 기회를 본 것이다.

◎ 4월 9일 (음 3월 14일) 토요일 晴

... 모자리[못자리]를 갈까 했으나 소가 없는 고

로 못 갈았다. 네재조부가 소를 얻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버지가 가져간는데 저녁나절 일직 손을 떼면 주라 했다는데 일직 소를 떼고도 그냥 갈다 주었다. 둘째祖父가 여물을 쓸어주고 來日 소를 갈다 갈라고 하시었다. 點心을 마치고 나니 작근숙모가 와서 巡警이 와서 前日 소를 실수한 것에 말없이 치우었다고 와서 말성이라 넘어 가보니 벌써 떠나 버리었다. 前日 警察도 왔다 같은데 먹자는 것이다.

◎ 4월 14일 (음 3월 19일) 목요일 晴

食前에 물꼬에 갈다 와 高棧 작근집이 갈다 와 네재祖父 家 소를 갈다 네재祖父 家 모자리 쓰리고 우리 모자리도 쓰리었다. 처음 쓰리는 것이라 아주 서툴러 형편이 없다. 來日 모자리를 할까 했더니 平澤을 갈다 와 달라 해서 내가 平澤을 가게 되었다. 작근집 일이라 내일이 늦더라도 갈다 오기로 결정하였는데 작근집에서도 그리 알 것인지. ...

◎ 6월 5일 (음 5월 12일) 일요일 晴

食前에 春子和 앞 닷 되지기 물을 뜨고[푸고] 朝飯을 마치고 桂雨 家 일을 갈다. 일꾼 약 20명이 다 심었다. 일을 일직 끝나고 논에 와보아서 말가웃지기 논물을 큰아번님이 따라갈다고 한다. 또 안골할아버지가 우리 논으로 해서 四마지기 물을 댄다고 한다. 비는 좀처럼 올 것 같아 안는데 물 조금이나 있는 것 같으니 물을 대간다 물을 따라간다 하니 걱정이 된다. 우리 명맥인데 말라 붓으면 큰일인데 어이하면 좋을까?

◎ 6월 11일 (음 5월 18일) 토요일 晴

일직 일어나 물이 얼마 주런나[줄었나] 하고 들에 가보고 돌아오니 高棧 重植이 와 農協의 公文을 갖고 오고 또 절골 鍾植氏가 이번에 民議院에 立候補하게 되었는데 우리 申氏에서 표를 얻어주자는 의논 次 왔다. ...

◎ 6월 19일 (음 5월 26일) 일요일 晴

오늘은 食前 일이 없어 들을 돌고 朝飯을 하고 안골 조부 가 일을 갈다. 저녁에 큰아버지 등에 모이여 孟植에 대한 議論했으나 잘못 없이 상호

싸우다가 맞고 치다가 한 일을 고소가 무슨 고소냐고 펄펄 뛰시며 사과 무슨 사과냐고 할 때로 하게 내버려두라고 역정을 내시었다. 생전 척지고 살아보재지?

◎ 7월 8일 (음 6월 15일) 금요일 雨

... 일을 끝내고 둘째할머니 家 아주머니가 중풍이 되어 病間을 갈다가 와 자리에 들었다.

◎ 7월 9일 (음 6월 16일) 토요일 雲

... 尹氏 두 집과 우리 申氏 一代가 같듯이 되어 있음에도 큰어머니는 그 집의 습관이 노릇으로 前夜에 늦게서야 내려왔다 한다. 족하가 尹氏 家인 炳殷 家에 告訴를 당했음에도 큰어머니라는 이는 족하가 그리 되는 것이 신바람이 나서 일러바치니 동리서도 모이면 큰어머니 송이다.

◎ 7월 14일 (음 6월 21일) 목요일 雲

... 夕飯 후에 靑年들이 모여 尹서방의 집 洞里 基金 260환 잇는 것을 받으러 갈다가 언성이 높을 程度로 하고 왔는데 큰어머니가 대들어 우리 형제를 못 먹었다고 하며 윤서방 家 역성을 들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큰소리를 좀 했다. 洞里 一代가 직대시하고 잇는데 큰어머니라는 자가 윤서방 편의 말 하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 7월 17일 (음 6월 24일) 일요일 晴

... 夕飯을 마치고 마실을 건너가니 큰아번님이 우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은 큰어머니의 코치가 아니고 무엇이나. 사실은 우리가 섭섭하기 짝이 없다. 큰집은 남만도 못하다. 사실 남만 아주 못하다.

◎ 8월 4일 (음 윤 6월 12일) 목요일 晴

... 夕飯 후에는 모처럼 다섯재祖父 家 강당을 로[강당으로] 놀라 갔었다.

◎ 8월 6일 (음 윤 6월 14일) 토요일 晴

妻男이 五日만에 場으로 해서 妻와 같이 떠났다. 모처럼 와서 몸에 두두러기[두드러기]가 나서 고생을 하여 오늘도 가시질 않아 떠나 궁궁하다. ...

◎ 8월 13일 (음 윤 6월 21일) 토요일 晴

... 둘째祖父 家 아주머니가 중풍으로 채 병이 낫지도 안았는데 속알[소갈;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은 여윌고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병이 일어나 심하다 해서 問病을 갔다왔다. ...

◎ 8월 24일 (음 7월 3일) 수요일 晴

孟植과 炳殷 問題를 解決을 지으라 平澤에를 나간다고 朝飯食事を 하고 떠났다 한다. 氣分도 좋지 않는데 다섯재祖父가 나를 좋지 않게 生똥 한다는 말을 듣고 뜻 없이 왜 나를 보기 싫어하나 이유 없이 싫어할 것이 없는데 웬일인가 올라가 말하랴고 하다가 참고 속이 상해 高棧 넘어가 종일 놀다가 저녁나절 왔다. (...) 德雨아저씨 가에 가서 한참이나 놀며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왔다.

◎ 8월 25일 (음 7월 4일) 목요일 晴

食前 일직 일어나 둘째祖父 家 소를 얻어다 보리방아 한 바리를 실어 갔다. 朝飯은 高棧 작근집에서 쌀밥으로 구미에 당기게 해서 맛있게 잘 먹었다. (...) 孟植이 증인으로 敎雨叔이 平澤에 갔다왔다. 모든 것이 잘된 것 같다고 한다. 이번 孟植 일에 敎雨이 많은 심을 썼다. 下午에 다섯재祖父에게 가서 의견이 상해되는 것을 말하였다. 조용이 말하니 잘못은 잘못으로 서로 알아야 한다고 하며 잘들 지내고 잘들 하라고 하시며 헤어졌다.

◎ 8월 26일 (음 7월 5일) 금요일 晴

食前に 仁成 家에 가 借用해 간 一金 三仟圓을 오늘 場 틀림없이 해준다고 천만번 해서 주었더니 오늘 食前에도 안 가져와 찾으러 가니 아무 말 없이 태연하게 잊더라고 春子が 말하여 -T심하기 짝이 없다. 큰아번님이 와 음물[우물] 修理費에 포함한 동리잡비가 伍百圓이라고 달라하시여 仟圓을 주니 거실늘[거스름] 돈 없다고 곳 보내준다더니 그냥 場으로 行하시었으니 이게 무슨 노릇이고. 안골祖父도 一金 仟환을 꾸어가더니 200환을 떠러트리고 벌써 월포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모두가 믿을 사람 없다. ...

◎ 9월 4일 (음 7월 14일) 일요일 雲 細雨

... 둘째재 當叔母 注射를 놓아주고 한나절이나 낮잠을 잤다. (...) 夕飯食事後에 孟植 와 앉았다가 자리에 드렸다.

◎ 9월 29일 (음 8월 10일) 목요일 雲

... 孟植이 水原에서 왔다 夕飯을 마치고 올라가보니 왔다. 거기소로 각하되어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작근아버지가 水原에 있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한다. 허기야 별 문제 없는 것이지만 혹여나 했더니 잘 되어 좋다. 그 관계로 종일 일이 안 잡히고 해서 종일 왔다 갔다 해를 보냈다.

◎ 11월 19일 (음 10월 1일) 토요일 晴

... 요꼬아주머니가 와서 點心을 같이 했다. 春子도 高棧서 오늘서야 넘어왔다. ...

◎ 12월 10일 (음 10월 22일) 토요일 晴

... 집에 늦게 오니 安仲의 妻家の 妻 八寸兄 딸이 와 夕飯을 같이 하고 우리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잤다.(安仲美容)

◎ 12월 26일 (음 11월 9일) 월요일 晴

... 또한 오늘이 邑面長 選舉日인지라 投票를 해야 되는 고로 일 볼 사람들은 모두 車를 타고 新浦로 가서 投票를 하고 新郎이나 友人들도 모두 投票를 하고 떠났다. 우리 申氏인 申祚浩도 面長에 나서 우리 申氏도 一心協力해서 當選을 시켜야 되겠기에서이다. ...

1961년

◎ 1월 5일 (음 11월 19일) 목요일

... 큰어머니가 우리 사는 것이 싱기[심기]가 나서인지 못 잡아먹어 한이다. 炳殷의 집 말만 하면 쌍집행이[쌍지팡이]를 집고 텨비는 지라 우리가 炳殷 家와 좋지 않게 지내는 것이 좋아 병운의 집 말만 하면 타내고 텨비여 말마디나 했다. 큰어머니가 아니라 이젠 우리 집안에 큰 변이다. 큰아버지도 마창가지이다.

◎ 5월 7일 (음 3월 23일) 일요일 雲

... 點心을 마치고 나니 高棧의 重雨와 億植이가 아산 아이 內外가 와 같이 술과 夕飯食事を 같이 했다. 저녁에는 레디오를 갖고 세재祖母 家에 가서 놀다왔다.

◎ 5월 10일 (음 3월 26일) 수요일

… 孟植이 聘母任이 오시여 맨밥이나마 같이 해드리었다. 집이 좋지 않아 부끄러웠다. (….) 할 머니는 내려오셨다가 그냥 자리에 누우시었다. 비가 와 못 건너가시었다. …

◎ 5월 13일 (음 3월 29일) 토요일

… 水原 작근아번님이 와 저녁 먹고는 水原작근아번님을 배우려 갔었다.

◎ 5월 26일 (음 4월 12일) 금요일

禧雨氏 葬日. (….) 高棧 定雨아저씨의 말이 큰 어폐가 있어 젊은 사람들의 의사에 어근났었다 [어긋났었다]. 다섯재祖父 家와 우리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아랐다.

◎ 6월 28일 (음 5월 16일) 수요일

… 夕飯 後에는 큰아번님이 來日 春子 婚姻 관계로 水原에 가신다 해서 노자를 一金 천환을 갈다 드리고 왔다. …

◎ 7월 23일 (음 6월 11일) 일요일

… 瑞山아주머니 家에 웬 중이 왔는데 알고 보니 큰할아번님 의붓딸 鳳雨라는 女人인데 우리는 아주 모르는 사람이고 3살 먹어 나가 한번인가 왔다간지 20餘年이라고 하니 누구 한 명 아는 사람 없다. 前日 왔다는데 四柱를 잘 본다 하여 큰 마루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었다. …

◎ 8월 8일 (음 6월 27일) 화요일 暴雨

… 孟植이 内外는 오늘 妻家에 같다한다.

◎ 9월 18일 (음 8월 9일) 월요일

… 세재祖母지 教雨 母親인지는 한 사람 만나면 그 야기 또 한 사람 만나면 말 自己집 허물 버섯으면[벗었으면] 그만이지 오늘 水原 祖母 生日날도 사람이 많이 모인데서 孟植을 가라 부시도록[갈아 부수도록] 말하니 듣든 사람들이 쉬쉬하고 그냥 도라가더라고. 속이 상한지라 나는 집에서 朝飯을 했다. 중사하는 노인 누구나 손꼬락질. 잘못 했대면 고만 죽을 제[죄]를 짓으니 어이 하던지 해달라고 사죄하니 통양[자신에게 직접 미치는 이해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잇는

사람이면 그냥 묵색할[침묵할] 이리것만[일이건만] 洞里에도 없고 떠나 生死를 모르는 사람 같고 그리 못할 일. …

◎ 9월 19일 (음 8월 10일) 화요일

… 孟植이 行方을 몰라 큰 걱정인데 教雨 家에 선 如前히 떠들고 다니니 아주 속 시원하게 告訴나 헛으면 좋겠다. 告訴한대야 명예회손[명예훼손] 罪인데 잘못 했다고 빌 바에야 罪될 것도 없는데 아주 속이 상해 죽겠다.

◎ 9월 26일 (음 8월 17일) 화요일

… 食前부터 일 준비를 하고 朝飯 後에 일을 나가니 오늘 前日 푸마시 한 朴書房(다섯재祖 일꾼)이 일꾼 한 명 데리고 온다던 사람이 自己도 사정이 있어 못 온다고 일토[일터]에 와서 깨고 간다. 께심하니 일꾼이 하는 짓이 아니고 이 건 집에서 시킨 일이라 計劃的인 것이다. 일꾼을 꼭 께었다가 깨지니 낭패가 아주 많다. …

◎ 10월 5일 (음 8월 26일) 목요일

… 雄浩의 出產申告을 해달라고 里長인 큰아번님께 印章을 준지 여러 날만에 찾으러 갔더니 새 도장을 준다. 내가 준 도장을 잊고 다시 새겨 申告했다고 하신다. 申告나 잘 되었는지 걱정이다. 雄浩라고 일것 적어 주었으니 달리 해서 다시 하는 것이다. …

◎ 10월 7일 (음 8월 28일) 토요일

… 朝飯 後에 教雨 家 일을 같다. 일을 가서도 修植 母의 꼴이 우수광한[우스꽝스러운] 일이다. 孟植의 일로 해서 실죽그리는[실룩거리는] 꼴이란 참아 눈꼴이 신 일. …

◎ 10월 28일 (음 9월 19일) 토요일

食前부터 그네[벼를 훑는 데 쓰던 농기구. 길고 두툽한 나무의 앞뒤에 네 개의 다리를 달아 떠받치게 하고 몸에 빗살처럼 날이 촘촘한 쇠를 끼운 것]로 나문 벼를 훑들라고 그네를 차려놓았다. 그네를 얻을 수 없다. 아버지 家 그네를 얻으려 가니 큰아버지 家에 얻어갔다 해서 가보니 안 얻어왔다니 안 주라는 핑계인지라 그만 두었다. 朝飯을 마치고 나니 작근尹서방이 와서 농꼴

논의 등기를 面에서 한다니 新浦에 가자해서 新浦에 가서 申請할라니 담당書記가 없어 못하고 種覽을 하니 논자리가 가당찮게 틀린다. 앞논에 600餘坪이나 틀린다. 里長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큰아번님이 고의로 한 것이라 生똥된다. 집에 와 큰아번님에게 변경해 달라 했다. ...

◎ 11월 29일 (음 10월 22일) 수요일

다섯재祖母가 왔다 가시고 조고리를 해 갈고 좀 있다가 큰어머니가 치마감을 갈고 와 술맛을 보라 한 잔 드리고 나 孟植의 말을 하고 세재祖母가 어찌구하다가 청청[청천] 벼락의 말을 한다. 첫잠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어리둥절 했다. 나와 孟植이 말 못할 흥한 일을 했다고 안팎 동리에 소문이 났다고. 제 말 집퍼[짚어; 상황을 헤아려 어떠한 것으로 짐작하여] 남의 말 한다고 敎雨아저씨 보고 한 말이 저이들이 더 흥한 짓을 한 것이 탄로 났다고 하며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이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른다. 집안에서 난 말이라 하니 어이없다. 누가 중상모략을 한 것이다. 우리를 아주 못 살게 만들 작정하고 한 말이다. 큰어머니는 신바람이 나서 우리를 모략할 것이 뻔한 일이다.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 있다. 망치로 어더마준[얻어맞은] 머리 같이 어리벙벙하고 종일 마음 들 곳 없어 안절부절 했다.

◎ 12월 16일 (음 11월 9일) 토요일

... 날씨 얼어붙어 빙판이 지면 방아 찌울 것이 걱정이다. 집안에서 精米業을 하니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아주 불편하다. 다른 곳으로 가면 가마니 얹아 찌울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실어가고 실어오고 뿐만 아니라 윗단토에 있는 것에 실기[실기]가 큰 걱정이다. ...

1962년

◎ 1월 5일 (음 11월 29일) 금요일 晴

... 방아를 始作할라는데 妻가 와 곳 만나니 妻

男이 왔다는 것이다. 敦一君의 入學을 하는데 水原까지 같이 같으면 하는 것인데 방아를 찧게 되어 못 가고 成植이 農高에 다닐 뿐 아니라 水原에 갈 일이 있다고 하여 來日 보내기로 하고 妻男도 떠나고 敦一君도 來日 첫車로 와 같이 가기로 約束하고 헤어졌다. ...

◎ 1월 12일 (음 12월 7일) 금요일 晴

... 點心을 먹고 나니 큰치男이 또 왔다. 敦一이 궁금해서 온 모양이다. 큰치남과 高棧 甲秀 家에 갔다가 왔다. 來日 合格者 發表에 妻男이 안 왔으면 내가 갈라는 것인데 와서 잘 되었다.

◎ 1월 14일 (음 12월 9일) 일요일 晴

... 다섯재祖 아저씨(吉雨氏)가 高棧 가서 農協에서 精米所 잇이[어찌] 生똥하고 잇느냐 가보라 해서 갔다가 各 理事를 못 만나보고 왔다.

◎ 1월 15일 (음 12월 10일) 월요일 晴

... 敦一君의 合格했다는 消息을 드르니 방갑다[반갑다]. 요사이는 다섯재祖 家 음물을 파는 사람이 와 집일을 못하여 그냥 놀다가 왔다.

◎ 2월 26일 (음 1월 22일) 월요일 晴

... 朝飯 後에 마실을 건너가니 오늘 新浦로 肥料를 가질라 간다고 한다. 肥料配給의 차이가 아주 많다. 그리하여 큰아번님과 아번님과 큰 소리를 한다. 우리 아번님과 내가 아주 적다. 큰아번님이 우리 두 집을 아주 못마땅이 한다. ...

◎ 3월 30일 (음 2월 25일) 금요일

外家집 마을의 낮[낮]을 익힐 겸 두로 이모님과 도라다니며 어면님이 자라고 어면님의 손발 다은 곳에 이모님의 案內를 받으며 어면님을 回想하며 돌보았다. 어면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孟思誠 政丞의 자란 곳인 國報 155號인 은행나무며 孟政丞이 쓰던 호적 벼루 표주박 등도 보았다.

◎ 3월 31일 (음 2월 26일) 토요일

外祖母任의 사모[삼우]를 보고나니 부산의 이 중누님이 溫泉에 가서 하이야[택시]를 보내서 이모님과 溫泉에 나간다. 이모님 집도 정결하며 잘 돌하고 사시는 것을 보니 흐뭇하다. 點心을 먹고

형식과 함께 밤밭의 李舜臣 將軍 고향을 가보았다. (….) 도라와 溫泉을 하고 이모집에 와 저녁을 먹고 극장구경을 갔다왔다.

◎ 4월 1일 (음 2월 27일) 일요일

外家집 이모집에서 4日만에 歸嫁했다. 溫泉에서 釜山 이종누님과 함께 떠났다. 平澤를 거쳐 午後 늦게 집에 왔다. 한 달도 더 걸린 것 같다. 外家집 이모집 등 모도[모두] 잘 사는 것을 보고 오니 매우 좋았다.

◎ 5월 5일 (음 4월 2일) 토요일 晴

… 午前에 高棧叔母任이 와 片紙를 써달라고 오시여 써드리었다. …

◎ 8월 1일 (음 7월 2일) 수요일 雲

妻 親家 行. 날씨도 서늘하고 해서 어린 것들 데리고 길 떠나기에 적당하다. 朝飯을 마치고 떠날 準備을 하고 있으니 水原 작근아번님이 오시었다. 公務員을 4日間식 休日을 해주어 오셨다가 들리었다. 좀 앉아 계시다가 떠난다고 하시여 高棧 마루턱까지 傳送하고 오니 妻는 떠나 동육 쫓까지 갔다. 어린 것들 데리고 無事히 歸嫁하길 바란다. …

◎ 9월 16일 (음 8월 18일) 일요일 雲雨

… 水原當숙母와 當姑母가 와 夕飯食事を 같이 했다. 水原 당숙이 남봉[난봉]을 피워 속을 태운다고 하며 눈물 먹음 말소리에 아주 마음이 안 되었다. 水原 당숙은 어려서부터 같이 서울서 學校에 다니여 누구보다도 속을 잘 알고 암전하기로 이름난 사람이다. 침을 얻어 같고 속을 많이 태운다는 것이다.

◎ 11월 8일 (음 10월 12일) 목요일 雲雨

… 朝飯을 마치고 나니 水原 叔母任이 오시었다. 떠나시는데 大豆 1斗 가량 드리었다. …

◎ 11월 9일 (음 10월 13일) 금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영을 엮고 있으니 孟植의 妻 男이 왔다고 오라고 해서 올라가다 生覺하니 좋은 일로 온 것 같이 않아 水原 작근숙모 짐을 高棧에 갔다주고 와 바람이 잘 불어 개꼴을 드릴 [준비를] 차려 놓았다. 조금 드리다가 飛野木 8

代祖 時香에 갔다오니 妻가 거이 다 드리었다. 집에 와 마당을 치웠다. …

◎ 11월 19일 (음 10월 23일) 월요일 雨

… 저녁은 세재祖母 家에서 오라고 해서 세재祖母 家에서 먹었다. 夕飯 後엔 마실 가서 늦게 도라왔다.

◎ 11월 23일 (음 10월 27일) 금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마실 갔더니 淸平祖母任이 편찮다고 하여 들여다보니 대단하시다. 온 집안 食口가 다 모여 있다. 약을 써달라고 해서 진통제나 강심제를 놓아드리었다. 딸덜도 다들 모였다. …

1963년

◎ 1월 15일 (음 12월 20일) 화요일 晴

날씨는 아주 冷하여 13·4度란 날씨로 살을 여위는데 [에는] 것 같다. 朝飯食事を 하고 春子 집을 떠나 妙順아주머니 집으로 해서 堂叔 집으로 해서 郡廳에 가서 堂叔을 만나 點心을 먹고 2時 車로 水原을 떠나 집에 왔다.

◎ 1월 26일 (음 1월 2일) 토요일 晴

오늘 젊은 사람들과 몇 태[해]만에 排球을 해보았다. 11時 頃에 農樂을 같고 술을 얻어먹으려 다니는데 나는 高棧할면님을 못 차차배여 조바심이 되어 午後엔 高棧 가서 모모한 집에 歲拜하고 午後 늦게야 집에 왔다. 35살이란 人生 70의 半은 보냈다. …

◎ 4월 11일 (음 3월 18일) 목요일 晴

오늘 큰아번님이 今般 큰어면님 회갑일에 연사간에 請牒을 해야겠는데 날 보고 다녀오라고 해서 朝飯食事 後에 길을 떠났다. 나룻배를 타고 독정리아저씨 댁으로 해서 구래아주머니 家로 각꼴 아번님 위가[외가] 임모님[이모님]집으로 해서 3時 車를 타고 發安 와 세면이모할머님 家로 아번님 外四寸 집을 다녀 무려니에 집에 6時 頃에 들러 저녁 먹고 집을 떠나니 9時다. 다리가 부르커고[부르토고] 아주 피곤하다.

◎ 4월 15일 (음 3월 22일) 일요일 雨

來日 큰어먼님 甲午日에 準備에 아주 분주하다. (….) 朝飯食事 後에 껌새[빤새]를 하다가 請牒을 돌리라고 해서 三溪로 해서 新浦에 갔었다. 논투랑에 물을 잡았으면 했으나 한 마지기와 닷되지기 감뚝을 못해 물 노치는 것이 안 되었다. 新浦에 갔다 와 밤 1時半에 집에 왔다.

◎ 5월 28일 (음 윤 4월 6일) 화요일 雲

… 저녁 食事を 하고 있으니 셋째祖 家에서 개국을 갔다 주어 잘 먹었다. 간간 注射을 놓아주어 生甁하고 보낸 것이다.

◎ 8월 29일 (음 7월 11일) 목요일 晴

敦一君과 鍾煥君이 왔다.

◎ 8월 30일 (음 7월 12일) 금요일 雲雨

모처럼 온 애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닭을 잡고 떡을 했다. 鍾煥君은 마실 갔다 오니 떠났다. 불잡아도 뿌리치고 집으로 가야 한다고 水原서 이리로 들린 것인데 볼 일이 있어 집에 다녀 水原 學校로 가야 한다고 떠났다고 췌는 몹시 섭섭히 여기고 있다. 敦一君은 여기서 水原으로 간다고 한다. …

1964년

◎ 1월 4일 (음 11월 20일) 토요일 晴

… 서울의 南植이 와 한참이나 한담을 하다 헤어졌다. 家塋을 賣渡할 모양이다. …

◎ 1월 10일 (음 11월 26일) 금요일

敦一君이 水原으로 가는 고로 路資도 줄 겸 發安場도 볼 겸 妻가 간다고 하기에 보냈다. 닭을 두 마리 같고 가 290원 받아 路資 100원 주고 약을 해 갖고 왔다.

◎ 2월 17일 (음 1월 5일) 월요일 晴

洞里 擲樞大會. 食前에 일직 일어나 세죽[쇠죽]을 쭈어주고 朝飯食事 後에 高棧할아범님이 종기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藥을 갖고 가 발라드리고 왔다. (….) 저녁엔 마실 갔다가 큰어

먼님이 급히 오라해서 가보니 寬植이 술이 취하여 세간을 부수고 있다. 結婚의 감정이 폭발한 모양이다. 12시까지 삭겨놓고[삭혀놓고] 왔다.

◎ 2월 21일 (음 1월 9일) 금요일 晴

… 점심을 먹고 나니 찾아 나가보니 孟植이 장인이 와 앞 事業所에 흥정을 부처달라고 해서 농꿀까지 같이 갔다왔다. 資本主를 끌고 온 모양이다. 後坪 작근祖父가 서울 病院에서 아주 위급하고 오늘 해를 못 보낼 것 같다고 퇴원을 한다고 해서 後坪에를 갔다가 陽甘까지 가 6시 30분에 도라가서 왔다. 우리 申氏에 기둥이다. 그분이 할라는 일이 안된 일이 없고 우리 申氏에 第一인으로 우리 面엔 없다.

◎ 2월 27일 (음 1월 15일) 목요일 晴

… 富平아주머니 家 논 산 것에 吉雨氏가 말할 줄 알았더니 오늘은 잘했노라고 人使[人事]을 해서 氣分이 좋았다. 우리 땅 사는데 壹雨 大休 세재祖母 등이 시기를 하고 壹雨와 大休는 다섯재祖母와 吉雨氏에게 많은 말을 한 모양이다.

◎ 2월 29일 (음 1월 17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에게 英浩 就學에 對해 學校에 가 校長先生任에게 알아보시라고 附託했는데 어이 되었나 알아보려 올라갈더니 아번님은 서울 鍾植이 進學관게로 올라 가시었다. 가보니 鍾植이 外三寸이 와 좀 있다가 왔다. 興植 兄에게 알아보니 校長은 못 만났으나 곳이[곧이] 말하니 半승락은 잊었다고 해서 冊갑으로 140원을 興植에게 주었다. 저녁엔 아번님家에서 뽕을 하고 노랐다. 教雨氏 家도 興植 家 땅을 520坪에 27呎에 사오는 쌀을 運반하였다.

◎ 3월 19일 (음 2월 6일) 목요일 雲雨雪

… 장사를 모시고 나니 비가 나리여 못 을 줄 알았더니 그냥 떠나 新浦에 와 우산을 사 받고 진눈가비를 맛고 와보니 큰 妻男이 왔다. 고구마 종자를 갖고 왔다.

◎ 3월 20일 (음 2월 7일) 금요일

… 妻男과 같이 종일 노랐다. 날씨는 아주 냉한 날씨다. …

◎ 3월 21일 (음 2월 8일) 토요일

… 妻男은 오늘 떠나는데 우리 버씨 종자가 좋다고 해서 一斗가량 自轉車에 달아주었다. …

◎ 8월 1일 (음 6월 24일) 토요일 晴

緊雨 堂叔이 刑務所에 入감된지 여러 날이 되었다. 水原郡廳의 양정계원은 업무상 飭령으로 투옥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한 번 다녀올까 生覺하고 妻를 오늘 場에 路資 장만次 安仲을 갈다. …

◎ 8월 3일 (음 6월 26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を 일직하고 水原에 투옥되어 있는 堂叔을 面會 次 出發해서 작은집에 水原을 만나보고 10時 頃에 面會를 叔父 案内로 했다. 작은집에 그냥 갈 수 없어 과일 100원어치와 叔母任에 아리랑 2갑을 사드리고 面會 가 과일 등 100원어치 사 되밀고[들이밀고] 3時 車로 집에 오니 6時가 되었다.

◎ 10월 5일 (음 8월 30일) 월요일 雲

… 鍾浩가 왔다. 급히 끝내고 같이 집에 와 寬植과 鍾浩 저녁밥을 먹었다. 鍾浩가 온 동기는 靑北中學校 設入(건)이다. 約 2時間 議論하고 다섯재祖 집에 가니 高棧 重浩와 公雨氏가 와 靑北中學校 設入을 申氏 門中에서 착수하는데 잊이 했으면 좋으나고 의논이 구구. 2日後에 申氏會를 高棧서 열기로 했다.

◎ 10월 7일 (음 9월 2일) 수요일 晴

宗會에 參席. (….) 點心을 먹고 高棧을 갈다. 會件은 教育事業. 新浦女中學을 우리 申氏 宗家에서 해볼라는 會인데 저녁 기별이 다른 業者가 하게 되었다는 기별이 와 모든 일은 그릇되었다. …

◎ 10월 9일 (음 9월 4일) 금요일 晴

… 저녁 먹고선 高棧 질리祖母의 회장을 갈섰다.

1965년

◎ 2월 16일 (음 1월 15일) 화요일

… 시상이 끝나고 1等 탄 집에 가 술을 먹었다.

寬植이 술이 취해 高棧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高棧 있으니 급히 오라 해서 오다보니 거리에 누었다. 좀 있다가 집에 와 父子之間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큰아버님도 고생하며 가르킨[가르친] 보람 없다. 말할 것도 없이 不孝子息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不孝子息이다. 나도 옷에 피칠까지 하며 말렸으나[말렸으나] 아주 氣分이 나쁘다.

◎ 2월 17·18일 (음 1월 16·17일) 수·목요일

… 오후에 다섯재祖 둘째재祖父任 오시니 전일 寬植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 집안에 큰일이라고들 말씀하시었다. 큰어머님이 말할 수 없는 시기와 신경질은 말할 것도 없다. 寬植도 큰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없다면 아직 시기심이다. 두 祖父任은 의논들을 하시다가 도라가시다. …

◎ 3월 14일 (음 2월 12일) 일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命植의 病問을 갈다와 집가리[짚가리]을 옮겨 쌓을 準備을 했다. 밭을 치워야겠는데 혼자는 임두가 [나지] 않아 敦植을 데리고 午前 中 하고 下午엔 혼자 했다. 큰 가리 두 가리는 옮겨 쌓았다. …

◎ 5월 14일 (음 4월 14일) 금요일 晴

할머니가 대단하시다고 해서 高棧 가서 할머니를 배우라[보려] 갈섰다. 대단하시다. 老患이라 회춘 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 子息은 여러 형제 이지만 서로 老人을 실행하는[싫어하는] 고로 매우 不安에서 고생이 많으시다. …

◎ 5월 18일 (음 4월 18일) 화요일 晴

… 저녁나절은 高棧할머니를 배우려 갈섰다. 날로 病患은 더 하시다. 일어나기는 어렵다. 저녁을 먹고 나니 할머니를 큰집에서 모셔온다고 해서 高棧 가서 있다가 來日 모신다고 해서 그냥 왔다.

◎ 5월 19일 (음 4월 19일) 수요일 晴

할머니 病患 위급. 큰집에서 모셔왔다. (….) 들에서 들어와 朝飯食事を 하고 있으니 큰아버님 집에서 오라 해서 갈다. 오늘이 큰아버님 生辰일이다. 할머니가 대단하시여 못해 먹는다고 하더니 洞里분들 朝飯대접을 하는데 洞里분들이 거이 다 朝飯은 집에서 하고 났을 때이다. 큰집에

가서 있다가 왔다. 할면님은 食前에 모셔왔다.

◎ 5월 22일 (음 4월 22일) 토요일 晴

… 聘母任이 오시였다. 敦一君이 어제 집을 나갔는데 혹 여기 왔나 찾아왔다고 한다. 우리 집엔 안 왔다. 聘母任은 안절부절 하여 위안을 시키여 드리였으나 安정이 안 되는 모양이다. …

◎ 5월 23일 (음 4월 23일) 일요일 晴雲

聘母任이 오늘 떠나시는데 노자로 200원을 드리였다. …

◎ 11월 5일 (음 10월 13일) 금요일 晴

… 어제 日氣로 오늘은 脫穀할 수 없어 8代 時祭에 갔었다. 時祭가 끝나고선 小宗脈[小宗派]間에 宗事 議論하다가 高棧 집안과 우리 집안과 충돌이 있었다. 宗孫이 넘어[너무] 독선적이라고 큰말이 오고 같다.

◎ 11월 19일 (음 10월 27일) 금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농골 가서 理髮을 하고 무려니에 집에 婚事に 갈 準備을 차리고 10時半경에 到着해서 妹 시동생의 婚事に 參했다. 부조로 參百원을 주고 3時 頃에 떠나 집에 도라왔다.

◎ 12월 12일 (음 11월 20일) 일요일 雲

… 朝飯食事を 하고 마실을 가니 上三溪의 宗山을 宗孫이 開간을 協議없이 했다고 윗대 산소가 많은 宗山에 파비[풀뿌리]를 뽑거나 밭갈이를 하는 데 쓰이는 농기구의 한 가지. 쟁기와 비슷하나 좀 작고 보습이 좁음을 한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윗삼계를 간다고들 몇이 떠났다.

◎ 12월 13일 (음 11월 21일) 월요일 晴

… 前日 윗삼계 같다오신 아번님에게 가 前日의 狀況을 알아보니 宗山이 아니라 自己 것이라고 하더라고. 눈 뜨고 코 베 먹일 일이다. 宗孫이라 宗孫 앞으로 登記를 내주었으니 自己 앞으로 登記있다고 自己 것이라니 말이다. 宗山이란 것은 이 가근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

◎ 12월 19일 (음 11월 27일) 일요일 晴

할아번님 生辰日. 朝飯食事を 高棧작은아번님 집에서 했다. (….) 高棧에 오니 水原 작은아번님과 高棧 작근어머니가 싸우고 있다. 뱃말 논을

昨년에 20畝 주기로(4斗落) 했는데 今年에 줄 줄 알았더니 못주겠다고 하더라고. 水原 작근아번님이 펄펄 뛰고 야단이다. 高棧 原木 事業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떠돌고 있으니 아주 창피하고 不安하다.

◎ 12월 20일 (음 11월 28일) 월요일 晴

… 上三溪 宗山 관계로 집안 간에 말이 많으나 돈이 있어야 일을 꾸미고 合議登記를 낼 수 있으나 돈이 한 군데로 쟁겨[잠겨] 있어 일을 始作 못하고 있다. 집안에 쌀이 4畝 가량 있으니 큰집에서 내 놓아야 할 일인데 이것 맞아[마져] 먹을 모양이다. …

◎ 12월 25일 (음 12월 3일) 토요일 晴

… 저녁 나절 敦一君과 妻兄(利川)이 왔다. 아주 어려운 길이다.

◎ 12월 26일 (음 12월 4일) 일요일 晴

손님들이 點心을 먹고 떠났다. 路資로 敦一 100원 妻兄 200원 주었다. …

1967년

◎ 1월 2일 (음 11월 22일) 월요일

… 高棧 가 잔치 집에 갔다왔다. 잔치 집에 갔다오니 서울에서 敦一이 왔다.

◎ 1월 3일 (음 11월 23일) 화요일

… 敦一이 서울에 얻은 방이 잘못 얻은 듯하여 말썽이 있다고 해서 가서 알아보기로 했다. …

◎ 3월 12일 (음 2월 2일) 일요일

서울 春植 主人 집에서 宿하고 극장구경을 하고서 모처럼 南山公園에 가 놀다가 永登浦의 敦一 집에 오니 [권]관리 동서가 왔다. 妻 이질이 속을 썴[썴] 좀 권고를 해달라고 해 가보니 아주 不孝막심한 놈이다. 세간을 다 때려 부수고 부모가 빌어도 막무간하다. 돈을 많이 주어야겠는데 不孝한 놈을 돈으로 안 되는 것이다. 아주 不孝한 놈이다. 敦一 家에서 宿하고 春植 主人 집에 가 宿했다.

◎ 3월 24일 (음 2월 14일) 금요일

妻家에서 12시에 떠나 4時 頃に 着. 妻 姑母任
도 우리 집으로 오시었다가 高棧으로 떠나시었
다. 어머님 제사 흥정도 했다. 500원 ...

◎ 6월 12일 (음 5월 5일) 월요일

큰어머니와 시른 소리가 오고 같다. 농꼐 김씨
보고 우리 부재[부자]가 욕심이 많으니 깡쟁이
[깡쟁이] 같은 놈이니 하고 욕을 했다고 해서 실
은 소리를 했다. 옛날부터 못먹겠다고 하는 큰어
머니 심끼가 지나치게 많은 분이다.

◎ 7월 10일 (음 6월 3일) 월요일 晴

妻 歸家. 妻男 敦一君이 軍에 入隊케 되어 妻
가 親家에 어제 같다가 오늘 왔다. 入隊日은 12
日이라고 한다. ...

◎ 7월 17일 (음 6월 10일) 월요일

... 일꾼은 돌재祖父 家 일을 보냈다. 老人들이
딱해서 하루 보내드리었다. ...

◎ 8월 24일 (음 7월 19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を 하고서 있으니 저근너 마을에서 떠
드래하여[떠들썩하여] 내다보니 큰아번님집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가보니 큰어머니가 病院
에 가는 것이다. (...) 집에 와 옷을 갈아입고 新
浦에까지 모시고 갔다왔다. 이러한 때는 집안이
고 조카다. ...

◎ 11월 13일 (음 10월 12일) 월요일 晴

... 이튿날 廣州行 서울에 와서 春植을 만나 조
카를 가보았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어딘지 不
足感이 있다.

◎ 11월 16일 (음 10월 15일) 목요일 雲

楊州를 떠나 서울에 와 春植 家에서 梧城의 榮
雨氏와 함께 서울에서 극장구경을 하고 春植 家
에서 宿하고 편히 잤다.

1968년

◎ 1월 4일 (음 12월 5일) 목요일

春植이 서울에 떠났다. 春子도 떠났다. 고구마

와 참쌀 1두을 춘자를 주었다.

◎ 2월 2일 (음 1월 4일) 금요일

... 春植과 朝飯食事を 같이 하고 洞里靑年들이
우리 집에서 놀다가 바람이 세다고 마실로 같다.
점심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敦一君이 왔다. 같이
앉아 이야기 하다 나갔다오니 가겠노라고 나왔
다. 軍隊에 같다가 첫 휴가 온 것인데 바로 떠나
니 안 온 것만도 못 하다. 제 누이가 아주 섬섬히
生覺한다.

◎ 2월 4일 (음 1월 6일) 일요일

妻는 朝飯食事 後에 親家에 떠났다. 나는 우리
大宗會의 規約을 作成 會長에게 갔다드리고 大
宗會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妻가 親家에 떠나니
세죽 썬라 밥 짓는데 보살피랴 정신의으로 매우
고디다. 雄浩는 姑母집에 갔다 왔다. 敦一君이
왔다 그냥 떠나 路資 못 주어 一金 壹千원을 주
고 왔다.

◎ 2월 7일 (음 1월 9일) 수요일

朝飯食事 後 大宗會의 會長인 다섯재祖任과
宗會에 對한 論議을 한참이나 하다가 점심을 먹
고 나 여물을 쓸었다. ...

◎ 2월 16일 (음 1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일직 始作해서 7,8일을 칠 계획이었으
나 安書房이 와 6日 치고 마랐다. ...

◎ 8월 9일 (음 7월 16일) 금요일 晴

... 큰아번님에게 “지관”(풍수객)들이 보는 “제
[쇠]”를 사다 드리었다. 一金 300원에 사다가 취
미삼아 하시라고 사다가 드리었다. ...

1971년

◎ 1월 13일 (음 12월 17일) 수요일 晴

... 서울로 가기로 協議가 되어 一行은 下午 4
時半에 高速빠스로 서울을 들리어 黑石동 당고
모집을 찾아갔다. 당고모 집에서 하루을 쉬었다.

◎ 1월 14일 (음 12월 18일) 목요일 雲雪

당고모집에서 자고 당고모부를 모시고 눈 나리

는 거리로 나왔다. 덧던 말과는 다르다. 東大門 청량리 일대의 製材所를 더듬었으나 平澤만도 아주 못하다. 참으로 氣分이 나쁘다. 후해[후회]가 막심하다. 흑석동 영등포를 더듬어도 매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을 많은 고생을 시키었다. 당고모부가 소개를 하고 쓰다니였으나 수고만 했지 효과가 없다. 未安하다. 참으로 未安하다. 우리는 平澤으로 오기로 결정하고 5半에 水原에와 삼촌 家에서 잤다.

◎ 1월 15일 (음 12월 19일) 금요일 晴

水原 三寸 家에서 宿하고 오다 水原 東一製材所에 들리어 알아보니 사람도 좋아 보일 뿐 [아니라] 제일 낡은 듯하여 하기로 결정하고 결산을 냈다. (...) 오늘 종일 제재했으나 半도 못했다. 瑞雨아저씨와 水原집에 가 쉬었다. 水原 吉書房 家에 가고 일직 木材所에 왔다. 오늘도 종일 했으나 저녁이 되어 車가 안와 못 실리고 三寸 家에 갔다.

◎ 2월 10일 (음 1월 15일) 수요일 晴

보름. 朝飯 後에 우리 宗舍에서 大宗約에 보낼 結儀文을 作成했다. ...

◎ 2월 20일 (음 1월 25일) 토요일

수촌아저씨와 아변님이 오시여 끝구멍[목재에 다른 나무를 끼우기 위해 목재를 판 구멍]을 파시었다. 洞里사람이 거이 다 와 드러다 보았으나 致雨와 다섯재祖만은 인사조차 없다. ...

◎ 5월 28일 (음 5월 5일) 금요일

오늘은 불편한 몸이지만 신일 했다. (...) 일손을 끝내고 敦植母가 대단다. 問病 次 같다 왔다. 저녁에도 찜질하고 약을 먹었다.

◎ 6월 23일 (음 윤 5월 1일) 수요일

... 下午엔 둘재祖父任이 病患으로 계시여 같다 왔다. 저녁 後에도 늦도록 둘재祖 家에 가 있다 왔다. ...

◎ 7월 17일 (음 윤 5월 25일) 토요일 쏘나귀

... 둘재祖父任 葬禮에 手苦가 많다고 命植은 남방사쓰을 사 갖고 왔다.

◎ 11월 17일 (음 9월 30일) 수요일

... 敦一君의 結婚날이 결정되었다고 片紙가 왔

다. 11월 23일(10. 6)

1972년

◎ 1월 12일 (음 11월 26일) 수요일

... 午鐘 때 손님이(꼬마손님) 닥쳐왔다. 妻 이질 妻家에서 權觀里에서 3名 利천서 2名, 6名の 손님이 왔다. ...

◎ 1월 29일 (음 12월 15일) 토요일

... 敦一의 세간을 내는데 서울로 가겠다고 서울 우리 집 방을 달라고 하여 승낙하고 우리 英浩와 雄浩를 보살피라고 했다.

◎ 2월 18일 (음 1월 4일) 금요일

食前에 高棧 裕浩가 와 (...) 命植의 家 田番件이 궁금하다고 하며 와 命植 家로 가 庭雨 德雨와 같이 議論하자고 하여 田番을 주기로(16畝 白米)했는데 寬植이 와 소동을 하고 不安을 피여 [피워] 헤여지고 命植은 서울로 떠났다. 시기와 질투 욕심이 많은 큰어머니의 짓이다. 아주 큰 야심이 있다.

◎ 2월 20일 (음 1월 6일) 일요일

舊正을 맞이해 술을 심히 먹어서인지 피곤하다. 朝飯食事 後 누어있으니 농골 田氏가 와 한참 있다가 갔다. (...) 妻는 洞里 婦女들이 쌀과 돈을 깃어[거둬] 오늘 저녁에 놀이가 버려졌다. 저녁 後 자리에 누어있으니 水源 三寸택과 四寸이 왔다 같다. 王植이 大學을 卒業 後 ROTC의 軍에 26日에 入隊한다고.

◎ 8월 17일 (음 7월 9일) 목요일 쏘나귀

... 집에 와 누어있으니 高棧 四寸妹弟 任書房 内外가 왔다. 쓰단한 술대접을 하고 있으니 쏘나귀가 또 나리여 물 소동을 이루었다.

◎ 9월 2일 (음 7월 25일) 토요일

... 敦雨氏가 와 後坪祖任이 대단히 편찮은지 오래인데 몇일을 더 살 수 없더니 잠깐 다녀오라고 하여 悠雨 家에 가 理髮을 하고 後坪에 갔다와 가마니를 짚다. ...

◎ 10월 21일 (음 9월 15일) 토요일 雨

… 食前에 新浦祖母가 강아지를 갈다 주어 우리 食口가 늘었다.

◎ 11월 27일 (음 10월 22일) 월요일 雲

… 原木 益秀가 와 今般 實施되는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에 高棧 重植君이 立候補 했는데 추천인 명단을 갖고 와 어렵지만 추천을 받아 갈라고 하여 우리 洞里분들의 추천을 받으라 다니었다. …

◎ 11월 30일 (음 10월 25일) 목요일 雲雪

… 朝飯 後에 重植 家에 갈다. 今般 實施되는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立候補에 對해 경려[격려]의 말을 하고 와 벼을 싣었다. 妻는 벼 못을 갈라 묶었다.

◎ 12월 15일 (음 11월 10일) 금요일

… 저녁에 다섯재祖父가 오라해 가보니 靑北面의 現況을 말하다가 가급적이면 來日 큰아번님家的 脫穀을 하자고 하여 방가운 일이었다.

◎ 12월 23일 (음 11월 18일) 토요일

… 午後에 命植이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왔다고 하여 가 보니 안 가시겠다고 하여 모두들 권하니 가시게 되었다. 도저히 新浦까지 걸어가 실 수 없을 듯하여 自轉車로 新浦까지 모시여다 드리었다. 德雨와 같이 모시여다 드리고 나니 해가 저물었다.

1973년

◎ 1월 21일 (음 12월 17일) 일요일

모처럼 만에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일찍 일어나 세죽을 쑤고 妻는 밥을 지어 먹고 나니 8時에 新浦에 가 9時 卽시로 서울 11時 着 英浩가 나온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쌀 4斗를 가져갈 수 없어 택시로 서울 집까지 갈다 집에 가 보니 英浩는 學校에 가 없어 同生가에 가 점심을 먹고 同生이 外三寸家에 가 보자고 하여 문안에 들어갈다. 대연각호텔. 後坪에 자리잡은 特수비닐 會社라고

간판이 붙어 있다. 찾으니 秘書양이 안 계시다고 하여 自宅에 가보니 外三寸은 안계시고 食母만 나왔다가 會社로 다시 찾아가 外叔母의 친절한 영접으로 들어 갈다. 참으로 잘 살고 있었다. 그 리도 어렵던 家庭이 數億의 會社를 金山에 서울에 두 兄弟가 운영하고 있으니 부럽기만 하다. 저녁을 먹고 外三寸을 배우고 外四寸社長을 만나보고 집에 오니 11時. 英浩는 자리에 들어갔다. 5年만에 집에 들리니 새로운 집이 많다.

◎ 2월 5일 (음 1월 3일) 월요일

妻가 서울에 일직 갈라고 서둘렀으나 여물을 썰고 나니 9時가 지났다. 10時에 출발하여 德壽堤防까지 짐을 갈다 주고 왔다. 종일토록 마실 있다 와 저녁 식사를 하고 누어있으니 누가 차자와 내다보니 權觀의 妻 이질 金重常君이 와 大浩와 같이 밥을 지어먹고 자리에 들었다. 妻가 없을 때 손님이란 매우 어렵다.

◎ 2월 6일 (음 1월 4일) 화요일

손임으로 온 妻의 이질인 金重常君을 데리고 朝飯 취사를 같이 하여 먹고 大浩는 學校에 보내고 10時 頃에 金重常君도 가겠노라고 하여 一金 300원을 주었다. …

◎ 2월 17일 (음 1월 15일) 토요일 雲 細雨

오늘 우리집안 宗會 及 部落會를 한다고 했으나 유야무야하게 되었다. 會가 있다고 해러 갔더니 모두 집에 있다. 宗會 역시 제각끔 별 意事가 없는 듯 모이지도 안갔고 部落會도 集會者가 안중에도 없으니 그만이다. 이 동리가 참으로 힘이 든다. 自己意事が 관철되지 않으면 反對다. …

◎ 2월 21일 (음 1월 19일) 수요일 雲

… 午前엔 큰아번님이 오시여 里長을 내들태니 [내놓을 테니] 洞里에서 너를 生覺하고 있으니 어이하겠느냐고 하고 모두들 말하여 나는 못하겠노라고 했다. 만약 네가 里長을 안보겠다면 里長을 안 내노시겠다고 하시니 큰일이다. 저녁에 (….) 里長 선거가 있어 급기야 里長으로 선임이 되었다. 방갑지 않은 일이다. 새마을지도자는 德雨가 당선되었다. 반장에 轍雨와 致雨를 선출하

고 총무에 연우가 되었다. 잘 될 것인지 만약 동리에서 協助가 없으면 내 놀 참이다.

◎ 2월 22일 (음 1월 20일) 목요일 雲

朝飯炊事하랴 세죽 쭉라 혼자 일로선 벅찬 일이다. (….) 午後에 妻가 歸家했다. 英浩와 雄浩는 水原姑母 家에 다녀온다고 들리었다고.

◎ 2월 24일 (음 1월 22일) 토요일 晴

… 英浩 雄浩 歸家. 水原 姓질들을 데리고 왔다. …

◎ 3월 9일 (음 2월 5일) 금요일

… 큰아번님이 와 큰소리을 내여 참으로 기분 나쁘고 큰어머니와 큰소리을 내고 妻까지 손길을 내가 했다. 安養아주머니와 논을 많이 들여보냈다. 야단을 쳐 큰일이다.

◎ 4월 10일 (음 3월 8일) 화요일

마을 안길 확장한 것을 前日 큰어머니가 까드리었다[허물었다]고 하여 食前에 現場에 나가보니 과연 까드리었다. 참으로 이 동리가 어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 쏠 部落民이 잘 살기 爲해 하는 일에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큰아번님이 오시기에 말씀드리니 어제 저녁에도 많이 싸우셨다면서 큰아번님이 해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말씀 받고 오늘 계획을 말씀드리고 朝飯 後에 面에 나가 비닐을 알아보니 職員과 싸우고 있다. …

◎ 5월 3일 (음 4월 1일) 목요일

… 午後 늦게 妻男이 왔다. 長利米을 얻으러 온 모양이다.

◎ 5월 6일 (음 4월 4일) 일요일

… 妻男이 와 長利米 6되를 달라고 졸라대여 형편이 돌지 않아 있으니 얻어달라고 졸라대여 큰일이다. 어려울 재 같이 도우는 것이 兄弟之間인데 떼기란 주기보다 더 어렵다.

◎ 5월 15일 (음 4월 13일) 화요일

큰어머니 중상모략 이 집 저 집 다니며 싸움을 부치고 또 싸우고 참으로 모를 심정이다. 듯도 보도 못한 인물이라 시기심과 질투만 뭉친 분. 앞으면 他人의 승이요 중상이다. 요즈음 나에게도 수단을 다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쪼차다니면

사이을 끊을라고 야단이다. 세상에 저런 분이 있을까 한다. …

◎ 8월 2일 (음 7월 4일) 목요일

妻는 英浩 大浩을 데리고 건곤리 이모집에 갔다. 집은 雄浩와 나가 있었다. …

◎ 8월 8일 (음 7월 10일) 수요일

英浩 歸家. 중화, 중순, 중산, 나들이 오다. 옹호을 데리고 11時 頃に 약을 농골로 끼언지라[끼었으리] 가니 참으로 더워 숨을 통할 수 없으나 하오 4시까지 끼언고 오니 영호와 건곤 아이들이 왔다. …

◎ 8월 30일 (음 8월 3일) 목요일

安仲까지 10時까지 到着하랴 하여 10時에 到着하여 오늘도 教育은 실습으로 牙山만에 가 돌쌍기 등을 보다가 동서 家에 잠깐 들렀다가 견습을 끝내고 午後에 歸家하여 教育科程을 마쳤다.

◎ 12월 7일 (음 11월 13일) 금요일 晴

… 新浦에 갔다 와 婚姻말 관계로 高棧에 갈더니 瑞雨氏는 안 계시여 아주머니에게 말하니 탐탁치 않게 하며 氣분이 매우 좋지 않다. 自己네가 가보라고 하고 하루가 못 되어 변하였으니 고 안한[괜한] 수고를 했다.

◎ 12월 25일 (음 12월 1일) 화요일

來日 건너방 든 사람이 나간다고 하여 妻가 서울에 갔다. 방세도 제대로 안 내고 나가지도 않아 속을 썩기더니 來日 나갈 것인가? (….) 朝飯 後에 세재祖母가 病院에 갈 돈이 모자란다고 돈을 借用하랴 와 一金 20,000원을 借用해 드리고 아번님 家에서 脫穀機 結算 때 借用해 온 一金 1,000원도 드리었다.

○ 친족 행사

1959년

◎ 1월 7일 (음 11월 28일) 수요일 晴

前日 高棧 작근집에서 朝飯은 넘어와 먹그라

해서 일어나 세수하고 아버지와 함께 高棧 넘어
가서 朝飯을 하고 왔다. 妻도 넘어갔다. …

◎ 3월 27일 (음 2월 19일) 금요일 晴

… 妻男 敦一이 칩[침]뿌리를 캔다고 산에 쪼차
갈더니 진달래꽃이 만발을 했다 (…). (장모 妻男
妻는 바다 구경을 갔다 왔다. 개꾼[갯벌에서 조
개, 낙지 따위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은 줄을
지여 바다로)

◎ 4월 1일 (음 2월 24일) 수요일 晴

… 둘째祖父 生辰日이라 朝飯은 둘째祖父 家
에서 했다. …

◎ 5월 10일 (음 4월 3일) 일요일 晴

食前에 일어나 논에를 갔다오니 高棧서 할머니
生辰 食事を 했다고 오라 해서 (…). 高棧 가서
朝飯食事を 하고 水原작근아버지 靑秀 先生과
重雨 敦雨 등이 부엉거지 새우배에 가서 노리를
했다. …

◎ 6월 3일 (음 4월 27일) 수요일 晴

우리 일 12名. (…). 지반[집안]어른 안어른 등
의 점심食事を 대접했다. 앞밭 달뽕이 남고 畢
秧이다.

◎ 7월 1일 (음 5월 26일) 수요일 雨

… 朝飯 前에 妻와 나는 농플 가 비를 마즈며
고추밭에 肥料를 주다 모자랐다.(3斤 반) 필식이
生日이라고 오라해서 妻와 나는 옷 한 벌과 돈
백 원을 갖고 올라 갔다왔다. …

◎ 9월 17일 (음 8월 15일) 목요일 雨

밤중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종일토록 조금도
쉬지 않고 한날한시로 나리였다. 8月 보름날 年
二大名節로 어린이들의 손꼽아 기다리는 날 때
대옷을 해 입고 잠을 안자고 來日 날 밝기를 기
다리였것만 비는 종일 나리니 조바심이 생길 것
이다. 祖上任의 祭祀도 參배하기 곤란할 지경이
다. 나도 生前 처음으로 중위적삼 모시두루마기
를 입고 큰집으로 우산을 받고 건너가니 제관이
한 분도 안 오시였다. 늦게서야 제가 始作해서
우중에 간시니 집안제사가 끝나서 그냥 집에서
잠 타량이다. …

◎ 10월 28일 (음 9월 27일) 수요일 晴

식전 일직 敦雨氏 家 벼 타작 일을 갔다. 둘째
祖父 生辰이라 동리 사람 전부 朝飯을 하고 일
꾼도 일동이 가서 먹었다. …

◎ 11월 10일 (음 10월 10일) 화요일 晴

食前에 일어나보니 아논 물이 얼어붙고 날씨도
冷하여 완전히 겨울 날씨다. 午前 中 그럭저럭
하다가 午後에 태피 奉事公 13代祖 시사 참례에
갔다왔다. 夕飯食事を 마치고 高棧 작근집에 가
서 밤이 익숙하게 놀다왔다.

◎ 11월 12일 (음 10월 12일) 목요일 晴

… 옷삼계 시사에 갔다왔다.

◎ 11월 13일 (음 10월 13일) 금요일 晴

飛野木 시사 참례 했다. 종일 그럭저럭 하루 허
송세월.

◎ 11월 30일 (음 11월 1일) 월요일 晴

食前에 네재祖父가 와서 지붕 이어 달라 해서
오늘 네재祖父 家 일을 갔다. 下午 頃에 高棧
작은叔父가 와서 福植이 맛간선[맛간선] 왔으니
넘어 가보라 했으나 못 갔다. 집에 오니 來日 妻
가 親家에 간다고 떡을 했다.

◎ 12월 19일 (음 11월 20일) 토요일 雲冷

… 저녁에 마실 갔다가 曾祖父 祭祀 參禮만
했다.

◎ 12월 26일 (음 11월 27일) 토요일 晴雲

할아버님 誕生日이라 朝飯食事は 큰집에서 해
서 큰집에서 하고 現場에서 드러오니 水原 작은
叔도 오시여 尹記士와 잘 알아 갇치 高棧 넘어
갔다. 늦게 와 저녁나절 진눈이 나리여 일을 午後
二時 頃에 中止하고 夕飯食事は 아버지 家에
서 했다. 날은 풀리였으나 진눈이 나리여 일에
지장막심하다. 저녁 늦게 敦雨氏 家에서 술을
내서 事業主 金과 尹記士 나 등이 잘 먹고 왔다.
상귀 이모할머니 세면 이모할머니 등도 오시였
다. 孟植에게 두 차례[차례]나 편지 전하였다. 회
답이 없어 궁금하다.

1960년

◎ 1월 9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雲

… 午前에는 그럭저럭 하다가 다섯재祖父 家에서 오라해서 근너가 술을 먹었다. 다섯재祖父 생신일인 것이다. …

◎ 1월 28일 (음 1월 1일) 목요일 晴

舊正 초하루날 일직 일어나 새 옷을 입고 큰집에 가서 曾祖父母 祭祀參禮하고 세재집으로 해서 어머니 祭祀를 지냈다. 동생들이 안 와 매우 섭섭한 마음 측량할[측량할] 수 없다. 꼭 누구 하나라도 올 줄 알았건만 아무도 안 왔다. 어머니 先墓로 해서 동리 어른들께 歲배 드리고 上三溪 先墓 參배를 하고 왔다. …

◎ 3월 25일 (음 2월 28일) 금요일 雲 細雨

날씨 흐리고 비교적 추운 날씨다. 食前에 농글재 서너 짐 저 내고 朝飯을 마치고 나니 뒤동산에서 두르그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고창[고창; 오랜된 무덤]으로 알았던 팽나무 밑 墓가 임자가 있다. 자세 모르는 부침 申가를 세워 양자 세우고 오늘 파묘를 하여 이장을 한다는 날이다. 高棧으로 移葬을 하여 조역을 하였다. 楊甘 대부의 직손이다. 속을 보니 아주 잘한 묘이다. 묘도를 빼서 잘 지낸 墓건만 곁에는 나무가 섰었다. 10時 頃서부터 가랑비가 나리여 속히 하여 午前 中에 다 파서 보냈다. 세재祖父 祭祀것만 잠이 깊이 들어 못 갈서 제송스럽다[죄송스럽다]. 종일 비는 부슬부슬 나리었다.

◎ 3월 27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 세재祖父 生辰日이라 朝飯을 세재祖父 家에 가서 했다. 今年 처음으로 生辰을 차리어 洞里 사람을 청했다. 큰아번님이 行方不明이 된 지 몇일이 지나 동리에 지장 막심하다. 오늘도 큰아번님에 대한 말이 종일 끝날 줄 모르고 대위[대외] 양곡도 나오고 肥料도 나왔건만 里長이 없어 안준다고 하며 구채가 많아서 못 준다는 것. …

◎ 11월 13일 (음 9월 25일) 일요일 晴

高棧 작근집 잔치(福植)의 관계로 妻와 春子が 高棧 가 잇기에 종일 집 보았다. 전에 같으면 집 단속이 과히 하지 않겠지만 아버지 家 盜難으로 집의 관심이 커지었다. 저녁나절은 孟植이 잇기에 집에 잇으라 하고 늦게서야 高棧 넘어갔다. 高棧 넘어갔다 늦게야 도라왔다. 잔치 준비는 다 되고 來日만 기다릴 뿐이다.

◎ 11월 15일 (음 9월 27일) 화요일 晴

朝飯을 둘재祖父 家에서 했다. 둘재祖父 生辰日이다. 술도 많이 먹었다. 아들딸들이 모두 와 잘 치루었다. 妻는 김장을 始作했는데 春子는 집 걱정도 않고 高棧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너머 오도 않고 잇으니- 말에 의하면 高棧서 김장한다고 집에 일 안 치우고 남의 일 치우기 좋와하는 꼬락신이[꼬락서니]란 기관[가관] 양이다. 여러 날 일 잘 보았다고 속內衣를 얻어입고 왔다. 夕飯 後에도 마실 가 놀다왔다.

◎ 11월 27일 (음 10월 9일) 일요일 晴

… 高棧 大谷 一代가 나를 面議員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권고를 하여 나는 우리 申氏의 代表人物이 못 되니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고 사양하였어도 구태히 권고하여 매우 뻥뻥한 노릇이다. 저녁나절 세재祖母 家에 가 잇으니 둘재祖父가 오시여 신이 난 듯이 權植이 잇느냐고 하시며 高棧이 重植이 나스다니 작근아버지가 나오지 말래드라고 하신다. 이것이 무엇이 그리 신이 날 일인지 내 지반[집안]에서도 이러니 무엇이 된단 말인가? 둘재祖父의 心理 파악이 무엇인지?

◎ 12월 9일 (음 10월 21일) 금요일 雲

前日 安養의 埧雨氏가 도라가 고향으로 온다고 기별이 와서 여기는 三四寸 가까운 집안도 없고 일가인데 게다가 업는 집인지라 洞里 일가들이 장사 치루기로 하여 나도 新浦에 나갈 것인데 못 나가고 朝飯食事を 하고 산으로 가 山役을 하였다. 山役을 하고 나니 午鍾이 기울어도 영구車が 안 내려와 下午 늦게까지 기다렸으나 안

와 安葬서 火葬을 하느니 공논이 자자하더니 저녁 늦게 英靈이 와 늦게까지 장사를 치루었다. 살기도 어려운 데다가 집안이 없으니 아주 고독해 보이고 여기 주선도 없이 그냥 치루니 아주 안데 보이였다. 培雨氏로 말하면 이제까지 客地生活로 주거[죽어] 고향에 도라오는 것이고 三四寸 가까운 집안도 安養에 있다.

◎ 12월 18일 (음 11월 1일) 일요일 晴

... 체평 조모家의 畚[긋]을 하는데 갈다가 자정이 넘어서 왔다. 敎神자인데 이상한 짓을 하고 체평 조모(환자)가 畚을 하기를 원하여 하는데 명물[맹물]만 마시던 患者가 뒤고[뛰고] 노는 데는 환자같이 앓다. 아주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1961년

◎ 1월 13일 (음 11월 27일) 금요일

祖父任 生辰日. 날씨는 누구러지는 것 같고 자고 이러나니 눈이 약간 나리였다. 除雪을 하고 큰집에 春子를 보내었다. 조금 잇다가 나도 같다. 안 갈 수도 없어 같으나 큰어머니의 눈치가 좋지 않은 것 같다. 朝飯食事を 洞里 안팎 사람을 전부 치르고 술도 대접을 하였다. 朝飯을 마치고나니 눈이 약간 나리였다. 저녁食事は 高棧 작근집에서 했다. ...

◎ 1월 18일 (음 12월 2일) 수요일

命雨 別世. (...) 세재祖母 家에 가서 있으니 然雨가 와서 兄이 죽었다고 하여 가보니 食前까지 변소에 갈다오고 朝飯도 많이 먹었다. 알토[알지도] 안았는데 본병(간질)이 發하여 죽었다고 한다.

◎ 2월 17일 (음 1월 3일) 금요일

12時 30分 頃に 悠雨 仁成 等과 함께 각 妻家行. 新浦에 가 뺨-스를 타고 저녁나절 5時 頃に 妻家 到着.

◎ 2월 18일 (음 1월 4일) 토요일

妻家의 어른들 차저뵈다.

◎ 2월 19일 (음 1월 5일) 일요일

집에 올라 했더니 六寸 동서가 와 같이 하루만 더 놀다 가라고 부잡아 같이 술을 마시고 擲樗大會에도 가서 놀고 內基 와서 술도 먹고 하로를 잘 노랐다.

◎ 4월 11일 (음 2월 26일) 화요일

둘재집 당숙모 사초. (...) 오늘 당숙모 사초를 한다는 날인데 비가 와서 어이할 것인가 生覺했더니 한다고 해서 朝飯食事を 하고서 우의를 장만해 갖고 집안이 가서 1時 頃に 끝마추었다. 비는 더 나리였다. 비야목의 세노리 할아버지 家 墓도 오늘 사초를 하여 저녁나절 잠깐 들리였다. ...

◎ 4월 13일 (음 2월 28일) 목요일 晴

... 들을 일주하고 와 朝飯을 하고 있으니 세재집 當叔母가 와 春子를 오늘 달라 해서 보냈다. 보리가 너무 데여 벌써부터 쓰레하여 걱정之事. 點心을 하고 아버지에게 모자리를 쓰려 달라 했다. 날씨는 푸근한 날씨였다. 저녁 먹고 자리에 누었다가 세재祖父 제사 참례했다.

◎ 4월 14일 (음 2월 29일) 금요일

... 春子は 세재祖母 家에 가 세재祖母 육순 차리러 갔다. 종일토록 모자리를 했더니 몸이 피곤하여 일직 자리에 드렸다.

◎ 4월 15일 (음 3월 1일) 토요일

... 食前에 물을 두고 와 세재祖母의 60순 생신을 차리어 朝飯을 하고 와 모자리를 했다. (...) 點心도 세재祖母 家에 가서 했다. 夕飯은 德雨아저씨 家에서 했다. 저녁은 피곤하여 일직 자리에 드렸다.

◎ 5월 17일 (음 4월 3일) 수요일

... 朝飯食事は 큰아버지 家에서 했다. 오늘이 할머니 生辰日이다. (...) 點心은 아버지 家 夕飯은 高棧서 했다.

◎ 8월 23일 (음 7월 13일) 수요일

... 點心 後에는 先墓에 伐草를 했다. ...

◎ 11월 18일 (음 10월 11일) 토요일

오늘 上三溪와 능안의 11代 12代祖 시사에 참례했다. 늦게 도라왔다. 술잔이나 먹으니 실수하

는 사람이 있어 제사 차리는 사람에 우숨거리[웃음거리]가 되고 아주 우리를 늑본다[늑본다]. 속이 상할 증조다.

◎ 12월 22일 (음 11월 15일) 금요일

오늘이 둘째재祖父 家 큰當叔母 祭祀日이다. 午前에 들리니 고교하고[매우 조용하고] 明植이도 안 왔다.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다. (...) 夕飯은 둘째재祖父 家에서 洞里 사람들을 청해 같이 했다. 밤에는 뗏이 들리어 高棧 酒家에 朴書房이 술 한 잔 샀다.

1962년

◎ 2월 5일 (음 1월 1일) 월요일 雲

자고 일어나니 孟植이 왔다. 前日 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집으로 왔다. 나는 큰집으로 제사를 지내라 같다. 10時 頃に 큰집 제사를 지내고 세재祖父 제사를 끝나고 어머님 祭祀를 끝내고 先墓를 갈다와 洞里 세배를 했다. 午後에는 농악을 울리고 술을 얻어먹었다.

◎ 2월 7일 (음 1월 3일) 수요일 晴

오늘 妻家로 떠나기로 한 날인지라 朝飯을 하고 靑年들이 오늘 농악을 논다고 해서 미안하다는 人使를 하고 一金 五百圓을 주고 妻와 어린 것을 데리고 길을 祖母任과 玉子를 데려다 놓고 떠났다. 新浦 일주 다 가니 車가 떠나 步行으로 은성까지 가니 기진맥진하다. 은성서 車를 타고 午後 2時 頃に 到着했다. 저녁엔 妻男과 來日 行使 準備에 의논했다.

◎ 2월 8일 (음 1월 4일) 목요일 雲雨

妻家에서 朝飯食事を 하고나 그럭저럭 하고 午後엔 두 同壻들이 오고 손님이 오기 始作했다. 안에선 음식 차리기에 밤을 새웠다.

◎ 5월 6일 (음 4월 3일) 일요일 晴

食前 일직 농꿀 왜뚝 가래질을 하자고 耘植이와 일찍 치기 始作해서 朝飯食事が 늦게야 끝나 오늘 할머니 生辰일에 高棧 작근집에서 朝飯을

먹으랴 오라 했으나 못 같다. ...

◎ 11월 8일 (음 10월 12일) 목요일 雲雨

食前に 영을 2마름 엮고 朝飯食事 後엔 上三溪와 飛野木 6代祖 時香에 參예했다.

◎ 11월 11일 (음 10월 15일) 일요일 晴

다섯재祖父 生辰日인지라 朝飯食事を 다섯재祖 家에서 했다. 朝飯을 마치고 나니 收得稅 말이 나와 큰소리가 되었다. ...

◎ 12월 15일 (음 11월 19일) 토요일 晴

... 夕飯을 하고 마실 갈다가 曾祖父 祭祀에 參禮했다.

◎ 12월 23일 (음 11월 27일) 일요일 晴

... 妻는 큰집으로 할아버님 生辰日에 洞里어른들 朝飯 차리는 데 같다. 큰집에서 朝飯食事を 한 것에 술을 몇 잔 먹었더니 消化不良이 되어 종일 속이 不便했다. 夕飯食事は 아번님 家에서 했다. 水原 작근숙父님도 오시었다.

1963년

◎ 3월 17일 (음 2월 22일) 일요일 晴

曾祖母任 祭祀日. (...) 저녁 먹은 後엔 마실 갈다가 와 제사에 참례했다.

◎ 3월 22일 (음 2월 27일) 금요일 雲

7代祖母 사초.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 家 담치는 데 협조를 하다가 7代祖母 沙草하는 데 가 종일 일을 하였다. ...

◎ 3월 23일 (음 2월 28일) 토요일

... 저녁엔 3재祖父 제사에 참례했다. ...

◎ 9월 26일 (음 8월 9일) 목요일 雲

... 朝飯食事は 壹雨氏家에 가 했다. 水原 祖母 生辰日이다. ...

◎ 11월 12일 (음 9월 27일) 화요일 晴

둘째祖父任 生辰日. 朝飯食事を 둘째재祖 家에서 하고 吉雨氏 注射를 놓아드리고 高棧으로 石油를 사라 갈다가 떠러지 못해왔다. ...

◎ 11월 23일 (음 10월 8일) 토요일 晴

陽甘 時祭 參禮. 朝飯食事 後에 곳 陽甘 出發해서 前坪 앞에 가 洞里 어른들을 만나 陽甘에 11時 頃에 到着했다. 初行이라 매우 멀다. 10代, 9代, 8代 順으로 차례[차례] 잡숫고 집에 오니 7時 半이나 되었다.

◎ 11월 25일 (음 10월 10일) 월요일 雲
12代祖 奉事公의 時祭 參禮. 妻家 無事하다는 消息 受. ...

◎ 11월 26일 (음 10월 11일) 화요일 雲
... 上三溪 時祭를 通해 投票를 靑北國民校에서 하고 능안 11代祖 시제를 지내고 왔다. ...

◎ 11월 27일 (음 10월 12일) 수요일 雲
... 눈이 녹아 上三溪 六代祖 時祭를 지냈다. ...

1964년

◎ 1월 3일 (음 11월 19일) 금요일
하루해를 그럭저럭 했다. (...) 저녁엔 마실 갑다가 曾祖父 祭祀 參禮했다.

◎ 2월 14일 (음 1월 2일) 금요일 晴
... 午前에 上三溪 先墓에 갑다 왔다. ...

◎ 4월 4일 (음 2월 22일) 토요일 晴
... 씨나라를 당구고 後坪 작근祖父님의 沙草을 했다. 우리 집안에서 다 가 했다. 飛野木의 삼밭모랭이[산이나 들길을 살짝 돌아가는 모서리]에 6代 祖父의 3재弟[셋째동생]의 손을 이어 오늘 莎草을 했다. 저녁을 먹고 마실 갑다가 도라와 曾祖母任 祭祀를 參禮했다. ...

◎ 4월 10일 (음 2월 28일) 금요일 晴
모짜리 갑다. 沙坊工事 出役. (...) 저녁 먹고 일직 자리에 누었다가 세재祖父 제사 參禮을 했다.

◎ 4월 12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 朝飯食事は 세재祖 家에서 했다. 세재祖 생신이다. ...

◎ 5월 14일 (음 4월 3일) 목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水原 叔父任 오셨다고 해서 건너가 배움고[뫼움고] 할머니 生辰日인데 큰집

에서 안해드리었다. ...

◎ 11월 13일 (음 10월 10일) 금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에 아는 독을 몇이 막고 영 두 마름을 엮고 태피 時祀에 갑다. 막 떠나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祭수를 올리지 못하여 午後에야 차례를 올렸다. 비는 繼續 나리었다. 음복은 집에 와서 했다. 송사관제로 늦게 집에 왔다.

◎ 11월 14일 (음 10월 11일) 토요일 雲
高棧 精米所에 갑다가 朝飯食事 後에 上三溪 時事로 해서 능안 時祀에 參禮하고 午後 늦게 집에 왔다. 日氣는 아주 不順하다.

◎ 11월 15일 (음 10월 12일) 일요일 晴
食前에 壹雨氏 家에서 지붕을 해이여 달라고 해서 오늘 6, 5代 祖母 時祭日이라 주저하다가 일을 갑섰다.

1965년

◎ 2월 3·4일 (음 1월 2·3일) 수·목요일 晴
朝飯食事に 上三溪 先墓에 다녀 後坪 祖家로 해서 高棧을 다녀왔다. 下午 늦게 公雨 鄭龜海 등과 술을 먹고 네제朝 家에 잇으니 寬植이 술주정을 해서 鄭書房과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져 술하장[수라장]이 되었었다. 나는 매우 氣分이 나빠 밤에 잠을 못 이루었다. 寬植이 이 程度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寬植은 실망이다. 술주정꾼으로 낙인이 찍히기에 갑깝다.

◎ 4월 2일 (음 3월 1일) 금요일 晴風
朝飯食事を 教雨氏 家에 가 했다. 세재祖母 生辰일이다. ...

◎ 8월 22일 (음 7월 26일) 일요일
... 오늘 할면님 산소에 사초을 잡수는데 종일 가서 일을 못 보고 남의 일을 보고 있는 고로 午鍾 頃에 잠간 들렀다가 왔다.

◎ 10월 21일 (음 9월 27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を 둘재祖父 家에서 했다. 둘재祖 生辰일이다. 朝飯을 마치고 振威에 떠나기로 했다.

水村아저씨와 떠났다. ...

◎ 10월 31일 (음 10월 8일) 일요일 雲晴

... 朝飯食事 後엔 陽甘 時祭에 떠났다. 10代 9代.

◎ 11월 5일 (음 10월 13일) 금요일 晴

... 어제 日氣로 오늘은 脫穀할 수 없어 8代 時祭에 갔었다. 時祭가 끝나고선 小宗脈[小宗派]間에 宗事 議論하다가 ...

◎ 11월 7일 (음 10월 15일) 일요일 雨

... 비도 나리고 누어있으니 吉雨氏 家에서 오라 갔더니 다섯재祖 生신일이라 술을 먹었다.

◎ 11월 22일 (음 10월 30일) 월요일 晴

... 어제 저녁이 高原尉 祭祀日이다. 宗會가 있어 肅長을 보았다고 한다. 奉禮公派에서 申昌休氏에 副會長에 申昌浩氏라고.

◎ 12월 24일 (음 12월 2일) 금요일 晴

... 高棧을 갔더니 大宗會가 있어 參席했다. ...

1967년

◎ 4월 1일 (음 2월 22일) 토요일

歸家. 水原에 집에서 일직 떠나와 李貞鉉 집에 들리었다. 李貞鉉氏와 같이 나와 술과 점심을 대접받았다. 아주 친절 받았다. 저녁 曾祖母任 제사에 참예.

◎ 4월 7일 (음 2월 28일) 금요일

... 셋재祖父 家 제사 참례.

◎ 4월 10일 (음 3월 1일) 월요일

... 朝飯食事は 세재祖家에서 했다. 세재祖母 生日. ...

◎ 6월 18일 (음 5월 11일) 일요일

... 저녁을 먹고 나니 일꾼이 보리를 떨기 始作해서 같이 떨고서 할머니제사 지내라 같다.

◎ 10월 30일 (음 9월 27일) 월요일 晴

前日까지도 食前부터 서둘러 일을 해야 했을 것을 오늘은 개운한 마음으로 한가히 앉았으니 둘재祖 家에서 朝飯食事 오라고 해서 둘재祖

家에 갔었다. 둘재祖父任 生辰일이다. ...

◎ 11월 9일 (음 10월 8일) 목요일 晴

... 나는 楊甘 時祭에 參禮 次 龍雨아저씨 소식 등을 모시고 떠났다. 時제에서 늦게 와 있으니 부르라 와 가보니 支畝에서 술 2통을 발에 보내여 술을 먹었다. 오늘 수고했다고...

◎ 11월 11일 (음 10월 10일) 토요일 晴

... 奉事公 時祭에 갔다가 楊州 時祭에 내가 가기로 하고 妻 場에 가 도야지 새끼 사오는데 마중 가니 그냥 와 나는 三溪에 가 理髮을하고 校長과 술을 대접했다.

◎ 11월 12일 (음 10월 11일) 일요일 雲

楊州行 家出. 일직 서둘러 楊州에 갈라고 잠을 깨니 (...) 일직 떠나 新浦 行 7時半 車로 떠났다. 梧城 榮雨氏와 一行이 되어 서울 着 11時半 金貞雲 家에 가 있다가 點심을 먹고 春植 家에 갔더니 出했다고 해서 그냥 楊州에로 出發했다. 楊州 高原尉 산 수호인 家에 到着 宿했다. 祭官은 8,9名.

◎ 11월 13일 (음 10월 12일) 월요일 晴

... 11時 頃에 高原尉의 차래를 올리었다. 4반 상 奉禮公 祖母 高原尉 進事公 등을 차래를 끝내고 거기에서 宿하고 이튿날 廣州 行. 서울에 와서 春植을 만나 조카를 가보았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어딘지 不足感이있다. 金貞雲氏 家에 安仲 과수원의 就得權을 와 새끼감 一金 1,000원을 받아갔고 春植과 같이 廣州에 가 木峴里가니 밤 9시가 되었다.

◎ 11월 14일 (음 10월 13일) 화요일 晴

廣州 木峴里 산지기 家에서 宿하고 오늘 차래를 3時 頃에 끝내고 一行 5名이 楊州에 가기로 떠났다. 서울 경유 楊州 文忠公 차래를 지내라 같다. 楊州에서 宿하고 제관들은 忠北 全羅 等各處에서 모여왔다.

◎ 11월 15일 (음 10월 14일) 수요일

各處에서 모여온 제관들 40餘 名이 정숙히 제사를 올렸다. 절차가 엄숙하고 식이 아직까지 처음 겪는 제사다. 나는 奉작이란 차일[햇볕]을 가리

기 위해 치는 포장]을 보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제사를 끝내고 서울로 경유 아차산으로 떠났다.

◎ 11월 17일 (음 10월 16일) 금요일 晴

歸家. 아차산에서 차래을 올리고 일직 떠나 차를 만나 집에 막차를 만났다. 10時 頃에 春植을 데리고 三人이 아차산에 가니 제사 한 반상을 지냈다. 一金 二仟원을 갖고 떠났는데 집에 와 세여보니 路資로 꼭 1,000원을 들었다.

◎ 11월 30일 (음 10월 29일) 목요일 雨雲

… 朝飯食事は 안골 祖父에 가서 했다. 안골 祖生辰日이고 祖母님의 6순이다. 朝飯食事を 하고 놀다가 점심까지 해고 늦도록 놀다왔다.

◎ 12월 4일 (음 11월 3일) 월요일 雲

食前に 세죽[쇠죽]을 쑤고 있으니 高棧 작은아번님 生辰日이라 오라해서 朝飯食事を 하고 搗精한 白米을 실어오라고 했더니 소가 못 부리게 되어 오늘 못 가져오게 되었다. …

1968년

◎ 3월 20일 (음 2월 22일) 수요일

… 曾祖母제사에 참례. 제사 후에 4,5代祖 합장 사초하기로 하고 우리도 白米 5升을 내기로 했다.

◎ 3월 25일 (음 2월 27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일직 서둘러 밀려[면례;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냄] 사초을 했다. 5代祖父를 祖母兩位분을 합장하고 비야목 6代祖母을 上三溪로 모시였다. 부지런히 서둘러 제대로 밀려[면례] 사초을 모시였다. 시제청이 3반상 차리던 것을 1반상 차리게 되었다. 아주 잘한 일이다.

◎ 3월 26일 (음 2월 28일) 화요일 晴

… 저녁엔 3재祖 제사에 참예.

◎ 3월 29일 (음 3월 1일) 금요일 雲雨

朝飯食事を 세재祖 家에 가 했다. 세재祖母 生辰日이다. 술을 몇 잔 먹은 것이 취해 午前 中 누어있었다. …

◎ 5월 16일 (음 4월 19일) 목요일 晴

세죽 쑤고 들을 一週하고 와 큰아번님 家에 가 朝飯食事を 했다. 큰아번님 生辰日이다. 잘 차리었다. 寬植의 권에 依하여 술이 취했다. 朝飯 後에 苗板에 물을 푸라 같으나 술이 취해 좀 푸다 마랐다. 妻는 場에 같다. 점심을 먹고 큰아번님 家에 가 술을 더 먹고 저녁까지 놀다왔다. 아번님 家에서 큰아번님 저녁식사를 했는 모양인데 집안이 같이 먹고도 子息인 우리는 오라고 안 해 매우 不便하다. 昨年에도 그리했다. …

◎ 6월 6일 (음 5월 11일) 목요일 晴

… 할번님 돌아가시든 해에 가뭄이 아주 심했건만 今年에 우리 집은 더욱 한발이 심한 편이다. 오늘이 할번님 제사인데 65년도에 한발이 회상된다.

1971년

◎ 1월 5일 (음 12월 9일) 화요일 雲

… 朝飯食事は 敦植 家에서 했다. 敦植 母親 生辰日이다. 下午 늦게 新浦에 가 떡을 해왔다.

◎ 1월 7일 (음 12월 11일) 목요일 晴

… 朝飯食事は 다섯재祖 家에서 했다. 다섯재祖母 生辰日이다. …

◎ 3월 27일 (음 3월 1일) 토요일

朝飯은 세재祖 家에서 했다. 세재祖母 70 生辰日이다. …

◎ 6월 3일 (음 5월 11일) 목요일 雨

할머니 제사 참예 …

◎ 6월 13일 (음 5월 21일) 일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돼지우리를 수리하고 점심을 먹고 농약을 끼언고 (….) 下午 3時 頃에 後坪祖母 제사(대상)에 참예 차 같다. 저녁은 後坪祖 家에서 잤다.

◎ 9월 5일 (음 7월 16일) 일요일

… 朝飯食事を 高棧 가 했다. 작은아번님 生辰日이다. …

◎ 9월 27일 (음 8월 9일) 월요일

朝飯食事を 壹雨氏 가에서 했다. 水源祖母 生日이다. ...

◎ 11월 14일 (음 9월 27일) 일요일

... 文忠公墓비 제막식에 參席 次 아번님이 가시다.

◎ 11월 25일 (음 10월 8일) 목요일

楊甘 時제 참석하다.

◎ 11월 26일 (음 10월 9일) 금요일

요골 내종四寸 婚日에 參席. 水源 平和禮式場 一金 1,000원 내다.

◎ 11월 27일 (음 10월 10일) 토요일

奉事公 時제 참례. 처가嫁에 있는 申龍浩와 우리 집에서 같이 쉬다.

◎ 11월 28일 (음 10월 11일) 일요일

윗삼계 능안 시제 참례. 내가 독축하다.

◎ 11월 29일 (음 10월 12일) 월요일

五代祖 時事 參禮.

◎ 11월 30일 (음 10월 13일) 화요일

八代祖 時事 參禮. 농골 徐斗鎔 令息女, 崔成泰 婚日 各 200원 부조.

◎ 12월 16일 (음 10월 29일) 목요일

朝飯食事は 안골 祖 生辰日이라 안골 祖 家에서 했다. ...

◎ 12월 20일 (음 11월 3일) 월요일

세죽을 주고 朝飯床을 받고 나니 高棧 작은아번님 生辰日이라고 오라 했으나 밥상을 받아 먹고 高棧에 같다. ...

1972년

◎ 1월 5일 (음 11월 20일) 수요일

... 몇일부터 졸라대어 오늘 下午에 英浩는 雄浩를 데리고 外家로 해서 勸觀리 이모집까지 다녀온다고 떠났다. 오늘이 曾祖父 제사 일이라 夕飯 後에 妻는 큰집에 가고 大浩 혼자 있어 제사 시간 임박해서야 가 참례했다. 제사를 마치고 水

原 四寸弟들을 데리고 와 우리 집에서 宿했다.

◎ 1월 13일 (음 11월 27일) 목요일

밤새도록 앓고 누어있으니 水源 叔父가 와 찾아 일어났다. 오늘이 할아번님 生辰日인데 큰어민님 當身들의 식사도 어렵고 하여 못해드린다고 하여 못 차리는 줄 알았더니 차린다고 하여 朝飯을 큰집에 가 했다. 오늘도 종일토록 몸이 不便했다.

◎ 1월 14일 (음 11월 28일) 금요일

前日 高棧 3재叔父 家에서 할아번님 朝飯食事を 하신하고 오라고 해서 朝飯食事を 高棧 가서 했다. 食前에 高棧 갈다가 점심까지 얻어먹고 源植 家에 가 놀다가 下午에야 왔다. 廣州에 있는 정탄공墓를 누가 발굴했다고 오늘 現地답사 차 가시였다. 보물이 들어 있나 하고 파낸 모양이다.

◎ 1월 23일 (음 12월 9일) 일요일

... 오늘이 上植 母親 육순日이라 朝飯을 上植 家에서 하고 모처럼 만에 洞里사람과 하루해를 보냈다.

◎ 1월 24일 (음 12월 10일) 월요일

오늘은 敦植 母親 生辰日이라 朝飯은 敦植 家에서 했다. 세죽을 쑤어 놓고 理髮을 하고서 敦植 家에서 食事を 하고 놀다가 下午에서야 왔다. 오늘도 부술부술 가랑비가 나리였다.

◎ 1월 26일 (음 12월 12일) 수요일

朝飯床을 받고 있으니 찾아 나가보니 茂植 家에서 다섯재祖母 生辰日이라고 오라해서 食事を 했으나 같다. 다섯재祖母 生辰은 모처럼 만이라 몰랐다. 가서 술 몇 잔 먹었다. ...

◎ 4월 5일 (음 2월 22일) 수요일

... 저녁엔 曾祖母 祭禮 參席.

◎ 4월 7일 (음 2월 24일) 금요일

朝飯食事は 둘째祖母 生辰日이라 둘째祖母 家에 가 하고 ...

◎ 8월 24일 (음 7월 16일) 목요일

高棧 작은어민님의 生辰日이라 高棧 가서 朝飯食事を 하고 왔다. 술 몇 잔 먹은 것이 취하여 종일 누어 있다가 下午늦게야 세풀[식풀] 한 집

을 비었다. ...

◎ 9월 16일 (음 8월 9일) 토요일 晴

水源祖 生辰日이다. 朝飯食事는 上植 家에 가했다. 술이 취해 누어있다 午後에야 나무했다. ...

◎ 11월 13일 (음 10월 8일) 월요일 雲雨

... 楊甘 時향에 갈까 하다가 벼가리[벗가리; 벗단을 차곡차곡 가리어서 쌓은 더미]가 썩어 못하고 비가 끝치여 벼가리를 허치니[헤치니] 김이 나고 뜨거워 견에는 싹이 나고 속은 썩어서 아주 까맣다. 속이 상하다. 많은 감소다. ...

◎ 11월 15일 (음 10월 10일) 수요일 雨

午前 中 가랑비가 나리었다. 午後에 泰皮 시사에 참례했다. ...

◎ 11월 16일 (음 10월 11일) 목요일 雨

... 누어 있다가 뒹삼게 시사에 갈다가 능안까지 참배했다. 비가 와 꺾히지나 앓을까 하여 6대 조 시사에 가보니 모두 우중에도 오시었다.

◎ 11월 17일 (음 10월 12일) 금요일 雨雲

... 午後에 비가 개이여 5대祖 時제에 참례했다. ...

◎ 11월 18일 (음 10월 13일) 토요일 雲

8대祖 시제 참례. ...

◎ 11월 20일 (음 10월 15일) 월요일 雨

다섯재祖 生辰日로 朝飯食事는 다섯재祖 家에서 했다. ...

◎ 12월 4일 (음 10월 29일) 월요일 晴

... 안골 祖 生辰日이지만 일을 가 못 같다.

1973년

◎ 2월 3일 (음 1월 1일) 토요일 雨

陰曆 明節. (...) 어머니 산소에 갈다 한참이나 있다가 큰집으로 갈다. 10時가 지나서야 차래을 잡숫고 세재祖을 지내고 어머니 차래을 모시었다. 12時 안에는 언제나 어렵다. (...) 아번님 큰 아번님 작근아번님이 한 자리에 계시다가 집안 의논을 종일 하다가 저녁 늦게야 헤어졌다.

◎ 4월 1일 (음 2월 28일) 일요일

... 저녁에 세재祖 제사에 참례했다.

◎ 4월 3일 (음 3월 1일) 화요일

朝飯食事를 세재祖 家에서 했다. 세재祖母 生辰日이다. ...

◎ 5월 28일 (음 4월 26일) 월요일

... 午後엔 然雨 祖 제사에 갈다. 저녁 늦게야 도라왔다.

◎ 5월 29일 (음 4월 27일) 화요일

前夜에 늦게 제사 집에서 도라와 늦게 일어나 들에 갈다오니 제사집인 然雨 家에서 오라고 하더니 좀 있으니 上植 家에서도 壹雨氏 육순이라고 오라고 하여 먹는 대도 쌍품이 났다. 허는 수 없어 然雨 家에 가 술 한 잔 먹고 와 朝飯食事를 上植 家에서 했다. ...

◎ 8월 14일 (음 7월 16일) 화요일

... 朝飯食事는 작근어머니 生辰이라고 하여 高棧 가 먹었다.

◎ 9월 5일 (음 8월 9일) 수요일

朝飯食事는 水原 祖家에서 했다. 水原 祖母의 生辰日이다. 朝飯을 마치고 安仲엘 갈다. ...

◎ 12월 21일 (음 11월 27일) 금요일

... 할아번님 生辰日인데 그냥 냉긴[넙긴] 것 같다.

II. 마을생활

1. 마을 조직

○ 동회

1959년

◎ 1월 10일 (음 12월 2일) 토요일

... 오늘 마을 사람이 모여서 건너가 보니 石油가 나왔는데 솥을 하여 건너가 보았다. ...

◎ 1월 20일 (음 12월 12일) 화요일 雲

… 夕飯 後에는 鍾을 쳐서 畝에 參席을 하니 協同組合出資金 290원씩 속히 해오란 말이다. 畝에서 돌아와 곧 자리에 누었다. …

◎ 2월 18·19일 (음 1월 11·12일) 수·목요일 雨

… 하루 낮을 그럭저럭 하고 夕飯을 마치고 나니 鍾소리가 나서 건너 가보니 洞里 어른들이 처음으로 많이 모이였다. 금번 나온 肥料 配給問題이다. 그리하여 畝가 끝나고 나서 다섯재祖父께서 里長도 없고 하니 날더러 新浦에 가서 肥料 申请表를 떼 오라 해서 오늘 新浦에 나가 전표를 떼 왔다. …

◎ 3월 6일 (음 1월 27일) 금요일 雨

… 朝飯을 마치고 앞논두렁에 가니 (….) 볼 데 보고 와 둘째祖父 사랑으로 마실 가니 肥料代金問題로 畝를 여럿다[열었다]. 구채로 큰아번님이 四萬餘圓이 남아 組合에선 야단이라 동리 사람이 둘만 모여도 큰아버지 숭[홍] 아주 시늬[신용]이 없다. 동리뿐 아니라 面組合 등에서도 신님[신임]을 안는다. …

◎ 3월 9일 (음 2월 1일) 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가니 肥料 가지러 간다고 하여 (….) 新浦에 소 갖고 가는데 (….) 肥料 나누어 건너가서 肥料(35斤 尿素) (1畝 石岩 질소)를 타왔다. 尿素는 現金이고 석회질소는 外上이다. …

◎ 3월 11일 (음 2월 3일) 수요일 晴風

朝飯 後에 큰아번님이 와서 도장을 달래서 어디에 스실 것이냐 하니 肥料 구입권을 내가 떼 왔더니 내 도장이 必要하다고 하시여 드리였다. …

◎ 3월 15일 (음 2월 7일) 일요일 晴

… 夕飯 後에는 몸이 피곤하여 鍾소리가 들려 畝인 줄 알면서 그냥 자리에 들었다.

◎ 3월 16일 (음 2월 8일) 월요일 晴

… 마실 건너가서 큰아번님에게 軍警 원조금이 우리가 섬지기 농사와 동이 내게[똑같이 내게] 된 말이 원[원]말이냐고 말하니 칭을 뭘 수가 없

어[차이를 둘 수 없어] 그리 되었다고 하신다. …

◎ 4월 4일 (음 2월 27일) 토요일 雨

… 朝飯을 마치고 나니 鍾 소리가 나서 건너가 보니 安仲 水原 間 道路 作業에 자갈 1戶當 20 상자씩 확보하라는 指示가 있다는 畝이다. 及 雜種金에 관한 畝가 있었다. …

◎ 4월 11일 (음 3월 4일) 토요일 晴

… 朝飯을 마친 나는 마을로 건너가니 肥料代 5할[할] 지불금 때에 야단떨이다. (….) 야미 비로 한 갑 다 못 산 나는 당장 모자리[못자리] 거름이 문제다. 나뿐만 아니라 동리사람이 거이 다 그렇다. …

◎ 4월 12일 (음 3월 5일) 일요일 晴

… 肥料는 洞里가 다 났는데 3집 안 내서 못 가져와 洞里에 지장 많아 돈 낸 사람들이 수근그린다.

◎ 4월 17일 (음 3월 10일) 금요일 雲

… 朝飯食事を 하고 (….) 鍾소리가 들리어 나오니 肥料 가지러가자는 것이다. (….) 집에 와 좀 있으니 訪長이 와서 석유 가져가시고 술까지나 등그럭 있으면 치우라고 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세금 안 낸다고 왔다 한다. 좀 있으니 낮모르는 사람과 方書記가 오며 雜負金을 걷으려 다닌다. 그리하여 軍警援護費 600圓을 支拂했다. (….) 石油도 한 병 타고 肥料도 中過石 500K 짜리 半包와 尿素 54斤을 타왔다. …

◎ 6월 9일 (음 5월 4일) 화요일 雲

… 生産고 조사를 왔었다. (大麥) …

◎ 7월 16일 (음 6월 11일) 목요일 雲

… 오늘도 東風 朝飯 後에 收得稅가 나보다 田이 많은 집도 안 나오고 또 밭이 3,4배 되는 사람도 나보다 적고 해서 面에를 가 알아보니 우리 밭이 등數가 높고 또 빠진 것도 없고 집토[집터]도 경지 면적으로 들고 糶수[할수]도 만이[많이] 잡히고 했으며 생산고 조사에서부터 잘못 되어 많이 나온 것이다. …

◎ 7월 17일 (음 6월 12일) 금요일 晴

… 面職員이 와서 家屋稅 받으러 와서 興植 家

에 가서 借用해서 550원을 支佛했다. ...

◎ 7월 19일 (음 6월 14일) 일요일 晴

자고 이어나 들로 갈까 했더니 종소리가 들리어 收得稅 때매 중치는 것을 알고 大麥을 손질해서 건너갔다. 21K(35斤)를 달아주고 里長조는 다음 하기로 하고 건너와 ...

◎ 7월 23일 (음 6월 18일) 목요일 雲

... 里稅 大麥 200斤 가져 갔다.

◎ 8월 29일 (음 7월 26일) 토요일 晴

... 山林組合費 200원 支佛(訪長) ...

◎ 9월 22일 (음 8월 20일) 화요일 雲

... 夕飯 後에 鍾소리 나서 건너가니 三溪 新作路 作業 問題와 新浦 方便所 新設費 負擔[할당]에 관한 會를 했는데 等別로 우리가 二等이다. 이것이 큰아버지의 조작이다.

◎ 10월 24일 (음 9월 23일) 토요일 雲

... 食前에 石油配給 한 사람 나누어 오고 ...

◎ 10월 25일 (음 9월 24일) 일요일 雲

... 오늘 種覽日[면사무소에서 그 해 농산물의 생산량을 조사하는 일]이라 해서 10時 頃에 新浦面에 가서 總覽 事項을 알아보고 왔다. ...

◎ 11월 8일 (음 10월 8일) 일요일 雲

... 收得稅 告知書 나왔다. 우리가 42kg 永植논 산 것은 제외된 모양이다. 예년에 비해서 아주 덜 나왔다.

◎ 11월 27일 (음 10월 27일) 금요일 晴

... 里稅는 먼저 公販에 收得稅 70斤에서 한 ㄱ내같으니 27斤을 더 내가 그것으로 除하기로 하고 오늘 비료값 더 내간 것은 찾을 것이다. ...

◎ 11월 29일 (음 10월 29일) 일요일 雲

... 食前에 訪長이 와서 石油代金 300원 내라 해서 내주었다. 下午에 배추씨 代金도 받으러 와서 150원 치러 주었다. ...

◎ 12월 2일 (음 11월 3일) 수요일 雨

... 下午 늦게 石油 配給 2斗 가량 나누어왔다. ...

◎ 12월 8일 (음 11월 9일) 화요일 晴

朝飯 後에 肥料代(配給)가 틀리어 里長과 따지고 ...

1960년

◎ 1월 24일 (음 12월 26일) 일요일 晴雲

... 軍警 援護會費 660환, 月曆 費 100환, 十字架會費 160환 [합] 白米 1斗 支佛

◎ 2월 4일 (음 1월 8일) 목요일 晴

... 배급 비료 가져오는데 나는 얼마 안 되어 명우와 푸마시[품앗이] 하기로 하고 보냈다. 午後에 肥料가 와서 유안 열 근 초안석회 12근을 타왔다. ...

◎ 2월 20일 (음 1월 24일) 토요일 雲

官用 肥料 代 八百九什圓 坊長에 支佛.

◎ 2월 22일 (음 1월 26일) 월요일 晴

... 저녁을 마치고 나니 鍾 소리가 나 같까 하다가 가나마나 해서 안 가고 일직 자리에 들었다. 비료 값 나쁜 것 값으려는 것이다. 나는 비료 값도 다 되고 한데 몇몇이 안 낸 것을 갚아주게 되고 돈 안 낸 사람으로 인해서 위상[외상]으로 가져올 것도 못 가져오니 이것은 동리에 지장막심하다.

◎ 2월 29일 (음 2월 3일) 월요일 雲晴

... 夕飯 後에는 마실을 가니 오늘 坊上會에 里坊長을 식기 두 벌씩 주었다 한다. (坊長 한 벌, 보長 두 벌) 이것이 이번 正副統領 選舉의 것이다. 우리의 마른 호주머니를 털어다가 이러한 야비한 수단으로 選舉運動을 하고 있다.

◎ 3월 2일 (음 2월 5일) 수요일 晴

... 朝飯 後에 新浦에 나가 尙武會에 들러 大谷의 除隊者 기록카드와 寫眞을 갈다 주고 ...

◎ 3월 5일 (음 2월 8일) 토요일 晴

朝飯 食事を 하고 건너가니 肥料 傳票 때 왔으니 곳덜 가질러 가자고 하여 (...) 新浦 나가보니 (...) 늦게서야 가져와 下午 늦게 肥料를 나누어왔다. 尿素 四八斤 타고 유안석회 4斤 타왔다.

◎ 3월 6일 (음 2월 9일) 일요일 晴

... 面書記 益秀와 坊長이 와 잡종금 미수 170환 支佛했다. 昨年度 잡종금 미수 無.

◎ 3월 14일 (음 2월 17일) 월요일 晴

오늘 肥料 가져온다 해서 5 사람이 나갔더니 肥料 傳票(出庫證)도 없이 무슨 肥料를 찾아 온달 말ियो. 종일 이렇다가 그냥 도라왔다.

◎ 3월 16일 (음 2월 19일) 수요일 晴

... 오늘 肥料 가질러 新浦에 가서 비료 가져와 今般 用 硫安 18斤 前般 用 6斤 合 25斤 초安 20斤 (總 45斤) 外上.

◎ 3월 27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 큰아번님이 行方不明이 된 지 몇일이 지나 동리에 지장 막심하다. 오늘도 큰아번님에 대한 말이 종일 끝날 줄 모르고 대위[대외] 양곡도 나오고 肥料도 나왔건만 里長이 없어 안 준다고 하며 구체가 많아서 못 준다는 것. 肥料 나온 것 糶當이나 하라 해서 午前 中 糶當하고 ...

◎ 3월 28일 (음 3월 2일) 월요일 大風

... 저녁을 마치고 마실 갔더니 洞舍가 있어 大谷은 糧穀이 나와도 肥料가 나와도 아무 것이 나와도 안 준다니 걱정이다. 모두가 큰아버지가 잘못된 관계이다. 모두가 큰아버지의 채무로 되어 있다. 큰어머니는 동리에서 제쳐논[놓은] 사람. 나 부끄러운 말이다.

◎ 7월 5일 (음 6월 12일) 화요일 晴

... 이 논은 肥料를 더 주었으면 좋겠으나 肥料가 없어 걱정이다. 配給用 肥料가 나왔으나 里長이 태만해서 아직까지 못 차져 왔다. ...

◎ 7월 14일 (음 6월 21일) 목요일 雲

... 夕飯 후에 青年들이 모여 尹서방의 집 洞里基金 260환 있는 것을 받으러 갔다가 연성이 높을 程度로 하고 왔는데 ...

◎ 7월 18일 (음 6월 25일) 월요일 晴

... 朝飯 食事 후에 收得稅(大麥) 30斤과 里稅 10斤을 納入했다.

◎ 8월 26일 (음 7월 5일) 금요일 晴

... 큰아번님이 와 음물 修理費에 포함한 동리 잡비가 伍百圓이라고 달라 하시여 仟圓을 주니 거실늘[거슬러줄] 돈 없다고 곳 보내준다더니 ...

◎ 9월 21일 (음 8월 1일) 수요일 晴

... 오늘 生産고 調査를 다니는데 큰아버지와 面書記 一名 둘이 잡는데 우리 벼는 기준으로 잡았다. 게다가 가위 평수 200여 평은 밭으로 돌려놓았으니 어이된 것일까?

◎ 10월 30일 (음 9월 11일) 일요일 晴

늦게 일어나 朝飯食事を 하고 오늘 種覽에 갔다. 上植과 같이 갔다 왔다. 昨年에 비해 12K가 늘었다. 변동 사항은 없다

◎ 11월 16일 (음 9월 28일) 수요일 晴

收得稅 告知帖을 받았는데 昨年보다 26K 더 나왔다. 昨年에는 永植 논이 제위되었는데 今年에는 나왔다. (...) 收得稅도 더 나와 아주 氣分이 될 좋다.

◎ 11월 23일 (음 10월 5일) 수요일 雲

... 저녁나절 집에 와 마실을 건너가니 채일[차일]을 꾸미고 있다. 大谷 동리에도 今年에는 洞里유물을 제법 장만하였다. ...

◎ 12월 14일 (음 10월 26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 후에 마실 건너가니 오늘 公販場에 收得稅 마트리[한 가마가 채 안 되는 분량] 것이 갈 겸 肥料도 가져온다고 하여 나는 肥料는 포기한다고 하고 수득세 마트리를 德雨와 합하기로 하고 우리 집에서 36斤을 가져갔다. ...

◎ 12월 19일 (음 11월 2일) 월요일 晴

肥料 3包 現金. (...) 高棧 같대와 肥料 나누어 나도 비료 重過石 1包 요소 1包 염안 1包를 가져왔다.

◎ 12월 20일 (음 11월 3일) 화요일 雲雪

雜負金 及 官用肥料代 9,000환으로 全部 支佛. (...) 朝飯을 마치고 (...) 큰아번님 收得稅 마트리와 里稅 合 20斤 드리고 前 官用 肥料費 나온 肥料代 五仟圓을 支佛하는데 9,000환을 내고 벼 ○ 二等 마진[맞은] 것 손해 전부 지불 하여 里長이나 面에 낼 돈 二百七환만 남고 아무 셈도 없이 되었다. ...

◎ 12월 21일 (음 11월 4일) 수요일 晴

... 面雜債金 及 官用肥料費 全部 支佛.(9,000 환) ...

1961년

◎ 1월 29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 敎雨 아저씨 家 마당에서 큰아번님에게 비료 代 떠러진 것 200圓을 드리였다. 일전에 가져온 비료 運임이 280환이라는데 그것만 안 내고 昨年度 잡종금이나 其他 아무것도 없다.

◎ 3월 12일 (음 1월 26일) 일요일

… 朝飯을 마치고 나니 里長과 단님서기(택수)가 와서 찾아 나가니 雜費金을 받으려 왔다 해서 上記와 如한 一金 1090환을 주고 領收證은 다음에 해준다고 하고 같다. …

◎ 5월 6일 (음 3월 22일) 토요일

官用 肥料代 貳仟圓 支佛. (….) 朝飯食事 後에 一金 五百圓을 아버지가 場에 가시기에 借用해달라 해서 官用 肥料代 貳仟圓을 里長에게 支佛하였다. …

◎ 5월 14일 (음 3월 30일) 일요일

요소 1包 現今. 官用 肥料 가져왔다. (….) 아버지 家에 물을 푼다 해서 같다가 다음에 푼다 하여 肥料 가질라 가는데 같다. 肥料 활당을 아라보니 큰아번님이 1包는 돈 낸 것이고 나머지는 外上인데 安雨 家와 반 包씩 나누어라 해서 安雨 소에게 짓고 아버지 家 3包 중 孟植과 나누어 두리 2包씩 나누어지고 오는데 아주 혼났다. …

◎ 7월 3일 (음 5월 21일) 월요일

… 配給肥料라도 나왔것만 이번엔 참례도 안 왔다. 비료도 엇이 된 것인지 끼리끼리 나누어 쓰고 있으니 洞里 일을 엇이 보는 것인가?

◎ 7월 19일 (음 6월 7일) 수요일

… 家屋稅할라고 政府買上에 大麥 半呔를 公販에 냈다. 壹雨氏 소편에 壹雨氏와 1呔를 만드려 公販에 냈다. 매상한 金은 現場에서 지불한다 함. 家屋稅 나문 돈은 아직 찾지 않았다. 里長 보관. …

◎ 8월 4일 (음 6월 23일) 금요일

… 朝飯食事 後에 오늘 新作路 出役이라 해서

건너가보니 來日로 간다 해서 (….) 저녁洞會. 農漁村 高利債 整理 관한 건. 農漁村 高利債 定理 엄중 지시 上部. 테비 増산 出役. 革命政府 協助. 초소 巡警 宿伯 等等.

◎ 8월 13일 (음 7월 3일) 일요일

… 저녁에 洞會가 잇었는데 成員未達로 流會. …

◎ 9월 9일 (음 7월 30일) 토요일

… 石油 給(配給)하랴 妻는 창개 1斗를 갖고 新浦場에가 一金 2,200환 받아 石油給 470환 支佛하고 (….) 配給 石油 2斤 가량 가져왔다. …

◎ 9월 28일 (음 8. 19) 목요일

… 저녁나절 보니 生産고 調査를 다니였다. 面書記와 里長. …

◎ 10월 5일 (음 8월 26일) 목요일

… 雄浩의 出産申告을 해달라고 里長인 큰아번님께 印章을 주운지 여러 날만에 찾오라 같더니 새 도장을 준다. 내가 준 도장을 잇고 다시 색여 申告했다고 하신다. 申告나 잘 되였는지 걱정이 다. 雄浩라고 일것 적어 주었으니 달리 해서 다시 하는 것이다. …

◎ 10월 28일 (음 9월 19일) 토요일

… 朝飯을 마치고 나니 작근尹서방이 와서 농꿀논의 등기를 面에서 한다니 新浦에 가자해서 新浦에 가서 申請할라니 담당書記가 없어 못하고 種覽을 하니 논자리가 가장잡게 틀린다. 앞논에 600餘 坪이나 틀린다. 里長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큰아번님이 고의로 한 것이라 生覺된다. 집에 와 큰아번님에게 변경해달라 했다. …

◎ 10월 30일 (음 9월 21일) 월요일

… 朝飯 後에 新浦에 농꿀 논 分割登記 申請次 같다 왔다. 앞논도 논자리 틀리는 것을 고쳐달라고 큰아번님에게 말씀드리고 아버지 家도 고쳐 달라 했으나 갈 生覺도 않는다. 午後 간다고 하시더니 안 가시였다. 아버지 家의 보리 상환한 것도 안 했다고 저녁에 아버지가 家에 말씀드리니 역정을 내시며 이것은 큰아번님이 고의로 한 것이고 今般 分配農地登記도 오늘로 기한인데 안 알려주시였다고 하니 兄弟之間에 도움진 못하

나 손해를 부칠라니 믿고 일 못 하겠다고 역정을 내신다. 財務書記 보고 고쳐달라니 里長이 와야 한데 안 가시니 꿀탕을 먹고 잇는 것이다. ...

◎ 11월 14일 (음 10월 7일) 화요일

食前に 里長 家인 큰아번님 家에 가 計算해서 一金 15,100환을 갖고 왔다. 1畝를 肥料代로 支拂하고 收得稅 104,010환을 支拂하고 나머지 15,100를 찾아왔다. ...

◎ 11월 23일 (음 10월 16일) 목요일

... 저녁에는 洞會가 있었다. 部落 表示. 아궁이 개량. 洞 구호미 녀 섬 확보. 理事務所 新축.

◎ 12월 22일 (음 11월 15일) 금요일

... 點心을 마치고 部落의 저축미 米 (20斤)씩 모으는 데 오늘 갈다내고 肥料 代 其他 雜負金 일절 막았다. 夕飯은 둘째祖父 家에서 洞里 사람들을 청해 같이 했다. ...

1962년

◎ 1월 21일 (음 12월 16일) 일요일 晴

... 夕飯食事を 하니 鍾소리가 나 洞會에 갈다. 洞會은 部落表示, 게시板, 간판 등과 巡警 宿所 등인데 巡警 宿所 件은 많은 물의가 있었다.

◎ 1월 28일 (음 12월 23일) 일요일 晴

... 오늘은 朝飯을 마치고 洞里的 生活記錄 카드를 作成했다. ...

◎ 2월 1일 (음 12월 27일) 목요일 晴

... 오늘 青年 몇이 安仲場으로 農樂 북과 장고 채편을 해라 갈다. 午後 늦게 7,000환에 사갈고 왔다.

◎ 2월 2일 (음 12월 28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 洞里的 掲示板을 만들 準備하고 國旗대를 사라 다니었다. ...

◎ 2월 17일 (음 1월 13일) 토요일 晴

... 朝飯 後에 어린 것을 보아주니 悠雨가 와서 오늘 洞里 게시판과 國기대를 세운다고 해서 같이 협력하고 午後에도 洞里 일을 하는데 協助했

다. 무엇이 못 맛당한지 눈을 두리번거리며 洞里가 떠다라날 지경으로 욕을 하고 다니며 참견을 한다. 自稱 天子다. ...

◎ 2월 24일 (음 1월 20일) 토요일 晴

前日 夜에 洞會에 量穀이 나와 오늘 가질러 洞里가 거이 다 出動하다시피 되었다. 나도 오늘 小麥粉을一包 먹는다 했다가 가질라 갈 수 없어 그만 두기로 하고 (...) 午後 늦게 新浦에 量穀 가질라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量穀을 갖고 오지 않아 알아보니 量穀이 나오지도 않은 것을 나왔다고 했다고 不滿이 아주 많다. 里長이 面에는 나가도 않고 大麥 1畝와 小麥粉 3畝 나온 것을 大麥 14畝와 소맥분 14畝가 나왔다고 했으며 肥料는 6袋 나온 중 3袋를 里長이 가져다 쓰니 不滿 안을 사람이 얻에 잇느냐는 말이다. 洞里에서 모두 내놓기를 願하고 바라것만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그날상 나오는 것도 웅크리고 計算이 맞지 않아 洞里 사람이 모이면 숙덕공론이나 들리면 洞里가 떠나가라고 못살 지경으로 큰어머니의 욕설에 모두 쉬쉬.

◎ 2월 26일 (음 1월 22일) 월요일 晴

重過石 1袋, 요소 1袋 外上. 官用 肥料 配給. 重過石 1袋 요소 1袋. 朝飯 後에 마실을 건너가니 오늘 新浦로 肥料를 가질라 간다고 한다. 肥料配給의 차이가 아주 많다. 그리하여 큰아번님과 아번님과 큰 소리를 한다. 우리 아번님과 내가 아주 적다. 큰아번님이 우리 두 집을 아주 못마땅이 한다. 나는 新浦로 肥料를 가질라 가서 肥料 4袋를 갖고 왔다. 그리하여 里長 집에 두고 重過石 1袋와 요소 1袋를 갖고 왔다.

◎ 3월 13일 (음 2월 8일) 화요일 晴

... 저녁엔 洞會가 있었다. 理事務所 新築 件. 新作路 出力 件 등. ...

◎ 4월 11일 (음 3월 7일) 수요일 晴

... 官用肥料 1袋 염화가리. (...) 잡비료라고 잘들 안 가져가는 염화가리 2袋가 있어 큰아번님에게 말하니 가져가라 해서 염화가리 1袋를 가져왔다. ...

◎ 4월 24일 (음 3월 14일) 화요일 雲 細雨

官用肥料 硫安 1袋 配給 受. (...)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건너가니 오늘 官用肥料를 가질라 간다고 해서 新浦로 肥料를 차질라 같다. 이번 가져온 肥料가 硫安 11袋 요소 14袋 中過石 7袋 염화加里 6袋인데 硫安을 里長인 큰아번님이 6袋나 더 치놓고 안 준 사람이 많을 분, 1袋 이상 준 사람이 없다고 말이 많다. ...

◎ 5월 6일 (음 4월 3일) 일요일 晴

... 집에서 朝飯을 하고 있으니 官用肥料가 나왔는데 가질라 오라해서 곳 소를 끌고 洞里 사람이 다 動員되어 나가니 肥料 모두 11袋 나왔는 것을 戶當 1包 半식이라고 해서 나가니 이 모양이라 里長의 꼴이 무엇이 될까마는 태안자악하다. 洞里선 큰아버지 里長 보는 것을 모두 반대하것만 부잡고 있으니 큰일이다. 조그마한 洞里長이 또 不正도 있어 모도 원하느니 내노라는 것이다. ...

◎ 5월 8일 (음 4월 5일) 화요일 晴

... 저녁을 일직 먹고 마실로 가니 洞里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건너가 보니 水原 法院에서 왔는데 이 洞里에 農協의 債務가 있어 갚지 않아 몇일 있다 執行을 온다고 한다. 저녁엔 일직 자리에 드렸다. 모두가 里長의 잘못이라고들 한다. 里長이 不正이 많다는 것이다.

◎ 5월 28일 (음 4월 25일) 월요일 晴

... 朝飯을 하고 큰아번님 家 모를 심으려 같다. 里長料를 일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일이 바뀐대도 허는 수 없이 같다. ...

◎ 6월 10일 (음 5월 9일) 일요일 晴

화폐 改革. 10對 1로. 前夜 10時에 公포한 화폐를 오늘 中으로 改革을 한다. 벌써 解放 後 3번째 화폐 개혁을 본다. 저녁에 鍾을 치 가보니 돈을 모고 來日 安仲 農銀으로 바꾸라 가는데 이 洞里에도 約 30萬환 가량 된다. 그저 잔돈 품 모은 것이 5萬 여원이고 人休氏 家에서 轍雨에게 온 돈 20만환과 興植 家에도 10여만환이 넘는 모양이다. 우리는 비상금 2,300환을 주었다. ...

◎ 8월 10일 (음 7월 11일) 금요일 晴

... 朝飯 後에 아번님 家에 가 官用 肥料 硫安 20斤을 가질라 가니 里長인 큰아번님 보고 다시 알라보라 해서 큰아번님 보고 말씀드리니 里事務所에 있는 尿素 1包를 가져가라고 해서 尿素 1包를 가져왔다. ...

◎ 8월 29일 (음 7월 30일) 수요일 晴

... 高棧 같다오니 洞會를 했다고 한다. 퇴비 증산의 件과 部落 井戶 修理의 件인데 部落 井戶 修理 件은 日可日否한 모양이다. 큰 음물 먹는 戶數가 半數가 못된다. 큰 음물 먹는 사람 外는 修理하는 데 관심이 적다. 큰 음물을 먹지는 안아도 오물 빨래는 모두 큰 음물에서 하고 가물면 모두 온다. 숯가 잘 될 리 없다. 모두 各自 主張대로 큰소리다. 敎雨와 아버지도 大洞 음물을 왜 제 마음대로 하느냐 같이 협력하여 修理하고 먹자고 하지만 숯을 하는 데는 슬슬 회피 良心들이 모두 그르다. 같이 協助하고 음물 쓰는 데야 무슨 말이 있겠나만 修理하자는 데는 수수방관이고 이러한 이유이니 非良心이 아니고 무엇! 속상한 마음엔 당장 음물 파고 심은 마음 간절.

◎ 9월 20일 (음 8월 22일) 목요일

... 洞會 테비 증산. 피발취. 朝期淸掃.

◎ 10월 2일 (음 9월 4일) 화요일 晴

... 오늘 生産고 調査를 하는데 우리 집보다 낡은 [나은] 것도 4割, 五割인데 우리 것은 기준을 잡았다고 한다. 집 앞논들은 큰아번님이 里長 본 후는 우리는 골탕이다. 무슨 일인지 데도록 손을 보게 할라고만 한다. 洞里 누구도 큰아번님 里長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구태야 붓잡고 있다.

◎ 10월 28일 (음 10월 1일) 일요일 晴

... 官用肥料代 이달 말일 안으로는 現金으로 받고 來月부터는 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吉雨 아저씨에게 食前에 白米 貳 叭 값을 3,800환을 내서 朝飯을 마치고 里長인 큰아번님에게 가서 肥料값을 計算하니 3,337원이라고 해서 利子 는 아직 計算 못해 元金 肥料 3,330원을 支拂해서 今年 肥料값을 끝었다. ...

◎ 11월 9일 (음 10월 13일) 금요일 晴

… 收得稅 告知書가 나왔는데 今年에도 아주 많이 나왔다. 里長인 큰아번님이 300坪이나 재로 잡았다고 하나 이렇게 많이 나올 리 있다.

◎ 11월 11일 (음 10월 15일) 일요일 晴

다섯재祖父 生辰日인지라 朝飯食事を 다섯재 祖 家에서 했다. 朝飯을 마치고 나니 收得稅 말 이 나와 큰소리가 되었다. 어느 해나 큰아번님이 里長 본 해에 收得稅 싼 해는 없다. 아번님 孟植 모두 비싸다. …

◎ 11월 15일 (음 10월 19일) 목요일 雲

… 大谷 洞里로 레디오 1대를 警察署에서 주었다. 洞里 물건을 큰집에서 사물을 만들라고 하고 있다.

◎ 11월 21일 (음 10월 25일) 수요일 雲

收得稅 1506원 支佛. (….) 朝飯食事 後에 收得稅를 里長에 갚다주고 올라고 하니 …

◎ 11월 28일 (음 11월 2일) 수요일 雲

… 저녁엔 洞會가 있어 갈섰다. 洞會事項은 里事務所 收納 肥料 배급 저축미 거출 등이다.

◎ 12월 3일 (음 11월 7일) 월요일 晴

… 里稅 15斤 納入. 里事務所 買入費 昨年엔 걷은 저축미 20斤과 今年엔 4斤을 모아 支佛했다.

◎ 12월 11일 (음 11월 15일) 화요일

先金 納 肥料 값 800원. 食前에 里長인 큰아번님이 오시여 肥料代를 내야 安仲 場에 간다고 하시여 朝飯食事を 하고 流安 1袋 尿素 1袋 값 800원을 支佛하고 더 必要하면 돈을 내라고 하시긴 하나 돈을 借用할 수 없어 그만 두었다. …

1963년

◎ 1월 12일 (음 12월 17일) 토요일 晴

… 저녁 後엔 새끼를 팔라고 했으나 鍾소리가 있어 洞會에 갈섰다. 洞會는 里長을 한 해만 더 하겠다는 의도의 말을 하니 누구 하나 종와하는 사람 없으나 즉석에서 反對하는 사람도 없이 會는 하지부지[흐지부지] 끝났다. 큰아번님 里長

뽑는 것이 同生 죽하 등 골리여 타인에게 인심 쓰는 것이니 더욱 反對하는 한 사람이나 불난[분란]이 날 反對는 어려웠다. 氣分이 아주 나쁜 것을 억지로 참고 집에 왔다.

◎ 1월 20일 (음 12월 25일) 일요일 晴

今日現在까지의 雜種金 及 肥料代 完納 里長에게 前夜에 말한 쌀값을 내려 개슴을 가다가 (….) 오늘 昨年度 雜種金 及 肥料代 今日 現在까지 完納했다. 一金 700餘円을 支佛했다.

◎ 2월 13일 (음 1월 20일) 수요일 晴

… 食前에 里長任이 家屋穀을 가질러 왔기에 朝飯食事 後에 家屋穀 121원을 갚다 드리고 農協에서 조사하는 차용금신청압과 실태조사서를 作成한 것을 里長님 보고 高棧 가시면 傳해주십 사고 드리었다. …

◎ 2월 21일 (음 1월 28일) 목요일 晴

肥料代 640원 支佛. 食前에 里長任이 오시여 肥料代을 오늘까지 내야 오는 安仲場에 가 傳票을 떼겠다고 하시여 돈을 보니 70원이 不足이라 돈을 구하라 다니고 있으니 敏子가 借用해주어 냈다. 肥料는 流安 1袋 重過石 半包袋이다. …

◎ 2월 23일 (음 1월 30일) 토요일 晴

官用肥料, 流安 1包, 重過石半包 (….) 食前에 里長任이 오시여 도장을 달라고 해서 賣상한 대 쓴다고 하시여 드리고 朝飯 後에 肥料 차지라 新浦에 갈다가 아번님 家 秋穀 政府賣 상한 對해 肥料 30円어치와 보리쌀 10斤에 30원어치 무상을 주게 되니 아번님 家는 60여 가마나 매상을 하여 오늘 종일 싣고도 남았다. 우리도 정부매상 6뽕을 했는데 비료 180원어치와 보리쌀과 小麥粉이 나왔다. 小麥粉는 아직 안 나왔다. 新浦에 3번을 다니었더니 피곤하여 …

◎ 5월 21일 (음 4월 28일) 화요일 雲

… 朝飯食事 後에 肥料代 640원을 里長에게 支佛하고 (….) 重過石 半包代는 外上. 流安 1, 重過石 1.

◎ 6월 17일 (음 윤 4월 26일) 월요일 雨

… 食前에 큰아번님이 오시여 官用肥料를 現金

으로 사라 해서 1包袋갑 386원을 支拂하고 農藥代 250원을 냈다가 洞里 있는 棼무機[분무기]가 꽃일 것 같지 않아 농약갑 250원 도로 찾았다.

◎ 6월 21일 (음 5월 1일) 금요일 晴

… 食前에 논에 갈다가 농꾼 炳賢 家에서 하던 洞里 公同田을 아번님 家에서 오늘 콩을 갈고 있어 그루를 갈아주고 와 …

◎ 8월 21일 (음 7월 3일) 수요일 雲晴

… 里稅 15斤을 支拂하고 …

◎ 8월 25일 (음 7월 7일) 일요일 晴

… 重過石 半包와 尿素 半包를 할당된 것을 안 찾아와 큰아번님에 말하고 이번에 안 찾았으니 다음에 달라고 하고 포기했다.

◎ 10월 11일 (음 8월 24일) 금요일 晴

… 나 陽甘 간 사이에 肥料갑 流安 1, 重過石 半包 갑을 드리었다.

◎ 11월 16일 (음 10월 1일) 토요일 晴

… 收得稅를 金納이라고 해서 一畝갑을 냈다. …

◎ 11월 21일 (음 10월 6일) 목요일 晴

肥料代 現金 130원 支拂. (….) 朝飯食事 後에 今般에 肥料가 나왔는데 現金으로 사게 되는데 希望대로 사라고 하나 米價가 낮고 해서 3畝, 流 2, 中過 石1의 갑을 내고 나니 돈이 있으면 一金 千円만 借用해 달라고 해서 千원을 큰아번님에 借用드리었다. …

◎ 11월 22일 (음 10월 7일) 금요일 雲

… 2時 頃에 어제 傳票 떼온 肥料를 가져온다고 해서 新浦에 가 肥料를 찾아왔다. …

◎ 11월 30일 (음 10월 15일) 토요일

… 저녁에 鍾소리가 나 가보니 收得稅告知書가 나왔다. 우리가 2,863원이 나왔다. 選舉 지난 後에 告知書가 發付되리라고 하더니 틀림없는 말이다. 昨年에 비해 아주 많이 나왔다.

◎ 12월 3일 (음 10월 18일) 화요일 雲晴

… 收得稅를 할라고 쌀갑 1畝을 냈다. 一金 2,730원에 냈다.

◎ 12월 4일 (음 10월 19일) 수요일 雲

… 收得稅 2,863원을 里長에 支拂했다.

◎ 12월 6일 (음 10월 21일) 금요일 晴

… 配給鹽代 半畝에 130원을 냈다.

◎ 12월 12일 (음 10월 27일) 목요일 晴

… 午鍾에 軍稅를 지불하고 …

◎ 12월 27일 (음 11월 12일) 금요일 晴

… 저녁을 먹고 나니 鍾소리가 나 舍에 갔다. 面書記가 와 舊債을 맡길라고 한다고 한다. 面量 穀이 묵고 묵은 것이 48畝이라니 큰 문제다.

◎ 12월 28일 (음 11월 13일) 토요일 晴

今年度 外上肥料代 完納. 오늘 肥料代를 완납하기 위해 朝飯 後에 버 1畝을 드려 담고 46斤 마트리를 해 놓고 慎書房과 합해 1畝을 만들었다. 그래 해 午後에 共販場에 가 금사[검사]해서 1等を 마졌다. 今年度 雜種金 肥料代는 完納했다. 外上 肥料代 2,374원, 利子 230원에 稻 2畝 46斤과 交換穀에서 60원이 남아 肥料代로 加算해서 完納했다.

◎ 12월 29일 (음 11월 14일) 일요일 雲雨

… 石油 傳票가 나왔다고 하여 里長任인 큰아번님께 줄라 傳票를 받아 致雨 家 나누라 해서 一斗 中 두 집이 나누기로 했다.

1964년

◎ 2월 2일 (음 12월 19일) 일요일 晴

… 저녁엔 洞會가 있었다. 大豆와 正初을 賣上(政府)하라는 것인데 이 동리에 활당이 있는데 활당량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콩은 다 먹은 後인 이때에 내리면 어이할 것인가.

◎ 3월 14일 (음 2월 1일) 토요일 晴

朝飯 後에 德雨아저씨에게 一金 四百원을 借用해서 肥料代를 支拂했다. 尿素 1畝다. (….) 新作路 出役을 같다고 끝맛고 肥料을 가질라 가 午後 늦게까지 里長을 기달려 馬車에 洞里나오는 押麥을 실고 와 肥料와 押麥을 같고 왔다. 우리 집에 肥料 1畝, 押麥 1畝 활당.

◎ 6월 6일 (음 4월 26일) 토요일 晴

肥料代 阡五百원 支拂. 肥料配合 尿素 4包, 流安 28斤, 復合 85斤. (...) 큰아번님이 오시여 肥料갑을 내라고 하시여 阡五百원을 드리였다. 肥料는 尿素가 4.5이고 流安 28斤라 봄(복)合 85斤이라고 한다.

◎ 6월 22일 (음 5월 13일) 월요일 晴

... 저녁에 肥料을 싣고 왔다. 官用肥料는 우리가 아주 적게 타 里長인 큰아번님께 數次 말했으나 속수무책이다. 집안 골려 남에게 인심 쓰는 분이다.

◎ 8월 6일 (음 6월 29일) 목요일 晴

... 里長料 大麥 15斤을 갈다 주고 雜種金 60원을 갈다 드리였다. ...

◎ 8월 7일 (음 6월 30일) 금요일 雲 쏟아귀

... 朝飯 後에 復合肥料를 찾아 온 것을 21斤 찾아오고 尿素 半包는 里長집에서 借用해 온 것을 갑았다. 김장 갈 肥料가 없다고 했더니 7斤만 가져가라고 해서 7斤을 가져왔다. 큰아번님이 7斤 더 준 것에 큰어머니가 不滿이 되어 큰소리가 났다. ...

◎ 8월 11일 (음 7월 4일) 화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에 洞里會館 짓는데 가 있다가 ...

◎ 8월 20일 (음 7월 13일) 목요일 晴

... 洞里會館을 오늘 기공했다.

◎ 8월 22일 (음 7월 15일) 토요일 晴

... 저녁을 먹고 있으니 큰아번님이 오시여 도야지를 팔라고 來日 各 里長들이 洞里서 놓게 되는데 팔라해서 승낙해서 달아보니 148斤 나갔다. 큰아번님의 도야지와 바꾸어 잡았다. 斤當 55원에 代金은 26日 里長 月급에 준다고 해서 돈은 아직 못 받다.

◎ 8월 23일 (음 7월 16일) 일요일 雲

오늘 各 里長들이 우리 洞里에 모여 놀이를 했다. 술과 고기가 풍성한 가운데 잘들 놀다가 午後 늦게 헤어졌다. 나도 종일 같이 노렸다.

◎ 10월 13일 (음 9월 8일) 화요일 雲

... 午後 옆밭을 다 갈고 나는 新浦로 肥料을 가질라 갈다. 갈더니 肥料을 못 찾아 오겠다고들 하며 비료갑이 95%가 올랐다는 것이다. 복합비

료가 1포에 1,165원이라니 쌀 1畝에 3,000치고 2포 반뿐이니 큰일이다. 그냥들 온다고들 오는 데 나는 1포을 갈고 왔다. (...) 食前에 里長에게 肥料代 640원을 드리였다.

◎ 10월 24일 (음 9월 19일) 토요일 晴

... 新浦에 種覽에 갈았다. 앞 논이 500坪이나 놓고 있다. 里長이 잘못해서이다. ...

◎ 12월 16일 (음 11월 13일) 수요일 晴

登記特別條지[치]法으로 10年 前의 未登記地 申請이 始作된 지 벌써 3個月 前 것인데 이 洞里는 아직 1件도 못했다. 申請 마감 日字는 오늘이다. 큰아번님이 맡은 것인데 못하게 되니 큰일이다. 날보고 가자고 하시여 安仲으로 해서 平澤 登記所에 가 登記대장을 열람해 갈고 安仲에 午後 6時 半頃에 到. 오늘도 못하여 來日 또 가기로 했다. 洞里 일로 오늘 平澤으로 해서 安仲서 來日까지면 될까 한다.

◎ 12월 17일 (음 11월 14일) 목요일 晴

오늘도 登記件으로 安仲에 갈았다. 安仲으로 해서 平澤까지 가 登記所로 해서 郡地籍所로 해서 安仲에 7時에 到. 高棧 重植과 걸어 밤에 왔다.

◎ 12월 22일 (음 11월 19일) 화요일 晴

... 10時 頃에 오다가 洞舍에 參席했다. 今般 登記件이다.

1965년

◎ 1월 17일 (음 12월 15일) 일요일 晴

朝飯床을 물리고 나니 鍾소리가 나 마실 가 보니 鍾친 곳엔 사람이 없고 다른 곳에 있다. 좀 있다가 里長집에 가보니 비료代 計算하는데 몇 사람 못했다. 나는 종일 있다가 肥料갑도 청산치 못하고 도라왔다. ...

◎ 1월 27일 (음 12월 25일) 수요일 晴

종소리가 나서 가보니 肥料代을 계산해서 오늘은 나도 계산해보니 未配金 1,590원이다. 今年度도 肥料代及 對外糧穀 初 1畝 押中麥 1畝

小麥粉 1袋 等 계산되고 肥料代만 1,590원 未拂되었다. ...

◎ 3월 12일 (음 2월 10일) 금요일

肥料 920원 支拂. (...) 白米 3斗을 내고 900원을 받아 918원의 肥料代를 支拂했다.

◎ 3월 13일 (음 2월 11일) 토요일

오늘 肥料傳票을 떼 같고 新蒲로 오라해서 高棧 瑞雨氏 家 婚事に 같다와 新蒲에 가다가 傳票을 못 뗐다고 해서 그냥 도라왔다.

◎ 3월 17일 (음 2월 15일) 수요일 晴

... 面書記 鄭書記가 와 家屋稅을 支拂했다. 82원인가인데 白圓을 주고 차後 里長任과 의논하기로 했다.

◎ 3월 22일 (음 2월 20일) 월요일 晴

... 보리밭 肥料가 늦어 큰일이다. 洞里 舊債가 있어 農銀에서 配給치 안한다는 것이다. 洞里이 몇 사람으로 인해 아주 손을 보고 있다. ...

◎ 3월 23일 (음 2월 21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마실을 가니 오늘 肥料도 가지를 겸 新作路出役도 할 겸 가자고 해서 (...) 新蒲에 가 아버지家 소로 肥料 流安 2포 尿素 3포를 싣고 왔다. 肥料는 受配 流安 44斤, 尿素 29斤, 現金120원 支拂.

◎ 4월 21일 (음 3월 20일) 수요일 晴

... 肥料代을 장만하라고 해서 白米 4斗을 냈다. 肥料代 仟八百원이라고 한다. ...

◎ 4월 26일 (음 3월 25일) 월요일

... 食前에 肥料代 1,800원을 里長에게 支拂했다. ...

◎ 5월 26일 (음 4월 26일) 수요일 雲 細雨

洞里에서 15畝의 肥料을 借用했다고 해서 우리도 硫安 1包袋 尿素 1 復合 1(16~20) 등을 가져오게 되어 아번님이 찾아다 주시였다. ...

◎ 10월 17일 (음 9월 23일) 일요일

... 部落의 담당 洪書記가 里長을 찾아오다가 없다고 生産고을 왔는데 같이 좀 하자고 해서 집에서 술 한 잔 대접하고 그냥 앉아서 했다. 平均 4,5割을 보았다 아주 잘 한 셈이다.

◎ 11월 29일 (음 11월 7일) 월요일 雲

朝飯食事を 하고 마실을 가보니 수득세고지서가 나왔는데 모두 비싸게 나왔다고 야단들이다. 出産고을 내가 잡았는데 아주 나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4,5割로 아주 덜 잡힌 사람들이 말이 많다. 모두 비싸다니 누가 비싼 것인지 알 수 없다. 모두 말이다. 나는 1畝 46K 나왔다. 洞里에서 둘재로 나왔다.

◎ 12월 7일 (음 11월 15일) 화요일 晴

公販場에 6畝 出. (...) 1畝 46K을 收得稅하고 4畝는 肥料대로 했다. ...

◎ 12월 24일 (음 12월 2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を 하고 里長집에 가 肥料代을 計算을 할라니 바쁘다고 해서 못하고 ...

◎ 12월 22일 (음 11월 30일) 수요일 晴

... 高棧서 도라와 있으니 安仲農協 書記가 왔다. 洞里 舊賃가 1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큰일이다. 거이 가 里長집에서 낸다는 것이다. 里長 본다고 洞里만 골탕이다. 왜 里長을 못내 놓는지 모른다. 貨務만 늘어 가고 있으니 이 洞里의 암덩어리다.

◎ 12월 30일 (음 12월 8일) 목요일 晴

今年度 官用肥料代을 計算 次 里長집에 가 따질라니 里長 帳簿가 없다고 닳지다가 말했다. 里長이 적어 준 것 같고는 더 낸 것인데 따져 주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 낸 사람도 확인을 해야겠는데 걱정이다. 大谷은 銀行 빚이 많아 共同責任이라니 어이할 것이냐. 장부를 분실했다는 것도 알아볼 일이다. ...

1967년

◎ 1월 26일 (음 12월 16일) 화요일

... 朝飯 後에 龍西아저씨 댁에 갔다. 이 동리에 對해 議論하다가 점심에야 왔다. 이 洞里은 里長인 큰아번님이 흐려놓는다. ...

◎ 1월 28일 (음 12월 18일) 토요일

… 洞里的 公同當會를 했다고 한다. 現在까지 말에 依하면 愛郷心에서 일을 한다고 추진하고 계시다. 하루속히 유종의 美을 거두었으면.

◎ 3월 8일 (음 1월 28일) 수요일

… 朝飯 後에 悠雨 家에 가 學校 増築費를 가져달라고 말하고 里長에게 말했다. 里長이 가져야 할 것인데 洞里일에 관심이 없는 里長이라 生覺도 않는다. 저녁에 會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대답은 했으나 會을 안 열었다. 洞里 里長이라고 洞里를 망치는 里長이다. 이 面에서 손꾸락질을 堂하는 것이 모두 里長 때문이다. 洞里 사람이 모두 실어하고 내놓라고 하나 내놓치도 않고 있다. …

◎ 3월 13일 (음 2월 3일) 월요일

… 耑가 肥料代 參仟參百원 里長에게 支拂. 尿素 3包 復合 1包代.

◎ 3월 15일 (음 2월 5일) 수요일

… 參仟參百원 肥料代주고 …

◎ 3월 17일 (음 2월 7일) 금요일

肥料受配 尿素 3. 復合 1 肥料 傳票 떼왔다고 해서 일직 서둘러 비료를 찾으라 같다. 三溪 가 肥料 싣고왔다. 尿素 3包 復合(18~40)1包 受配.

◎ 5월 10일 (음 4월 2일) 수요일

朝飯食事 後에 三德國民校 増築金을 가져 3,900원을 가져 드리였다. 平澤警察署長으로부터 洞리에 一金 貳仟원을 주면 술이나 한 잔 나누라고 해서 洞里분들을 모시고 노리를 했다. (….) 肥料代 900원 里長에게 드리고 學校 増築金 650원을 드리였다.

◎ 5월 21일 (음 4월 13일) 일요일

… 安仲으로 肥料 購入券을 떼라간다고 해서 肥料代 3,000을 里長에게 주었다.

◎ 6월 21일 (음 5월 14일) 수요일

… 食前に 논에 갈다와 里長에게 肥料代을 支拂했다. 肥料代 4,000원을 드리였다. …

◎ 6월 22일 (음 5월 15일) 목요일

來日 일날이데 肥料가 없어 出庫를 못한다고 해 큰일이다. 洞里에서 말이 많으나 里長은 無관심하다. 里長이 태만해서이다. 나는 來日 일

날을 걱정해 농꾼 柱雨氏에게 사정해 肥料 尿素 2包와 硫安 1包을 借用해갈고 왔다. …

◎ 7월 1일 (음 5월 24일) 토요일 雨

官用肥料 受配. (….) 下午에 肥料 찾으라 간다고 해서 소를 가질라 가니 아번님이 가신다고해서 朴三福이 馬車를 갖고 간다고 해서 나가 馬車에 싣고 같이 밀고 왔다. 今般 활당된 肥料가 尿素 6包 硫安 1包 半 重過 1包 半인데 半包은 里長와 議論 삭제해 1包만 찾기로 했다. 復合 18-25 1包 용성인肥 1包 유산가리 半包와 鹽化加里 1包은 新浦에서 出庫치 못했다. 尿素 6包 硫安 1包 半은 6月25일에 受配했다. 現金은 4,000원 支拂. …

◎ 7월 2일 (음 5월 25일) 일요일 雨

… 朝飯 後에 里長에게 가 肥料의 狀況을 알아보고 확인했다. 里長집에 가니 敎雨 壹雨 德雨 등이 있는데서 重過石 半包은 受配않기로 里長과 타협.

◎ 11월 18일 (음 10월 17일) 토요일

… 新浦에 가 재무主任을 만나 收得을 잘 보살피달라고 하고 …

◎ 11월 25일 (음 10월 24일) 토요일 雲

… 收得稅을 다시 고쳐달라고 對話했으나 아직 모르고 있으나 정정할 듯하다. 里長인 큰아번님이 서둘러 주었으면 속하겠지만 더 올릴라는 분이다. …

◎ 11월 27일 (음 10월 26일) 월요일 雨

共販 7呎出. (….) 4呎을 肥料代로 3呎을 收得稅로 했다.

1968년

◎ 1월 19일 (음 12월 20일) 금요일

共販場에 벼 2呎 났다. 朝飯食事 後 里長任과 昨年度 肥料代 收得稅 등을 따지고 三溪 共販 1呎 52斤을 내가게 되어 1呎 52斤에 大休氏 家에서 채워 2呎을 싣고 나갔더니 檢査원(금査원)과 組合 面에서 안 나와 맥기고(文氏 家)에 元寄

錫家 조문을 하고 도라왔다. 한 대 다 놓아두고 오니 쥐가 먹을 것이 不安하다. 오다가 三溪里長에게 農場倉庫 문을 열면 倉庫에 드리며 놓아달라고 付託하고 도라왔다.

◎ 1월 28일 (음 12월 29일) 일요일 晴

1967年度 里長과 결산. 朝飯食事を 하고 식연장 드릴 새끼을 꼬고 있으니 里長任이 오시여 昨年度 各種 税金 雜種金을 結算했다. 1967度 肥料代 外上 7,393원 中 利子 1,020원을 숨해서 8,413원인데 共販에 正粉 7ㄷ을 내여 收得 3ㄷ 제치고 肥料代 4ㄷ 2等の 金額이 7,176원이다. 8,413원에서 7,176원을 除外하니 1,237원이라 收得稅 마트리 30斤과 里稅 15斤 不足 7斤 숨해 5 마트리에 大休 家에서 41斤 채여 共販에 내여 돈으로 1ㄷ代 1,825원을 드리고 肥料代 1,237원 드리고 雜種金 200원 드리였다. 1,300원 드리였다. 그리하여 里長任과는 결산이 되었다. 대웨[대외] 糧穀이나 交換穀은 먹지 안 하였다. 雜種金은 1,968年度치다.

◎ 5월 2일 (음 4월 5일) 목요일 晴雨

肥料代 300원 支拂. (...) 肥料代 參千원을 里長任에게 支拂했다. ...

◎ 5월 5일 (음 4월 8일) 일요일 晴

肥料을 찾아왔다. 硫安 2, 尿素 半, 重過 1, 復合 1半, 鹽加 半, 그리고 昨年에 못 찾은 유산가리 半과 鹽加 1包을 찾아오기에 新浦에 두 번 다니였다. 肥料을 찾아와 苗板에 중거름을 주었다. (...) 里長任은 안 오시더니 肥料가 어이된 것인지. 硫安 2 尿素 6包을 基植이 집에 마끼였으니 참으로 不便이다.

◎ 6월 2일 (음 5월 7일) 일요일 晴

... 來日 肥料 傳票을 떼라 가신다고 해 白米 2ㄷ 갑 8,600원을 받아 8,000원 肥料代을 支拂하고 600원을 가져왔다. ...

◎ 8월 6일 (음 7월 13일) 화요일 晴

洞里 共同畚 買收金 4,000원 支拂. (...) 농꼴 洞里 共同畚田 우리가 하던 것을 사라고 해서 一金 6,000 원을 龍雨氏에게 같다 드리고 나머지

는 平數을 확인 後에 알아보아 드리겠다고 했다.

◎ 12월 11일 (음 10월 22일) 수요일 雲

朝飯食事 후에 버 3ㄷ을 넣어 놓고 있으니 농꼴 鎮元, 昶銘, 正鎬, 明勳君 등이 안주거리를 갖고 와 우리 집에서 술을 대접했다. 정午가 되어 正租 3ㄷ을 실고 가고 1ㄷ는 鎮元 昶銘氏가 지고 삼계까지 와 共販에 내 3ㄷ 2등, 1ㄷ 3等を 맞아 收得稅 3ㄷ 肥料代 1ㄷ을 하고 왔다. 앞으로도 3ㄷ 以上 더 내야 될 것 같다.

1971년

◎ 2월 20일 (음 1월 25일) 토요일

... 저녁에 洞里분들이 모여 와 앞뜰(1021)번지의 등기가 제대로 나지 않았으니 쏘 作人들이 掌書를 作成하여 次後에 정정하자고 쏘 作人 署名捺印을 하자고 와 각서를 作成했다.

◎ 4월 7일 (음 3월 12일) 수요일 晴

... 午鐘 때에 洋회가 왔다고 돈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一金 1,000원을 드리였다. 335包 中 戶當 16袋씩 나누고 31袋 洞里에 쓰기로 保管했다. 우리는 17袋 1袋는 運전수가 술을 주었다고 주고 같다. ...

◎ 4월 26일 (음 4월 2일) 월요일 晴

洞里資金 13,184원 靑北郵遞局에서 受領 아버지에게 드리다. ...

◎ 7월 12일 (음 윤 5월 20일) 월요일

... 前夜에 간단한 洞會가 있었다. 앞뜰 1021번지 등기 作이다. 흙자가 땅을 팔고도 등기가 없어서이다. ...

◎ 7월 14일 (음 윤 5월 22일) 수요일

... 저녁에 洞里에 앞 논 등기가 잘못난 것에 시정을 할라고 했으나 더 난 분들이 協助할 것인지 아버지 명의로 잇는 논을 모두 종식의 명의로 내여 내가 400여 평이나 달라 아버지와 큰소리를 했다. 모든 것은 큰아버님의 잘못이다.

◎ 7월 15일 (음 윤 5월 23일) 목요일

收得稅 家屋 5,400원 支拂. (...) 貞愛嬢이 面에 갈나 알아보니 서울 간다기에 面에 들러 收得稅을 갈다주라고 했다. 오늘까지 支拂日. ...

◎ 7월 17일 (음 윤 5월 25일) 토요일 쏘나귀
... 命植에게 付託한 家屋 收得稅 領收證을 받아 왔다. (5,400원) ...

◎ 9월 14일 (음 7월 25일) 화요일
... 林野 收得稅가 나왔는데 生覺外로 8,400원이 나왔다. 잘못 된나 하고 面에 가보았다. 政府에 돈이 없는 모양이다. ...

◎ 9월 23일 (음 8월 5일) 목요일
... 林野 取得稅 件으로 面에 나가니 財務係가 없어 오다가 副面長을 만나 잘 해보겠으니 도장을 내 보내라고 했다.

◎ 9월 30일 (음 8월 12일) 목요일
... 取得稅을 정애에게 支拂했다. 8,400원.

◎ 10월 25일 (음 9월 7일) 월요일
新浦에 가 收得稅 종람을 하고 減을 付託했다. ...

◎ 11월 9일 (음 9월 22일) 화요일
아번님으로부터 洞里 논 受 18,276원. 6分 利子 6月 半分.

◎ 12월 9일 (음 10월 22일) 목요일
三溪 共販日이라 벼 3畝를 묶어 놓고 마트리 13K를 큰아번님인 里長에게 갈다 드리고 三溪 共販場에다가 2畝 收得稅하고 마트리는 里長에게 채우었다. 1畝은 賣上하여 一金 4,257원을 받아갈고 致雨에게서 借用한 一金 3,000원을 주고 教雨氏에게 借用해든 500원을 받아 우리 同窓會 기附 1,500원 해놓았다.

1972년

◎ 2월 25일 (음 1월 11일) 금요일
... 곳 新浦에 가 收得稅 2,700원을 支拂하고 ...

◎ 3월 30일 (음 2월 16일) 목요일
... 午中에는 發安場에 갈다. 場에 가 搗精한 白

米 16畝 中 3畝 妻가 갈고 가고 2畝 洞里米인데 悠雨 長利로 주고 3畝 柱雨 주고 8畝 賣했다. ...

◎ 7월 31일 (음 6월 21일) 월요일 晴
肥料 傳票을 떼라가 尿素2 復 合 2, 2,610. 오다가 ...

◎ 9월 16일 (음 8월 9일) 토요일 晴
... 저녁엔 모처럼만의 洞會. 洞會案은 새마을 教育者을 내가 못가겠다고 하니 다른 사람으로 選발하는 것이다. 鍾植을 보내기로 했다.

◎ 10월 13일 (음 9월 12일) 화요일 晴
... 食前に 訪長이 公文 한 장을 가져와 보이니 내가 大谷洞 國民會長이라고 面에서 나에게 온 공문인데 代議員과 申昌休 申時雨 尹培植 등과 같이 來日 먼 年次大會에 參席하라는 것이다.

◎ 10월 28일 (음 9월 22일) 토요일 晴
... 오늘은 新浦에 가 收得稅 열람을 하고 조종했다. 約 300K 가량 줄이다. ...

◎ 11월 17일 (음 10월 12일) 금요일 雨雲
... 우리 大谷部落과 平澤세무서와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동리에 세무서에서 탈곡기(궁굴레통)을 1臺 기증 받았다.

◎ 12월 13일 (음 11월 8일) 수요일 晴
收得稅用 벼 2畝를 말려 드렸다.

◎ 12월 21일 (음 11월 16일) 목요일
共販에 收得稅 2畝 내다. ...

◎ 12월 30일 (음 11월 25일) 토요일
共販場에 벼 1畝 出荷. 收得稅 25K을 채우지 못해 1畝을 냈다.

1973년

◎ 1월 7일 (음 12월 3일) 일요일 雲
... 仁性이 와 아번님 生辰日이라 朝飯食事を 같이 하자고 하여 仁性 家에서 朝飯食事を 같이 하자고 하여 仁性 家에서 朝飯을 하고 나 洞里 새마을事業의 會을 하는데 모두 아전인수적인 會을 하여 모든 일이 잘되기는 글러먹었다. 참으

로 큰일이다. ...

◎ 1월 14일 (음 12월 10일) 일요일 晴

... 午後엔 새마을회를 했다. 유희, 모인 사람들은 里長을 갈았으면 하는 마음 다른 生覺은 없다. 몇몇 사람은 里長을 갈되 自己들의 마음에 들고 손아귀에 넣을 호락호락한 사람을 生覺하고 있다. 나는 氣分이 좋이 아났다. 참으로 이 동리를 애끼고 사랑하고 다소라도 대위적으로 명망있는 사람을 생각하나 몇몇 사람은 自己수중에 넣을 사람들.

◎ 1월 19일 (음 12월 15일) 금요일

요즈음 마을에 모이면 今年度 實施할 새마을事業과 洞里 里長 갱질 問題로 話題이다. 오늘 저녁에도 젊은이들이 모여 의논이 분분하였다.

◎ 2월 8일 (음 1월 6일) 목요일 晴冷

... 德雨 轍雨 致雨 鍾植 등이 와 里長을 承諾하라고 졸라대어 차후로 미루었다. ...

◎ 2월 17일 (음 1월 15일) 토요일 雲 細雨

오늘 우리 집안 宗會 及 部落會를 한다고 했으나 유아무야하게 되었다. 會가 있다고 해리갈더니 모두 집에 있다. 宗會 역시 제각곰 별 意事가 없는 듯 모이지도 안았고 部落會도 集會者가 안중에도 없으니 그만이다. 이 동리가 참으로 힘이 든다. 自己意事가 관철되지 않으면 反對다. ...

◎ 2월 21일 (음 1월 19일) 수요일 雲

... 午前엔 큰아번님이 오시여 里長을 내몰태니 洞里에서 너을 들 生覺하고 있으니 어이하겠느냐고 하고 모두들 말하여 나는 못하겠노라고 했다. 만약 네가 里長을 안 보겠다면 里長을 안 내노시겠다고 하시니 큰일이다. 저녁에 洞里가 있었다. 里長 선거가 있어 급기야 里長으로 선임이 되었다. 망감지 않은 일이다. 새마을지도자를 德雨가 당선되었다. 반장에 轍雨와 致雨을 선출하고 총무에 연우가 되었다. 잘될 것인지 만약 동리에서 協助가 없으면 내날 참이다.

◎ 2월 22일 (음 1월 20일) 목요일 雲

... 오늘 마을 안길 답사를 한다고 하여 洞民들과 같이 도라보았다. 몇 사람을 除外하고는 自己

田畠이 달까하고 적극성을 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큰일이다. 매우 일하기에 힘이 들 문제이다. ...

◎ 3월 2일 (음 1월 28일) 금요일 晴

... 下午에 面書記가 와 前 里長이 辭表를 냈노라고 날보고 面에서 추천하여 來日까지 履歷書를 내달라고 하여 저녁에 洞會를 부치였다. 來日부터 새마을事業을 始作하겠노라고 결정, 洞里規定을 엄격하게 정했으나 어이 될 것인지? ...

◎ 3월 9일 (음 2월 5일) 금요일

里長會가 있어 面에 가 會를 끝내고 오니 午後가 되었다. ...

◎ 3월 10일 (음 2월 6일) 토요일

... 午鐘 頃に 집 칠한 代價를 洞里 돈을 借用해 갖고 ...

◎ 3월 20일 (음 2월 16일) 화요일

... 下午엔 面에 가 會가 있어 德雨와 같이 面에 會에 參席했다. 會는 下午 6時에야 끝났다. 저녁엔 다섯재祖 家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어른들의 議事를 여쭙어볼라고 한 것이 어른들이 몇 분 모시지 못해 流會를 했다. ...

◎ 3월 24일 (음 2월 20일) 토요일

... 12時에 점심을 먹고 新浦에 가 寬植의 予備單에 召集에 對하여 정리해 주고 와 午後부터 理事會에 參席했다. 72年度 審議 新年度 予算 審의를 마치고 저녁에야 도라왔다.

◎ 3월 26일 (음 2월 22일) 월요일

새마을사업 하는데 가 있다가 비닐代을 받고 돈을 計算해 보니 500원이 不足이다. 돈이란 만지고 보면 손해이다. 참으로 氣分이 좋지 않다. 新浦에 나가 보아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산업계에게 돈을 비닐代 14,110원을 주고 富植의 兵籍申告를 하고 肥料復合 5袋를 찾아 갖고 왔다. ...

◎ 3월 28일 (음 2월 24일) 수요일

... 저녁엔 部落會를 하였다. 自己 各自의 욕심에 치우쳐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會이었다.

◎ 4월 1일 (음 2월 28일) 일요일

4月이 닥아 왔건만 농사일엔 손을 못 대고 새

마을事業과 洞里일 보기에 몸이 켜이니 조바심이 된다. ...

◎ 4월 2일 (음 2월 29일) 월요일

... 10시에 新浦에 가 面에 들리어 비닐을 알아보니 平澤으로 비닐을 가질라간다고 간다. 종일 기다리다가 몇몇 里長들과 술을 마시고 각 里長들이 단결해야겠다고 술잔을 기울리며 다짐했다. 里長 1個월의 수당을 탔다. 5,000원 중 1,000원을 보험으로 떼고 ...

◎ 4월 17일 (음 3월 14일) 화요일 雲

... 新浦에 나간다. 비로 전표를 땔라 했으나 尿素가 없어 못 떼고 現 龍組合長의 不信任 결의에 있어 몇몇이 연관장을 100% 받아 날 보고 安仲에 閔代議員이 계시니 가보자 해 下午 늦게 安仲에 가 閔을 만나 결의하면 來口 平澤에 나가자 했으나 나는 못 나갈 것 같다 했으나 졸라대여 가기로 하고 옹포 里長 姜氏내 가에서 夕飯을 하고 12時 경에 도라왔다.

◎ 4월 18일 (음 3월 16일) 수요일 晴

... 11時 頃에 出發 新浦에 나가 5人의 里長와 金鍾秀 姜錫浩 金秀己 李益宰 등이 平澤에 나가 郡에 陳情書를 제출하고 郡 組合의 전무를 만나고 鄭 組合長을 만나 말하고 安仲에 와 閔代議員을 만나고 新浦 경유 집에 왔다.

◎ 4월 21일 (음 3월 19일) 토요일 晴

午後 1시에 面長 離就任式에 參席했다. ...

◎ 4월 26일 (음 3월 24일) 목요일 晴

前일 會에 갔다 오다 들으니 큰어머니가 나를 말할 수 없이 욕을 하고 하였다고 하여 그래지 않아도 요즈음 洞里 다니며 里長을 말하여 洞民들과 사이를 갈라놓라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어 말을 할라든 次 食前에 들을 일주하니 몇몇 사람들이 큰어머니가 지나치게 하드라고 하여 월레가 그런 분이니까 했으나 참지 못하여 朝飯을 하고 쪼차가 무엇대매 그리 하시느냐고 하니 말씀도 아닌 말씀을 이말 저말 하시며 대여곡 件으로 致雨와 法的으로 된 것까지 말씀하시어 面에서 그 래더라 하시어 面에 가자고 하며 面에 갔었더니

面에서 사실대로 말하니 말씀하실 것이 없노니 새마을 양회 팔아먹은 것을 말씀하시어 이말 저말 洞里을 지나치게 헐어 이 洞里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창피을 줄라는 심사이고 요즈음 洞里가 잘 되여 가니까 식이심[시기심]에서 방해올 하고 계신 것이다. 저녁에 전달사항을 말하고 畝을 부쳐 나는 里長職을 감당할 수 없으니 사임하겠노라고 했다.

◎ 4월 30일 (음 3월 28일) 월요일 晴

... 일을 하고 심은 意欲이 生起지 않는다. 몇일 前에 洞里의 안 될 길 바래고 妨害工作을 하는 큰어머니가 지나치게 하여 氣分이 나지 않는다. 큰아번님이 里長 보실 재 말 안 듯던 洞里이가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니가 그분의 本心이 發生했다. 그렇다고 洞里가 어이될 것인가 생각하면 한숨之事다. 面職員이 왔기에 洞里에선 결사 反對하는 辭表을 提出했다. 나루선 감당 할 수 없는 洞里이다. ...

◎ 5월 2일 (음 3월 30일) 수요일 晴

... 里長 辭表을 냈으나 受理을 안 했는 모양이다. 몇몇 里長들은 무슨 말이나고 야단떨이다. ...

◎ 5월 9일 (음 4월 7일) 수요일

... 工事 責任者들이 찾아와 한참이나 일을 못하니 不安하다. 午後엔 面에 會가 있어 나간다. 저녁엔 工事 責任者들이 술을 대접하여 우리 집에서 주선을 했다. ...

◎ 6월 25일 (음 5월 25일) 월요일 晴

午前에 농꿀 봄보리를 췌와 같이 비고 신고와 半가량 탈곡을 하고 12時 頃에 出發 面會에 나가다가 理髮을 하고 1시에 新浦에 나간다. 面會가 끝나고 몇몇 親友와 술을 기울리다 下午 늦게야 집에 오니 ...

◎ 6월 26일 (음 5월 26일) 화요일 雨

어제 저녁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나리었으나 아주 不足량인 비였다. 식전에 제법 나리여 洞畝을 부칠라다가 비가 끝나는 듯하여 농꿀 봄보리밭의 그루을 갈았다. ...

◎ 6월 30일 (음 6월 1일) 토요일 雨

… 面에서 脛가 있어 가기 前에 눈에 들리니 왜가 터져 골장에 물이 끼었다. 面脛가 끝난 後 工事 청부인과 같이 와 답싸을 하고 큰소리가 오고 같다.

◎ 7월 5일 (음 6월 6일) 목요일 晴

… 前日 共販한 보리갑을 計算해 주었다.

◎ 7월 9일 (음 6월 10일) 월요일 晴

… 午後엔 누어 있다가 面 村書記가 와 술을 한잔 같이 하고 午後 늦게야 세풀을 비러 같다. …

◎ 7월 21일 (음 6월 22일) 토요일 晴

面에서 脛가 있다고 하여 9시에 面에 갔더니 堆肥増産大會를 간단히 하고 만호리가 배를 타고 뱃노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經費는 面에서 20,000원 組合에서 20,000 里長단에서 20,000으로 10시에 대절빠스로 술과 고기 밥 등을 싣고 떠나 400여명의 里長職員 등은 입하도에 가 배에서 내려 술과 밥을 먹고 수영을 하고 놀다가 와 집에 오니 밤 12時 경이었다.

◎ 7월 23일 (음 6월 24일) 월요일

洞리로 마을문고용 문고 함이 나와 가질라 갈 겸 面에 갔다가 그냥 도라와 …

◎ 7월 26일 (음 6월 27일) 목요일

또 집을 떠나 宗事일과 앞뜰의 件으로 新浦面事務所 경유 安仲열 같다. 高棧 重植의 일을 보다가 도장을 잊었다. 참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많이 찾았으나 못 찾고 面으로 가 부탁했다.

◎ 8월 4일 (음 7월 6일) 토요일

洞리에 肥料가 활당되었다고 하여 組合에 가 알아보니 5包가 활당되었다고 面에 들렀다가 왔다. …

◎ 8월 6일 (음 7월 8일) 월요일

洞리에 肥料을 활당해 갖고 같이 新浦에 가 組合에 가니 어제 긴급 전통이 와 肥料을 못 팔겠다고 하여 그냥 도라왔다. …

◎ 8월 7일 (음 7월 9일) 화요일

午前 8時半에 里長會를 開催. 參席者 里長 기관장 지도자 생활지도자. (….) 部落會 開催. 퇴

비에서 件.

◎ 8월 25일 (음 7월 27일) 토요일

里長會. (….) 食事は 간단히 하고 理髮을 하고 面에 가니 脛에 간다고 모두 新浦에 와 일도 제대로 못보고 雪創으로 車을 타고 가 脛에 參席했다. 脛야 堆肥 件이다. …

◎ 8월 29일 (음 8월 2일) 수요일

教育을 午前 中 하고 시험을 치르고 午後엔 진흥 工事의 견습을 하라 갔다가 곳 집으로 오다가 西井里에 와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午後에 떠나 집에 8時 頃에 着했다. 몇일만에 온듯하다. 남들은 돈을 벌라고 야단들인데 나는 돈을 내릴게 된다.

◎ 9월 7일 (음 8월 11일) 금요일

… 모처럼 만에 집의 일을 했다. 일이 몰리어 不安하기 가이 없다. …

◎ 9월 8일 (음 8월 12일) 토요일

일직 서둘러 肥料갑을 計算해 갖고 面에 나가 확인서를 받아 갖고 本 組合에 와 肥料 傳票을 떼고 나니 11時 20分 安仲에 갈 시간이 없어 먼 우의 싸이토카를 빌려 타고 安仲에 가니 今口에도 어렵다는 것이다. …

◎ 9월 29일 (음 9월 4일) 토요일

… 벼을 비는데 面 職員이 와 일의 지연이었다.

◎ 10월 3일 (음 9월 8일) 수요일

… 午後에 담당직원이 바뀌어 人使 次 왔다. 李兵長 係長이 담당이다. 술을 대접했다.

◎ 10월 6일 (음 9월 11일) 토요일

里長 4, 5명을 추려 今日 郡守任을 만나 面長의 靑北을 위해 발언으로 郡課長급들이 분개 한 것에 對해 말씀드리라 가길 했다가 新浦까지 갔다가 잘 되었노라고 하여 곳 도라와 …

◎ 10월 14일 (음 9월 19일) 일요일 晴

… 朝飯 後엔 農村指導所 連立 推進委員會와 里長會가 있어 新浦에 나간다. 脛가 끝나고 늦게야 도라왔다.

◎ 10월 17일 (음 9월 22일) 수요일

麥播用 肥料가 왔다고 하여 朝飯을 일직 하고

新浦에 가 組合에 들리니 肥料가 不足이라고 半
가량 傳票를 떼어 놓고 와 洞里에게 알리고 ...

◎ 10월 18일 (음 9월 23일) 목요일

食前에 肥料 割當表에 도장을 받고 ...

◎ 10월 19일 (음 9월 24일) 금요일

... 來日이 里長들의 先진地 시찰 겸 海인사로
여행을 가는 날인데 포기했다.

◎ 10월 22일 (음 9월 27일) 월요일

... 午後에 동옥골의 밭에 뒤엄을 실고 나니 담
당의 李係長이 왔다. 來日 野遊會에 가자고 졸
라되어 점심을 먹고 新浦에 가 理髮을 하고 英浩
에게서 급히 돈을 갈고 오라고 하여 英浩를 오라
고 전보를 치고 組合에 가 一金 35,000원을 찾
아 갈고 來일 노리가기로 결정하고 왔다.

◎ 10월 23일 (음 9월 28일) 화요일

里長크럽 野遊會. 새벽 4時半에 起上하여 서둘
러 밥을 먹고 5時 20분에 出發. 新浦에 가니 車
가 와 있다. 東部 里長들을 爲해 車는 동부에 갈
다가 6時 4분에 出發할라니 여행간다고 하든 분
들이 다 오지 않아 人員이 不足이다. 40分名 예
정이더니 30名뿐이다. 行事가 있어 面長도 못가
고 副面長이 같다. 會費는 4,000원 豫定이던 것
이 5,000원이나 들었다. 평택을 경유 高棧道路
로 大邱에 가 점심을 먹고 海印寺에 들리었다.
참으로 풍치 아름다운 곳이다. 단풍이 덥힌 海인
사는 팔만대장경이 있다. 우리 일행은 海인사에
서 숙했다.

◎ 10월 24일 (음 9월 29일) 수요일

海印寺에서 宿하고 우리 一行은 7時에 出發하
여 大邱에 와 일정을 변경. 나의 요구대로 속리
산으로 같다. 1時경에 到着하여 점심을 먹고 속
리사로 같다. 유람인으로 덥힌 속리사는 과연 국
보가 만다. 海인사의 미력은 歷史의 가치가 있
다. 관광인의 빼쓰는 約 100여대 택시는 세일
수도 없이 대차소가 꽉 찼다. 4時 半에 出發하여
저녁 9時 半경에 着했다. 一金 8,000원이 집에
와 보니 거이 없다.

◎ 10월 27일 (음 10월 2일) 토요일

... 來日은 防衛協議會 會가 있어 會에도 나가
야겠는데 일은 물리고 會는 잤고.

◎ 10월 28일 (음 10월 3일) 일요일

... 10시부터 防衛協議會라야 靑北 各 기관장
유지급 40名이 모여 越冬對策의 會이었다. 나도
참조로 一金 貳仟원을 내기로 싸인을 하고 왔
다. 저녁엔 班常會를 열었다. 勤勉 儉素 節約의
氣風 같도록.

◎ 10월 30일 (음 10월 5일) 화요일

... 午後에 面에 나가 種覽을 하고 왔다.

◎ 10월 31일 (음 10월 6일) 수요일

... 面에 會가 있어 갈다가 面長의 찬사의 대한
金里長들이 진정을 하게 되어 내가 진정의 초안
은 했다. 이 진정의 件은 아직 시기가 상조한 듯
하다. ...

◎ 11월 5일 (음 10월 11일) 월요일

... 親友 鄭丟勳君과 申光秀君이 面일의 協議
次 訪問했다. 李書記도 왔었다.

◎ 11월 9일 (음 10월 15일) 금요일

자고 일어나니 누가 찾아 나가보니 面長이 와
10時까지 만나자고 하여 다섯재祖 家에서 朝飯
을 하고 新浦에 가 面長을 만났다. 鍾植이 5級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는데 기재사항에 군인 제대
라 써 합격취하는 面長이 잘 했노라고 하며 面內
일을 協助하라고 하며 권위 里長들과 잘 의논하
며 하자고 한다. ...

◎ 11월 10일 (음 10월 16일) 토요일

前日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도 종일 나
리었다. 朝飯食事 後에 新浦에 가 下午 2時 頃
에 面廳舍의 落成式을 거행했다. 鍾植의 5級 公
務試驗에 합격은 했으나 병역 귀정[규정]에 잘못
기재하여 무마조로 面長에게 前하라고 一金
30,000원을 გადა 주었다. ...

◎ 11월 12일 (음 10월 18일) 월요일

... 面에 가 面長 上梁式을 (...) 面에 가 收得稅
을 다시 조사하고 왔다. 거이 잘된 듯하다. 大休
氏家와 命植家가 많은 듯하다. 밤에 왔다. 面長
찬사의 陳情書 本文 作成. 今日 부치었다.

◎ 11월 13일 (음 10월 19일) 화요일

… 식전에 收得稅告知書를 돌려주고 …

◎ 11월 16일 (음 10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 里長會가 있어 新浦에 나갔다. 里長會가 있는 後 …

◎ 11월 19일 (음 10월 25일) 월요일

… 종일 있다가 趙成三과 尹炳默이 面에 收得稅 件으로 왔다가 술을 받아 주어 下午 늦게야 왔다.

◎ 11월 22일 (음 10월 28일) 목요일

共販日이라 共販에 나갔다. (….) 우리도 6呎을 3呎는 一等 外 二등으로 수득세 2呎 28K을 했다.

◎ 11월 26일 (음 11월 2일) 월요일

麥糠 6袋 求入卷收 할당. (….) 今日로 농지세는 끝났다.

◎ 11월 27일 (음 11월 3일) 화요일

里長 會議. (….) 午中에 面에 가 會가 끝나고 술을 먹고 늦게야 돌아왔다. …

◎ 11월 29일 (음 11월 5일) 목요일

참으로 氣分 나쁜 날이다. 앞 용수로 공사에 있어 대금을 금일까지 못 찾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못 찾았다. (….) 나로서는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협조자가 적고 내 돈만 3,000원이나 소비를 했다. 2일에 다른 사람을 매길라고 하였으나 洞里 작인들이 떠매끼고서 이제 와서 책임까지 논의하니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고 혼드는 격이다. 한참이나 安雨와 말씨름을 하였으나 통하지 않고 무식만 털어 놓는다. 나는 결심을 했다. 洞里일을 그만두기로.

◎ 12월 4일 (음 11월 10일) 화요일 晴

… 우리 몇몇이 面長 家の 응접셋드를 기증했다. 일인당 2,500원식. …

◎ 12월 5일 (음 11월 11일) 수요일 晴

… 面에 들려 열료대책 委員이라 一金 2,000원을 주었다.

◎ 12월 6일 (음 11월 12일) 목요일 晴

… 세계 공판에 와 洞里의 공판을 마치고 왔다. 집에 오니 저녁 무렵이다. …

◎ 12월 7일 (음 11월 13일) 금요일 晴

… 洞里의 겨울 오늘 찾아 왔다. …

◎ 12월 10일 (음 11월 16일) 월요일 晴

… 面長이 보자고 하여 가 보니 앞으로 面의 運用面의 말이었다. 各 里長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 일을 해야겠는데 姜鎔鎬 같은 사람이 나가니 큰일이라며 날더러 마음에 맞는 里長들의 명단을 해오라고 나도 그만두어야겠는데 부잡아 줄라대니 큰일이다.

◎ 12월 31일 (음 12월 7일) 월요일

朝飯 後에 일직 新浦에 나갔다. (….) 光升의 申光秀君과 같이 점심을 먹고 下午 2시부터 職員의 종무식을 했다. 간단한 술잔치가 있었다. …

○ 농업협동조합

1959년

◎ 1월 20일 (음 12월 12일) 화요일 雲

… 夕飯 後에는 鍾을 쳐서 會에 參席을 하니 協同組合出資金 290원식 속히 해오란 말이다. 會에서 돌아와 곧 자리에 누었다. …

◎ 3월 6일 (음 1월 27일) 금요일 雨 驚蟄

… 朝飯을 마치고 앞논뚜랑에 가니 (….) 볼 데 보고 와 둘째祖父 사랑으로 마실 가니 肥料代金問題로 會를 여럿다[열었다]. 구채로 큰아번님이 四萬餘圓이 남아 組合에선 야단이라 동리 사람이 둘만 모이여도 큰아버지 송[홍] 아주 시늬[신용]이 없다. 동리뿐 아니라 面組合 등에서 신님[신임]을 안는다. …

1960년

◎ 1월 10일 (음 12월 12일) 일요일 晴

… 오날이 高二里農協定期總會라 해서 高棧에

늦게 넘어가니 벌써 高棧선 前日부터 組合長을 重植으로 內定이 되어 있었다. 내가 가니 벌써 代理 理事라는 사람 7명을 선정해서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組合長을 선정하는데 벌써 原木을 포섭해서 두 말 없이 만장일치로 重植으로 되고 내가 常務理事라는 責任을 지워 거부하다가 부득이 責任을 맡게 되어 (...) 組合長 申重植 常務理事 申權植 理事 申悅雨 申淵雨 申大休 신壯雨 申來雨 申姜浩 李泰乾 監事 申益秀 신珍植 等이다.

◎ 1월 11일 (음 12월 13일) 월요일 雲晴

... 農林部에서 알선하여 주는 肥料가 1구지 硫安 10個에 다른 잡肥料가 7個 섞이는데 現在 야미에 比해 아주 싼데 現金으로 先金을 支拂해야 되는데 돈 주선할 것이 걱정이다. 夕飯 後에도 습를 부쳤으나 돈이 문제가 ...

◎ 1월 13일 (음 12월 15일) 수요일 晴

... 農業協同組合에서 幹旋하여 주는 날이 來日까지라 돈도 來日까지 納入해야 되는 고로 쌀 商人을 찾으니 배짱이다. ...

◎ 1월 14일 (음 12월 16일) 목요일 晴

... 夕飯 後에 高棧 重植이 와 郡農協까지 來日 일직 가지고 왔다 같다. 洞里일대가 幹旋肥料代 問題로 걱정들을 한다. ...

◎ 1월 15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晴

平澤郡 協同組合에 幹旋肥料代金 約 七十萬圓 같고 같았다. 朝飯을 일직 마치고 里長인 큰 아번님 印과 大休氏 印 協同組合 理事의 일인지라 같고 高棧 가서 돈을 정리하고 重植과 함께 平澤農協에 같다. 農協事務室은 사람도 많을 뿐더러 돈이 산적같이 쌓여 분주하기 짝이 없다. 늦게서야 돈을 내고 交便登記 申請書를 조사하여 디밀고 나니 밤 八時가 되었다. ...

◎ 3월 3일 (음 2월 6일) 목요일 晴

... 益秀와 重植이 와 5日 습에 나오라고 전하고 같다. ...

◎ 3월 4일 (음 2월 7일) 금요일 晴

... 農協 幹旋 肥料도 4월이나 올라 큰 걱정인데 雪上加霜으로 또 肥料 값을 달라니 걱정之

事— ...

◎ 3월 5일 (음 2월 8일) 토요일 晴

... 오늘이 協同組合 간담회라 오라 해서 面에 가서 습를 마치고 ...

◎ 3월 9일 (음 2월 12일) 수요일 晴

... 協同組合 肥料幹旋의 것이 많이 올라 수군 수군 야단덜이다. 종일 거드러 다니었다.

◎ 3월 10일 (음 2월 13일) 목요일 晴

食前에 農協幹旋肥料 두組 追加金 55,260환을 것어 高棧 組合長을 갈다주고 와 ...

◎ 4월 4일 (음 3월 9일) 월요일 晴

... 協同組合 幹旋肥料가 나왔는데 原木으로 나와 原木 가서 실어왔다. 나도 일을 끝내고 原木 가서 3袋를 저왔다. 硫安만 나왔다. ...

◎ 4월 5일 (음 3월 10일) 화요일 晴

... 食前에 高棧 넘어가 協同組合 幹旋肥料 硫安 마트리를 갈다가 朝飯食事 後에 나누어 주었다. ...

◎ 4월 8일 (음 3월 13일) 금요일 晴

食前은 논을 一週하고 高棧協同組合理事會를 하는데 오라 해서 넘어가니 ...

◎ 6월 11일 (음 5월 18일) 토요일 晴

일직 일어나 (...) 들에 가보고 돌아오니 高棧 重植 와 農協의 公文을 갖고 오고 ...

◎ 7월 11일 (음 6월 18일) 월요일 晴

... 夕飯 後에 高棧에 가서 農協에서 出資되는 生産資金 우리 조합에 나와 16萬圓을 근洞에 分해 元高棧에 7萬圓 大谷에 4萬圓 原木에 5萬圓으로 할당을 했다. ...

◎ 8월 16일 (음 윤 6월 24일) 화요일 晴

... 下午에 高棧 넘어가서 肥料(農協幹旋) 인硫磷安을 15斤 나누어오고 풀 한 짐을 비었다.

◎ 9월 12일 (음 7월 22일) 월요일 晴

... 夕飯을 마치고 高棧서 協同組合 理事會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넘어가 事業資金 申請을 하기로 決議되었다. 습가 끝나 늦게 집에 도라왔다.

◎ 9월 13일 (음 7월 23일) 화요일 晴

食前에 머리를 깎고 大休 壯雨氏 等 印章을

가지고 朝飯을 하고 高棧으로 가 重植과 같이 安仲 農銀에 가 알아보고 事業資金을 200萬圓을 申請하였다. ...

1961년

◎ 9월 25일 (음 8월 16일) 월요일

... 오늘이 高棧里 農協長을 개선했는데 나를 지명한 모양인데 일을 가느라고 못 같다. ...

◎ 12월 25일 (음 11월 18일) 월요일

朝飯食事を 하고 나니 다섯재祖父任이 오시여 高棧精米所를 賣渡할라는데 農協에서 買入한다니 理事會에 잘 말해달라고 오셨다. ...

◎ 12월 26일 (음 11월 19일) 화요일

새끼를 끌라고 高棧 넘어가니 (...) 오다 重植이 來日 農協 理事會가 잇으니 와 달라고 해서 큰 아번님에게 알리었다. ...

◎ 12월 27일 (음 11월 20일) 수요일

... 오늘 高棧 農協 理事會에 參席 次 떠나 아버지 家 방아 찌운 것 저내는데 협조하고 솜에 같다. 理監事 五名이 精米所 買入 事項의 것이다. 資金도 확실시 되어잇지 않는데다 農協에서 融資받아 할 것이라며 남의 精米所를 금을 본다는 것은 덜된 일인데 120만환에 금액을 본 것은 벌써 高棧 原木 理事 間에 벌써 合議 본 것이다. 우리는 집안 간이라 승인 것으로 본다 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발이 안 슬 정도로 되었다.

1962년

◎ 1월 14일 (음 12월 9일) 일요일 晴

... 다섯재祖 아버지(吉雨氏)가 高棧 가서 農協에서 精米所 엿이 生覺하고 잇느냐 가보라 해서 같다가 각 理事를 못 만나보고 왔다.

◎ 1월 20일 (음 12월 15일) 토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오늘 排球試合를 하는데 出戰

을 한다 해서 갈 사람에 자리를 정하고 나는 오늘 高二里 農協 理事會에 갔다. 올해의 事業計劃書를 作成하는데 精米所를 한다고 솜가 끝나고서 곳 後坪에 排球試合에 갔더니 一回戰에서 勝하고 二回戰에서 高棧에 敗했다. 늦게 도라왔다.

◎ 1월 25일 (음 12월 20일) 목요일 晴

... 오늘 또 農協의 理事會인데도 못 갔다.

◎ 1월 27일 (음 12월 22일) 토요일 晴

오늘 高棧里 協同組合會와 三溪서 실시하는 青年學校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데를 가야 오를지 몰라 三溪 가서 1時間 하고 高棧 와 솜을 했다.

◎ 1월 29일 (음 12월 24일) 월요일 晴

農銀 支시인 借入金 申請書를 종일 作成해다가 高棧에 주고 왔다. 家庭事項 財産事項 及 生産 소비 等 家家戶戶히 하는 것이라 아주 복잡한 것인지를 종일 쓰고 午後에 같다주었다.

◎ 1월 30일 (음 12월 25일) 화요일 晴

... 朝飯 後에 英浩 藥을 발라주고 잇으니 重植이 와서 安仲을 좀 같이 나가 役員의 登記申請을 같이 하자고 하여 할 수 없이 安仲에 같이 나갔다. 組合長 重植인 다른 일 보고 登記申請은 내가 作成했다. 늦게 도라온 나는 ...

◎ 3월 14일 (음 2월 9일) 수요일 晴風

... 食前에 理髮을 하고 나니 큰아번님이 오늘 理事會라고 해서 高棧으로 가서 農協의 理事會에 參席을 했다. 農糧 資金 放出의 件과 里農協 事務室 설비의 件이다. 事務所 件에 對해서 政府에서 한참 農民의 부담이 많은 이 때 農協 里事務室에 臨時 共同으로 事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營農資金 高棧二里에 80萬圓 나온 중 14만환 大谷으로 할당이 되었다.

◎ 4월 4일 (음 2월 30일) 수요일

... 午前에 高棧서 農協 理事會가 잇어 같다가 와 ...

◎ 6월 16일 (음 5월 15일) 토요일 晴

... 들을 일주하려고 자고 일어나는 즉시 밖에 나가니 큰아번님이 오라해서 건너가니 農協用 有上 肥料代 3畝 畓 壹仟百六拾을 같다 高棧

重植을 갈다주라고 해서 高棧 가니 들에 나가있어 앞에서 보리 비는 原植에게 傳해 달라고 주고와 (….) 390원을 官用 肥料代로 갈다드리었다.

◎ 11월 20일 (음 10월 24일) 화요일 雨

農協理事會에 參席. (….) 오늘 高棧서 습가 있다고 通牒이 와서 參席했다. …

1963년

◎ 2월 10일 (음 1월 17일) 일요일 晴

… 朝飯食事後에 英浩가 高棧서 습에 參席하라고 해서 寬植 家 電話로 자세이 알아보니 午後에 습을 하자고 해서 (….) 午後에 高棧二里 農協습에 參席했다. 습을 끝맛고 나서는 집에 와 部落 실태조사書を 作成했다.

◎ 6월 26일 (음 5월 6일) 수요일 雲晴

除草機 買現金 (….) 安仲場에 가 組合에서 나오는 除草機를 사오라고 妻를 시켰더니 高棧 와 있다고 해서 高棧 가서 가져왔다고 한다. 價格은 아직 자세히 몰라 150원을 里長을 주었다고 한다. 組合에서 보조를 해 93원이라고도 하는데 里長은 127원이라니 아직 모른다.

◎ 6월 27일 (음 5월 7일) 목요일 雲

… 前日 사는 除草機를 使用해 보았더니 별로 신통치 않는 것 같다. …

◎ 12월 4일 (음 10월 19일) 수요일 雲

… 農協理事會라고 해서 高棧을 또 넘어 갔다. 습라야 별 것이 아니다. 自治資金 組合員 當 白米 1斗씩 確立 그 외 精米所 設立 등이었는데 나의 精米所 設立에 있어서 肅자 도입에 있어서 組合長은 자신이 있느냐 말만 내지 말고 절대 自新을 가지고 나와야지 않느냐는 추궁에 있어 우선 自治資金의 거출 결과를 보고 습를 하자는 바람에 閉會했다. …

1964년

◎ 1월 31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雪

… 高棧서 農協 理事會가 있다고 해서 點心을 먹고 李巡警과 高棧 가서 습에 參席했다. 습은 新年度 事業計劃이다. 精米所設立습인데 各 部落마다 다른 議事이다. 元高棧선 강역히 추진한다. 습는 총회에 부치기로 하고 폐습. …

◎ 2월 7일 (음 12월 24일) 금요일 雲

農協組合을 高棧서 열었다. 案건은 新年度 事業計劃에 搗精業을 하자는 것이다. 資金은 交附 肅자와 營농資金을 移用해서 하기로 했다. …

◎ 3월 29일 (음 2월 16일) 일요일 晴

高棧 東植이 와 理事會가 있으니 넘어오라 해서 (….) 습件은 精米所에 對한 最終적인 습이다. 습을 하고 吉雨氏 家 精米所을 買入키로 하고서 大谷으로 와 肅정을 해서 30만원에 肅정하고 25만원은 돈 나오는 대로 支拂하고 5만원은 가을에 支拂키로 하고 契約作成. 契約金으로 만원 支拂했다. …

◎ 4월 2일 (음 2월 20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마실 가서 配給된 小麥粉을 賣 할라고 善子 便에 賣하라 했다. (….) 오늘 農協을 一里와 二里가 병합을 할 습을 했다. 政府에서 추진하여 都農協에서 3名이 나왔다. 後坪 組合長 家에서 습을 하는데 찬성자가 있고 해서 습하기로 하고 습병하는데 본격적인 귀도[귀도]에 올랐다. 추진위원 一里에 15名을 구성 10日來에 습을 하기로 했다. 2時 頃에 집에 와 가마니 2남을 치었다. 夕飯 後에 善子에게 가보니 못 팔았다는 것이다. 팔지 못하게 되어 面에서 찾지 안았다고 한다.

◎ 6월 10일 (음 5월 1일) 수요일 雲

… 저녁에 農協 理事會가 있다고 기별이 와서 高棧 가셨다. 습 事項은 精米所 運營습이다. 高棧組合長 주관으로 회는 一瀉千里로 끝났다. 모두 我田引水격인 發議이라 建設的인 습는 못된다.

◎ 7월 20일 (음 6월 12일) 월요일

… 農協 理事會 參席. 中間決算 諸般討議. …

◎ 8월 15일 (음 7월 8일) 토요일 晴

… 정미소 修理한다 했다. (….) 골을 다듬어 놓고 高棧으로 會에 參席했다.

◎ 9월 20일 (음 8월 14일) 토요일 雲

… 저녁엔 農協 理事會가 있었다. 쉬일간 農協 任時總會겸 精米所 修理 준공식 결정.

◎ 9월 23일 (음 8월 17일) 화요일 晴

… 點心 먹고서 오늘 우리 農協組合臨時總會가 있어 高棧 같았다. 1시부터 會를 한다는 것이 2시가 넘어서야 會가 되어 中間 經과 報告가 있는 후 各種 精米所 運營 질 의가 있는 後 閉會 後 소머리 산 것으로 精米所에 고사를 지내고 會員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

◎ 11월 1일 (음 9월 27일) 일요일 晴

農協理事會라고 해서 高棧을 갈더니 仁植氏 家의 大事日인 고로 못했다. 잔치에서 술과 국을 먹고 저녁나절서야 李正國氏와 같이 왔다. …

◎ 11월 7일 (음 10월 4일) 토요일 晴

農協理事會日인 고로 10時 頃에 高棧에 갔었다. 案件은 精米所 運營 事項이다. 里組合精米所로 해 놓으니 搗精의 能率도 오르지 않으려니와 人夫들도 아주 태만해서 穀主들의 不滿이 많다. 오늘 나의 제안으로 時間제 運營을 주장했다. 能率주의를 주장했으나 모두 아전인수적인 말이었다.

◎ 12월 25일 (음 11월 22일) 금요일 晴

오늘 農協理事會라고 해서 朝飯食事 後에 高棧을 넘어 갈다. 精米所 運營의 件에서 資金 融資받은 것을 今年에 갚아야 될 것인데 今年에 精米所 修理와 今年에 搗精에 실패를 해서 利子를 못 갚게 되어 부득히 팔아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 12월 27일 (음 11월 24일) 일요일

朝飯 後에 高棧 農協總會에 갔으나 午後가 되도록 成員未達 되어도 會는 했으나 賣渡하느냐 高利債을 인어서라도 하느냐의 옥신각신 끝에 高利債을 白米 20㏎ 얻어 갚도록 하고 會는 끝났다. 오늘 나는 理事職을 辭任했다.

1965년

◎ 11월 18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 앞으로 큰일인 것이 搗精하는 것이다. 組合에서 運營하는 것이라 아주 不便하다. 午後엔 高棧精米所에 가 보았다. 고장이 나 있어 오늘도 搗精을 하지 못했다. …

◎ 11월 20일 (음 10월 28일) 토요일 晴

… 搗精을 해야겠는데 와 갈고 가지울 안아 걱정이다. 組合精米所엔 自己가 실어다 찌어야 한다고 하니 우리 같은 집이 걱정이다. …

◎ 11월 24일 (음 11월 2일) 수요일 晴

… 農協精米所라 搗精하기 아주 不便하다.

1968년

◎ 1월 22일 (음 12월 23일) 월요일

高棧 農協 總會. 朴刑查와 朝飯食事を 같이 하고 高棧서 精米所의 貨貸契約를 하여 原木에 鄭建植이 入札을 하여 白米 33㏎5斗에 落札이 되었다. 應札者는 其植氏와 두리였다. 貨貸契約書를 내가 作成했다. …

1973년

◎ 2월 28일 (음 1월 26일) 수요일 晴

農協組合理事 改選을 本日한다고 하여 高棧 桂植 ○○가 나갈라고 조반전에 오라고 하여 가기는 했으나 신통할 여론이 없다. 田榮基氏와 같이 갔으나 ○會에 里長들은 들어갔다. …

◎ 4월 17일 (음 3월 14일) 화요일 雲

… 新浦에 나갔다. 비료 전표를 땔랴 했으나 尿素가 없어 못 떼고 現 龍組合長의 不信任 결의에 있어 몇몇이 연판장을 100% 받아 날 보고 安仲에 閔代議員이 계시니 가보자 해 下午 늦게

安仲에 가 閨을 만나 결의 하면 來日 平澤에 나가자 했으나 나는 못 나갈 것 같다 했으나 졸라대어 가기로 하고 옹포 里長 姜氏내 가에서 夕飯을 하고 12時 경에 도라왔다.

◎ 4월 18일 (음 3월 16일) 수요일 晴

… 11時 頃에 出發 新浦에 나가 5人의 里長와 金鍾秀 姜錫浩 金秀己 李益宰 등이 平澤에 나가 郡에 陳情書를 제출하고 郡 組合의 전무를 만나고 鄭 組合長을 만나 말하고 安仲에 와 閨代議員을 만나고 新浦 경유 집에 왔다.

◎ 4월 21일 (음 3월 19일) 토요일 晴

… 組合長 不信任 결의 진정서에 있어 각 총대가 절대적으로 절고 가라고 하여 몇일 前에 郡組合에 갈다는 것을 龍 組合長은 내가 충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보고 말하여 오해를 받고 있다.

◎ 4월 25일 (음 3월 23일) 수요일 雲

… 12時 頃에 面에서 會가 있어 나간다. 郡 組合에서 새마을축진대회이었다. 面에서 會가 또 있어 밤 12半 頃에야 歸家했다. 而 단위組合長이 사과하여 本 총대일동의 진정은 더 확대치 않기로 결정했다.

◎ 후기

結議文

現下 우리들은 10月維新精神과 새마을 事業指導體制下에 農協組合員의 이념 永現을 目的으로 하고 과감히 타쟁하여 오늘 날의 우리 組合을 키워 왔습니다. 至今에 이르기까지 2,500名 組合員은 ○○○組合長의 주위에 團結하고 ○○○組合長의 崇高한 指導영량과 기발한 기지로서 오늘의 工果을 이루었으며 앞날의 發展에 있어서도 ○○○組合長에 對한 기대가 더욱 要請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時點에 있어서 ○○○組合長의 해임 問題를 끌고 나와 여러 組合員과 臨員들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고 組合 運榮이 일대 위기 處하게 되었다. 이 원천은 규정 적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12월 6일 ○○○道 支部長이 來郡했을때 ○○○組合長이 설변을 堂명으로 단정

관용과 슬기로 포용이 못되고(관료잔재의 옹졸성을 여지없이 노출시켰고) 단위 組合 對 上部와의 평온적인 對話의 길을 터주지 않고 도리어 감정에 치운친 보복적 수단에서 인격이하의 야비한 수법으로 규정을 빙자하여 일고의 여지없이 보복을 규사하는 처사에 우리 조합원으로서 수궁할 수 없어 격분하고 또 이와 같은 지도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조합사업에 참여할 의욕을 상실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수년 동안 장시일에 쌓아올린 농협인으로서의 용과를 여지없이 유린하는 처사라 규탄하면서 23,000 조합원은 主體的인 역량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

1. 농민조합원의 의사에 反하는 금반 조합장 해임은 즉시 철회하라.
2. 단협의 운영은 구성원인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에서 상향식 체제에서 유도하라.
3. 사이비 농협인은 즉시 농민 조합원의 지도적 위치에서 물러가라.
4. 이상 결의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3,300원은 탈퇴할 것을 결의한다.

○ 청년회

1959년

◎ 1월 23일 (음 12월 15일) 금요일 晴

… 夕飯 後에는 高棧青年구라부습것만 습長이 없어 流會를 했다. …

◎ 2월 17일 (음 1월 10일) 화요일 雨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갈다가 오늘 高棧青年俱樂部會가 있어 몇 가지 書類를 가지고 高棧 넘어 갈더니 原木서 오지 않고 해서 流會를 하고 말았다. 좀 앉았다가 泰權 家에 가서 高棧 青年들과 함께 생일잔치에 술과 국수를 잘 얻어먹었다. …

◎ 2월 21일 (음 1월 14일) 토요일 晴

… 午後에는 高棧 넘어가서 重雨와 함께 原木 應秀 家에 가서 高棧二里 青年 問題를 議論하고 술을 얻어먹고 넘어왔다. …

◎ 2월 22일 (음 1월 15일) 일요일 晴

… 夕飯 後에는 德雨, 炳哲, 炳均 등을 데리고 高棧青年會에 가서 會를 했다. 모레 高棧二里 青年會 運動을 한다고 했다. 會는 잘 進行되었다. 運動 두레노리 달리기 높이 넓이뛰기 늘[널](女) 씨름 排球 등 副團長補選出 申東雨 團歌 제정하기로 결정.

◎ 2월 23일 (음 1월 16일) 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건너가서 웃을 놀다가 高棧 青年들이 와서 술과 떡을 대접하고 다섯재 祖父 家에 갔다. 우리 青年俱樂部 役員이 顧問을 訪問하기로 結晶이 되어서 顧問을 訪 次 다섯재 祖父 家에 가서 대환영을 받고 끝까지 잘덜 해달라는 유시를 받고 술과 국수를 대접하여 잘 먹었다. 元高棧으로 해서 原木으로 다녀왔다. …

◎ 2월 24일 (음 1월 17일) 화요일 晴

… 食前에 자고 이러나 부엌에서 불을 때고 있으니 高棧 重雨가 와서 찾아 나가보니 오늘 青年 運動大會 準備 議論과 우승컵을 갈다놀라고 왔다고 해서 큰아버지 가에 가서 의논하니 오늘 在日僑胞北韓送還反對결기大會를 한다고 안 될 것이라고 해서 來日로 미루기로 했다. …

◎ 2월 25일 (음 1월 18일) 수요일 晴

오늘 高棧 第二里 青年俱樂部 親睦 運動大會를 開催할 날. 자고 일어나 하늘을 보니 日氣도 晴明하다. 朝飯을 마치고 마을 가니 青年들이 모여 북을 울리어 모이어서 九時 頃에 出發하여 산마루에 올라가니 高棧과 原木도 農樂을 울리고 場所 元高棧 排球場으로 모이었다. 三洞 農樂이 한참 놀고 九時 半 頃 式을 거행했다. 青年團體를 가진 후 처음 보는 모임에 애국가 봉창 국기에 대한 경례 단장의 개회사 顧問代表로 舜雨氏의 祝辭와의 오늘 우리가 大會를 갈게 된 동기와 우리가 할 일에 對해서 축하 겸 몇 마디 말을 하

고 大會로 드리겠다. 상품은 각 支部에서 五百圓씩 각출을 해서 석약(성냥)을 사서 상품으로 했다. 오늘의 준비와 모은 것은 나의 심[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競技는 넓이뛰기 높이뛰기 담보이뛰기 農樂노리 씨름. 점심은 각 支部 별로 高棧서 해주기로 해서 국수 두 관을 주었다. 마라톤 배구 놀뛰기 등의 경기에 총점수 原木서 타 같다. 모새[모래] 가마들기는 육독 高棧 장사를 다 넘기고 炳賢이 一等을 하고 씨름은 내가 二等을 했다. 그리고 顧問 몇몇이 술을 받아 헤어질 재 重植 큰집에서 대접했다. 하로는 즐겁게 사고 없이 잘 놀았다. 男女老少가 모인 가운데 大會는 잘 끝나치었다. 우승컵은 原木으로 같다.

◎ 3월 23일 (음 2월 15일) 월요일 晴

… 피곤한 몸이 일을 하고 高棧二青年會가 있어 夕飯 後 德雨 炳哲 등이 넘어가니 原木서 안와 流會를 하고 말았으나 目的 會議案件은 運動을 하여 運動精神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日前에 入營者 전송 때 봉변을 당한 원인이 있다. 늦게 도라와 자리에 누었다.

◎ 5월 10일 (음 4월 3일) 일요일 晴

… 도라와 興植 先生을 찾아가 高棧青年團結 問題를 議論하다가 또 술을 내와 같이 하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큰집에서 夕飯 食事이라는 것도 못 가고 늦게 집에 도라왔다. …

◎ 8월 14일 (음 7월 11일) 금요일 雲

… 방아 찌러 가서 重雨氏를 만나 青年問題를 議論하고 原木 가서 青年들을 만나보기로 하고 點心 後에 高棧으로 해서 原木을 다니어 왔다. …

◎ 8월 18일 (음 7월 15일) 화요일

… 夜에는 高棧二里青年會가 있었다.

◎ 9월 12일 (음 8월 10일) 토요일 雲

… 夕飯 後에 高棧 青年會에 갔다가 水原 叔父가 와서 만나 보았다. 高靑俱會는 原木支部에서 안와 流會가 되었다.

◎ 9월 16일 (음 8월 14일) 수요일 雨

… 하는 일 없이 그럭저럭 夕飯 後에는 高棧 넘어가 第二里 青年俱樂部 第次定期總會를 열

準備를 했으나 原本支部에서 날이 험악해서인지
參賀치 못해서 進行치 못했다.

1960년

◎ 10월 6일 (음 8월 16일) 목요일 晴

三德國民學校 兒童 運動大會. 運動 구경 次
洞里 一代가 소란하게 되었다. (...) 조금 잇다가
里 대항경기가 始作되었는데 昨年과 같이 또 高
棧一里와 同點이 되었다. (...) 우리 三洞里 青年
이 역 또 단결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 青年會를 열기로 하고 해지였다.

1962년

◎ 1월 18일 (음 12월 13일) 목요일 晴

前夜에 洞里 青年會를 하고 도라오는 22일에
排球 시합에 나가자고 하고 오늘부터 연습을 하
는데 나와서 보아 달라 해서 午前 中 같이 하며
보아주었다. ...

◎ 7월 31일 (음 7월 1일) 화요일 晴

... 저녁 먹고는 마실 갔더니 青年들이 4H 俱樂部
를 조직한다고 와서 조직을 해 달라고 人便이
와서 건너가 일을 보아주고 왔다.

◎ 8월 3일 (음 7월 4일) 금요일 雨

... 點心도 안 먹고 누어있으니 青年들이 몰려
와 今般 新浦서 排球大會에 出전해야겠는데 어
이하면 좋으냐고 會費問題가 걱정이라고 해서
나는 洞里 어른들의 協助를 바랄 수밖에 없이
않으냐고 하고 青年들의 취지文을 써 回覽시키
는 것이 어떠냐니 좋다고 해서 취지文을 써주었
드니 가지고 갔다.

◎ 8월 4일 (음 7월 5일) 토요일 晴

... 洞里 青年들이 자루를 미고 會費를 協助받으
러 다니는데 第一 많이 낸 집이 大麥精 3斤이고
1斤 10円 等인데 나도 大麥精으로 보기 좋게 3

斤을 주었다. ...

1963년

◎ 9월 9일 (7월 22일) 월요일 晴

... 저녁을 먹고 青年會 있어 같은데 요즈음 洞
里에서 닭을 30餘조를 盜難 當하여 來日부터 夜
巡을 돌기로 했다.

○ 부녀회

1962년

◎ 6월 1일 (음 4월 29일) 금요일 晴

... 朝食食事を 마치고 피로를 回復하기 爲해
누어 한잠이나 잠을 잤다. 바깥서 떠드레하는 바
람에 일어나 드르니 部落婦女會에서 大掃除를
하고 있다. ...

◎ 9월 4일 (음 8월 6일) 화요일 晴

... 高棧서 늦게 오다가 婦女會 하는데 잠깐 들
리었는데 會費야 별 것 없이 한담이 한참. ...

1973년

◎ 7월 15일 (음 6월 16일) 일요일

洞里 婦女會員을 動員 苗圃場의 풀을 뽑고 洞里
에서 肥料을 걷어 苗圃 밭을 매고 施肥했다. ...

○ 자경대

1962년

◎ 3월 26일 (음 2월 21일) 월요일 晴風

... 오늘이 나의 夜巡 차례이다. ...

1963년

◎ 4월 25일 (음 4월 2일) 목요일 晴

自警隊 要員에 物品配給 (···) 집에 와 點心을 먹고 있으니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 가보니 自警隊 要員에게 간첩에게 압수한 물건을 나누어준다고 해 가보니 모두 나누어왔다. 양복지 저고리 감, 수건 等. 特等 外래품다. 나는 봄잠바가 도라왔다. 모두들 時價 5,6百원어치 가량은 된다. 나는 300원.

◎ 6월 11일 (음 윤 4월 20일) 화요일 晴

··· 어제 저녁에 自警隊 舍가 있어 11시가 넘어 자리에 들어 늦게 일어나 ...

◎ 9월 9일 (음 7월 22일) 월요일 晴

··· 저녁을 먹고 青年會 있어 같은데 요즈음 洞里에서 닭을 30餘조를 盜難 當하여 來日부터 夜巡을 돌기로 했다.

◎ 9월 10일 (음 7월 23일) 화요일 晴

··· 오늘부터 夜警 차래이고로 會議室에서 자며 夜警을 돌고 5時 집에 왔다.

◎ 9월 13일 (음 7월 26일) 금요일 晴

··· 저녁 먹고는 夜警을 돌라 갈라고 하고 일어나 보니 2時다. 夜警을 돌고 4時 頃에 집에 왔다.

1967년

◎ 1월 7일 (음 11월 27일) 일요일

悠雨가 식전에 와 洞里사람 自警隊員들이 오늘 식전에 巡警 나무 한 짐씩 저다준다고 가자고 해서 原木으로 나무지라 같았다. ...

○ 연반계

1971년

◎ 10월 26일 (음 9월 8일) 화요일

朝飯 後에 농꿀 喪家에 갔다. 洞里 젊은 분들이 모두가 協助했다. 일이 끝나고 농꿀분들과 연방契[연반계]에 對한 議論을 했다. 滿場一致로 좋은 것이라고 찬양을 했다.

1972년

◎ 5월 23일 (음 4월 11일) 화요일

농꿀 曹弼煥君의 父親 葬日이다. 朝飯食事を 하고는 革命村에 갔다. 농꿀 洞里와 공동으로 장사를 치루게 되었다. 다리가 많이 부드러워 오늘 장지까지 가 일을 보여주었다. 오늘이 우리 일날인데 하루 드디어 來日하게 되었다.

○ 탈곡기 합자 모임

1971년

◎ 12월 17일 (음 10월 30일) 금요일

午前 中 새끼 꼬고 午後엔 致雨가 와 脫穀機에 對해 計算을 했다. ...

◎ 12월 18일 (음 11월 1일) 토요일

脫穀機사용 費用(기름값 雜費)을 오늘 청산했다. 주식이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1972년

◎ 11월 10일 (음 10월 5일) 목요일 雲

朝飯食事 後에 脫穀機 合資人이 모여 脫穀機을 修理하고 午後엔 脫穀할 準備用品을 사고 고장 수리를 하라 新浦에 나갔다. 돈을 1人當 2,000원씩 準備하라고 하여 쌀돈을 20,000원 내여 借用金 아버지家 4,500원 轍雨 1,000원을 잡고 脫穀油 2,000원을 내었다. (···) 脫穀

合資人은 모두 같다 왔다.

1973년

◎ 10월 29일 (음 10월 4일) 월요일

… 식전에 脫穀機의 畚을 열어 우선 修理하여 쓰리고 수리비로 一金 5,000원이 들 상 십다. 오늘 敦植이 安仲 가는 데 부탁했다. …

◎ 10월 30일 (음 10월 5일) 화요일

脫穀機 修理 石油 1드람 7,400. 모비루 1,200 원 휘발유 등 1인당 2,700원씩 내야 된다. …

◎ 12월 8일 (음 11월 14일) 토요일 晴

脫穀機의 심을 보았다. 우리가 1,140원을 더 내놓았다. 경비와 수리備가 2,550원이었다. …

2. 마을 공동작업

1959년

◎ 3월 18일 (음 2월 10일) 수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나니 鍾소리 들리어 건너가니 新作路 出力 動員鍾이라 건너갈다가 변도[弁當]를 싸가지고 出力을 나간다. 靑龍태 新作路 出力 가서 자갈을 하고 왔다. 집에 오니 저녁 食事に 알마칠 時間이다.

◎ 3월 28일 (음 2월 20일) 토요일 雲

… 朝飯食事を 하고 종소리가 나서 건너가 보니 新作路 出力으로 鍾을 친 것이라 집에 오니 (….) 妻男 聘母가 떠난다고 해서 (….) 나도 三溪 新作路 出力 나갈 겸 같이될 떠났다. 三溪에서 作別 人事를 하고 나는 新作로로 나가 갈더니 出力人 6명이 일을 하고 왔다.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온다. 동리 일 참 고 로지[고르지] 못하다.

◎ 4월 7일 (음 2월 30일) 화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 鍾소리 나 강기리 마을 前 길

安仲 水原 間 道路 作業에 자갈 깔라고 出力 鍾이라 변도를 싸가지고 出力을 나간다. 出力을 나가 자갈을 피고 저녁 먹기 알맞게 들어왔다. (….) 出力을 같다오니 피곤하여 일직 자리에 누었다. …

◎ 4월 24일 (음 3월 17일) 금요일 雲風

… 네재祖父 家 원뚝 다섯재祖父 家 원뚝 등이 터졌다. 다섯재祖父 家에서 도랑원물 대느라고 잘르고 마근 것이 잘못 데여 터졌다는 것. 朝飯을 마춘 나는 원뚝 막는데 갈까했는데 사람이 안들가는 것 같아 그냥 와서 앞 왜뚝을 찢더니 거이 다 가서 원뚝을 막아주어 나는 제진 놈 같고 양심이 걸리어 못 건딜 지경이고 사람 볼 면목이 없다.

◎ 5월 16일 (음 4월 9일) 토요일 晴

… 종일토록 놀다가 夕飯을 마치고 나니 종소리가 심이[심히] 나 급히 뛰어나가 누구 家의 불인가 보니 소시랑[쇠스랑]을 들고 뛰어 마실로 건너가니 아버지 家의 불이 지붕마루에 붙어 활활 타고 있어 다리가 부들부들 걸음이 잘 안 걸린다. 올라가 지붕에서 불을 洞里 一代가 몸을 사리지 않고 물 補給이 잘 되고 해서 약 1時間 程度로서 鎮火시키었다. …

◎ 7월 6일 (음 6월 1일) 월요일 暴雨

… 마을을 보니 현우씨 家 내가 탁 터져 물이 아논으로 별창 약 40分 가량 쓰다지고 그치었다. (….) 點心을 마치니 동리사람이 현우씨 家 왜뚝을 막는 데 협조하여 나도 가서 午後에 종일 막고 왔다.

◎ 9월 13일 (음 8월 11일) 일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 나니 鍾소리가 나서 건너가 보니 길치도 일이다. 洞里 길치도 갱기리 치도 한데 하는데 갱기리 5명을 보내고 나머지 동리 치도를 했다. 잘은 못했어도 종일 했다. …

◎ 9월 26일 (음 8월 24일) 토요일 晴

… 朝飯 後에 三溪 新作路 자갈을 하러 갔다. 今年에 구역 활당[할당]을 받았는데 大谷里長은 참석치 안아선지 三溪 新作路 中 第一 좋지 못한 第一 복판 다리를 받게 되어 여론이 구구하

다. 소로 자갈을 실어 일직 끝마치고 ...

◎ 10월 27일 (음 9월 26일) 화요일 雲
화죽교 막았다. (...) 논뚝 물꼬를 동네 사람이
같이 가 막았다.

◎ 12월 6일 (음 11월 7일) 일요일 晴
오늘 新作路(三溪) 道路作業을 나갔다. ...

1960년

◎ 2월 19일 (음 1월 23일) 금요일 晴
... 朝飯床 막 받으니 鍾소리 들려 床을 물리고
나가니 三溪 新作路 出力 件이다. 단임書記가
와서 動員시키고 있어 곳 삽을 들고 건너가 出動
을 했다. ...

◎ 8월 7일 (음 윤 6월 15일) 일요일 晴
오늘 동이 우물 수리하기로 한 날이다. 朝飯食
事を 하고 마실로 건너가 동원되기를 기다려 10
時 頃に 始作해서 음물 갓을 파고 개흙을 갈다
다져 느었다. 콩크리까지 할랴 했으나 흙으로 미
우기밖에[메우기밖에] 못하고 끝났다. ...

◎ 8월 8일 (음 윤 6월 16일) 월요일 晴
... 夕飯食事 後에는 (...) 高棧 넘어가 洞里 靑
年들이 다리방아를 미어왔다. ...

◎ 8월 15일 (음 윤 6월 23일) 월요일 晴
... 우리 동리에서는 洞里 음물을 수리하고 방
아를 수리하였다. 洞里一代가 二日째 오늘 끝마
치었다.

◎ 8월 17일 (음 윤 6월 25일) 수요일 晴
... 오늘은 물을 길어다 붓고 김장을 갈기로 작
정하고 (...) 짐을 져다 붓고 三溪 新作路 出役을
나갔다. 高棧二里 合同으로 하는 지라 공 먹는
사람이 많아 일이 잘 되지 않는다. ...

◎ 9월 1일 (음 7월 11일) 목요일 晴
조반食事 後에 종소리가 나서 건너가 보니 新
作路 出役이라 집에 와 點心을 싸갈고 三溪新作
路 出役을 나갔다. ...

◎ 9월 19일 (음 7월 29일) 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마실로 건너가니 洞里길 治
道を 한다고 한다. 안 나온 집도 몇 집 있다. 종
일토록 길치도를 했다. 동육골 길은 안 할라는
심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 아주 표면화된 壹雨가
아주 꼴 어지럽다.

◎ 11월 18일 (음 9월 30일) 금요일 晴
... 下午에 洞里靑年을 데리고 아논 뚝을 마그
리[막으리] 가니 안꼴 조부가 받원에 물을 대니
더 있다 막으라 하니 洞里一代를 희생시키고 자
己만이 살겠다는 주장이다. ...

1961년

◎ 3월 26일 (음 2월 10일) 일요일
... 朝飯食事を 하고 나니 鍾소리가 들리어 건
너가니 오늘 靑龍臺 新作路 出役을 간다고 한
다. 點心을 꼬리여 가지고 떠났다. 안 가는 사람
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가는 사람만 간다고 이
론이 많다. 저녁나절 일을 끝맛고 왔다. ...

◎ 3월 28일 (음 2월 12일) 화요일
三溪 新作路 出役. (...) 朝飯 後에 鍾소리가
나 건너가니 新作路 出役을 나가는 것이다. ...

◎ 4월 22일 (음 3월 8일) 토요일
... 朝飯을 마치고 마실로 건너가니 오늘 원뚝
머리 왜를 돌린다고 하여 아논 받원 논 작인드리
나가 왜를 돌리는데 종일 걸렸다. 안 나온 작인
도 있어 불만드리 있으나 일은 잘해 노았다.

◎ 8월 5일 (음 6월 24일) 토요일
新作路 出役. 食前 명석 몇 돌량 만들고 朝飯
後에 新作路 出役. 洞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많은 動員이 되었다. 별다른 대책도 없다. 軍政이
라 엄한 것을 各自 自覺한 관계다. 靑龍臺와 三
溪로 나누어 하여 나는 三溪에서 하고 일직 와 ...

◎ 8월 18일 (음 7월 8일) 금요일
... 食前に 앞다리를 洞里에서 修理하는데 갈
다. 食前に 남아 朝飯 後에도 한참이나 했다. 다
들 다 고치고 나니 ...

◎ 8월 25일 (음 7월 15일) 금요일

… 朝飯 後에는 洞里 治道를 했다. …

◎ 12월 19일 (음 11월 12일) 화요일

… 저녁을 먹고 다섯째 祖 家로 새끼를 꼬라 가 몇 발 꼬니 鍾소리가 요란히 나며 위마디[외마디] 소리에 튀어나 급히 나와보니 아버지 家에 불이 났었다. 8時 頃은 데엿을 짓, 사랑채가 불이 뱅돌고 안채 거느방[건넌방] 쪽에 불이 당기여 안채 건지기에 사랑채는 포기했다. 지붕을 찢러 냉기여 안채는 구급대였으나 사랑채는 완전 全燒시켰다. 11時 頃에 불을 다 잡고 나는 1時까지 순행을 도라 불이 더 날 곳을 보살피고 2時頃에나 곶이 아프고 해서 집에 왔다. …

◎ 12월 20일 (음 11월 13일) 수요일

前日 아버지 家 大火災로 因하여 종일 火災 뒤치닥꺼리를 했다. 안채도 다 헤이고 검불 재 등을 글저내고 울타리도 하고 오양간도 임시로 지었다. 洞里 사람이 모두 협조했다.

1962년

◎ 3월 14일 (음 2월 9일) 수요일 晴風

新作路 出力 高 農協 理事會, (….) 솟가 끝나 고선 三溪 新作路의 出力을 같다가 왔다. …

◎ 3월 17일 (음 2월 12일) 토요일 雲

沙防工事 出役, (….) 朝飯을 마치고 나니 鍾소리가 나서 가보니 오늘 沙坊工事員이다. 沙坊工事 高棧里 120정보를 하는데 2日식 부역을 하고 나머지는 有給으로 한다는 것이다. …

◎ 3월 27일 (음 2월 22일) 화요일 雲風

… 종일 하는 일 없이 놀다 高棧서 불이 났다고 해서 성급히 넘어가보니 秦浩 家 사랑채서 불이 났는데 바람은 심이 불고 洞里 사람은 모두 出役을 나가고 洞里가 비운데 불이 나서 걱정을 했더니 沙防工事하는 사람과 大谷 등이 한참만에 진압을 했다. 물의 보급이 잘 되어 별로 타지 않았다. …

◎ 4월 16일 (음 3월 12일) 월요일

… 불 났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다보니 致雨 家의 불길에 하늘을 뚫고 올라가 급히 올라와 불을 洞里 사람이 함께 모여 간신히 진화했다. 건너 방 잇는 곳의 지붕을 찢라내리었다. 저녁에도 우리 젊은 사람은 밤샘을 했다.

◎ 4월 17일 (음 3월 13일) 화요일 雨

… 朝飯을 늦게 먹고 前日 火災를 본 致雨 家에 가 일을 해주었다. 午後부터는 비가 쏘다져 못했다. 지붕도 해 다 미었다. …

◎ 9월 12일 (음 8월 14일) 수요일 雲

… 食前에 집안 清掃를 하고 朝飯 後에 오늘 治道한다고 해서 鍾소리를 듣고 한참이나 사람을 기다리었으나 한 사람 모이질 않아 그냥 도라와 일 좀 치우다가 건너가니 몇 사람 모이여 서둘러서 治道를 始作했다. 午後에 음물 일을 하고 나니 壹雨가 먼저 집으로 가니 모두 헤지고 마랐다. 동육굴 길은 우리 혼자 쓰는 길인지? 안 했다. 몇 10년을 내려오도록 하던 길인데 壹雨氏는 언제나 신통찮게 여긴다. 그러기로 말하면 나는 왜 저근너 가서 하로 종일 일을 했던 말인가. 같이 협조해서 治道를 해야할 것인데 이런데도 따지는 壹雨는 사람이 아주 세 못 데 먹었다. …

◎ 11월 22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洞里사람을 動員하여 아는 화죽고를 막고 와 좀 잇으니 …

◎ 12월 18일 (음 11월 22일) 화요일 晴

里事務所 及 방아간 집을 修理. 穀草 24束을 짓어 里事務所 及 방아간의 집웅을 해이었다. …

1963년

◎ 2월 12일 (음 1월 19일) 화요일 晴

… 朝飯食事を 하고 아는뚝이 물이 새여 洞里 몇 명과 같이 물을 막고 집에 와 …

◎ 3월 15일 (음 2월 20일) 금요일 晴

오늘도 便所修理하기에 해가 저물었다. 新作路

出役인데도 못 갔다. ...

◎ 3월 17일 (음 2월 22일) 일요일 晴

... 食事後에 鍾소리가 나 건너가보니 三溪 新浦間 新作路 出役 간다고 해서 點心을 싸갈고 出役에 나간다. 出役이면 動員이 잘 안 덴다고 不滿이 많다. 오늘도 鍾소리 난 지 3,4時間 後에 집에서 떠났다. 出役 간 우리는 자갈 몇 짐씩 지고 왔다. ...

◎ 3월 30일 (음 3월 6일) 토요일 晴

농꿀길 뚫다. 農路 확장. 오늘부터 농꿀 길마루를 짚아 굴을 파내기 工事が 始作했다. 다섯째 祖父 산主에 승낙을 얻어 朝飯食事 後부터 始作해서 첫날에 아래턱은 끝나치고 來日부터는 본격적인 工事が 될 것이다. 오늘 일한 것으로 보아 3,4日이면 될 상 십다. (...) 오늘 동원은 大休, 一雨, 敎雨, 둘째 祖父 일꾼, 나 등이 했다. ...

◎ 3월 31일 (음 3월 7일) 일요일 雲

農路擴張. 오늘도 농길 언덕을 나추기 일을 했다. ...

◎ 4월 1일 (음 3월 8일) 월요일 雲

農路擴張. (...) 오늘 감자 갈라 했으나 바람에 못 갈것어 농꿀 길 나추던 것 繼續했으면 했더니 모두 繼續하자고 해서 길 나추기 일을 했다. ...

◎ 4월 7일 (음 3월 14일) 일요일 晴

... 오늘 龍城里 新作路 出役이라고 해서 내가 모시고 新浦에 가 (...) 新浦에 가 出役 나오는 것을 기다리니 안 와 三溪까지 오니 三溪에 있어 같이 龍城里 出役을 같다. ...

◎ 8월 22일 (음 7월 4일) 목요일 雲 쏘나귀

농꿀길 修理. (...) 농꿀 마루길을 고치는데 비에 쪼끼여 드러와 點心後에 始作해서 5,6名이 대충 해 놓았다. ...

◎ 9월 5일 (음 7월 18일) 목요일 晴

洞里治道を 했다. 아주 시원찮게 하는 등 마는 등 하루해를 보냈다. ...

◎ 11월 19일 (음 10월 4일) 화요일

아논뚝 막다.(물꼬) (...) 靑年들과 아논 물꼬를 막고 ...

1964년

◎ 3월 11일 (음 1월 28일) 수요일 晴

... 마실 가보니 新作路 出役이라 해서 次後에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못가겠다고 했다. ...

◎ 3월 13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晴

... 12時 頃に 三溪 新作路 出役을 나간다. 나가보니 우리 구역에 다 해놓아 어이 된 것을 몰라 마차로 한 마차 돌을 실어다 피고 와 알아보니 區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里長의 실책이다. 전달을 잘못 전했다. ...

◎ 3월 14일 (음 2월 1일) 토요일 晴

... 新作路 出役을 갔다가 끝맛고 ...

◎ 3월 26일 (음 2월 13일) 목요일 風

食事 後에 마실을 가니 靑龍 新作路 出役이라고 한다. 나는 오늘 場에을 가야했는데 出役이라 安仲場을 보고 와 出役에 나갈라고 일직 떠났다. (...) 新作路 出役을 하고 나니 ...

◎ 4월 1일 (음 2월 19일) 수요일 晴雲

... 오늘 三德國民校 道路가 마당으로 나 있어 돌리는데 員役을 하라 가기로 한 날인데 날씨가 흐리고 해서 안 가는 줄 알고 가마니을 짚다.

◎ 7월 6일 (음 5월 27일) 월요일 雲

... 오늘은 海岸哨所 修理한다고 공일로 定했다. 午前에 앞 달땡이를 매고 哨所을 修理하러 갔더니 별로 修理할 곳이 없이 밀집을 것이 받을 처 두르기로 하고 밀집을 것이 찼다. 修理費로 나온 돈으로 술과 닭갈 잡아 먹었다.

◎ 8월 4일 (음 6월 27일) 화요일 晴

...洞里 前에 다리를 고친다고 모여 나도 했다. 朝飯食事 後에 三德國民校에 運動場 확장하고 길을 돌리는데 出役 次 三溪에 나가다. 일이 끝나고 午後 5時 頃 와 풀을 비었다.

◎ 8월 8일 (음 7월 1일) 토요일 雲 쏘나귀

事業所 왼쪽 트지다. 食前에 妻가 급히 깨우는 소동에 일어나니 앞 왼쪽이 터트리였다. 왼쪽의 물이 냉겨 배끼니 큰일이다. 급히 뛰여가니 도저

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발원 뚝을 막는 데 協助했다. 朝飯 後에 원뚝막는 데 갈라고 했더니 쏘나귀가 쏘다지기 始作해서 물소동이 났다. 10時 頃에 궁급하여 點心을 먹고 원뚝 터진데 가서 보니 아주 위험천만 곳이 말이지 아니다. 來日 날이 문제다. 高棧 兩 事業場 大谷 等 50명이 했으나 반도 못했다. 밤일 끝나고 집에 오니 12時다.

◎ 9월 15일 (음 8월 10일) 화요일 雲

出役을 11時 頃에야 出發해서 靑龍部落에 道路作業을 하고 왔다. ...

◎ 11월 13일 (음 10월 10일) 금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에 아는 뚝을 몇이 막고 ...

1965년

◎ 2월 28일 (음 1월 27일) 일요일

... 鍾소리가 나 가보니 舍廊을 해이운다고 영을 짓었다. ...

◎ 3월 23일 (음 2월 21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마실을 가니 오늘 肥料도 가져올 겸 新作路出役도 할 겸 가자고 해서 (...) 新作路出役을 나가 일하고 ...

◎ 3월 28일 (음 2월 26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마실을 가니 오늘 新作路 出役이라고 해서 그냥 떠났다. 靑吉里 가서 2時間가량 일하고 집에 오니 下午 5時 頃이다. ...

◎ 7월 29일 (음 7월 2일) 목요일 雲

海일로 원뚝 터짐. 大谷 洞리에 큰 不幸이 님아왔다. 妻가 급히 부르는 소리에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일어나 보니 태풍과 함께 바닷물이 해일해서 事業所(難民) 원뚝이 물이 넘치기 始作하고 있다. 나는 급한 거름으로 농꿀로 뒤여가 보니 아번님이 水門을 막고 있어 앞 원뚝으로 와 터논 데을 막고 있으니 물은 사업소 원뚝을 사장없이 넘기 始作 터지고 아주 말할 수 없이 밀려오고 있다. 삼시간에 물은 닻아 와 아논으로 닻아 왔다. (...) 難에 難을 거듭 鹽倉庫에서 불려온 空吹

영가닥 등으로 터지진 안았으나 물은 많이 넘어왔다. 危險을 면하고 집에와 보니 앞은 물이 집압까지 닻아왔다. 큰 不運이 왔다. 참으로 볼 수 없는 짓이다. 하늘도 참으로 야속하다. 도랑원 저 붕굴 高棧앞 등 모두 터졌다. 朝飯食事 後에 농꿀 원뚝을 손질했다. 종일 吹 떠밀린 곳으로 급한 곳을 7,8명씩 손질했다 밤늦도록 했다. ...

◎ 7월 30일 (음 7월 3일) 금요일 晴

前일 밤을 새웠것만 오늘을 잘 겪어야만 살게 되었다. 일직 일어나 앞 원뚝 막은 델 같다. 夜役으로 앞 원뚝도 막았다. 물은 前日과 같이 들어왔으나 바람이 안 불어 危險을 모면했다. 朝飯食事 後엔 자리에 들어 잠을 자 12時 頃에 일어났다. ...

◎ 7월 31일 (음 7월 4일) 토요일 晴

앞 원뚝에 水門을 논다고 한편 노깡을 사라가고 한편 원뚝을 비기로 했다. 下午까지도 사람이 동원이 안 되었다. 참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 座食하자는 心事일까. 4명이 하자니 氣分도 안 난다. (...) 저녁을 먹고 水門 놀 노깡이 到着되어 夜役을 했다. 밤 2時 頃까지 했으나 水門을 높이 놓아 현 일을 했다. 마음도 안 맞고 動員도 안 되고 하니 도급을 주기로 했다.

◎ 8월 2일 (음 7월 6일) 월요일 晴

前日 맺긴 水門工事は 안 한다고 포기하여 洞里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 찰라 놓고 그만 두어 오늘 또 개물을 드리였다. (...) 급히 서둘러 7명이 늦게야 끝냈다.

◎ 8월 31일 (음 8월 5일) 화요일 晴

... 오늘이 三溪 新作路 出役인데 여기 일 때 매 늦게 가고 또 일직 갔다 집에 와 보니 안 왔다. ...

◎ 9월 4일 (음 8월 9일) 토요일

오늘이 學校理事會에 나갔다. (...) 會가 끝나고 선 新作路 出役을 했다.

◎ 9월 8일 (음 8월 5일) 금요일 雲晴

今年 洞里 治道을 했다. 今年은 잘 했다.

◎ 9월 9일 (음 8월 6일) 토요일 雲

高棧精米所에서 車로 運搬해서 搗精을 할라고 高棧 앞으로 新作路를 막았다. 草名村 大谷 原 高棧 三洞里가 오늘 길 닦았다. ...

◎ 11월 8일 (음 10월 16일) 월요일 雲

... 바다에 갈다 와서 洞里民들을 動員하여 아는 화죽꼬을 막았다. 거이 다 막을 무렵 쏘나귀가 또 나리어 중지하고 마랐다. 共同에 關係되는 일이라 모두 방관심이 많다. 앞으로 걱정之事.

◎ 11월 9일 (음 10월 8일) 목요일 晴

食前 일직 일어나 哨所 주변에 호을 파라는 上部 지시에 依해 일직 서둘러 파고 朝飯食事を 늦게 했다. 完了식하지 못해 午前 中한다고 했다. ...

◎ 11월 18일 (음 10월 17일) 토요일

... 집에 와 哨所에 호을 파라 가는데 같섰다. ...

1967년

◎ 3월 28일 (음 2월 18일) 화요일

朝飯食事後에 마을에 가니 新作路 出役이라고 해서 出役을 같졌다. ...

◎ 7월 11일 (음 6월 16일) 목요일 晴

朝飯末을 받고 있으니 원뚝이 터졌다고 하여 급히 농꼴로 뛰여가보니 취水門 자리가 터졌다. 안원뚝에는 지장이 없으나 오늘 중으로 막아야 된다. 朝飯食事を 하고 가보니 인원이 많이 動員이 되었다.

◎ 9월 8일 (음 8월 5일) 금요일 雲晴

洞里 治道. 今年 洞里 治道を 했다. 今年은 잘 했다.

◎ 9월 9일 (음 8월 6일) 토요일 雲

高棧精米所에서 車로 運搬해서 搗精을 할라고 高棧앞으로 新作路를 막았다. 草名村 大谷 原 高棧 三洞里가 오늘 길 닦았다. ...

◎ 12월 10일 (음 10월 21일) 화요일 雲

... 오늘 洞里 분들이 아는 물꼬을 막는 데 같이 막고 와 ...

◎ 12월 20일 (음 11월 1일) 금요일

... 날씨가 어둡어오니 날씨가 더욱 험악했다. 술을 먹고 있으니 급한 鍾소리가 나 나가보니 海湓로 앞 원뚝이 터졌고 급히 집[짚]을 깔고 농꼴 원뚝에 갈다. 아직 물이 올라오지 않아 원뚝 水門을 막고 앞 큰 원뚝에 오니 물꼴이 돌아 水門으로 물이 올라왔다. 대충 막았으나 제대로 못 막아 물이 제법 많이 드러왔다. 날은 어둡고 물은 많고 해서 집에 왔다가 밤에 洞民들이 원뚝에 나가 급한 대을 손질하고 드러왔다.

1968년

◎ 4월 15일 (음 3월 18일) 월요일 晴

新作路 出役에 집이 비우게 되어 소를 내보냈다. 집에서 가마니을 몇 짝 꼬매었다. 出役 나 같은 소는 저녁을 데색길 정도로 힘이 든 모양이다.

◎ 9월 13일 (음 윤 7월 21일) 금요일 晴

... 좀 있으니 洞里 治道を 한다고 鍾을 쳐 우리는 소을 내 보내고 學校의 舍에 參席했다. ...

1971년

◎ 5월 18일 (음 4월 24일) 화요일 晴

食前に 들을 一週하고 농꼴 가 일꾼을 알아보니 20日 頃에 일꾼이 된다고 한다. (...) 洞里 앞 役事라고 食前에서야 알았다. 못 나갈 형편이다. 一金 400원 하루 품값을 냈다.

◎ 9월 4일 (음 7월 15일) 토요일

... 도라오니 洞里 沿道を 한다고 한다. 같이 하고 午後에 우리 집 압으로 해 오는데 敎雨가 反對議事다. 德雨와 敎雨는 안 해왔다. 自己가 通行치 않는다고 늘 反對을 한다. 氣分이 나빴다.

◎ 9월 22일 (음 8월 4일) 수요일

道路 出役. 저녁 늦게야 집에 왔다.

1972년

◎ 1월 30일 (음 12월 16일) 일요일

朝飯食事 後에 高棧가 도자가 오늘 中으로 오겠느냐고 하니 午後에 오겠다고 하여 몇 사람을 動員하여 따비 이를 곳의 나무를 비였다. 작은아번님을 비롯 裕浩 基植 範植 兄弟 德雨 轍雨 敦植 致雨 等이 나무를 비였다. 午後 4時부터 우리 일꾼 님은 것을 約 1時間 하고 따비 이르는 것을 4時間 하니 저녁 8時라 中止하고 來日하기로 했다. 저녁 대접(4名分)하고 2名은 우리 집에서 잤다.

◎ 2월 2일 (음 12월 18일) 수요일

... 농꿀 길을 뜯으라고 농꿀 作人들이 議論이 되었으나 아버지 한 사람 반대하여 못하게 되었다. 농꿀 作人 모두 대찬성으로 나오고 있으나 아버지는 극구 反對하여 도자를 불렀다가 보냈다.

◎ 6월 12일 (음 5월 2일) 월요일

... 꼬추 모종을 같이 하고 동육꿀 沿道했다. ...

◎ 7월 16일 (음 6월 6일) 일요일 雨

朝飯을 마치고 밀그루밭 골을 타고 동육꿀 길(道路)을 넓히고 나니 ...

◎ 8월 4일 (음 6월 25일) 금요일 폭우

... 午後엔 농꿀 洪明勳家 前 왜뜯이 터져 가서 協助했다.

◎ 9월 15일 (음 8월 8일) 금요일 晴

午前中 동육꿀 길 治道. ...

◎ 9월 24일 (음 8월 17일) 일요일 雲

食에 농꿀길을 아번님 壹雨 敏雨 然雨 等과 같이 治道を 해 9時에 끝났다. ...

◎ 9월 25일 (음 8월 18일) 월요일

三溪 新作路 出役. 里長이 몇 차례 動員 끝에 몇 사람이 出役을 나간다. 참으로 洞里 일보기힘이 들 동리다. 오다가 里長이 술 半 통을 받아 먹고 轍雨가 정종을 받아 술을 먹었다.

1973년

◎ 3월 3일 (음 1월 29일) 토요일 晴

새마을 事業始作. 前夜 洞會에서 決定한 대로 새마을 作業時間은 모두 엄수했다. 결석은 不得히 3名이었다. 가드랑재부터 始作해서 約 40m 가량 했다. 모두 부지런히 했다. 모두 젊은 사람이고 老人이 큰아번님뿐이다. 마음이 안되었었다. 生똥갈에선 가시라고 했으면 했으나 나로서 어찌 할 수 없다. 下午 5時까지 하기로 했으나 7時까지 연장했다. ...

◎ 3월 12일 (음 2월 8일) 월요일

洞里人 半을 나누어 作業을 始作 오늘부터 양회사업을 始作했다. 教雨氏 家 앞 축대를 쌓았다. 郡 새마을 指導課長과 副面長이 訪問했다. ...

◎ 3월 14일 (음 2월 10일) 수요일

教雨氏 家 前 下水口 새마을事業은 오늘로 끝났다. 教雨氏의 웅고집에 모두 말을 못하고 뒤에서만 말이 많다. 저녁에 指導者가 솥을 부쳐 모이었는데 모래차가 와 모래를 풀라갈다. ...

◎ 3월 15일 (음 2월 11일) 목요일

오늘은 30分을 앞당겨 새마을作業을 始作했다. 共同食水 修理 하기로 하여 交代로 하던 作業을 總動員하여 기이 끝냈다.

◎ 3월 19일 (음 2월 15일) 월요일

소방 차고를 지을라고 기초를 오늘 했다. 그리고 敦植 家 마당 앞을 양고(암계)를 묻었다.

◎ 3월 28일 (음 2월 24일) 수요일

새마을사업의 일을 시켜놓고 집일을 치우기로 했다. 하루는 지도자가 하루는 里長이 맡아 격일제로 하고 있다. 오늘 작업사항은 빨래 음물이다. ...

◎ 4월 6일 (음 3월 4일) 금요일

오늘은 部落의 男女總動員하여 婦女子는 苗木을 심고 몇 명은 뒤치다꺼리를 하고 양고를 놓았다. ...

◎ 4월 29일 (음 3월 27일) 일요일 晴

새마을事業을 했다. 本 部落표시와 스라부지봉의 틀을 짰다. ...

◎ 4월 30일 (음 3월 28일) 월요일 晴

洞民들이 總動員되어 3名 스라부를 하고 午前 中 午後엔 洞里의 治道을 했다. …

◎ 7월 14일 (음 6월 15일) 토요일 雲 쏟아귀

來日이나 出役을 갈라고 했으나 지도자가 今日 하자고 하여 動員하니 6名이 가서 하는 등 마는 등 했다. 술과 점심을 대접하고 …

◎ 8월 13일 (음 7월 15일) 월요일

일직 始作해서 洞里 治道을 했다. 날씨 가물어 흙을 파낼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못했다. 술 한통과 소주 2병을 사다 먹고 점심은 우리 집에서 국수를 대접했다. 洞里 안길은 食前에 몇 일 하여 아주 쉬웠다.

◎ 8월 31일 (음 8월 4일) 금요일

몇일 동안 教育을 받고 오니 일은 물리었으나 별로 한 일 없이 해를 보냈다. (….) 洞里의 堆肥場을 도라보았다. 거이 袖手傍觀이다. …

3. 마을 문화

1959년

◎ 1월 6일 (음 11월 27일) 화요일 晴

… 夕飯食事は 아버지 家에서 해서 洞里 사람이 같이 먹었다.

◎ 2월 9일 (음 1월 2일) 월요일 晴

… 집에 와 洞里 어른들을 오시라 해서 국과 술을 대접했다.

◎ 3월 9일 (음 2월 1일) 월요일 晴

… 炳烈君 軍入隊 위문금을 걷기로 해서 白米 1戶當 2升을 걷어 도합 3斗 一金 千圓을 一斗 술 하기로 하고 2斗 2仟圓을 샀다. 전부 숨해서 一金 4,000원인 것이다. …

◎ 3월 16일 (음 2월 8일) 월요일 晴

… 炳烈君 入營하는 데 旗 等を 내가 쓰고 또 차안환송하는 뜻의 글귀를 새겨, 전송 길에 입대하는 당사자의 어깨에 걸어주던 것]도 한귀 쓰

였다. 전송을 하고 집에 와 …

◎ 5월 13일 (음 4월 6일) 수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마을 가 澈雨 軍人을 지원해서 쉬일[수일] 간다는 말이 들리어 前次 洞里 예가 있어 靑年들에게 말하여 一金 1戶當 200圓 식 德雨가 代表로 걸었다. (….) 澈雨가 떠나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하며 집안 식구도 모르게 해서 돈도 못 주어 未安해서 仁休氏에게 말하니 來日 간다고 해서 그리 傳하기로 했다. (….) 버랑간[별안간] 떠나 송별회식도 못 했다.

◎ 6월 30일 (음 5월 25일) 화요일 雲

… 우리 일인고로 일직 들로 가서 (….) 일꾼 5名이 두벌을 다 매고 사랑모둥이 받을 땀다. 집에선 동리어른들을 차려 드렸다. …

◎ 7월 9일 (음 6월 4일) 목요일 雲

술을 많이 먹고 나서 炳均과 安雨가 싸우고 동리가 소란하게 왁자지껄 야단이 나고 동리사람을 다 쓰러 놓고 申가 놈을 처넣고 싸워 눈꼴이 시여 못 볼 지경이다.

◎ 9월 18일 (음 8월 16일) 금요일 雲

… 三德國民學校 運動會라 洞里가 다 풀려가 다시피 했다. 나는 집에서 잇기로 하고 妻와 春子を 보냈더니 妻는 바로 왔다. (….) 동리 청년이 늦게까지 안 와 웬일인가 했더니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또 매는 독차지를 하니 썩은 정신 청년이 또 싸움은 빼놓지 안 으니 한심지사.

◎ 9월 19일 (음 8월 17일) 토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갈다가 炳賢君 軍入隊 慰門品을 우리 집에서 洞里 靑年이 다 모이여 만들고 술 한 잔씩을 대접해서 午後에 헤어졌다가 또 炳賢 家에서 또 술 점[점] 먹고 下午 늦게는 다섯재祖父 家에서 술을 내서 다섯재祖父께서 洞里실정의 말씀과 우리 洞里 靑年의 할 바를 의논했다. …

◎ 9월 20일 (음 8월 18일) 일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나니 북소리 나서 건너가니 오늘 炳賢君이 入營日字라 모이라는 북소리. 건

너가서 炳賢 家에서 술 소주 몇 잔 마시고 떠나는데 같이 三溪까지 나가고 타 靑年들은 新浦까지 나가 傳送하고 도라왔다. ...

◎ 10월 28일 (음 9월 27일) 수요일 晴

... 둘째祖父 生辰이라 동리 사람 전부 朝飯을 하고 일꾼도 일동이 가서 먹었다. ...

◎ 11월 1일 (음 10월 1일) 일요일 雨

... 둘째할머니네 집에서 오라 해서 가보니 인절미(떡)를 해서 洞里 靑年을 대접했다. 오늘 食前に 벼 떨어지고 한 것이다. ...

◎ 11월 3일 (음 10월 3일) 화요일 雲

... 食前부터 10時 頃까지 둘째祖父 家 벼 홀터 드리었다. 동리 청년 거이 다 협조했다. ...

1960년

◎ 1월 23일 (음 12월 25일) 토요일 晴

... 마실 갈다가 올 정월에 親睦 男女 擲樞大會를 연다고 戶當 몇 푼씩 받아 물품을 사기로 해서 나도 三百환 낸다고 하고 알아보았다. 내가 推進하는 고로 남달리 냈다.

◎ 1월 26일 (음 12월 28일) 화 晴

... 今年 部落 歲時大會를 연다고 一金 4,000 환을 받아 가지고 安仲場에 가서 農具와 남비 등을 사왔다. ...

◎ 2월 1일 (음 1월 5일) 월요일

... 夕飯 後에는 洞里 靑年들을 모아 來日 行事의 대한 의논을 했다.

◎ 2월 2일 (음 1월 6일) 화요일 雲

일찍[일찍] 朝飯을 마치고 마실 건너가 오늘 部落男女擲樞大會의 準備를 하기에 주선하였다. 북을 울리게 하고 옷과 옷판 場所 가마니 등을 準備가 다 되고 靑年들에게 농악을 울리게 하고 8시부터 始作하였다. 1戶當 標 8장 2人を 기준으로 해서 일명 증가하는데 1標식 더 주었다. 나는 1回戰에서 4標中 3표 떨어지고 女子 標 2당 午前에 1會戰이 끝났다. 2회에 가서 올라가 3

회에 떨어졌다. 男子 중 1等 悠雨 삼(500환) 2등 낮 성량[성냥] 1통(400환) 德雨 3등에 소시랑(300) 上植 4등에 호미 200환 寬植 5등에 쓰레바기 석량[성냥] 한 통 敦植 等外에 석량 1통 반씩 동리 일대에 주었다. 오늘 행사에 다 잘 되었으나 언제나 말썽거리인 큰어머니가 장내를 흐리게 하고 주선하는 사람을 흔들고 또 동리 사람의 氣分은 좋지 않게 하였다.

◎ 3월 27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 세재祖父 生辰日이라 朝飯을 세재祖父 家에 가서 했다. 今年 처음으로 生辰을 차려 洞里 사람을 청했다. ...

◎ 6월 17일 (음 5월 24일) 금요일 雲

... 설 참에 孟植과 炳殷이 눈에 가 물든 것을 보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섭섭다 하니 섭섭할 게 무어나고 하다가 싸와 炳殷이 아프다고 병원에 入院차 떠나갔다.

◎ 6월 18일 (음 5월 25일) 토요일 雲

... 前日 炳殷과 孟植과 싸워 炳殷이 숨을 떨고 新浦 安仲을 제쳐놓고 平澤으로 가 病院에 入院하고 告訴를 한다는 말을 드렸다. 洞里之間에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사러가며 싸우는 수도 있지 그랬다고 告訴를 한다는 것은 아주 원수로 살자는 것이다.

◎ 6월 19일 (음 5월 26일) 일요일 晴

... 저녁에 큰아버지 등에 모여 孟植에 대한 議論했으나 잘못 없이 상호 싸우다가 맞고 치다가 한 일을 고소가 무슨 고소냐고 펄펄 뛰시며 사과 무슨 사과냐고 할대로 하게 내버려두라고 역정을 내시었다. 생전 척지고 살아보재?

◎ 6월 21일 (음 5월 28일) 화요일 雲晴

食前に 孟植이 와 議論하고 오늘 炳殷이를 보러 가기로 하고 不如意하면 平澤 나가 告訴事件이 어찌 되었는가 알아보고 행동을 취할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오늘 나는 쉬는 날인데 孟植을 平澤을 보내고 내가 대신 일을 같다. 종일토록 氣分이 좋지 않다. 洞里 이웃之間에 너무 한 것이다.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녁에 왔는데

같다운 孟植의 말에 依하면 화해될 듯 말 하나
분괴심은 가시지 않는다. ...

◎ 6월 23일 (음 5월 30일) 목요일 晴

... 孟植이 平澤을 갈다 왔다. 告訴를 해서 公
檢察로 넘어가게 된 것을 三萬圓 주기로 하였다
한다. 매 한 대 맞고 돈 3萬환씩 타먹는 人間이
동리 이웃지간에 있으니 어디 두고 볼 일. 하기
야 우리를 우습게 본 것만은 사실이다. 우습게
보인다. ...

◎ 6월 24일 (음 6월 1일) 금요일 晴

... 저녁에 高棧 那均과 炳均이 싸우는데 동리
사람 모두 那均의 편을 들었다. 싸움이 더 계속
되었으면 炳均이는 많이 까졌을 것이다.

◎ 6월 26일 (음 6월 3일) 일요일 雨

... 孟植과 炳殷이 싸움 告訴事件의 오늘 召喚
狀을 받았다. 그날 일 같던 사람만 이상이[이상
히] 오라는 것이다.

◎ 6월 27일 (음 6월 4일) 월요일 雲雨

... 朝飯도 안 먹고 모 구하러 다니다가 平澤
나갔다. 平澤 나가니 배가 고파 點心을 사 먹고
ঝ에 가서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도라왔다. 炳殷
이를 찾아보고 謝화를 요하니 35,000환을 주기로
하고 거이 사화에 가까웁게 하고 왔으나 꾀심
하기 짝이 없다. 동리지간에 싸우다가 돈 무려주
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는 어이
되던 간 平澤에 나간 것이다.

◎ 6월 29일 (음 6월 6일) 수요일 雲

... 모를 막 짤라니 孟植 와 平澤을 갈다 오라
고 해서 집에 와 옷을 입고 所長이 平澤을 가야
돈이 된다 해서 所長 家에 가 있다가 下午에나
간다 해서 기다리다가 來日 가자고 해서 도라왔
다. 취하가 잘 될 것인지? 炳殷이 하기에 달린
것인데 잘 안 되면 헐 수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

◎ 6월 30일 (음 6월 7일) 목요일 雲

... 일직 쓰리고 朝飯을 마치고 농꼐 所長과 平
澤을 나갔다. 所長이 三時頃에 나 돈이 된다고 하
여 25,000환을 所長이 炳殷에게 주기로 하고 炳

殷에게 가서 謝화를 하고 取下申請을 곳 드리게
하고서 來日 퇴원하기로 하고 路資 500환을 주
고서 敏烜氏 家에 들렀다가 곳 도라왔다. 一金
四萬圓이 싸우다 물게 되니 어이가 없다. 告訴가
成立되는 것보다는 나으나 洞里之間에 너무하다.

◎ 7월 14일 (음 6월 21일) 목요일 雲

... 夕飯 후에 青年들이 모여 尹서방의 집 洞里
基金 260환 있는 것을 받으러 갈다가 언성이 높
을 程度로 하고 왔는데 큰어머니가 대들어 우리
형제를 못 먹것다고 하며 尹서방 家 역성을 들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큰소리를 좀 했다. 洞里
一代가 적대시하고 있는데 큰어머니라는 자가
尹서방 편의 말 하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 7월 25일 (음 윤 6월 2일) 월요일 雨

... 비도 오고 날도 좋지 않아 동리 청년들이
모이여 술을 먹었다. 합해서 술과 국수 2,500
환어치를 우리 집에서 해내느라고 한참 분주했
다. ...

◎ 8월 22일 (음 7월 1일) 월요일 晴雨

... 炳殷이와 孟植이 싸운 것이 取下가 안 되었
는지 來日 오라고 召喚狀이 왔다.

◎ 8월 23일 (음 7월 2일) 화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 孟植이 平澤 나가는데 옷을
주고 종일 놀다가 孟植이 平澤에서 늦게 도라왔
는데 炳殷이 取下申請을 드리지 않아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氣分이 나빠 炳殷이 보고 말하니
사실이 取下申請을 드리지 않은 것이 확실하여
取下하기로 돈 받고 取下를 앓은 법이 어데 있느
냐고 하고 오니 孟植을 어이하던지 구해놓고 보
자는 文義에서 敎雨叔이 가서 사과시키어 來日
平澤에 가기로 되었는데 저녁사이에 어이 마음
이 돌지나 앓을는지?

◎ 8월 24일 (음 7월 3일) 수요일 晴

孟植과 炳殷 問題를 解決을 지으러 平澤에를
나간다고 朝飯食事を 하고 떠났다 한다. ...

◎ 8월 25일 (음 7월 4일) 목요일 晴

... 孟植이 증인으로 敎雨叔이 平澤에 갈다왔
다. 모든 것이 잘된 것 같다고 한다. 이번 孟植

일에 敎雨이 많은 심을 썼다. ...

◎ 9월 9일 (음 7월 19일) 금요일 晴

... 앞 다섯째祖母 家 창개를 전부 털어갈다 하니 이거 어디 마음 놓고 살 수 있나? ...

◎ 9월 26일 (음 8월 6일) 월요일 雲

... 孟植이 炳殷과 告訴事件이 取下가 안 되었는지 相互간 사과는 되었는데 水原檢察廳에서 召喚狀이 왔다.

◎ 9월 28일 (음 8월 9일) 수요일 雲晴

... 孟植이 水原支廳에서(法院) 召喚당하여 오를 떠났다. 炳殷과 싸운 관계件.

◎ 9월 29일 (음 8월 10일) 목요일 雲

... 孟植이 水原에서 왔나 夕飯을 마치고 올라가보니 왔다. 不 기소로 각하되어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작근아버지가 水原에 있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한다. 허기야 별 문제 없는 것이지만 혹여나 했더니 잘 되어 좋다. 그 관계로 종일 일이 안 잡히고 해서 종일 왔다 갔다 해를 보냈다.

◎ 11월 8일 (음 9월 20일) 화요일 晴

朝飯을 하고 있으니 春子が 음물에 갔다오더니 아버지 家 裁縫을 잊어버리었다 한다. 우리 洞里에 前例없는 盜難事件이다. 이것은 그 집 실정을 아는 洞里 사람이 아닌가 生覺이 된다. 朝飯을 마치고 아버지 家에 가보니 울타리가 아주 허수룩하다. 집단속을 단단히 해야지 마음 놓고 살 수 없이 되었다.

◎ 11월 13일 (음 9월 25일) 일요일 晴

高棧 작근집 잔치(福植)의 관계로 妻와 春자가 高棧 가 있기에 종일 집 보았다. 전에 같으면 집단속이 과히 하지 않겠지만 아버지 家 盜難으로 집의 관심이 커지었다. ...

◎ 送年後感

... 孟植과 炳殷이 말다툼으로 인해 싸움이 되어 警察署에 왔다 갔다 하게 되어 가당찮은 치료비를 물게 되었다. 상처도 없는 싸움을 승을 떨어 좋게 해결되게 하기 위해 一金 五만圓을 주고 원수가 되다시피 했다. 이것은 洞里 사람들이 다분히 여기어 우리 申서방과 원수가 되었다. 싸움

했다고 전쟁질이란 前無後無한 일이었다. 결국 그리 되어 윤서방은 이 동리에서 대대손손 내려오다가 일시 잘못 生覺이 되어 이 동리를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되지 못한 炳殷의 짓이었다. 또 한 가을에 아버지가 裁縫을 도난당했다. ...

1961년

◎ 1월 12일 (음 11월 26일) 목요일

... 夕飯 後에는 마실을 갈까하다가 마실방도 변변치 않아 일직 자리에 드렸다.

◎ 2월 10일 (음 12월 25일) 금요일

... 洞里 靑年들이 舊正에 친睦의인 擲柶大會를 論議했으나 나는 그리 추진을 안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쓸데없이 연설을 하는 사람 무슨 꼬토리를 잡아 시비할랴고 또 나를 험 못 잡아 못 건디는 큰어머니 꼴 보기 싫은 관계.

◎ 2월 27일 (음 1월 13일) 월요일

... 洞里 靑年들이 공의가 된 보름달 동리 親睦 擲柶大會를 한다가 오늘 暗植과 上植과 함께 新浦로 물품을 사왔다. 鐵物로 약 3,000환어치를 해와 下午에 擲柶券을 만드려 써놓고 왔다. 婦人들도 함께 하자는 파가 있으나 나는 反對다. 물론 좋은 말이다. 허나 좋은 雰圍氣로 만든 것이 결가[결과] 좋지 않으면 주선 안 한 것만도 못하다.

◎ 3월 1일 (음 1월 15일) 수요일

... 洞里에서는 三日節과 舊正月 보름을 기해서 조그마하게 擲柶大會를 어렸다. 나는 종일 本部席에서 記錄하다가 잘 놀지도 못했으나 한 장이 결승전에서 단 나 하나 떠러지고 마랐다. 高棧서도 몇 명 너머 왔다. 3,000餘圓치가 5,000여원어치가 나왔다.

◎ 3월 8일 (음 1월 22일) 수요일

食前에 자리에 있으니 妻가 누가 나무동을 저갈다고 야단을 하고 급히 나가보니 사랑모텅이 쌓은 나무동 3동을 저갈다. 어리로 갈나 찾아보

니 동옥골로 가서 보니 동옥골 가서 다시 묵어지고 돌팍지로 공동묘지 쪽으로 흘러며 같으니 三溪로 간 것이 틀림이 없다. 아주 氣分이 덜 좋다. ...

◎ 3월 16일 (음 1월 30일) 목요일

... 高棧 작근집은 레디오를 잊었다 한다. 福雨氏 家에서도 同用 자전거를 잊었다 한다. 이거 점점 험해지는 인심. 前에 없는 도난이 심해지니 마음 놓고 살 수 없게 되었다.

◎ 4월 20일 (음 3월 6일) 목요일

... 논에서 도라오니 노리를 가자고 하기에 옷을 가라입고 會費 五百圓을 갖고 쪼차가니 洞里 靑年들이 전부 같다. 노리가기로 몇일 前부터 버르다가 오늘 떠나기로 되어 느트리로 갔었다. ...

◎ 5월 1일 (음 3월 17일) 월요일

... 柱雨氏 家 새올리는데 같섯다. 洞里 젊은 사람은 거이 다 모여 종일토록 영을 엮어 가지고 다 올려주었다. ...

◎ 7월 29일 (음 6월 17일) 토요일

초소 순경과 송별주 교환. (...) 午後에는 悠雨가 와서 초소에 나온 순경들이 몇일 잊으면 간다니 술이나 같이 나누자고 해서 전내가 소주 三병 (정종병)과 꿀디이 3사발을 두루치기 해놓고 7명이 같이 노랐다. ...

◎ 8월 24일 (음 7월 14일) 목요일

... 워낙 사이도 좋치 않지만 참외를 놓고 洞里를 다 도르고 우리만 빼논 몽양인 壹雨 家의 데지 못한 人間 차별이 우수광스럽다.

1962년

◎ 4월 20일 (음 3월 10일) 금요일 晴

食前에 들에 가니 오늘 꽃노리를 가자고 하여 가기로 하였다. 오늘 어른들과 함께 가자고 해서 급히 會費를 걷고 準備에 한편 新浦로 술을 가질라 가고 一畔 바다로 生鮮을 사라 보냈다. 10時

頃에 出發하여 飛野木으로 가서 놀다왔다. ...

◎ 9월 13일 (음 8월 15일) 목요일 雲

秋夕 名節 (...) 午後엔 술 조사가 왔다고 야단 이더니 午後엔 中靑年들이 한데 어울려 農樂을 울리고 술덜을 저녁 늦도록 먹었다. ...

1963년

◎ 1월 7일 (음 12월 12일) 월요일 晴

... 夕飯食事を 하고야 안방에서 새끼를 꼴라니 어린 것들이 성가시게 굴어 성가시라 마실방이나 공방이 있어야 집일하기에 편리한 것인데 적당한 곳이 없어 집일하기에 不自由스럽다. ...

◎ 1월 9일 (음 12월 14일) 수요일 晴

... 마실에 空房이 없는 고로 집일 하려갈 곳이 마땅치 않아 좁은 집 방에서 일을 한다.

◎ 1월 10일 (음 12월 15일) 목요일 雪雲

... 마을 방으로 갈까 하다가 날씨 차겨웁고 해서 안방에서 새끼 한 사리를 ...

◎ 1월 26일 (음 1월 2일) 토요일 晴

오늘 젊은 사람들과 몇태만에 排球을 해보았다. 11時 頃에 農樂을 갖고 술을 얻어먹으려 다니는데 ...

◎ 1월 27일 (음 1월 3일) 일요일 晴

오늘도 農樂을 갖고 술과 떡국을 얻어먹으며 해를 보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 술이 만취하여 농약에 손을 대고 하여 옥신각신하고 또 더 놀자는 패와 날도 저물었으니 그만 두자는 패로 갈리게 되어 悠雨가 장고를 부는 대 대해 일대 술라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와도 십이를 걸어와 큰소리를 하게 되었다. ...

◎ 1월 31일 (음 1월 7일) 수요일 晴

... 술과 국수를 나누고 羅刑査를 오라고 했다. 羅刑査는 나와 막역한 사이고 우리 洞里에 와서 6個月間 海岸 경비를 해서 잘 아는 사이다. 술을 같이 나누고 난 後에 羅刑査는 우리 洞里에서 잊혔든 겸손한 태도는 없어지고 해서 아주 미안

했다. 巡警이란 것이 본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

◎ 2월 18일 (음 1월 25일) 일요일

… 妻가 나갔다 오더니 顯雨氏 집 재목 실는데 洞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여 나도 건너가 저다 즐라고 건너갔다니 …

◎ 5월 7일 (음 4월 14일) 화요일 晴

… 來日 洞里婦人(젊은)들이 놀이 간다고 우리도 떡을 해서 먹었다.

◎ 5월 8일 (음 4월 15일) 수요일 晴

… 오늘 洞里 젊은 婦人들이 놀이를 간다고 서둘러 朝飯食事を 일직 했다. 妻는 어린 것들을 모두 데리고 떠났다. (….) 우리 靑年들도 놀라간다고 한다. 德智寺로 가 놀다왔다고 한다. …

◎ 5월 9일 (음 4월 16일) 목요일 晴

… 來日 놀이를 간다고 쌀과 돈을 것었다. 會費 70원과 쌀 1升. 술을 받으러 新浦에 悠雨가 나갔더니 支署에서 술을 大 1斗를 디려 보내여 2斗를 갖고 왔다. 저녁엔 來日 회선을 갈 會를 했다.

◎ 5월 10일 (음 4월 17일) 금요일 晴

회선놀이 늦터리 절. (….) 일직 들을 一週하고 6時 30頃에 모여 7時 頃에 出發. 배를 타고 느티리로 떠났다. 사공이 없이 原木 배를 얻어 갖고 떠났으나 바다가에 사는지라 모두 노와 돛을 열리고 1時間도 될까 말까 해서 느티리 절에 到着했다. 遠井里 가서 강다리 펄에 가 접으래기를 사 갖고 회선을 했다. 다른 고기는 없고 해서 회선의 기대에 어긋났다. 밥과 술은 풍족한 셈이다. 4時 頃에 배를 띄워 놀며 오니 저녁 9時에 집에 왔다.

◎ 6월 12일 (음 윤 4월 21일) 수요일 晴

食前に 논을 一週하고 있으니 李巡警이 巡察 나와 같이 오게 되어 집에 술도 한 잔 있고 해서 같이 드러와 술 한 잔 같이 나누고 朝飯食事も 같이 했다. …

◎ 8월 8일 (음 6월 19일) 목요일 晴

… 午前에는 낮잠을 자고 午後에 새끼 小을 꼬다 더워 마실을 갔더니 朴巡警이 술을 1斗 갖고 와 洞里 靑年들과 같이 會食을 했다.

◎ 12월 25일 (음 11월 10일) 수요일 晴

… 날이 冷하여 마실 사랑방에서 있노라니 床商人이 와 …

1964년

◎ 1월 13일 (음 11월 29일) 월요일 雲

朝飯食事を 하고 마실 갔더니 새로운 李巡警이 原木에 地역을 답사할 겸 같이 가자고 해서 原木으로 해서 高棧으로 와 …

◎ 1월 14일 (음 11월 30일) 화요일

朝飯食事 後에 마실 갔다가 李巡警이 哨所도 갈 겸 散步을 가자고 해서 一週하고 우리 집으로 와 …

◎ 1월 15일 (음 12월 1일) 수요일

… 洞里 空房이 없어 새끼 한 사리 못 낫으니 …

◎ 1월 23일 (음 12월 9일) 목요일 晴

… 今年엔 가마니도 짜놓아야겠는데 空房이 없어 못 짜고 …

◎ 2월 16일 (음 1월 4일) 일요일 晴

… 夕飯食事 後엔 來日 擲樞大會를 할 것을 準備했다. 前日 高棧서 한 擲樞大會에서 1, 2等を 大谷 致雨가 타 와 高棧의 來日 大谷서 할 大會에 空氣가 아주 달라졌다.

◎ 2월 17일 (음 1월 5일) 월요일 晴

… 오늘 擲樞大會를 할 날인데 高棧 가서 알아보니 오늘 안 넘어오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洞里에서 高棧서 1, 2等を 타 와 마음들이 감정적으로 變했다. 洞里선 도저히 본전 추려내기가 어려운데 큰일이다. 11時 頃에 始作해서 洞里서 노렸으나 400원어치만 나왔다. 仟원을 만들기 힘들 것 같다. …

◎ 2월 18일 (음 1월 6일) 화요일 晴

擲樞大會에 있어 오늘도 1회와 2회를 놀리었다. 본전 나오기란 어려워 300원이 不足이라 각 出을 했다. …

◎ 2월 19일 (음 1월 7일) 수요일

오늘도 擲柶大會의 결정이 안 나고 말썽이 되어 흐지부지했다. ...

◎ 2월 22일 (음 1월 10일) 토요일 晴

... 致雨가 軍人 나가는 날이 來日이라고 저녁에 술을 나누어 먹었다. 軍人 나가는데 1戶 當白米 2升식 거출했다. ...

◎ 2월 23일 (음 1월 11일) 일요일 晴

11時 頃に 致雨 軍人가는데 전송하고 ...

◎ 2월 27일 (음 1월 15일) 목요일 晴

정월 보름 午後엔 洞里 靑年들이 함께 모여서 노랐다. 저녁엔 술과 고기를 사다 먹었다. ...

◎ 3월 11일 (음 1월 28일) 수요일 晴

... 저녁 食事を 李巡警과 같이 하고 농꼐에 낫[낫] 모르는 사람이 왔다 해서 저녁에 가 不심 檢査을 했다.

◎ 3월 12일 (음 1월 29일) 목요일 雲晴

朝飯食事 後에 봄밭 냉긴 것을 갖고 李巡警과 哨所을 일주하고 ...

◎ 3월 15일 (음 2월 2일) 일요일 雪

... 大谷 哨所가 몇일 來에 없어진다고 해서 매우 섭섭하다. 哨所가 있으므로 洞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4월 20일 (음 3월 9일) 월요일 雲

... 저녁 먹고 마실가니 年中行事인 노리를 간다고 들 의논을 하고 있다. 보름사리에 가기로 거이 결정 會費. 100원과 그날 먹을 쌀 것기로 했다.

◎ 4월 28일 (음 3월 17일) 화요일 晴

오늘 회선노리 갈 고로 食前 일직 눈을 一週하고 朝飯 일직하고 떠났다. ...

◎ 5월 17일 (음 4월 6일) 일요일 雲雨

... 어제 洞里사람이 興植兄 家 허는데 다 같으나 소를 부리게 되어 못 가서 오늘 가기로 朝飯 後에 가서 助役을 해 주었다. 오늘은 5명이 허는데 ...

◎ 11월 24일 (음 10월 21일) 화요일 晴

... 이 근방 인심이 날로 惡化되어 간다. 前에 없던 盜難事件이 생긴다. 어제 저녁에 高棧의 瑞雨

家 작근집에 버를 1呎식 盜難을 당했다고 한다.

1965년

◎ 1월 17일 (음 12월 15일) 일요일 晴

... 洞里라고 마실 갈 곳이 없어 집에 있다.

1967년

◎ 1월 26일 (음 12월 16일) 화요일

... 朝飯後에 龍西아저씨 댁에 갔다. 이 동리에 對해 議論하다가 점심에야 왔다. 이 洞里은 里長인 큰아번님이 흐려놓는다. 茂植이 今 31日에 入隊한다고 쌀 1升씩 것었다. ...

◎ 1월 29일 (음 12월 19일) 일요일

... 下午엔 어른들 마실방에 가 노인과 젊은 사람들과의 議見이 討議되었다. ...

◎ 1월 30일 (음 12월 20일) 월요일

... 朴巡警이 오늘 傳令發令이라고 哨所을 떠나게 되어 우리 일도 몇일 해주고 아주 좋은 巡警이다. 朝飯食事を 우리 집에서 같이 했다. 茂植이 오늘 軍에 入隊 하게 되어 人便차 같이 가 떠남에 전송을 했다. ...

◎ 2월 10일 (음 1월 2일) 금요일

해마다 해온 年中行事인 部落 擲柶大會에 중일토록 일을 보았다. ...

◎ 2월 11일 (음 1월 3일) 일요일

... 어제 못한 擲柶大會을 하기로 한 것을 일직 끝낼라고 朝飯食事を 일직 朴巡警과 같이 하고 擲柶大會場에가 10時까지 끝내기로 서둘러 하다가 ...

◎ 2월 12일 (음 1월 4일) 월요일

洞里 男子 一同을 술과 떡국잔치 하다. 朝飯食事 後에 마실을 간다와 10時 頃に 洞里어른들을 모서다가 술과 떡국을 對接하고 下午엔 젊은 사람들을 對接했다. 妻가 受苦을 했다. ...

◎ 2월 14일 (음 1월 6일) 수요일

… 11時 頃부터 婦女子들이 30원씩 건어 擲樞大會를 했는데 날보고 기록해달라고 하여 協助했다. …

◎ 2월 16일 (음 1월 8일) 목요일

朝飯食事 後에 마실 같으나 젊은 사람들이 모두 나드리를 가 쓸쓸하다. 나와 悠雨와 같이 있으니 然雨氏 家에서 오라 해 가 떡국을 먹었다.洞里사람들 잔치를 했다.

◎ 12월 30일 (음 11월 29일) 토요일

… 下午 늦게洞里 靑年들이 망년會를 하자고 해서 닭을 한 마리 사고 토끼 1마리를 사서 술을 마시고 노랐다. …

◎ 12월 31일 (음 12월 1일) 일요일

아번님 家에서洞里분들과 高棧 몇 분의 술 잔치를 했다. …

1968년

◎ 1월 5일 (음 12월 6일) 금요일

…洞里 靑年들이 白米 1斗5升을 짓어 술을 비저 넣었다.

◎ 1월 18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午前에 오양 처내고洞里靑年들이 와 웃을 놀자고 해서 우리 마당에서 웃을 놀았다. …

◎ 1월 30일 (음 1월 1일) 화요일 晴

舊正. (….) 차례를 끝내고洞里靑年들케 술과 국을 대접했다.洞里 어른들 세배를 끝내고 仁性 家에서 저녁에 놀다가 然雨 家에 가 밤이 깊도록 놀다 나는 오고 다른 패장들은 또 3次로 같다. …

◎ 1월 31일 (음 1월 2일) 수요일 冷

… 저녁 밥맛도 먹는 등 마는 등 누었다가 늦게 야 사랑방에 나오니 마실꾼이 없어 마실 갈더니 모두 집에 있는 모양. 그냥 와 자리에 누었다.

◎ 2월 1일 (음 1월 3일) 목요일

… 저녁에도 우리 집에서洞里靑年들이 놀아 술대접을 했다.

◎ 2월 2일 (음 1월 4일) 금요일

날씨는 누구러지지 않는 冷下 12.3度を 오르나리고 있다. 春植과 朝飯食事을 같이 하고洞里靑年들이 우리 집에서 놀다가 바람이 세다고 마실로 같다. …

◎ 2월 3일 (음 1월 5일) 토요일

春植이 떠났다. (….) 春植을 떠나보내고 웃을 놓다가 술을 먹은 것이 취했다. 저녁에도 술타령을 했다.

1971년

◎ 2월 6일 (음 1월 11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高棧 가 장척을 갖고 木手아저씨와 같이 와 장보감을 보고 敦植을 데리고 비였다. 비여놓으니 그대로 쓸만하다.洞里靑年들을 動員 집으로 가져왔다. …

◎ 2월 20일 (음 1월 25일) 토요일

수촌아저씨와 아번님이 오시여 끝 구멍을 파시켰다.洞里사람이 거이 다 와 드러다 보았으나 致雨와 다섯재祖만은 인사조차 없다. …

◎ 3월 7일 (음 2월 11일) 일요일

上樑. (….) 上梁式에 白米 1斗 5升과 一金 500원을 냈다.洞里분들이 다 모이었다.

1972년

◎ 2월 16일 (음 1월 2일) 수요일

洞里 親睦會 오락 擲樞大會를 젊은 사람들이 開催했다. 午中 노랐다. …

◎ 2월 19일 (음 1월 5일) 토요일

마실 가 놀다가 下午에 우리 집에서洞里 젊은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待接했다. 술과 떡국을 내고 저녁에 놀다 같다.

◎ 2월 20일 (음 1월 6일) 일요일

… 妻는洞里 婦女子들이 쌀과 돈을 짓어 오늘

저녁에 놀이가 버려졌다. ...

◎ 2월 26일 (음 1월 12일) 토요일

... 午後엔 마실 같다가 농꼴로 마실 가 저녁 10時까지 놀다왔다.

◎ 3월 10일 (음 1월 25일) 금요일

... 오후에 마실을 갔더니 택시가 와 누구인가 보니 金公〇와 金巡警 朴書記 등이 와 海에 漂流屍體가 있다고 왔다. 날 보고 洞里에서 몇 사람 해 달라고 하는데 누가 좋은 일이라고 올 사람도 없으려니와 누구를 보낼 수 없어 내가 같다. 30代 女人이다. 연고자가 있을 듯한 女人이다. 그날 저녁은 잠이 안 왔다.

◎ 3월 13일 (음 1월 28일) 월요일

... 건너 마을에서 술 먹으라 오라해서 가보니 面에서 술과 안주를 사 갖고 와 對接을 하고 漂流女人屍體를 묻으라 가는데 날 보구는 가자고 안 그래나[안 그랬으나] 같다. 約 1時間에 다 묻었다. 面長도 왔다. 一金 500원을 주고 같다. 나 문 술을 먹고 또 받아다 먹었다. ...

◎ 5월 6일 (음 3월 23일) 토요일

洞里분들이 와 새을 올려 주었다. ...

1973년

◎ 2월 12일 (음 1월 10일) 월요일 晴

... 삼시간에 닭장 급 재간이 태우고 말았다. 동리 사람이 모두 수고했으나 헛수고이었다. ...

◎ 2월 13일 (음 1월 11일) 화요일

... 洞里에서 뒤지[돼지]을 잡는다고 하여 건너가 고기 820원어치를 사고 德雨 家에서 곱창국을 끄린다고 하여 먹고 왔다.

◎ 2월 18일 (음 1월 16일) 일요일

오늘 洞里靑年들이 아산만에 놀라 간다고 하여 갈까 하다가 누가 온다고 하여 안 같다. ...

4. 마을 간의 관계

1959년

◎ 2월 24일 (음 1월 17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같다가 炳賢君과 新浦에 나가 靑北民國民校庭에서 三國民校 아동과 面유지 관공리民面 등이 쫓기 대회를 하고 新浦에 내려와 擲樗大會 내려와 구경을 하다가 表三장을 사서 두 번 올려놓고 왔다. 尙武會主催라 그냥 잇기 무해서 놀다 왔다.

◎ 5월 11일 (음 4월 4일) 월요일 雲

... 夕飯을 마치고 있으니 농꼴서 사람 청년 二名이 큰집으로 가서 원일인가 하고 건너가보니 記者란 사람이 와서 농꼴 柳氏 婦人 家(술장사)에 가서 不幸한 일이 있었다고 왔는데 잘못된 일도 없을 뿐더러 問題거리도 아니것만 돈 생각이 와서 온 것이다. 내가 건너가 냉정이 말하니 그냥 도라갔다.

◎ 5월 31일 (음 4월 24일) 일요일 晴

... 농꼴 고잔 難民定着事業所 鹽倉庫 上梁式을 舉行한다고 청첩 왔는데 일도 바쁘고 일을 가게 되어 못 같다.

◎ 11월 24일 (음 10월 24일) 화요일 雲

... 농꼴 難民事業所도 청부로 바뀌었다.

◎ 11월 27일 (음 10월 27일) 금요일 晴

... 요즈음 농꼴 難民事業所에 請負業者가 동리에 있게 되어 여러 사람 품 팔러 다닌다. ...

◎ 12월 6일 (음 11월 7일) 일요일 晴

오늘 新作路(三溪) 道路作業을 나간다. 자갈을 三溪에서 못하게 하여 못하는데 시비 건으로 대들어 아주 氣分이 좋지 않았다. 삼계[삼계] 것들은 아주 조치 못하고 人間性이 없어 상대하기 싫다. ...

1960년

◎ 1월 7일 (음 12월 9일) 목요일 晴

… 나는 事務室로 와서 농골 難民이 作業場에 와서 말썽을 피여 所長과 타협을 지워 달래라 事業主 보고 가보라고 하고 집에 와 朝飯을 마치고 現場으로 나가니 농골 青年 둘이 나와 또 말썽을 피여 作業하는 사람까지 氣分 좋지 않게 하여준다.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 피한다는 格으로 이것덜은 털만 건드리어도 진단이다 벌금이다 손해를 보이는 고로 그저 手袖傍觀하는 수밖에 없다. …

◎ 1월 20일 (음 12월 4일) 금요일

… 마실 한 바퀴 도니 사람이 없어 高棧으로 놀라간다. 작근집에 가 있으니 裕浩와 重植이 와서 같이 놀다가 도라왔다. …

◎ 2월 11일 (음 1월 15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좀 있다가 高棧 擲樗大會가 있다고 오라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悠雨 敎雨 나 寬植 등이 넘어 갔다가 나는 600환어치 사서 3회에 가서 전부 떨어졌다. 賞品은 1等に 광목 반 통 2等に 양은솥 3等に 양은다라 4等に 양은밥 통 5等に 양은남비 6等도 양은남비 등이다. …

◎ 6월 6일 (음 5월 13일) 월요일 晴

… 일을 끝나고 농골 음물[우물]에서 발을 씻으니 가단지 억깬지 事業所에서 데려온 놈이 으쓱석그리는데 젊은 사람임 나도 매우 氣分이 상하였다. 한 사람에 洞里 一代가 주이니 이것도 동리의 큰 문제다. …

◎ 8월 18일 (음 윤 6월 26일) 목요일 晴

… 新浦 高等公民學校 主체로 里대항 축구 시합이 있어 高棧二里에도 한 팀 나갔는데 졌다 한다. …

◎ 9월 24일 (음 8월 4일) 토요일 雲

… 농골 所長이 찾는데 오늘 人員正檢이었는데 나와줄 수 없는나는 것. 동리를 쳐다보니 洞里 사람이 다 풀려나오고 있다. 현 세帶數 27세帶에 100세대 配給을 타서 事業所 운영을 하는지라 政府나 天主教에서 조사오면 이렇게 인근 사람을 動員을 한다. 나도 삼을 갖고 現場에 나가

서 있다가 天主教에서 와 금궐을 하고 下午 늦게서야 가 우리도 늦게 도라왔다. 道民證과 印章도 같다 주었다가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는 難民들의 편의를 보아주것만 그네들은 조금만 수 틀리면 언제 보았느냐는 식으로 대들고 있다. …

◎ 10월 6일 (음 8월 16일) 목요일 晴

三德國民學校 兒童 運動大會. 運動 구경 次洞里 一代가 소란하게 되었다. 朝飯을 마치고 나도 三溪까지 나갈라다가 11時 頃에 英浩를 데리고 서서히 나간다. 조금 있다가 里 대항경기가 始作되었는데 昨年과 같이 또 高棧一里와 同點이 되었다. 이것이 물의가 되어 왁시왁불 되었는데 결국 나의 절대적인 주장으로 우리가 三年 年勝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 것이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우리가 우승기를 찾게 되었다. 우리 三洞里 青年이 역시 또 단결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 青年會를 열기로 하고 해지였다.

◎ 12월 22일 (음 11월 5일) 목요일 晴

… 저녁나절은 高棧 갔다가 里長 更申에 술좌석이 있어 같이 있다오니 …

1961년

◎ 3월 1일 (음 1월 15일) 수요일

… 洞里에서는 三日節와 舊正月 보름을 기해서 조그마하게 擲樗大會를 어렸다. (….) 高棧서도 몇 명 너머 왔다. …

1962년

◎ 2월 6일 (음 1월 2일) 화요일 晴

… 高棧서 擲樗大會를 하는데 안 갈 수 없어 200환어치를 사서 놀다가 왔다. …

1963년

◎ 2월 6일 (음 1월 13일) 수요일 晴

… 오늘 高棧선 擲樞大會를 한다고 招待券이 왔으나 늦게 와 못 갔다.

◎ 2월 7일 (음 1월 14일) 목요일 晴

… 高棧서 오늘 擲樞大會를 하다가 招待까지 하여 검사검사 高棧 가서 一回卷을 팔고 있어 20円을 사갈고 놀다가 敬浩가 點心을 먹자고 해서 點心을 같이 하고 웃을 던지고서 午後에 넘어와 …

1964년

◎ 2월 16일 (음 1월 4일) 일요일 晴

… 夕飯食事 後엔 來日 擲樞大會를 할 것을 準備했다. 前日 高棧서 한 擲樞大會에서 1, 2等を 大谷 致雨가 타 와 高棧의 來日 大谷서 할 大會에 空氣가 아주 달라졌다.

◎ 2월 17일 (음 1월 5일) 월요일 晴

… 오늘 擲樞大會를 할 날인데 高棧 가서 알아보니 오늘 안 넘어오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洞里에서 高棧서 1, 2等を 타 와 마음들이 감성적으로 變했다. …

◎ 8월 23일 (음 7월 16일) 일요일 雲

오늘 각 里長들이 우리 洞里에 모여 놀이를 했다. 술과 고기가 풍성한 가운데 잘들 놀다가 午後 늦게 헤어졌다. 나도 종일 같이 노렸다.

1965년

◎ 2월 15일 (음 1월 14일) 월요일

… 午後엔 高棧 擲樞大會에 가 30원어치 사갈고 3장 3個에 올려놓고 왔다. 안갈 수 없어 넘어간 것이다.

◎ 2월 16日 (음 1월 15일) 화요일

朝飯食事 後에 德雨와 같이 넘어가 결승전에 가 떠러졌다.

◎ 8월 30일 (음 8월 4일) 월요일 雲

오늘 食前에도 堤防에 많은 사람이 와 堤防을 지켜 주었다.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나리어 염려를 했으나 堤防을 求했다. (….) 27日에 勞賃을 준다고 事業主가 약속하고 또 30日에 約束을 했는데 사람도 안 와 저녁나절은 야단이 났다. 농골 洞里가 소란했다. 농골 洞民은 종와라고 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

1967년

◎ 1월 1일 (음 11월 21일) 월요일

… 마실 가 놀다가 高棧 가 놀다왔다.

◎ 1월 23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 食前에 울타리를 나눌라고 새끼를 찾으니 없어졌다. 어제 까지도 있던 새끼사리 3통이 없어졌다. 氣分이 아주 나쁘다. 농골농들의 소행일 것이다. …

◎ 2월 18일 (음 1월 10일) 토요일

… 下午엔 新浦에 擲樞大會 求景을 갈았다. …

◎ 12월 4일 (음 11월 3일) 월요일 雲

… 高棧의 洞里契가 있어 점심을 얻어먹고 …

1971년

◎ 1월 9일 (음 12월 13일) 토요일 晴

… 저녁엔 농골 우리 일 많이 오는 몇 사람 불러다가 술과 떡을 대접했다.

◎ 1월 17일 (음 12월 21일) 일요일 晴

… 그리고 高棧里 습에 갔다 왔다.

◎ 1월 30일 (음 1월 4일) 토요일 晴

오늘부터 城谷[삼계리에 있는 마을] 高棧 間道路擴張 資金(自治資金) 增收로 農樂을 利用하기로 해 高棧 가보니 動하지 않는 듯하여 그냥 왔다. …

◎ 2월 1일 (음 1월 6일) 월요일 晴

성골[城谷]로 갈 예정이었으나 알아보고 가라고 해서 原木으로 같다. 개섬[고잔리] 내에 있는 지명]을 같더니 泰正氏 家에서만 1斗 내놓고 모두 反對다. 萬浩, 應秀 경우 등이 反對하고 모두 집을 비우고 나간다. 氣分이 나쁘게 왔다. 原木 본洞에서는 모두 환영을 했다.

◎ 2월 2일 (음 1월 7일) 화요일 晴

農樂은 기을 들고 大谷으로 出發했다. 大谷洞 里에선 大 환영이다. 道路擴張을 爲해서라면 잘 하는 일이라고 환영을 하여 모두 종와 했다. 집 집마다 술이요 大谷部落에서만도 1呎 42K와 一金으로 4,300원이란 돈이 나왔다. 우리도 내가 설도하는 것이라 一金 300원과 白米로 1斗 5升을 냈다. 原木, 高棧, 성골 등에서 같이 하는 일이다.

◎ 2월 3일 (음 1월 8일) 수요일 晴

高棧 몇 집을 놀고 城谷으로 같다. 城谷서도 大 환영이다. 집집마다 술이다. 쌀도 모두 1斗이상 냈고 돈도 300원 이상이다. 安貴榮 집에선 白米 1斗 4升과 一金 800원을 내 오늘까지 第一 많이 냈다. 五個 部落에서 모두 나를 칭찬한다.

◎ 2월 4일 (음 1월 9일) 목요일 晴

… 모두들 오늘은 집에서 일을 치우라 해서 집에 있었다. 農樂은 농골로 가기로 했다. 농악소리가 없었다. 내가 안 간 관계로 안 놀았는 모양이다.

◎ 2월 5일 (음 1월 10일) 금요일

前日 집에 있었던 고로 高棧서 農樂을 놀아 資金이 얻어 되었는지 궁금하여 새기를 꼬다가 高棧을 같다. 前日도 高棧部落 나문 집을 끝마치었는데 성적이 좋았다고 한다. 인제 농골이 나뉘는데 농골서는 反對한다고 한다. 특히 柱雨가 反對라고 한다. 피란민은 모든 일이 협조가 없다. 지역개발에는 언제나 비협조다. 지식 가에서 술을 대접하고 학○ 家에서 술과 국수를 대접했다. 오늘까지 수금이 一金으로 28,000여원이고 白米로 7呎 60k라고 한다. 나의 힘이 컸다고 모두 칭찬을 한다. …

◎ 2월 19일 (음 1월 24일) 금요일

… 前日부터 農道擴張서류를 高棧 柱植氏 같고 와 저녁에 作成했다.(事業計劃書)

◎ 2월 27일 (음 2월 3일) 토요일

… 저녁엔 高棧 柱植氏가 와 農路확장의 書類를 작성하라 와 밤 12시까지 作成해 주었다.

◎ 3월 9일 (음 2월 13일) 화요일

… 推進해오던 道路工事 기공식을 하는 날이다. 나는 가 보지도 못했다. …

◎ 4월 12일 (음 3월 17일) 월요일 晴

… 일은 물리고 농사철은 닦아오고 저녁엔 高棧 같다 왔다. 道路확장 件으로.

◎ 5월 9일 (음 4월 15일) 일요일

落成을 오늘 하기로 하고 洞분들과 高棧 革命村분들을 청했다. 저녁을 먹고 나니 革命村은 거이 다들 와 술과 떡을 대접했다. 洞里분들도 男女 모두 오시고 高棧서도 몇 분이 오시었다. …

◎ 7월 25일 (음 6월 4일) 일요일

… 高棧서 道路擴張會를 한다고 오라해서 高棧에 잠깐 들리었다가 …

1972년

◎ 4월 1일 (음 2월 18일) 토요일

洋灰을 完全히 結晶키 爲하여 三溪里長을 만나라 같다. 돈을 갖고 가 주니 次後에 주라고 한다. 洋灰는 50包 주기로 했으나 運搬이 問題다. …

◎ 4월 14일 (음 3월 1일) 금요일

朝飯食事 後에 농골을 가 池億洙君에게 우리 집지일은 언제부터 하느냐고 하니 2,3日 後에나 하겠노라고 하여 三溪에 付託한 洋灰는 안 될(것) 같다더라고 하여 高棧 가 里長에 말하니 가 저가라고 하여 高棧다가 맞추어 놓았다. …

◎ 4월 15일 (음 3월 2일) 토요일

… 오늘 高棧 寬植에게 付託한 양회가 안 왔다.

◎ 4월 22일 (음 3월 9일) 토요일

高棧에 새마을가꾸기 양회 50包 中 오늘 20포

가 왔다. 기초는 양회 6包을 들여 했다. ...

1973년

◎ 7월 29일 (음 6월 30일) 일요일 晴

11시에 原木에서 祥明女中에서 자매결연 7週年 마지를 한다고 案内하여 같다. 祥明女中校長을 비롯하여 職員 朝鮮日報社 기자 등이 오고 각 기관장 里長까지 案内하여 몇 里長이 왔다. 式이 끝나고 주연이 있어 대접을 받고 우리 몇몇 里長이 우리 집으로 와 술과 참위를 대접하고 놀다 같다.

◎ 10월 5일 (음 9월 10일) 금요일

郡의 날 行事. 7시에 面에 到着. 郡에 8時 30분에 郡體育大會에 入場. 줄달리기부터 우리 靑北과 靑北의 대결에 이기고 진위와 대결에서 준결승에서 지고야 말았다. 온 몸이 아주 피곤하다. 靑北이 종합 성적 6위로 우리는 9시에야 出發. 집에 오니 10時 20分이다.

◎ 11월 17일 (음 10월 23일) 토요일

... 下午 3시에 月谷의 里長인 李益宰兄의 父親의 回甲日에 같다. 누구보다도 나를 생각하고 協助人이다. 一金 800원의 부조를 했다.

6. 농촌 정책

1960년

◎ 3월 27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 큰아번님이 行方不明이 된 지 몇일이 지나 동리에 지장 막심하다. 오늘도 큰아번님에 대한 말이 종일 끝날 줄 모르고 대위[대외] 양곡도 나 오고 肥料도 나왔건만 里長이 없어 안 준다고 하며 구채가 많아서 못 준다는 것.

1961년

◎ 2월 1일 (음 12월 16일) 수요일

... 10時 頃 農業國勢調査를 와서 해갈고 같다.

◎ 3월 3일 (음 1월 17일) 금요일

... 國土開發事業式. ...

◎ 3월 17일 (음 2월 1일) 금요일

... 오늘 저녁나절 國土開發事業 묘목이 到着 되었다. ...

◎ 3월 18일 (음 2월 2일) 토요일

... 묘목이 와 教雨 아저씨 家 밭에다가 못었다 [묻었다].

◎ 3월 19일 (음 2월 3일) 일요일

... 우리 郷土에 國土建設事業 해택.(木) 묘木 도착.

◎ 3월 20일 (음 2월 4일) 월요일

國土開發事業 始作. (...) 朝飯을 마치고나니 오늘이 國土建設事業 첫날이라 한다. 나도 나갔다. 농골 事業所 前에 모인 人부는 무려 六,七百名은 될 상십다. 2百餘 名을 예산한 것이 이렇게 많이 왔다 한다. 간단한 注意가 잇고 앞 원뿔머리[원뿔머리]에서 始作하여 돌팍재까지 植木을 하였다. ...

◎ 3월 21일 (음 2월 5일) 화요일

아버지 家에 타작하는데 갈라고 나왔다가 朝飯을 마치고 갈라고 朝飯을 마치고 올라가니 일직 흘틀 것이니 植木 가라고 아버지 庶母 等 하기에 어머니 先墓에도 볼 겸 植木을 갔다. 오늘은 洞里 뒤동산부터 始作해서 飛野木까지 했다. 밭 쿠뎡이도 하고 조금 남았다. ...

◎ 3월 28일 (음 2월 12일) 화요일

... 出役 나갔다 올 때 國土建設事業의 人負 代의 보리쌀을 3畝 1斗 半을 갖고 왔다. ...

◎ 5월 9일 (음 3월 25일) 화요일

... 대위약곡[대외양곡]인 벼가 나왔는데 끼리 끼리 나누어 먹어 그만큼 있다. 나도 먹었으면 했으나 활당이 안 데였다. 달라고 했으나 허사이

였다. 7呎 나온 것에 먹지 안을 사람도 끼여 먹었다. ...

◎ 6월 9일 (음 4월 26일) 금요일

... 저녁에는 솥가 잇었는데 솥은 農어村의 高利債 정리의 솥인데 現物 또는 現金도 해당이다. 政府로 報告하면 政府로 年 부로 잡는데 二割만 잡고 채權者는 政府에서 찾는다고 하는데 이 동리는 報告한 사람이 없다.

◎ 7월 13일 (음 6월 1일) 목요일

... 而書記가 와 각 雜種 產出 調査와 심지어는 꼬초장 된장 등을 다 調査해 같다. 우리 國民이 믿고 살 수 있는 政府가 될 것인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쉬쉬하고 있으니 군대식이다. ...

◎ 7월 17일 (음 6월 5일) 월요일

... 저녁에 洞會가 잇었는데 솥은 테비중산 관혼상제 간소화 묘소 화장 애립록화 등과 녹작물 각종 조사(꼬추, 고구마, 깨, 감자, 콩! 等等 各種 전부) 꼬추장 된장 등도 이렇게 세밀이 조사를 하니 이해를 납득치 못하고 의심이 많다. 北韓이 南侵해서 이렇게 세밀이 조사를 한 것에 된 우리 국민인 관계로 현 정부를 의심하나 시간이 흐르고 기일이 가무로서 격어 알 일. ...

◎ 7월 25일 (음 6월 13일) 화요일

... 저녁에는 靑北高等公民學校에서 職員 1명과 學生 4명이 啓蒙을 나와 건너가 보았다. 농촌을 살려 教育勢을 살리자 등 夏期 위생에 대해서도.

◎ 7월 31일 (음 6월 19일) 월요일

... 模範靑年으로서 公文 受.

◎ 8월 4일 (음 6월 23일) 금요일

... 저녁洞會. 農漁村 高利債 整理 관한 건. 農漁村 高利債 定理 엄중 지시 上部. 테비 增산 出役. 革命政府 協助. 초소 巡警 宿伯 等等.

◎ 8월 15일 (음 7월 5일) 화요일

... 協同組合 農銀 通合.

◎ 8월 22일 (음 7월 12일) 화요일

... 저녁엔 洞會가 잇었는데 高利債 整理의 것이다. 申告가 없으면 그냥 申告한다 한다고 里長이 한다고 말한다. 洞里에 高利債가 없는 것도 아

니다. 참아 하고 債權債務者의 얼굴만 보고 잇는 것이다. 人情과 良心이 없기로 잇으니 주저치 않을 수 없다. 첫째로는 債權者가 申告를 해야 하는데 債權者는 債務者의 처분을 바라는 듯하다.

◎ 8월 23일 (음 7월 13일) 수요일

... 食前에 도장을 갈고 오라 해서 갈고 里長집에 가니 高利債에 對한 政府施策에 協助하며 여하한 벌도 받는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쳤다. 약간의 채무자들도 債權者가 아무 말 없고 또 서약하니 차마 債務者도 어이할 수 없이 서약했으나 받기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債權者가 申告를 한다. 그리하여 이 동리에서도 壹雨氏와 吉雨氏는 아마 申告한 모양이다. 壹雨氏는 아주 음침한 사람인지라 누구나 끄린다. 點心 後에는 先墓에 伐草를 했다. 말에 의하면 인제 長利도 年 五割은 없어질 것 같고 이번에 申告 않고 준다 해도 五割은 안 될 것이라는 말이 공통.

◎ 8월 24일 (음 7월 14일) 목요일

... 오늘이 農漁村 高利債 整理 申告 마감날이다. 洞里에서 壹雨와 吉雨가 申告로 끝났다. ...

◎ 8월 25일 (음 7월 15일) 금요일

... 高利債 整理는 연기했다. 9월 24일까지. 이것은 農民들이 인식 不足인 점에서 申告를 안는데 잇는 것이라 한다. ...

1962년

◎ 2월 23일 (음 1월 19일) 금요일 晴

... 저녁에는 洞會가 잇었다. 대위 量穀의 大小 麥이 나왔다. ...

◎ 3월 17일 (음 2월 12일) 토요일 雲

沙防工事 出役. (...) 朝飯을 마치고 나니 鍾소리가 나서 가보니 오늘 沙防工事員이다. 沙防工事 高棧里 120정보를 하는데 2日식 부역을 하고 나머지는 有給으로 한다는 것이다. ...

◎ 4월 4일 (음 2월 30일) 수요일

... 高棧 갈다오다가 진식(里長) 집에서 (비니

루) 高棧 나문 것 215마를 깔고 왔다. 30마 중 5마를 떼놓고 왔다. 90마를 가져야 할 것인데 아주 모자란다.

◎ 5월 21일 (음 4월 18일) 월요일 晴

官에서 農機具가 나왔는데 팽이를 한 개 外上으로 가져왔다. 등도 家家戶戶 도른다는데 不必 要한 것이다. 모짜리에 쓰는 것인데 모짜리는 벌써 지났다.

◎ 6월 10일 (음 5월 9일) 일요일 晴

... 숲에 갈다가 洞里로 모줄이 나왔기에 7치 반짜리 모줄을 한아 가져왔다. 金額은 아직 모른다고 한다.

◎ 6월 30일 (음 5월 29일) 토요일 晴

... 政府에선 물을 길어다 눈에 부라니 텅텅 갈라진 눈에 얼마를 부어야 되며 길어다 불 물은 얻에 있느날 말이다. 탁상공론에 잇는 어리석은 말이고 正조식 모심지 앓은 것은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에게 뽀부라니 너무나도 지나친 것이다. 말도 아닐 뿐더러 뽀다간 매마자 죽일 일이다. 너무 극성을 피운다. ...

◎ 7월 1일 (음 5월 30일) 일요일 晴

無償肥料 尿素 1包 中過石 半包. (...) 新浦로 無償肥料를 가질라 갈섰다. 尿素 1包. 中過石 半包. ...

◎ 7월 3일 (음 6월 2일) 화요일 晴

... 모이면 비 올 이야기로 해를 보낸다. 레디오에도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각 地方으로 웅덩이 파기 양수기 보급 등으로 파견을 나갔다고 한다.

◎ 8월 22일 (음 7월 23일) 수요일 晴

... 午後에 싸리를 빌라고 沙防 工事 한 곳에 도라다녀보니 풀씨가 잘 사라 2,3년만 비지 앓고 돌 것 같으면 나무 걱정을 덜 것 같다. 아직은 사방공사 한 곳에는 나무꾼이 안 텨빈다. ...

◎ 9월 11일 (음 8월 13일) 화요일 晴

... 點心을 먹고 잇으니 郡에서 왔다고 해서 건너 가보니 洞里長이 場에 가 안 계시여 보자고 했다고 하며 많은 추궁이 있었다. 指示事項. 清掃, 퇴

정장에 퇴비 增産, 表찰, 尺奉, 피발취 등 계시. ...

◎ 9월 15일 (음 8월 17일) 토요일

午前에 靑北 支署長이 와서 10時 頃에 洞民 男女를 모아놓고 몇 가지 指示事項과 注意를 주었다. 會가 끝나고 支署長과 婦女會長 家에서 술과 點心도 같이 했다. ...

◎ 9월 20일 (음 8월 22일) 목요일

... 洞會 테비 증산. 피 발취. 朝期 清掃.

◎ 11월 12일 (음 10월 16일) 월요일 晴

... 오늘 沙防工事 出役인데 동육굴까지 가다 보니 洞里에서 모두 4명이 나가고 있어 어린 것도 성창은 것을 보고 해서 次後에 간다고 도라왔다. ...

◎ 11월 13일 (음 10월 17일) 화요일 雲

... 사방工事 出役을 했다. 龍成里 後出인데 25리는 데졌다. 테미산으로 해서 가보니 午鍾 頃은 데니 가고 오고 별로 일할 時間이 없다. 5時 頃에 일을 끝나고 ...

◎ 12월 19일 (음 11월 23일) 수요일 雨雲

... 肥料를 살라고 벼를 냈다. 大谷 部落은 활당 數量이 넘었다. 반수가 안 데는 부락이 전부인데 大谷 部落은 활당 수량이 넘어 賞을 탈 것이라고 한다.

◎ 12월 27일 (음 12월 3일) 목요일 晴

... 午後엔 面에서 里間의 行政線인 電話을 가설하는데 戶當 電柱 한 개를 갈다 꼬았다. ...

◎ 12월 28일 (음 12월 4일) 금요일 晴

部落 電話 가설. ...

1963년

◎ 2월 25일 (음 2월 2일) 월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鍾소리가 나 건너가니 前日 실어온 양곡(政府賣)한 것을 割當하여 우리는 肥料 23斤을 둘째祖父任 家에서 나누어 오고 보리쌀은 然雨 家에서 40斤 나누어 왔다. (政府賣商한 4畝分이다) ...

◎ 3월 29일 (음 3월 5일) 금요일 晴

大麥 62斤 가져왔다. 食事を 하고나니 鍾소리
가 나 가보니 오늘 賣渡한 버에 小麥粉을 준다고
하더니 大麥으로 준다고 오늘 가질러 간다고 하
여 둘째祖父 家 소를 갖고 新浦에 가 2마을 싣고
와 둘째祖任 家에 파노았다. 둘째 祖任은 모두
賣渡해서 脫穀機 사는 데 보태쓰자고 해서 모두
그냥 둘째 祖任 家에 두었다. 우리는 政府에 賣
渡한 것이 四마 해당에 먼저번에 大麥 40근과
今般에 62斤이다. 1마당, 15斤이라고 한다. ...

◎ 4월 2일 (음 3월 9일) 화요일 晴

... 저녁엔 洞會 新作路 出役, 沙防工事 出役
及 가마니 치기 等 農繁期는 닥아오는데 新作路
出役과 沙防工事 出役에 안 나오면 엄벌에 처하
고 가마니도 1戶 當 60납을 못 치면 엄벌에 처
한다니 언제 數量을 마칠 것인가. 넘어 들복는
다. 來日은 가래질을 할라고 하는데 出役이라니.

◎ 5월 6일 (음 4월 13일) 월요일 晴

肥料代 780원 支拂. 沙防工事 出役. 食前에
논에 가니 오늘 沙防工事に 出役이라고 큰아번
님이 말씀하시고 肥料代도 달라고 朝飯食事 中
에 하시여 肥料代 780원을 드리니 만약 다른 사
람이 돈을 내고 산다고 하면 돌려주신다고 해서
대답했다. 그리고 金谷里로 沙防工事に 떠나는
데 男子라곤 德雨, 安雨, 善雨 뿐이고 셋째祖父,
水村 아주머니, 上植母, 富平 아주머니, 薰植,
정애, 善子 등이 같다. 平安한 일이긴 하나 오고
가는 데 고되다.

◎ 8월 2일 (음 6월 13일) 금요일 晴

... 昨年만 해도 바수거리 한 감을 비자면 하루
가 걸리며 德智사에 가야했다. 잠깐만에 두 감을
비게 되는 것은 사방공사를 한 고로이다. ...

1964년

◎ 1월 19일 (음 12월 5일) 일요일 雲晴

오늘 沙防工事 出役이 잇다 해서 알아보니 날

이冷하여 흙이 얼어 못할는지 몰라 못할 것이라
고 해서 안 가고 있으니 ...

◎ 1월 20일 (음 12월 6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鍾소리가 나 가보니 沙防工事
出役이라고 해서 出役했다. 城谷後山에서 하게
되어 點心은 집에 와 먹게 되었다. 出役이라야
힘드는 일은 아니다. 날만 채우는 出役이다. 監
督이 不足이라 힘들여 일하는 곳이 없으니 능률
이 오르지 않는다.

◎ 4월 9일 (음 2월 27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마실 가니 沙坊空事 出役이라
해서 新浦로 갈 겸 해서 三溪 가서 名簿에 올려
놓고 (...) 小麥粉 配給을 타서 1包袋 국수를 늘
릴라고 놀림집에 갖고 가니 來日 오라 해서 그냥
도라와 點心을 먹고 沙坊工事に 出役을 나갔다.

◎ 4월 10일 (음 2월 28일) 금요일 晴

... 沙坊工事 出役. ...

◎ 4월 11일 (음 2월 29일) 토요일 晴

... 朝飯 後에 국수를 늘리라 新浦에 갈다가 와
沙坊工事場에 다니고 집에 와 보짜리 갈개를 쌓
고 點心 後엔 沙坊工事 나가 苗木을 심었다. ...

◎ 4월 12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 朝飯食事 後는 沙坊工事に 出役했다. ...

◎ 4월 25일 (음 3월 14일) 토요일 雨

... 沙坊工事 出役이란 鍾소리가 나 三溪까지
갈다가 모짜리도 궁금하고 해서 도라오니 ...

◎ 7월 15일 (음 6월 7일) 수요일 雲 쓰나귀

... 點心을 먹고 있으니 農事指導員이 安仲出張
所에서 와 우리 논을 도라보고 革命(촌)까지 案
內해주고 왔다. ...

1965년

◎ ... 甲申舊年을 도려켜 보전대 (...)

또한 家庭的으로 농꿀은 買收(6마지기)登記 取
得稅 農藥不使用으로 農事失敗 政府조치법으
로 未登記 실시 등 우리는 앞 농꿀 발원 等 登記

申請 等等 費用이 상상외로 많이 들었다. …

◎ 1월 27일 (음 12월 25일) 수요일 晴

중소리가 나서 가보니 肥料代을 계산해서 오늘은 나도 계산해보니 未配金 1,590원이다. 今年度도 肥料代及 對外糧穀 粉 1㐓 押中麥 1㐓 小麥粉 1袋 等 계산되고 肥料代만 1,590원 未拂되었다. …

1972년

◎ 1월 29일 (음 12월 15일) 토요일

… 나는 雄浩 轉學 관제로 新浦에 나가 雄浩 戶籍을 서울로 떼 옮기고 오다 冬季農民教育을 받고 學校에 들렀다 왔다. …

◎ 8월 11일 (음 7월 3일) 금요일 晴

… 增産大會에 不參. …

◎ 9월 10일 (음 8월 3일) 일요일 晴

오늘부터 나무을 할라고 낫을 갈고 안개가 자욱하여 새끼을 꼬고 있으니 面書記가 와 오늘 새마을指導者 教育갈 날인데 어이 되느냐고 하여 나는 못가겠어 다른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고 하니 안 된다고 줄라냈다. 마지못해 마을로 건너 갈다와 가길래 산으로 갈다. 마을 갈다가 里長任과 같이 왔으나 산으로 가 있으니 한참이나 기달리다가 갈다고 나무 몇 다발 했다.

◎ 9월 29일 (음 8월 22일) 금요일 雲

… 里長任이 새마을을 計劃書을 作成하라고 하시더니 指導者인 鍾植이 와 써달라고 하여 써주었다. …

1973년

◎ 1월 6일 (음 12월 2일) 토요일 晴

… 11時頃에 새마을가꾸기 政府支援 양회가 到着하여 풀어 아버지 家에 쌓았다. …

◎ 1월 8일 (음 12월 4일) 월요일 晴

… 面에서 穀賣上 동료次 職員 4名이 왔다. …

◎ 1월 9일 (음 12월 5일) 화요일 晴

… 德佑가 金成培은 접선 水利 新基 등 모두 오늘 郡에서 里長 새마을 지도자 등 술이 있어 못 만났다. …

◎ 2월 8일 (음 1월 6일) 목요일 晴冷

… 朝飯 後 마실 갈다가 새마을 양회와 下車을 하고 …

◎ 2월 22일 (음 1월 20일) 목요일 雲

… 오늘 마을 안길 답사를 한다고 하여 洞民들과 같이 도라보았다. 몇 사람을 除外하고는 自己田畝이 달까 하고 적극성을 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큰일이다. 매우 일하기에 힘이 들 문제이다. …

◎ 2월 25일 (음 1월 23일) 일요일 晴

… 洞里的 새마을事業에 對한 事項을 알아보기爲해 마을로 갈다가 오니 …

◎ 3월 3일 (음 1월 29일) 토요일 晴

새마을事業 始作. 前夜 洞會에서 決定한 대로 새마을 作業時間은 모두 엄수했다. 결석은 不得히 3名이었다. …

◎ 3월 4일 (음 1월 30일) 일요일 晴雲

새마을사업의 작업 狀況 道路擴張 200m 가량 밀양아저씨 집까지. (….) 점心 시간을 1時間 연장하여 高憲植집의 父親 7순 잔치에 갈다 왔다. 4名の 800원 부조하다.

◎ 3월 5일 (음 2월 1일) 월요일 晴

새마을사업의 道路擴張은 敎雨 家집까지 完了했다. 來日까지면 거이 끝나지 않을까 生覺된다. 모두 열성적이다. 空日로 定했던 來日도 모두 하자고 하여 하기로 했다. 새마을資金 件으로 一家口 當 5,000원씩 배당을 나는 先拂로 一金 3,000원을 今日 支拂했다.

◎ 3월 6일 (음 2월 2일) 화요일

새마을事業으로 마을 안길 500m는 거이 今日로 끝나고 農路로 우리 집까지에 논만 메꿀 것이 나았다. 今日까지 不作用은 큰어먼님이 큰소리 하시고 然雨가 떠들고 들어 갈다. 비교적 순조로운 作業이라 한다. 道와 面에서 왔다 갈다. …

◎ 3월 7일 (음 2월 3일) 수요일

今日は 손수레 2대로 논을 돈구어 거이 끝나갔다. 종일토록 큰어머니가 방해를 놓아 事業에 지장이 많았다. 사정을 말하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里長의 승을 받았다.

◎ 3월 8일 (음 2월 4일) 목요일

作業을 中止하고 面으로 해서 조합으로 가 채무사항을 대충 알아보았다. ...

◎ 3월 9일 (음 2월 5일) 금요일

... 큰아변님이 와 큰 소리를 내어 참으로 기분 나쁘고 큰어머니와 큰 소리를 내고 妻까지 손길을 내가 했다. 安養 아주머니와 논을 많이 들여 보냈다 야단을 쳐 큰일이다.

◎ 3월 10일 (음 2월 6일) 토요일

... 安養 아주머니 와 논을 많이 들여 같다고 게로움을 끼쳐 참으로 해결책이 나지 않는다. 큰어머니와 같이 지나치게 게로움을 주어 洞里 일이란 헤어나기 어려움다. 종일토록 부닥침을 받았다. ...

◎ 3월 11일 (음 2월 7일) 일요일

... 새마을사업은 오늘도 中止했다.

◎ 3월 12일 (음 2월 8일) 월요일

洞里人 半을 나누어 作業을 始作 오늘부터 양회 사업을 始作했다. 敎雨氏 家 앞 축대를 쌓았다. 郡 새마을 指導課長과 副面長이 訪問했다. ...

◎ 3월 13일 (음 2월 9일) 화요일

部落 새마을사업은 격일제로 하기로 하여 오늘은 집의 일을 치우기로 하고 ...

◎ 3월 14일 (음 2월 10일) 수요일

敎雨氏 家 前 下水口 새마을事業은 오늘로 끝났다. 敎雨氏의 웅고집에 모두 말을 못하고 뒤에서만 말이 많다. 저녁에 指導者가 술을 부쳐 모이었는데 모래차가 와 모래를 풀라간다. 會案은 來日 作業을 할라고 해도 모래가 없어 술을 연 모양이다. 참으로 많은 새마을作業의 不作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3월 15일 (음 2월 11일) 목요일

오늘은 30分을 앞당겨 새마을作業을 始作했

다. 共同食水 修理 하기로 하여 交代로 하던 作業을 總動員하여 거이 끝냈다.

◎ 3월 17일 (음 2월 13일) 토요일

새마을사업 양고[암거]을 오늘로 半가량 되었다. 다섯재祖 家 앞의 양고를 날개을 했다. ...

◎ 3월 18일 (음 2월 14일) 일요일

새마을事業에 대하여 壹雨와 正爽이 自己집 수채 막아주지 않는다고 不便을 하고 하여 몇 마디 하고 ...

◎ 3월 19일 (음 2월 15일) 월요일

소방 차고를 지을라고 기초을 오늘 했다. 그리고 敦植 家 마당 앞을 양고를 묻었다.

◎ 3월 21일 (음 2월 17일) 수요일

然雨 家 앞 축대와 길 옆 弘植家 後 墓 앞에 축대를 쌓고 점심을 먹고 ...

◎ 3월 23일 (음 2월 19일) 금요일

朝飯을 일직하고 新浦에 나간다. 농꼴 田택일 꾼에게 馬車을 갖고 오라고 하고 먼저 나가 철근을 챙기여 놓고 있으니 田氏가 와 午後에나 온다고 한다. 面長 副面長 鄭總務 等を 데리고 점심을 먹고 철근 2몽치를 더 싣고 왔다. 효과는 과대 했다.

◎ 3월 25일 (음 2월 21일) 일요일

새마을事業에 前日부터 덩개을 오늘까지 8個을 양고는 끝냈다. 午後에 致雨가 異論을 하여 떠들었더니 氣分이 매우 좋지 않다.

◎ 3월 26일 (음 2월 22일) 월요일

새마을사업 하는 데 가 있다가 (...) 산업계에게 돈을 비닐代 14,110원을 주고 (...) 肥料復合 5 袋를 찾아 갖고 왔다. ...

◎ 3월 27일 (음 2월 23일) 화요일

아산만 수로 토지사용 승낙서의 건으로 面에 가 본 부락 농지대장을 베껴 갖고 總務係長인 鄭昌煥君이 점심을 대접받고 도라와 部落 새마을事業에 나간다 오다가 담배값 一金 500원을 매끼고 왔다.

◎ 3월 28일 (음 2월 24일) 수요일

새마을사업의 일을 시켜놓고 집일을 치우기로

했다. 하루는 지도자가 하루는 里長이 맡아 격일로 하고 있다. 오늘 작업사항은 빨래 음물이다. ...

◎ 3월 29일 (음 2월 25일) 목요일

새마을사업 우리 조가 2반으로 나누어 빨래 음물을 하고 한 조는 苗 포장 準備로 포푸라 가지를 치라 같습니다. 그리고 敦植과 나는 소방기고을 쌓았다. ...

◎ 3월 30일 (음 2월 26일) 금요일

새마을사업에 일을 시켜 놓고 집에 와 ...

◎ 3월 31일 (음 2월 27일) 토요일

新浦에 9시에 가 肥料와 비닐을 알아보고 10시부터 三德校에서 畝가 있어 곳 三溪에 왔다. (...) 肥料 가질라 가는 고로 새마을 사업은 쉬었다.

◎ 4월 1일 (음 2월 28일) 일요일

4월이 닳아 왔건만 농사일엔 손을 못 대고 새마을事業과 洞里일 보기에 몸이 켜이니 조바심이 된다. 오늘도 몇 사람이 갈리고 나니 3명이 양고를 못었다. ...

◎ 4월 3일 (음 3월 1일) 화요일

... 朝飯 後에는 새마을 사업의 對한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

◎ 4월 6일 (음 3월 4일) 금요일

오늘은 部落의 男女總動員하여 婦女子는 苗木을 심고 몇 명은 뒤치다꺼리를 하고 양고를 놓았다. 副面長을 비롯해서 朴書記 2명이 와 술을 대접했다.

◎ 4월 8일 (음 3월 6일) 일요일 雲

새마을事業의 게시판을 부력으로 쌓았다. 일부는 양고를 놓았다. ...

◎ 4월 10일 (음 3월 8일) 화요일

마을 안길 확장한 것을 前日 큰어머니가 까드리었다고 하여 食前に 現場에 나가보니 과연 까드리었다. 참으로 이 동리가 어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 全部落民이 잘 살기 爲해 하는 일에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큰아번님이 오시기에 말씀드리니 어제 저녁에도 많이 싸우셨다면서 큰아번님이 해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말씀받고

오늘 계획을 말씀드리고 ...

◎ 4월 13일 (음 3월 11일) 금요일

... [水]路工事로 우리 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참]으로 기분이 나쁘다. 120餘 坪이나 들어가는 데 돈도 찾을똥 말똥[이]다. 苗板으로 몇일 분주하다. 새마을事業도 몇일 中止했다.

◎ 4월 23일 (음 3월 21일) 월요일 雲雨

밭벼를 심을라고 했더니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하여 일을 못했다.

◎ 4월 25일 (음 3월 23일) 수요일 雲

... 12時 頃에 面에서 畝가 있어 나갔다. 郡 組合에서 새마을축진대회이었다. 面에서 畝가 또 있어 밤 12半 頃에야 歸家했다. 面 단위 組合長이 사과하여 本 總대일동의 진정은 더 확대치 않기로 결정했다.

◎ 4월 29일 (음 3월 27일) 일요일 晴

새마을事業을 했다. 本 部落표시와 스라부지봉의 틀을 짰다. ...

◎ 4월 30일 (음 3월 28일) 월요일 晴

洞民들이 總動員되어 3名 스라부를 하고 午前 午後엔 洞里의 治道를 했다. ...

◎ 5월 8일 (음 4월 6일) 화요일

소가 나가 신일을 못하고 午前 中 물 苗板에 물을 퍼내고 새마을事業하는 데 協助하고 ...

◎ 5월 11일 (음 4월 9일) 금요일

午前 中엔 사랑 부엌의 스라부 할 곳에 철근 및 틀이 없어 수수깡으로 위를 열고 前面만 스라부를 할 생각으로 했다. 午前에 끝낼라든 것이 중일 했다.

◎ 5월 12일 (음 4월 10일) 토요일

午前 中 스라부하다. 양회를 개여 午前에 끝냈다. ...

◎ 6월 7일 (음 5월 7일) 목요일 晴

... 來日 새마을事業 심사가 있다고 妻는 苗木場에 풀을 뽑으라 가고 나는 三溪에 가 理髮을 했다. ...

◎ 6월 8일 (음 5월 8일) 금요일 晴

今日 새마을事業 심사 나온다고 하여 食前 일

직 洞民들을 모이게 하여 청소를 하고 심사에 대비했다. 午前에 집 안팎[밖]을 치우고 (...) 午鐘 頃에 洪淳鎬 재무계장과 담당이 와 점심을 대접했다. ...

◎ 7월 15일 (음 6월 16일) 일요일

洞里婦女會員을 動員 苗포場的 풀을 뽑고 洞里에서 肥料을 걷어 苗포 밭을 매고 施肥했다. 前日 出役 못나간 男子도 動員해 2時間가량 作業을 했다. ...

◎ 8월 7일 (음 7월 9일) 화요일

午前 8時半에 里長會를 開催. 參席者 里長 기관장 지도자 생활지도자. 퇴비 증산대회 後 풀비기 大會. 약 1時間의 풀비기 大會가 끝난 後 點心먹고 指導 들려 2時 半 頃에 歸家. 指導所 職員 訪問 2名. 논 현지 답사. 部落會 開催. 퇴비에서 件.

◎ 8월 14일 (음 7월 16일) 화요일

새마을學校 教育이 13일부터 14일까지다. 教育 次 新浦에 가 面에 가 洞里분들의 인감을 떼여 주고 水路工事의 경작인 증명을 떼여 갖고 教育次 갈더니 거이 끝나갈 무렵이다. ...

◎ 8월 25일 (음 7월 27일) 토요일

里長會. (...) 食事は 간단히 하고 理髮을 하고 面에 가니 會에 간다고 모두 新浦에 와 일도 제대로 못보고 雪創으로 車를 타고 가 會에 參席했다. 畝리야 堆肥 件이다. 雪創 部落의 堆肥는 과연 자랑할 만하다. 참으로 均日하게 많이 했다. 堆肥部落의 後坪 月谷 등을 巡訪하고 와 部落會를 했다. 오다가 來日 靑北面에서 4名을 선발하여 27일에 教育을 갈라고 아이들 데리고 素砂호 갈까 하니 콤비組 내가 빠져서야 되겠느냐고 줄라대여 마지못해 平澤으로 가기로 결정. ...

◎ 8월 26일 (음 7월 28일) 일요일

來日 教育을 받으라 가면 몇일 일을 못하게 되어 部落 모래 3니아카을 실어오고 堆肥場을 만 들고 집 썩은 것을 쌓았다. 現在는 과히 손색이 없는 듯하다. 午後엔 풀 한 짐을 비다 덥었다. ...

◎ 8월 27일 (음 7월 29일) 월요일

教育 次 西井里行 첫 車로 7時 30분에 到着하여 平澤의 農工훈련소에 가 入所수속을 마치고 教育에 임했다. 잠자리가 不便하여 郡에 와 말하여 旅館에 가 宿하게 되었다. 콩크리트 배합법, 세멘트관리법의 教育.

◎ 8월 28일 (음 8월 1일) 화요일

教育人員은 50名이라는 데 接受는 25名이다. 우리 面에선 나를 비롯하여 金壽國 金鍾萬 李益宰가 대상이다. 다들 靑北面에선 수석급 里長들이다. 오늘도 無事하게 教育을 마치고 益宰兄에게가 저녁을 먹고 旅館으로 왔다. 몇일 된 것 같다.

◎ 8월 29일 (음 8월 2일) 수요일

教育을 午前 中 하고 시험을 치르고 午後엔 진흥 工事의 견습을 하라 갈다가 곳 집으로 오다가 ...

◎ 8월 30일 (음 8월 3일) 목요일

安仲까지 10時까지 到着하라 하여 10시에 到着하여 오늘도 教育은 실습으로 牙山만에 가 돌 쌓기 등을 보다가 동서 家에 잠깐 들렀다가 견습을 끝내고 午後에 歸家하여 教育課程을 마쳤다.

◎ 8월 31일 (음 8월 4일) 금요일

몇일 동안 教育을 받고 오니 일은 물리였으나 별로 한 일 없이 해을 보냈다. (...) 洞里的 堆肥場을 도라보았다. 거이가 袖手傍觀이다. ...

◎ 9월 1일 (음 8월 5일) 토요일

... 朝飯 後에 洞里 다니면 堆肥동료[독려]을 하고 오니 面職員이 와 같이 다니고 하니 10시다. (...) 堆積場을 다시 손질하고 썩은 짐을 쌓고 ...

◎ 9월 3일 (음 8월 7일) 월요일

堆肥 동요 차 洞里을 一週하고 와 ...

◎ 9월 4일 (음 8월 8일) 화요일

... 面職員 3名이 와 테비를 돌아보고 안골祖개를 도리기했다. ...

◎ 9월 7일 (음 8월 11일) 금요일

... 저녁에 堆肥심사가 왔다.

◎ 10월 14일 (음 9월 19일) 일요일 晴

... 朝飯 後엔 農村指導所 連立 推進委員會와

里長會가 있어 新浦에 나간다. 수가 끝나고 늦게 야 도라왔다.

◎ 11월 3일 (음 10월 9일) 토요일

今日 秋耕경진大會가 있어 洞에서 누구을 보내야겠는데 脫穀으로 하도 바빠 마지못해 내가 나간다. 里長급으로는 나 외 1名뿐 직접 참가한 사람은 없다. 감도 좋은 논을 만나 600평을 1時間에 다 갈았다. 아주 빠른 속도라 제일 먼저가 아닌가 한다. 午後 5시까지인데 나는 그냥 집에 왔다. 저녁에 알아보니 중일 있었으면 득상권에 들었다고 한다. 里長이 직접 나갔다고 장려상을 주었다고 한다. 面長은 모범 里長이라고 경려도. ...

◎ 11월 5일 (음 10월 11일) 월요일

秋耕競進人會에 장려상장과 부상 삼 1個. ...

◎ 12월 31일 (음 12월 7일) 월요일

... 늦게 도라오니 德雨 致雨 然雨 등이 와 今年度の 結算을 했다. 새마을사업의 결산이다. ...

Ⅲ. 정치사회 활동과 인식

○ 국내외 정치·사회인식 및 개인의 정치활동

1959년

◎ 1월 1일 (음 11월 22일) 목요일 雲晴

... 오늘이 정월 초하루것만 양력 과세를 안 하니 명절같도 안코 장도 여전하니 언제나 개화될 것인가? 全世界가 오늘을 정월 일일 名節로 세우것만 우리 韓國은 언제 깰 것인가 한숨하다. 우리 一行 3人은 步行으로 해동갑했다.

◎ 2월 7일 (음 12월 30일) 토요일 晴

... 그럭저럭 해를 보내고 夕飯 後에는 마실 가서 모처럼 客地에 있는 親友들을 만나 놀다 집에 오니 春植이 왔다. 방갑게 마지하고 있으니 孟植도 아버지 家에서 내려와서 저녁 늦게 닭이 운데 서야 건너방에서 자리에 누었다. 陰曆 과세는

버릴 수 없고 또 구정을 참된 명절로 알고 관습 데어서 어이할 수 없는 노릇이다. 時代가 發達하면 發展할수록 時代 조류에 움지겨야 될 人間이 보수적인 데서 고정된 것 같다.

◎ 4월 11일 (음 3월 4일) 토요일 晴

몇일 동안 흐리고 비 오고 하던 날씨는 오늘은 맑근 날씨로 변해 산과 들을 아름답게 보이였다. 서울의 昌慶苑에는 꽃노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오늘이 반공일 내일일 공일 꽃을 맞아 찾아든 사람은 문을 메이게 할 것이 아닌가. 나도 젊은 少年 時節에 꽃피는 봄날 기다려 꽃을 피자 昌慶苑으로 德壽宮으로 독섬 등으로 봄을 즐기엇것만 언제 꽃이 萬發하는지 無관심 한 나. 모처럼 마을을 한가로히 건너다보니 다섯재祖父가 벚꽃이 활짝 피여 눈부시게 보인다. 생활에 도취한 나는 옆에 꽃을 보고도 無관심하것만 눈부시게 바라보이는 벚꽃을 보고는 진실로 아름다운을 느끼었다. ...

◎ 8월 15일 (음 7월 12일) 토요일 雲

... 오늘이 八一五 解방 記念日이다. 三千里 방방곡곡에 만세소리와 태극기 휘날리고 환희의 날을 마지한지도 13年이란 세월이 흐렸것만 아직까지 이렇타 할 進足を 보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당파싸움과 사치와 쥔리정탈에 허더기고 있으니 한심지사 아닐 수 없다.

◎ 9월 8일 (음 8월 6일) 화요일 雲

道民証 檢査 高棧에서. ...

◎ 9월 23일 (음 8월 21일) 수요일 雲

... 무슨 취미가 없고 하루 세 때 밥 먹는 취미다. 힘들지 않는 일이나 오락이라도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취미를 부치것만 그것도 아니다. 新聞雜誌도 없는 이 고장. 없는 게 아니다. 돈이 없다. 언제나 보람있는 살림을!.....

◎ 10월 5일 (음 9월 4일) 월요일 晴

... 食前に 앞 벼 밭 좀 대강 골라놓고 朝飯 後에 上植 家 일을 같다. 10名이 농짖 앞 등을 비고 뽀았다. 夕飯 食事도 먹고 와 일찍 자리에 누었다. 몸이 매우 피곤하다. 요사이느 사람 꼴이

아니다. 죽끼를 기를 쓰고 해야 生産 가격도 안 나오는 이 농사. 비료 부족에 신음하고 穀價 저落到 신음하는 이 농민. 剩餘가 되는 農物을 生産하니 별 大費이 없는 듯. 용자 가격도 안 나옴고 國會에서 말성이 많다. 國民은 죽던 살던 자 리다툼에 차고 박고 싹박질 이래고서야 누굴 믿고 살 수 있을까? 언제나 농촌안정이 있을 건가? 國民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國民의 정치가 民主政治인 것이며 마땅히 國民을 위하여야 도리 것이건만 켄리에 아부하는 國會議員이 무슨 낯으로 지방에 와 유권자를 對할까?

◎ 10월 14일 (음 9월 13일) 수요일 晴

… 朝飯 後에 靑北面 國民會年次大會에 參席次出發했다. 分會場 及 役員은 그대로 존속했다. 모두가 自由黨의 選舉運動이요 어디까지나 中立이 되어야 할 국민회도 역 自由黨인 여당에 치우쳤다. 郡에서 現 教育監인 國民會 組織委이 와서도 말이 어디까지나 選舉에 대한 말을 했다. …

◎ 12월 24일 (음 11월 25일) 목요일 晴

… 언제나 그리스마쓰에는 추웁다. 來日이 聖탄이다. 他國이나 都會 같으면 XMAS 추리가 팽창하려만 우리 시골은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지나갔다. 年賀狀에 XMAS 카드가 시세 높고 온갖 善物이 오고 가는 날. 來日의 明節! 기대가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이들의 즐거움이 來日이다. 그러나 우리 시골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간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음 11월 26일) 금요일 晴

XMAS 聖誕. 승탄일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 世界 각국이 일대 명절로! 뜻있는 날이다. 우리 作業場도 일을 中止하고 會食이라도 할까 하고 事業主와 함께 高棧 넘어가 술 두 통을 받고 안주를 求하려고 쓰다니였으나 없어 오징어와 멸치를 사다가 炳賢 家와 炳殷 家에서 장만하여 어른은 炳賢 家 젊은 페는 炳殷 家에서 午後에 食事を 始作했다. 高棧서 水原 약주 두 잔을 마시고 가니 취기가 든다. 夕飯 食事 頃에 會食이 끝났다. 夕飯을 하고 또 마실을 건너갔다.

◎ 12월 31일 (음 12월 2일) 목요일 雲

오늘 주탕곡과 술 몇 잔으로 請負者와 몇몇이 망년해를 보냈다. 지나간 한 해를 회고하건대 무의미한 해를 보냈다. 또 큰 대화도 없었으며 또 별 잘된 일도 없다. 평범한 한 해를 보냈다. 농사가 많지 않지만 비교적 잘 지었다. 10여 마지기 농사에 양도 제위하고 20畝는 여유다. 今年에 논이 너덧 마지기 느니 또 수확도 늘어 좀 안돈 한 마음이 드렸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사를 하느냐 就職이나 商業이나 농사 十字路 선 나는 갈파를 못 잡았으나 올해 나의 마음은 농사로 주저앉게 된 셈이다. …

1960년

◎ 新年所感

己亥年은 저물고 光輝의 찬 庚子 新年을 마지했다. 해마다 다가온 첫날은 希望이 크고 計劃을 세운다. 人間은 이 希望에서 鮮生한다. 과거를 비판하고 미래의 希望 發展한다. 오날보다 來日! 來日보다 모래 今年 來年 후年 이렇게 一步一步 進一步하여 품은 希望을 成就하여 目的達成에 이바지하기에 노력한다. 세간난 지 三年 오날날까지 실패없는 發展을 보았다. 나의 六個年 計劃도 실패는 없을 것 같다. 누구의 의뢰 없이 살아보겠다는 굳은 결심! 이것은 뼈저리게 느낀 感情에서 생긴 것이다. 權力도 배경도 金力도 아무것도 없는 나! 努力과 싸워보겠다는 心情뿐! 첫재로 金力! 卽 財物과 싸울 것이 첫재 條件이요 다음의 문제가 權力 背景이다. 現 社會는 權力 金力 背景의 社會이다. 貧한 살림사리 속에 허덕이는 이 신세. 희망! 피어날 앞날의 希望마저 없었으면 벌써 이 아까운 靑春도 타락게 되었을 걸. 希望이 바쳐 오날날까지 허덕인다. 내가 삶으로서 兄弟和睦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如意하여 就職이 되면 多幸이요 不如意하여 아니 되면 농사다. 또 今年에 농사도 잘 지면 去年과 모

아 무엇이든 잡을 수 있고 해볼 것이다. 社會로 進出하는 것이 有一한 發展이겠지만 가마니 트러 백하여 있으니 아무것도 모른다. 今年에는 其必 成就하길 所望하며!...

◎ 1월 1일 (음 12월 3일) 금요일 晴

庚子年 첫날을 마지했것만 正月 초하루날의 氣分이 없다. 언제나 艱生할 國民인가? 마땅히 陽曆 과세를 해야 마땅하것만 동리 일때 온 靑 北面民이 陽曆 과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世界 全國民이 오늘부터 첫날로 날자를 세워가고 모든 計劃을 세우것만 우리 國民만이 陰曆을 따지는 한송지사다. 이중과세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陽曆 과세를 지시하것만 망무간이다. 우리도 간혹 말하면 老人들은 역정이 심하시다. 별 것 같지 않은 우리는 오늘도 作業現場에 일을 나간다. 저녁에 술잔이라도 나누고 간단한 會食이라도 할까 했으나 事業主가 돈이 떠리저 증지하고 말았다.

◎ 1월 24일 (음 12월 26일) 일요일 晴雲

... 軍警 援護會費 660환, 月曆 費 100환, 十字會費 160환 [합] 白米 1斗 支拂.

◎ 1월 28일 (음 1월 1일) 목요일 晴

... 自由黨 黨務委員의 反對로 舊正을 무슨 明節로 하자는 議員의 제안이 취지화 되고 말았다. 夕飯 後에는 뗏이 웃을 던지고 놀다 왔다.

◎ 2월 4일 (음 1월 8일) 목요일 晴

... 今般 正副大統領選舉는 三月拾五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이것은 自由黨의 결정이다. 民主黨 大統領候補 趙炳玉 博士가 炳으로 因하여 美國으로 入院次 떠났다. 五月 選舉를 三月로 한다는 것은 自由黨과 對결인 民主黨候補로 不利하게 만드는 것이다. 自由黨에선 농한기를 이용해서라는 구실로 나서것만 우리 國民은 그것도 아니라 生覺한다. 우리야 아무 당이나 마찬가지로 지지만 어디까지나 無獨裁政治 우리 elli정치를 찬동이다.

◎ 2월 17일 (음 1월 21일) 수요일 晴

... 趙炳玉 博士 急逝 消息.

◎ 2월 20일 (음 1월 24일) 토요일 雲

... 오늘 新聞을 보고서야 趙博士가 美國에서 영영 다시 못 볼 세상을 떠나시다. 애려처운 일! 大統領候補로 가장 인기 높은 趙博士가 가시다니 우리 大韓民國의 運이 없다. 民主黨에는 아주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申翼熙 先生도 투표 前 10日前에 急逝하시고 國民의 서러운 때도 버스기 前에 또 같은 民主黨에서 大統領候補인 趙炳玉 博士가 心장 마비로 도라가시다니 웬일인가. 오늘 비행기 편으로 수족 굳은 시체가 한국에 도라올 날이다. 國民의 울음소리 찬연한 오늘 시체를 마저 25日 國民장으로 申先生 옆 牛耳洞에 장地로 정하였다고. 政府樹立 13년까지 한 사람 치하에서 누구나 가라보았으면 하는 心理와 넘어 심한 官權의 놀리며 반발心を 억제치 못할 정도로 갈아볼라하니 또 그만이고야 말았으니 하늘이 낸 분이 아니고야- ...

◎ 2월 21일 (음 1월 25일) 일요일 晴

... 네재祖父가 책을 읽어 달라 해서 五百年野史라는 冊을 오전 중 읽는 순간 李朝 五百年의 政務를 다시 더듬게 되었다. 우리 民族性을 탄한지 않을 수 없 것! 現在나 마찬가지로 名人物을 모략중상으로 스러트리고 자신이 올라스려는 당 파싸움 人재등용도 옛이나 이제나 마찬가지로인 것 한탄지사 아닐 수 없다. ...

◎ 2월 25일 (음 1월 29일) 목요일 雲

... 오늘이 大統領候補 (民主黨) 趙炳玉 博士의 葬儀式 날이다. 下午에 葬儀式 時인데 우리 온 國民의 서름 이은 크나큰 韓國의 인재가 영 도라오지 못할 지하에 뭇치시니 누구나 눈물을 먹굽치 않으리요. 하늘도 서러운지 가무는 이 날씨에도 촉촉히 눈물의 비방울이 나리었다. 오- 임은 가시고 / 마음 둘 곳 몰라 / 해매는 마음 / 가신 님 뜻 못 이루사 / 우리의 희망 / 언제나 따듯한/ 봄이 오련가...

◎ 2월 27일 (음 2월 1일) 토요일 晴

오늘서야 서울 趙博士 藏儀式의 광경을 들었다. (新聞에서) 歷史 이래 처음의 사람이 모이었다.

서울 장안이 눈물바다로 이루었다. 목이 메여 울음도 안 나오더라는 보도와 사진을 보았다. …

◎ 2월 29일 (음 2월 3일) 월요일 雲晴

… 夕飯 後에는 마실을 가니 오늘 坊上會에 里坊長을 식기 두 벌씩 주었다 한다. (坊長 한 벌, 里長 두 벌) 이것이 이번 正副統領 選舉의 것이다. 우리의 마른 호주머니를 털어다가 이러한 야비한 수단으로 選舉運動을 하고 있다.

◎ 3월 1일 (음 2월 4일) 일요일 晴

三月一日 四一年前 日本 제국主義 하에 억매여 우리 全國民이 獨立運動을 하여 우리 三千里 坊坊曲曲에 萬歲소리 진동하고 탑골公園에서 獨立宣言文을 朗讀하여 가진 고초를 당한 獨立運動 投士 三,三人에 감사의 뜻을 表하며 …

◎ 3월 9일 (음 2월 12일) 수요일 晴

選舉運動은 自由黨뿐이다. 公務은 總出動하여 每日같이 自由黨 選舉運動으로 事務는 등한시한다. 教育公務員도 오늘 이 동리에 왔다. 이것이 참다운 公正選舉냐. 上部에서 시키는 대로 行치 않으면 身分上 좋지 않다. 눈에 거시고 비위에 맞지 않다. 自由霧圍氣 그대로 내두면 公正選舉가 아니고 무엇이냐. 오죽 우리 自身이 할 일은 왜 自由를 억압하느냐. 종일 그럭저럭하다가 뒤엎 몇 짐 지다가 가마도 몇 작 치다가 하로해를 보내고 …

◎ 3월 10일 (음 2월 13일) 목요일 晴

食前에 農協斡旋肥料 두 組 追加金 55,260환을 것이 高棧 組合長을 갈다주고 와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가니 投票를 三人組로 되어 組長이 보고 직게 되었다니 나는 5인의 組長이라나. 누구나가 不滿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投票權이 반도 아니 나왔다니 이것은 누가 投票할 것이냐 말아야. 참말로 自由霧圍氣 公正選舉를 하려는 自由黨候補者 拾分之壹도 안된다고 하며 不滿을 하는가 하면 현 벼슬아치 利己主義者 몇 박게는 안 될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벽보도 自由黨만 붙어 있고 다른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입만 모으면 自由黨 욱. …

◎ 3월 11일 (음 2월 14일) 금요일 雲

오늘 場에서 民主黨의 街頭宣傳에 場이 거이 쪼차 다니고 自由黨 宣傳에는 몇 사람 없었다는 말을 듣고 民心은 돌대로 도랐다는 말. 自由黨 宣傳場所에는 듯다가 비웃고 사라지는 사람이 많더라는 場꾼의 소식.

◎ 3월 13일 (음 2월 16일) 일요일 晴

… 금번 選舉에 出血選舉와 물로 自由黨이 한 짓이라고 한다. 서울에선 民主黨 本部 앞에 고성 마이크를 몇 개를 다라 놓고 民主黨의 말을 못 듣게 한다는 말. 하나 國民은 自由黨 하면 코방구를 내쉬며 民主黨의 宣傳만 있으면 生死를 불고 하고 쪼차다닌다. 암력은 세나 민심은 돌다. 先進國家의 美國은 한국은 완전 독재국이니 民主國인 우리는 원조도 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함. 이런 소리 國民의 참된 소리를 듣는가. 大統領 영암.

◎ 3월 14일 (음 2월 17일) 월요일 晴

사람만 모이면 選舉 이야기 이야기를 하데 自由霧圍氣 파괴 不公明選舉에 대한 화제. 오늘은 완장을 주데 組長이라고 광목으로 만든 완장이 있는가 하면 尙務會 反共靑團이라고 選舉權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완장이 있다. 이게 무슨 必要가 있으며 또 유리할 것은 무엇인가. 게다가 有權者 記號가 반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 어이 될 것인가. 누가 직을 것인가. 韓國만이 있을 수 있는 과연 엽전 선거다. 한숨지사. …

◎ 3월 15일 (음 2월 18일) 화요일 晴

오늘이 大韓民國의 正副統領 選舉日이다.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건너가니 떠들썩하고 야단이다. 記號가 안 나왔으니 안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나가야 되느니 야단들을 한다. 몇몇이 投票口에 나가니 벌써 사람이 많이 왔다. 投票하러 드러가니 自由黨 天地다. 民主黨 其他 他 立補者의 參觀人은 없으니 마음대로 投票해 갖고 함에 느을째 모조리 본다. 나중에 드른 말이지만 여기 찍으라고 지시하는 가하면 직거 가지고 오면 잘못 직것다고 고치고 심지여는 찌저서 책상에 느어버린 일까지 있었다니 수고스럽게 投票

는 무엇다매 할 것인가. 마음대로 앉아서 할 일이지. 저녁에 궁금하여 건너가니 우리 동리도 요시찰인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

◎ 3월 16일 (음 2월 19일) 수요일 晴

妻는 感氣 차라가 가서 前日 두리누어 있어서 投票도 못하고 밤에도 열이 오르었다. 나도 코물이 일 줄 모르고 흐른다.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꽃을 일주하고 朝飯 後에 마실을 건너가니 中間發表가 되었는데 李承晚博士는 當選되고 張博士는 가망 없고 李起朋도 當選 확실하다 하는데 國民이 던진 표는 한 점도 없다고 한다. 民主黨에선 選舉無效라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投票口에서도 몽조리 환표라 한다. 한숨지사. ...

◎ 3월 17일 (음 2월 20일) 목요일 晴

今般 選舉로 因하여 被害者가 막심하며, 도처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살상者也 많다. 환표와 무대기표로 이긴 것이다. ...

◎ 3월 18일 (음 2월 21일) 금요일 晴

... 다섯재祖父 家에 마실 갈더니 금번 선거에 흥식이 지목을 당했다나. 부정도 없는데 우리 신씨를 못 먹었다는 기회에 디리 싸웠다. 우리 申氏가 전에 행세를 했다고 사방에서 노리고 있는 중 이번 기회를 본 것이다.

◎ 3월 19일 (음 2월 22일) 토요일 雲

... 안는 왜뚝을 손질하고 오다가 高棧 相均이를 만나 우리 高棧이 왜 現在 주목을 받고 있는가 하라버지들의 잘못으로 양반이란 권리로 너무 한 보답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우리는 더 단결해야 되고 더 활동을 전개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 新聞을 보니 馬山에선 今般 五. 一五 選舉로 일개 폭동이 일어나서 放火事件 데모가 일어나는 등 人名이 피해 100餘名이나 된다고 한다. 사망자도 상당히 많아 10餘名이 넘는다 함. ...

◎ 3월 20일 (음 2월 23일) 일요일 雨

새벽 잠결에 드르니 부슬부슬 낙수소리 푹푹... 또록푹.... 잇이 방가운지 눈이 번쩍 더 문을 열고 내다보니 먼동이 트일 무렵이다. 우리 人間에

게 곡식이 나리 것이요 온 草木의 生命水 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학수고대 하든 비가 나리니 방가움을禁할 수 없어 한참이나 내다 보다가 사랑뜰로 안으로 들락날락 하였다. 朝飯에 마실을 가보니 사람들이 입이 빙글빙글 약비여 곡식이 나리었어 등 모두 비오는 인사다. 제 아무리 살라고 지랄해도 自然條件에 依해 사는 것이 人間 아닌가. 바라건대 雨順風調해서 國養民安하길 祝願하나니 우리 순진한 양민의 뜻이 이루리. 利黨利權私福 협잡을 하는 무리들의 참된 良心 밑에 더 점 나라와 民族을 爲해서 國利民福을 爲 일했으며! 한숨지사. 우리 民族이 이렇게 民道가 얇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민족이야 집발피던 말든 나만이 살라는 무리 위정자 惡吏들 언제나 반성할까?

◎ 3월 22일 (음 2월 25일) 화요일 雲

... 馬山 事件은 가라앉지 않고 문제가 더 확대된다. 民主黨 馬山市의 戒嚴令下와 같은 恐怖寡圍氣를 解消하라 不法的 發砲命令을 내린 者 嚴重處斷하라 등 選舉史上 유위없는 死傷자가 났으며 일대 전쟁이 전개되어 空手로서 正義와 싸운 馬山市民에 동정이 간다. 自由黨은 마땅히 國民에게 謝過를 해야하고 選舉는 無效라야 된다. 말 말고 귀 먹고 보지 말아야 사는 세상. 辯護士會長 辛泰獄氏도 이것은 民衆心理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다.

◎ 3월 23일 (음 2월 26일) 수요일 雲

... 11時 頃까지 일을 보아주고 와 그럭저럭 新聞을 보니 분개해서 못 견디겠다. 馬山事件은 正義를 찾기 爲해서 데모가 일어난 것인데 이것은 마치 빨갱이의 짓시라고 모라는다는 것. 權利를 박탈당한 우리 國民 앞에 언제나 참된 民主主義의 봄이 올 것인가. 입 있어 말 못하고 귀 있어 듣지 않고 눈 있어 보지 말아야 되는 세상. 언제나 참된 이목구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愛國 愛族의 위정자 나올 것인가?

◎ 3월 26일 (음 2월 29일) 토요일 晴雲

... 오늘 李承晚博士 85回 誕生日.

◎ 3월 29일 (음 3월 3일) 화요일 雲

... 논투량을 도라보고 입맛 없는 밥을 먹고 또 자리에 누었다가 新聞이 와 보니 馬山事件은 調查團의 입싸움은 自由 民主 兩黨은 어느 말이 옳는지 自黨의 有利한 말씨름을 하고 있으나 國民은 미리 알고 있는 걸. 이것은 調查도 아무 것도 아니다. 自由黨의 횡포이다. 政府 自由黨 警察等の 前後 計劃이 아니고 무엇이냐. 靑少年 어린 이들에게 총을 쏘아 無數한 살상자를 내고 부족해서 共產黨이라는 무서운 죄명을 준다는 것은 너무 심하고 아니 人間으로선 말도 아니다. 언제나 우리 政府가 올바른 良心의인 眞正한 國家와 民族을 爲한 政治를 할 것인가? 우리 농민은 점점 말이 아니다. 肥料는 비싸고 농산물은 떨어지고 우리의 上官 농림장관은 농산물 저락만 되면 가장 잘 하는 낭 요즈음 米價가 좀 양등하니 무엇을 하느니 어쩌니 큰 걱정을 하고 있으니 七할 이상을 농민을 가진 나라에서 누구를 爲한 정책인가. 1,500환을 해도 生産價格 안 되는 것을.

◎ 3월 30일 (음 3월 4일) 수요일 雨

... 韓日間에 協商여인 韓國의 米穀輸出이 될 韓日會談이 結果를 보아서인지 米價昂騰을 보고 있다.(韓日通商全面再開合意) 馬山 데모 騷擾事件 調查 與野相反된 見解-- 大韓辯護士協會에선 警察 彈壓은 殺人罪로 處罰主張-- ...

◎ 4월 18일 (음 3월 23일) 월요일 晴

몇일 안 오더니 新聞이 많이 왔다. 馬山에 流血 데모(第二次)가 繼續되고 있다. 金周烈君이 行方不明된 지 25日만에 發明되자 金君의 屍體引渡를 絶叫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

◎ 4월 19일 (음 3월 24일) 화요일 晴雲

... 종일 그럭저럭 하다가 下午에 新聞을 보니 서울서도 高大生 데모를 始作해서 약 2,000餘名이 國會議事堂 앞에서 앉고 누어서 李承晩 政府 물러가라 馬山 데모학생 감금된 것을 석방하라 金朱烈君의 死因을 밝히려는 등의 데모를 하였다. 淸州 仁川 大邱 釜山 全州 각 郡市에서 데모가 끝칠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다.

◎ 4월 21일 (음 3월 26일) 목요일 雲

서울에서 크나큰 데모가 일어났다. 천 명 이상의 데모대가 몇 군데서 일어나 12部 各處에서 연좌데모가 일어나고 中央廳 각 晝類는 전부 마당에 팽개치고 李承晩 大統領이 관저 경무대와 李起鵬 집에선 數百名의 데모대가 死상자를 내고 일대 市街戰이 일어났다 한다. 앞에선 총탄에 마저 쓰러지고 뒤에선 밀고 밟고 밟고 시체를 넘어 앞으로 드러가니 장갑차 탱크 기간총 등으로 밀어내었다 한다. 소방차 집차 택시 승합차 등을 모조리 빼서 데모를 하고 李承晩 政府 물러가라 三一五 選舉 다시 하라 民主政治를 지킴은 李承晩 李起鵬은 國民에게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부르짖으며 종일토록 일어나고 가두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손벽을 치고 서울신문사 반공회관 등에 불을 질러 종일토록 탔다 한다. 우리나라에 참다운 民主政治가 언제나 올 것인가?

◎ 4월 23일 (음 3월 28일) 토요일 晴

... 서울을 오늘까지 戒嚴令 解제 안 되고 있다 한다. ...

◎ 4월 24일 (음 3월 29일) 일요일 雲

... 멋처럼 新聞을 보니 宋戒嚴司令官이 出板을 제지하여 전부 지우고 하여 볼 맛이 없고 또 드는 야기다. 報道에 依하면 死상자 數 900名이라 했으나 말에 依하면 4,000名으로 들고 있다. 내가 보는 自由新聞은 벌써 몇일째 안 온다. 民心收拾 책으로는 李起鵬 副統領 當選 포기해야 되고 李承晩 大統領 下野해야 원만한 해결이 될 것 같다. (...) 4,000餘名이 막대한 人名 피해를 본 國家 元帥는 무슨 면목이 있을까?

◎ 4월 25일 (음 3월 30일) 월요일 晴

... 요즈음 동리 주요 화제는 데모 이야기가 절반이고 간조 이야기는 좀 속속한 편이다.

◎ 4월 26일 (음 4월 1일) 화요일 晴雲

... 政府 消息은 통 드를 수 없더니 오늘 다섯 祖父께서 李起鵬은 아주 매장되었다 한다. 야의 有名人士인 李範來 許政 卞英義 등의 습습을 했는데 李大統領에게 모든 것을 許政이 폭노하

였다 한다. 심지어는 재산까지 몰수설이 있다 하니 무슨 꼴.

◎ 4월 27일 (음 4월 2일) 수요일 晴

... 서울에는 26日 大學先生이 데모를 하는데 民 學生 等이 합류하여 그나쁜 소동이 일어났다 함. 李起鵬 家屋은 전부 파괴하고 세간 사리는 모조리 같다 불 살랐다 하니 이것이 무슨 꼴이냐, 26日 데모는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다.

◎ 4월 28일 (음 4월 3일) 목요일 晴

모자리 물을 대고 집에 오니 서울서 李起鵬氏 家族이 전부 자살을 했다는 말이 들리었다. 李大統領은 사표를 내고 梨花장으로 갈다고 하더니. ...

◎ 4월 29일 (음 4월 4일) 금요일 晴

... 李承晚 大統領 26日 사직. 李起鵬氏 家族은 정무대서 李康石 李起鵬 長男 李承晚 養子가 권총으로 아버지를 쏘고 어머니 박마리아를 쏘고 이어 동생을 쏘고 自己를 쏘아는 것이 확실. 家族合意 확실.

◎ 4월 30일 (음 4월 5일) 토요일 晴

... 時局은 혼란 기운. 今年 年事는 어이 될까? 날은 가물고 소동은 일어나고.

◎ 5월 7일 (음 4월 12일) 토요일 晴

... 來日 동리 處女들이 노리를 간다고 야단떨이다. 나는 말이였다. 날도 이렇게 가물고 時局고 難局이고 한데 무엇이 좋와서 노리냐고 말기였으나 나의 힘으로 부족하여 다가는데 春子도 빼을 수 없어 보내기로 하고 떡을 좀 시키었더니 개피떡을 했다. ...

◎ 5월 30일 (음 5월 6일) 월요일 晴

... 李承晚 前 大統領이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6월 1일 (음 5월 8일) 수요일 晴

... 일 같다 와 新聞을 보니 과연 前大統領 李承晚 博士가 九十 고개에 韓國을 떠나지 안으면 안 될 입장이 되여 도망을 가다니 집權 十二年 동안 잘못이 이만저만이 아닌 형편이니 따분한 일. 國民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와이로 망명하다니.... ...

◎ 6월 11일 (음 5월 18일) 토요일 晴

... 高棧 重植 와 農協의 公文을 갖고 오고 또 절꼴 鍾植氏가 이번에 民議院에 立候補하게 되었는데 우리 申氏에서 표를 얻어주자는 의논次 왔다. ...

◎ 6월 17일 (음 5월 24일) 금요일 雲

... 저녁에 와 新聞을 보니 改憲案이 通過되었다. 內閣責任制 改憲案은 12星霜의 宿願을 품고 15日 낮 11時 30분에 만장일치로 通過되어 1人獨裁의 씨가 깨끝이 벗어나 第二共和國의 건립 四.一九 學生義舉 祖國의 땅 우에 뿌려진(피)에 보답하여 民主韓國의 百年大計를 이룰 날이 다가왔다. ...

◎ 6월 22일 (음 5월 29일) 수요일 晴

... 美 大統領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韓國에 와 熱狂的인 歡迎을 받고 21日 24時間만에 떠났다. 日本訪問은 이이크 日本訪問反對 데모에 의해 못 가게 되었다.

◎ 6월 25일 (음 6월 2일) 토요일 晴

... 6.25의 날이다. 10年 前에도 날이 가물어 요사히 모심기가 한참이었다. 감계 깊은 이날. 나는 永登浦에서 오늘 바로 永登浦 역 前 代書人의 적기 기관소사에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역전 어린이 총탄에 쓰러진 것을 보고 나도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고 비행기를 피해다니었었다.

◎ 7월 4일 (음 6월 11일) 월요일 雲

... 이번 民參議員仙居가 치열한 選舉戰일 것이다. 民 1,500名이 立候補를 해서 7對 1, 參에 4對 1 가량인데 우리 일가 申氏는 7,8名 立候補를 했다.

◎ 7월 6일 (음 6월 13일) 수요일 晴

... 벌써 몇일 재 新聞이 안 와 가깝하다. ...

◎ 7월 11일 (음 6월 18일) 월요일 晴

... 總選舉를 몇일 앞둔 고로 新浦에도 各 事務所마다 運動員이 왔다갔다 하고 날 보고도 여기저기서 찾아와 運動員 登錄을 要 하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百萬人의 醫學 冊 보내주었다.(妻家)

◎ 7월 13일 (음 6월 20일) 수요일 晴

... 朝飯을 늦게 하고 오늘 平澤民議員 立候補 合同講演 政見을 드렸다.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서투른 사람도 있다. 구매구매에선 국수를 대접하느라고 야단떨이다. 우리도 어느 친구에 의해 드러갈다가 하도 유치하고 양심에 가책이 될 뿐더러 귀중한 한 표를 그런데 이용하기 싫어 그냥 나왔다. ...

◎ 7월 14일 (음 6월 21일) 목요일 雲

... 新聞에 依하면 이태리 科學者가 水銀爆彈의 실험으로 7. 14. 12. 45분에 地球에 終末이와 百餘名이(伊 브란서) 山峰으로 避身하였다고 騷動이 왔다. ...

◎ 7월 16일 (음 6월 23일) 토요일 晴

... 오늘 場에선 民參議員 立候補 30餘名이 場을 소란할 정도로 政見이 있었다 한다. ...

◎ 7월 17일 (음 6월 24일) 일요일 晴

制憲節 ...

◎ 7월 20일 (음 6월 27일) 수요일 晴

... 요즈음의 화제는 民參議員 立候補 人物評이다. 宣傳員 登錄을 해라는 권고도 많이 받았지만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집에만 있다. 部落에서는 날 보고 얻이 가서 돈을 두더 오라는 것이다. (...) 夕飯 後에 宋宇根 立候補 個人政見을 事務所에서 하는데 같다 왔다.

◎ 7월 21일 (음 6월 28일) 목요일 晴

朝飯 後에 安仲을 같다. 치열한 選舉戰이 일어나고 點心요기는 누구나 하고 온다고 自身하고 들 場에를 갖것만 點心 굶고 온 사람이 허다하고 아는 사람 없으면 허사다.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양心に 꺼리끼는 짓은 하기 싫은 지라 그냥 올라다 柱雨 아저씨에게 點心을 대접받았다. 구매구매 食券으로 點心을 먹고 있다. 人使 次 各事務所를 찾았다. ...

◎ 7월 22일 (음 6월 29일) 금요일 晴

... 選舉終盤戰에 든 고로 요즈음은 運動要員이 끝일 사이 없이 드나들고 運動마다 나를 特別이 찾아와 잘 말해 보내기가 아주 거북하다. 중일

그늘에서 그럭저럭 놓고 新聞이나 보다가 해를 보내는 것이 日課이다. 夕飯을 마치고 있으니 高棧 진식이 와서 民主黨 參觀人으로 있어 달라고 신신附託을 하것만 自然人 그대로 깨닫한 票를 던져주겠다는 마음에 거절하여 보내는데 아주 안되었다. ...

◎ 7월 23일 (음 6월 30일) 토요일 晴

... 新浦에를 갈까 하다가 안 같다. 원인은 各事務所마다 運動을 아는지라 어떤 事務所 運動員을 만나 말을 하면 他 運動員이 의심을 하게 되고 순수한 사람인 내가 여러 사람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되어 모두가 거추장스러워 못 같다. 點心을 사주고 구매구매 수군수군 이것이 運動이다. ...

◎ 7월 26일 (음 윤 6월 3일) 화요일 雨雲

... 選舉戰은 最終盤戰 熱을 뽐는 政見은 오늘 은 비가 나리니 얼마나 조조한 마음에 잇을까.

◎ 7월 28일 (음 윤 6월 5일) 목요일 晴

妻男이 떠난다고 해서 오늘 新浦場이고 7.29 選舉戰도 끝맺는 오늘 新浦나 나갈까 하고 妻男과 같이 나간다. 10時 頃부터 始作하는 政見은 崔錫和 李炳憲 金鎮澤 崔承錄 等の 政見을 듣고 도라왔다. 崔錫和 政見이 젊은 기백이 살아 있고 구변도 제일이며 아주 自然스럽고 李炳憲 政見은 늙었으나 파고 들면 아주 신뢰성이 있어 보이며 미듬직스럽고 崔承錄은 별 인기 없이 말하며 鎮澤은 너무 열적이다. 李斗憲에게 點心 대접을 받고 上植과 같이 걸어왔다. 집에 와 풀을 비고 있으니 농골 사업소에 柳文武와 金鎮鐸이 政見이 잇었다.

◎ 7월 29일 (음 윤 6월 6일) 금요일 晴

오늘이 4. 19 義舉學生으로 因해 7. 29 總選舉가 실시하게 되어 오늘 總選舉日이다. 새로 選出되는 일꾼들이 學生革命精神을 받으려 일할 것인가? 탄압과 압력의 獨裁의 씨가 벗어나 오늘 選舉는 果여 民權을 守護하여 自由 그대로의 선거이다. 누가 간섭치 않고 누가 압력 없이 公明 選舉 그대로이다. 이렇게 自由스럽고 自己 뜻에

맞는 사람을 뽑는 이 마당에 과연 大韓民國도 민주主義의 서광이 빛어올 것이다. 이것이 第二共和國 正義와 良心에서 선진우방국에 지지 않는 人權 守護의 自由主義가 되어 보다 나은 韓國이 되어 길이 빛나주길 희망하며 나도 깨닫는 한 표를 던져주었다. ...

◎ 7월 30일 (음 윤 6월 7일) 토요일 晴

朝飯 食事を 마치고 平澤郡民議員에 누가 當選이 되었나 궁금하여 건너가니 아변任이 레디오를 듣고 와 李炳憲이 當選 되었다고..... 李炳憲씨가 15,000餘票로 當選 柳致松氏가 4,000餘票 차이로 次點으로 落選이 되었다 한다. 과연 12名 중 第一 나은 사람을 當選이 되었다. 大谷은 거이다 몰표로 李炳憲에게로 같다. 쏘나귀 한 줄기 지나간 大地은 생기를 뒤흔들고 시원한 서풍은 농작물에 춤을 추게 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깨끗하여 조금만 구석도 없어보이니 우리 人間氣分로 明朗 상쾌하겠만 今般 選舉에 落選者는 맥이 풀리고 어이 할 바 모르고 있겠지? ...

◎ 7월 31일 (음 윤 6월 8일) 일요일 晴

... 參議員 開票 事項은 아직 모르고 民議員도 事故區가 많은 것 같고 삼당진은 投票函을 불살라 버리었다 한다. 이거 큰일이다. 四.一九 學生革命으로 大韓民國이 自由를 찾아 다시 第二共和國이 된 것은 學生에 對한 無限한 感事 형용할 바 없으나 뒤가 깨끗해야 될 것은 순전히 학생이 政治에 關여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인데 그만 학생들이 순수한 學園으로 돌아갈으면 四.一九 學生 의거에 모독이 안 되련만... ...

◎ 8월 3일 (음 윤 6월 11일) 수요일 晴

... 新浦에 몇 일만에 왔다. 民主黨이 大勝利했다.

◎ 8월 11일 (음 윤 6월 19일) 목요일 晴

... 八日 國會가 開會되어 議長 民議員에 議員 郭尙勳 副議長 서민호 李榮俊 參議員 議長 白樂준 副議長에 蘇선奎

◎ 8월 12일 (음 윤 6월 20일) 금요일 晴

... 夕飯 後에 마실 가 레디오를 통한 消息에

大統領 尹보善氏가 208票라는 압도적 다수로 當選되었다. 이것은 新구 派에서 總理문제로 各派 모두 양보해서이다. ...

◎ 8월 15일 (음 윤 6월 23일) 월요일 晴

解放 14年の 돌을 마지했다. 이것이 大韓民國의 第一共和國! 完全 自由와 權利를 찾는 獨裁의 사슬에서 벗어 한회의 靑靑에 넘쳐 防防谷谷에 萬歲 소리가 天地를 뒤흔들고 오늘날이 날이다.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에 다시 獨裁의 때는 벗어지지 않아 12年間 다시 이 땅에는 李承晩이란 爲政者가 있어 獨裁政治를 감행했던 것이다. 36年間 日本帝國主義 밑에서 압박과 굴욕에서 第二次世界大戰으로 聯合軍의 勝利로 약소국의 大韓民國을 解放 되었다가 다시 李政權이 들어서 허울조은 民主主義 속에 人權을 유린하고 人間의 基本權利인 言論 出版 集會 결사等 權利行事を 못하게 하여 4.19 學生 革命이 일어나 다시 第二共和國의 기쁨을 높히 들고 新政府를 세워 오늘 8.15 記念式은 더욱 義義 깊은 날 ...

◎ 8월 18일 (음 윤 6월 26일) 목요일 晴

... 尹大統領은 國務總理 指名에 民主黨 舊派인 金度演氏를 指名했는데 3票 次으로 國會의 同議을 얻지 못해 두 번째로 張勉氏를 指名했는데 來日 國會의 票질을 얻어야 된다 한다. ...

◎ 8월 19일 (음 윤 6월 27일) 금요일 晴

... 點心을 마치고 레디오를 드려들더니 1時頃에 國務總國會의 인준 中繼방송이 있어 드르니 117票로 115票 當選 線을 돌파했다. 107票不 117票可 無效 1로 張勉 博士가 當選되었다. ...

◎ 8월 26일 (음 7월 5일) 금요일 晴

... 政府는 張總理가 舉國內閣을 構成하여 黨內 安定과 國內外 進前을 도모한다고 하더니 民主黨 舊派의 반대라는 理由로 新派진으로만 구성 형식적으로 無所屬 2名으로 조각되어 약소조각이 면키 어려울 程度로 구성되었다. 별로 명망이 적은 사람도 많다.

◎ 9월 7일 (음 7월 17일) 수요일 晴

... 新聞에 依하면 張內閣의 招請으로 日政府

公式使節團이 우리나라에 15年만에 첫발을 드리여 놓게 되었다. 小坡 外相 外 使節團은 우리 한국에서 자라 우리 韓國에서 공부한 京城제대 出身도 있고 고향이 우리 韓國인 者가 많다. 張內閣이 對日外交가 주目된다. 어제의 적 오늘의 벗 日本使節. ...

◎ 9월 12일 (음 7월 22일) 월요일 晴

... 下午에 新聞이 와서 보니 張內閣인 初代(新派一色)은 院內安全勢力 확보치 못하여 고난 속에 허덕이더니 급기야 民主黨 留派 側과 타협하여 入閣될 것 같아 舉國內閣을 構成되게 되어 있게 되었다 한다. 夕飯을 마치고 高棧서 協同組合 理事會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넘어가 事業資金 申請을 하기로 決議되었다. 술가 끝나 늦게 집에 도라왔다.

◎ 9월 16일 (음 7월 26일) 금요일 晴

民主黨 舊派議員 5議員 張內閣으로 入閣. ...

◎ 9월 28일 (음 8월 9일) 수요일 雲晴

... 저녁나절 농골서 마이크 소리가 나서 원일인가 했더니 大韓輿論調查團에서 啓蒙隊에서 왔다 한다. 夕飯을 마친 나는 일직 너머 갈더니 영화가 始作되었는데 發電機가 고장이 나고 또 映畫가 發聲이 안 되어 그림책 보는 이만도 못하여 그냥 도라왔다. ...

◎ 10월 1일 (음 8월 11일) 토요일 晴

第二共和國 樹立 慶祝日이다. 安仲中學校에서 運動大會를 開催한다고 해서 西部 四個面 農樂이 大會를 安仲서 하고 한다 한다. (...) 妻도 場에서 제사흥정해 갖고 늦게서야 도라왔다.

◎ 10월 3일 (음 8월 13일) 월요일 晴

開天節. ...

◎ 10월 8일 (음 8월 18일) 토요일 晴

... 新聞은 벌써 여러 날 채 안 온다. 9월 23일까지 오고는 그만 안 오기 始作해서 今日까지 되다. 時事가 궁금하다. ...

◎ 11월 21일 (음 10월 3일) 월요일 雲

... 집에 와 夕飯을 마치고 있으니 新浦 ○煥君이 와서 新浦 점 나와 같이 일 점 보자는 것이

다.(道議員運動) 본시 그러한 점에선 관심이 없는지라 궤회 승락이 없으니 손을 부잡고 애원조로 나가 마지못해 대답을 했다.

◎ 11월 23일 (음 10월 5일) 수요일 雲

... 소로 버를 시러내가는데 新浦의 仁成 張鳳鶴氏(道議員 立候補者)의 運動員이 와서 날더러 도장을 달라고 왔다. 마지못해 승락한 것이 급기야 登錄이 되는 모양이다. 마음에 없는 運動員 登錄이 되고야 마랐다.

◎ 11월 24일 (음 10월 6일) 목요일 雨

... 午後에 高棧 重植이 와서 今般 地方議員選舉에 있어서 같은 人物이라면 洞리에 다소라도 해택을 입어야지 않느냐고 하며 행동은 좀 참아 있다 취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나 역 그것을 주장하고 외던치지고 벌서 重植에게 말한 나인 지라 그리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

◎ 11월 25일 (음 10월 7일) 금요일 雲

... 나는 朝飯을 마치고 新浦에 나가 張鳳鶴 事務室에 갔다. 事務室에서 點心을 마치고 여러 의논을 하다가 와 上植의 잔치 먹으려 갔었다. 高棧 靑年들과 같이 어울려 있다가 국수와 술을 먹고 해지였다. (...) 道議員立候補 張鳳鶴氏 일을 보기로 결정을 했다.

◎ 11월 27일 (음 10월 9일) 일요일 晴

... 高棧 大谷 一代가 나를 面議員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권고를 하여 나는 우리 申氏의 代表人物이 못 되니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고 사양하였어도 구태히 권고하여 매우 뽕뽕한 노릇이다. 저녁나절 세재祖母 家에 있으니 둘째祖父가 오시며 신이 난 듯이 權植이 있느냐고 하시며 高棧이 重植이 나스다니 작근아버지가 나오지 말래드라고 나오지 말래드라고 하신다. 이것이 무엇이 그리 신이 날 일인지 내 지반에서도 이러니 무엇이 된단 말인가? 둘째祖父의 心理 파악이 무엇인지?

◎ 11월 29일 (음 10월 11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오늘 道議員 立候補者 合同演說이라 新浦에 나갔다. 그래 내가 관계하는 사

무실에 가 있다가 손님을 대접하고 왔다. 그러나 날 보고 演士 노릇을 하라는 데는 큰 걱정이다. 高棧 重植이 와서 面議員에 登錄되었다고 食前에 왔다 같다.

◎ 11월 30일 (음 10월 12일) 수요일 晴

朝飯을 일직 마치고 新浦 나가기로 하고 일직 떠났다. 新作路에서 李仁成(新浦人)을 만나 張鳳鶴 人使狀을 갖고 오며 동리로 도라다니며 선전하라 해서 上三溪 시사로 해서 집에 왔다. ...

◎ 12월 2일 (음 10월 14일) 금요일 晴

前日 新浦 仁成이 와 來日 魚淵里 公販場에서 찬조를 하라고 와 일직 新浦에 나가니 벽보에 演士 申權植이라 써 있어 新浦에서 있다가 魚淵國民校庭으로 갔다가 내가 辭會를 보고 도라왔다. 新浦에서 點心을 마치고 집에 와 아버지 家에 夕飯을 하고나니 다섯재祖父 家 와 날더러 張鳳鶴 事務室에서 손을 떼고 李允榮 사무실로 오라고 말씀하시여 내가 李允榮을 지지하는데 내가 張鳳鶴을 쫓는 데는 것은 안 덴다 하나 나는 張鳳鶴을 손댄지 10餘日이 되는데 손을 떼기도 무히고 아지 진테양난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체면도 잇는 것이 아니냐.

◎ 12월 3일 (음 10월 15일) 토요일 晴

... 新浦에 나가다가 李允鎔 運動員들의 권고와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애원하여 前日 다섯재祖父 家 오늘 나를 보낸다고 했다고(노장희) 會計(李允鎔 事務所)가 新浦에서도 말했으나 젊은 사람이 지조를 어긴다는 것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사양하고 우리 事務室로 가 日當 六仟圓을 받고 집에 도라왔다. ...

◎ 12월 4일 (음 10월 16일) 일요일 晴

오늘이 三溪 公販場에서 張鳳鶴氏의 個人 연설이 인는데 내가 찬조를 하게 되어 몇 마디 하였다. 三溪서 동리 사람과 몇몇 분을 술대접을 하였다. 나도 저녁나절은 술을 많이 먹었다.

◎ 12월 5일 (음 10월 17일) 월요일 晴雲

... 新浦에 갔다가 原木으로 가서 예정자 일람표를 作成하고 靑年들이 잇는데 놀다가 點心을

얻어먹고 있다가 저녁 늦게 도라왔다. ...

◎ 12월 8일 (음 10월 20일) 목요일 晴

食前に 농골의 鍾根을 만나 前日 前坪에 갔다 왔느냐고 하니 前日 安仲을 갔다 오느라고 못 갈노라 해서 朝飯을 마치고 곳 가자고 하고 도라와 朝飯을 마치고 곳 떠나 前坪을 가 普雨氏를 만났다. 普雨氏도 협조를 하는 것 같고 예정 票數를 적어갔다. 新浦에 가 종일 있다가 張鳳鶴氏를 만나보고 돈이 적게 드러와 아주 氣分이 덜 없었다. 아주 기대에 어긋난 듯하다. 우리는 一金 四仟圓을 받아가지고 도라왔다. 전보 一金 萬圓을 받았다.

◎ 12월 10일 (음 10월 22일) 토요일 晴

오늘은 新浦가 나가지 않을라고 마실을 건너가 있으니 李允鎔氏에게 술(약주)이 한 통 드러오고 있으나 우리는 아주 섭섭하고 洞里 사람 보기 아주 미안하여 新浦에서 드러오라는 소릴 듣고 나갔더니 參觀人 관게로 나를 參觀人으로 申請이 되었다. 兵事行政인 予備兵檢閱 召集필증을 받고 會員証을 교부하고 事務室에 들리었다가 집에 도라왔다. ...

◎ 12월 11일 (음 10월 23일) 일요일 晴

食前に 仁成이 와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같다. 李允鎔의 술잔치를 하는데 張鳳鶴 運動員으로 가기가 무엇하고 洞里 사람 보기가 안 되었다. 종일 무슨 消息이나 잇을까 기다리였으나 아무말이 없어 농골 鍾根君에게 가 보았으나 허사다. 張鳳鶴도 남 하는 데로 한다고 했고 오늘 午前中에 결정한다는 것이었으나 허사이다. 今般은 李允鎔이 절대적으로 當選될 것 같다. ...

◎ 12월 12일 (음 10월 24일) 월요일 雲

오늘이 全國에 實施되는 地方道議員 選舉日이다. 參觀이란 責任으로 朝飯을 마치고 일직 新浦에 나갔다. 新浦에 나가 昌煥君과 교대를 하였다가 종일 事務室(投票所 內)에 있었다. 내 生覺에는 李允鎔이 되는 것만 같다. 술을 메기고 국수 잔치를 한 사람은 李允鎔뿐이다. 저녁나절 늦게 서야 張鳳鶴이 왔다가 도라갔다. 나는 늦게서야

집에 왔다.

◎ 12월 13일 (음 10월 25일) 화요일 雲

李允鎔이 當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次점과의 차이가 불과 2,000점도 못 된다는데 차점이 張鳳鶴인지 車榮基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나 차점과 삼 점은 몇 표 차이가 안 된다 한다. …

◎ 12월 23일 (음 11월 6일) 금요일 晴

… 저녁나절 上三溪 승호가 와서 面長 관계로 의논 차 왔다 같다. …

◎ 12월 25일 (음 11월 8일) 일요일 晴

… 아버지는 新浦에서는 面長 立候補者 個人演說을 하는데 朴찬희 候者는 우리 申氏를 몹시 욕하고 또 심히 욕하드라고 듣고 온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흔들고 있다. 점찬치 못한 인간이다. 그리해서 票를 얻는다는 것은 非人間的이다. …

◎ 12월 26일 (음 11월 9일) 월요일 晴

… 또한 오늘이 邑面長 選舉日인지라 投票를 해야 되는 고로 일 볼 사람들은 모두 車를 타고 新浦로 가서 投票를 하고 新郎이나 友人들도 모두 投票를 하고 떠났다. 우리 申氏인 申祚浩도 面長에 나서 우리 申氏도 一心協力해서 當選을 시켜야 되겠기에서이다. 投票日인지라 손임도 별로 없이 집안 잔치를 하였다. …

◎ 12월 30일 (음 11월 13일) 금요일 晴

… 道知事 選舉에 投票율이 아주 좋지 않아 33%밖에 안 된다 하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서울市長의 記名選舉엔 욕을 씻는가 하면 投票者 姓名을 쓴 사람도 있다 한다. 서울市長은 金相敦이 압도적이다. 各 道知事は 民主黨과 新民黨이 차지하고 無所屬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 送年後感

庚子년도 오늘 마지막 카렌다를 뒀다. 卽ち 庚子年이야 말고 國家的으로도 多事多難한 해요 우리 家庭的으로도 별다른 해이었다. 國家的으로도 큰 것으로 보면 3. 15 不正選舉로 인해 12年間 억눌린 獨裁의 李政權으로 全國民의인 총궐기하는 李獨裁 물리가라 호소와 함께 馬山 學生

데모가 始作해서 서울 大邱 全州 等 도처에서 生命을 무릅쓰고 데모가 일어나 서울을 일시 불로 화하는 형명이 이러나 李起鵬 一家는 自살을 하고 李承晚은 大統領을 물러나 해위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어 평화롭고 自由로운 第二共和國이 되어 國會議員을 다시 뽑고 헌법을 개정하여 參議員을 선출하고 地方選舉도 일시에 선출하여 李政權에 아부한 反民主 反역者를 法에 이첩 형을 받게 되었다. (….) 과연 庚子年이야말로 國家的으로 家庭的으로 多事多難한 해가 아닐 수 없다. (….) 庚子年의 한 해를 잘 지내어 오늘 庚子年을 보내면서 발가오는 辛丑 새해의 가득찬 새 希望을 담복 안고 오늘이 붓을 놓는다.

1961년

◎ 1월 1일 (음 11월 15일) 일요일

希望찬 辛丑 新年을 맞이했다. 새해를 맞이한 적마다 크나큰 기대와 希望을 갖고 맞이하지만 평온하고 안온한 것만이 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도 온갖 난관 속에서 헤매이었다. 四 一九와 같은 크나큰 大革命이 일어나고 일개 사소한 싸움으로 警察署까지 불림이 나서 왔다갔다 하였다. 前無後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今年에도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하면서 새아침을 마지 않았다. 허나 우리나라의 新正이란 모르고 지나갔다. 모든 결산과 計劃은 舊正에 이루어지고 우리 시골은 舊正만이 新年 氣分이 난다. 오늘도 그럭저럭 하로 세월.

◎ 1월 19일 (음 12월 3일) 목요일

… 요즈음 大話題는 쌀값이 폭등한 대이다. 쌀값이 벼란간 앙등하여 政府가 흔들 그럴 지경이다. 白米 1斗에 10餘日間에 7,000환이 올랐으니 전에없는 일이다. 서울서는 백미 1畝에 萬八仟伍百圓이라고 한다. 國會에서도 政府米放出하자고 하고 政府에서도 特別方針을 세우고 있으나 별 신통한 일 없이 쌀값만 나날이 오르고 있다.

◎ 1월 23일 (음 12월 7일) 월요일

… 레디오가 고장이 나서 아주 갑갑하기 짝이 없다. …

◎ 2월 2일 (음 12월 17일) 목요일

… 政府에선 換率時勢를 仟參百 代 壹로 올렸으나 우리 韓國 經濟上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 하고 잇으나 서울에 前日 하루 동안의 물가의 변동은 많았으니 잊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 公務員의 대우 개선이니 鐵道勞組事件이나 敎員 데-모니 해서 결국 이것을 해주기로 되면 결국 우리 농민만 못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 2월 4일 (음 12월 19일) 토요일

… 저녁나절 經濟 뉴-스를 듣고 쌀값이 앙등하여 걱정이 된다. 쌀 5斗 는 더 買야야 될 것인데 쌀값은 나날이 오르고 있다. 농사를 지어 쌀을 賣야될 것이지만 買하니 돈에 조달리지 않을 수 없다. 今年에 白米 一斗를 안 내고 있다. 저녁에는 레디오를 깔고 마실 갈다왔다.

◎ 2월 12일 (음 12월 27일) 일요일

張內閣도 社會의 여론이 좋지 않다. 政府가 무너져도 經濟의 변동은 없다고 자신하던 張內閣은 벌써 어이할 바를 모를 지경으로 변동이 생긴다. 딸라 환율로 인한 경제의 변동이 다대하다. 장건근의 해위 도피사건도 책임 져야 하고 이번 追加更正算案도 잘 통과될 것 같이 않다. …

◎ 2월 13일 (음 12월 28일) 월요일

… 來日 모리가 舊正인지라 명절차리기에 분주하다. 陽曆 명절은 일본 명절이라 칭하고 절때 안 세인다. 大韓民國 國民 99할이 舊正을 센다. 우리도 흰떡을 오늘 조금 했다. 제사만 없으면 못할 것인데 국이나 좀 쓸라고 조금 하였다. 今年에는 溫일인지 흰떡 하는 집이 몇 집 안 된다. 과거의 미련한 남겨두고 또 한해를 마지한다. …

◎ 2월 15일 (舊正) 수요일

구정을 아직 버리지 않고 세는 우리나라 大韓民國 全國民이 오늘이 새해 새날이라고 祖上에 祭祀드리는 습관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일직 일어나 제사지낼 準備를 하고 늦게 큰집에 가니

아직 멀었다. (….) 나는 오늘도 陽曆을 세아된다 는 것을 주장했다. 어제나 우리나라도 陽曆을 세여 全世界와 같이 날을 세여가는 때가 올까. …

◎ 3월 1일 (음 1월 15일) 수요일

… 日帝의 治下에서 우리 民族의 自由와 獨立을 부르짖고 自由가 아니면 주검을 달라라는 식으로 己未萬歲事件이 보로 오늘이다. 오늘 방송을 通해 中央의 記念行事를 듯고 다시 그날을 추모하고 4. 19 學生들의 義舉를 生覺했다. 自由란 이런 것이다. 獨裁아성을 무너트리고 自由는 찾아오니 經濟的인 빈곤은 심하여 우리는 또 함정에 빠져잇는 것 같다. …

◎ 3월 3일 (음 1월 17일) 금요일

… 빠쓰 용금 六割 五부 引上. 國土開發事業式. 張內閣 실政 비난 第一 經濟的 不安 점. 外交 政策 等等.

◎ 3월 14일 (음 1월 28일) 화요일

… 來日이 馬山 學生義舉事件 첫돌이다.

◎ 3월 15일 (음 1월 29일) 수요일

… 오늘이 三一五 不正選舉의 규탄 데모의 첫도와선이 된 馬山 學生義舉의 첫돌마지다. 맨주먹으로 총칼 앞에 自由를 부르짖고 독재 아성을 무너트리게 한 원동력이 된 작년 오늘 가까운 젊은 學生의 피는 마산을 불게 하였다. 오늘 그 영영 앞에 政府 各處人과 유족은 그 추도식을 하였다 한다. 第二共和國을 마지하여 정치적인 自由는 어느 정도 마지했으나 우리의 살림사리는 더 궁하게 되어 張勉 政府는 또 신임을 못 받고 있다. 언제나 南北의 統一되어 國民의 安定된 生活를 이어갈 것인가. …

◎ 3월 19일 (음 2월 3일) 일요일

… 지난 한 주일은 國內外 政勢가 많은 변동이 잇었다. 昨年에는 3. 15 不正選舉 항거 데모 發 第二共和國의 도화선 馬山 學生 의거. 지난주에 비가 촉촉히 나리여 농작물에 도움. 우리 鄉土에 國土建設事業 해택.(木) 묘목 도착.

◎ 4월 19일 (음 3월 5일) 수요일

第二共和國 一週年 紀念. 自由黨 李承晩 獨

裁天下의 아성 밑에 신음하던 우리는 昨年 오늘 온 國民의 분노 밑에 폭발되어 총궐기 한 우리 國民은 銃彈을 두려움 없이 學生들의 선봉에서 쓰러져 시체를 넘고 넘어 당시의 정부대(靑와台)로 향하여 自由와 싸워 독재아성을 무너트리고 第二共和國을 마치하게 된 첫돌이다. 오늘 서울運動場에서 政府 社會 等 各 要인이 오늘 추모식을 거행했다. 독재와 不義 앞에 희생된 영영 앞에 自由를 이룩한 學生들에 듯 깊은 감사를 올린다. 오호라 영영들이여, 지하에서 고히 잠들어 이 나라의 平和와 南北의 統一을 이룰 날을 기원하소서.

◎ 4월 30일 (음 3월 16일) 일요일

今年 四月도 오늘로 마지막 날이다. 형명의 달. 다-피도 못한 젊은 꽃들이 무수히 떠러져 이 땅의 自由를 갈다준 영영들 앞에 머리를 수그린다. 新聞이나 라디오를 통해 드르면 날날히 지터가는 녹음을 찾아 모여드는 군중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든다 한다. 창경원의 꽃보다는 사람 수가 많다 한다. 이 동리도 깊은 바람이 불어 온양 온천으로 노리를 간 부인이 몇몇 있다. 약자에 감초 안 빠지는 庶母도 짓먹이 어린 것도 아랑 곳 없다는 듯이 떠났다. ...

◎ 5월 16일 (음 4월 2일) 화요일

軍事革命 새벽 3時. 논가리라고 일어나 라디오를 드르니 이상스러운 말이 들려와 깜작 놀랐다. 듯도 못하던 軍事혁명委員會니 하는 말이 나오며 새벽 3시에 革命을 이루어 서울 各部處 立法 司法 等은 완전히 장악 각 중요 도시는 완전히 軍事革命委員會에서 잡고 있다고 보도. 웬일일까. 의위의 일이다. 이래다가 엇이 될 것인가? 張政權은 무너지고 張勉은 집에다 감금시켜놓았다 한다. 저녁 7時 뉴스를 드르니 政府는 물론 立法部인 國會的 上下院 모두 오늘 날자로 해산하고 各國務員은 체포령을 내리고 계엄령 下에서 오늘 해가 저무렸다. 쿠데타가 아닐까? 자리의 탐념이 아닐까. 張政權이 큰 잘못은 없다. 불과 8, 9個月에 크나큰 잘못을 저지를 기간도 안 되었다. 다만 잘해 불라고인지 이랬다저랬다 주

대 없는 정치는 하였다. 그리해서 경제의 탄압은 이어할 바 없었다. ...

◎ 5월 17일 (음 4월 3일) 수요일

... 政府는 완전히 넘어가 行政 立法 司法 等 軍部の 손에 드러갔다.

◎ 5월 21일 (음 4월 7일) 일요일

... 革命內閣樹立. 張道永 中장을 비롯한 軍小 장급.

◎ 5월 22일 (음 4월 8일) 월요일

... 國家再建체高會議 議長 장도영 副議長 朴正희.

◎ 6월 9일 (음 4월 26일) 금요일

... 저녁에는 솜가 잇었는데 솜는 農어村의 高利채 정리의 솜인데 現物 또는 現金도 해당이다. 政府로 報告하면 政府로 年 부로 갚는데 二割만 갚고 채權者는 政府에서 찾는다고 하는데 이 동리는 報告한 사람이 없다.

◎ 6월 13일 (음 5월 1일) 화요일

... 軍事革命이 잇은 후 張都英 內閣인 政府는 밀주 단속이 심하고 모-든 것이 실질적인 行事로서 엄한 軍政을 하무로서 국민정신을 다시 만 들고 있다. ...

◎ 6월 18일 (음 5월 6일) 일요일

... 10餘年間 李承晩 政治 1年間の 張勉 政治가 불과 1個月 동안에 다 했다고 한다는 평을 받는 軍事 形명이 있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내가 없는 공정한 政治로서 國家再建만을 爲해 일할 것인가? 부패하고 無능한 정치는 일소하고 國家와 民族 위해 일 해주었으면.

◎ 6월 25일 (음 5월 13일) 일요일

... 오늘이 六二五 北韓에서 南침한지 13년이 되었다. 六二五 發發 당시가 새롭게 연상된다.

◎ 7월 13일 (음 6월 1일) 목요일

... 面書記가 와 각 雜種 產出 調査와 심지어는 꼬초장 된장 등을 다 調査해 같다. 우리 國民이 믿고 살 수 있는 政府가 될 것인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쉬쉬하고 있으니 군대식이다. 온 公務員은 명찰을 달고 있다. 오직 우리는 自由와 權利

만 주면 심 것 일할 것이다. 심 것 일해 생산한 농작물은 自由로 하고 이렇게 自由만 주면 모든 것이 OK.

◎ 7월 14일 (음 6월 2일) 금요일

… 들에 온 高棧 昌植의 말에 依하면 現 政府가 엇일 이 일 할 것인가 하고 서울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 과연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우리 國民을 爲한 정치를 할 것인가?

◎ 7월 17일 (음 6월 5일) 월요일

… 저녁에 洞會가 잇었는데 會目은 테비중산 관혼상제 간소화 묘소 화장 애립목화 등과 농작물 각종 조사(꼬추, 고구마, 깨, 감자, 콩! 等等 各種 전부) 꼬추장 된장 등도 이렇게 세밀이 조사를 하니 이해를 납득치 못하고 의심이 많다. 北韓이 南侵해서 이렇게 세밀이 조사를 한 것에 된 우리 국민인 관계로 현 정부를 의심하나 시간이 흐르고 기일이 가무로서 격어 알 일.

◎ 7월 22일 (음 6월 10일) 토요일

… 放學이 되어 도라온 學生들에게 軍事革命에 對 한 여론이 어떠냐고 하니 찬찬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 정도에 지나치더라고 하더라고 한다. …

◎ 7월 25일 (음 6월 13일) 화요일

… 저녁에는 靑北高等公民學校에서 職員 1명과 學生 4명이 啓蒙을 나와 건너가 보았다. 농촌을 살려 教育勢를 살리자 등 夏期 위생에 대해서도.

◎ 7월 26일 (음 6월 14일) 수요일

… 下午에도 그늘서 누어잇으니 오늘 新浦서 除隊軍人 점호가 잇다고 해서 급히 新浦에 가서 점호를 받고 왔다. 갈 적에도 괜실히 갈다가 올 적에는 여러 차래 쉬어왔다. 다른 동리는 公文을 벌써 받았다는 하는데 이 동리는 公文이 안 왔다. …

◎ 8월 4일 (음 6월 23일) 금요일

… 저녁洞會. 農漁村 高利債 整理 관한 건. 農漁村 高利債 定理 엄중 지시 上部. 테비 塲산 出役. 革命政府 協助. 초소 巡警 宿伯 等等.

◎ 8월 5일 (음 6월 24일) 토요일

食前 명석 몇 돌량 만들고 朝飯 後에 新作路

出役. 洞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많은 動員이 되었다. 별다른 대책도 없다. 軍政이라 엄한 것을 各自 自覺한 관계다. 靑龍台와 三溪로 나누어 하여 나는 三溪에서 하고 일직 와 …

◎ 8월 15일 (음 7월 5일) 화요일

解放 16周年 紀念日.(17回) (….) 八.一五와 더 부러 덩석을 뗀다. …

◎ 8월 20일 (음 7월 10일) 일요일

… 除隊 軍人 중 몇 명을 平澤으로 강연 드르러 오라는데 하필이면 큰아번님은 우리 兄弟 中 가자는 것이다. 안 가면 반역자로 몰라고 하는 모양이다. 큰아번님은 우리 兄弟를 몰라 하는 심사.

◎ 8월 22일 (음 7월 12일) 화요일

… 저녁엔 洞會가 잇었는데 高利債 整理의 것이다. 申告가 없으면 그냥 申告한다 한다고 里長이 한다고 말한다. 洞里에 高利債가 없는 것도 아니다. 참아 하고 債權債務者의 얼굴만 보고 잇는 것이다. 人情과 良心이 없기로 잇으니 주저치 않을 수 없다. 첫재로는 債權者가 申告를 해야 하는데 債權者는 債務者의 처분을 바라는 듯하다.

◎ 8월 23일 (음 7월 13일) 수요일

… 食前에 도장을 갖고 오라 해서 갖고 里長집에 가니 高利債에 對한 政府施策에 協助하며 여하한 벌도 받는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쳤다. 약간의 채무자들도 債權者가 아무 말 없고 또 서약하니 차마 債務者도 어이할 수 없이 서약했으나 받기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債權者가 申告를 한다. 그리하여 이 동리에서도 壹雨氏와 吉雨氏는 아마 申告한 모양이다. 壹雨氏는 아주 음침한 사람인지라 누구나 꼬린다. (….) 말에 의하면 인제 長利도 年 五割은 없어질 것 같고 이번에 申告 않고 준다고 해도 五割은 안 될 것이라는 말이 공통.

◎ 8월 24일 (음 7월 14일) 목요일

… 오늘이 農漁村 高利債 整理 申告 마감날이다. 洞里에서 壹雨와 吉雨가 申告로 끝났다. …

◎ 8월 25일 (음 7월 15일) 금요일

… 高利債 整理는 연기했다. 9月 24日까지. 이것은 農民들이 인식 不足인 점에서 申告를 안

는데 있는 것이라 한다. ...

◎ 9월 3일 (음 7월 24일) 일요일

... 종일 그럭저럭 하다가 內幕이란 實話 雜誌를 얻어다 보았다. 自由 民主 兩黨의 과감한 실천상을 써는 책인 것이다. 執權 時는 어느 때나 自己네의 찬찬인 것이다. 언제나 지난 뒤에는 一長一短이 있는 것이다.

◎ 9월 7일 (음 7월 28일) 목요일

... 俞鎮午 博士 再建國民運動 中央會長 辭任.

◎ 10월 20일 (음 9월 11일) 금요일

... 天高馬肥의 佳節이다. 讀書의 季節이고 今週가 讀書週間이다. 허나 農村에선 일의 週間이다. 한가한 사람의 말이다. 눈 비비고 나면 일을 始作해서 해가 꼭져야 일손을 떼고 등잔불 밑에서야 夕飯食事を 하니 무슨 讀書냐. 피곤한 몸을 자리에 몸을 눕히고 앓는 소리로 밤을 자고 또 이튿날이면 중노동이다. 이리해도 이목구비의 보존 안 되는 절량농가가 있으니 농민은 최하의 생활이다. 하야 형명정부에선 중농정책을 한다니 두고 볼 일.

◎ 11월 4일 (음 9월 26일) 토요일

... 午後에 美國의 國務長官 來韓. ...

◎ 11월 26일 (음 10월 19일) 일요일

... 쌀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呌當 萬伍仟圓 가던 것이 呌當 萬四仟圓이라고 한다. 朴議長 15日 간의 여정을 마치고 國民의 환호리에 오늘 歸國.

◎ 12월 31일 (음 11월 24일) 일요일

올해도 저물어 마지막 카렌다를 뒀다. 多事多難한 해는 거듭된다. (...) 政府도 軍事革命으로 張勉 政權은 물러가고 軍政으로 올해를 냉겼다.

1962년

◎ 新年所感

해가 지면 날이 가고 달이 바뀌는 동안 또 新年을 마지했다. 덧없는 歲月이 如流하는 동안 우리

의 後面에 남는 것은 歷史의 記錄이다. 어느 國家나 家庭이나 마참가지로 온갖 難關과 파란곡절이 얹이는 동안 새 歷史를 창조한다. 自由를 갈망하는 우리 民族 피의 대가로 獨裁의 아성 自由黨 李政權을 타도하고 第二共和國을 탄생시켜 또 昨年 5.16 軍事革命으로 張政權을 쓰러트려 現 軍政에 이룬 것이다. 아푸로의 歷史는?

우리 家庭도 大事된 일을 하는 해를 보냈다. 보잘 것 없는 生活속에 누구의 協助없이 누이 春子를 出家시키고 굶주리고 못쓴 대가로 白米 15畵를 모았다. 人間은 누구나 新生活의 변화에 새 설계를 계획하고 來日의 希望을 追求하고 염망하는 것이 아닌가? 젊을 一生厓 동안 이렇게 살아가며 속아왔다. 그저 大化 없든 일만 다행할 뿐 人生사리란 별로 신통할 것 없다. 누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요. 요행이란 우연한 것은 아니라 生覺한다. 옛말에 一勤天下無難事란 말을 몇 번 生覺치 않을 수 없다.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속에 그저 그럭저럭 살게되는 것이다. 허나 人生은 希望에 사는 것이니 피여날 그날을 希求하고 希望을 염망하며 今年에도 萬事如意亨通하길 祝願하며 壬寅新年을 마지한다.

1962. 1.1. 夜於安邦. 權植(싸인)

◎ 1월 1일 (음 11월 25일) 월요일 雲晴

... 新年을 마지하는 氣分 별다를 리 없다. 新政府에선 陽曆 과세를 절대적으로 주장하겠만 우리 국민은 아직도 머렸다. 陽曆을 세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것만 별 수 없이 실행치 못했다. 언제나 시정될 문제인지? 新年日記의 첫 장을 쓸 적마다 되푸리 되는 말이것만 올해도 來년도 마참가지다. ...

◎ 3월 1일 (음 1월 25일) 목요일 雲

三一節. 날씨가 흐리더니 午後부터는 눈이 나리기 始作해서 많은 눈을 나리였다. 올분에 싸여 항일하던 애국지사들의 추모의 눈물인 것이다. 1919年 3月 1日 그때 그 民族은 權力다툼도 재산의욕도 權모술수도 아닌 오직 韓國의 自主獨立에 日本제국者들에 항거하는 精神뿐인 것이

다. 오날의 韓國은 南北으로 兩단된 반면 자리다
틈의 韓國이 되었으니 한숨지사. 31運動의 피흘
린 선혈들의 미안하기 가이 없다.

◎ 3월 13일 (음 2월 8일) 화요일 晴

… 全國 各地에서 毒感이 유행이 되어 全國國
民學校 兒童의 休學校가 많은데 어린 것이 어떠
라 하면 걱정之事. (….) 저녁엔 洞會가 있었다.
里事務所 新築 件. 新作路 出力 件 等.

◎ 3월 16일 (음 2월 11일) 금요일 風

前夜에 레이오가 고장이 나서 妻를 場에 보냈
다. 꼬추 몇 400환 賣 게란 2줄 340환 受하고
레디오는 修理도 못해 갖고 왔다. 집안이 비운
것 같고 아주 가깝하다. 安仲선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여러 놓고 한참 이것저것
손질하니 소리가 나기 始作했다. 옛이 신기한지
몰라 집안이 한참이나 우습 꽃이 피었다. …

◎ 3월 19일 (음 2월 14일) 월요일 晴

… 妻는 毒感으로 前日부터 앓더니 오늘 저녁
엔 앓는 소리를 하고 대단하다. 毒感은 全國 各
구석구석 안 가는 곳 없이 全國을 휩쓴다. 現 毒
感으로 200萬이 넘는다니 이곳 구석에도 빼
놓치 않아 이 洞里에도 거의 半數가 넘는다. 2,3
日 동안은 무섭게 앓는다. 雄浩도 벌써 여러 날
째 기침을 하여 걱정이 된다. …

◎ 4월 19일 (음 3월 15일) 목요일 晴

學生義舉 두 돌. …

◎ 4월 26일 (음 3월 22일) 목요일 雲

食前에 논을 일주하고서 朝飯을 마치고 서울로
떠났다. 今般의 産業博覽會에도 가볼 겸 떠났다.
서울 같다는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다. 서울이 아
주 달라졌다.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여 大路를 만
들고 漢江의 人道교도 前과 다름없이 만드렸고
市民會館이며 國家再建最高會議이며 낯서른 곳
과 같다. 곳 春植 잇는 곳을 찾아 도착한지 下午
1時 頃이 되어 좀 잇다가 昌景苑에 가 夜外 벗
곳을 보왔다. 사람이 아주 많이 드러왔다. 午後
에 영화관에 가서 현상 부른 사나리와 노다지를
보았다.

◎ 4월 27일 (음 3월 23일) 금요일 細雨

… 目的한 産業博覽會에 갔다. 人山人海를 이
루었다. 날 일氣가 좋치도 않으렷만 비비고 날
틈이 없다. 博覽會에 드러스자 비가 나리기 始作
해서 아주 不便을 느꼈다. 國際館 종합과 원자
과학관 전신전기관 特別館 農林館 等... 各道館
等を 見覽했다. 午後 늦게는 비가 개이여 카매
라로 사진을 찍었다. 느낀 점. 우리나라에도 이
렇게 發展했나 할 정도다. …

◎ 4월 28일 (음 3월 24일) 토요일

朝飯 後에 昌德宮과 비원을 갈았다. 카매라 필
름을 사 갖고 孟植과 함께 갈았다. 옛 古宮을 찾
아 옛 왕가의 生活와 宮전의 생활을 두루 살피었
다. 中國의 元나라 요나라의 도자기와 高麗자기
李朝자기 등의 지금의 도자기보다도 월등해 보
이고 會館이며 古宮의 內部는 發展된 現 社會에
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昌德宮 전을 고루
고루 살피고 나왔다. (….) 요즈음 서울로 몰려드
는 사람은 하루 平均 20餘萬이라고 한다.

◎ 6월 10일 (음 5월 9일) 일요일 晴

화폐 改革. 10對 1로. 前夜 10時에 공포한 화폐
를 오늘 中으로 改革을 한다. 벌써 解放 後 3번
재 화폐 개혁을 본다. 저녁에 鍾을 쳐 가보니 돈
을 모고 來日 安仲 農銀으로 바꾸라 가는데 이
洞里에도 約 30萬환 가량 된다. 그저 잔돈 뿐 모
은 것이 5萬 여원이고 人休氏 家에서 轍雨에게
온 돈 20만환과 興植 家에도 10여만환이 넘는
모양이다. 우리는 비상금 2,300환을 주었다. …

◎ 8월 15일 (음 7월 16일) 수요일

八一五 光復節. 오늘 解放을 마지한 날이다.
36년이란 쓰라린 日本 앞제 下에서 解放이란 우
리 三千萬 온 國民이 天地가 흔들릴 程度도 기
뻛한 날이것만 18년이란 歲月이 흐르도록 무엇
을 했는가? 生覺할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도록
發展을 못했다. 우리 韓民族이란 이다지도 不幸
한 運命을 타고 난는가. 6.25란 民族相殘의 피
비린내 나는 戰爭을 겪고 오늘날까지 世界 一國
의 자리를 차지 못하고 南北으로 갈라져 思想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우리 民族의 잘못으로 안다. 우리 國民이 團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自由를 위하고 解放의 기쁨을 앓고 世界로 發展했으면 오늘날 38線이란 없이 우리 民族은 南北韓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줄 안다. 歷史 이래 우리 國民은 黨派싸움으로 發展을 못했것만 如前히 黨파싸움은 如前하고 있으니 한숨 지사다. 인제나 世界 어느 나라보다도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인가? 國民 한 사람인 本人은 순수히 農民으로 大地와 싸우며 産業增産에 매진! 뜨거운 폭양 아래 生活의 터전을 마련할 뿐 ○○ 사상도 아랑곳 없이 修身제가할 뿐이다.

◎ 8월 23일 (음 7월 24일) 목요일 雲

… 오늘 서울에서 憲法에 對한 公聽會가 있어 레디오를 머리맡에 놓고 演士들의 演說을 들었다. 教育者代表 法院 實業者 農民 在鄉軍人 演士들 좋은 말이 많이 나왔다. 기본權에 있어선 약간의 제한의 50% 無制限의 20% 기타 政府 조직 大統領中心制 90%로 임기 4年 일치 중임. 國務總理 國務院 두자는 것이 80%, 國會 單院制 30%, 法院의 獨立 地方自治制에 있어 邑面長 임명이 90%.

◎ 8월 24일 (음 7월 25일) 금요일 雨

… 오늘도 公聽會하는 것을 레디오를 통해 들었다. 내 生覺엔 아무리 法을 세밀하게 만드려도 하드래도 集權者가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안다. 참으로 愛國愛族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지 集權者의 비위에 맞게 이것을 연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으로 안다. …

◎ 9월 3일 (음 8월 5일) 월요일 雲

… 亞細亞運動競技大會에 우리 大韓民國이 六位로 金메달 4, 銀메달 9, 銅메달 11이다. 日本國은 金메달만 72관 어마어마한 수짜다. 총 종목수 120중 72관 독점國이다. 2位가 金메달 11인 인도네시아. 陸上競技와 역도만 出戰하게 되었으면 2位는 될 것이라고 한다.

◎ 9월 4일 (음 8월 6일) 화요일 晴

… 今般 東南亞 올림픽의 끝막을 장식하는 축

구 경기 中繼 사항을 듣다가 受信機 고장으로 중단되었는데 안타까웁게도 우리 선수 한 명이 부상을 입어 일회전에 1對 0으로 패배, 2회전에서 1점을 얻어 2對 1로 석패했다. …

◎ 9월 29일 (음 9월 1일) 토요일 晴

… 自由製藥會社에서 宣傳은 것을 술 조사가 왔다고 소동이 났었다. …

◎ 11월 20일 (음 10월 24일) 화요일 雨

… 오늘 申請한 레디오를 安仲으로 가질라 가는데 내가 갈라요 했더니 아번님이 가시였다. 午鍾頃に 사오시였다. 市販 2,500원 짜린데 2,000원에 아번님 家와 壹雨氏 家에서 사왔다. …

◎ 12월 17일 (음 11월 21일) 월요일 晴

憲法 改定 國民投票. (….) 나는 點心을 하고 投票 次 新浦에 갔었다. 國民投票란 형식의이다. 우리 無識人 農民들이 前 憲法이 어느 조항이 그르고 좋은 것을 알 사람이 이 洞里만 해도 한 분도 없다. 내가 알기에 大韓民國 國民 中 1/100도 될 뚱 말 뚱하다. 다만 우리는 集權者가 잘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일해 준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는 것이다. 大同小異한 말이 직기 좋은 것에 찍었사다. …

◎ 12월 27일 (음 12월 3일) 목요일 晴

… 午後엔 面에서 里間의 行政線인 電話을 가설하는데 戶當 電柱 한 개를 갈다 꼬았다. …

◎ 12월 28일 (음 12월 4일) 금요일 晴

部落 電話 가설. …

◎ 12월 31일 (음 12월 5일) 월요일 雲

壬寅年의 끝장의 붓을 드렸다. 도리켜 回想컨대 험한 生活 속에서 허덕이였다. 첫 壬寅에 接하여 希望에 設計을 構想하고 行해왔다. 모든 것은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내 농사꾼의 生活은 雨順風調해서 農作을 이루어주고 自身의 努力에서만 計劃이 만는 것인데 今年엔 보기 드문 가문과 보기 드문 風害로 많은 소출을 감소시켰다. 그래도 크나큰 재해는 면해서 千萬多幸으로만 여긴다. 長利로 순조로히 드러왔다. 일하는데 노고란 말할 나위 없이 힘이 드렸다. 今年

소출은 우리 농사에 白米 4畝는 감소다. 나는 무엇보다도 家庭이 無故해서 多幸이었다. 今年엔 여유가 白米 40畝는 존조리 하면 될상십다. 부지런히 모아야 子息들에게 보람 있는 父母가 될 것인데 잘 될 것인가. 無故한 生活 속에 希望의 문을 열어주었으면. ...

1963년

◎ 1월 1일 (음 12월 6일) 화요일 雪雲

또 한 해를 마지했다. 초하루의 氣分이 안 난다. 아직도 우리 韓國엔 陽曆과세 하는 집이 거의 없을 程度다. 우리 村엔 陽曆을 세는 집이 한 집도 없다. 官公所는 3日間 休日임에도 제사 차리는 집이 없다. 언제나 陽曆을 세서 世界名國과 통일하게 될 것인가? ...

◎ 1월 24일 (음 12월 29일) 목요일 晴

來日로 닦아온 舊正으로 아주 분주하다. 全國民이 버릴 수 없는 이 구정 二重과歲의 철폐 運動이 전개되고 日政 때는 압력을 가해왔지만 숨어감에도 이 음력을 과세한 우리 民族은 陽曆을 가려켜 日本놈의 설이라고 각력히 反對해왔다. 大韓民國이 獨立된 日에도 직접 간접으로 陽曆을 따지게 했으나 도저히 안 되는 말이다. ...

◎ 1월 28일 (음 1월 4일) 화요일

朝飯食事を 하고 前日 重植이 와서 後坪 가서 작근 할아번님과 政治한담이나 좀 하라 가자고 해서 승낙하고로 일직 高棧으로 가서 後坪에 건너간다. 이번에 政黨조직에 있어서 할아번님이 平澤郡에서 일을 보아달라는 付託으로 부득이한 대 젊은 사람 몇몇이 협조하자고 하여 반숙락을 했다. ...

◎ 2월 2일 (음 1월 9일) 금요일 晴

新聞을 보니 政黨조직을 함에 있어서 여당인 共和黨, 야당에 있어서 民政黨(가칭)이 第一 먼저 조직함에 있어 韓선이 生起여 民主黨, 自由黨 等各自 自派들의 크립들이 한데 뭉치여 있다. 우리

나라 民族성인지 政[권]욕이 강한 것이 단점! 여당인 共和黨도 韓선이 많이 生起여 탈당 等이 있더니 수습하기에 이르고 있다. 아주 혼잡한 政黨조직이 잇은 뒤엔 大統領選舉 民議員公選 及 選舉에 얼마나 크나큰 韓선이 생길 것인가?

◎ 2월 16일 (음 1월 23일) 금요일

... 英浩 보고 아번님 집에 가서 新聞을 가져오라 해서 보니 朴正熙 議長이 大統領 出馬를 拋棄했다는 聲明書를 發表했으나 最高會議측과 共和黨에서 큰 문제거리고 翻意을 促求하고 있다.

◎ 2월 27일 (음 2월 4일) 수요일 晴

오늘 10시부터 朴正熙 議長 政국 수습 9개 항목 수락 선서식이 各政黨代表 및 政治人 다數 參席한 자리에서 거행되였다. 五一六 軍事革命 主權勢力으로 구성된 民主共和黨發기委員長으로 있었으며 軍政第二人者로 있던 金鍾必氏는 前日 外國行 여정에 올랐다. ...

◎ 3월 1일 (음 2월 6일) 금요일 晴

三一節. 溫化한 봄날씨로 바람 한 점 없다. 몇 일 동안 바람으로 精神을 차릴 수 없더니 오늘은 맑은 날씨로 三一節을 마지했다. 祖國獨立을 爲해 生命을 나라에 바친 先血들에 상기하며 感謝을 올리였다. ...

◎ 3월 3일 (음 2월 8일) 일요일 晴

... 政治人들은 政黨組織에 분망하다.

◎ 3월 16일 (음 2월 21일) 토요일 晴

... 軍政 4年 延長한다는 聲明書 發表하고 國民投票에 부치겠다고 發表.

◎ 3월 19일 (음 2월 24일) 화요일 晴雲

... 軍政 4年 延長한다는 朴議長 特別 聲明書 發表에 때무든 舊政治人들이 政治에 參여치 안으면 이달 말까지 보류. 朴正熙 議長公館에서 副政治人 張澤相, 金炳魯, 金준연 尹보善 等 몇 명의 政治人과 요담 舊治人들은 朴議長 2. 18성명 번의 요청.

◎ 3월 27일 (음 3월 3일) 수요일 晴

... 政府초청 各政黨代表 社會團體代表 等 軍政 연장 政국安定수습會를 오늘 中央청에서 12

時에 개채했으나 參席치 않은 代表들이 많다. 軍政 연장 반대가 많을 것이나 反對파는 參席치 않았다.

◎ 4월 2일 (음 3월 9일) 화요일 晴

… 저녁엔 洞會 新作路 出役, 沙防工事 出役及 가마니 치기 等 農繁期는 닥아오는데 新作路 出役과 沙防工事 出役に 안나오면 엄벌에 처하고 가마니도 1戶 當 60납을 못 치면 엄벌에 처한다니 언제 數量을 마출 것인가. 넘어 들복는다. 來日은 가래질을 할라고 하는데 出役이라니.

◎ 4월 8일 (음 3월 15일) 월요일

… 軍事政權, 議長 朴正熙 重大聲明 發表. 軍政 4年 延長 國民投票 9월까지 보류. 9월에 가 各政黨代表와 協議. 軍政延長에 對해 國民投票하던지 大統領 選舉와 國會議員 選舉하던지 한다.

◎ 4월 19일 (음 3월 26일) 금요일 晴

學生革命 3돌이다. 獨裁에 항거해서 第二共和國를 마지하게 되었다. 空手로서 총부리와 싸워 많은 피해를 보았었다. …

◎ 4월 25일 (음 4월 2일) 목요일 晴

自警隊要員에 物品配給. (….) 집에 와 點心을 먹고 있으니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 가보니 自警隊要員에게 간첩에게 압수한 물건을 나누어준다고 해 가보니 모두 나누어왔다. 양복지 저고리감, 수건 等. 特等 外래품다. 나는 봄잠바가 도라왔다. 모두들 時價 5, 6百원어치 가량은 된다. 나는 300원.

◎ 5월 16일 (음 4월 23일) 목요일 晴雲

… 요사이 獨立路線이란 冊 金俊淵이가 쓴 우리 韓國이 解放된 後 政治指導者들 間에 투쟁한 것을 일고 있다. 우리 한국이 解放直後에 잘 했으면 南北으로 안 갈라졌을는지도 모를 일이것만 정치욕과 共產黨路線者들과의 政治욕에 우리 단일민족이 3·8線의 장막으로 철의 장막을 쌓았다. 오늘날까지 날로 南北은 더욱 굳어져만 가고 있다.

◎ 6월 19일 (음 윤 4월 28일) 수요일 雲雨

… 호남地方에선 많은 비가 나리어 침水, 道路 파괴, 家屋全파 等 많은 피해를 입고 현재 오늘

도 계속 나리고 있다고 한다. 저녁나절은 여기도 오기 始作해서 보리를 쫄다 급히 치우고 비를 맞고 보리는 다 끝었으나 떨어지는 못했다. 보리 집은 그냥 썩을 것 같다. 날이 들고 몇일씩 있다가 와야 할 것인데 한참 바쁜 판에 장마가 들어 농민들의 조바심 더욱하다.

◎ 8월 15일 (음 6월 26일) 목요일 晴

8. 15 18週 돌. …

◎ 9월 8일 (음 7월 21일) 일요일 晴

… 點心을 먹고 나니 龍子가 이 洞里的 民主共和黨入黨原書를 갖고 와 入黨 수속을 해 달라고 朴讚熙가 그리 하더라고 갖고 와 어이 된 영문을 알 길이 없다. …

◎ 9월 16일 (음 7월 29일) 월요일 晴

… 大統領立候補者가 7名으로 어제부터 본격적인 選舉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 아주 없든 國會議員 한 자리 못하든 사람이다. 立候補를 했으니 大統領을 놀림가리고 아는 모양. 張利爽, 宋요讚, 朴正熙, 吳在榮, 尹濬善, 許정, 卞榮泰 等이다.

◎ 9월 17일 (음 7월 30일) 화요일 晴

… 7名の 大統領 候補者는 모두 朴正熙를 치고 나왔다.

◎ 9월 18일 (음 8월 1일) 수요일 晴

… 大統領選舉戰에 들어온 요즘은 이 곳의 消息은 新聞이 傳해주고 있어 저녁이면 新聞을 보러 마을로 간다.

◎ 9월 26일 (음 8월 9일) 목요일 雲

… 大統領選舉 中 반대에 達하여 이곳 저곳 벽報 부렸다.

◎ 10월 1일 (음 8월 14일) 화요일 晴 쏘나귀

… 大統領選舉戰은 中般戰에 들어가 아주 惡化되어 여당 候補 軍事政府의 인신공격이다.

◎ 10월 13일 (음 8월 26일) 일요일 雲雨

… 朝飯食事を 하고 비도 오고 해서 마실을 가 新聞을 모처럼 보니 終般戰에 들어서 大統領選舉戰은 立候補 7名 中 野黨 單一候補를 밀고 허정氏와 송요한씨는 기권하고 6名인데 여당인

朴正熙씨가 주목되고 있는데 新聞에 依하면 尹候補가 朴候補를 政治的으로 의심한다. 여주[여수], 순천, 발란[반란] 가담자과 당 北韓으로부터 南派된 간첩과 朴候補 兄수와 접선, 朴候補 兄이 공산당이니 日本 조[총]련계로부터 共和黨에 자금을 받고 있느니 등 말을 하여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는 의심이 간다. 重農政策을 써 朴政權 2年에 하느라고 했는데 용공자라면 큰일이다. 정책 대결이 아닌 인신공격이다. ...

◎ 10월 14일 (음 8월 27일) 월요일 晴

... 大統領選舉는 來日로 닥아왔다. 歷史的인 選舉는 정책대결이 아닌 思想戰이다. 5名中 朴正熙와 尹보善 대결이다. ...

◎ 10월 15일 (음 8월 28일) 화요일 晴雲

大統領選舉. 軍事政府로부터 民政 移양의 歷史的인 大統領選舉日이다. 軍事政權의 大統領의 權限을 대행하는 軍事政權의 指導者 朴正熙와 야당 尹候補 여러 명 중 尹보善 候補와의 대결인데 政權 야육에 눈이 어둔 대무둔 구 政治人도 별로 마음에 없으나 그 위의 입후보자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일개 地方長官 자리도 아까운 者들이다. 그 중 변영대[태] 候補人은 실력은 있으나 政治人으로선 너무 약하다. 朴正熙로 말하면 尹候補 발언의 思想을 증거물까지 제시하고 해서 아주 겁이 난다. 나는 尹候補에게 票를 주었으나 選舉後에 깨닫게 지날 것인지? 큰 소란이 있을 것만 같이 마음이 무시무시 공포가 된다.

◎ 10월 16일 (음 8월 29일) 수요일 雲 쏘나귀

... 어제 저녁에 開票하는 것을 듯기 爲해 레디 오를 머리맡에 놓고 밤을 새우다 심히 했다. 오늘 아침 4時頃까지 朴正熙氏와 尹普善氏가 막상 막하로 시소갸름을 이루더니 6時에는 尹氏가 16만 票나 앞섰다. 차츰 떨어지기 始作하더니 11時는 朴氏에게 3만票가 떨어졌다. 서울은 尹氏가 앞도적이고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尹 우세. 慶北, 慶南 朴氏 앞도적. 全山, 全北, 全南 朴 우세. 濟州 朴 앞도적으로. 開票는 96%로 朴氏가 大統領은 결정적이다. ...

◎ 10월 17일 (음 9월 1일) 목요일 晴

大統領으로 結晶的인 當選이 된 朴正熙氏는 慶州에서 아슬하게 落選된 尹보善에게로 落選은 되었으나 國事를 爲해서 指道편달을 바란다고 電文을 送했는가 하면 尹候補는 朴候補에게 祝電을 쳤다. 惡化했던 選舉戰을 生覺하면 무슨 일이라도 있을 것 같었지만 평온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國民된 한 사람인 나도 生覺전대 政治家다운 일이라고 生覺했다. ...

◎ 10월 26일 (음 9월 10일) 토요일 晴

... 國會議員選舉日 公告.

◎ 11월 7일 (음 9월 22일) 목요일 晴

... 도라오니 新浦에서 舍가 있다고 오라 해서 公文을 보니 이번 選舉를 앞두고 하는 것 같다. 안 같다. 來日은 平澤區 立候補者의 合同演說이 있다고 한다.

◎ 11월 8일 (음 9월 23일) 금요일 晴

平澤 立候補者 合同演說. 오늘 合同講演이라 新浦에 가볼라고 하니 肥料도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洞里肥料를 가져오자면 소로 2번은 다녀야 하겠기에 午後에 가기로 하고 집에서 기다리니 午後가 지나도 안 와 3時부터 演說인데 哨所巡警들과 點心을 우리집에서 같이 하고 기다리다가 時間이 지난데야 新浦에 같다. 始作했다. 우리 守에 九名이 나왔다. 共和黨의 李允鎔, 民政의 禹치송, 自民 金鎭澤, 自由 黃○○, 보수의 韓敏洙, 正民會의 柳빈, 崔大植, 國民黨 李炳憲, 等等의 人物이 나왔으나 아주 유치한 人物들이 나왔다. 新浦에 나가니 일 좀 해달라고 졸라 대고 야단들이나 승낙 없이 있다가 영화구경을 하고 늦게 드러왔다.

◎ 11월 11일 (음 9월 26일) 월요일 雲

... 國會議員選舉 中盤戰에 들으스니 運動員들이 왔다 같다. 우리 집에 두 사람이나 찾아왔다. 今般에 일을 보아달라고 몇 명이 왔다 같으나 승낙을 안 했다.

◎ 11월 12일 (음 9월 27일) 화요일 晴

... 오늘도 運動員들이 왔으나 共和黨 運動員

뿐이며 마땅히 中立을 지켜야 할 公務員이 事務
全폐하고 運動을 다니고 있다. 公的選舉라고 하
더니 自由黨과 마찬가지로.

◎ 11월 15일 (음 9월 30일) 금요일 晴

... 어제 選舉事務所에서 오라는 것을 안 갔더
니 오늘 기별이 왔다.

◎ 11월 18일 (음 10월 3일) 월요일 雲

... 食前に 세수를 하고 있으니 찾아 나가니 新
浦의 徐君 李允鎔 事務所에서 왔다 같다. ...

◎ 11월 20일 (음 10월 5일) 수요일 晴

... 집에 오니 李允鎔 事務所에서 金 400원
을 보내왔다. 運動員 사례금이다. 500원 중 중
간에서 손실되었다.

◎ 11월 22일 (음 10월 7일) 금요일 雲

... 選舉終盤戰에 들어선 立候補者는 조조한 마
음이러니와 어제 場엔 政見이 거이 다 바락이라
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李允鎔 對 柳致松인데
民政의 柳致松의 政見發表에는 박수갈채였다
고. 官權發動으로 平澤 古德巡警이 다 不正選舉
를 폭로했다고 新聞에 났다. 公正選舉면 柳致松
이 當選 확실.

◎ 11월 25일 (음 10월 10일) 월요일 雲

... 李允鎔 立候補로부터 洞里 要한 洋灰 10袋
中 7袋 金 1,800원 보내왔다.

◎ 11월 26일 (음 10월 11일) 화요일 雲

總選舉. 歷史的인 國會議員 選舉日이다. 비례
代表 44名과 地域구 候補 131名을 選出한다.
上三溪 時祭를 통해 投票를 靑北國民校에서 하
고 능안 11代祖 시제를 지내고 왔다. 날씨는 매
우 쌀쌀한 날씨였다. 與黨인 李允鎔氏는 運動도
광범히 하고 돈도 많이 써 우리 洞里에도 나를
通 해 千八百圓을 보내 왔으나 野黨을 지지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저녁을 먹고는 레디오를 머
리맡에 놓고 밤을 새우다시피 開票상황을 드렸
다. 중간발표는 서울을 제외[제외]한 支方에선
거이 다 與黨票가 많다.

◎ 11월 27일 (음 10월 12일) 수요일 雲

새벽에 레디오를 통해 들으니 서울 東大門 関

寬植 與黨인 共和黨이 票가 많고 우리 平澤에선
野黨인 柳致鎔氏가 앞도의으로 우세. 釜山에선
野黨 1명 外 共和黨이다. 今般選舉에 있어 7,
8할이 共和黨이요, 民政黨이 第一 野黨으로 싸
우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니 눈이 많이 나리었
다. (...) 저녁을 먹고 나 開票를 들으니 共和黨이
42名, 民政黨 12名, 民主 5名, 自民 1名이다.

◎ 11월 28일 (음 10월 13일) 목요일 晴

國會議員開票結果 6時 現在. 民主共和黨 85
民政黨 27 民主黨 7 自民黨 6. 共和黨이 앞도
의 우세. 軍政의 실정을 비난하고 野黨立候補者
가 강경히 공격을 했음에도 開票結果는 상상 外
의 票가 나왔다. 共和黨에서도 과半數 議員이나
찾아냈으면 한 것이 意外的 票였다. ...

◎ 11월 30일 (음 10월 15일) 토요일

共和黨 88 民政黨 27 民主黨 7 自民黨 6 國
民의 黨 2. 精米所에 가 우리 搗精日을 알아보
고 詳植 집에 가 술 몇 잔을 먹고 와 朴巡警과
우리 집에서 술을 나누고 夕飯食事を 같이 했다.
저녁에 鍾소리가 나 가보니 收得稅告知書가 나
왔다. 우리가 2,863원이 나왔다. 選舉 지난 後
에 告知書가 發付되리라고 하더니 틀림없는 말
이다. 昨年에 비해 아주 많이 나왔다.

◎ 12월 24일 (음 11월 9일) 화요일 晴

오늘 저녁이 X마스다. 거리마다 가두마다 흥겨
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걸려있는가 하면 상점엔
카드와 선물 팔기에 賣上고가 높아진다. 그러나
이곳 농촌엔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저녁에 만둣국을 먹었다. 어린것들도 아무 선물
도 못했다. 世界各國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부가 번
가러울 것이다. 오늘부터 通禁解除다.

1964년

◎ 1월 1일 (음 11월 17일) 수요일 晴

多事多難한 癸卯年을 送하고 希望의 年 甲辰
新年을 마지했다. 國家的으로도 軍政에서 民政의

과관곡절이 많았다. 大統領 權限代行인 朴議長의 二二八 宣誓와 七二九 宣言 國民投票 大統領選舉民議員 選舉 等 大事業의 해였다. 새 일꾼을 뽑아 새살림을 이룰 新年을 마지해며 기대와 벅찬 希望을 앓고 모든 것에 如意亨通 하길 바라며 新年 초하루를 접했다. 허나 舊正을 과세하는 우리 고장엔 新年 초하루의 氣分이 안 난다.

◎ 1월 16일 (음 12월 2일) 목요일

… 國會는 與野間 싸움뿐 國政을 論議치 않으니 우리 國民만 골탕.

◎ 3월 1일 (음 1월 18일) 일요일 晴

三一節, (….) 분노의 精神이 가시기도 前에 日本人이 韓國땅을 거닐고 서울 한복판에(뉴-코이 야 호텔) 이란 韓國第一의 건물을 日本人이 新築한다니 이거 큰일이 아닌가 하면 일본말 배우기 분주하고 日本 유행곡을 서울을 뒤덮는 현상이니 다시 한 번 지난 日本人이 잔인무도했던 回想해 오늘 三一節을 마지하였으면 한다. 불우한 運命을 걸머진 韓國 北韓에서 우리 韓國을 노리는 가하면 日本에서 호시탐탐이 엿보고 있으니 우리 韓國民 은 精神 바짝 차리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

◎ 3월 25일 (음 2월 12일) 수요일 晴

… 오다 支署에 들리니 出動準備 태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 大田 大邱 釜山 등에서 韓日會談 反對의 데모가 일어나 큰 소란을 이루는 모양이다. 韓國政府에서 저좌세인 것만은 틀림없다.

◎ 5월 9일 (음 3월 28일) 토요일 晴

… 政府는 오늘 개각을 해서 大統領은 國務總理을 丁一權 外務長官이 오늘 8時에 發表되었다. 外換改革으로 인해 물까는 大폭 양등되어 배 以上이 오르고 있어 政府에서도 큰 관심사이다. 午前에 쌀 2斗를 賣했다. 820원. 몇일 前만 해도 1斗當 500원을 호가했고 고무신 1足에 60원 하던 것이 100원 등이라고 한다.

◎ 7월 17일 (음 6월 9일) 금요일 雨

制憲節 …

◎ 7월 26일 (음 6월 18일) 일요일 晴

… 몇일만에 레디오 소리를 드르니 사는 것 같다.

◎ 8월 15일 (음 7월 8일) 토요일 晴

8.15 解放 19週年. …

◎ 9월 12일 (음 8월 7일) 토요일 雲

… 靑北面 共和黨 改編大會도 있고 일꾼도 李柱乙兄이 求했는지도 알 겸 新浦로 해서 西井里로 갈라고 떠나 新浦에서 會를 보고 (….) 共和黨會는 代議員選定. …

◎ 12월 7일 (음 11월 4일) 월요일 雲

… 朴正熙大統領 昨日 訪獨. …

◎ 12월 18일 (음 11월 15일) 금요일 雲雪

… 除雪을 하고 마실 같다가 點心을 먹고 있으니 永登浦 아저씨가 오늘 오셨다고 오라해서 가보니 面長件이 내가 주선해서 일한 것이 10% 성과를 얻어 道知事가 郡守에게 指示했는데 오늘 來日 변동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午後 4時頃에 新浦에 가 鄭巡警에게 잘 附託하고 午後 6時 頃에 집에 到. 다섯재祖父 家에 가 永登浦 아저씨와 祝배를 올렸다.

◎ 12월 19일 (음 11월 16일) 토요일 晴

面長運動으로 先發순 나는 오늘 중일 조조한 氣分으로 기다리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永登浦 아저씨께서 오라고 해서 가 보니 아저씨께서도 궁금하여 議論 次 오라는 것이다. 來日 新浦로 해서 水村의 朴讚熙氏를 만나 보아 朴讚熙氏의 태도를 볼 次로 떠나기로 하고 집에 왔다.

◎ 12월 20일 (음 11월 17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を 일직하고 日程대로 떠날라고 하니 다섯재祖父가 오시더니 어제 저녁 늦게 永登浦 ○ 植에게서 急報가 와 오늘 새벽 車로 올라갈라고. 그리고 新浦엔 다섯재祖父께서 가신다고 해서 나는 그만두기로 했다. 永登浦에서 急報가 온 것에 對해 궁금하다. 2, 3日來에 喜消息이 있기를 바라며.

1965년

◎ 乙巳新年的 希望을 앓고 첫 일기를 적는다.
甲申舊年을 도려켜 보건대 國際的으로 쓰련 후
루시초푸의 首相職退에 이어 中共확실험으로 確
保有國로 등장 英國의 노동당 승리 佛蘭西의 中
共승인 호화로운 日本에서의 올림픽 等の 多事
로운 國際政勢! 안으로 六.三학생데모로 계엄령
선포 朴大統領訪獨등의 글자 그대로 多事多難
한 한해였다. 또한 家庭的으로 농꿀은 買收(6마
지기) 登記 取得稅 農藥不使用으로 農事失敗
政府조치법으로 未登記실시 등 우리는 앞 농꿀
발원等 登記申請 等等 費用이 상상외로 많이
들었다. 長利米를 31㏊나 졌다가 다 갚고 今年
糧度나 될까 하고 井戶도 되었다. 남의 長利米
많이 저 걱정의 한해를 보냈다. 갚고 나니 아주
후련하다. 今年엔 빚을 다 냉기였으니 가벼운 마
음으로 맞이했다. 다가올 新年에 春望이 활짝 피
길 바라며 歲在萬事如意亨通하길.

◎ 1월 10·11일 (음 12월 8·9일) 일·월요일 雪
... 新聞이 正月들어 1장만 왔다.

◎ 2월 1일 (음 12월 30일) 월요일
陰月으로 오늘이 그믐이다. 舊正을 세우게 된
우리 國民은 분주하다. (...) 억제할 수 없는 습관
舊正은 아마도 버리기 어려울 것 같다.

◎ 2월 2일 (음 1월 1일) 화요일 冷晴
날씨가 갑작히 冷해서 舊正의 名節을 겨울답게
마지했다. 우리 韓國全國民의 8,9,割이 모두 舊
正을 세고 있다. 차례를 12時 頃에 마치고 어머
님 산소에 갔다와 洞里歲拜을 다니었다.

◎ 3월 1일 (음 1월 28일) 월요일 晴
三一節. 60年前 3月 1日 3,15日 日本에게 넘
어간 우리 韓國의 항거의 날이다 60年前 今年
야! 乙巳保護條約의 해이다 우연이도 今年 乙巳
년에 日本과 反護條約을 맺게 된다. 日本의 사
도 政府에선 外相이 韓國에 와 政府要人과 협상
을 했다. 野黨에선 극구 반대다 우리 國民도 잘
될 것인가 걱정이다. ...

◎ 4월 10일 (음 3월 9일) 토요일 晴風
... 政府에선 韓日外交로 野黨에선 反對로 二

자로 인제 시위까지 해가며 政局이 혼란이고 월
람은 전쟁으로 화하고 國內外政勢 혼란하니 民
安치 않다. 날마다 바람으로 비는 안 오고 아주
不安하다.

◎ 4월 15일 (음 3월 14일) 목요일 晴
오늘도 마참가지의 날씨로 連續되니 큰일이다.
日政의 소화 14年度가 이리 가물었다는데 그때
와 같은 흉년이 온다면 나라의 구급은 어려울 것
이다. 현 政府을 믿고는 살 수 없다. 國態民安해
야 時和年豐이라는데 나라에서 政策 싸움으로
與野 매일 싸우고 韓日外交反對로 每日 데모가
끝일 줄 모르고 어제는 高等學校까지 확장해서
경기高等學校에서도 일어났다. 아주 심상치 않
은 해다. ...

◎ 4월 17일 (음 3월 16일) 토요일 晴
... 비가 나리여야 할텐데 나라는 어수선하고 비
는 안 오고 不安에 잠겼다. 國內外 政勢가 어수
선하다. 自由 越南의 戰爭은 확대 自由陣營의 美
國 代 쓰련 中共 等 계입. 國內的으로 한日 外
交 野의 反對에 이어 학생들의 시위로 각 대학
休校 東大生の 死亡까지 있었으니 서울의 거리
는 말할 수 없이 어수선. 農村에선 비 안 와 한숨.

◎ 5월 8일 (음 4월 8일) 토요일 晴
오늘도 종일토록 지국은 바람으로 해을 보냈
다. 웬일로 금년 春期 雨量이 이다지 적은가. 오
늘도 종일 그럭저럭 해을 보냈다. 전곡 흉년이
들고 답농사도 흉년을 줄 것인가. 不安定政局!
國泰民安 時和年豐이라던데 험한 政局에 年豐
이을 것인가? 安定된 政局을 가져다 주어 年豐
을 들게 하시오서.

◎ 6월 22일 (음 5월 23일) 화요일 晴
... 韓日外交 條印 韓日 代表 外務長官 李東
源 日本代表 外相 등 서울에선 野黨과 全國中
等大學生等은 결사 反對를 했다.

◎ 6월 28일 (음 5월 29일) 월요일 晴
... 이렇게 심한 旱魃은 80年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서울을 비롯해서 各 地方에서 일어나는
學生들의 데모와 飢餓 學生! 韓日外交反對는

100餘時間 이상 단식투쟁 人員이 現 200名 넘는다고 한다.

◎ 7월 20일 (음 6월 22일) 화요일 雨

今年 一年來 오고도 나뭇을 비가 한거번에 쏘아진다. 어제 저녁부터 심한 비가 나리었다. 오늘도 종일 오락가락 했다. 비가 많아야만 豐年이 들것만 너무나도 많이 갑작히 나리여 40年만에 나리는 비로 漢江 위험 水위에 도달해서 보기 드문 수해가 왔다. 수재민이 22만이란 어마어마한 수에 달하고 사망이 200餘名이고 家屋 橋梁 道路 田畓 等の 피해가 막심. 아직도 降雨 전선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初代 大統領 李承晩 博士가 海外 호노루트에서 別世했다. 韓國의 愛國者 韓國의 英雄이 도라가시다.

◎ 8월 15일 (음 7월 19일) 일요일 雲

8.15 解放 20週年을 마지했다. 感慨가 깊던 20年前 오늘 解放된 大韓은 天地을 뒤덮는 환희의 날이었다. 우리가 20週間 解放의 보람을 가져왔는가 생각할 재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가련한 것이다. 우리 韓國은 美, 쏘 間에 依해 38線이란 線으로 허리를 잘라 同族相爭이란 쓰라린 戰爭이 있어 재산과 生命을 너무나도 많은 손실이였다. 이런 고초 속에서 國內에서 감투 싸움으로 오늘 날까지 물고 차고 죽이고 하는 政爭이였다. 우리 庶民 중 農民은 불만 속에 나날을 보낸다. 20年前 36年間 日本 놈들의 쓰라린 고초 속에 지내든 것이 잇기도 前에 韓日外交 정상화로 日本 놈들을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日本 놈들의 속을 잘 아는 우리는 韓國이 有利한 것은 없을 듯하다. 野黨議員 이은 충사직으로 國會는 여당의 단 一 정당으로 비준을 하는 한심한 일. ...

◎ 9월 16일 (음 8월 21일) 목요일 晴

만殃 심은 벼 일씨는 잘하는 심이나 김장 그루는 비가 와야겠다. 벌써 그루 凶年은 들었다. 한참 살이 붓들 時期에 단풍이 들어 콩넝이 떨어지고 있다. 今年엔 웬일인지 人間의 입에 들어가는 穀植은 모두 凶年이니 웬일일까. 國泰民安 時和年豐이라는데 國際적으로 東南亞사태가 긴박하

여지고 戰爭及(인도와 파키스탄) 國內적으로 國民의 韓日外交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政府에서 비준까지 하고 보니 乙巳保護條約의 비난이 되풀이 되고 韓國의 장래를 염려하는 國民의 한숨. 國內政국의 혼란의 도가니 속에 들어있다. 大谷部落은 今年에 海溢로 큰 흉년을 이루었는가 하면 田穀까지 이렇고 보면 不安에 잠겨있다.

◎ 10월 26일 (음 10월 3일) 화요일 晴

... 쌀값이 아주 폭락해서 오늘 白米 1斗 當 310원이라니 다른 物件값이 말할 수 없이 오르고 穀價만 폭락이라니 農民이 살 수가 없다. 今年엔 農事도 잘못 지었으려니와 穀價마저 폭락이니 허덕이느니 農民이다. 더구나 肥料값도 6,70%나 올랐으니.

◎ 11월 22일 (음 10월 30일) 월요일 晴

... 共和黨 平澤郡地區黨改編大會에서 黨委員長에 李允鎔氏라고 李允鎔氏 徐泰元 韓民洙 韓國진 등에 李允鎔氏 선출. ...

◎ 12월 23일 (음 12월 1일) 목요일 雲雲

... 新浦에 간 김에 新聞을 新淸했다.(경향신문) ...

◎ 乙巳年을 보내면서

파란 많은 乙巳年의 마지막 카렌다를 뺐다. 도리켜 지난 한 해를 보건대 너무나도 봄잡한 해다. 60年來 처음 오는 旱魃이 잇는가 하면 50年來 처음 오는 장마이였다. 또한 80老人도 볼 수 없었던 海溢로 막심한 被害를 보았다. 80 餘日 가물음에서 다 죽다 깨어난 穀植을 海水가 물려와 앞 鹽田堤防이 터져 와 우리 집 앞까지 海水가 치와 農作物은 아주 못쓰게 되었다. 大谷部落에 큰 不幸이 왔다. 우리는 농꼴을 靚신히 求하여 큰 위급을 났었다. 하도 風被 많은 해인 고로 가을 秋收 때까지 마음 못 놓았다. 秋收을 해보니 昨年보다 白米 10畝가 떨어진다. 우리가 洞里에서 第一 잘 지었다는 것이다. 內外國問題로 60年前의 乙巳年에 國치의 韓日保護條約이 잇든 今年에 乙巳年에 또 韓日外交가 條印 비준되었다. 國內에선 극한 鬭戰을 벌리고 國會에서도

與野議員들이 斗政 끝에 辭職까지 했으나 政府의 원안대로 비준. 우리 國軍의 越南의 2만 軍人을 派兵 等の 해이다.

1967년

◎ 年頭所感

甲午年이 소리없이 저물었다. 해마다 마지하는 新年의 소망은 크다. 丁未 新年에도 萬事가如意亨通하길 빌면 丁未年을 마지했다. 今年 또 總選舉의 해다. 어떤 人物이 나올 것인가. 新聞 레디오 등 現政府가 重農政策을 써왔고 現農村의 수지 지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말도 아니다. 現 이대로라면 날로 더 어려워진다. 몇 年을 두고 격은 일이지만 다른 것을 볼 것 없이 우리네 땅 값이 올라가야 농촌의 살림이 는다는 것인데 今年엔 도처에 移舍 땅 賣渡人이 늘어간다. 이 동리가 面的 畚洞이라는곳도 땅이 많이 나고 잇으나 원매자가 없다. 政府에서도 하느라고 하겠지만 農村실정은 말이 아니다. 5都會 사람 마냥 쓰고 하고 나면 단 2,3個月 유지도 안 된다. 우리가 洞里에서 괜찮다. 하지만 우리 농사 지며 여유라고 안 쓰고 못 먹은 것 남는 것이다. (…)
今年에도 萬事如意하길 바라면 붓을 놓는다. 追而 昨年에 속이 不便해서 고생을 했으나 모두 甲午年이 가지고 같으면 한다.

◎ 1월 1일 (음 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이 正月 초하루것만 한가롭다. 아직 우리 시골엔 陰曆이 다채롭다. 陰曆이라야 조상님께 제사 올리고 어른들에 歲배 올리고 떡국 먹고 어린이들 새 옷 입고 하것만 오늘은 한가로운 날. 눈이 천지를 뒤덮하여 白衣天使만같다. …

◎ 1월 27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共和黨部落黨員會輪村會. 11時頃에 黨員會가 있었다. 술과 국수를 대접했다. …

◎ 1월 28일 (음 12월 18일) 토요일

… 洞里的 公同當會를 했다고 한다. 現在까지

말에 依하면 愛鄉心에서 일을 한다고 추진하고 계시다. 하루 속히 유종의 美를 거두었으면.

◎ 2월 9일 (음 1월 1일) 목요일

舊正. 아직까지 우리 韓國에 舊正을 과세함은 져어있다. 오늘 초하루 祖上任께 제사 지내고 선묘하고 하는 것은 관예에 져어있다. …

◎ 3월 24일 (음 2월 14일) 금요일

… 신문代 130원 支拂. 朝鮮日報.

◎ 4월 28일 (음 3월 19일) 금요일

朴正熙大統領 候補 유세가 있다고 洞里분들 모시고 新浦에 나오면 車을 태워다주겠다고 해서 洞里에서 여러분과 쑥고개 松新中學校에 갔다 朴正熙가 아니고 國會議長 ○○이다. 배가 고파 점심을 사먹고 下午에야 집에 왔다. …

◎ 5월 1일 (음 3월 22일) 월요일

… 場에서 共和黨 新民黨 遊說가 있었는데 共和에는 無關心이고 新民에는 박수갈채. 安仲만은 新民이 우세라고들 광중평- 前日 仁川에도 里班長 黨員들을 車에 태워간 共和보다는 장소도 不便한 新民측이 더 관중이 많더라고 하니 共和에서 당선이 가능.

◎ 5월 2일 (음 3월 23일) 화요일

… 전일 安仲場에선 大統領遊說에 野遊說에 共和黨보다는 新民黨이 大성황을 이루고 新民黨場에는 울소 박수 갈라니 安仲엔 野黨이라고.

◎ 5월 3일 (음 3월 24일) 수요일

歷史的인 6代 大統領 選舉의 날이다. 다른 곳은 몰나도 自由 分圍氣속에서 우리 面만은 選舉를 치루었다. 自由黨때 3人組 5人組 등이 있었고 환표 등 강권이 있었으나 今般選舉 平和롭고 自由스러운 投票日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없는 黨員이라고 하지만 現大統領 共和黨 政治이 잘하는 점도 많다. 工業並國을 부르짓고 있어 富國하는 점은 있어 建設的이고 的의이며 과감 용감하게 일하는 일꾼이지만 우리 農民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촌은 병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땅 값이 날로 떨어지고 穀價가 날로 떨어지며 일꾼도 농촌은

로 오지 않아 농사지기 힘들고 있어 농민인 나는 그리 달갑지 않다. 또 다른 사람이라고 그리 마음이 듭직한 분이 없다. 다만 같아보았으면 생뉘치여尹潛善에게 票을 던졌다. 今般 5.3選舉는 朴正熙候補가 當選 가능하다.

◎ 5월 4일 (음 3월 25일) 목요일

… 大統領開票에 있어서 朴正熙候補가 當選이 決定되었다. 尹潛善候補보다 110만 票나 리드했다. 慶南北 1濟州 江原 等 아주 우세. 釜山 全南北 약간의 차이 朴후보 우세. …

◎ 5월 17일 (음 4월 9일) 수요일

… 共和黨의 會와 遊說가 있어 平澤에 10時 頃에 出發해 新浦에 가니 8時에 出發했다고 연락이 안 데여 늦어 그냥 집에 돌아오니 氣分이 좋지 않다. 늦게 다섯재祖가 平澤에서 오시여 늦었다고 하시며 洞里的 發展할 수 있다면 내가 잘해 달라고 對話한다.

◎ 6월 2일 (음 4월 25일) 금요일

… 共和黨에서 洞里사람들 술 한 잔씩 대접하라고 一金 600원과 나에게 一金 500원을 보내왔다. 秘.

◎ 6월 4일 (음 4월 27일) 일요일

… 新浦에서 도라오니 共和黨 組織部長이 왔다. 이 部落에 一金 600원이 나왔는데 도저히 그 것가지고는 待接할 수 없다고 했더니 다시 한번 들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 6월 6일 (음 4월 29일) 화요일

장에 간 지도 오래이고 果樹園도 궁금하고 참깨 고구마 심은 것도 볼 겸 安仲場에 갔다. (…)
選舉 중반전에 오늘 安仲場에 立候補者 모두 왔다. 술과 국수가 헤어졌다. …

◎ 6월 7일 (음 4월 30일) 수요일

… 저녁나절 共和黨에서 왔다. 수건을 갖고 오고 봉투도 몇 개 갖고 왔다. 저녁엔 600원 나온 것을 煙草 아리랑 18갑 새마을15갑을 600원에 사서 洞리에 돌랐다. 큰어머니는 돈이나 내가 먹는 줄 알고 조사를 하는 모양이다.

◎ 6월 8일 (음 5월 1일) 목요일

總選舉日. (…)
妻가 일직 投票하고 온 후에 10時 頃에 投票場에 갔었다. 投票場에는 自由 勞團氣속에 進行되었으나 共和黨이 활동적이다. 좀 기다리다가 共和黨 候補 李允鎔氏에게 投票했다. 新浦엔 飲食店마다 만원이다. 食券이 난발했으나 그냥 집으로 도라왔다. 三溪의 俞榮植氏 還甲일에 參席할까 하다가 그냥 도라왔다. 立候補者 共和 新民 兩黨 對결인데 與黨인 李允鎔氏가 運動이 第一했고 자금도 제일 많이 썼다. 군소 政黨은 運動이 없었다. 官權 金權 운동이 與黨의 李允鎔!

◎ 6월 9일 (음 5월 2일) 금요일

開票 結果가 궁금하여 레디오를 틀어놓고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새벽 3時 頃에 깨여 레디오를 들으니 與黨이 아주 우세하다. 서울 釜山에선 野黨이 몰하고 地方에선 與黨이 거이 다이다. 우리 地方에도 與黨인 李允鎔氏가 當選되었다. 野黨 地方인 平澤에서 與黨이 當選되었으니 野黨選出로 地方이 發展이 없어 今般만은 與黨을 쏘아 地域開發을 이루어 보자는 郡民의 새情이 아닌가 生覺되나 그래도 군소한 次이로 與黨이 當選되었다. 단비가 촉촉히 나리는 날 레디오로 귀을 기울리며 放送을 듣고 있었다. …

◎ 6월 10일 (음 5월 3일) 토요일

… 6.8選舉結果 共和 新民 代로서 新民 서울 釜山 壓勝 群小政黨에서 完全 脫落이다. 서울에선 13區中 1與고 12區가 野다. 釜山에선 5代 2 地方에선 10 대 1,2 程度이다. 우리 京畿에서도 仁川을 除外하고는 모두 與다.

◎ 6월 29일 (음 5월 22일) 목요일

… 36個국 사절단이 朴大統領 6代 취임式에 參席 次 來韓했다. 美國의 副統領 自由中國의 副總統 日本의 首相은 來日 來韓 예정이다.

◎ 6월 30일 (음 5월 23일) 금요일

… 朴正熙大統領 就任式에 미힘푸리 副統領과 友邦貴賓 慶祝使節參席. 오늘까지 訪韓.

◎ 7월 1일 (음 5월 24일) 토요일 雨

6代 大統領 就任式.

◎ 7월 14일 (음 6월 7일) 금요일 雨雲

... 今年엔 여름가용에 과히 운색치 않을 줄 알았더니 여름만 되면 여유가 없다. 쌀도 넉넉히 두었는데 쌀에 손을 못 댈 정도라 돈이 몰린다. 담배가 떨어졌어도 農藥도 못 사주어 손해를 보았다. 二化螟蟲이 심하것만 藥을 못주니 家用은 갈수록 늘어만간다. 農事 20마지기도 못할 재如유가 20ㄷ가 넘었는데 30마지기가 넘어도 20ㄷ가 못 된다. 25斗落할 재 30ㄷ을 냈는데 現在 20ㄷ의 여유가 못 되니 말이다. 이대로 家用이 늘어만 간다면 如유가 없을 것 같으니 농사는 참으로 못할 직업이다. 어떻게 生啓실계를 해야 할 것인지? 남들은 우리가 洞里에서 第一 낚다고 하지만 실속없는 것이 농사다. 못 쓰고 못 먹고 하는 것이 農事간보다.

◎ 8월 5일 (음 6월 29일) 토요일

... 農村 살리사리가 날로 어려워진다. 사람이 구하니 사람 살 수 없고 가을 추수기는 다가오것만 걱정이다. 곡가는 없고 노임은 비싸고 정부에서 중농정책을 한다지만 파농정책이다. 땅금은 날로 떨어지니 농촌경기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다른 대책을 하여야지 이대로 농촌경기가 없으면 못살게 말린다. 우리 어려서만도 稻 500升이면 일꾼 새경이던 것이 白米 8ㄷ 내지 9ㄷ니 수확은 고종이고 노임은 오르고 곡식 값은 떨어지고 못 쓰고 못 입고 제일 서민생활이 농민이다. 도회지중심의 政治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 8월 15일 (음 7월 10일) 화요일 雲

우리나라가 解放된 지도 22年을 마지했다. 新 生韓國이 22年 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은 發展을 보았다. 경제 文化 社會 걸쳐 발전을 이루었으나 政治의으로는 아직도 우리 韓國의 民族성이 라인지 당쟁이 분분 黨利黨욕에 싸우고 있으니.... 우리 農村은 날로 살기 어려워만 간다. 땅 값이 年年히 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生産量도 못되는 農村에 살고 있는 농민이 불쌍만하다. 해방된 22돌 오늘 바라지 않은 객수가 종일토록 나리여 농昨物에 披害을 주었다.

◎ 8월 28일 (음 7월 23일) 월요일 雨雲

... 各種 農產物 價格은 營農費도 못되는 값이고 그나마도 日氣關係로 제대로 건조가 안 되니 農民은 무엇먹고 쓰고 산단 말인가? 政府에서도 穀價를 生産價以下로 떠러트리기로 힘쓰고 있으니 農民은 누굴 믿고 산단 말인가? 그리하여 땅을 팔고 都市로 몰려가고 있다.

◎ 9월 16일 (음 8월 13일) 토요일 晴

... 우리 京畿地方에 今年에 大豊인데 三南地方인 湖南 嶺南地方엔 비가 안 와 큰 흉년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재민이 70만을 넘는다고 하나 農事도 한 해만 흉년이 들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을 못 살게 된다. 같은 農君으로 동정이 간다. 레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목 메인 소리는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70日이 가물어 畚穀이 모두 凶年이라고.

◎ 12월 1일 (음 10월 30일) 금요일 雲

... 찌뿌린 날씨는 中學入試의 좁은 문은 비좁기만 한 듯 레디오 新聞 等 報도진은 주 기사가 되고 全國民의 귀는 이곳으로 기우리고 있다. 우리는 아직 入學生이 없어 큰 관심거리는 아니것만 2年 後엔 얼마나 조바심이 될까? ...

◎ 12월 25일 (음 11월 24일) 월요일 雲

크리스마스(聖탄) (···) 丁未年의 除하는 오늘 一年間을 回想건대 허구 많은 일들이 머리를 스쳐가는 지금 무엇부터 記錄할까? 年頭에 希望의 찬 새해를 마지 했다고 했다 과연 希望의 벽찬 새해를 맞아 모든 일이 如意亨通했을까. 대과 없이 이해을 지낸 것이 如意亨通이라 生똥된다. 昨年 한 해 동안 속벽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今年엔 그대로 지냈으니 나로서는 큰 所望을 풀었다. 身體는 第一의 財産이라 나의 몸이 든든한 가운데 所願을 이루었다. 農事도 짓든 中 잘 지었다. 막통 100餘ㄷ을 했다. 큰 所願을 가졌다고. 나의 生活의 범위內이서다. 축새가 황새을 쪼차가자면 가랭이가 쪼개진다했다. 希願이나 希望이 고기서 고기다. 政府에서 重農政策을 한 다지만 우리 農事君은 더욱 어려워진다. 무엇보

다도 노임은 비싸고 穀價는 떨어지는 農事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120원하던 노임이 200원. 도저히 힘 드는 農事다. 게다가 일꾼이 모자라니 어이 될 것이냐. 昨年에 논 산 것이 후해막심이다. 今年農事진 것은 다른 것을 해 볼라고 搗精도 아니했다. 또한 今年에 兩大 選舉를 치루었다. 없이 한 해을 지냈음에 고마운 마음 금지 못하여 한 해의 끝말을 맺는다.

1968년

◎ 1월 1일 (음 12월 2일) 월요일

1968년 첫날을 마지했다. 希望의 찬 새해를 마지하여 아름답게 계획대로 所願을 이루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새해의 첫 1배을 들었다. 昨年 農事 여유로 서울로 運動을 해볼라고 生覺 中에 있어 서울에가 집이라도 아니면, 쪼꼬마한 事業을 生覺하고 벌서 서울에 2,3次 올라갔다. 呸에 맞는 것이 없어 同生들 보고 付託했놓고 집에 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잘 들어맞아 줄 것인가 걱정이다. 자식들 教育問題로 서울로 유의 중이다. 아직도 우리고장엔 陽曆過歲은 없어 첫날인 오늘도 날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낸다. …

◎ 1월 21일 (음 12월 22일) 일요일

… 夕飯을 마치고 나니 車가 왔다고 하며 北韓에서 間諜이 왔다고 정보계장과 정보계 형사와 와 朴刑査이 우리 집에서 宿했다.

◎ 1월 22일 (음 12월 27일) 월요일

… 어제 밤 10時40分경 首都 서울 효자동에서 北韓 게리라 1個 小隊兵力이 나타나 살상 4名 생포 2名을 포착했다. 이 게리라는 靑瓦臺을 기습할라 든 것이라고 한다. 아의 피해도 鐘路警察署長이 죽고 일반 양민의 피해가 있어다고 한다.

◎ 1월 24일 (음 12월 25일) 수요일

… 李巡警과 徐巡警이 우리 집에서 宿했다. 北韓의 유격대와 우리 國警과 교전이 여러 차례있었다고 한다. 오늘까지 15名 사망에 1명 생포라

고, 아군의 피해 오늘 陸軍大領이 사망했다고. …

◎ 1월 25일 (음 2월 26일) 목요일 晴

… 한국에 동해에 있는 美情報함이 南北 당해 全世界에 이목이 우리 韓國으로 집중! 北韓 게리라가 우리 서울 청화대를 기습할라다가 도망간 대 잇다라 이러한 重大事이다. 美國에서 重大성명이 나릴 것이다. 戰爭이나 일어나지 않아 주었으면 한다. 언제나 平和한 나라에서 살아볼까. 不安한 가운데 하루해를 보냈다.

◎ 1월 26일 (음 12월 27일) 금요일 晴

초긴장에 잠긴 우리 韓國은 오늘도 不安한 가운데 있다 來日 영時に “un” 常任委員會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北괴의 게리라 南派와 美情報함의 남북에 이어 불을 뿜는 戰爭으로 변질 것이냐 아니면 잘 가라안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不安하게 하루해를 보냈다. …

◎ 2월 1일 (음 1월 3일) 목요일

… 國際政勢는 초긴장에 빠져 월람도 월맹의 공습에 한때는 越南의 수도 싸이공에도 수세에 장기였다고. 共產 게리라는 如前이 공세를 하고 있다고. 舊正의 휴전을 무시하고 텀비는 공산의 심사. 우리나라의 긴장은 如前! (육이부로)호의 拉北. 게리라 南派! 우리나라도 정신 바삭차리여 야지! …

◎ 2월 21일 (음 1월 23일) 수요일 눈

… 저녁엔 哨所의 自警隊員을 모이라 해서 갔다. 自警隊의 民間人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써 주고 왔다.

◎ 4월 19일 (음 3월 22일) 금요일 晴

4.19 學生 의거 8週年이 되었다. 獨裁에 항거 自由黨 政府을 타도하고 自由와 權利를 쟁취하기 爲하여 항거한 날이다. …

◎ 7월 1일 (음 6월 6일) 월요일 晴

… 妻는 농약통을 갈다 줄라고 場에 갔다. 場에만 가면 적어도 一金 천원을 갈고 가나 해 갈고 오는 것은 없다. 물까는 비싸고 穀價는 싸니 농군은 살 수 없다. 싸나 비싸나 풍년 들어야겠는데 웬일일까 들에 가기 싫어 종일 집안에 있었

다. 바깥에 나다니기가 싫다.

◎ 7월 9일 (음 6월 14일) 화요일 雲晴

... 일은 날로 심해가니 공상만 생긴다. 직업을 전환해 볼까 하는 생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뿐이다. 家畜을 해볼까도 생각해 보았다.

◎ 8월 31일 (음 윤 7월 8일) 토요일 晴

... 住民證을 交換한다고 증명사진을 찍는다고 사진사가와 사진을 찍고 ...

◎ 9월 4일 (음 7월 12일) 수요일 晴

... 水原에 가서 집 한 채 사갈고 제대로 만하면 집에서 한 섬지기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고해 농사짓기도 힘들고 마음이 들떴다. 一金 50만원만 있으면 農事진흥청 근방에 집 한 채 마련한다고.

◎ 9월 18일 (음 윤 7월 26일) 수요일 晴

... 서울에 집토를 마련하면 住宅資金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高棧 敬浩 가와 같이 서울에다 집토를 마련해 보자고 朝飯 後에 왔다 같다. 春植에게 있는 돈이 빠져 나와야겠는데 그 돈만 생똥하면 속이 상하다. 今年엔 모든 일이 순조롭이 되지 않는다.

◎ 9월 21일 (음 윤 7월 29일) 토요일 晴

... 來年에 魚網을 할라고 생똥중에 있는데 妻는 극구 反對한다. 約 40만원을 들여 차릴라고 準備을 할라니 妻가 反對하는지라 매우 곤란하다. 나는 어망을 하고 심은 생똥이다. 또 하기로 李貞國과 議論까지 했다. 妻가 反對하는 지라 생똥을 해보아야겠다.

◎ 11월 16일 (음 9월 26일) 토요일

서울行. 白米 30㏔ 代金 中 先金으로 一金 5만원을 내갈고 쌀은 3日 後에 주기로 하고 一金 5万을 갖고 서울에 떠났다. 孟植을 만나니 집을 짓기 始作 했다고 한다. 같이 우리 집짓는데 가 보았다. 축대를 쌓아 갈고 부엌을 쌓기 始作했다.

◎ 12월 3일 (음 10월 14일) 화요일

조반식사를 모처럼 집에서 하고 洞里에 나가니 洞里분들이 모두 人便을 한다. 아직까지 이 근방

에서 서울에 가 집 장만한 집은 없다고 人便가 자자. 高棧 가도 모두 방가운 人便! 前坪에 가 恒秀집에 가니 바다에 같다고 해서 바다에 가니 新浦에 같다 해서 高棧와 瑞雨氏 家에서 점심을 먹고 下午 늦게 前坪에 가 만났다. 2,3日來로 4㏔ 나머지는 16,7日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왔다. 서울에 집짓는데 例外로 들어 앞으로 집세간사리가 걱정이다.

1971년

◎ 부푸른 꿈을 안고 辛亥新年을 마지했다. 辛亥年의 첫 붓을 들어 바라노리 모든 일이 如意亨通하기를... 希望을 가득 싣고 71年을 맞아 나로서는 最大의 해이다. 今年엔 집을 지어볼라 計劃中에 있으니 辛亥年이야말로 꿈을 안은 大望의 해라 아니 할 수 없다. 國家的으로도 大望의 해이다. 兩大選擧를 앞둔 해이다. 되지해 도야지 꿈만 꾸어도 그날은 모든 일이 잘되고 기분이 좋는데 今年은 되지 해 참으로 기분 좋고 큰일 大役을 앞둔 辛亥新年에 맑게 떠오르는 아침 해살도 방가히 마지하는 듯하다.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今年에 대과없이 평탄한 한 해가 되어주길 바라며 붓을 놓는다.

◎ 2월 7일 (음 1월 12일) 일요일 晴

崔榮喜將軍이 新浦에 온다고 靑北國校에서 共和黨 黨職者大會가 있어 같았다. (...) 高棧 豪植 豪雨, 原木 忠植 在潤 悠雨 등이 어울리어 三溪酒店에서 밤이 늦도록 놀다왔다.

◎ 3월 4일 (음 2월 8일) 목요일 晴

共和黨 관리장 관리차장 郡黨 조직부장 訪問. ...

◎ 3월 8일 (음 2월 12일) 월요일

共和黨 관리 次長 병태가 왔다 같다. ...

◎ 3월 14일 (음 2월 18일) 일요일

오늘도 瑞雨氏만 오시여 일을 午前 中 하시다가 高棧에 체신부 장관이 온다고 高棧에 갔었다.

나도 高棧에 가니 下午 4時 頃に 몇몇 수행원을 데리고 체신부장관이 왔다. 선거관게다.

申氏 장관이라고 왔다고. ...

◎ 4월 8일 (음 3월 13일) 목요일 雨

... 午後에 共和黨에서 왔다. ...

◎ 4월 24일 (음 3월 29일) 토요일

... 下午에 共和黨 緊急會가 있다고 오라고 해서 新浦에 갔다. 수고비로 一金 2,000원을 주었다. ...

◎ 4월 26일 (음 4월 2일) 월요일 晴

... 오늘은 집지 일을 中止하고 妻와 같이 場에 갔다. (...) 場에 가다가 보니 白髮의 할머니가 場에 가는 것을 보았다. 젊은이도 많지만 아주 老人도 많다. 老人할머니가 2,3斗의 穀植을 이고 가기에 소에 언저다 주었다. 젊은 子女들은 모두 서울에 가 있다는 것이다. 남의 일 같이 않다. 우리 洞里만 하더라도 돌재祖, 큰아번님 家等 모두 그러하다. 老人들은 들어앉아 孫子나 보아주고 家事나 돌보아야 할 일인데 場가지 가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 우리도 앞으로 저 모양이겠지 生覺하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

◎ 4월 27일 (음 4월 3일) 화요일 晴

第 3代 大統領 選舉日. 午前 中 妻와 英浩와 같이 뒤축대를 쌓고 午鐘 頃に 投票 次 三溪에 나갔다. 3代 大統領에 出馬할 수 있는 憲法개정 的 共和黨이 T심한 감이 있으나 그렇다고 現政權을 물려받을 野黨도 없어 나는 朴正熙 候補에게 投票했다. ...

◎ 5월 7일 (음 4월 13일) 금요일

... 共和黨 團合大會에 不參했으나 一金 2,000원을 보내왔다. ...

◎ 5월 21일 (음 4월 27일) 금요일

... 共和黨團合大會에 活動長 以上 會合에 못 갈터니 一金 3,000원은 보내왔다.

◎ 5월 22일 (음 4월 28일) 토요일

... 共和黨에서 오늘 一金 3,000원을 보내왔다.

◎ 5월 25일 (음 5월 2일) 화요일

歴史的인 第七代 總選舉日이다. 朝飯을 마치

고 동옥골 논을 한 배미 移秧을 하고 投票場에 나갔다. 投票는 평온한 가운데 進行된다. 三選 改憲은 별로 마음에 없었으나 그러타고 野黨에 政權을 마칠만한 당도 없어 朴正熙에게 票을 주고 이번에도 第一野黨이라야 돈에 눈이 어두운 黨首 柳進山의 파동(진산파동)이란 不明에스러운 일을 저질르고 또한 本郡 立候補者 柳致松氏도 一次의원직 시에 自己만의 화려한 國會 경력 이 있을 분 本郡 發展에 對해선 소홀리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일개 共和黨 指導長보다도 本郡 發展을 爲해 선 與黨인 崔榮喜氏에게 깨닫한 한 표를 주었다. 허나 발전이 된 도회지에서는 野黨議員이 많이 나타. 改憲저지선을 이루어 改憲 建제를 이루어 참다운 議會를 이루어 요 一代 독재를 막고 건전 議會를 이루어 당리당욕에만 쏠리지만 말고 國家와 民族을 爲하야 일 해주었으면 野黨도 좋은 일은 협조하고 그런 일만 鬭爭을 하고 與野가 참다운 議會를 이루어 주기 바란다. 投票하고 와 논에 뒤엄 피고 논 두랑 손질타가 허리를 다쳐 꼼작 못하고 집에 참신히 와 누었다.

◎ 5월 26일 (음 5월 3일) 수요일

前日 다친 허리가 次도가 없다. 큰일이다. 단 홀아시가 이 바쁜 판에 누어있으니 마음은 들에 있고 조바심이 된다. 妻를 약을 사라 보내고 누어있었다. 레디오를 켜놓고 당선 결과를 알아보았다. 평택도 한참 시소췌를 하더니 급기야 36,000여표로 崔榮喜가 받아 柳致松 34,000여 표를 이기었다. 내 바라는 대로 도회지 서울, 부산 등지에서선 野黨이 압도적 다수(서울만 1區만 지고 釜山에서도 2區만 지고 大도시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지에서도 몽조리 야당이 우세 53代 47 비율로 생각이 위로 野黨이 이기었다. 오늘 대충 결과로 여당이 비례까지 27, 8 野에 23, 4 씨을 계산하여 여당이 114석 野 94, 5席 軍소 정당 2席으로 당락이 결정된 상 싶으니 야당의 과반수석이란 기대위의 표수다. 여에서도 反성하고 野에서도 國民이 政權을 마길 거시라는 自

身を 같지 말고 자숙해서 일해주기 바란다.

◎ 5월 27일 (음 5월 4일) 목요일

… 오늘로서 與野의 당선 판가름이 거의 났다. 全國民이 합해서 與 113席 野 89席이다. 앞으로 닦아 올 議會은 議會다운 議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나 反對만 일삼을 것인가. 國民이 아쉬웁게 바란다.

◎ 6월 25일 (음 윤 5월 3일) 금요일

6. 25 21週年이다. 南北戰의 休戰 이래 도발적인 공비 남침으로 不安한 속에서 21년이 지났다. 언제 터질는지 모를 광귀의 음모에 우리 韓國은 平和스럽지 않다. 욕심 같아선 南北統一은 아니면 南韓만이라도 戰爭없는 平和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

◎ 7월 1일 (음 윤 5월 9일) 목요일 雨

… 歷史的인 第七代 大統領 就任日이다. 昨년에 憲法을 改憲 朴正熙가 三代 大統領에 당선되었다. 與野 中 긴급 政府閣료 53위國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大統領의 취임식을 했다.

◎ 7월 25일 (음 6월 4일) 일요일

… 오다가 新聞代 300원 支拂하다. 新聞은 7일부터 計算기로 했다. 一金 800원 支拂.

◎ 8월 15일 (음 6월 25일) 일요일 雲

… 8.15. 26돌을 맞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 韓國도 그 옆파가 크다. 自由 共產과의 냉전은 平和무드에 접어드는 듯 닉슨 美大統領이 中共 주은래를 박문 수락으로 世界은 술렁대고 있다. 이어 우리 赤十字社總裁 崔斗善 博士가 南北間 家族찾기 聲明에 北韓에서도 수락하고 있다. 우리 國民은 조심 있게 이를 내다보며 聲援을 보낸다. 이 계기로 因해 南北統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戰爭없는 平和가 이루어지었으면 얼마나 좋으며 마음 놓고 살 것이 아닌가. 온 식구가 빠져나가니 家庭은 빈듯하다.

◎ 8월 27일 (음 7월 7일) 금요일

下午 二時에 新浦에 나가 郵便局에 가 예금 一金 236원을 찾고 面에 가 도장을 찾고 나니 崔議員이 왔다. 崔議員은 其間的 國會의 狀況과

國內 國際 政勢에 對해 이야기했다.

◎ 9월 14일 (음 7월 25일) 화요일

… 林野 收得稅가 나왔는데 生芻外로 8,400원이 나왔다. 잘못되나 하고 面에 가보았다. 政府에 돈이 없는 모양이다.

◎ 12월 31일 (음 11월 14일) 금요일

歲莫의 12월도 오늘로 辛亥年의 除夜의 鍾소리가 울린다. 푸푼 꿈을 안고 辛亥年을 마지한지도 어언 365일. 大過없이 푸근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알맞는 雨順風調했고 國泰도 民安했다. 國內的으로 大統領 民儀員 총선거 있었다. 世界的으로 中共의 유엔 가입. 美大統領 中共訪問확정 등 世界의 급변하는 해로 오늘로 그 대단원을 장식한다. 우리 家庭的으로 나의 一生 가장 큰 집지를 했다. 白米 約 100餘畝을 들여 지은 우리 집은 高棧里 아니 靑北面에서도 뒤지지 않을만한 大役을 끝마친 해이다. 도라온 明年에도 無事한 한 해가 되었으면. 三溪에 가 肥料을 찾아 왔다. 三溪에 5번 같다 다 실어왔다.

1972년

◎ 1월 1일 (음 11월 16일) 토요일

1972년의 東역 해살이 맑게 떠올랐다. 今年이야 말로 모든 일의 如意亨通하고 所願成就하길 기원하며 첫날을 마지했다. 간 12월에 있었던 大統領의 非常事態 선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온 國民이 바라는 戰爭없는 平和이것만 北韓에선 戰爭準備을 끝냈고 戰爭의 도화선에 불을 부치려는 순간이라니 不安한 가운데 한 해를 마지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대통령의 말과 같이 有備無患하고 雨順風調하여 國泰民安 하길 바란다. 온 겨울동안 눈 한 방울 나리지 않아 今年農事가 어이 될 것인지 걱정이다. …

◎ 1월 20일 (음 12월 5일) 목요일

… 校長을 비롯해서 會長 田氏 등이 와 찾는다.

가마니 짜든 것을 中止하고 술을 대접했다. 점심과 저녁까지 먹고 같다. 靑北面 共和黨 개편 대회가 있는데 왜 新浦에 한 번도 안 나가느냐고 高棧의 重植가 관리장이 될 거라고 한다. ...

◎ 1월 26일 (음 12월 12일) 수요일

... 妻는 場에 英浩 大浩을 데리고 가고 나는 高棧 가서 午前 中 놀다 왔다. 농촌 살림살이란 한가한 때가 없다. 항상 일에 쫓긴다. 이렇게 살아도 生活수준이 제일 못하니 한심지시다.

◎ 2월 15일 (음 1월 1일) 화요일

舊正, 韓國固有의 陰 正月 名節은 아직도 가시여 지지 않고 있다. 明節 마지을 爲해 일직 일어나 세죽을 췌어주고 큰 집으로 차레를 지내라 같다. ...

◎ 4월 4일 (음 2월 21일) 화요일

... 午中頃에 重植이 찾아오다. 共和黨 管理長으로 協議 次.

◎ 7월 4일 (음 5월 24일) 화요일

南北 平和統一 共同聲明 發表. ...

◎ 7월 8일 (음 5월 28일) 토요일 豪雨

... 毎日같이 메스컴의 톱뉴스는 韓國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北韓의 金英柱의 접견한 내용.

◎ 7월 10일 (음 5월 30일) 월요일 雨雲

... 李厚洛 情報部長이 3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北韓 訪問 密談 北韓 朴成철 第二列相 韓國을 4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 密談. 南北韓 平和統一에 관해서.

◎ 8월 15일 (음 7월 7일) 화요일

27돌 광복절. 南北家族찾기 赤十字會談. 7.4 平和統一南北共同聲명의 對話의 門이 열린 光復節을 맞이했다. ...

◎ 8월 22일 (음 7월 14일) 화요일

... 新浦에 가다보니 三溪만도 말이 아니다. 興植 家도 물에 잠기어 대피하고 신포 前이 모두 물바다가 되었다고 벼에 큰 지장이 올 것 같다. 북덕물이 20時間은 모두 쟁기였다고 65年만에 큰 소동이라고 新聞紙上의 톱뉴스가 물피해 참상이다. 다행이 큰 피해를 안 가져왔으니 천만다행이다. ...

◎ 8월 30일 (음 7월 22일) 수요일

... 南北赤十字會談日. 平壤에서 一次會談의 生放送으로 듯게 되었다.

◎ 9월 2일 (음 7월 25일) 토요일

... 南韓 赤十字 一行 歸還.

◎ 9월 12일 (음 8월 5일) 화요일 晴

北赤代表 二次會談 次 訪韓 5名. ...

◎ 9월 13일 (음 8월 6일) 수요일 晴

... 오늘 南北赤十字代表會議가 서울에서 열리었는데 中繼放送을 들으니 우리 南韓代表의 祝辭 安지나 人事는 모두 赤十字精神에 입각해서 政治 宣전이 없이 점잔게 했으나 北赤代表의 祝辭나 人事 연설은 모두가 政治 선전에 듯기 실은 말만 되풀이 된다. 아주 유익하지 못한 發言이었다.

◎ 9월 14일 (음 8월 7일) 목요일 雲

... 北赤代表들은 韓國의 관광지를 관람했다. 서울 고궁을 비롯 온양의 현충사를 巡覽했다고 한다.

◎ 10월 17일 (음 9월 11일) 화요일

... 저녁에 7시에 朴正熙 大統領은 비상 계엄령을 발포. 國會를 해산하고 政黨활동을 中止 등 아주 의위의 발표이다.

◎ 10월 18일 (음 9월 12일) 수요일 晴

... 朴正熙 大統領의 계엄령 선포는 전일 7시에 선포하고 나니 어딘지 모르게 不安하다. 平和時에 계엄령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南北韓 平和統一에 不得한 일이다.

◎ 11월 2일 (음 9월 27일) 목요일 雲

... 日 維新憲法の 홍보활동을 온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 11월 4일 (음 9월 29일) 토요일 晴

... 維新憲法案의 國民投票로 因해 公務員들은 홍보활동에 분주한 모양. 部落마다 도라다닌다.

◎ 11월 5일 (음 9월 30일) 일요일 雲

食前に 새콤 聖雨가 와 自己 母親 祭祀가 前夜에 지내고 遞信部 監査官으로 있는 弟가 술대접을 한다고 오라고 해서 高棧에 같다. 이 사람 역시 維新憲法の 지기다. 모두 提憲하라는 홍보의

건이었다. ...

◎ 11월 10일 (음 10월 5일) 목요일 雲

... 今般 國民投票指導啓蒙要員으로 위촉을 받았다. 三溪에서 잠간 啓蒙隊 郡要員의 계몽 場에 參席했다가 新浦에 가 〇〇에 油을 사갈고 왔다. 脫穀 合資人은 모두 같다 왔다.

◎ 11월 18일 (음 10월 13일) 토요일 雲

... 國民投票로 公務員一同은 弘報活動으로 우리 집에 왔다 같다.

◎ 11월 19일 (음 10월 14일) 일요일 晴

... 面長 支署長 靑北 新民黨 代表 등이 國民投票 弘報活動 次 우리 집에 訪問.

◎ 11월 20일 (음 10월 15일) 월요일 雨

... 國民投票는 來日로 닳아 왔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좋았으면 바라고 비리마지 않는 우리 농민들의 心情이다.

◎ 11월 21일 (음 10월 16일) 화요일 雲

國民投票日. 日氣는 갑자기 下降하여 陰하 5, 6度 라고 午前에 妻와 같이 베틀을 손치고 午後에 投票場에 나갔다. 投票라야 하나마나 결정적이다. 選舉관리委員會 종사원 급 참관인 모두 절대 지지자이다. 기권 없이 하라는 바람이 한 사람이 몇 명씩 하는가 하면 무덤이 투표가 있으며 反對가 있을 수 없다. 나 역시 찬표를 했으나 공명 投票가 아닌 대서야 불쾌했다. 民主의 짝은 공명 投票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는 마음 간절. 改憲案의 찬성을 하나 大統領의 權限이 外國에 비해 特權의이며 大統領은 종신을 하게 되지 안나 生覺 비상계엄하의 개헌도 좋은 결과는 아닌 것. 나 역시 大谷部 기관者を 적당히 찬표를 하고 몇 사람이 後坪의 의정부친 正奎氏 환갑日에 참석했다. ...

◎ 11월 26일 (음 10월 20일) 토요일 雲

... 維新憲法의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選舉法 公告. 우리 面에도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1名.

◎ 11월 27일 (음 10월 22일) 월요일 雲

... 原木 益秀가 와 今般 實施되는 統一主體國

民會議 代議員에 高棧 重植君이 立候補 했는데 추천인 명단을 갖고 와 어렵지만 추천을 받아 갈라고 하여 우리 洞里분들의 추천을 받으라 다니었다. ...

◎ 11월 30일 (음 10월 25일) 목요일 雲雪

... 朝飯 後에 重植 家에 같다. 今般 實施되는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立候補에 對해 격려의 말을 하고 와 벼을 실었다. ...

◎ 12월 1일 (음 10월 26일) 금요일 晴

...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에서 開催 中.

◎ 12월 2일 (음 10월 27일) 토요일 晴

... 下午에 몇몇 親友들이 찾아 와 일만 하느냐고 하며 왜 今般實施되는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에 立候補하지 했느냐고 아쉬운 말들을 했으나 오직 家庭에 忠實한 마음 분이다. 참으로 명에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만 부지도 못하게 되거나 앓을까 되어서이다.

◎ 12월 6일 (음 11월 1일) 수요일

... 國民會議代議員 立候補者 龍煥成 訪問, 點心 먹고 가다.

◎ 12월 7일 (음 11월 2일) 목요일 雨

食前に 面長으로 있던 閔正基氏가 訪問했다. 國民會議代議員 立候補 人事 次 朝飯 後에 面에 들리었다가 重植과 만나 경려의 말을 나누고 있다가 下午에야 왔다. 立候補 3名 中 閔正基氏가 가장 우세이다.

◎ 12월 8일 (음 11월 3일) 금요일 晴

... 오늘이 國民會議 立候補者의 合同 演說日이라 新浦에 나갔다가 왔다. ...

◎ 12월 12일 (음 11월 7일) 화요일

... 歸家 中 新浦에 新任會長 崔學鎔에게 人事 次 面에 들리었다가 重植이 있는 곳에 들리니 方連植 李元根 건길중 등과 郡黨 鄭간사가 同席 中에 있으나 計劃없는 구수회의만들 하고 있다. 新浦에서 金 校長과 같이 우리 집에 와 밤 11時 頃에야 도라갔다.

◎ 12월 15일 (음 11월 10일) 금요일

歷史的인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投票日이

다. 11時 頃に 投票 次 나간다. 申重植 龍煥成 閔正基 3名이 立候補. 人格의으로나 우리 靑北 社會에서 볼 때 10代 面長職을 9年餘年을 歷任 한 관료으로나 가장 우세다. ...

◎ 12월 26일 (음 11월 21일) 화요일 晴

... 오늘은 하루 일도 못하고 高棧 가서 놀다가 왔다. 모두 날 더러 代議員에 나왔으면 더 낳을 것을 말들을 한다.

◎ 12월 31일 (음 11월 26일) 일요일

별일 없이 하루해를 보냈다. 1972년의 해도 오늘로 저물어 간다. 國內外的으로 또는 家庭的으로 파란이 많다. 赤十字會談을 비롯하여 南北 統一 調節委員會가 있었는가 하면 歷史的인 維新憲法이 公告 비상계엄下의 國民投票,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選出 등 國內 사태가 급변했다. ...

1973년

◎ 1월 1일 (음 11월 27일) 월요일 晴

1973年の 새아침이 밝아 왔다. 希望에 찬 新年을 맞이하여 모든 일이 如意亨通하길 빌며 붓을 들었다. 國家的으로 維新憲法の 기틀을 굳게 닦아 第 4共和國의 國家와 民族을 사랑하고 참신한 일꾼의 新國會을 構成 安定된 大韓民國에 南北對話의 길은 如望대로 一步一步 統一은 굳어 가고 安心하고 소신 것 일할 수 있게 되고 雨順 風調하여 國泰民安하길 빌며 豊年되여 흐뭇한 살림이 되길 바라면서 今年에 우리 집에 雄浩가 中學校에 進學하는가 하면 英浩의 高等學校에 무난히 合格했으면. 할아버님 生辰日이라 아번님 家에서 朝飯食事を 하였다. 下午에 校長先生任과 方連植 會長이 왔다 같다. 共和黨 靑北面 靑年部長을 하라고 하지만 응하지 않았다.

◎ 1월 3일 (음 11월 29일) 수요일 晴

... 조금 있으니 東雨가 와 우리는 李允鎔氏을 밀어 주자고 議論타가 가고 나니 三溪 李敏泰君이 訪問 中 寬植이와 李允鎔을 도와달라고 하며

第 2 投票責任을 맡아보아달라고 한다. ...

◎ 1월 7일 (음 12월 3일) 일요일 雲

... 仁性 家에서 朝飯을 하고 나 洞里새마을 事業의 會을 하는데 모두 아전인수적인 會을 하여 모든 일이 잘되기는 글러먹었다. 참으로 큰일이다. 午後 4時에 李允鎔氏가 新浦에서 만나자고 하여 三溪에 가 理髮을 하고 新浦에 가 新聞代 1,920원으로 밀린 신문대를 청산하고 會에 임했다. 저녁식사를 李允鎔氏를 밀겠다는 7名은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레디오(취대용)을 받았다.

◎ 1월 8일 (음 12월 4일) 월요일 晴

... 午前 中 별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午後엔 李敏泰와 前後坪을 一週, 部落 管理者를 相面 豫定이었으나 面에서 穀賣上 동료次 職員 4名이 왔다. 同窓 鄭昌煥와 술을 대접하고 나니 時間을 떼기여 일정을 변경 來日로 미루었다.

◎ 1월 9일 (음 12월 5일) 화요일 晴

食前に 高棧 가 裕浩를 만나 部落 有權者數을 부탁하고 原木까지 裕浩에게 주었다. 朝飯 後에 平素대로 10時에 敏泰에 만나 佳土에 가 千경浩를 만났으나 실패. 德佑가 金成培은 접선 水利 新基 등 모두 오늘 郡에서 里長 새마을지도자 등 會가 있어 못 만났다. 오다 林年와 같이 술을 먹고 놀다 왔다.

◎ 1월 10일 (음 12월 6일) 수요일 晴

... 오늘 李敏泰君을 조문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新基의 李容鶴을 만나 接선하고 水村 가 申永浩 接線後 三溪에 와 校長에게서 책 2券 『民族의 底力』, 『繁榮의 구름다리』란 冊을 얻어 갖고 月谷 가 李益宰 前坪 가서 申熙馥을 만나 부탁하고 後坪 가서 金鍾弟 집에 가 저녁을 먹고 귀가 하니 8時다. 오늘 李允鎔氏의 運動의 接線은 성 공리에 끝났다.

◎ 1월 18일 (음 12월 14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高棧을 경유 原木 가 應秀를 만나고 三溪에 가 敏泰 家에 가 有權者 名單을 作成해갈고 敏泰 家에서 點心을 먹고 新浦에 나가 東雨 家에 제출하고 오다 형명촌에서 술을

먹고 놀다가 왔다.

◎ 2월 9일 (음 1월 7일) 금요일 晴

… 李允鎔 候補로부터 一金 2,000원 受.

◎ 2월 10일 (음 1월 8일) 토요일 晴

… 下午에 李允鎔 선전원 崔氏와 敏泰君이 왔다 같다. 저녁에 妻와 雄浩가 卒業하고 歸家했다.

◎ 2월 14일 (음 1월 12일) 수요일 晴

西井里 行. 九時 三拾分 車로 들리라는 連락을 받고 新浦에 나가니 共和黨 黨職者들도 金급 會가 있다고 平澤에 가는데 同行하게 되어 우리 一行과 마주치니 눈치는 채이었다. 一行은 李允鎔 本家에 들리었다. 주택의 일보는 사람은 모두 만났다. 茶 한 잔을 들고 나니 靑北 一行의 李允鎔 面會가 되어 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路資로 一金 5,000원을 받았다. …

◎ 2월 15일 (음 1월 13일) 목요일 晴

농골 洞里분들을 對接. 맑고 푸근한 봄 날씨이다. 10時 頃에 농골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 왔다. 15,6名이 와 술과 국을 대접했다. 計劃에 依하면 洞里 사람은 午中에 농골 분은 下午에 對接할라고 한 것이 뒤바뀌었다. 洞里 사람들이 먼저 對接해야겠는데 안 되었다. 농골분들은 모두 우리 일을 도우는 분들이다.

◎ 2월 16일 (음 1월 14일) 금요일

… 安仲에서 李允鎔氏을 배웠다. …

◎ 2월 20일 (음 1월 18일) 화요일 晴

… 농골 田氏가 와 點心을 같이 하고 下午 1時에 敏泰를 만나기로 하여 나가 만나 水村 永浩를 만나라 같으나 못 만나고 新浦에 가 우리 運動員이 모이는데 참석하고 나오니 서울에서 電報가 雄浩 來日 登校 하라고 한다고 저녁 7시 차를 탄다고 新浦에 나왔다. …

◎ 2월 22일 (음 1월 20일) 목요일 雲

… 오늘 마을 안길 답사를 한다고 하여 洞民들과 같이 도라보았다. 몇 사람을 除外하고는 自己 田畠이 달까하고 積極성을 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큰일이다. 매우 일하기에 힘이 들 문제이다. 일직 끝내고 오늘 三溪에서 敏泰를 만날라고 한

것이 못 만나게 되어 人便에 畵字를 傳했다. 오늘 安仲에서 國會議員立候補의 合同演說인데 못 같다. …

◎ 2월 23일 (음 1월 21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新浦에 나갔다. 李允鎔 運動員을 新浦에서 만났다. 西井里에 가자고 하는 것을 안가고 三溪에 와 李敏泰 家에 갈터니 우리 집에 왔다고 하여 오다. 理髮所에서 李敏泰를 만나니 우리 집에 拘기칠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여 휘발유를 사갈고 오라고 하여 新浦에 가 휘발류店에 가니 없다고 하여 도라오니 지붕을 칠하다가 말았다. 점심을 먹고 拘기야는 가고 三溪에 가 敏泰를 만나고 水村에 갔다. 申永浩를 만나고 妻은 향을 만나 부탁하고 도라왔다.

◎ 2월 24일 (음 1월 22일) 토요일 晴

食前に 裕浩 訪問했기에 부탁했다. (….) 저녁엔 徐相潁 運動員이 차 같고 왔다 같다.

◎ 2월 25일 (음 1월 23일) 일요일 晴

… 洞里的 새마을事業에 對한 事項을 알아보기爲해 마을로 같다고 오니 李敏泰君이 왔다. 一金 27,000원을 같고 와 部落賣에게 1,000원 1,500원씩 나누어 주었다. 적어도 한 동리에 5,000원 식은 生覺했는데 아주 적은 數라 氣分이 좋지 않았다. 나는 高棧 原木 前後坪 月谷을 거쳐 新浦로 다니여 왔다. 新浦에서 崔을 만나 아주 不足하다는 말을 했다. 敏泰는 新村 瓮浦 佳寺 基山 新基 玉吉 水村 德佑 등을 맞아 도라다.

◎ 2월 26일 (음 1월 24일) 월요일 晴

김이 빠진 李允鎔 선거운동이란 참으로 흥미 없다. 힘이 바치지 않아 도라다니기도 실어 마당 끝 대추나무를 비여 족다거리었다. 下午에 또 李敏泰와 崔龍在君이 왔다 같다. 기왕에 돈을 뿌린다면 좀 더 썼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다.

◎ 2월 27일 (음 1월 25일) 화요일 晴

歷史的인 第 9代 國會議員 投票日이다. 責任도 있고 하여 일직 나갔다.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있으니 金鳳元君이 나를 보고 빨리 집으로 도라가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다. 李敏泰

와 柱植氏와 술을 같이 하고 理髮을 하고 洞里 靑年들과 같이 술을 받고 오다가 德雨氏家에서 또 술을 같이 하고 늦게야 도라왔다.

◎ 2월 28일 (음 1월 26일) 수요일 晴

農協組合理事 改選을 本日한다고 하여 高棧 柱植 ○○가 나갈라고 조반전에 오라고 하여 가기는 했으나 신통할 여론이 없다. 田榮基氏와 같이 같으나 ○會에 里長들은 들어갔다. 만날 사람을 못맞나고 來雨氏家에 들리었다. 우리가 運動 하던 분은 [낙]선되어 氣分이 좋지 않아 오다 李 允鎔氏가 [아]주 잘못이었다. 아직도 돈이면 그 만인데 돈에 졌다고 來雨氏도 말한다. 茂植을 만나 술을 먹고 술의 상향을 [알]아보고 田氏와 李 敏泰君으로 와 술 얻어먹고 오다가 柱植을 만났는데 틀리었다고 한다.

◎ 6월 6일 (음 5월 6일) 수요일 雲

… 顯忠日 많은 영영들의 명복을 비는 눈물인 양 가물던 날에 부슬비가 내려주었다.

◎ 8월 2일 (음 7월 4일) 목요일

… 食전에 月谷里長이 와 面長이 辭表을 냈는데 重植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리장자리가 꺾이 되면 운동해보라고 왔다 같다. 종일토록 洞里분들과 술잔을 기울리다.

◎ 8월 3일 (음 7월 5일) 금요일

新浦에서 月谷里長을 만나자고 하여 일직 三溪가 理髮을 하고 新浦에 가 面에 들리어 金만옥을 만나 술을 한 잔만 하고 나와 月谷里長을 만났다. 面長은 결정되고 重植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오다 致雨를 만나 致雨가 술을 받아주어 몇 번의 신세를 졌다.

◎ 8월 4일 (음 7월 6일) 토요일

洞里에 肥料가 활당되었다고 하여 組合에 가 알아보니 5包가 활당되었다고 面에 들렸다가 왔다. 安仲에서 反共大會가 있다고 하여 安仲에 下午 2時頃에 갔다 왔다.

◎ 8월 6일 (음 7월 8일) 월요일

… 面長은 오늘 취임을 했다. 共和黨에서 밀어된 모양이다. 來日 와 보라고 하여 가기로 왔다.

◎ 8월 15일 (음 7월 17일) 수요일

光復節 記念行事가 中學校에서 各계 人事가 모여 式을 거행한다 하였으나 못 가고 妻와 같이 가마니을 잤다. …

◎ 10월 31일 (음 10월 6일) 수요일

… 面에 술이 있어 같다가 面長의 찬사의 대한 金里長들이 진정을 하게 되어 내가 진정의 초안은 했다. 이 진정의 件은 아직 시기가 상조한 듯하다. 술이 끝나고 오다가 …

◎ 12월 3일 (음 11월 9일) 월요일 晴

… 오늘 朴大統領은 10개 內閣을 개편했다.

○ 개인의 마을 및 사회활동

1959년

◎ 1월 20일 (음 12월 12일) 화요일 雲

… 夕飯 後에는 鍾을 쳐서 會에 參席을 하니 協同組合出資金 290원식 속히 해오란 말이다. 會에서 도라와 곳 자리에 누었다.

◎ 1월 23일 (음 12월 15일) 금요일 晴

… 夕飯 後에는 高棧靑年구라부會것만 會長이 없어 流會를 했다.

◎ 2월 5일 (음 12월 28일) 목요일 晴

… 夕飯 後에는 새끼를 팔라 하니 鍾소리 나서 會에 건너가니 날더러 里長을 보라 해서 그냥 왔다.

◎ 2월 16일 (음 1월 9일) 월요일 雨

칠월 장마철 같이 비는 개일 줄을 모르고 어제 도 오늘도 如前이 또 來日도 끝일 것 같이 않다. 그제 도 어제 도 오늘도 그럭저럭 우리 동아리 청년들이 많아 심심찮게 지낸다. 오늘은 悠雨 家에서 닭갈 내기 장난을 했다. 夕飯 후에도 마실 갈까 하다가 비가 와 그만 자리에 누웠다.

◎ 2월 17일 (음 1월 10일) 화요일 雨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같다가 오늘 高棧靑年俱樂部會가 있어 몇 가지 書類를 가지고 高棧 爺

어 갔더니 原木서 오지 않고 해서 流畝를 하고 말았다. 좀 앞았다가 泰權 家에 가서 高棧 靑年들과 함께 생일잔치에 술과 국수를 잘 얻어먹었다. 祥植 家에 가서 담배 豐年草 2봉을 사서 한 봉을 할아버지 드리고 한 봉은 집에 가져왔다. 작근집에 가서 앉았다가 午後 늦게 도라왔다. ...

◎ 2월 18·19일 (음 1월 11·12일) 수·목요일 雨

... 하루 낮을 그럭저럭 하고 夕飯을 마치고 나니 鍾소리가 나서 건너 가보니 洞里 어른들이 처음으로 많이 모이었다. 금번 나온 肥料 配給 問題이다. 그리하여 畝가 끝나고 나서 다섯재祖父께서 里長도 없고 하니 날더러 新浦에 가서 肥料 전表를 떼오라 해서 오늘 新浦에 나가 전표를 데왔다. ...

◎ 2월 21일 (음 1월 14일) 토요일 晴

... 午後에는 高棧 넘어가서 重雨와 함께 原木 應秀 家에 가서 高棧二里 靑年 問題를 議論하고 술을 얻어 먹고 넘어왔다. ...

◎ 2월 22일 (음 1월 15일) 일요일 晴

... 청년이 없어 高棧 넘어 갔더니 靑年들이 모두 排球 시험 가 없어 그냥 와 몇몇이 웃을 던지고 놀았다. 夕飯 後에는 德雨, 炳哲, 炳均 等を 데리고 高棧 靑年會에 가서 畝를 했다. 모래 高棧二里 靑年會 運動을 한다고 했다. 畝는 잘 進行되었다. 運動 두레노리 달리기 높이 넓이뛰기 늘(女) 씨름 排球 등 副團長補選出 申東雨 團歌 제정기로 결정.

◎ 2월 23일 (음 1월 16일) 월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마실 건너가서 畝를 놀다가 高棧 靑年들이 와서 술과 떡을 대접하고 다섯재祖父 家에 갔다. 우리 靑年俱樂部 役員이 顧問을 訪問하기로 結晶이 되어서 顧問을 訪次 다섯재祖父 家에 가서 대환영을 받고 끝까지 잘덜 해달라는 유시를 받고 술과 국수를 대접하여 잘 먹었다. 시종여일 해 달라는 분부가 계시었다. ...

◎ 2월 24일 (음 1월 17일) 화요일 晴

新浦 擲柶大會에 가 놀다왔다. 新浦에서 在日

交胞北韓送還結死反對결기大會, 食前에 자고 이러나 부엌에서 불을 때고 있으니 高棧 重雨가 와서 찾아 나가보니 오늘 靑年 運動大會 準備 議論과 우승컵을 갈다놀라고 왔다고 해서 큰아버지 가에 가서 의논하니 오늘 在日僑胞北韓送還反對결기大會를 한다고 안 될 것이라고 해서 來日로 미루기로 했다.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갈다가 炳賢君과 新浦에 나가 靑北民國民校庭에서 三國民校 아동과 面유지 관공리民面 등이 결기 대회를 하고 新浦에 네려와 擲柶大會 네려와 구경을 하다가 表 三장을 사서 두 번 올려놓고 왔다. 尙武會主催라 그냥 잇기 무해서 놀다 왔다.

◎ 2월 25일 (음 1월 18일) 수요일 晴

高棧 第二里 靑年俱樂部 親睦 運動大會日. 一等 原木, 二等 高棧, 三等 大谷. 마라톤과 배구에 대실패. (...) 오늘의 준비와 모은 것은 나의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競技는 넓이뛰기 높이뛰기 담보이뛰기 農樂노리 씨름. 점심은 各支部 별로 高棧서 해주기로 해서 국수 두 관을 주었다. (...) 그리고 顧門 몇몇이 술을 받아 헤어질 재 重植 큰집에서 대접했다. 하로는 즐겁게 사고 없이 잘 놀았다. 男女老少가 모인 가운데 大會는 잘 끝마치었다. 우승컵은 原木으로 같다.

◎ 3월 6일 (음 1월 27일) 금요일 雨

... 돌재祖父 사랑으로 마실 가니 肥料代金 問題로 畝를 여럿다. 구채로 큰아버님이 四萬餘圓이 남아 組合에선 야단이라 동리 사람이 둘만 모여도 큰아버지 송[홍] 아주 시늬[신용]이 없다. 동리뿐 아니라 面組合 等에서도 신님을 안는다. ...

◎ 3월 16일 (음 2월 8일) 월요일 晴

... 食前에 일어나서 英浩 데리고 놀고 朝飯 後에 炳黥이 와서 協同組合 가입금을 달래서 주었다. 300원. 마실 건너가서 큰아버님에게 軍警원조금이 우리가 섬지기 농사와 동이 내게 된 말이 원말이냐고 말하니 칭을 뭘 수가 없어 그리 되었다고 하신다. 좀 잇다가 炳烈君 入營하는데 旗等を 내가 쓰고 또 차안도 한귀 쓰였다. 전송을 하고 집에 와 앞 농꿀 받을 갈았다. ...

◎ 3월 20일 (음 2월 12일) 금요일 晴

… 高棧 重植이 片紙 한 장을 傳하여 開封하니 面에서 事務 정리를 하는데 좀 나와달라는 公文이다. 前日 보리밭 급던 것도 있고 해서 못갈 生覺을 하고 있으니 큰아번님이 와서 오늘 좀 나가라고 권고를 했으나 오늘 나가 보리밭을 못 급으면 來日은 場에를 가야하고 날씨도 東風이 불고 하여 밭이 肥料도 주어야겠고 生覺다 못해 못 나간다. …

◎ 3월 23일 (음 2월 15일) 월요일 晴

… 피곤한 몸이 일을 하고 高棧二靑年會가 있어 夕飯 後 德雨 炳哲 등이 넘어가니 原木서 안와 流會를 하고 말았으나 目的 會議案件은 運動을 하여 運動精神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

◎ 5월 11일 (음 4월 4일) 월요일 雲

… 夕飯을 마치고 있으니 농꼴서 사람 청년 二名이 큰집으로 가서 웬일인가 하고 건너가보니 記者란 사람이 와서 농꼴 柳氏 婦人 家(술장사)에 가서 不幸한 일이 있었다고 왔는데 잘못된 일도 없을 뿐더러 問題거리도 아니것만 돈 생각이 와서 온 것이다. 내가 건너가 냉정이 말하니 그냥 도라간다.

◎ 8월 14일 (음 7월 11일) 금요일 雲

… 방아 찰러 가서 重雨氏를 만나 靑年問題를 論議하고 原木 가서 靑年들을 만나보기로 하고 點心 後에 高棧으로 해서 原木을 다니여왔다. …

◎ 8월 18일 (음 7월 15일) 화요일

… 夜에는 高棧二靑年會가 있었다.

◎ 9월 12일 (음 8월 10일) 토요일 雲

… 夕飯 後에 高棧 靑年會에 갈다가 水原 叔父가 와서 만나 모았다. 高靑俱會는 原木支部에서 안와 流會가 되었다.

◎ 9월 16일 (음 8월 14일) 수요일 雨

… 하는 일 없이 그럭저럭 夕飯 後에는 高棧 넘어가 第二里 靑年俱樂部 第次定期總會를 열 準備를 했으나 原木支部에서 날이 험악해서인지 參賀치 못해서 進行치 못했다.

◎ 9월 18일 (음 8월 16일) 금요일 雲

… 三德國民學校 運動會라 洞里가 다 풀려가 다시피 했다. 나는 집에서 있기로 하고 妻와 春子를 보냈더니 妻는 바로 왔다. (….) 동리 청년이 늦게까지 안 와 웬일인가 했더니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또 때는 독차지를 하니 썩근 정신 청년이 또 싸움은 빼놓치 안으니 한심지사.

◎ 9월 19일 (음 8월 17일) 토요일 雲

하루에 쏘나귀 한 줄기는 공식적이다.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갈다가 炳賢君 軍入隊 慰門品을 우리 집에서 洞里 靑年이 다 모여서 만들고 술 한 잔씩을 대접해서 午後에 헤어졌다가 또 炳賢 家에서 또 술 점 먹고 下午 늦게는 다섯재祖父 家에서 술을 내서 다섯재祖父께서 洞里실정의 말씀과 우리 洞里 靑年의 할 바를 의논했다. 夕飯 後에도 마실 갈다 왔다. 春植이 三德國民學校 運動大會에서 싸움을 했다고 人使를 하는데 창피한 인사 받기 재미없다.

◎ 9월 20일 (음 8월 18일) 일요일 晴

炳賢君 軍入營 (….) 春植이 떠난다고 와서 갈고 열러 가 보았다. 朝飯을 마치고 나니 북소리 나서 건너가니 오늘 炳賢君이 入營日字라 모이라는 북소리. 건너가서 炳賢 家에서 술 소주 몇 잔 마시고 떠나는데 같이 三溪까지 나가고 타 靑年들은 新浦까지 나가 傳送하고 도라왔다. …

◎ 10월 13일 (음 9월 12일) 화요일 晴

… 食前에 訪長이 公文 한 장을 가져와 보이니 내가 大谷洞 國民會長이라고 面에서 나에게 온 공문인데 代議員과 申昌休 申時雨 尹培植 등과 같이 來日 먼 年次大會에 參席하라는 것이다.

◎ 12월 4일 (음 11월 5일) 금요일 晴

… 농꼴事業所 工事판이 터져 모두 일 간 관계로 내가 부잡하였다.

1960년

◎ 1월 10일 (음 12월 12일) 일요일 晴

… 오늘이 高二里農協定期總會라 해서 高棧에 늦게 넘어가니 벌써 高棧선 前日부터 組合長을 重植이로 內定이 되어 있었다. 내가 가니 벌써 代理 理事라는 사람 7명을 선정해서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組合長을 선정하는데 벌써 原本을 포섭해서 두 말 없이 만장일치로 重植이로 되고 내가 常務理事라는 責任을 지워 거부하다가 부득이 責任을 맡게 되어 (….) 組合長 申重植 常務理事 申權植 理事 申悅雨 申淵雨 申大休 신壯雨 申來雨 申姜浩 李泰乾 監事 申益秀 신珍植 등이다.

◎ 1월 23일 (음 12월 25일) 토요일 晴

… 마실 같다가 올 정월에 親睦 男女 擲樗大會를 연다고 戶當 몇 푼씩 받아 물품을 사기로 해서 나도 三百환 낸다고 하고 아라보았다. 내가 推進하는 고로 남달리 났다.

◎ 2월 2일 (음 1월 6일) 화요일 雲

일찍 朝飯을 마치고 마실 건너가 오늘 部落男女擲樗大會의 準備을 하기에 주선하였다. 복을 올리게 하고 옷과 옷판 場所 가마니 등을 準備가 다 데고 靑年들에게 농악을 올리게 하고 8시부터 始作하였다. (….) 오늘 행사에 다 잘 되었으나 언제나 말성거리인 큰어머니가 장래를 흐리게 하고 주선하는 사람을 흔들고 또 동리 사람의 氣分은 좋치 않게 하였다.

◎ 2월 11일 (음 1월 15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좀 있다가 高棧 擲樗大會가 있다고 오라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悠雨 敦雨 나 寬植 등이 넘어 같다가 나는 600환어치 사서 3회에 가서 전부 떠러졌다. …

◎ 2월 18일 (음 1월 22일) 목요일 晴

… 10時 頃에 三國民學校에서 尙武會 會가 있다 해서 三溪까지 나갔다 왔다. …

◎ 3월 2일 (음 2월 5일) 수요일 晴

朝飯 後에 新浦에 나가 尙武會에 들리어 大谷의 除隊者 기록카드와 寫眞을 გადა 주고 自由신문박에 없어 自由신문을 申請하고 왔다. 三德國民學校 卒業式.

◎ 3월 5일 (음 2월 8일) 토요일 晴

… 오늘이 協同組合 간담회라 오라 해서 面에 가서 습를 마치고 尙武會 事務室로 와서 會員證을 交付하고 늦게서야 가져와 …

◎ 3월 10일 (음 2월 13일) 목요일 晴

食前に 農協斡旋肥料 두組 追加金 55260환을 갚아 高棧 組合長을 갈다주고 와 …

◎ 4월 8일 (음 3월 13일) 금요일 晴

食前은 논을 一週하고 高棧協同組合理事會를 하는데 오라 해서 넘어가니 …

◎ 4월 13일 (음 3월 18일) 수요일 雲晴

… 下午 늦게 작근 叔父가 와서 共劑金 申請을 하는데 平澤까지 좀 가 달라 해서 가기로 하고 晝數를 보니 未備한 점이 있어 後坪 面長하라버지에게 가서 間議 次 같다가 늦게 도라왔다. 우리 申氏가 엿이 하면 더 보람 있겠느냐고 하시며 날더러 面議員에 나와 보라고 권고하시여 사양하고 말았다. …

◎ 4월 15일 (음 3월 20일) 금요일 晴

… 朝飯을 일찍 마치고 高棧 넘어가 작근집 소의 共劑金 申請 次 平澤組合에 갈 準備를 하고 떠났다. 平澤에 10時 頃에 到着하여 郡廳 內의 畜産조합에 가서 書類를 提出하고 도라서 집에 오니 下午 6時 頃 되었다. 來日 소의 카드를 安仲場으로 갈다주라고 알리고 집에 왔더니 떡을 하였다. …

◎ 5월 2일 (음 4월 7일) 월요일 晴

… 三德國民校 學父兄總會. …

◎ 7월 11일 (음 6월 18일) 월요일 晴

… 夕飯 後에 高棧에 가서 農協에서 出資되는 生産資金 우리 조합에 나와 16萬圓을 근洞에 分해 元高棧에 7萬圓 大谷에 4萬圓 原本에 5萬圓으로 活當을 했다. …

◎ 9월 12일 (음 7월 22일) 월요일 晴

… 夕飯을 마치고 高棧서 協同組合 理事會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넘어가 事業資金 申請을 하기로 決議되었다. 會가 끝나 늦게 집에 도라왔다.

◎ 11월 27일 (음 10월 9일) 일요일 晴

… 高棧 大谷 一代가 나를 面議員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권고를 하여 나는 우리 申氏의 代表人物이 못 되니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고 사양하였어도 구태히 권고하여 매우 땡땡한 노릇이다. 저녁나절 세재祖母 家에 가 있으니 둘째祖父가 오시여 신이 난 듯이 權植이 있느냐고 하시며 高棧이 重植이 나스다나 작 근아버지가 나오지 말래드라고 나오지 말래드라고 하신다. 이것이 무엇이 그리 신이 날 일인지 내 지반에서도 이러니 무엇이 된단 말인가? 둘째祖父의 心理 파악이 무엇인지?

◎ 12월 23일 (음 11월 6일) 금요일 晴

… 저녁나절 上三溪 승호가 와서 面長 관계로 의논 차 왔다 같다. …

◎ 12월 26일 (음 11월 9일) 월요일 晴

… 또한 오늘이 邑面長 選舉日인지라 投票를 해야 되는 고로 일 볼 사람들은 모두 車를 타고 新浦로 가서 投票를 하고 新郎이나 友人들도 모두 投票를 하고 떠났다. 우리 申氏인 申祚浩도 面長에 나서 우리 申氏도 一心協力해서 當選을 시켜야되겠기에서이다. 投票日인지라 손임도 별로 없이 집안 잔치를 하였다. …

1961년

◎ 2월 10일 (음 12월 25일) 금요일

… 洞里 靑年들이 舊正에 친睦의인 擲樗大會를 論議했으나 나는 그리 추진을 안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쓸 대 없이 연설을 하는 사람 무슨 꼬토리를 잡아 시비할라고 또 나를 험 못 잡아 못 건디는 큰어머니 꼴 보기 싫은 관계.

◎ 2월 27일 (음 1월 13일) 월요일

… 洞里 靑年들이 공의가 된 보름달 동리 親睦 擲樗大會를 한다가 오늘 靑植과 上植과 함께 新浦로 물품을 사왔다. 鐵物로 약 3,000환어치를 해와 下午에 擲樗券을 만드려 써놓고 왔다. 婦人

들도 함께 하자는 파가 있으나 나는 反對다. 물론 좋은 말이다. 허나 좋은 雰圍氣로 만든 것이 결가 좋지 않으면 주선 안 한 것만도 못하다.

◎ 3월 1일 (음 1월 15일) 수요일

洞里 親睦會 擲樗大會. (….) 洞里에서는 三日節와 舊正月 보름을 기해서 조그마하게 擲樗大會를 어렸다. 나는 종일 本部席에서 記錄하다가 잘 놀지도 못했으나 한 장이 결승전에서 단 나 하나 떠러지고 마랐다. 高棧서도 몇 명 너머 왔다. 3,000餘圓치가 5,000여원어치가 나왔다.

◎ 8월 17일 (음 7월 7일) 목요일

朝飯을 하는 중 孟植이 支署에서 身諺調査作成 次 나오라는 쪽지를 갖고 왔다. 웬일인가 하고 걱정을 했으나 별로 잘못이 없는지라 朝飯後에 곳 新浦에 나갔다. 支署에 나가니 의위의 일이다. 治安局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를 治安局에서 나를 경찰에 오라는 것이다. 治安局에서 나를 就職에 協助할 사람은 없다. 身諺調査가 끝나고 希望하느냐고 하는 데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도라왔는데 집에 와 生覺하니 希望할 것을 했다. 경찰에 제절로 취직이 되는 것인데이다. …

◎ 9월 25일 (음 8월 16일) 월요일

… 오늘이 高棧里 農협長을 개선한다는데 나를 지명한 모양인데 일을 가느라고 못 같다. 三德國民校 運動에도 못 같다. …

◎ 10월 5일 (음 8월 26일) 목요일

… 月前에 나의 조회 온 것은 특수경찰 通信정으로 申請한 사람은 모도 졸업하여 警察局으로 배치되었다고 한다.

◎ 12월 27일 (음 11월 20일) 수요일

… 오늘 高棧 農協 理事會에 參席 次 떠나 아버지 家 방아 찌운 것 저내는데 협조하고 술에 같다. 理監事 五名이 精米所 買入 事項의 것이다. 資金도 확실히 되어있지 않는데다 農協에서 融資받아 할 것이라며 남의 精米所를 금을 본다는 것은 덜된 일인데 120만원에 금액을 본 것은 벌써 高棧 原木 理事 間에 벌써 合議 본 것이

다. 우리는 집안 간이라 승인 것으로 본다 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발이 안 슬 정도로 되었다.

1962년

◎ 1월 14일 (음 12월 9일) 일요일 晴

...다섯재복 아저씨(吉雨氏)가 高棧 가서 農協에서 精米所 엮이 生覺하고 잇느냐 가보라 해서 갈다가 各 理事를 못 만나보고 왔다.

◎ 1월 18일 (음 12월 13일) 목요일 晴

前夜에 洞里 青年會를 하고 도라오는 22일에 排球 시험에 나가자고 하고 오늘부터 연습을 하는데 나와서 보아 달라 해서 午前 中 같이 하며 보아주었다. ...

◎ 1월 20일 (음 12월 15일) 토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오늘 排球試수를 하는데 出戰을 한다 해서 갈 사람에 자리를 정하고 나는 오늘 高二里農協理事會에 갈다. 올해의 事業計劃書를 作成하는데 精米所를 한다고 습가 끝나고 서 곳 後坪에 排球試수에 갈디니 一回戰에서 勝하고 二回戰에서 高棧에 敗했다. 늦게 도라왔다.

◎ 1월 25일 (음 12월 20일) 목요일 晴

... 오늘부터 農事敎道 敎育이라 나도 가게된 것을 못 갈다. 오늘 또 農協의 理事會인데도 못 갈다.

◎ 1월 27일 (음 12월 22일) 토요일 晴

오늘 高棧里 協同組合會와 三溪서 실시하는 青年學校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대를 가야 오를지 몰라 三溪 가서 1時間 하고 高棧와 습를 했다.

◎ 2월 2일 (음 12월 28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몇일 前 도야지 고기잡을 몇몇이 받으라가고 洞里의 계示板을 만들 準備하고 國旗대를 사라 다니었다. ...

◎ 2월 6일 (음 1월 2일) 화요일 晴

... 午後에 來日 農樂을 놀기로 결정하고 高棧서 擲柶大會를 하는데 안 갈 수 없어 200환어치를 사서 놀다가 왔다.

◎ 2월 17일 (음 1월 13일) 토요일 晴

... 悠雨가 와서 오늘 洞里 계시판과 國기대를 세운다고 해서 같이 협력하고 午後에도 洞里 일을 하는데 協助했다. 무엇이 못 맛당한지 눈을 두리번거리며 洞里가 떠다라날 지경으로 욕을 하고 다니며 참견을 한다. 自稱 天子다. ...

◎ 3월 14일 (음 2월 9일) 수요일 晴風

... 큰아번님이 오늘 理事會라고 해서 高棧으로 가서 農協의 理事會에 參席을 했다. 農糧 資金 放出의 件과 里農協事務室 설비의 件이다. 事務所 件에 對해서 政府에서 한참 農民의 부담이 많은 이 때 農協 里事務室에 臨時 共同으로 事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營農資金 高棧二里에 80萬圓 나온 중 14만환 大谷으로 활당이 되었다.

◎ 4월 20일 (음 3월 10일) 금요일 晴

食前에 들에 가니 오늘 꽃노리를 가자고 하여 가기로 하였다. 오늘 어른들과 함께 가자고 해서 급히 會費를 걷고 準備에 한편 新浦로 습을 가질라 가고 一畔 바다로 生鮮을 사라 보냈다. 10時 頃에 出發하여 飛野木으로 가서 놀다왔다. (...) 배로 가는 것에 별 다른 없이 노랏으나 生鮮을 사라가서 헛탕을 해서 꼴딕이와 강다리 좀 사 갖고 놀다왔다. 습이 만취해서 저녁에는 흥술수설.

◎ 5월 8일 (음 4월 5일) 화요일 晴

... 저녁을 일직 먹고 마실로 가니 洞里 사람 몇명이 모여 건너가 보니 水原 法院에서 왔는데 이 洞里에 農協의 債務가 있어 갚지 안아 몇일 잇다 執行을 온다고 한다. 저녁엔 일직 자리에 드렸다. 모두가 里長의 잘못이라고들 한다. 里長이 不正이 많다는 것이다.

◎ 7월 31일 (음 7월 1일) 화요일 晴

... 저녁 먹고는 마실 갈디니 青年들이 4H 俱樂部를 조직한다고 와서 조직을 해 달라고 人便이 와서 건너가 일을 보아주고 왔다.

◎ 8월 3일 (음 7월 4일) 금요일 雨

... 點心도 안 먹고 누어 잇으니 青年들이 몰려와 今般 新浦서 排球大會에 出전해야겠는데 어

이하면 좋으냐고 會費問題가 걱정이라고 해서 나는 洞里 어른들의 協助를 바랄 수밖에 없었으냐고 하고 靑年들의 취지文을 써 回覽시키는 것이 어떠냐니 좋다고 해서 취지文을 써주었더니 가지고 갈다.

◎ 8월 4일 (음 7월 5일) 토요일 晴

… 洞里靑年들이 자루를 미고 會費를 協助받으려 다니는데 第一 많이 낸 집이 大麥精 3升이고 1升 10円 等인데 나도 大麥精으로 보기 좋게 3升을 주었다. …

◎ 9월 11일 (음 8월 13일) 화요일 晴

… 點心을 먹고 잇으니 郡에서 왔다고 해서 건너가보니 洞里長이 場에 가 안 계시여 보자고 했다고 하며 많은 추궁이 있었다. …

◎ 9월 15일 (음 8월 17일) 토요일

午前에 靑北 支署長이 와서 10時 頃に 洞民男女를 모아놓고 몇 가지 指示事項과 注意를 주었다. 會가 끝나고 支署長과 婦女會長 家에서 술과 點心도 같이 했다. …

◎ 11월 20일 (음 10월 24일) 화요일 雨

農協理事會에 參席. (….) 오늘 高棧서 會가 있다고 通牒이 와서 參席했다. …

1963년

◎ 2월 10일 (음 1월 17일) 일요일 晴

… 午後에 高棧二里 農協會에 參席했다. 會를 끝맛고 나서는 집에 와 部落 실태조사書를 作成했다.

◎ 2월 13일 (음 1월 20일) 수요일 晴

… 食前に 里長任이 家屋穀을 가질러 왔기에 朝飯食事後에 家屋穀 121원을 გადა 드리고 農協에서 조사하는 차용금신청書와 실태조사서를 作成한 것을 里長님 보고 高棧 가시면 傳해주시라고 드리었다. …

◎ 9월 9일 (음 7월 22일) 월요일 晴

… 저녁을 먹고 靑年會 있어 같은데 요즈음 洞

里에서 닭을 30餘조를 盜難 當하여 來日부터 夜巡을 돌기로 했다.

◎ 9월 10일 (7월 23일) 화요일 晴

… 夜警차래 (….) 오늘부터 夜警 차래인고로 會議室에서 자며 夜警을 돌고 5時 집에 왔다.

◎ 9월 13일 (음 7월 26일) 금요일 晴

… 저녁 먹고는 夜警을 돌라 갈라고 하고 일어나보니 2時다. 夜警을 돌고 4時頃에 집에 왔다.

◎ 12월 4일 (음 10월 19일) 수요일 雲

… 農協理事會라고 해서 高棧을 또 넘어 갔다. 會라야 별 것이 아니다. 自治資金組合員當 白米 1斗씩 確立 그 위 精米所設立 등이었는데 나의 精米所設立에 있어서 糴자 도입에 있어서 組合長은 자신이 있느냐 말만 내지 말고 절대 自新을 가지고 나와야지 않느냐는 추궁에 있어 우선 自治資金의 거출 결과를 보고 會를 하자는 바람에 閉會했다. …

1964년

◎ 1월 31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雪

… 午前에 李巡警과 새끼 한 둘래를 꼬고 高棧서 農協理事會가 있다고 해서 點心을 먹고 李巡警과 高棧 가서 會에 參席했다. 會는 新年度 事業計劃이다. 精米所 設立會인데 各 部者마다 다른 議事이다. 元高棧선 강력히 추진한다. 金는 總회에 부치기로 하고 폐會. 會가 끝나고 甁을 해서 닭을 잡아먹었다.

◎ 2월 7일 (음 12월 24일) 금요일 雲

高棧二里 農協 總會. 農協組合을 高棧서 열었다. 案건은 新年度 事業計劃에 搗精業을 하자는 것이다. 資金은 交附 糴자와 영농 資金을 移用해서 하기로 했다. …

◎ 2월 16일 (음 1월 4일) 일요일 晴

… 夕飯 食事 後엔 來日 擲柶大會을 할 것을 準備했다. 前日 高棧서 한 擲柶大會에서 1, 2等を 大谷 致雨가 타 와 高棧의 來日 大谷서 할 대

습에 空氣가 아주 달라졌다.

◎ 2월 17일 (음 1월 5일) 월요일 晴

洞里 擲樗大會 (···) 오늘 擲樗大會를 할 날인데 高棧 가서 알아보니 오늘 안 넘어오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洞里에서 高棧서 1, 2등을 타와 마음들이 감정적으로 變했다.洞里선 도저히 본전 추려내기가 어려운데 큰일이다. 11時 頃に 始作해서洞里서 노랴으나 400원어치만 나왔다. 仟원을 만들기 힘들 것 같다. ...

◎ 2월 18일 (음 1월 6일) 화요일 晴

擲樗大會에 있어 오늘도 1회와 2회를 놀리었다. 본전 나오기란 어려워 300원이 不足이라 각출을 했다. ...

◎ 2월 19일 (음 1월 7일) 수요일

오늘도 擲樗大會의 결정이 안 나고 말썽이 되어 흐지부지했다. ...

◎ 3월 29일 (음 2월 16일) 일요일 晴

··· 高棧 東植이와 理事會가 있으니 넘어오라 해서 또 한 짐 뒤엄을 지고 갈다가 새로 이사 온 金氏家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壹雨氏와 같이 들리어 소주(진로) ○○을 권하는 바람에 많이 먹고가니 理事들이 거이 다 모이였다. 會件은 精米所에 對한 最중적인 會이다. 會을 하고 吉雨氏家 精米所을 買入키로 하고서 大谷으로 와 흥정을 해서 30만원에 興정하고 25만원은 돈 나오는 대로 支拂하고 5만원은 가을에 支拂키로 하고 契約作成, 契約金으로 만원 支拂했다. ...

◎ 4월 2일 (음 2월 20일) 목요일 晴

··· 오늘 農協을 一里와 二리가 병합을 할 會을 했다. 政府에서 추진하여 都農協에서 3명이 나왔다. 後坪 組合長 家에서 會을 하는데 찬성자가 있고 해서 合하기로 하고 合병하는데 본격적인 귀도에 올랐다. 추진위원 一里에 15명을 구성 10日來에 會을 하기로 했다. ...

◎ 6월 10일 (음 5월 1일) 수요일 雲

··· 저녁에 農協理事會가 있다고 기별이 와서 高棧 가셨다. 會 事況은 精米所 運營會이다. 高棧 組合長 주관으로 회는 一瀉千里로 끝났다.

모두 我田引水적인 發議이라 建設的인 會는 못 된다.

◎ 7월 20일 (음 6월 12일) 월요일

··· 農協理事會 參席 ...

◎ 9월 20일 (음 8월 14일) 토요일 雲

··· 저녁엔 農協理事會가 있었다. 쉬일간 農協 任時總會 겸 精米所 修理 준공식 결정.

◎ 9월 23일 (음 8월 17일) 화요일 晴

··· 點心 먹고서 오늘 우리 農協組合臨時總會가 있어 高棧 갔었다. 1시부터 會을 한다는 것이 2時가 넘어서야 會가 되어 中間 經과 報告가 있는 후 各種 精米所 運營 질의가 있는 後 閉會 後 소머리 산 것으로 精米所에 고사를 지내고 會員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後坪엘 갈까 했으나 時間이 9時나 된 듯하여 그냥 집에 왔다.

◎ 10월 5일 (음 8월 30일) 월요일 雲

··· 鍾浩가 왔다. 급히 끝내고 같이 집에 와 寬植과 鍾浩 저녁밥을 먹었다. 鍾浩가 온 동기는 靑北中學校 設入(건)이다. 約 2時間 議論하고 다섯재祖 집에 가니 高棧 重浩와 公雨氏가 와 靑北中學校 設入을 申氏 門中에서 착수하는데 엿이 했으면 좋으냐고 의논이 구구 2日 後에 申氏會을 高棧서 열기로 했다. ...

◎ 10월 7일 (음 9월 2일) 수요일 晴

宗會에 參席. (···) 點心을 먹고 高棧을 갔다. 會件은 敎育事業, 新浦女中學을 우리 申氏 宗家에서 해볼라는 會인데 저녁 기별이 다른 業者가 하게 뒤였다는 기별이 와 모든 일은 그릇되었다. ...

◎ 10월 9일 (음 9월 4일) 금요일 晴

한글날 ...

◎ 11월 1일 (음 9월 27일) 일요일 晴

農協理事會라고 해서 高棧을 갔더니 仁植氏 家의 大事日인 고로 못했다. 잔치에서 술과 국을 먹고 저녁나절서야 李正國氏와 같이 왔다. ...

◎ 11월 5일 (음 10월 2일) 목요일 晴

··· 다섯재祖 家에서 오라해서 가보니 龍雨氏가 와 있어 靑北中學校의 대한 의논을 했다. 申氏 門中에서 引受해 보자는 것이다.

◎ 11월 7일 (음 10월 4일) 토요일 晴

農協理事會日인 고로 10時 頃에 高棧에 갔다. 案件은 精米所 運營 事項이다. 里組合精米所로 해 놓으니 搗精의 能率도 오르지 않으려니와 人夫들도 아주 태만해서 穀主들의 不滿이 많다. 오늘 나의 제안으로 時間제 運營을 주장했다. 能率주의를 주장했다으나 모두 아전인수격인 말이었다.

◎ 12월 16일 (음 11월 13일) 수요일 晴

登記特別條子[치]法으로 10年 前의 未登記地 申請이 始作된 지 벌써 3個月 前 것인데 이 洞里는 아직 1件도 못했다. 申請 마감 日字는 오늘이다. 큰아번님이 맡은 것인데 못하게 되니 큰일이다. 날보고 가자고 하시여 安仲으로 해서 平澤 登記所에 가 登記대장을 열람해 갖고 安仲에 午後 6時 半 頃에 到. 오늘도 못하여 來日 또 가기로 했다. 洞里 일로 오늘 平澤으로 해서 安仲서 來日까지면 될까 한다.

◎ 12월 17일 (음 11월 14일) 목요일 晴

오늘도 登記件으로 安仲에 갔었다. 安仲으로 해서 平澤까지 가 登記所로 해서 郡地籍所로 해서 安仲에 7時에 到. 高棧 重植과 걸어 밤에 왔다.

◎ 12월 18일 (음 11월 15일) 금요일 雲雪

… 除雪을 하고 마실 갈다가 와 點心을 먹고 있으니 永登浦아저씨가 오늘 오셨다고 오라해서 가보니 面長件이 내가 주선해서 일한 것이 10% 성과를 얻어 道知事가 郡守에게 指示했는데 오늘 來日 변동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午後 4時 頃에 新浦에 가 鄭巡警에게 잘 附託하고 午後 6時 頃에 집에 到. 다섯재祖父 家에 가 永登浦아저씨와 祝배을 올렸다.

◎ 12월 25일 (음 11월 22일) 금요일 晴

오늘 農協理事會라고 해서 朝飯食事 後에 高棧을 넘어 갔다. 精米所 運營의 件에서 資金 融資 받은 것을 今年에 갚아야 될 것인데 今年에 精米所 修理와 今年에 搗精에 실패를 해서 利子을 못 갚게 되어 부득히 팔아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 12월 27일 (음 11월 24일) 일요일

高棧里 農協總會 理事職 辭任. 朝飯 後에 高棧 農協總會에 갔으나 午後가 되도록 成員未達 되어도 脛은 했으나 賣渡하느냐 高利債을 얻어서라도 하느냐의 옥신각신 끝에 高利債을 白米 20貳언어 갚도록 하고 脛은 끝났다. 오늘 나는 理事職을 辭任했다.

1965년

◎ 2월 15일 (음 1월 14일) 월요일

… 午後엔 高棧 擲柶大會에 가 30원어치 사갈고 3장 3個에 올려놓고 왔다. 안갈 수 없어 넘어간 것이다.

◎ 2월 20일 (음 1월 19일) 토요일 雲雨

靑北中學校 參百圓 贊助. 오양을 치내고 나니 靑北中學校 ○浩先生 學父兄會長 高棧 柱植 등이 와서 學校備品을 한 조로서 한다고 나한테도 왔다. 各 有志에 찬조가 있어야겠다고 해서 一金 參百圓을 주기로 했다. 나로서 힘것이다. 學校에 對해 不만이 있었으나 막상 당하니 어이할 수 없다.

◎ 3월 19일 (음 2월 17일) 금요일

어제 三溪國民學校에서 대의원회가 有하다고 오라고 해서 오늘 朝飯食事 後에 三溪에 갔다. 회는 11時 頃에 始作해서 2時 頃에 끝났다. 脛件은 結算 報告, 任員 개선 豫算 심의 其他 토議가 있었다. 내가 理事로 選임되었다. 脛가 끝나고 點心을 먹고 新浦로 가 2百圓식 각출해서 술을 먹었다. 술을 먹고 저녁 10시가 넘어서 왔다.

◎ 4월 6일 (음 3월 5일) 화요일 晴風

朝飯食事 後에 三溪초등학교 十週年記念行事에 參席했다. 贊助金으로 貳百圓을 냈다.

◎ 4월 8일 (음 3월 7일) 목요일 晴雲風

三德國民學校의 期成會員의 회가 있다고 해서 三溪에 갔다. 脛은 10時 頃에 始作했다. 案件은 追加豫算심議을 했다. 12時에 끝나 點心을 먹고

헤여졌다. ...

◎ 4월 14일 (음 3월 13일) 수요일 晴

前日 農藝技術學校의 鍾浩君으로부터 日前에 許한 學校 贊助金を 보내달라고 人便에 傳이 와 오늘 一金 貳百원을 敏植의 人便에 보냈다. ...

◎ 4월 19일 (음 3월 18일) 월요일 雲

... 食事 後엔 학교에서 교장과 약속이 있어 松炭을 가기로 해서 떠나 교장 부회장 나 三人이 10時 半 車로 떠나 平澤 教育廳을 경유 松炭에 도착해서 韓民洙를 訪問할라고 하니 곳 출장 준비 중이라 해서 집에서 잠깐 만났다. 韓民洙는 美公報官이라 學校 4教실 확장할라는데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다. 23일에 만나자고해서 그냥 헤여지니 저녁이 되어 黃海旅館에서 宿했다. ...

◎ 4월 22일 (음 3월 21일) 목요일 雲 細雨

松炭行 韓民洙 面接. 10時에 三德校에서 校長과 만나 같이 松炭을 가기로 한 것이 내가 늦어 車時을 놓쳐 기다리다가 떠나고 나는 12時 半 車로 方連植과 같이 떠나 松炭을 가셔야 校長을 만났다. 내가 안 가는 줄 알고 高棧 重植을 데리고 같다. 3時 頃에 韓民洙가 잇는 飛行場을 방문했다. 만나 學校 教室문제를 말하고 韓民洙가 飛行場을 구경시켰다. 飛行場은 內가 平澤邑보다 더 크다. 늦게 떠나 平澤에서 대접해서 新浦와 술집에서 술을 먹고 11時 頃에야 집에 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거리를 걸어왔다. 오는 끝에 푸근히 나리었으면 한다.

◎ 5월 15일 (음 4월 15일) 토요일 晴

敎職員 놀러왔다. 三德國民學校 先生들이 오늘 大谷으로 놀라온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떡을 줌 했다. 안골祖 家에서도 했다. 敎職員들이 술 3斗를 갖고 와 參席人員 10餘名이 其他附담을 책임졌다. 생선 골득이 점으럭기 點心 代 白米 1斗 담배 壹仟六百원이다. 1人當 1,100원 程度가 아닌가 한다. 잘들 놀다가 오후 6時 頃에 헤졌다. 나도 술이 취했다.

◎ 6월 22일 (음 5월 23일) 화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엔 三德校 理事會가 있어 參席

次 三溪에 갔었다. 期成會 運營의 會를 했다. 會에 다녀와서도 웅탱이 물을 댔다. ...

◎ 7월 24일 (음 6월 26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 後엔 國民學校에 理事會에 參席했다. 오늘도 不便한 몸이다. 先生任들과 열려여 술을 많이 먹었다. 나도 술을 한 차례 받았다.

◎ 8월 4일 (음 7월 7일) 수요일 雨

... 下午 집에서 大谷 部落의 海水害被害報告을 作成 里長에게 주며 面에 보내라 했다.

◎ 8월 10일 (음 7월 14일) 화요일

三德國民學校 校長 校監 等 被訪. (...) 學校 先生들이 찾아왔다. 學校問題 議論 次 被害 人 便 檢 왔다. 木曜日에 松炭을 갈다오자고 해서 應했다. 先生들은 집에서 點心을 먹고 下午에 떠났다.

◎ 8월 12일 (음 7월 16일) 목요일 晴

西井里 行.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朝飯食事 後엔 三德學校에 가니 校長先生은 新浦로 떠났다고 한다. 新浦에 가 교장을 만나 서정리로 출발했다. 서정리에 11時 頃에 到着하여 韓根錫氏을 第一방에서 만나 學校 校舍에 관한 의논을 하고 下午 6時에 韓民洙氏를 만나도록 時間을 짜고 서 있으니 5時 30分 頃에 韓民洙氏가 에 볼 일 있어 떠난다고 해서 못 만나고 水原에서 大湖旅館에서 宿하고서 來日 韓民洙氏를 만나기로 했다.

◎ 9월 4일 (음 8월 9일) 토요일

오늘이 學校理事會에 나간다. 運動會 準備에 대한 會였다. 會가 끝나고선 新作路 出役을 했다.

◎ 9월 7일 (음 8월 12일) 화요일 晴

學校理事緊急會. 緊急會라는 公文을 받고 學校에 같다. 會案은 집에서 아른 일과 같이 先生間에 鬭爭으로 學生들에 惡敎育이 되었으며 學校의 公기물을 파게 하는 등의 不常事가 있어 오늘 會를 소집하는 것이다. 잇을 수 없는 술을 먹고 先生間에 싸우는가 하면 學校의 公物을 파게 했다는 것은 生覺조차 어려운 것이다. 理事들은 모두 분개했다. 이러한 先生에게 아동을 막길 수 없다는 父兄들이 잇는가 하면 先生들 모두 내

보내기로 상신하자는 등 말이 잇었으나 先生도 人間인 이상 감정이 있고 한 것이니 한 번 실수 병가의 상사격으로 돌려 관대 조처 하고 先生들이 차후 이러한 일이 없기를 약속하고 산회했다. 理事先生연석회에서 차후 이런 일이 없고 더욱 學校을 爲해 일하겠다고 맹서하였다. 會가 늦게 끝나 술이 취해 집에 왔다.

◎ 9월 11일 (음 8월 16일) 토요일 晴

三德國民學校 運動大會. (….) 運動會에 役員들은 일직 오라고 해서 곳 學校로 갔더니 벌써 役員들이 모였다. 오늘 나는 接待의 임무를 맡아 일을 보았다. 日氣도 좋고 安伸서 뺨드까지 와 運動會를 더욱 즐겁게 장식을 했다. 運動이 끝나고 결산을 보는데 三溪 사람이 와 술주정을 해서 아주 끝일이 좋지 않았다.

1967년

◎ 1월 21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 저녁나절 三德國民校 校長이 訪問했다.

◎ 2월 10일 (음 1월 2일) 금요일

해마다 해온 年中行事인 部落擲柶大會에 중일 토록 일을 보았다. …

◎ 2월 11일 (음 1월 3일) 일요일

날씨가 갑자기 冷해져 영下11도로 내려갔다. 어제 못한 擲柶大會를 하기로 한 것을 일직 끝낼라고 朝飯食事を 일직 朴巡警과 같이 하고 擲柶大會場에 가 10시까지 끝내기로 서둘러 하다가 뒷삼게 조상을 같다. …

◎ 2월 14일 (음 1월 6일) 수요일

… 11時 頃부터 婦女子들이 30원식 잔어 擲柶大會를 했는데 날보고 기록해달라고 하여 協助했다. …

◎ 2월 18일 (음 1월 10일) 토요일

三德國民學校 卒業式 參席. 朝飯食事 後에 三德國民學校에 떠났다. 理髮하고 式場에 나갔라고 했더니 곳 式이 되었다. 式이 끝나고 술과 국

이 있었다. …

◎ 3월 8일 (음 1월 28일) 수요일

學校增築費모금논의. (….) 朝飯後에 悠雨 家에 가 學校增築費를 것어달라고 말하고 里長에게 말했다. 里長이 것어야 할 것인데 洞里일에 관심이 없는 里長이라 生覺도 않는다. 저녁에 會를 열어달라고 했더니 대답은 했으나 會를 안 열었다. 洞里 里長이라고 洞里을 망치는 里長이다. 이 面에서 손꾸락질을 堂하는 것이 모두 里長 때문이다. 洞里 사람이 모두 실어하고 내놓라고 하나 내놓지도 않고 있다. …

◎ 3월 18일 (음 2월 8일) 토요일

… 朴靑房 보고 일을 하라 하고 三德校 理事會가 있어 參席했다. 理事會 案件은 66年度 決算심議 67年度 豫算심議 等. …

◎ 3월 27일 (음 2월 17일) 월요일

三德國民학교의 總會다. 66년도 결산 67年度 심議. 任員送定 理事로 또 있게 되었다. …

◎ 5월 10일 (음 4월 2일) 수요일

朝飯食事 後에 三德國民校 增築金整을 하것어 3,900원을 것어드리었다. (….) 學校增築金 650원을 드리었다. …

◎ 6월 28일 (음 5월 21일) 수요일 細雨

… 오늘 下午 2時에 三德國民學校 二放室 增築 上樑이다. 점심을 먹고 學校에 나갔다. 손님은 많이 오지 않았다. 一金 100원을 냈다. 上梁式이 끝나고 理事會를 했다. …

◎ 7월 4일 (음 5월 27일) 화요일 晴

… 三德國民學校 二放室 增築費가 증收가 잘 안 되어 來日 玉吉 部落으로 동요[독려]을 가자고 公文이 왔다. …

◎ 7월 5일 (음 5월 28일) 수요일 晴

8時 半 頃에 學校에 가 校長과 玉吉里로 二放室 增築費 徵收 次 떠났다. 佳寺部落을 거쳐 新基 元玉吉 등 部落을 다녀왔다. 三班으로 나누어 高棧里로 方基東 三溪里로 金教英 玉吉里로 내가 맡아 동료차 나갔다 왔다. 玉吉里로 一週하고 下午 5時 頃에 집에 와 풀 한 짐을 비여왔다.

◎ 7월 18일 (음 6월 11일) 화요일 晴

... 2월에 郡에 陳情한 堤防 補修 古吠 申請한 것이 내 이름으로 나왔는데 里長이 채드려같은 큰 생색이나 낼라고 洞里사람에게 알리도 않고 水原 李貞鉉氏에게 갑다오시였다. 이번에 여기에서 생길 것이 없나 혈안이 되어 도라다니니 洞里 사람들의 조바심난다.

◎ 7월 19일 (음 6월 12일) 수요일

... 古吠 1,000매 나온 것을 洞里사람도 모르게 水原 李貞鉉氏에게 네갈라다 面에서 발각이 되어 里長의 불림이 났다. 참으로 不政이 많은 里長이다...

◎ 9월 3일 (음 7월 29일) 일요일 雨雲

... 오늘 三德國民學校 理事會가 있어 參席했다. 運動大會의 件이다. ...

◎ 9월 19일 (음 8월 16일) 화요일

三德 秋季大運動會. 朝飯食事後에 일직 學敎에 갑다. 오늘 責任이 接受! 중일토록 일을 보았다. 오늘 贊助金이 25,700원이다. 接待費로 10,000가량 썼다. 昨年보다 약 3,000원 더 찬조했다.

◎ 12월 11일 (음 11월 10일) 월요일 晴冷

... 朝飯後에 悠雨를 데리고 學校 增築費 떨어진 것을 收했다. 인제 한 집만 나뒀다. ...

◎ 12월 12일 (음 11월 11일) 화요일 雲晴

朝飯食事後에 三溪學校에 增築期成會費 1,050원을 支拂 次 들리었다. ...

◎ 12월 25일 (음 11월 24일) 월요일 雲

... 三德校에서 增築期成會의 理事에 參席- 오다가 酒店에서 놀다가 저녁 늦게야 도라왔다.

1968년

◎ 1월 22일 (음 12월 27일) 월요일

高棧 農協總會 ...

◎ 2월 29일 (음 2월 2일) 금요일

三德校 理事會. 朝飯 後에 三溪가 理髮을 하고 會에 갑다. 會는 오늘 결산을 했다. 술과 점심

을 三溪에서 하고 下午에 왔다.

◎ 3월 23일 (음 2월 25일) 토요일 晴

三德國民學校 期成總會. 總會時間이 10시라 朝飯食事後에 일직 나가 理髮을 하고 會에 參席. 今年에도 理事로 일을 보게되였다. 다른 사람을 식혀 달라고 했으나 그대로 있게 되였다. 副會長에 1표가 적어 떨어졌다. 會가 끝나고서 주점에가 술을 먹고 늦게 도라왔다.

◎ 9월 13일 (음 윤 7월 21일) 금요일 晴

三德國民學校 理事會 參席. (...) 좀 있으니 洞里 治道을 한다고 鍾을 쳐 우리는 소을 내 보내고 學校의 會에 參席했다. 會案은 運動會의 件이었다. ...

◎ 10월 9일 (음 8월 18일) 수요일 雲

三德校 秋季大運動會. 雨天으로 因해 물려 잡은 날이것만 오늘도 食前에 비방울을 하여 기대했던 兒童들의 氣分을 상하게 했다. 비방울이 떨어졌건만 時 頃에 學校에 갑다. 9時 半 경에 運動을 始作하니 비는 차츰 덜과 끝지였다. 下午에는 좋은 날씨였다. 한참 바쁜 時期라 손님은 많은 편은 아니였다. 나는 중일 학교 일 보기에 바빴다. 新浦서도 손님이 왔다. 오늘 찬조금은 30,000원이다. 많이 찬조를 했다. 결산을 마치고 저녁 8時 頃에 집에 왔다.

◎ 11월 12일 (음 9월 22일) 화요일 雪

學校理事會. (...) 나도 學校會에 나갔었다. 會案은 追加豫算의 것이다.

1971년

◎ 4월 9일 (음 3월 14일) 금요일 晴

三德國民學校 育成總會. 來日 맛벌칠 흙을 準備하고 개여 놓고 育成會 總會에 나갔다. 모처럼 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今年에도 役員이 되였다. ...

◎ 4월 14일 (음 3월 19일) 수요일 雲

三德校 理事會인데 못 가고 앞 밭 가웃지기(上)의 감뚝을 했다. ...

◎ 7월 25일 (음 6월 4일) 일요일

… 朝飯을 하고 나니 비가 나리어 同窓會 準備委員이라 新浦에 갈라고 하니 高棧서 道路擴張會를 한다고 오라해서 高棧에 잠깐 들리었다가 新浦에 같다. 만날 사람을 못 만나고 來日 만나기로 하고 왔다. …

◎ 7월 26일 (음 6월 5일) 월요일

… 同窓會準備員으로 몇 사람 만나고 日字와 會員, 場所 등을 결정했다. …

◎ 8월 1일 (음 6월 11일) 일요일

… 第二會 同窓會. 同窓會에 떠나 新浦에 倒着했다. 좀 늦게 가 모두 場所인 건희로 같다고 하여 건희로 가보니 모두 왔다. 同窓員 16명이 참석을 했다. 會費는 自進해서 냈다. 400원부터 1,000원까지다. 16名 中 5, 6명이 1,000원이다. 나도 1,000원을 냈다. 會는 나의 司會로 始作되었다. 會費를 定 초하자 會費는 1,000원 定度로 自進해서 納付다. 會는 喪에 만장과 賻儀에 쓰고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의에 쓴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굳게 團結을 다짐했다. 술과 노래로 時間을 보내다가 下午 6時 頃 閉會했다. 오다가 中隊長이 술을 내고 나도 한잔 받고 오니 三溪에서 轍雨 然雨 晡植 興植 등이 술을 마시고 있어 같다가 술을 대접받아(晡植으로부터) 나도 맥주 6병을 샀다. 오늘은 支出이 많다.

◎ 9월 14일 (음 7월 25일) 화요일

三德校會에 參席 …

◎ 10월 4일 (음 8월 16일) 월요일

運動會에 가 일을 보아 주었다. …

1972년

◎ 3월 4일 (음 1월 19일) 토요일

來日이 同窓會라고 案内狀이 왔다. 머리 아기가 있었던 것이다. 會費는 300원. …

◎ 3월 5일 (음 1월 20일) 일요일

同窓會. 朝飯後에 新浦에 가다가 三溪 興植 兄

이 집에 있기에 잠깐 들려 茶 한잔 같이 하고 新浦에 갈터니 거이 모인 듯하다. 崔承玉 家에서 會를 하였다. 會費는 300원인데 나는 600원을 냈다. 지금까지 受募한 金額이 25,000원 가량 된다. 白米 2畝 代로 22,000원을 3分 利子로 長利를 徐廷燮君에게 주었다.

◎ 3월 12일 (음 1월 27일) 일요일

三德國民學校 事務監査 次 學校 가다. (….) 學校에 나갔다가 監督을 끝내고 午後에야 왔다. …

◎ 3월 15일 (음 2월 1일) 수요일

三德國民學校 理事會 (….) 朝飯食事を 對接받고 집에 와 옷을 갈아입고 學校에 같다. 監査報告와 아울러 理事會를 했다. 71年度 結산을 끝내고 72年度 예산 심의를 할라고 했는데 教育部의 지침이 下達치 않아 後에 미루고 三溪酒店에 와 술을 들고 下午 늦게야 왔다. 會長인 連植이 한 상 샀다. …

◎ 3월 29일 (음 2월 15일) 수요일

三德校 學父兄 總會. (….) 10시에 學校에 가 理事會를 끝내고 총회를 했다. 任員改選에서 方連植君이 會長으로 無투표로 당선시키고 副會長에 1票 次로 元奇錫氏에게 지고 監査에 무투표로 되었다. 會가 끝나고 酒店에서 놀다가 밤이 길어서야 도라왔다.

◎ 7월 15일 (음 6월 5일) 토요일 晴

… 理事會 …

◎ 9월 8일 (음 8월 1일) 금요일

三德校 運動會의 件 理事會에 參席. …

◎ 9월 16일 (음 8월 9일) 토요일 晴

… 저녁엔 모처럼만의 洞會. 洞會案은 새마을 教育者을 내가 못가겠다고 하니 다른 사람으로 選발하는 것이다. 鍾植을 보내기로 했다.

◎ 9월 23일 (음 8월 16일) 토요일 晴

三德校 大運動會, 9時 頃에 學校에 나갔다. 役員은 거이 다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해마다 接受로 일을 보게 되어 今年엔 다른 부서를 맡을까 했으나 接受볼 사람이 마당치 않다고 하여 今年에도 일을 보았다. 接受을 보게 되면 아이들 경

기엔 관람치 못하게 된다. 今年엔 많은 찬조가 되어 119,900원이란 최대의 금액이 찬조되었다. 일직 끝나고 계산하여 냉겨주고 술을 먹자는 것을 내가 뿌리치고 왔다.

◎ 12월 24일 (음 11월 19일) 일요일

同窓會, 新浦에 나가니 10時 半 同窓들이 몇 명 왔다. 11時가 되어서야 15名の 同窓들이 모여 여 술을 했다. 昨년도에 白米 2畝 長利는 것을 受領하고 白米 10畝 목표로 금년에도 會員 1人 當 1,000 以上으로 해서 最高 3,000원 그 위 [외] 2,000원 1,000원이 가장 많고 받아 金鍾秀 君이 3畝 주고 돈이 모자라 命基 2畝는 돈을 채워 주기로 했다. 일금 5,000원을 三溪 연수君에게서 가져갔다.

1973년

◎ 1월 14일 (음 12월 10일) 일요일 晴

… 午後엔 새마을회를 했다. 유희 모인 사람들은 里長을 갈았으면 하는 마음 다른 生覺은 없다. 몇몇 사람은 里長을 갈되 自己들의 마음에 들고 손아귀에 넣을 호락호락한 사람을 生覺하고 있다. 나는 氣분이 좋지 아났다. 참으로 이 동리를 애끼고 사랑하고 다소라도 대위적[대외적]으로 명망인은 사람을 생각하나 몇몇 사람은 自己수중에 넣을 사람들.

◎ 1월 19일 (음 12월 15일) 금요일

… 요즈음 마을에 모이면 今年度 實施할 새마을事業과 洞里 里長 쟁질 問題로 話題이다. 오늘 저녁에도 젊은이들이 모여 의논이 분분하였다.

◎ 2월 8일 (음 1월 6일) 목요일 晴冷

… 朝飯 後 마실 같다가 새마을 양회와 下車을 하고 致雨 家에서 술과 떡을 내어 먹고 와 세죽을 쑤고 있으니 德雨 轍雨 致雨 鍾植 등이 와 里長을 承諾하라고 졸라대며 차후로 미루었다. …

◎ 2월 9일 (음 1월 7일) 금요일 晴

朝飯 後에 곧바로 三溪에 나가 理髮을 하고 나

니 卒業式參席이 늦었다. 卒業式을 끝내고 敏 泰와 같이 술 한잔) 같이 하고 卒業生父兄들이 先生들의 술을 대접하는데 나도 술 한 잔 사고 도라왔다. 오늘 一金 1,300원을 쓰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다. 李允鎔候補로부터 一金 2,000원 受.

◎ 2월 17일 (음 1월 15일) 토요일 雲 細雨

오늘 우리 집안 宗會 及 部落會를 한다고 했으나 유야무야하게 되었다. 술이 있다고 해리갈더니 모두 집에 있다. 宗會 역시 제각곰 별 意事가 없는 듯 모이지도 안았고 部落會도 集會者가 안중에도 없으니 그만이다. 이 동리가 참으로 힘이 든다. 自己意事가 관철되지 않으면 反對다. …

◎ 2월 21일 (음 1월 19일) 수요일 雲

… 午前엔 큰아변님이 오시여 里長을 내몰태니 洞里에서 너을 들 生覺하고 있으니 어이하겠느냐고 하고 모두들 말하여 나는 못하겠노라고 했다. 만약 네가 里長을 안 보겠다면 里長을 안 내노시겠다고 하시니 큰일이다. 저녁에 洞里가 있었다. 里長선거가 있어 급기야 里長으로 선임이 되었다. 방감지 않은 일이다. 새마을지도자를 德雨가 당선되었다. 반장에 轍雨와 致雨을 선출하고 총무에 연우가 되었다. 잘 될 것인지 만약 동리에서 協助가 없으면 내 놀 참이다.

◎ 2월 22일 (음 1월 20일) 목요일 雲

… 오늘 마을 안길 답사를 한다고 하여 洞民들과 같이 도라보았다. 몇 사람을 除外하고는 自己 田畝이 달까하고 적극성을 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큰일이다. 매우 일하기에 힘이 들 문제이다. …

◎ 2월 25일 (음 1월 23일) 일요일 晴

… 洞里的 새마을事業에 對한 事項을 알아보기 위해 마을로 갔다고 오니 …

◎ 2월 28일 (음 1월 26일) 수요일 晴

農協組合理事 改選을 本日한다고 하여 高棧柱植 〇〇가 나갈라고 조반전에 오라고 하여 가기는 했으나 신통할 여론이 없다. 田榮基氏와 같이 같으나 〇會에 里長들은 들어갔다. 만날 사람을 못 맛나고 來雨氏 家에 들리었다. 우리가 運動하던 분은 [낙]선되어 氣분이 좋지 않아 오다

李允鎔氏가 [아]주 잘못이었다. 아직도 돈이면 그만인데 돈에 졌다고 來雨氏도 말한다. 茂植을 만나 술을 먹고 술의 상황을 [알]아보고 田氏와 李敏泰君으로 와 술 얻어 먹고 오다가 柱植을 만났는데 틀리었다고 한다.

◎ 3월 2일 (음 1월 28일) 금요일 晴

… 下午에 面書記가 와 前 里長이 辭表을 냈노라고 날보고 面에서 추천하여 來日까지 履歷書을 내달라고 하여 저녁에 洞會를 부치었다. 來日부터 새마을事業을 始作하겠노라고 결정, 洞里規定을 엄격하게 정했으나 어이 될 것인지? …

◎ 3월 5일 (음 2월 1일) 월요일 晴

새마을사업의 道路擴張은 敎雨家집까지 完了했다. 來日까지면 거이 끝나지 않을까 生覺된다. 모두 열성적이다. 空日로 定했던 來日도 모두 하자고 하여 하기로 했다. 새마을을 資金 件으로 一家口 當 5,000원식 배당을 나는 先拂로 一金 3,000원을 今日 支拂했다.

◎ 3월 7일 (음 2월 3일) 수요일

今日は 손수레 2대로 논을 돈구어 거이 끝나갈다. 종일토록 큰어머니가 방해를 놓아 事業에 지장이 많았다. 사정을 말하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里長의 勸을 받았다.

◎ 3월 9일 (음 2월 5일) 금요일

里長會가 있어 面에 가 會를 끝내고 오니 午後가 되었다. (….) 큰아번님이 와 큰 소리를 내어 참으로 기분 나쁘고 큰어머니와 큰소리를 내고 妻까지 손길을 내가 했다. 安養아주머니와 논을 많이 들여보냈다 야단을 쳐 큰일이다.

◎ 3월 10일 (음 2월 6일) 토요일

… 安養아주머니와 논을 많이 들어 같다고 게로움을 끼쳐 참으로 해결책이 나지 않는다. 큰어머니와 같이 지나치게 게로움을 주어 洞里 일이란 해어나기 어렵다. 종일토록 부덕함을 받았다. …

◎ 3월 14일 (음 2월 10일) 수요일

敎雨氏 家 前 下水口 새마을 事業은 오늘로 끝났다. 敎雨氏의 웅고집에 모두 말을 못하고 뒤

에서만 말이 많다. 저녁에 指導者가 會를 부치 모아 있었는데 모래차가 와 모래를 플라갈다. 會案은 來日 作業을 할라고 해도 모래가 없어 會를 연 모양이다. 참으로 많은 새마을作業의 不作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3월 18일 (음 2월 14일) 일요일

새마을 事業에 대하여 壹雨와 正煥이 自己집 수채 막아주지 않는다고 不便을 하고 하여 몇 마디 하고 …

◎ 3월 20일 (음 2월 16일) 화요일

… 下午엔 面에 가 會가 있어 德雨와 같이 面에 가 會에 參席했다. 會는 下午 6時에야 끝났다. 저녁엔 다섯재祖 家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어른들의 議事을 여쭙어 불라고 한 것이 어른들이 몇 분 모시지 못해 流會를 했다. …

◎ 3월 23일 (음 2월 19일) 금요일

朝飯을 일직하고 新浦에 나갔다. 농꾼 田택일 꾼에게 馬車을 갈고 오라고 하고 먼저 나가 철근을 챙기어 놓고 있으니 田氏가 와 午後에나 온다고 한다. 面長 副面長 鄭總務 등을 데리고 점심을 먹고 철근 2몽치를 더 싣고 왔다. 효과는 과대 했다.

◎ 3월 24일 (음 2월 20일) 토요일

三德校의 監査를 11時부터 始作했다. 監査라야 별로 할 것도 없다. 12時에 점심을 먹고 新浦에 가 寬植의 予備單에 召集에 對하여 정리해 주고 와 午後부터 理事會에 參席했다. 72年度 審議新年度 予算 審議를 마치고 저녁에야 도라왔다.

◎ 3월 25일 (음 2월 21일) 일요일

새마을 事業에 前日부터 덥개를 오늘까지 8個를 앙고는 끝났다. 午後에 致雨가 異論을 하여 떠들었더니 氣分이 매우 좋지 않다.

◎ 3월 26일 (음 2월 22일) 월요일

새마을사업 하는데 가 있다가 비닐 代을 받고 돈을 計算해 보니 500원이 不足이다. 돈이란 만지고 보면 손해이다. 참으로 氣分이 좋지 않다. 新浦에 나가 보아도 기분이 가라 앉지 않는다. 산업계에게 돈을 비닐代 14,110원을 주고 富植

의 兵籍申告를 하고 肥料復合 5袋를 찾아 갖고 왔다. ...

◎ 3월 27일 (음 2월 23일) 화요일

아산만 수로 토지사용 승낙서의 건으로 面에 가 본 부락 농지 대장을 베껴 갖고 總務係長인 鄭昌煥君이 점심을 대접받고 도라 와 部落새마을事業에 나갔다 오다가 ...

◎ 3월 28일 (음 2월 24일) 수요일

새마을 사업의 일을 시켜놓고 집일을 치우기로 했다. 하루는 지도자가 하루는 里長이 말이 격일제로 하고 있다. 오늘 작업사항은 빨래 음물이다. (...) 午中에 支署에서 景雨의 수배 次 와 住所不明으로 확인을 하여 주었다. 저녁엔 部落會를 하였다. 自己 各自의 욕심에 치우쳐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습이었다.

◎ 3월 30일 (음 2월 26일) 금요일

... 새마을 사업에 일을 시켜 놓고 ...

◎ 3월 31일 (음 2월 27일) 토요일

三德校 育成會. 新浦에 9時에 가 肥料와 비닐을 알아보고 10時부터 三德校에서 會가 있어 곳 三溪에 왔다. 11時에 會를 始作하여 결산 예산 감사보고 등이 끝나고 임원 개선이 있어 會長에 내가 첫 추천을 받았으나 婦人들의 連植의 편으로 가 2票次로 낙선의 고배를 마시었다. 次점의로 副會長이 되었다. 氣分은 좋지 않았다. 副會長이 되었다고 술사라 하 一金 1,000원 어치의 술을 샀다. 肥料 가질라 가는 고로 새마을 사업은 쉬었다.

◎ 4월 1일 (음 2월 28일) 일요일

4月이 닳아 왔건만 농사일엔 손을 못대고 새마을事業과 洞里일 보기에 몸이 켜이니 조바심이 된다. 오늘도 몇 사람이 갈리고 나니 3명이 양고를 못었다. ...

◎ 4월 2일 (음 2월 29일) 월요일

... 10時에 新浦에 가 面에 들리어 비닐을 알아보니 平澤으로 비닐을 가질라간다고 간다. 종일 기다리다가 몇몇 里長들과 술을 마시고 各里長들이 단결해야겠다고 술잔을 기울리며 다짐했

다. 里長 1個원의 수당을 탔다. 5,000원 중 1,000원을 보험으로 떼고 4,000원에서 新聞代祝儀金を 떼고 3,400원을 받았다.

◎ 4월 3일 (음 3월 1일) 화요일

... 朝飯後에는 새마을사업의 對한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面에 나가 비닐에 對해 말하니 저녁에나 가져가라고 하여 朴晝記에게 東雨가에 운반하라고 부탁하고 와 ...

◎ 4월 6일 (음 3월 4일) 금요일

오늘은 部落의 男女總動員하여 婦女子는 苗木을 심고 몇 명은 뒤치다꺼리를 하고 양고를 놓았다. 副面長을 비롯해서 朴晝記 2명이 와 술을 대접했다.

◎ 4월 8일 (음 3월 6일) 일요일 雲

새마을 事業의 게시판을 부력으로 쌓았다. 일 부는 양고를 놓았다. ...

◎ 4월 10일 (음 3월 8일) 화요일

마을 안길 확장한 것을 前日 큰어떤님이 까드리었다고 하여 食前에 現場에 나가보니 과연 까드리었다. 참으로 이 동리가 어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 全部落民이 잘 살기 爲해 하는 일에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큰아번님이 오시기에 말씀드리니 어제 저녁에도 많이 싸우셨다면서 큰아번님이 해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말 받고 오늘 계획을 말씀드리고 朝飯 後에 面에 나가 비닐을 알아보니 職員과 싸우고 있다. 어디까지 조차가 200m을 더 얻어 本 部落은 完全확보했다. 他部落은 5%가 될까 말까 한다. ...

◎ 4월 17일 (음 3월 14일) 화요일 雲

... 술을 대접하고 같이 新浦에 나갔다. 비료 전표를 펴라 했으나 尿素가 없어 못 떼고 現 龍組合長의 不信任 결의에 있어 몇몇이 연판장을 100% 받아 날 보고 安仲에 閔代議員이 계시니 가보자 해 下午 늦게 安仲에 가 閔을 만나 결의하면 來日 平澤에 나가자 했으나 나는 못나갈 것 같다 했으나 졸라대며 가기로 하고 옹포 里長 姜氏내 가에서 夕飯을 하고 12時 경에 도라 왔다.

◎ 4월 18일 (음 3월 16일) 수요일 晴

… 11時 頃에 出發 新浦에 나가 5人の 里長와 金鍾秀 姜錫浩 金秀己 李益宰 等이 平澤에 나가 郡에 陳情書를 제출하고 郡 組合의 전무를 만나고 鄭 組合長을 만나 말하고 安仲에 와 閔代議員을 만나고 新浦 경유 집에 왔다.

◎ 4월 19일 (음 3월 17일) 목요일 晴

… 朴先生과 會長이 와 술을 대접하고 나니 손님이 찾아와 오늘 계획은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校長 사택 수리 件으로 一金 仟원을 냈다.

◎ 4월 21일 (음 3월 19일) 토요일 晴

… 午後 1시에 面長 離就任式에 參席했다. 東雨家에 茶房을 차려놓아 開業에 參席했다. 組合長 不信任 결의 진정서에 있어 各 층대가 절대적으로 걸고 가라고 하여 몇일 前에 郡組合에 갈다는 것을 龍組合長은 내가 충동하고 같다고 날 보고 말하여 오해를 받고 있다.

◎ 4월 25일 (음 3월 23일) 수요일 雲

… 12時 頃에 面에서 會가 있어 나갔다. 郡 組合에서 새마을축진대회이었다. 面에서 會가 또 있어 밤 12半 頃에야 歸家했다. 面 단위 組合長이 사과하여 本 층대일동의 진정은 더 확대치 않기로 결정했다.

◎ 4월 26일 (음 3월 24일) 목요일 晴

前일 會에 갈다 오다 들으니 큰어머니가 나를 말할 수 없이 욕을 하고 하였다고 하여 그래지 않아도 요즈음 洞里 다니며 里長을 말하여 洞民들과 사이를 갈라놓랴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어 말을 할라든 次 食前에 들을 일주하니 몇몇 사람들이 큰어머니가 지나치게 하드라고 하여 원래가 그런 분이니까 했으니 참지 못하여 朝飯을 하고 쪼차가 무었때매 그리 하시느냐고 하니 말썽도 아닌 말썽을 이말 저말 하시며 대여곡 件으로 致雨와 法的으로 된 것까지 말썽하시여 面에서 그래더라 하시여 面에 가자고 하며 面에 갔더니 面에서 사실대로 말하니 말썽하실 것이 없노니 새마을 양회 팔아먹은 것을 말썽하시여 이말 저말 洞里을 지나치게 헐어 이 洞里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창피를 줄라는 심사이고 요즈음 洞里가 잘 되어 가니까 식이심에서 방해을 하고 계신 것이다. 저녁에 전달사항을 말하고 會를 부쳐 나는 里長職을 감당할 수 없으니 사임하겠노라고 했다.

◎ 4월 30일 (음 3월 28일) 월요일 晴

洞民들이 總動員되어 3名 스라부를 하고 午前 中 午後엔 洞里의 治道를 했다. 일을 하고 심은 意欲이 生起지 않는다. 몇일 前에 洞里의 안 될 길 바래고 妨害工作을 하는 큰어머니가 지나치게 하여 氣分이 나지 않는다. 큰아번님이 里長 보실 재 말 안 듯던 洞里이가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니가 그분의 本心이 發生했다. 그렇다고 洞里가 어이될 것인가 생각하면 한숨之事다. 面職員이 왔기에 洞里에선 결사 反對하는 辭表을 提出했다. 나루선 감당 할 수 없는 洞里이다. …

◎ 5월 2일 (음 3월 30일) 수요일 晴

… 里長 辭表을 냈으나 受理을 안 했는 모양이다. 몇몇 里長들은 무슨 말이냐고 야단떨이다. 오다가 學校에 들리어 왔다. 教職員과 役員 함께 旅行을 간다고 하여 議論 次 같섰다.

◎ 5월 9일 (음 4월 7일) 수요일

… 工事 責任者들이 찾아와 한참이나 일을 못하니 不安하다. 午後엔 面에 會가 있어 나갔다. 저녁엔 工事 責任者들이 술을 대접하여 우리 집에서 주선을 했다. …

◎ 6월 6일 (음 5월 6일) 수요일 雲

… 顯忠日 많은 영영들의 명복을 비는 눈물인 양 가물던 날에 부슬비가 내려주었다.

◎ 6월 7일 (음 5월 7일) 목요일 晴

… 來日 새마을事業 심사가 있다고 妻는 苗木場에 풀을 뽑으라 가고 나는 三溪에 가 理髮을 했다. …

◎ 6월 8일 (음 5월 8일) 금요일 晴

… 今日 새마을事業 심사 나온다고 하여 食前 일직 洞民들을 모이게 하여 청소를 하고 심사에 대비했다. 午前에 집 안팎[밖]을 치우고 따비밭의 밭벼 밭을 땀다. 午鐘 頃에 洪淳鎬재무계장

과 담당이 와 점심을 대접했다. ...

◎ 6월 23일 (음 5월 23일) 토요일 晴

李昶鎔君이一金 7,000원을 갖고 와 交제費로 써 面송아지를 求해 달라고 하여 우리 집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君이라 面에 나간다. 總務係 鄭昌煥君을 데리고 나와 교제하니 데도록 하겠노라고 하며 친구의 말이면 힘쓰겠다고 하여 술을 대접하고一金 5,000원을 주었다. 몇 사람과 어울리어 술을 취했다.

◎ 6월 25일 (음 5월 25일) 월요일 晴

... 12時 頃에 出發 面會에 나가다가 理髮을 하고 1時에 新浦에 나간다. 面會가 끝나고 몇몇 親友와 술을 기울리다 下午 늦게야 집에 오니 妻가 허둥지둥 치우는 것을 보니 未安하다. 우리는 현재 취대의 노력으로 생활의욕을 뒹고 있다.

◎ 6월 30일 (음 6월 1일) 토요일 雨

面會, 洞會, (...) 面에서 會가 있어 가기 前에 눈에 들리니 왜가 터져 골장에 물이 끼었다. 面會가 끝난 後 工事 청부인과 같이 와 답싸을 하고 큰소리가 오고 같다.

◎ 7월 14일 (음 6월 15일) 토요일 雲 쏘나귀

來日이나 出役을 갈라고 했으나 지도자가 今日 하자고 하여 動員하니 6名이 가서 하는 등 마는 등 했다. 술과 점심을 대접하고 校長과 會長을 만나 술을 같이 하고 下午 늦게야 新浦에 나가 面에 들리어 高壓式 噴霧器를 한 台 더 얻어 놓고 鍾萬君과 總務係長과 같이 술을 먹고 저녁에 야 집에 왔다.

◎ 7월 15일 (음 6월 16일) 일요일

洞里婦女會員을 動員 苗圃場의 풀을 뽑고 洞里에서 肥料을 걷어 苗圃 밭을 매고 施肥했다. 前日 出役 못나간 男子도 動員해 2時間가량 作業을 했다. ...

◎ 7월 21일 (음 6월 22일) 토요일 晴

面에서 會가 있다고 하여 9時에 面에 갈더니 堆肥増産大會를 간단히 하고 만호리가 배를 타고 뱃노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經費는 面에서 20,000원 組合에서 20,000 里長단에서

20,000으로 10時에 대접해서 술과 고기 밥 등을 싣고 떠나 400여명의 里長職員 등은 입하도에 가 배에서 내려 술과 밥을 먹고 수영을 하고 놀다가 와 집에 오니 밤 12時경이었다.

◎ 7월 23일 (음 6월 24일) 월요일

洞里로 마을문고 용 문고 함이 나와 가질라 갈 겸 面에 갈다가 그냥 도라와 ...

◎ 7월 29일 (음 6월 30일) 일요일 晴

11時에 原木에서 祥明女中에서 자매결연 7週年 마지를 한다고 案内하여 같다. 祥明女中校長을 비롯하여 職員 朝鮮日報社 기자 등이 오고 각 기관장 里長까지 案内하여 몇 里長이 왔다. 式이 끝나고 주연이 있어 대접을 받고 우리 몇몇 里長이 우리 집으로 와 술과 참위[참외]를 대접하고 놀다 같다.

◎ 8월 2일 (음 7월 4일) 목요일

... 食前에 月谷里長이 와 面長이 辭表을 냈는데 重植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리장자리가 꺾적이 되면 운동해보라고 왔다 같다. 종일토록 洞里분들과 술잔을 기울리다.

◎ 8월 3일 (음 7월 5일) 금요일

新浦에서 月谷里長을 만나자고 하여 일직 三溪가 理髮을 하고 新浦에 가 面에 들리어 金만옥을 만나 술을 한 잔만 하고 나와 月谷里長을 만났다. 面長은 결정되고 重植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오다 致雨를 만나 致雨가 술을 받아주어 몇 번의 신세를 졌다.

◎ 8월 4일 (음 7월 6일) 토요일

洞里에 肥料가 할당되었다고 하여 組合에 가 알아보니 5包가 할당되었다고 面에 들렸다가 왔다. 安仲에서 反共大會가 있다고 하여 安仲에 下午 2時 頃에 갔다 왔다.

◎ 8월 6일 (음 7월 8일) 월요일

... 面長은 오늘 취임을 했다. 共和黨에서 밀어된 모양이다. 來日 와 보라고 하여 가기로 왔다.

◎ 8월 7일 (음 7월 9일) 화요일

里長會. 午前 8時半에 里長會를 開催. 參席者 里長 기관장 지도자 생활지도자. 퇴비 증산대회

後 풀비기 大會. 약 1時間의 풀비기 大會가 끝난
後 點心먹고 指導 들려 2時 半 頃에 歸家. 指導
所 職員 訪問 2名. 논 현지 답사. 部落會 開催.
퇴비에서 件.

◎ 8월 10일 (음 7월 12일) 금요일

後坪에서 메탄가스 점화식이 있다고 郡守任이
오시고 각계 人事가 오신다고 案内했으나 갈라
고 하다가 苗板할 논 피사리를 하고 오니 시간이
늦어 못 갔다. ...

◎ 8월 13일 (음 7월 15일) 월요일

洞里 治道. 일직 始作해서 洞里 治道을 했다.
날씨 가물어 흙을 파낼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제
대로 못했다. 술 한 통과 소주 2병을 사다 먹고
점심은 우리 집에서 국수를 대접했다. 洞里 안
길은 食前에 몇 일하여 아주 쉬웠다.

◎ 8월 14일 (음 7월 16일) 화요일

새마을 學校教育이 13일부터 14일까지다. 教
育 次 新浦에 가 面에 가 洞里분들의 인감을 떼
여 주고 水路工事의 경작인 증명을 떼여 갖고 教
育 次 갈더니 거이 끝나갈 무렵이다. ...

◎ 8월 15일 (음 7월 17일) 수요일

光復節 記念行事가 中學校에서 각계 人事가
모여 式을 거행한다 하였으나 못 가고 妻와 같이
가마니을 짚다. ...

◎ 8월 25일 (음 7월 27일) 토요일

里長會. (...) 食事は 간단히 하고 理髮을 하고
面에 가니 舍에 간다고 모두 新浦에 와 일도 제
대로 못보고 雪創으로 車을 타고 가 舍에 參席했
다. 舍라야 堆肥 件이다. 雪創 部落의 堆肥는
과연 자랑할 만하다. 참으로 均日하게 많이 했
다. 堆肥部落의 後坪 月谷 등을 巡訪하고 와 部
落會을 했다. 오다가 來日 靑北面에서 4名을 선
발하여 27일에 教育을 갈라고 아이들 데리고 素
砂호 갈까 하니 콤비組 내가 빠져서야 되겠느냐
고 졸라대며 마지못해 平澤으로 가기로 결정. 술
을 鄭昌煥 金方玉君과 같이 먹었다. ...

◎ 8월 27일 (음 7월 29일) 월요일

教育 次 平澤행. 教育 次 西井里行 첫 車로 7

時 30分에 到着하여 平澤의 農工훈련소에 가 入
所수속을 마치고 教育에 임했다. 잠자리가 不便
하여 郡에 와 말하여 旅館에 가 宿하게 되었다.
콘크리트 배합법, 세멘트관리법의 教育.

◎ 8월 28일 (음 8월 1일) 화요일

教育人員은 50名이라는 데 接受는 25名이다.
우리 面에선 나를 비롯하여 金壽國 金鍾萬 李
益宰가 대상이다. 다들 靑北面에선 수석급 里長
들이다. 오늘도 無事하게 教育을 마치고 益宰兄
에게 가 저녁을 먹고 旅館으로 왔다. 몇일 된 것
같다.

◎ 8월 29일 (음 8월 2일) 수요일

教育을 午前 中 하고 시험을 치르고 午後엔 진
흥 工事의 견습을 하라 갈다가 곳 집으로 오다가
西井里에 와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午後에 떠
나 집에 8時 頃에 着했다. 몇일만에 온듯하다.
남들은 돈을 벌라고 야단들인데 나는 돈을 내빌
게 된다.

◎ 8월 30일 (음 8월 3일) 목요일

安仲까지 10時까지 到着하라 하여 10時에 到着
하여 오늘도 教育은 실습으로 牙山만에 가 돌쌓
기 등을 보다가 동서 家에 잠깐 들렀다가 견습을
끝내고 午後에 歸家하여 教育科程을 마쳤다.

◎ 9월 1일 (음 8월 5일) 토요일

... 朝飯 後에 洞里 다니면 堆肥 동료를 하고
오니 面職員이 와 같이 다니고 나니 10시다. ...

◎ 9월 2일 (음 8월 6일) 일요일

三德校 理事會. (...) 下午 4時에 三溪에 나가
며 鍾植에게 大浩을 보고 집을 보아 달라고 付託
하고 舍에 나간다. 舍라야 金基準 校長에 送別
會와 運動會 件이었다. 金基準 校長은 郡장학
사로 가게 되고 本校에는 여주에서 부임하게 된
다. 理事 7名이 舍의 피로연을 갖게 되었다. 會
費 3,500원식 집에 오니 11時 頃이었다.

◎ 9월 3일 (음 8월 7일) 월요일

堆肥 동요 차 洞里를 一週하고 와 ...

◎ 9월 4일 (음 8월 8일) 화요일

午前에 新浦面에 갈다. 李창용군이 송아지를

얻어달라고 付託한 것이 어이 되었나 알아보기 爲해 總務係에 같다. 總務係에게 一金 參仟원을 던져 주고 부탁하고 송아지는 걸어가겠다고 하고 와 점심을 먹고 나니 面職員 3名이 와 테비를 돌아보고 안골祖 개를 도리키했다. 우리 집에서 도리키를 하고 저녁에야 도라갈다.

◎ 9월 8일 (음 8월 12일) 토요일

… 三德校長의 취임식에 늦게나마 참석하기로 가니 거의 헤어져가고 있다. 新就임 校長을 人事하고 술을 먹고 오니 저녁 멧게 되었다.

◎ 9월 12일 (음 8월 16일) 수요일

運動會. 接待 책임자로 일을 보았다. 運動會가 끝나고 결산을 보고 왔다. 찬조금이 86,700이라 접대비 수건대를 除外 40,000원이 나물 것 같다.

◎ 10월 14일 (음 9월 19일) 일요일 晴

… 朝飯 後엔 農村指導所 連立 推進委員會와 里長會가 있어 新浦에 나갔다. 會가 끝나고 늦게야 도라왔다.

◎ 10월 19일 (음 9월 24일) 금요일

… 來日이 里長들의 先진地 시찰 겸 海인사로 여행을 가는 날인데 포기했다.

◎ 10월 22일 (음 9월 27일) 월요일

… 午後에 동육골의 밭에 뒤엄을 실고 나니 담당의 李係長이 왔다. 來日 野遊會에 가자고 졸라되어 점심을 먹고 新浦에 가 理髮을 하고 英浩에게서 급히 돈을 갖고 오라고 하여 英浩를 오라고 전보울 치고 組合에 가 一金 35,000원을 찾아 갖고 來일 노리가기로 결정하고 왔다.

◎ 10월 23일 (음 9월 28일) 화요일

里長 크립 野遊會. 새벽 4時 半에 起上하여 서둘러 밥을 먹고 5時 20분에 出發. 新浦에 가니 車가 와 있다. 東部 里長들을 爲해 車는 동부에 갈다가 6時 4분에 出發할라니 여행 간다고 하든 분들이 다 오지 않아 人員이 不足이다. 40分名 예정이더니 30名뿐이다. 行事가 있어 面長도 못하고 副面長이 같다. 會費는 4,000원 豫定이던 것이 5,000원이나 들었다. 평택을 경유 高棧 道路로 大邱에 가 점심을 먹고 海印寺에 들리었다.

참으로 풍치 아름다운 곳이다. 단풍이 덮힌 海인사는 팔만대장경이 있다. 우리 일행은 海인사에서 숙했다.

◎ 10월 24일 (음 9월 29일) 수요일

海印寺에서 宿하고 우리 一行은 7時에 出發하여 大邱에 와 일정을 변경. 나의 요구대로 속리산으로 같다. 1時경에 到着하여 점심을 먹고 속리사로 같다. 유람인으로 덮힌 속리사는 과연 국보가 만다. 海인사의 미력은 歷史의 가치가 있다. 관광인의 빠쓰는 約 100여대 택시는 세일수도 없이 대차소가 꽂았다. 4時 半에 出發하여 저녁 9時 半 경에 着했다. 一金 8,000원이 집에 와 보니 거의 없다.

◎ 10월 27일 (음 10월 2일) 토요일

… 來日은 防衛協議會 會가 있어 會에도 나가야겠는데 일은 물리고 會는 잤고.

◎ 10월 28일 (음 10월 3일) 일요일

… 10時부터 防衛協議會라야 靑北 各 기관장 유지급 40名이 모여 越冬對策의 會이었다. 나도 찬조로 一金 貳仟원을 내기로 싸인을 하고 있다. 저녁엔 班常會를 열었다. 勤勉 儉素 節約의 氣風 같도록.

◎ 10월 31일 (음 10월 6일) 수요일

… 面에 會가 있어 갈다가 面長의 찬사의 대한 金里長들이 진정을 하게 되어 내가 진정의 초안은 했다. 이 진정의 件은 아직 시기가 상조한 듯하다. 會가 끝나고 오다가 …

◎ 11월 3일 (음 10월 9일) 토요일

今日 秋耕경진大會가 있어 洞里에서 누구을 보내야겠는데 脫穀으로 하도 바빠 마지못해 내가 나갔다. 里長급으로는 나위 1名뿐 직접 참가한 사람은 없다. 감도 좋은 논을 만나 600평을 1時間에 다 갈았다. 아주 빠른 속도라 제일 먼지가 아닌가 한다. 午後 5時까지인데 나는 그냥 집에 왔다. 저녁에 알아보니 종일 있었으면 득상권에 들었다고 한다. 里長이 직접 나갔다고 장려상을 주었다고 한다. 面長은 모범 里長이라고 경려도, 갈다 와 농꿀 벼을 끄디리다.

◎ 11월 5일 (음 10월 11일) 월요일

秋耕競進大會에 장려상장과 부상 삼 1個. (...) 일직 [벼를] 刈디리고 아는 벼를 손치고 할까 했더니 親友 鄭丟勳君과 申光秀君이 面일의 協議次 訪問했다. 李書記도 왔었다.

◎ 11월 9일 (음 10월 15일) 금요일

... 新浦에 가 面長을 만났다. 鍾植이 5級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는데 기재사항에 군인 제대라서 합격취하는 面長이 잘했노라고 하며 面內 일을 協助하라고 하며 권위 里長들과 잘 의논하며 하자고 한다. ...

◎ 11월 10일 (음 10월 16일) 토요일

... 朝飯食事 後에 新浦에 가 下午 2時 頃에 面廳舍의 落成式을 거행했다. 鍾植의 5級 公務試驗에 합격은 했으나 병역 귀정에 잘못 기재하여 무마조로 面長에게 前하라고 一金 30,000원을 갚다 주었다. 들에 벼못은 靑北面에서는 우리 洞里뿐인 듯하다. 面長과 各機關장과 술을 먹다가 2次로 옮겨 또 술을 먹게 되어 밤 12時 頃에야 집에 왔다. ...

◎ 11월 12일 (음 10월 18일) 월요일

... 三德校에서 會가 있어 學校에 갈다가 會를 마치고 面에 가 面長 上梁式을 보고 朴家도 결혼잔치에 들렀다가 面에 가 收得稅을 다시 조사하고 왔다. 거이 잘된 듯하다. 大休氏 家와 命植家가 많은 듯하다. 밤에 왔다. 面長 찬사의 陳情書 本文 作成. 今日 부치었다.

◎ 11월 16일 (음 10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 里長會가 있어 新浦에 나간다. 里長會가 있는 後 面長이 보자고 하여 가보니 長利米 25畝을 얻어 달라고 하여 반 승낙을 했다. 鍾植의 就職을 계기로 對話를 하여 아반님에게 議論해서 할 생각이었다. ...

◎ 11월 23일 (음 10월 29일) 금요일

... 午後엔 學校에 나간다. 學校의 연구발표會의 件이다. ...

◎ 11월 28일 (음 11월 4일) 수요일

... 妻 서울 가는데 一金 33,000원을 주어 보

내고 있다가 늦게야 도라왔다. 일직 올라고 하였으나 우리 크롭 몇 명이 모여 面長의 要求에 代하여 議論했다. 결논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안는 것이 좋다는 것.

◎ 11월 29일 (음 11월 5일) 목요일

참으로 氣分 나쁜 날이다. 앞 용수로 공사에 있어 대금을 금일까지 못 찾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못 찾았다. 몇일 前에 安仲에 또 가 알아보니 거이 밝은 전망이 있어 작인들의 의견을 들으니 安雨가 공사만 못하게 하면 된다고 하여 돈을 찾기는 오리무중이 되었다. 금년의 安雨를 찾아가 수속을 하여 보자고 하니 금년의 수확가지 찾을 수 있느니 또는 일을 못하게 하면 돈을 갚다 주느니 하며 오히려 이제까지 끌고 온 대대한 책임가지 지라고 하니 무식한 사람과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로서는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협조자가 적고 내 돈만 3,000원이나 소비을 했다. 2일에 다른 사람을 매길라고 하였으나 洞里 작인들이 떠매끼고서 이제 와서 책임가지 논의 하니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고 혼드는 격이다. 한 참이나 安雨와 말씨름을 하였으나 통하지 않고 무식만 털어 놓는다. 나는 결심을 했다. 洞里일을 그만두기로.

◎ 12월 4일 (음 11월 10일) 화요일 晴

... 우리 몇몇이 面長 家의 응접셋트를 기증했다. 일인당 2,500원식. 面長의 長利米 달라는 것은 떼야겠는데 큰일이다. ...

◎ 12월 10일 (음 11월 16일) 월요일 晴

12時 頃에 新浦에 나간다. 面長이 보자고 하여 가 보니 앞으로 面의 運用面의 말이었다. 各 里長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 일을 해야겠는데 姜鎔鎬 같은 사람이 나가니 큰일이라며 날더러 마음에 맞는 里長들의 명단을 해오라고 나도 그만두어야겠는데 부잡아 줄라대니 큰일이다.

◎ 12월 23일 (음 11월 29일) 일요일

同窓會. 자고 일어나니 많은 눈이 나리었다. 날씨도 쌀쌀한 날 零下 17度라고 한다. 아이들이 식전에 除草作業을 했다. 9時 頃에 出發 三溪 가

理髮하고 新浦에 가니 거이 다 모이었다. 모인 사람은 16名인 듯하다. 結算을 보고 나니 白米가 6畝 5斗이다. 그리하여 7畝를 만들기로 하고 모인 사람 중 1,500원식 더 짓고 어려운 사람 4名만 500원식 짓었다. 會費와 합해 2,000원을 내고 점심을 먹다 모자라 5名이 또 500원식 더 짓어 今日 나는 2,500원을 낸 셈이다. 下午 늦게 오는데 날씨도 차갑고 올 수 없어 三溪까지 택시로 와 내가 支拂 200원 또 냈다. 가로의 支出이 많으니 개운치 않다. 한 푼을 쪼개 쓸 心情이 2,700원을 썼으니.

◎ 12월 24일 (음 11월 30일) 월요일

金德壽 堤防農路 擴張 工事に 議論하자고 面長이 오라하여 新浦에 갔었다. 安祿榮君이 堤防의 돌을 주선하여 팔고 그 돈으로 하기로 覺書를 써 面長에 주고 우리는 立會人이 되었다. ...

◎ 12월 29일 (음 12월 5일) 토요일

... 10시부터 긴급會가 있어 가니 매상관계로이다. ...

◎ 12월 30일 (음 12월 6일) 일요일

面長이 新浦에서 만나자고 하여 午前 中에 面에 가 面長을 만났다. 安祿榮氏가 德壽家 堤防의 石축을 팔아먹는 관계로 面長이 분개하여 安氏와 三溪 高棧 革命村 大谷 등 里長있는 자리에서 堤防을 확장해주고 대형 노장을 놓아주기로 각서를 써놓고 우리 里長들의 立會下에 결정기로 하고 헤어졌다. 별일 없이 이 친구 저 친구 만나 해를 보내고 下午 늦게야 도라왔다.

◎ 12월 31일 (음 12월 7일) 월요일

... 下午 2시부터 職員의 종무식을 했다. 간단한 술잔치가 있었다. 늦게 도라오니 德雨 致雨 然雨 등이 와 今年度의 結算을 했다. 새마을사업의 결산이다. ...

IV.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

1959년

◎ 1월 6일 (음 11월 27일) 화요일 晴

... 鍾雨가 누어, 서울 皓植 學校先生 及 醫師 노릇하는 사람이 와서 鍾雨 보는데 갈다가 그럭저럭 해를 보내고...

◎ 1월 7일 (음 11월 28일) 수요일 晴

... 鍾雨 病으로 또 高棧서 醫師 왔다.

◎ 1월 10일 (음 12월 2일) 토요일

... 前夜에 皓植家에 巡警이 와서 皓植을 兵務 기피로 연행했다가 오늘 왔다.

◎ 1월 11일 (음 12월 3일) 일요일 晴

... 午後에 신문을 보고 있으니 成植 와서 巡警이 오래다고 해서 왜 물으니 모른다고 해서 兵務 召集 당했는 줄 알고 ...

◎ 1월 12일 (음 12월 4일) 월요일 晴

... 마을서 좀 있으니 鍾雨가 낚지 않아 漢醫가 와서 드러갈다가 왔다. ...

◎ 1월 19일 (음 12월 11일) 월요일 晴

... 午後에 마실 갈다가 鍾雨보라 醫師가 왔다고 해서 가보구 皓植 家에 의사와 같이 와서 놀다가 點心을 같이 하였다. ...

◎ 3월 31일 (음 2월 23일) 화요일 晴

... 自裁縫 상인을 만나 4萬圓에 달라니 안 दें다고 4萬6仟圓을 달라더니 4萬3仟圓까지 내리여 그냥 돌아섰다. ...

◎ 5월 11일 (음 4월 4일) 월요일 雲

... 夕飯을 마치고 있으니 농골서 사람 청년 二名이 큰집으로 가서 웬일인가 하고 건너가보니 記者란 사람이 와서 농골 柳氏 婦人 家(술장사)에 가서 不幸한 일이 있었다고 왔는데 잘못된 일도 없을 뿐더러 問題거리도 아니것만 돈 생각이 와서 온 것이다. ...

◎ 7월 16일 (음 6월 11일) 목요일 雲

... 新浦 藥局에 外上 700원을 잡고 와 ...

◎ 7월 17일 (음 6월 12일) 금요일 晴
 ... 面職員이 와서 家屋稅 받으러 와서 興植 家
 에 가서 借用해서 550원을 支拂했다. ...

◎ 7월 26일 (음 6월 21일) 일요일 晴
 朝飯 後에 모처럼 마실을 건너가 있으니 新浦
 藥種商 哲龍君이 와 나를 찾아보니 ...

◎ 7월 29일 (음 6월 24일) 수요일 晴
 ... 點心을 마치고 마루에 있으니 尹巡警이 와
 서 今週가 兵務召集志願者募集이니 알리느냐고
 왔다. (...) 夕飯 後에는 高棧서 醫師가 와서 놀
 라오라고 해서 놀라 갔다왔다.

◎ 8월 5일 (음 7월 2일) 수요일 晴
 ... 德雨氏가 참외장사 왔다고 해서 妻를 보내
 여 보리쌀 3升어치를 사다 먹었다. ...

◎ 8월 24일 (음 7월 21일) 월요일 晴
 ... 高棧 難民 장사 와서 外上 갑 大麥 1斗
 600원에 주었다. ...

◎ 9월 9일 (음 8월 7일) 수요일 雲
 ... 妻는 美容師가 洞里에 와 髮美容을 外上으
 로 했다. 一金 800원.

◎ 11월 5일 (음 10월 5일) 목요일 雲
 食前に 理髮 次 농골 같더니 理髮師가 아파 누
 어있어 그냥 와 朝飯을 마치고 興植 家 지붕일
 같다. ...

◎ 11월 16일 (음 10월 16일) 월요일 晴
 ... 眼鏡店에 와서 眼鏡을 1300원에 사고 일직
 집에 왔다.

◎ 11월 27일 (음 10월 27일) 금요일 晴
 ... 요즘 농골 難民事業所에 請負業者가 동리
 에 있게 되어 여러 사람 품 팔려 다닌다.

◎ 12월 12일 (음 11월 13일) 토요일 雲
 高棧事業所 請負業務員으로 任. 食前に 마
 당에 나가니 尹記士가 와서 찾아 나가니 오늘부
 터 우리 事業에 와 督士로 있어 달라고 해서 朝
 飯을 마치고 現場에 나가 첫날이라 만보도 주고
 했다. (...) 夕飯 後에도 事務室에 가서 일을 보
 고 왔다. ...

◎ 12월 30일 (음 12월 1일) 수요일 晴

... 夕飯 食事は 事業主 及 尹記士에게 술과
 떡국을 대접했다. 늦게 事務를 정리하고 늦게 도
 라왔다. ...

1960년

◎ 1월 7일 (음 12월 9일) 목요일 晴
 ... 나는 事務室로 와서 농골 難民이 作業場에
 와서 말뚝을 피여 所長과 타협을 지위 달래라 事
 業主 보고 가보라고 하고 집에 와 朝飯을 마치고
 現場으로 나가니 농골 靑年 둘이 나와 또 말
 뚝을 피여 作業하는 사람까지 氣分 좋지 않게
 하여준다. ...

◎ 1월 8일 (음 12월 10일) 금요일 雲
 ... 夕飯 後에 아버지가 孟植에게서 편진 안 오
 고 部隊長이 家庭通信만 오니 궁금하니 한 번 가
 볼 수 없느냐고 하여 일 중지하는 대로 가볼까
 하고 편지나 또 한 번 하기로 하고 편지 한 장을
 썼다. ...

◎ 1월 13일 (음 12월 15일) 수요일 晴
 ... 農業協同組合에서 斡旋하여 주는 날이 來日
 까지라 돈도 來日까지 納入해야 되는 고로 쌀 商
 人을 찾으니 배장이다. 하여 三溪 가서 다른 商
 人을 불러왔다. ...

◎ 1월 15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晴
 ... 여관으로 갈까 하고 있으니 組合長인 李敏
 恒氏 民議 투쟁에 第一 선구이신 李敏恒氏가
 집으로 가자고 권고하시어 組合長 집에 가 많은
 조흔 말씀을 밤늦게 듣고 있다가 아침저녁 대접
 을 잘 받고 도라왔다. ...

◎ 2월 29일 (음 2월 3일) 월요일 雲晴
 ... 아버지 家에는 변소와 닭장(鷄舍)을 진다고
 木수가 있다. ...

◎ 3월 9일 (음 2월 12일) 수요일 晴
 選舉運動은 自由黨뿐이다. 公務은 總出動하여
 每日같이 自由黨 選舉運動으로 事務는 등한시
 한다. 教育公務員도 오늘 이 동리에 왔다. ...

◎ 3월 10일 (음 2월 13일) 목요일 晴

食前에 農協幹旋肥料 두 組 追加金 55,260환을 걷어 高棧 組合長을 갈다주고 와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가니 ...

◎ 3월 27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 여기 우리 部務課長이 우리 일가 사람이라 말해보라 했것만 수수방관이다. (...) 前夜에 다섯재祖父가 就職 말이 나서 왜 그냥 있느냐고 농사에 취할 부치였느냐고 하며 내가 部內課長을 만나면 말한다고 하여 아주 고맙게 여기었다.

◎ 4월 9일 (음 3월 14일) 토요일 晴

... 點心을 마치고 나니 작은 숙모가 와서 巡警이 와서 前日 소를 실수한 것에 말없이 치우었다고 와서 말썽이라 넘어 가보니 벌써 떠나버리었다. 前日 警察도 왔다 같은데 먹자는 것이다. ...

◎ 4월 13일 (음 3월 18일) 수요일 雲晴

... 後坪 面長할아버지에게 가서 問議 次 갈다가 늦게 도라왔다. 우리 申氏가 어이하면 더 보람 있겠느냐고 하시며 날더러 面議員에 나와 보라고 권고하시여 사양하고 말았다. ...

◎ 8월 7일 (음 윤 6월 15일) 일요일 晴

... 午後에 도야지 장사가 와서 약조금을 3,000환 치르고 斤당 160환에 흥정했다. ...

◎ 8월 9일 (음 윤 6월 17일) 화요일 晴

... 밖에서 찾아 나가보니 도야지 장사가 와서 前에 160환(斤當)에 흥정해서 가져가기로 하고서 155환 준다고 해서 그리하면 못 가져 가것다고 해서 약조금 3,000환 받은 것 2,000환을 도로 反換하고 1,000환은 次後 주기로 하고 보냈다. ...

◎ 8월 29일 (음 7월 8일) 월요일 雲

... 朝飯 後에 동쟁이[통쟁이]가 와 통을 테를 미고 자백이 테를 미고는 四百圓을 주었다. ...

◎ 9월 21일 (음 8월 1일) 수요일 晴

... 오늘 生産고 調査를 다니는데 큰아버지와 面書記 一名 둘이 잡는데 우리 벼는 기준으로 잡았다. ...

1961년

◎ 1월 27일 (음 12월 11일) 금요일

... 동태장사가 와서 오징어 한 코를 사고 또 한 코를 사서 저녁에 도리기를 했다. ...

◎ 1월 28일 (음 12월 12일) 토요일

... 저녁에는 新浦의 寫眞師가 와서 仁成 家에서 한참 놀다가 도라왔다.

◎ 1월 29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 洞里 處女들이 일제히 寫眞을 찍고 또 美容師가 와서 또 머리를 짓고 한다. ...

◎ 2월 3일 (음 12월 18일) 금요일

... 집에 오니 炳賢 母와 高棧 장사(영백씨 婦人)이 와 白米 五呔를 高棧 장사를 주라해서 15呔 줄 것에 5呔를 내주기로 하고 ...

◎ 7월 13일 (음 6월 1일) 목요일

... 面書記가 와 각 雜種 產出 調査와 심지어는 꼬초장, 된장 등을 다 調査해 갈다. 우리 國民이 믿고 살 수 있는 政府가 될 것인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쉬쉬하고 있으니 군대식이다. 온 公務員은 명찰을 달고 있다. ...

◎ 7월 23일 (음 6월 11일) 일요일

... 瑞山 아주머니 家에 웬 중이 왔는데 알고 보니 큰할아버님 의붓딸 鳳雨라는 女人인데, 우리는 아주 모르는 사람이고 3살 먹어 나가 한번인가 왔다간지 20餘年이라고 하니 누구 한 명 아는 사람 없다. 前日 왔다는데 四柱를 잘 본다 하여 큰마루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었다. ...

◎ 7월 25일 (음 6월 13일) 화요일

... 저녁에는 靑北高等公民學校에서 職員 1名과 學生 4名이 啓蒙을 나와 건너가 보았다. 농촌을 살려 教育勢을 살리자 등 夏期 위생에 대해서도.

◎ 7월 29일 (음 6월 17일) 토요일

... 午後에는 悠雨가 와서 초소에 나온 순경들이 몇일 있으면 간다니 술이나 같이 나누자고 해서 ...

◎ 12월 12일 (음 11월 5일) 화요일

… 저녁나절 큰아버지가 옹포의 金龍浩 醫師가 디운데[덴 곳]에 바르는 좋은 藥이 있다 해서 단걸음에 뛰어갔다와 왔다. …

◎ 추기

申春植 서울 혜화동 10九~2 남궁세탁소

1962년

◎ 2월 13일 (음 1월 9일) 화요일 晴

朝飯 後에 아변님이 新浦에 가서 醫師를 불러 오라 해서 朝飯을 마치고 新浦에 나가 醫師를 오라하니 다른 곳으로 왕진을 가셨다 해서 그냥 도라왔다. …

◎ 2월 18일 (음 1월 14일) 일요일 晴風

… 新浦에 가 醫師를 불러하니 없어 못 보고 藥注射만 갖고 드러왔다. …

◎ 3월 2일 (음 1월 26일) 금요일 晴

지게 걸다. 朝飯 後에 지게다리 구해 논 것이 있어 지게를 걸라 했으나 잘 안 된 것 같아 木手 顯雨氏에게 갈다 길어 달라하고 手工費로 穀草 10束을 드리고 같이 협조해 걸었다.

◎ 3월 17일 (음 2월 12일) 토요일 雲

… 순경이 엽총을 갖고 와 사냥가자고 해서 같이 사냥을 갔다 왔다. …

◎ 3월 25일 (음 2월 20일) 일요일 雲雨

… 저녁엔 부르러 와 가보니 金巡警이 注射(血管)을 놓아달라고 와 가서 놓아주었다.

◎ 4월 22일 (음 3월 12일) 일요일 晴

… 孫巡警이 술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을 午後에는 집에서 대들을 손질했다. …

◎ 7월 7일 (음 6월 6일) 토요일 晴

… 농골 鹽部長 婦人이 와서 나무와 소곰과 交煥하자고 해서 나무 3동을 주었다. …

◎ 8월 1일 (음 7월 2일) 수요일 雲

… 水原 작근아변님이 오시었다. 公務員을 4日 間식 休日을 해주어 오셨다가 들리었다. (….) 夕

飯은 金巡警이 같이 合同으로 하자 해서 집에 와 金巡警과 같이 밥을 저 먹었다.

◎ 8월 4일 (음 7월 5일) 토요일 晴

… 點心은 巡警들과 함께 장국을 했다. …

◎ 8월 12일 (음 7월 13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を 하고 마실 갈더니 金巡警이 原木에 배 왔다는데 같이 가자고 하기에 같이 갔다. (….) 原木에 가 根植이 가서 좀 있다가 배에 가서 金巡警이 새우젓과 강다리 댕 사발 얻어갈고 오다가 根植의 가에서 點心을 얻어먹고 왔다. …

◎ 8월 14일 (음 7월 15일) 화요일 雲雨

… 午鍾 頃에 갈고 와 羅巡警과 金巡警이 高棧을 가자고 해서 高棧 가서 술을 먹게 되어 나토 술 한 병을 사게 되었다. …

◎ 8월 20일 (음 7월 21일) 월요일 晴

午前 中 羅 金 두 巡警을 술을 대접했다. 點心도 같이 했다. …

◎ 9월 15일 (음 8월 17일) 토요일

午前에 靑北 支署長이 와서 10時 頃에 洞民 男女를 모아놓고 몇 가지 指示事項과 注意를 주었다. …

◎ 10월 26일 (음 9월 28일) 금요일

… 自轉車를 얻어다가 일직 新浦 病院에 갔다. 마침 醫師가 있어 곳 治療를 받았다. 상처를 4바늘 꼬매었다. 그만 하기가 다행이다. 곳 집에 왔다. 治療費는 120원을 주었다. …

◎ 12월 19일 (음 11월 23일) 수요일 雨雲

… 公販場이 三溪인데 날 일기가 곳은 날인고로 公販이 스나 헛터니 檢査員이 왔다고 해서 비오는데도 벼 1畝를 아변님 家와 합해 갈고 나갔다. …

1963년

◎ 1월 1일 (음 12월 6일) 화요일 雪雲

… 妻家엔 昨年에 처남이 米穀장사 하다가 실패하여 今年에 定理하느라고 좋은 논 3마지기를

賣度해서도 不足이라고 한다.

◎ 1월 31일 (음 1월 7일) 수요일 晴

… 술과 국수를 나누고 羅刑査를 오라고 했다. 羅刑査는 나와 막역한 사이고 우리 洞里에 와서 6個月間 海岸 경비를 해서 잘 아는 사이다. 술을 같이 나누고 난 後에 羅刑査는 우리 洞里에서 잊었던 겸손한 태도는 없어지고 해서 아주 미안했다. 巡警이란 것이 본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

◎ 3월 2일 (음 2월 7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を 하고 아번님 家에 오늘 木手が 와 일을 하여 봉죽을 午前中 하고…

◎ 3월 12일 (음 2월 17일) 화요일 晴

이 해 박는 사람이 와서 어금니가 빠진 것을 해박으려고 찍었다. 그리고 白米로 1斗 2升을 주었다. 來日 해박으려 갈려고 한다. …

◎ 4월 10일 (음 3월 17일) 수요일

… 저녁엔 모처럼 映畫구경을 갔었다. (싸우는 사자들) 李巡警이 구경을 시켜주었다. …

◎ 6월 12일 (음 윤 4월 21일) 수요일 晴

食前に 논을 一週하고 있으니 李巡警이 巡察 나와 같이 오게 되어 집에 술도 한 잔 있고 해서 같이 드러와 술 한 잔 같이 나누고 朝飯食事も 같이 했다. …

◎ 8월 8일 (음 6월 19일) 목요일 晴

… 마실을 갈더니 朴巡警이 술을 1斗 갖고 와 洞里 靑年들과 같이 會食을 했다.

◎ 8월 19일 (음 7월 1일) 월요일 晴

… 통미는 사람이 와서 통을 60원에 미고 點心을 대접했다. …

◎ 11월 8일 (음 9월 23일) 금요일 晴

… 3時부터 演說인데 哨所巡警들과 點心을 우리 집에서 같이하고 기다리다가 時間이 지남데야 新浦에 갔다. …

◎ 11월 14일 (음 9월 29일) 목요일 晴

… 도야지를 잡아 갖고 新浦푸주간으로 가지고 갔다. 斤數 150근.

◎ 11월 22일 (음 10월 7일) 금요일 雲

… 官權發動으로 平澤 古德巡警이 다 不正選舉를 폭로했다고 新聞에 났다. …

◎ 12월 2일 (음 10월 17일) 월요일 雲明

朝飯食事後에 마실을 갈더니 朴巡警이 高棧 文雨家 잔치에 오라고 기별이 왔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끌려 高棧 가서 午鍾이 기울러서야 왔다. …

◎ 12월 12일 (음 10월 27일) 목요일 晴

… 午鍾에 軍稅를 지불하고 朴巡警과 吳巡警이 三溪 가자고 해서 悠雨, 仁性 等과 같이 가 400 여원어치 술을 먹고 왔다.

◎ 12월 17일 (음 11월 2일) 화요일 雲 細雨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해서 종일 鄭巡警과 朴巡警과 함께 뽕을 하고 노랐다. …

◎ 12월 25일 (음 11월 10일) 수요일 晴

… 날이冷하여 마실 사랑방에서 있노라니 床商人이 와 흥정 끝에 교제상[교자상] 900원 달라는 것을 440원에 샀다. …

◎ 12월 26일 (음 11월 11일) 목요일 晴冷

… 朝飯後에 安仲場에 갔다. 몸에 이상이 있는 곳 해서 病院에 가 진찰을 해 보니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한다. …

1964년

◎ 1월 13일 (음 11월 29일) 월요일 雲

… 새로운 李巡警이 原木에 地域을 답사할 겸 같이 가자고 해서 原木으로 해서 高棧으로 와 젊은 사람과 닭내기 뽕을 하고 놀다가 저녁까지 놀다가 와 집에 와 있으니 支署長이 놀라온다고 해서 마실가 있으니 支署長과 鄭巡警이 와 같이 닭을 잡아먹기로 하고 놀다가 …

◎ 1월 14일 (음 11월 30일) 화요일

朝飯食事後에 마실 갈다가 李巡警이 哨所도 갈 겸 散步을 가자고 해서 一週하고 우리집으로 와 어제 한 만듯국을 같이 하고 마실갈더니 支署長이 뽕-을 하자고 해서 닭내기 뽕을 했다. …

◎ 1월 27일 (음 12월 13일) 월요일 晴

食前に 高棧 敬浩가 와 眞植 논 말하든 것을 또 말하여 승낙을 했다. 종일 李巡警과 새끼를 꼬고 잇다가 저녁 後에 아주 契約을 하자고 해서 興植家에 가 契約을 했다. ...

◎ 1월 28일 (음 12월 14일) 화요일 雲雨

... 前日 興植氏 附託으로 測量技士을 알아볼 겸 後坪祖母任 回甲에도 갈겸 高棧으로 떠나 敬浩와 함께 原木으로 해서 개섬까지 가 尹基和를 만나보고 後坪으로 가 ...

◎ 2월 18일 (음 1월 6일) 화요일 晴

... 支署長과 鄭巡警과 같이 술을 많이 먹어 취했다. ...

◎ 3월 23일 (음 2월 10일) 월요일 晴

... 朝飯食事後에 安仲으로 敏子의 新婚禮式을 하는데 李巡警이 와 같이 가자고 해서 일직 新浦로 해서 安仲에 같다. 洞里에서도 몇이 같다. 面에서도 몇 명 支署主任, 우체국長, 面長 등이 모두 왔다. ...

◎ 4월 28일 (음 3월 17일) 화요일 晴

오늘 회선노리갈 고로 食前 일직 논을 一週하고 朝飯 일직하고 떠났다. (...) 點心을 해 먹고 놀다가 물이 들어와 떠났는데 船長이 술이 취해 못오고 ...

◎ 8월 1일 (음 6월 24일) 토요일 晴

... 水原郡廳의 양정계원은 업무상 횡령으로 투옥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

◎ 10월 28일 (음 9월 23일) 수요일 晴

前日 則量 技師가 와서 大谷洞 안 李鍾羽의 땅을 分割則量을 始作해서 오늘 끝났다. ...

◎ 12월 15일 (음 11월 12일) 화요일 晴

... 午後 늦게는 三德國民學校 先生들이 왔다.

1965년

◎ 1월 22일 (음 12월 20일) 금요일 晴

다섯째 祖家 도지소 실수한 것을 오늘 수의사

가와 본 後에 잡탕을 했다. ...

◎ 2월 19일 (음 1월 18일) 금요일 晴

... 朝飯食事後에 마실 갈더니 白巡警이 와 술한 잔을 같이 나누기로 집으로 데리고 왔다. 우리 둘은 취했다. 우리 집에 와 떡국을 끓여 먹고 마실갔다. 白巡警은 가고 나는 마실 가 놀다왔다.

◎ 2월 28일 (음 1월 27일) 일요일

... 장화 때우는 사람이 와 長靴을 80원에 때웠다.

◎ 3월 17일 (음 2월 15일) 수요일 晴

... 命植이 대단해서 醫師가 드리왔다. 面書記, 鄭書記가 와 家屋稅을 支拂했다. 82원인가 인데, 白원을 주고 차後 里長任과 의논하기로 했다.

◎ 4월 19일 (음 3월 18일) 월요일 雲

食前に 논을 一週타가 아번님家 버찌 치는데 같이 치고 食事 後엔 학교에서 교장과 약속이 있어 松炭을 가기로 해서 떠나 교장 부회장 나 三人이 10時 半 車로 떠나 平澤 教育廳을 경유 松炭에 도착해서 韓民洙을 訪問할라고 하니 곳 출장 준비 중이라 해서 집에서 잠깐 만났다. 韓民洙는 美公報官이라 學校 4教실 확장할라는데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다. ...

◎ 4월 22일 (음 3월 21일) 목요일 雲 細雨

10時에 三德校에서 校長과 만나 같이 松炭을 가기로 한 것이 내가 늦어 車時을 놓쳐 기다리다가 떠나고 나는 12時 半 車로 方連植과 같이 떠나 松炭을 가서야 校長을 만났다. 내가 안 가는 줄 알고 高棧 重植을 데리고 같다. 3時 頃에 韓民洙가 잇는 飛行場을 방문했다. 만나 學校 教室문제를 말하고 韓民洙가 飛行場을 구경시켰다. 飛行場은 內가 平澤邑보다 더 크다. 늦게 떠나 平澤에서 대접해서 新蒲와 술집에서 술을 먹고 11時 頃에야 집에 왔다. ...

◎ 5월 15일 (음 4월 15일) 토요일 晴

... 三德國民學校 先生들이 오늘 大谷으로 놀라온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떡을 쪄 했다. 안골 祖家에서도 했다. 教職員들이 술 3斗을 같고 와 參席人員 10餘名이 其他 附담을 책임졌다. ...

◎ 6월 19일 (음 5월 20일) 토요일

朝飯食事 後에 春植이 돈 30만원환을 (正初을) 팔아 달란다고 米商人을 보고 오라해서 洛光을 보고 왔다. ...

◎ 7월 24일 (음 6월 26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後에 國民學校에 理事會에 參席했다. 오늘도 不便한 몸이다. 先生任들과 얼리어 술을 많이 먹었다. 나도 술을 한 차례 받았다.

◎ 8월 10일 (음 7월 14일) 화요일

三德國民學校 校長 校監 等 被訪. 朝飯食事 後 농꿀 가 모짜리 한 곳의 除草을 하고 도라오니 學校 先生들이 찾아왔다. 學校問題 議論 次 被害 人便 겪 왔다. 木曜口에 松炭을 갈다오자고 해서 應했다. 先生들은 집에서 點心을 먹고 下午에 떠났다.

◎ 8월 12일 (음 7월 16일) 목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三德學校에 가니 校長先生은 新浦로 떠났다고 한다. 新浦에 가 교장을 만나 서정리로 출발했다. 서정리에 11時 頃에 到着하여 韓根錫氏을 第一다방에서 만나 學校 校舍에 관한 의논을 하고 下午 6時에 韓民洙氏을 만나도록 時間을 짜고 서 잇으니 5時 30分 頃に 韓民洙氏가 에 불 일 있어 떠난다고 해서 못 만나고 水原에서 大湖旅館에서 宿하고서 來日 韓民洙氏를 만나기로 했다.

◎ 9월 7일 (음 8월 12일) 화요일 晴

... 會案은 집에서 아른 일과 같이 先生間에 鬭爭으로 學生들에 惡教育이 되었으며 學校의 公기물을 파게 하는 등의 不常事가 있어 오늘 會을 소집하는 것이다. 잇을 수 없는 술을 먹고 先生間에 싸우는가 하면 學校의 公物을 파게 했다는 것은 生覺조차 어려운 것이다. 理事들은 모두 분개했다. 이러한 先生에게 아동을 막길 수 없다는 父兄들이 잇는가 하면 先生들 모두 내보내기로 상신하자는 등 말이 잇었으나 先生도 人間인 이상 감정이 잇고 한 것이니 한 번 실수 병가의 상사격으로 돌려 판대 초치 하고 先生들이 차후 이러한 일이 없기를 약속하고 산회했다. ...

◎ 10월 17일 (음 9월 23일) 일요일

... 部落의 담당 洪書記가 里長을 찾아오다가 없다고 生産고을 왔는데 같이 좀 하자고 해서 집에서 술 한 잔 대접하고 그냥 앉아서 했다. ...

◎ 10월 31일 (음 10월 8일) 일요일 雲晴

... 장巡警이 食前에 와 오늘 가겠다고 人便次 왔다. 그래 술 한 잔을 대접했다. ...

◎ 11월 10일 (음 10월 18일) 수요일 雲

할 일은 많으나 今般 장마도 일감이 마땅치 않아 午前 中 그럭저럭 張巡警 移舍하는데 協助하고 下午엔 집가리를 손질했다. (...) 藥行商人이 와 줄라대여 어린이 보약 노절정이란 藥을 外上 400원에 샀다.

◎ 12월 4일 (음 11월 12일) 토요일 晴

... 致雨家에서 白米 2畝 長利 먹은 것을 白米 2畝를 실어다주어 鄭巡警이 受하고 利子는 못 가져 갔다. ...

◎ 12월 22일 (음 11월 30일) 수요일 晴

... 高棧서 도라와 잇으니 安仲農協書記가 왔다. 洞里舊賃가 1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

1967년

◎ 1월 5일 (음 11월 25일) 목요일

... 春植을 만나 朝飯食事하고 漢藥房에 들리었다. 진찰하니 신경성위장염이라고 한다. 약을 20첩 먹으면 효력이 있다고 한다. ...

◎ 1월 9일 (음 11월 29일) 화요일

... 安仲의 사法書士에게 果樹園 登記簿登本을 해달라고 一金 200원을 주고 來日까지 보내달라고 말하고 왔다.

◎ 1월 21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 저녁나절 三德國民校 校長이 訪問했다.

◎ 1월 30일 (음 12월 20일) 월요일

朴巡警이 오늘 傳令發令이라고 哨所을 떠나게되어 우리일도 몇일 해주고 아주 좋은 巡警이다. ...

◎ 2월 3일 (음 12월 24일) 금요일

… 果樹園 登記가 잘 안되는 듯하니 平澤까지 가자고 졸라대며 마지못해 떠나 三浦가 理髮을 하고나니 5時다. 급히 平澤에 가니 7時. 증량기 사을[측량기사를] 만나니 사측을 한 것 같다. …

◎ 3월 22일 (음 2월 12일) 수요일

… 앞堤防修理하는데 郡守에게 陳情을 했는데 古吹 신청한 것이 1,000가 결정났다고 회신이 왔다. …

◎ 4월 27일 (음 3월 18일) 목요일

… 食前に 푸다가 일꾼보고 푸라 하고 朝飯食事後에 木手が 일할라면 하라고 해서 土植家에서 집을 들고 …

◎ 6월 4일 (음 4월 27일) 일요일

… 新浦에서 도라오니 共和黨 組織部長이 왔다. 이 部落에 一金600원이 나왔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待接할수 없다고 했더니 다시 한 번 들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 6월 17일 (음 5월 10일) 토요일

… 앞 보리를 비고 있으니 悠雨氏가 와 仁性家の 소가 죽었으니 어이하면 좋겠느냐고 와 건나가 처분할라고 서둘렀다. 좀 있으니 수의가 와 잘 해 보냈다.

◎ 7월 5일 (음 5월 28일) 수요일 晴

8時半頃에 學校에 가 校長과 玉吉里로 二放室 増築費 徴收 次 떠났다 佳寺部落을 거쳐 新基元玉吉 등 部落을 다녀왔다. …

◎ 9월 5일 (음 8월 2일) 화요일 雲

… 大休氏家에 소가 별안간 누어 가보니 아주 심하다. 수의가 와 보구선 自信이 없다고 한다. …

◎ 9월 21일 (음 8월 18일) 목요일

… 徐巡警이 핑을 잡아와 우리 집에서 술과 夕飯食事を 같이 했다.

◎ 9월 25일 (음 8월 22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高棧精米所에 같다. 故障은 아직도 못고치었다. 天安가서 기술자를 불러다 修理 中에 있어 午前 中 기다리다가 점심을 먹으

려 와 찰벼을 저드리고 또 精米所에 가 찌여갈고 마끼고 왔다. …

◎ 10월 18일 (음 9월 15일) 수요일 晴

… 白米 2마는 쌀상인에게 賣渡하고 7,600원 18斗을 집으로 가져왔다.

◎ 11월 3일 (음 10월 2일) 금요일 晴

… 下午에 徐巡警이 오라해서 가보니 닭을 悠雨家에서 잡아 술을 먹고 있으며 오라해서 먹고 우리 집으로 와 닭을 잡아 술을 밤이 깊도록 노랐다. 徐巡警, 朴巡警, 鄭龜海, 悠雨 等 속이 不便하여 술은 입에도 대지 못했는데 술을 먹기는 하나 잘 소화 식힐것인지? 먹으면서도 조심이 된다.

◎ 11월 8일 (음 10월 7일) 수요일 雨雲

… 비는 제법 나리여 朝飯後까지도 나리여 누어있으니 徐巡警이 와 徐巡警이 잡아온 오리고 기을 술과 같이 먹었다. 下午 늦게야 집에 왔다.

◎ 11월 11일 (음 10월 10일) 토요일 晴

… 奉事公時祭에 갈다가 楊州時祭에 내가 가기로 하고 妻 場에 가 도야지 새끼 사오는데 마중가니 그냥 와 나는 三溪에 가 理髮을하고 校長과 술을 대접했다.

◎ 11월 18일 (음 10월 17일) 토요일

… 新浦에가 재무主任을 만나 收得을 잘 보살펴 달라고 하고 집에 와 哨所에 호을 파라 가는데 같았다.

◎ 11월 24일 (음 10월 23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を 하고 高棧精米所에 가보았다. 벼가 마가 마치 共販場과도 같이 쌓이였다. 벼 같다 놓은지 10日 내지 15日 걸린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언제나 搗精을 할 것인지? 당장 김성메기가 떨어져 간다. 언제나 搗精을 하게 될 것일까? 기관수가 서투르니 매일 고장이다. …

◎ 11월 28일 (음 10월 27일) 화요일 雲

… 夕飯食事後에 마실 갈다가 徐巡警과 朴巡警이 三溪에 가자고 졸라대며 밤 10時頃에 三溪酒店에가 밤 3時에 집에 왔다.

◎ 12월 10일 (음 11월 9일) 일요일 雲

… 下午에 집에 와 술을 대고 저녁 먹고 마실꾼이 오기를 기다리고 누어있으니 徐巡警이 와 가자고 해 德雨家에가 평을 오늘 낮에 잡은 것을 德雨家에서 해 밤참을 먹었다.

◎ 12월 18일 (음 11월 17일) 월요일 晴

… 술에 취한 김에 三溪酒店에 가기로 해서 悠雨, 德雨, 徐巡警, 鄭巡警 등이 三溪에 가 一金 仟원어치 술을 먹고 놀다왔다. …

◎ 12월 20일 (음 11월 19일) 수요일 雲

… 저녁나절은 李巡警 徐巡警 等 다 같이 술을 먹었다.

◎ 12월 26일 (음 11월 25일) 화요일 雲

朝飯食事後에 마실가 徐巡警을 만나 사냥가자고 해서 동옥골 가 토끼를 發見 쫓아가다가 허탕치고 말았다. …

1968년

◎ 1월 7일 (음 12월 8일) 일요일

床修理行商人.

◎ 1월 8일 (음 12월 9일) 월요일

面書記가 와 賣上하라 졸라대어 1呎 하기로 했다. …

◎ 1월 9일 (음 12월 10일) 화요일

徐巡警이 서둘러 저녁에 술을하여 …

◎ 1월 19일 (음 12월 20일) 금요일

三溪 共販 1呎52份을 내가게 되어 1呎 52份에 大休氏家에서 채워 2呎을 실고 나갈터니 檢査원 (금사원)과 組合 面에서 안나와 맥기고(文氏家)에 …

◎ 1월 20일 (음 12월 21일) 토요일

오늘도 朝飯後에 高棧 가 쌀돈을 내여 來日 安仲場에 소감을 같다 졸라고 같다가 쌀 商人을 못 만나 좀 있다 오니 점심때가 되었다.

◎ 1월 21일 (음 12월 22일) 일요일

食前에 쌀상인 高棧 原植이 와 白米 2呎代와 2,000원 借用해 온 것을 손해 3呎 값 9,300원

을 받았다. 午전에 들려 安氏 牛商人 우리소 개우한 것 9,000원 주고 (….) 北韓에서 間諜이 왔다고 정보계장과 정보계 형사가 와 朴刑査이 우리 집에서 宿했다.

◎ 1월 22일 (음 12월 27일) 월요일

아의 피해도 鐘路警察署長이 죽고 일반 양민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 1월 28일 (음 12월 29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を 하고 쇠연장 드릴 새끼를 꼬고 있으니…

◎ 2월 24일 (음 1월 26일) 토요일

午後에는 高棧 1精米所 請負業者(도지)가 오늘 고사를 한다고 請하여 高棧을 갔다.

◎ 2월 26일 (음 1월 28일) 월요일

春植이 왔다. 安仲果樹園主人과 같이 왔다.

◎ 3월 20일 (음 2월 22일) 수요일

朝飯을 사먹고 전지할 돈을 받고 과수원 主人은 서울로 떠나고 …

◎ 5월 1일 (음 4월 4일) 수요일 晴

… 理髮師가 와 理髮하라고 해 팬신이 일어나 理髮을 하고 …

◎ 7월 24일 (음 6월 29일) 수요일 雲晴

… 점심을 먹고 三溪의 姜氏에게 쌀갑으로 一金 1,500원을 내갔고 新浦치과에 가 아을 해 끼우었다. 치아가 좋지 않아 당장 또 해 끼우어야 할 이가 몇 개 더 있다. 아직도 음식물 먹기가 좋지 않다. 억음이 4개를 뺐으니 치아가 반 이상 없는 셈이다. …

◎ 7월 26일 (음 7월 2일) 금요일 晴

… 三溪 姜氏 쌀 商人에게 白米 1呎을 주고 一金 2,500원 받았다. …

◎ 8월 12일 (음 7월 19일) 월요일 晴

… 房뜻는 기술者가 별수 없다. 우리는 기술者を 얻어 방을 뜻어 본적이 없다.

◎ 9월 30일 (음 8월 9일) 월요일 晴

… 下午에 도야지상이 와서 졸라대어 도야지를 팔았다. 몇일전에 16,500원 주겠다는 것을 안팔았더니 16,000원에 팔았다. …

- ◎ 10월 19일 (음 8월 28일) 토요일 晴
 ... 夕飯을 마치고 나니 농골서 四柱 보는 사람이 왔다. 우리 집에서 보았다. ...
- ◎ 11월 10일 (음 9월 20일) 일요일 雲
 ... 곳 집을 지어야겠는데 큰일이다. 孟植과 같이 첩보를 마끼기로 하고 資料는 대여주고 일만 木手 미장이 等은 下請을 매끼었다. 대충 계산해보니 建坪 12坪 정도에 約 20만원 이상 들겠다. ...
- ◎ 11월 20일 (음 10월 1일) 수요일
 ... 오늘은 개와 쟁이와 木手을 점심을 해 주었다. 一金 500원을 주어 쌀을 사고 400원어치 술과 담배를 사 같고 대접 했다. ...
- ◎ 11월 26일 (음 10월 7일) 화요일
 ... 쌀 상인 相得에게 일금 20,000원을 집에 갈다가 아번님을 드리라 했다. ...

1971년

- ◎ 1월 11일 (음 12월 15일) 월요일 晴
 朝飯後에 高棧 木手이신 瑞雨氏에게 木材파악을 하고 下午에야 와 나무를 베끼었다.
- ◎ 2월 6일 (음 1월 11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高棧가 장척을 같고 木手아저씨와 같이 와 장보감을 보고 敦植을 데리고 비였다. ...
- ◎ 2월 12일 (음 1월 17일) 금요일 晴
 ... 오늘부터 일을 始作한다고 했으나 木手아저씨가 3日後에 始作하자고 해서 그리 하기로 했다. ...
- ◎ 2월 15일 (음 1월 20일) 월요일 晴
 ... 오늘부터 집지를 始作한다더니 날씨가 좋아 앉아서인지 木手が 안와 敦植家에 가 연장귀를 저오고 일을 알아보라고 하니 高棧 같다 와 來日부터 始作한다고 하더라고 ...
- ◎ 2월 17일 (음 1월 22일) 수요일 태풍
 ... 오늘도 午前中 풍산한 날씨라 木手が 앉았

다. 10時頃에 木手아저씨가 오시여 午後에 敦植과 같이 今年에 산 산에서 나무 중방도리를 7개 비여왔다. ...

- ◎ 2월 18일 (음 1월 23일) 목요일
 날씨는 冷한 편이나 木手아저씨와 敦植이 와 일을 했다. 기둥 마른개질이 거이 다 끝나간다. 敦植은 나무를 다듬었다. ...
- ◎ 2월 26일 (음 2월 2일) 금요일
 ... 敦植은 대패질하고 木手아저씨는 대공거리와 평고자 6개 손질로 해을 보냈다. ...
- ◎ 2월 27일 (음 2월 3일) 토요일
 敦植은 대패질하고 木手氏는 종일토록 장보를 마른개질 했다. ...
- ◎ 3월 1일 (음 2월 5일) 월요일
 집 헐다. 前日 집을 헐어야 木手が 일머리를 제대로 차리는 것인데 일머리가 제대로 재피지 않아 주저한다. ...
- ◎ 3월 2일 (음 2월 6일) 화요일 雨
 ... 木手는 일머리를 제대로 못차린다.
- ◎ 3월 3일 (음 2월 7일) 수요일 雲
 ... 木수도 늦게 와 오늘은 일은 못하고 대패 집이나 파겠다고 하고 敦植은 서울서 電報가 와 서울 같다. 집토는 오늘도 닦았다. ...
- ◎ 3월 4일 (음 2월 8일) 목요일 晴
 共和黨 관리장 관리차장 郡黨 조직부장 訪問. (..) 敦植은 서울 가 못오고 瑞雨 木手만 오시였다. 집토 닦는 것은 오늘까지 닦았으나 만족할 만은 못하나 많이 나추었다. 바닥이 돌바닥이라 매우 나쁘다. ...
- ◎ 3월 6일 (음 2월 10일) 토요일
 오늘부터 敦植과 두 木手が 같이 했다. 오늘 정초가 끝났다. 정초를 前日부터 2日間이나 했다. ...
- ◎ 3월 8일 (음 2월 12일) 월요일
 共和黨 관리 次長 병태가 왔다 같다. ...
- ◎ 3월 9일 (음 2월 13일) 화요일
 ... 前夜에 함석공이 왔다갔다. ...
- ◎ 3월 15일 (음 2월 19일) 월요일

… 食前에 톱을 가질라 개미꼴에 가서 톱을 얻고 함석공도 만나보았다. 2, 3日 後에 오겠노라고 한다. 오늘도 부연 개판까지 하고 來日로 새를 올려도 좋겠지만 날씨가 冷하고 함석공이 3日 後에 곳 올른지 확실치 않다. …

◎ 3월 16일 (음 2월 20일) 화요일 雨

… 午前에 농골 갈다가 와 仁川아주머니 注射을 놓아주고 下午늦게 날씨가 든듯하여 개미꼴에 가 함석공을 만났다. 일거리가 많아 못 오겠다는 것을 사정하여 2日 後에 오기로 합의를보고 돌아왔다. …

◎ 3월 18일 (음 2월 22일) 목요일 晴

… 午後에 함석공이와 곳 덧집을 짓기 始作했다. …

◎ 3월 19일 (음 2월 23일) 금요일 晴

木手는 안오시고 敦植이 수고했다. 함석공은 덧집을 다 짓고 後面은 함석을 부치었다.

◎ 3월 20일 (음 2월 24일) 토요일 晴

… 敦植이 종일 協助하고 木手아저씨도 協助했다. 지붕을 해 이우고 나니 아주 개운하다.

◎ 3월 21일 (음 2월 25일) 일요일

문을 중방 대패질. (….)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木手일을 始作했다. 木手 2명이 모두 와 문꼴의 마른개질 급[밋] 대패질을 했다. …

◎ 3월 22일 (음 2월 26일) 월요일

… 木手아저씨는 문중방 흠을 파고 敦植은 문중방 대패질을 했다. …

◎ 3월 23일 (음 2월 27일) 화요일

… 왕겨는 木手아저씨 家에 드리다.

◎ 3월 24일 (음 2월 28일) 수요일 雲

… 木手아저씨와 敦植은 종일 門꼴을 드리였으나 안방문앞 같고 종일 했다. …

◎ 3월 25일 (음 2월 29일) 목요일 雲

敦植은 마루 송판을 대패질을 하고 木手아저씨는 문꼴을 드리였다. …

◎ 3월 26일 (음 2월 30일) 금요일

敦植은 오늘부터 증깃드리고 木手는 오늘도 종일 문꼴을 드리였다. …

◎ 3월 27일 (음 3월 1일) 토요일

… 오늘도 敦植은 증깃드리고 木手는 門꼴 드리였다. 종일 한 일이 건너방 문꼴과 뒤마루 분합문꼴과 대청뒤문꼴 드리였다.

◎ 3월 28일 (음 3월 2일) 일요일 晴雨

… 앞으로 木手일이 2, 3日이면 끝나지 않을까 한다.

◎ 3월 30일 (음 3월 4일) 화요일 晴

… 오늘은 敦植은 루마루 귀틀을 걸고 木手 아저씨는 소로를 만들었다.

◎ 3월 31일 (음 3월 5일) 수요일 晴

… 오늘은 木手도 종일 와 구루마루를 놓고 敦植은 증깃을 드리고 외을 일갔다. (….) 下午에 木手는 일이 끝나 計算을 해 주는데 내 生覺에 日常 仟원을 生覺했으나 800원식 계산하자고 하여 마지못해 800원식 32日分 一金 25,000원을 드리고 왕겨 40가마. 敦植은 16,200원을 주었다.

◎ 4월 8일 (음 3월 13일) 목요일 雨

… 농골 미장이와 天벽치든 것을 午前 中 발랐다. 午後엔 맛 벽칠 흠을 準備했다. 午後에 共和黨에서 왔다. …

◎ 5월 7일 (음 4월 13일) 금요일

… 校長과 會長 訪問. …

◎ 5월 13일 (음 4월 19일) 목요일 晴雷雨

木手일이 오늘 끝났다. 귀 마루를 종일 놓고 선반을 땀다. 木手일로 새 대문까지만 하였으면 完全이 끝날 것을. 夕飯을 마치고 일한 勞賃을 計算하여 드리였다. 一金 4,000원. (….) 木手아저씨는 越房에서 쉬시였다.

◎ 6월 2일 (음 5월 10일) 수요일

… 함석공이 왔으나 몇일만 연기하자고 해 보았다. …

◎ 6월 14일 (음 5월 22일) 월요일

함석공 오다. 來日 除草할 논 농꼴 논의 시비를 했다. 尿素 3包半, 復合 14-37-1包半가량 기언지였다. 함석일은 來日부터 하기로 했다.

◎ 6월 15일 (음 5월 23일) 화요일

… 나는 함석공이 있는데서 조역했다. …

◎ 6월 19일 (음 5월 27일) 토요일

午前 中에 來日 한 곳에 손 보고 함석일 하는 사람은 떠났다. 일품갑으로 재료 손해 17,200원 중 500원 못 주고 다 주었다. 함석 10장 3,300원, 찡쇠, 납, 노임 합해 17,200원이다. ...

◎ 8월 1일 (음 6월 11일) 일요일

... 오다가 中隊長이 술을 내고 나도 한잔 받고 오니 三溪에서 鞭雨, 然雨, 暗植, 眞植 등이 술을 마시고 있어 갈다가 술을 대접 받아(暗植으로부터) 나도 맥주 6병을 샀다. 오늘은 支出이 많다.

◎ 8월 20일 (음 6월 30일) 금요일

오늘은 니스을 칠하기 始作했다. 前面은 다 칠했다. 자세히 몰라 상고치는 사람을 불러 알아보았으나 시원치 못하다. ...

◎ 8월 27일 (음 7월 7일) 금요일

崔榮喜 議員 歸郡 報告次 來面. (...) 下午 二時에 新浦에 나가 郵遞局에 가 예금 一金 236원을 찾고 面에 가 도장을 찾고 나니 崔議員이 왔다. 崔議員은 其間의 國會의 狀況과 國內 國際政勢에 對해 이야기 했다.

◎ 9월 23일 (음 8월 5일) 목요일

食前부터 부슬부슬 가랑비가 오락가락 午後에 新浦에 나간다. 林野取得稅 件으로 面에 나가니 財務係가 없어 오다가 副面長을 만나 잘 해보겠으니 도장을 내 보내라고 했다.

◎ 9월 26일 (음 8월 8일) 일요일

... 永登浦 洞里 女人인데 꼬추 商人이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왔다. 朝飯을 같이 하고 洞里에서 꼬추 50餘斤을 사주었다. ...

1972년

◎ 1월 29일 (음 12월 15일) 토요일

... 朝飯床을 물리고 나니 도자가 왔다고 쓰겠느냐고 하여 쓰겠다고 하여 來日 오겠다고 한다. ...

◎ 2월 1일 (음 12월 18일) 화요일

... 10時頃에 도자 運轉士가 와 일을 하자고 하

여 約 1時間 땅을 골랐다. (...) (山林係에서) 午後에 도자 일 임금 18,000중 14,500원을 주었다. 3,500원이 나왔다.

◎ 2월 29일 (음 1월 15일) 화요일

... 校長이 찾는다고 하여 가 보니 會長과 같이 왔다. 술대접을 하고 같이 집에 와 있다가 해질 무렵에야 갈다. 잔치 손님은 거이 없고 面職員과 教會敎人뿐이다.

◎ 3월 10일 (음 1월 25일) 금요일

... 오후에 마실을 갈터니 택시가 와 누구인가 보니 金公〇와 金巡警, 朴書記 등이 와 海에 漂流屍體가 있다고 왔다. ...

◎ 4월 6일 (음 2월 23일) 목요일

썩고개 가다. (...) 西井里車을 三溪에 가 車에 몸을 싣고 동창의 다리에 가니 前夜에 다리가 끈어졌다. (...) 썩고개 가 申權雨氏을 찾았다. 前日 이번님과 契約한 담용 부력을 마쳤다. 58장 先契金으로 10,000원을 支拂하고 함석갑도 21,720원 중 20,000원을 주고 대문도 알아보고 왔다. ...

◎ 4월 11일 (음 2월 28일) 화요일

... 7時半 첫차로 西井里에 가 썩고개에 가서 權雨氏을 만나 함석갑 떨어진 것 2,600원을 權雨氏 주고 大門을 맞추고 契約金으로 一金 5,000원을 주고 문돌조기갑[문돌쩌귀 갑] 200원 주고 나무門 木材을 1,300원주고 점심 먹고 집에 왔다.

◎ 4월 17일 (음 3월 4일) 월요일

... 靑北 巡警 2名이 와 찾아 나가보니 석가래 해 온 것을 취재하여 술을 한 잔 대접하고 一金 2,000원을 주었으나 來日 新浦에 와 주라고 갈다. 매우 氣分 나쁘다. 한푼의 돈을 쪼개 쓰라고 하는 마음에 쓸데없이空돈이 들게 된다.

◎ 4월 18일 (음 3월 5일) 화요일

朝飯을 하고 高棧 里長인 柱植과 같이 新浦에 나가 兪巡警을 불러다가 맥주 몇 병과 一金 1,000원 주었다. ...

◎ 4월 20일 (음 3월 7일) 목요일

朝飯後에 高棧 가 木手아저씨 보고 일을 보아

달라고 하니 來日 오시겠다고 하여 집에 왔다. …

◎ 5월 22일 (음 4월 10일) 월요일

美匠人에게 5,000원 支拂.

◎ 6월 2일 (음 4월 21일) 금요일 晴

校監先生 訪問. …

◎ 6월 15일 (음 5월 5일) 목요일

… 下午에는 面 總務係長 職員 3명이 訪問하였다.

◎ 7월 11일 (음 6월 1일) 화요일

… 三溪에 갈다가 校長, 會長, 副會長, 田氏 등과 일리여 술을 지나치게 먹고 고생했다.

◎ 7월 26일 (음 6월 16일) 수요일 颶風

… 佳寺의 朴在淳君이 와 배추씨을 샀다.

◎ 9월 10일 (음 8월 3일) 일요일 晴

… 새끼을 꼬고 있으니 面書記가 와 오늘 새마을 指導者 教育 갈 날인데 어이 되느냐고 하여 나는 못가겠어 다른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고 하니 안 된다고 졸라댔다. …

◎ 10월 28일 (음 9월 22일) 토요일 晴

… 집에 오니 學校 先生들이 왔다 같다.

◎ 11월 5일 (음 9월 30일) 일요일 雲

食前に 새폴 聖雨가 와 自己 母親 祭祀가 前夜에 지내고 遞信部 監査官으로 있는 弟가 술대접을 한다고 오라고 해서 高棧에 같다. 이 사람 역시 維新憲法의 지기다[지지자다]. 모두 提憲하라는 홍보의 건이었다. …

◎ 11월 15일 (음 10월 10일) 수요일 雨

… 다시 우리 一行과 田榮基, 姜舜浩와 우리 집에 와 술을 대접하고 8時頃에 헤어지니 뒤이여 校長과 會長이 訪問했다. 우리는 밤 10시가 지나서야 헤어졌다.

◎ 11월 19일 (음 10월 14일) 일요일 晴

… 面長 支署長 靑北 新民黨 代表 등이 國民投票 弘報活動次 우리집에 訪問.

◎ 12월 6일 (음 11월 1일) 수요일

… 國民會議代議員立候補者 龍煥成 訪問, 點心 먹고 가다.

◎ 12월 7일 (음 11월 2일) 목요일 雨

食前に 面長으로 있던 閔正基氏가 訪問했다.

國民會議代議員 立候補人事次 朝飯後에 面에 들리었다가 重植과 만나 경려의 말을 나누고 있다가 下午에야 왔다. 立候補 3名中 閔正基氏가 가장 우세이다.

◎ 12월 12일 (음 11월 7일) 화요일

… 新浦에 新任會長 崔學鎔에게 人事次 面에 들리었다가 重植이 있는 곳에 들리니 方連植, 李元根, 전길중 등과 郡黨 鄭간사가 同席 中에 있으나 計劃없는 구수회의만들하고 있다. 新浦에서 金 校長과 같이 우리 집에 와 밤 11時頃에야 도라갔다.

1973년

◎ 1월 8일 (음 12월 4일) 월요일 晴

… 나도 거기 한 사람을 午前中 별일없이 시간을 보내고 午後엔 李敏泰와 前後坪을 一週, 部落 管理者를 相面 豫定이었으나 面에서 穀賣上 동료次 職員 4명이 왔다. …

◎ 1월 10일 (음 12월 6일) 수요일 晴

… 水村 가 申永浩 接線後 三溪에 와 校長에게서 책 2券 「民族의 底力」, 「繁榮의 구름다리」란 冊을 얻어 갖고 月谷 가 李益宰 前坪가서 申熙馥을 만나 부탁하고 後坪 가서 金鍾弟 집에 가 저녁을 먹고 귀가하니 8時다. …

◎ 1월 26일 (음 12월 22일) 금요일

… 늦게야 檢査員이 우리 벼 3畝을 2등을 맞았다. …

◎ 2월 9일 (음 1월 7일) 금요일 晴

… 卒業式을 끝내고 敏泰와 같이 술 한잔 같이 하고 卒業生父兄들이 先生들의 술을 대접하는데 나도 술 한잔사고 도라왔다. …

◎ 2월 10일 (음 1월 8일) 토요일 晴

… 下午에 李允鎔, 선전원 崔氏와 敏泰君이 왔다 같다. …

◎ 2월 14일 (음 1월 12일) 수요일 晴

西井里行. 九時 三拾分車로 들리라는 連락을

받고 新浦에 나가니 共和黨 黨職者들도 긴급 술
가 있다고 平澤에 가는데 同行하게 되어 우리
一行과 마주치니 눈치는 채이었다. ...

◎ 2월 23일 (음 1월 21일) 금요일 晴

... 理髮所에서 李敏泰를 만나니 우리 집에 珣
키칠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여 휘발유를 사갈고
오라고 하여 新浦에 가 휘발유店에 가니 없다고
하여 도라오니 지붕을 칠하다가 말았다. 점심을
먹고 珣키야는[페인트칠 하는 사람은] 가고 三溪
에 가 敏泰를 만나고 水村에 갔다. ...

◎ 3월 2일 (음 1월 28일) 금요일 晴

... 下午에 面書記가 와 前 里長이 辭表를 냈노
라고 날보고 面에서 추천하여 來日까지 履歷書
를 내달라고 하여 저녁에 洞會를 부치었다. ...

◎ 3월 12일 (음 2월 8일) 월요일

... 洞里人 半을 나누어 作業을 始作 오늘부터
양회사업을 始作했다. 敎雨氏家 앞 축대를 쌓았
다. 郡 새마을 指導課長과 副面長이 訪問했다. ...

◎ 3월 23일 (음 2월 19일) 금요일

... 面長 副面長 鄭總務 등을 데리고 점심을
먹고 철근 2몽치를 더 싣고 왔다. ...

◎ 3월 27일 (음 2월 23일) 화요일

아산만 수로 토지사용 승낙서의 건으로 面에
가 본 부락 농지 대장을 베껴 갖고[베껴갔고] 總
務係長인 鄭昌煥君이 점심을 대접받고 도라와
部落새마을 事業에 나갔다 오다가 담배갑 一金
500원을 매끼고 왔다.

◎ 4월 3일 (음 3월 1일) 화요일

... 朝飯後에는 새마을 사업의 對한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面에 나가 비닐에 對해 말하니 저녁
에나 가져가라고 하여 朴書記에게 東雨가에 운
반하라고 부탁하고 와 농꿀밭원뚝 지진 것을 파
냈다. ...

◎ 4월 6일 (음 3월 4일) 금요일

... 副面長을 비롯해서 朴書記 2名이 와 술을
대접했다.

◎ 4월 19일 (음 3월 17일) 목요일 晴

오늘 집에 있게 되어 집가리 등 家정 淨化作業

을 하랴고 집가리를 손질하니 朴先生과 會長이
와 술을 대접하고 나니 손님이 찾아와 오늘 계획
은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

◎ 4월 30일 (음 3월 28일) 월요일 晴

... 面職員이 왔기에 洞里에선 결사 反對하는 辭
表를 提出했다. 나로선 감당 할 수 없는 洞里이
다. 玉吉로 長利 나간 것이 不安하여 三溪 安祿
榮氏에게 食前에 갈더니 次後에 責任지고 받아
주겠으니 安心하고 도라가라고 하여 도라왔다.

◎ 5월 6일 (음 4월 4일) 일요일

... 午後에 柳巡警이 왔다가고 妻男이 와 長利
米 6畝를 달라고 졸라대며 형편이 돌지 않아 있
으니 얻어달라고 졸라대며 큰일이다. ...

◎ 6월 8일 (음 5월 8일) 금요일 晴

... 午鐘頃에 洪淳鎬재무계장과 담당이 와 점심
을 대접했다. ...

◎ 6월 23일 (음 5월 23일) 토요일 晴

李昶鎔君이 一金 7,000원을 갖고 와 交稅費로
써 面송아지를 求해 달라고 하여 우리 집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君이라 面에 나갔다. 總務係
鄭昌煥君을 데리고 나와 교제하니 되도록 하겠
노라고 하며 친구의 말이면 힘쓰겠다고 하여 술
을 대접하고 一金 5,000원을 주었다. ...

◎ 7월 14일 (음 6월 15일) 토요일 雲 쓰나귀

... 술과 점심을 대접하고 校長과 會長을 만나
술을 같이 하고 下午 늦게야 新浦에 나가 面에
들리어 高壓式 噴霧器를 한 台 더 얻어 놓고 鍾
萬君과 總務係長과 같이 술을 먹고 저녁에야 집
에 왔다.

◎ 7월 29일 (음 6월 30일) 일요일 晴

11시에 原木에서 祥明女中에서 자매결연 7週年
마지을 한다고 案内하여 갔다. 祥明女中校長을
비롯하여 職員 朝鮮日報社 기자 등이 오고 각
기관장 里長까지 案内하여 몇 里長이 왔다. ...

◎ 8월 7일 (음 7월 9일) 화요일

... 午前 8時半에 里長會를 開催. 參席者 里長
기관장 지도자 생활지도자. 퇴비 증산대회 後 폴
비기 大會. 약 1時間의 폴비기 大會가 끝난 後 點

心 먹고 指導 들러 2時半頃에 歸家. 指導所 職員 訪問 2名. 논 현지답사. 部落會 開催. 퇴비에서件.

◎ 8월 9일 (음 7월 11일) 목요일

… 本面 總務係長 父親이 도라가시여 오늘이 장일이다. 가정의례준축에 依하여 간소화 했으나 손님접대는 마찬가지로였다. …

◎ 8월 10일 (음 7월 12일) 금요일

後坪에서 메탄가스 점화식이 있다고 郡守任이 오시고 각계 人사가 오신다고 案内했으나 갈라고 하다가 苗板할 논 피사리를 하고 오니 시간이 늦어 못갔다. …

◎ 9월 2일 (음 8월 6일) 일요일

… 습라야 金基準 校長에 送別會와 運動會 件이었다. 金基準 校長은 郡장학사로 가게 되고 本校에는 여주에서 부임하게 된다. …

◎ 9월 6일 (음 8월 10일) 목요일

… 집에 오니 中隊長이 왔다가고 조금 있으니 조합에서 李서기가 와 술을 대접했다.

◎ 9월 8일 (음 8월 12일) 토요일

… 三德校長의 취임식에 늦게나마 참석하기로 가니 거의 헤어져가고 있다. 新就임 校長을 人似하고 술을 먹고 오니 저녁 먹게 되었다.

◎ 9월 29일 (음 9월 4일) 토요일

… 벼을 비는데 面 職員이 와 일의 지연이었다.

◎ 10월 3일 (음 9월 8일) 수요일

… 午後에 담당직원이 바뀌어 人使次 왔다. 李兵長 係長이 담당이다. 술을 대접했다.

◎ 10월 9일 (음 9월 14일) 화요일 晴

… 저녁엔 李書記가 왔다.

◎ 10월 10일 (음 9월 15일) 수요일 晴

… 저녁을 먹고 李書記가 高棧서 만나자고 하여 高棧갈다가 못 만나고 도라왔다.

◎ 11월 3일 (음 10월 9일) 토요일

… 里長이 작업 나갔다고 장려상을 주었다고 한다. 面長은 모범 里長이라고 경려도. 갈다와 농뽕 벼을 끄디리다.

◎ 11월 5일 (음 10월 11일) 월요일

… 일직 끄디리고 아는 벼을 손치고 할까 했더니 親友 鄭丟勳君과 申光秀君이 面일의 協議次 訪問했다. 李書記도 왔었다.

◎ 11월 9일 (음 10월 15일) 금요일

… 누가 찾아 나가보니 面長이 와 10시까지 만나자고 하여 다섯재祖家에서 朝飯을 하고 新浦에 가 面長을 만났다. 鍾植이 5級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는데 기재사항에 군인 제대라 써 합격취하는 面長이 잘했노라고 하며 面內 일을 協助하라고 하며 권위 里長들과 잘 의논하며 하자고 한다. …

◎ 11월 10일 (음 10월 16일) 토요일

… 鍾植의 5級 公務試驗에 합격은 했으나 병역 귀정에 잘못 기재하여 무마조로 面長에게 前하라고 一金 30,000원을 갈다 주었다. (….) 面長과 各 機關장과 술을 먹다가 2次로 옮겨 또 술을 먹게 되어 밤 12時頃에야 집에 왔다. …

◎ 11월 19일 (음 10월 25일) 월요일

… 朝飯後엔 新浦에 가 面長이 長利쌀 얻어달라고 했는데 못 얻겠다고 미투였더니 닥아 붙으니[달라붙으니] 딱한 사정이다. 종일 있다가 趙成三과 尹炳默이 面에 收得稅 件으로 왔다가 술을 받아 주어 下午 늦게야 왔다.

◎ 11월 27일 (음 11월 3일) 화요일

… 面長이 長利米을 얻어 달라고 하여 고심이다.

◎ 12월 4일 (음 11월 10일) 화요일 晴

… 우리 몇몇이 面長家の 응접셋트를 기증했다. 일인당 2,500원씩. 面長의 長利米 달라는 것은 해야겠는데 큰일이다. …

◎ 12월 5일 (음 11월 11일) 수요일 晴

… 面에 들러 연료대책 委員이라 一金 2,000원을 주었다. …

◎ 12월 10일 (음 11월 16일) 월요일 晴

… 面長이 보자고 하여 가 보니 앞으로 面의 運用面의 말이었다. 各 里長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 일을 해야겠는데, 姜鎔鎬같은 사람이 나가니 큰일이라며 날더러 마음에 맞는 里長들의 명단을 해오라고 나도 그만두어야겠는데 붙잡아

줄라대니 큰일이다.

◎ 12월 13일 (음 11월 19일) 목요일

… 下午에는 稻의 賣上으로 산업계장 호병계장 등이 와 점심과 술을 대접했다. …

◎ 12월 14일 (음 11월 20일) 금요일

식전 7時 30분에 차가 와 작인 몇몇이 車을 타고 安仲에 가 平澤까지 가자고 하여 平澤에 갔다. 돈 주는 鄭係長을 만나는 것이라 별 신통한 일이 못되었다. 鄭係長이야기가 20일에 安仲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그리 밋고 下午 늦게야 헛 거름으로 왔다.

◎ 12월 15일 (음 11월 21일) 토요일

… 李係長이 와 또 매상 동요를 같다 왔다.

◎ 12월 20일 (음 11월 26일) 목요일

今日 安仲에서 진흥공사 직원과 만나자는 날이다. …

◎ 12월 24일 (음 11월 30일) 월요일

金德壽堤防農路 擴張 工事に 議論하자고 面長이 오라하여 新浦에 갔었다. 安祿영君이 堤防의 돌을 주선하여 팔고 그 돈으로 하기로 覺書를 써 面長에 주고 우리는 立會人이 되었다. …

◎ 12월 30일 (음 12월 6일) 일요일

面長이 新浦에서 만나자고 하여 午前 中에 面에 가 面長을 만났다. 安祿榮氏가 德壽家 堤防의 石축을 팔아먹는 관계로 面長이 분개하여 安氏와 三溪 高棧 革命村 大谷 등 里長있는 자리에서 堤防을 확장해주고 대형 노강을 놓아 주기로 각서를 써놓고 우리 里長들의 立會下에 결정기로 하고 헤어졌다. …